

러시아지역 해외한인연구 Ⅱ

이 저서는 2011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
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한인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AKS-2011-ABC-110)

러시아지역 해외한인연구 II
- 러시아지역 한인의 이산과 정주

초판 1쇄 발행 2019년 5월 15일

편저자 | 홍응호 외

발행인 | 윤관백

발행처 |  **선인**

등록 | 제5-77호(1998.11.4)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다길 4(마포동 324-1) 꽃마루 B/D 1층

전화 | 02)718-6252 / 6257 팩스 | 02)718-6253

E-mail | sunin72@chol.com

Homepage | www.suninbook.com

정가 47,000원

ISBN 979-11-6068-270-0 94900

979-11-6068-268-7 (세트)

·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총서 4
동국대학교 인간과미래연구소 연구총서 2

러시아지역 해외한인연구 II

- 러시아지역 한인의 이산과 정주

홍응호 외 지음

소개의 글

‘러시아지역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는 2011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특정분야 기획연구 한인디아스포라연구’ 과제로 선정되어 5년 동안 러시아 지역 한인들의 디아스포라 형상을 구조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한인들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연구 사업이다.

고려인이라 불리는 러시아지역 한인들은 150여년의 디아스포라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이주지에서의 문화적 언어적 이질감과 소외감, 인종적, 문화적 타자로서의 격렬한 사회적 경험, ‘다름’에서 오는 소수자로의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이들의 정체성 혼란은 자신의 삶의 근거지인 현지에서 소수집단으로 정주국에 동화를 강요받거나 모국을 향한 시선이 벽에 부딪침으로 증폭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들의 궁극적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에 놓여 있다. 한편 우리는 러시아지역 한인들이 처한 현실이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그들이 겪은 삶의 고통을 아파하고, 그들을 가슴으로 끌어안으려고만 하는 동포애적 혈연주의로 일관해왔다. 따라서 고려인과 우리는 때로는 얼싸안고 울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도 한다. 이 연구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다. 러시아지역 한인들의 디아스포라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삶을 구조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5년의 연구는 러시아지역 한인들의 삶을 규정한 제정러시아, 소련,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각국의 한인정책 연구를 통한 공간적 시간적 규정성에서 출발한다. 이산과 정주의 역사적 과정, 그리고 러시아지역 한인이 현지인과의

6 러시아지역 해외한인연구 II

관계 속에서 교차하고 변용하는 삶과 문화의 형상을 밝혀 현재적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지역에 따라 다른 삶의 특수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 한인 디아스포라의 보편성에 접근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이 연구논문집은 전체 연구의 두 번째 과제의 공동연구 결과물이다.

디아스포라에 처한 인간이 한 지역으로 이주하고 정착하는 것은 현지 권력의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하지만 이주와 정착과정이 단순히 현지 권력의 정책대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에 대한 타협과 길항의 과정에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모색이 수반된다.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러시아 지역 한인 디아스포라에는 이러한 대응과 참여 및 모색의 과정이 두드러진다. 지금까지 국내외를 통해 한인의 러시아 이주와 정착과정을 그려낸 연구 성과들이 많이 생산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선구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지역을 체계적으로 아우르는 관점을 가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년차에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그동안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와 지역의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중흥으로 아울러 러시아지역 한인 이주와 정착 과정의 전체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래서 주제를 ‘러시아지역 한인의 이산과 정주 - 역사적 과정’으로 설정하고, 시기를 ‘이주’·‘정착’·‘재이산’으로 설정하여 공간과 시간을 교차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이를 종합적으로 고찰 할 수 있는 총 9편의 연구 결과물을 양산했다.

이 연구논문집에서는 러시아지역 한인 디아스포라를 규정하는 가장 큰 외부의 힘이었던 러시아의 한인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러시아지역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구조물을 형상화하는 전제가 될 것이다.

2019년

연구책임자 홍응호

목 차

소개의 글 / 5

1부: 이주(1863~1937) 시기 러시아지역 한인의 이산과 정주

한인의 극동 이주와 한인마을의 형성 : 수청(水淸) 지역을 중심으로 _반병률	15
1. 머리말	15
2. 제정러시아 시기	16
3. 러시아혁명 이후 시기	33
4. 맺음말	41
러시아혁명과 연해주해방전쟁 그리고 한인 _윤상원	43
1. 머리말	43
2. 연해주해방전쟁과 대한의용군	44
3. 한인부대의 활약과 연해주해방전쟁의 종결	63
4. 나오며	76
내전 후 연해주에서 사회주의 건설과 한인 _윤상원	79
1. 머리말	79
2. 내전의 종결과 한인 빨치산부대의 해산	81
3. 연해주 한인들의 사회주의 건설로의 진화	87
4. 내전 후 연해주 한인사회 정치지형의 변화	101
5. 맺음말	103

2부: 정책(1937~1991) 시기 러시아지역 한인의 이산과 정주

■ 강제이주 직후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 _홍응호	109
1. 머리말	109
2. 콜호즈	112
3. 학교	120
4. 고려극장	126
5. 문화	132
6. 맺음말	137
■ 소련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중앙아시아 고려인 콜호즈들의 역할 (1937~1991) _명 드미트리	139
1. 들어가는 말	139
2.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콜호즈의 발전	142
3. 카자흐스탄의 경제 발전에서 고려인 콜호즈의 역할	155
4. 노동군대 내 고려인들	168
5. 생존수단으로써의 고려인 '고분질'	171
6. 결론	174
■ 소련 한인 가족의 사회화 (1937~1991) _송 잔나	179
1. 들어가는 말	179
2. 소련에서의 한인가족의 사회화 (1937~1938)	186
3. 결론	216

3부: 재이산(1991~현재) 시기 러시아지역 한인의 이산과 정주

독립국가연합에서 고려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을 중심으로 _한 발레리	221
1. 들어가며	221
2. 1989년 경제부문에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현황	222
3. 고려인이 우즈베키스탄 농업 발전에 끼친 공헌	223
4. 고려인이 공업, 금융업 및 다른 경제 부문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	226
5. 학문, 교육, 문화	227
6. 스포츠	229
7. 국가권력 기관	231
8. 선거에 앞서	232

오늘날 극동 러시아의 한인 디아스포라	
: 발전 상황과 경향 _트로야코바	237
1. 들어가며	237
2. 한인 디아스포라의 특징	238
3. 용어의 선택 : 러시아 한인 또는 러시아어권 한인	245
4. 연해주 언론 보도에서의 한인 디아스포라	247
5. 결론	254

20~21세기 아시아 방면 러시아의 한인	
: 이주와 사회·문화적 위상의 특수성(서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 변방)	
_보이코	259
1. 알타이의 한인들	263
2. 노보시비르스크의 한인들	270
3. 톰스크의 한인들	274

10 러시아지역 해외한인연구 II

4. 크라스노야르스크의 한인들	275
5. 결론	276

■ 러시아의 새로운 구상 속의 한인 : 정치, 이념, 실천 _부가이	279
---------------------------------------	-----

러시아어

РОЛЬ КОРЕЙСКИХ КОЛХОЗО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СОЦИАЛИЗМА В СССР (1937~1991 гг.)

_Мен Дмитрий 301

1. Введение	301
2. Развитие корейских колхозов в Узбекистане	306
3. Роль корейских колхозов в 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Казахстана	324
4. Корейцы в трудовой армии	342
5. Гобонди корейцев как средство выживания	347
6. Заключение	350

Принятые обозначения и сокращения

Социализация корейской семьи в СССР (1937~1991) _Сон Жанна 357

1. Введение	357
2. Социализация корейской семьи в СССР (1937~1938)	367
3. Заключение	406

**Социальный статус и роль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в СНГ
(на примере корейцев Узбекистана) _Хан Валерий 411**

1. Введение 411
2. Распредел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Узбекистана по отраслям труда в 1989 г 412
3. Вклад корейцев в развити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Узбекистана 414
4. Вклад корейцев в развитие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финансовой и других сфер экономики 417
5. Наука, образование и культура 419
6. Спорт 420
7. Орга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423
8. Перед выбором 425

Современная диаспора корейцев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 состояние и тенденции развития _Тамара Троякова 431

1. Особ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432
2. Выбор терминологии : российские или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цы 444
3.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446
4. Заключение 456

Корейцы в Азиатской России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X – начале XXI веков. : особенности рассел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 культурного статуса (Западная Сибирь, Красноярский край)

_Владимир Бойко 461

1. Корейцы на Алтае 466
2. Корейцы Новосибирска 477

12 러시아지역 해외한인연구 II

3. Корейцы Томска	482
4. Корейцы Красноярска	484
5. Заключение	485
Корейцы в новом формате России	
 : политика, идеология, практика _Николай Бугай	487

1부:

이주(1863~1937) 시기
러시아지역 한인의 이산과 정주

한인의 극동 이주와 한인마을의 형성 : 수청(水淸) 지역을 중심으로

반병률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러시아연해주 지방에서 산악지대이며 한인거주민들 가운데 빈농과 고용농민이 대부분이었던 수청지방의 한인마을의 형성과정과 변화를 다루었다. 토지가 비옥하고 광활하여 부농이 많아 ‘추풍4사’로 불렸던 4개의 부호원호촌이 위치했던 추풍지역이나, 한인이 90%가 훨씬 넘었던 연해주 남단의 연추지방에 비하여, 수청지방은 토지는 비옥하나 기온이 낮아 농사에 적합지 않은 산악지대였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국적을 가진 원호촌들이 대부분이었던 추풍지역이나 연추지역과 달리 수청지역은 원호촌이 2~3개에 불과했고, 여호촌이 절대적으로 많았던 지역이었다. 보다 중요하게는 이른바 러시아인들의 ‘대러시아 민족주의’와 고려인에 대한 민족차별이 유난히 심했던 지역이기도 했다. 이러한 지역적 특징으로 인하여 전면적 집단화 이후 수청지방의 고려인농촌사

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첨예하게 대두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신영거우(신영동, 니콜라예프카) 마을을 비롯한 수청지역 초기 한인마을들의 형성과정과 1900년대, 1910년대 그리고 특히 러시아혁명 이후 시베리아내전시기의 수청지방의 상황을 추적하였다.

2. 제정러시아 시기

수청지방은 한자(漢字)로 ‘수청(水淸)’ 또는 ‘소성(蘇城)’으로 표기했고, 러시아어로 ‘Сучан’(Suchan, 수찬)이라 한 것은 중국어 발음에 의존한 것이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기에 한인들은 대개 ‘수청’ 또는 ‘소성’이라고 했고, 요즘의 고려인들은 ‘빠르찌산스크(Партижанск)’로 바뀐 행정명칭을 쓰고 있지만, 고려인역사와 관련하여서는 ‘수찬’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어원상으로 ‘힘차게 흐르는 모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¹⁾ 아마도 ‘힘차게 흐르는’ 수청강(水淸江, 현재의 Partizansk강)에서 비롯된 듯하다. 동북쪽으로 길게 뻗은 시호테 알린(Sikhote Alin) 산맥 계곡에서 시작된 수청강은 북에서 남쪽으로 흘러 ‘수청해(水淸海)라고 불렀던 연해주 동남해안의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강의 명칭뿐만 아니라 나훗트카 아메리카만의 수청곶(岬), 수청산, 수청시(市) 등에서처럼 다양한 지명에 쓰여지고 있다.²⁾

수청지방이라 하면 이보다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지명으로 사용되었다. 즉, 수청은 러시아연해주의 동부(東部) 해안일대를 지칭하는데, 제정러시아 시기에 한인들은 수청지방을 외(外)수청, 내(內)수청, 소자하(蘇子河 또는 水

¹⁾ F.V. Solov'ev, *Slovar' Kitaiskikh toponimov na territorii Sovetskogo Dal'nego Vostoka*, Vladivostok, 1975, p.105.

²⁾ F.V. Solov'ev, *Slovar' Kitaiskikh toponimov na territorii Sovetskogo Dal'nego Vostoka*, p.105.

州河, Sudzukhe), 도비허(島飛河, 아누치노)의 4구역으로 나누었다. 수청지방의 중심에 해당하는 내수청은 연해주 내륙지방에서 남쪽의 아메리카만으로 흘러들어가는 수청강(Suchan, 현재의 Partizanskaia강) 계곡 분지일대를 일컬으며, 외수청은 내수청의 서쪽에 위치하고 우수리만(블라디보스토크 동편)으로 흘러들어가는 마이허강(Maikhe, 현재의 Artemnovka강)과 치무허강(Timukhe강, 현재의 Shkotovka강) 계곡의 분지 일대를 말한다. 소자하 지방은 내수청의 동쪽에 위치하여, 소자하강(Sudzukhe, 현재의 Kievka강) 계곡 분지 일대를 말하며, 도비허는 아무르강의 남쪽 지류인 우수리강의 상류지류인 다우비허강(Daubikhe, 현재의 Arsen'evka강) 계곡 분지 일대, 즉 남부 연해주의 내륙지방을 말한다. 이 글에서는 도비허(아누치노)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구역에 한정하였다.³⁾

수청지역에 형성된 최초의 한인마을은 1868년에 형성된 신영거우(新英溝, 新英洞 Nikolaevka, Nikol'skoe)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신히(地新墟, Tizinkhe), 안치허(煙秋 延秋, Ianchikhe), 시지미(Sidimi) 등과 함께 한인이주 초기에 형성된 한인마을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동포들은 오랫동안 ‘신영거우’ 또는 ‘신영동’으로 불렀다. 이 글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영거우’로 하였는데, 이 마을 출신들이 다수를 형성했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의 유명한 고려인폴호즈 ‘스베르들로프(Sverdlov)’의 속칭으로서 고려인들 사이에 오랫동안 ‘신영거우(Синёнгоу)’라는 이름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1. 러시아연해주 초기 한인마을의 형성시기

한인마을 명칭	형성시기(1)	형성시기(2)	비고
지신히	1864	1864	
안치허 (연추)	1867	1864	상, 하
시지미	1867	1867	상, 하
니콜라예프카	1868	-	新英溝, 新英洞

3) 「水淸紅衣賊亂實記 (1)」 『獨立新聞』 1923년 1월 17일자 3면.

18 러시아지역 해외한인연구 II

바라노브카	1869	1869	
파타쉬(바도쇠)	1871		
블라고슬로벤노예	-	1871	사만리
아지미	1872	-	상, 하
블라디보스토크(해삼위)	-	1874	구개척리
나고르나야(누블뫼)	1875	1875	와봉
흑정자(나선동)	1875	1875	
크라스노 셀로)	1875	1875	(2)鹿島 또는 鹿屯島
부르시예	1878	-	
자레치예	1880	-	
랴자노브카	1880	-	
페스차나야	1884	-	
크라베	-	-	
크레르키	1884	-	
암바-비라	1884	-	
수하노브카(남석동)	1885	1884	
케드로바야 빠지	-	-	
멍구가이(멍고개)	1885	-	孟嶺, 멩고개
로마노브카(다우비허)	-	1883	都兵河
카자케비체바	-	-	
수청(청지동)	-	1896	(2)水淸의 淸支洞
푸칠로브카(육성)	1869	1869	六城
소왕령(송황령)	-	1870	니콜스크-우수리스크
코르사코프카(허커우)	1872	-	河口
크로우노브카(황커우)	1872	-	黃口
시넬리니코보(대전자)	1872	-	
오시포프카	-	-	아래농평
다우지미	1888년경	-	大烏吉密
안드레예브카	-	-	

- (1) Trudy Priamurskago Otdela Imperatorskago Russkago Geograficheskago Obshchestva, I, Khavarovsk, 1895, pp.7~13.
 (2) 뒤바보, 『俄領實記』 『獨立新聞』 1920년 3월 1일자 8면, 3월 4일자 3면.

신영거우에 관하여는 1880년대에 조선정부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수청지역을 방문하여 조사하여 신영거우 마을의 연원을 자세히 조사해 작성한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즉, 1882년경과 1885년경 두 차례에 걸쳐 연해주를 다녀온 바 있는 김광훈(金光薰)과 신선욱(申先郁)이 1882년 말 또는 1883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江左輿地記』가 바로 그것인데,⁴⁾ 이들은 수청 즉 소성(蘇城)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던 것이다.

소성(蘇城)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부터 동쪽으로 화륜선을 타고 1일 정도를 가면 소성(蘇城)이 있다. 이 역시 송황영(宋皇營)으로부터 정동(正東)방향으로 6백리 거리에 있다. 대개 바다에 접해 있는 곳으로 남북으로 수백여리 동서로 수삼십리에 걸쳐있다. 토양은 전후(腆厚)하며 여러 가지 물산들이 이 곳에서 나온다. 강은 남으로 흘러들어가는데 열린 항구는 절묘(絶妙)하다.⁵⁾

김광훈과 신성옥은 『아국여지도(俄國輿地圖)』에서 수청(소성)에 자리 잡고 있던 한인마을의 형성배경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소성(蘇城) 아민촌(我民村)

[이들인 기사(己巳) 경오(庚午)년(1869-70)년을 추풍(秋豐)으로부터 이곳으로 전입(轉入)하여 왔는데, 호인(胡人) 4,5백호가 살고 있는데, 아인(阿人)이 장차 우리 동포들에게 해(害)를 줄 것을 우려하여 호인들을 모두 구축하고 우리 동포들을 보호하여 큰 영(營)을 설치하고 둔병을 주둔시켜 수호하였다. 토성이 있는데, 전부터 청인과 아인이 흘러들어와 주변에서 그 토성(土城)을 취하였는데 토지가 비옥하여 들어가 살면 쥐가 기이하게 들어와 자연히 집을 훼손하고 사람을 쫓아내어 성밖으로 내치게 되는 고로신(神)이라도 감히 들어가 살 수 없는 즉, 우리동포가 이주해온 후에 안연(晏然)하게 들어가 살게 되니, 청인과 아인이 말하기를, 하늘이 정해준 거처라 했던 것이다.⁶⁾

4) 신승권은 해제에서 『江左輿地記』는 1882년말 1883년에, 『俄國輿地圖』는 1885년 말 1886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신승권, 「解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江北日記·江左輿地記·俄國輿地圖』, 1994, 48쪽 참조).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江北日記·江左輿地記·俄國輿地圖』, 154쪽.

여기에서 말하는 아민촌(我民村)은 신영거우를 말한다. 신영거우는 수찬강을 사이에 두고 석탄갱(石炭坑)의 소재지[이전의 수청, 현재의 빨찌산스크시]와 맞보고 강의 동편 대안에 위치에 있었는데,⁷⁾ 동쪽 산계곡에서 수찬강[현재의 빨찌산스크강]으로 흘러들어오는 신영거우 계곡의 분지를 따라 형성된 한인마을이다. 신영거우 마을을 개척하게 되는 최초의 한인이주민들이 거처를 잡았다고 하는 토성(土城)은 러시아학계에서 ‘니콜라예프카성’이라 명명한 발해성터이다. 당시 김광훈과 신성옥은 “둘레가 수삼십리이며, 산을(山巒)로 사(4)면을 막았는데 병풍같은 수목들이 연이어 열을 지어 있다. 처음 만들어진 때를 미루어 생각하면, 몇 백년인지 알 수 없으나 성안의 토지는 투텝고 평탄하다.”고 기록했다.⁸⁾ 발해성터에 자리를 잡은 첫 한인이주민들은 함경도 국경지방에서 지신허마을로 왔다가 추풍(秋豊, Suifen)을 거쳐 이주해온 이주민들이었다.⁹⁾

신영거우는 원래 석인동(石人洞)이라고 불렸던 곳인데, 후일 이 마을을 개척한 김공심(金公心)의 러시아 이름 ‘니콜라이(Nikolai)’에서 따온 ‘니콜라예프카(Nikolaevka)’라는 러시아식 마을명칭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¹⁰⁾ 김광훈과 신성옥이 이 곳을 방문하였던 1880년대 전반기에 이 ‘소성(蘇城) ‘아민촌(我民村)’에는 38가호 263명이 거주하고 있었다.¹¹⁾ 신영동(니콜라예프카)는 수청지방에서 1864년에 형성된 두 개의 러시아마을인 블라디미로브카 마을(Vladimirovka)과 알렉산드로브카 마을(Aleksandrovka)[이 두 마을은 합쳐서 블라디미로-알렉산드로브카 마을로 통합됨]에 이어 세 번째로 형성된 마을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江北日記·江左輿地記·俄國輿地圖』, 185쪽.

7) 「韓人會의 組織變更에 관한 件」(1926년 9월 3일자),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日本外務省史料館 所藏) 16권(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江北日記·江左輿地記·俄國輿地圖』, 154쪽.

9) 위의 책, 185쪽.

10) 「韓人會의 組織變更에 관한 件」(1926년 9월 3일자),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日本外務省史料館 所藏) 16권(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江北日記·江左輿地記·俄國輿地圖』, 169쪽.

이다.¹²⁾ 한편, 계봉우는 「俄領實記」에서 1896년 3월 1일에 김광성(金光成), 김경오(金景五) 두 사람이 청지동(靑枝洞)¹³⁾을 개척한 것을 최초의 수청 개척이라고 기록했다.¹⁴⁾

신영거우에 대한 한국측의 기록은 이보다 약 10년 후인 1895년에 출간된 러시아황실지리학회 조사보고서의 내용과 대체로 부합된다. 이에 따르면, 신영거우는 1868년 조선으로부터 이주해온 다섯 가구에 의해서 개척되었다. 이들은 처음에 수청강과 신영거우강을 끼고 들어서 있는 정방형의 고성(古城, 발해성터)안에 거처를 잡았다. 발해성터는 폭과 길이가 각각 2베르스타(약 2킬로미터)인데, 아주 잘 보존되어 있었다. 1895년 당시 성터 안에는 여덟 가호가 울타리로 둘러싸인 마당이 있는 크고 훌륭한 집에 살고 있었다.¹⁵⁾

신영거우 마을은 동쪽 산계곡에서 수찬강으로 흘러내리는 신영거우강(新英溝) 계곡에 분포되어 있고, 수찬강을 사이에 끼고 석탄광(오늘날의 빨찌산스크, 종전의 수찬)의 건너편에 위치하였다.¹⁶⁾ 러시아마을인 노비츠크예(Novitskoe) 마을로부터 6베르스타(약 6.1킬로미터), 홀로로브카(Florovka) 마을로부터 15베르스타(약 17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다. 1895년 당시 신영거우에는 제1범주(1884년 이전 이주)에 속하는 30가호, 제2범주(1884년 이후 이주해와 정착한 자) 21가호, 제3범주(일시체류자) 3가호, 총54가호가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신영거우 주민들은 주로 밀, 귀리, 콩, 야채, 기타 곡류들을

12) *Suchanskii Ruchnik : Dokumenty Materialy*, Vladivostok, Informatsionno-reklamanoe Agenstvo 'Komsomolka DV', 2002, pp.5-6.

13) 청지동에 해당하는 러시아촌은 예카제리노브카(Ekaterinovka)마을이다. 예카제리노브카는 1885년에 형성되었다. (*Rospisanie Uchastkov' Kresc'ianskikh' Nachal'nikov'*, p.100).

14) 뒤바보, 「俄領實記」 『獨立新聞』 1920년 3월 4일자 3면.

15) *Trudy Priamurskago Otdela Imperatorskago Russkago Geograficheskago Obshchestva*, I, Khavarovsk, 1895, p.11.

16) 「韓人會의 組織變更에 관한 件」(1926년 9월 3일자),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の部 在西北利亞』(日本外務省史料館 所藏) 16권(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농사지었고, 일부 주민들은 사냥이나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토지는 분배된 상태가 아니었고 능력대로 경작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30테샤친까지 경작하는 사람도 있었다. 신영거우 주민들의 생활은 윤택했다고 한다. 촌장인 김니콜라이는 서기를 겸하였는데, 봉급은 1년에 40루블을 받았다. 신영거우에는 한인한교가 있었는데, 교사 한 명이 10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 교사는 조선에서 온 비입적 여호(餘戶)였다. 주민들은 러시아학교가 있는 블라지미로-알렉산드로브스코예(큰영, 大營)로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했지만, 자리가 없어 보내지 못했다. 신영거우 주민들은 근처의 러시아마을과 일상적으로 교류하고 있었던 탓에 포시예트(Pos'et) 구역의 한인들보다 훨씬 더 러시아화되어 있었고 러시아어를 잘 구사했다고 한다.¹⁷⁾

신영거우는 1895년 당시 연해주 일대에 형성되어 있던 총 32개 마을 가운데 하나로써 이들과 마찬가지로 잘 알려진 원호촌이 된다.[이들 32개 마을의 명단은 표1 참조] 이들 한인마을 가운데 31개 마을이 다른 러시아농민들과 마찬가지로 남부 우수리스크 관구(管區) 책임자의 관할에 속했다.[중심지는 니콜스코예]. 이 가운데 22개 한인마을이 포시예트 구역의 자치적 지위를 가진 안치허면(面, 볼로스치)에 소속되어 있었다.[면사무소는 안치허에, 경찰서는 노보키예프스쿠에 위치]. 4개 마을은 수이푼 구역의 역시 자치적 지위를 가진 코르사코프카 면(면사무소는 코르사코프카 마을, 경찰서는 라즈돌리노예)에 속해 있었다. 2개 마을은 상(上) 우수리스크 구역에 위치에 있었는데, 러시아마을인 이바노브스코예 면에 소속되어 있었다.[면사무소 이바노브스코예 마을에, 경찰서는 아누치노에 위치].¹⁸⁾ 마지막 한 개 마을인 오시포브카(Osipovka) 마을은 소피스크 관구의 제1구역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하바로

17) *Trudy Priamurskogo Ordela Imperatorskago Russkago Geograficheskago Obshchestva*, I, Khabarovsk, 1895, pp.10~11.

18) *Trudy Priamurskogo Ordela Imperatorskago Russkago Geograficheskago Obshchestva*, I, p.4, pp.10~11.

보스크 한인시구역 관청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들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한인들 외에 블라디보스토크의 “쿠프페로바 빠지”(舊개척리), 니콜스코예 마을과 그 주변, 그리고 하바로브스크시에도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¹⁹⁾

1895년 당시 수청 지역에는 신영거우를 포함하여 3개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내수청에 위치하고 있던 2개 마을인 니콜라예프카 마을[Nikolaevka, 신영거우 또는 신영동과 다우지미 마을(大烏吉密은 수찬면(面, 볼로스치)에 소속되어 있었고, 면사무소와 경찰서가 블라지미로-알렉산드로브스코예에 위치함], 다른 한 마을인 안드레예브카(Andreevka) 마을은 외수청의 치무허 면사무소 슈코토보 마을에 속해 있었다.²⁰⁾

다우지미 마을은 블라디보스토크의 동쪽에 위치한 보스토크(Vostok)만(灣)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그마한 다우지미(大烏吉密)강 하곡으로부터 10베르스타(10킬로미터) 가량 거슬러 올라간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다.²¹⁾ 러시아마을인 블라지미로-알렉산드로브스코예(당시 수찬구역의 행정중심지)로부터 20베르스타(21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다우지미 마을에는 1895년 당시 총 24가호의 한인농민들이 거주했다. 다우지미 주민들은 7년 전에 예카테리노브카(Ekaterinovka)로부터 옮겨왔는데, 러시아이주민들이 이주해온 때문에 이미 개간해 놓았던 땅을 이들에게 넘겨주어야 했던 것이다.²²⁾ 다우지미로부터 5베르스타(약 5킬로미터) 떨어진 스베찬(Svechan) 마을(한인들은 십여촌이라고 쓰기도 했다.)은 다우지미보다 많은 39가호가 밀집해 거주하고 있었다. 1895년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우지미와 스베찬 마을의 한인주민들은 신

19) *Trudy Priamurskago Otdela Imperatorskago Russkago Geograficheskago Obshchestva*, I, p.13.

20) *Trudy Priamurskago Otdela Imperatorskago Russkago Geograficheskago Obshchestva*, I, p.4.

21) 「韓人會의 組織變更에 관한 件」(1926년 9월 3일자),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の部 在西比利亞』(日本外務省史料館 所藏) 16권(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22) *Trudy Priamurskago Otdela Imperatorskago Russkago Geograficheskago Obshchestva*, I, p.11.

영거우 주민들에 비하여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토지측량위원회 또 다시 다우지미 주민들에게 100 데샤친 이상의 개간한 토지를 노볼리토브스카(Novolitovska) 마을의 러시아농민들에게 넘겨주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다우지미 마을 주민들 가운데는 개간한 땅 1 데샤친조차 갖고 있지 않은 이들도 생기게 되어 다시 황무지를 찾아 힘들게 개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졌다. 이들이 재배하고 있던 곡물은 밀, 조, 귀리 등이었다.²³⁾

안드레예브카 마을은 외수청이라 불렀던 수찬 구역의 치무허(Tsemukhe) 면(面)에 속해 있었는데, 마이허(Maikhe)강의 계곡을 따라 자리 잡고 있었다. 안드레예브카 마을에는 제1범주의 17가호, 제2범주의 5가호 총 22가호의 한인농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안드레예프카 마을의 한인들은 신영거우나 다우지미 마을의 농민들처럼 고립된 생활을 하였는데, 러시아화의 정도가 낮고 관청에 갈 때마다 러시아의상을 입는 정도였다. 선교사의 활동이나 교회나 학교도 없어 오래된 관습과 풍속이 다른 곳에 비하여 많이 보존되어있는 편이다.²⁴⁾

이상에 소개한 내용은 러시아황실지리학회의 보고서에 기록된 정보이지만, 시기가 앞선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아국여지도(俄國輿地圖)』에는 마이허 일대에 총 57가호 362명의 한인농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²⁵⁾

러시아당국이 조사하여 1906~7년에 작성한 지도를 보면 신영거우와 다우지미, 시베찬, 안드레예브카에 더하여 규모가 큰 한인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었다. 한인 인구를 보면, 순수 한인마을인 신영거우(390명), 다우지미(776명) 외에 흐멜니치카야(Khmel'nichikaia, 288명), 카잔카(Kazanka, 200명), 노보치

23) 위와 같음.

24) 위와 같음.

2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江北日記·江左輿地記·俄國輿地圖』, 1994, 169쪽. 여기에서는 마이허강을 馬有河로 기록하였다.

코예(Novotskoe, 350명), 페리치노(Peretino), 블라지미로-알렉산드로브스코예(큰영, 164명), 예카리노브카(186명), 두쉬키나(Dushkina, 160명), 자임 블라디 보스코스코보-아르힐레야(450명) 등으로 한인인구가 급증해 있음을 알 수 있다.²⁶⁾ 1909년 당시 수청지방에는 대략 한인 3천호가 거주하고 있었다.²⁷⁾

1910년 무렵 신영거우에 거주하며 미주의 공립협회, 국민회와 연락을 갖고 한인사회의 조직과 사회운동에 종사하고 있던 박영갑은 미주 국민회중앙 총회 기관지인 『新韓民報』에 4회에 걸쳐 수청과 그곳 한인마을들에 관한 글을 기고하였다. 먼저 수청지역에 대해 지리적인 개관을 한 뒤, 당지에 거주하고 있던 러시아인, 중국인 그리고 한인동포의 사정을 개괄했다.

수청은 오소레우수리 동남단이니 동서가 8백리쯤 되고 남북이 3백리에 지나며 동서남북면은 해(海)에 임(臨)하고 북은 대륙을 연(連)하여 반도의 지형을 가졌으며 그 중에 산이 많고 들이 적으나 몇백년 이래로 인적이 단절함에 자연적 비료가 많은 고로 40년래로 비료를 더하지 않아도 곡식이 잘 되나 기후가 한국과 같지 못하여 벼를 심지 못하며 산림은 많되 과목(果木)은 없으며 해수의 온도가 고르지 못하여 산물이 적을 뿐 아니라 그 감미(甘味)도 한국 어물만 같지 못하며 광산은 석탄뿐이요 인종은 토인(土人)과 아인(俄人)과 한인과 청인(淸人) 사족(四族)이 섞여 사니 토인은 이 좋은 강산을 남에게 내어 주고 자멸(自滅)자멸(自滅)하야 그림자를 다시 볼 수 없으며 아인은 남에 강산에 들어와 자유생활과 태평(太平)복락을 누리며 한인은 3천리의 금구옥토(金丘沃土)를 원수에게 내어주고 외국영지로 유리하야 우매(牛馬)의 학대를 감수하며 청인은 천지를 분변(分畛)치 못하고 잡기와 아편으로 몸을 버리는 자와 아인과 한인의 부락(夫)마다 상점을 열어 흥販(興販)謀利하는 자와 그 외에 무뢰배가 성군(成群)하야 겁인탈재(怯人奪財)

26) P.F. Unterberger, "Karta Primorskoj Oblasti : Iuzhno-Ussuriskago Kariia", *Priamurskii kraj, 1906-10 gg.* St. Petersburg, V.F. Kirshbauma, 1912, Appendix.

27) 「잡보 수청통신」 『大東共報』 1909년 5월 12일자 3면.

하는 악풍이 무소부지하며 거처로 말하면 아인은 화려양속에 누워먹으며 한청 양인은 피차 흡사하나 청인은 농업을 힘쓰는 자 적으며 한인은 모다 농업에 전력할 뿐이더라. 경오(庚午-1870년)부터 40년 전내에 한인의 호수가 증가하여 지금은 호수가 근 천여호이며 인구는 만여 명이라 그러나 거처(居處)에 자유가 없고 농주(農主)의 명령을 따라 이 골짜 저 골짜 숨어 살지 않는 곳이 없고 동서사방에 편만(遍滿)하였으나 완전한 동학(洞壑)을 이루고 사는 곳은 별로 없다.²⁸⁾[어투를 현대어로 수정하였고, 한자는 필자가 덧붙임]

박영갑의 글에 따르면, 한인들은 석탄광의 노동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토지가 없는 비입적 여호인들로서, 여호촌에 거주하면서 러시아인들이나 원호들의 토지를 소작하고 경작권도 보장받지 못했던 궁핍한 빈농들이었다. 이와 달리 토지를 가진 원호인들이 개척한 마을들로 '원호촌'이었던 신영거우와 다우지마-십여(스베찬, 시베창)촌에는 실제로는 원호보다 이들의 토지를 소작하던 여호의 수가 더 많았다. 이 세 마을은 1895년 러시아황실지리학회 보고서에서 소개된 신영거우와 다우지마-스베찬(시베창) 마을이다.

신영동

이 곳은 동남으로 태산이 병치(併置)하고 서남간으로 해문(海門)을 멀리 바라보며 사방 10리의 평원을 이루는 동구(洞口)라 입적 한인의 호수가 35인데 매호에 15일경의 농토가 있으며 갈 곳 없는 한인이 모여 들어 100여 호의 대촌을 이루었으며 청인(淸人)의 상점 두 곳이 있어 이권을 장악할 뿐 아니라 개척이래로 청인과 잡거하여 부패한 풍속의 침염(浸染)치 않은 바가 없고 일반권리를 양여(讓與)치 아니함이 없었으며 건국기원 4241년 [1908]에 신영학교의 창설이 있었으나 4,5삭(朔)에 불과하여 폐학(廢學)이 되었던니 금년(淸曆) 5五月부터 합성학교의 중흥이 있어 상오에는 아어(俄語)

28) 박영갑, 「俄領 烏蘇里水淸略論」 『新韓民報』 1910년 7월 13일자 2면.

와 하오에는 국문으로 교수하며 지방회원수는 80여인에 달하였더라.²⁹⁾(현대어로 수정, 한자(漢字)는 필자가 덧붙임)

우지미-십여촌

상거(相距)가 10리. 이 두 곳은 동남북으로 산이 둘러고 서(西)으로 해문(海門)이 열린-소고원(小高原)을 이룬 곳이며 입적한인의 호수가 53인데 매 호에 15日耕의 농토(山水土石을 승)가 있어 직곡(稷穀)을 심으며 그 여호(餘戶)(不入籍者)가 모여들어 수백여 호의 동구(洞口)를 이루고 편농으로 위업하며 일찍부터 아귀(俄國)관립학교에 교육이 있었으며 민심의 특이한 바는 청인을 들이지 아니하며 서으로 25리쯤 가면 해삼위로 통행하는 포구 '천이혜'가 있고 동으로 큰영을 통하는 체신까지 있더라 우지미에는 음력 작년 8월에 지방회가 설립되어 회원수가 80여인이며 십여촌에는 동년 12월에 지방회가 설립되어 회원수가 40인에 달하였으며 지금까지 공동실업기관이 없는 것은 한 가지 흠결한 일이더라.³⁰⁾(현대어로 수정, 한자(漢字)는 필자가 덧붙임).

1868년에 개척된 신영거우가 1910년에 이르러 100여호의 한인들이 사는 대촌으로 성장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영거우에는 15데샤친(15日耕)씩의 토지를 소유한 35호의 원호(입적한인)과 65호가 넘는 여호인들이 살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원호와 여호 외에 중국인(淸人)이 상권(商權)을 장악하여 한인들의 권리를 심하게 침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다우지미-십여촌의 경우, 토지 15 데샤친을 소유한 원호 53호와 여호 수백여 호가 살고 있어, 신영거우보다 훨씬 큰 대촌으로 성장해 있었고, 서쪽으로 해삼위(블라디보스토크), 동쪽으로 큰영(大營)과 연결되어 교통이 편리했던 마을이었다. 흥미로운

29) 박영갑, 「俄領 烏蘇里水淸略論」 『新韓民報』 1910년 8월 3일자 2면.

30) 박영갑, 「俄領 烏蘇里水淸略論」 『新韓民報』 1910년 7월 20일자 3면. 우지미는 다우지미를 말한다.

사실은 다우지미-십여촌의 경우, 중국인(淸人)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신영거우와 달리 중국인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박영갑이 ‘다우지미’를 ‘우지미’로 잘못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영갑은 신영동, 다우지미-시베창의 세 마을과 더불어 국민회 지방회가 조직되어 있던 여호촌비밀적인마을들을 소개하고 있다. 당시 한인들이 ‘큰영’(大營)이라고 불렀던 블라지미로-알렉산드로브스코예(Vladimiro-Aleksandrovskoe)는 수청지방의 행정중심지로서 지리적으로도 수청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다. 수청강 하구 및 나호트카만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던 큰영에는 러시아 상점 2, 중국인 상점 7,8개가 있었고 7,8호의 한인들이 객주를 열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³¹⁾

박영갑은 이들 13개 한인마을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소개했다. 즉, 큰영을 중심으로 서남쪽으로 해안에 가까이 위치한 동개터, (다)우지미, 십여촌(시베창), 만춘동 4개 마을(표 2의 1-4)과 큰영의 동북방향으로 내륙쪽으로 수청강을 따라 자리잡고 있던 한인마을 황구동, 사명동, 신영동, 석탄광, 고려개지, 홍석동, 평사우, 강지지, 지령동(진영동) 8개 마을(표 2의 5-13)이었다.

표 2. 수청지역 한인마을 (1910년경)

	마을명	주업	형성시기	주민구성	호수(주민수)	국민회 회원수	비고
1	동개터	어업	1902,3년	여호	3,40호+	60명	동개터+동호동
2	*우지미	농업	1888년 이전	원호, 여호	원호 53호 여호수백여호	80여 명	러시아관립학교
3	*십여촌	농업				40명	
4	만춘동	농업	1907년	여호	30호	40여 명	탕랑수에 인접
5	황구동	농업		여호	4,50호	30명	
6	사명동	농업		여호	30여호	20여 명	
7	신영동			원호, 여호			Nikolaevka

31) 박영갑, 「俄領 烏蘇里水清略論」 『新韓民報』 1910년 7월 13일자 2면.

8	석탄광	탄광 노동		여호	200여 명	100여 명	
9	고려개지	농업		여호	3,40호	30여 명	
10	홍석동	농업		여호	8,90호	60여 명	홍성학교
11	평사우					지방회 없음	Florovka
12	강지지					지방회 없음	
13	지령동					지방회 조직	진영동

자료: 『新韓民報』 1910년 7월 12일자 3면; 8월 3일자 2면; 8월 10일자 3면.

* 우지미는 '다우지미'를 잘못 기록한 것이다. 다우지미에서 10리 떨어져 있는 십여촌은 스베찬(Svechan)을 말한다.

1914년 일제당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청지역은 내외 수청을 합하여 21,500명에 달했다.[내수청 1만 9천, 외수청(쉬코토보 마을 및 그 부근) 2천 5백]으로 인구가 급증했다. 이는 남부연해주 한인총인구(51,943명)의 41.4%, 그리고 아무르주까지 포함할 경우의 한인총수 79,417명 대비 21.1%에 해당한다.³²⁾

수청지역의 한인사회는 한말의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하였다. 1908년 국내로 진공했던 최재형, 이범윤, 이위중, 안중근이 주도했던 연해주의병조직 동의회(同義會)의 열성적 핵심간부들이 수청지역에서 나왔고 군자금도 수청지역 한인들의 모금한 바 컸다.³³⁾ 안중근, 엄인섭, 김기룡 세 의형제를 주축으로 한 이른바 '87형제'파의 주축은 수청지방 거주 청년들이었다.³⁴⁾ 수청지역은 '의병의 책원지'이었던 것이다.³⁵⁾ 또한 이들 수청지역 한인마을들에는 미주지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애국계몽적 한인

32) 淺山書記生, 「露領원동에 있어서 朝鮮人」(1914년 3월 조사),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の部 在西比利亞』(日本外務省史料館 所藏) 5권(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33) 「排日鮮人 李緯鐘에 對하여」(1915년 5월 17일자),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の部 在西比利亞』(日本外務省史料館 所藏) 5권(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黃郁, 「在外各地方狀況 5 蘇子河地方情況(3)」 『獨立新聞』 1923년 7월 21일자 4면.

34) 반병률, 『여명기 민족운동의 순교자들』(신서원, 2013), 38쪽.

3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편』 12권, 1983, 647쪽.

조직인 공립협회(1905년 4월 창립)와 그 후신인 국민회의 지방조직들이 설립되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스티븐슨 암살사건(1908년 3월 23일)의 영향을 받아, 1908년 9월 29일 신영거우에서 박영갑, 한경서, 한창걸 등 동포 38명이 공립협회 수청지방회(회장 김석영)를 조직하였고, 블라디미르-알렉산드로브스코예(큰영)에서도 조직화가 중심이 되어 공립협회 지방회가 되었다. 이후 미주 인사들이 각지에 파견되어 수청 각지에 6개 지방회들이 조직되었다.³⁶⁾ 이후 1909년 2월 샌프란시스코의 [북미한인공립협회와 하와이의 [하와이한인합성협회가 합동하여 만들어진 국민회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공립협회 지방회들을 거점으로 하여 수청지방에도 12개의 국민회 지방회가 확대되어 수청지방총회가 설립되었다. 수청지방총회에 소속된 12개의 지방회가 설립된 곳은 신영거우(니콜라예프카), 황구동, 중흥동, 석탄광(수찬 광산 2번광구), 홍석동, 승지동, 사명동(사명거우), 동호동(동개터와 연합), 진영동, 만춘동(두쉬키노), 우지미, 신평동이었다. 수청지방총회는 본부를 중흥동에 두었는데 회장은 양주륜, 부회장은 홍신언이었다.³⁷⁾

수청지방총회는 조직을 확대하여 다음의 17개 마을에 지회를 설치하였다. 신영동, 태평거우(노보츠크예), 청지동, 황거우(Unash), 동호동, 지영동, 골방나루, 수청석탄광, 홍석동, 사명거우, 고려지, 다우지미, 시베창, 허투문자, 치무허(슈코토보), 중흥동(페리치노), 만춘동.³⁸⁾ 수청지방 국민회 중요인물들은 박영갑(수청지방총회 회장), 김병룡, 김영준, 박근섭, 박춘성 등이었다.³⁹⁾ 수청지방총회는 하얼빈의 만주지방총회(8개 지방회), 치타의 시베리아지방

36) 『共立申報』 1908년 11월 18일자 2면.

37) 「연해주한인단체들에 대한 요약보고 1. 국민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4, 1997, 58-59, 275쪽, 『新韓民報』 1912년 10월 18일자 3면, 1911년 8월 16일자 3면, 1911년 11월 1일자 3면.

38) 최호림, 「遠東邊疆高麗人生活-歷史抄錄」 第1冊(手稿本), 1932, 18쪽.

39) 최호림, 「遠東邊疆高麗人生活-歷史抄錄」 第1冊(手稿本), 20쪽.

총회(9개 지방회)와 함께 원동의 3대 지방총회의 하나로 한인사회의 계몽과 민족의식 각성에 기여하였다.⁴⁰⁾

그러나 국민회는 미국, 특히 미국인 선교사들과의 관련성을 근거로 ‘친미 반러(親美反露)’적 경향을 견제하려는 러시아당국의 공식 인가를 받지 못했다. 그 결과 러시아당국의 후원과 공식인가를 받은 권업회가 1911년 12월 17일 정식 출범하였다. 이후 권업회는 국민회의 지방조직 대부분을 흡수하며 연해주 각 지역에 조직을 확대하였다. 지방파쟁과 갈등으로 활동이 부진했던 권업회는 1913년 10월 19일 개최된 특별총회에서 임시의사원으로 선출된 이동휘가 권업회 총대로서 정재관과 함께 연해주 각지를 순방하면서 권업회의 조직을 크게 확대했다.⁴¹⁾ 특히 이동휘는 1914년 이후 수청지방 한인마을들을 순회 방문하였는데, 수청의 18개 한인마을들을 연합하여 큰영(大營, 블라지르-알렉산드로브스코예)와 다우지미 마을 2개소에 권업회 지방총회를 설치하는데 성공했다.⁴²⁾ 큰영에 본부를 둔 권업회 수청지방총회에 소속된 지회와 분사무소가 설치된 주요한 한인마을은 신영동, 다우지미, 시베창, 청지동, 마이허, 구어통, 치무허, 동호동 등이었다. 수청의 권업회 큰영지방총회의 핵심인물들은 박하서(회장), 한창걸(서기), 강백우이었다.⁴³⁾ 1914년 4월경 권업회 다우지미 지방총회의 중심인물은 회장 박풍신, 부회장 양주륜, 총무 박춘성, 재무 고병화, 의원 양주익, 황여행, 김득형 등이었다. 회는 박춘성(회

40) 반병률, 「노령 연해주 한인사회와 한인민족운동 (1905-1911)」 『한국근현대사연구』 7(1997년 12월), 86-87쪽.

41) 반병률, 『성재 이동휘 일대기』, 범우사, 1998, 106-109쪽.

42) 『浦潮靑報』(1914년 5월 5일자),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の部 在西比利亞』(日本外務省史料館 所藏) 5권(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이상에 언급한 수청지방의 한인마을들 외에도 수청지방에는 내수청에 홍실랑, 평사우, 청지거우(청지동), 인수동 그리고 소자하 지방에 흥두동(興頭洞), 육지동(陸地洞) 등의 이름을 가진 한인마을들이 있었다. 『大東共報』 1909년 5월 5일자 4면; 『大東共報』 1910년 5월 5일자 1면; 黃郁, 「在外各地方狀況 5 蘇子河地方情況(3)」 『獨立新聞』 1923년 7월 21일자 4면 참조.

43) 최호림, 「遠東邊疆高麗人生活-歷史抄錄」 第1冊(手稿本), 26-27쪽.

장), 박창극(서기), 김기옥, 김영준 등이었다.⁴⁴⁾

공립협회, 국민회, 권업회 등의 활동에 힘입어 수청지방에 학교가 설립되었다. 근대식 교련과 전술을 정식과목으로 가르치며 300명의 학생이 공부하던 광무학교(光武學校)와 1913년에 졸업생을 배출하고 70명의 학생이 재학하던 신영동의 사범학교(교장 김영준)를 비롯하여, 다우지미, 우지미, 칭지거우(예카제리노브카)에 소학교가 설립되어 있었다.⁴⁵⁾ 소자하 지방에도 북간도에서 이주해온 전성삼(全成三)의 노력으로 육지동에 설립된 동성학교(東盛學校)와 흥두동(興頭洞, 흥두거우)에 송덕학교(崇德學校)가 설립되었고 정재관, 황욱 등의 노력으로 송덕학교에 사범속성과를 마련하여 교사를 양성하기도 했다.⁴⁶⁾

1914년 8월 제1차세계대전의 발발로 권업회가 해산되면서 이후의 항일민족운동은 비합법적인 비밀결사의 형식을 띠 수밖에 없었다. 철혈단(鐵血團)은 수청지방을 근거로 활동한 대표적인 비밀조직이었다. 철혈단은 “고려민족의 해방을 목적으로 하고 노령(露嶺) 고려인의 유지(有志)한 청년들을 결속하여 미래의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았다. 1914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직되어 중앙본부를 블라디보스토크에 두어 활동을 시작했으나, 1915년부터 수청 동호동(나호트카 소재)에 지방총회를 두고 수청 각마을에 지회를 두고 활동했다. 1918년 말 철혈단보다 앞서 1911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직되어 주로 북간도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비밀결사 광복단(光復團)과 연합하여 철혈광복단이라 개칭한 이후 특히 3.1운동 이후 활성화된 다양한 항일민족운동에 관여하였다. 철혈단의 중요인물들은 김철훈, 김진, 최의수, 한강일, 정순철 등이었다.⁴⁷⁾

44) 『勸業新聞』 1914년 4월 26일자.

45) 姜德相, 『現代史資料』 27, みすず書房, 1977, 167~168쪽.

46) 黃郁, 「在外各地方狀況 5 蘇子河地方情況(3)」 『獨立新聞』 1923년 7월 21일자 4면.

47) 최호림, 「遠東邊疆高麗人生活-歷史抄錄」 第1冊(手稿本), 28~31쪽; 십월혁명십주년원동대기념준비위원회 편, 『십월혁명십주년과 쏘베트고려민족』, 크니스노예텔로, 1927, 50쪽.

러시아 10월혁명 이후 소비에트정권이 성립된 후인 1918년 6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지역·단체 대표 142명(지방대표 109명, 단체대표 33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니콜스크-우수리스크에서 개최된 제2회특별전로한족대표회의에 수청지역에서는 신영동, 백실랑(이상 내수청), 치무허, 안드레예브카 마을(이상 외수청)에서 1명씩의 대표를 파견하였다. 당시 대회파견 대표 1인은 주민 500명을 대표하였던 만큼, 이들 마을은 최소 500명의 주민을 가진 대촌이었음을 알 수 있다.⁴⁸⁾ 제정러시아 시기 수청지방에 자리 잡고 있었던 수많은 한인마을들 가운데 신영거우와 다우지미 등 두 마을만이 이른바 원호촌(입적한인들의 마을)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여호촌(비입적인들의 마을)이었다.⁴⁹⁾

3. 러시아혁명 이후 시기

러시아혁명 후 수청지역도 정치적 변혁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 10월혁명 이후 각 민족의 평등과 자유가 선포되자, 수청에서 수청한인(고려인)총연합회가 조직되었다. 이후 철혈단 단원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자치와 고려청년동지의 규합을 목표로 내세웠는데, 당시 철혈단 활동가가 275인에 달했다.⁵⁰⁾

48) 반병률, 「제2회 특별전로한족대표회의 (1918년 6월)와 러시아한인사회」 『역사문화연구』 17(2000년 12월), 315쪽, 342쪽, 344쪽, 347쪽, 349쪽. 수청지역에서 대회에 파견된 대표들은 신영거우 박진순(Ivan Fedorovich Pak), 치무허 위자운, 백실랑 인영진, 안드레예브카 김 막심 미하일로비치(Kim Maksim Mikhailovich)이었다.

49) 「韓人會의 組織變更에 관한 件」(1926년 9월 3일자),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の 部 在西比利亞』(日本外務省史料館 所藏) 16권(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50) 십월혁명십주년원동대기념준비위원회 편, 『십월혁명십주년과 쏘베트고려민족』, 해삼위, 해삼위도서주식회사, 1927, 50쪽. 1918년 6월에 개최된 제2회 특별전로한족대표회의에 '수청 연합회 대표'의 명의로 최고려가 축하전보를 보내어 대회 3일째에 낭독되었다. 전보에는 "회의를 축하하오며 본대표는 유고하여 나가지 못하오나 수

러시아혁명 이후 특히 일본, 미국 등 연합국의 무력개입 이후 수척지방에서 계급투쟁이 심화되었다. 수척지방에는 일본군과 미군의 연합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미군은 석탄광과 철도를, 일본군은 해안을 관할하고 있었다. 당시 석탄광은 한인노동자들 포함한 러시아노동자들의 파업과 빨찌산운동이 활발하였다. 최초의 노동병소비에트가 1918년 4월경, 원호인과 여호인들이 섞여 살고 있던 신영거우에서 조직되었다.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신영동 소비에트 조직을 주도한 인물은 공립협회, 국민회, 권업회 지방회 활동에 참여했고, 제1차세계대전에 참전한 바 있는 한창걸이었다. 그러나 2개월여 후인 1918년 6월 28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코군의 반볼셰비키 반란이 일어난 후에 해산되고 말았다. 이들은 그해 10월경 일류호프(Илюхов)가 이끄는 러시아빨찌산부대에 물질적, 정신적 후원을 하였다. 한인주민들이 빨찌산운동을 후원하게 되는 첫출발이었다.⁵¹⁾

1919년에 들어와 두 원호인촌 신영거우와 다우지미에서 한인의병부대가 조직되었다. 먼저 1919년 2월 신영거우 주민 35명이 동네에 숨겨놓았던 무기로 무장을 갖추고 한창걸을 대장으로 하여 빨찌산부대를 조직하였다. 5월경 한창걸이 평사우(Флоровка)에 있는 러시아빨찌산본부에 가서 참모장 시린킨, 사령장 이바노프, 일류호프, 셉첸코 등과 협의하여 군사 및 민사에 관한 14개항의 비밀협정을 맺고 각 지방에 3,700여 인원의 지방대를 설치하였고, 50명은 직접 러시아빨찌산부대에 참여하였다.⁵²⁾

신영거우 한인의병부대는 석완재(Peretino) 부근에서 교전하여 백위파 150여명을 살상했다. 이후 퇴각하여 신영거우와 평사우에 주둔하여 있다가, 미연합군 토벌대와 새제련(Kazanka) 부근에서 교전하여 다시 적병 150명을 살상

청 1만 2백99명이 이번 회의에 결정한 일을 복종하기로 이에 증언함"이라고 썼다. (반병률, 「제2회 특별전로한족대표회의(1918년 6월)와 러시아한인사회」, 326쪽 참조).

51) 최호림, 『遠東邊疆高麗人生活-歷史抄錄』 第1冊(手稿本), 43~44쪽.

52) 최호림, 『遠東邊疆高麗人生活-歷史抄錄』 第1冊(手稿本), 44쪽; 십월혁명십주년원동대기념준비위원회 편, 『십월혁명십주년과 소비에트고려민족』, 50~51쪽.

하고 산곡으로 퇴각하였다. 이후 일본, 미국의 연합간섭군과 백위파군이 수청지역에서 공세를 강화하자, 러시아빨찌산부대가 다우비허(都兵河, Anuchino 현재의 Arsen'ev)로 이동하였고, 역시 산중에 도피하였던 한창걸부대는 산에서 내려와 농촌지역에 잠복하였다.⁵³⁾

신영거우와 다우지미의 한인의병대는 이후 집을 가진 농민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농사에 착수하였고, 그 외에 학생, 노동자, 3.1운동 후 간도로부터의 망명자들은 대한국민의회 군무부장 대리 김하석의 주선으로 동충철도의 백위파 호르바트군에 모집되어갔다.⁵⁴⁾ 이로써 3.1운동 이후 일시 활기를 띠었던 신영거우, 다우지미의 한인의병운동이 일시 해산상태로 들어간 것이다.

1919년 9월경 한창걸은 블라디보스토크로 나가 11월 18~19일 체코군 사령관 가이다(Gaida)가 주도한 반(反)로자노프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정부의 수반 봉기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3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다가 1920년 1월 31일 러시아혁명세력이 연해주를 점령하게 되자 석방되었다.⁵⁵⁾ 이후 블라디보스토크에 설립된 러시아혁명군정의회 의장 라조(Sergey Lazo)와 협의하고 1920년 2월 23일에 치머우(Shkotovo) 일류호프 연대 제1대대장으로 임명되어 한인의병들을 모집하니 1개월 안팎에 300여 명에 달하였다. 이후 일본군이 러시아혁명군사령부에 교섭하여 한인의병대의 무장을 해제케 하니 한창걸부대는 무장을 해제하였다.⁵⁶⁾

53) 최호림, 「遠東邊疆高麗人生活-歷史抄錄」 第1冊(手稿本), 44~45쪽.

54) 이인섭, 「늪은 빨찌산들 회상기 초집」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홍범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92쪽.

55) 최호림, 「遠東邊疆高麗人生活-歷史抄錄」 第1冊(手稿本), 45쪽.

56) 위와 같음. 다른 기록에는 1919년 9월 신영거우에서 150여 명이 모여 한창걸을 사령관으로 채용동을 참모로 하여 김만겸 등 3인을 치머우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빨찌산부대 참모부와 교섭하여 각처 한인부대들을 치머우에 집결시키니 총인원이 250명이었다고 기록했다.(십월혁명십주년원동대기념준비위원회 편, 『십월혁명십주년과 쏘베트고려민족』, 50~51쪽 참조).

1920년 4월참변 이후 일본군과 백위파의 공세가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주요한 지도자들이 수청지역에서 가장 오지인 수주허로 집결하였다. 중국령으로부터는 간도사변(경신참변)을 피해온 박경철(朴景喆), 이승조, 고상준(高尚俊) 등 신민단 간부 5명, 도병하(다우비허)로부터 온 한창걸, 이병수 등 8인, 그리고 수청의 지방대 위원인 강백우, 김용준, 우시하 등 지도자들이 수주허 흥두거우(흥두동)에 모여 한인의 자치 및 군사단체로서 조직한 것이 고려노농군회이다. 고려노농군회의 조직은 회장 박경철, 군무 한창걸, 재무 이승조, 민사 강백우, 교육 강호여, 선전 우시하, 모연 고상준 등이었다. 고려노농군회는 민적등록과 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1개월 만에 100명의 군인을 모집하였다. 고려노농군회 소속의 이 빨찌산부대는 철혈광복단이 조직한 한인부(한인사회당 참모유격대)와 신민단 소속 유격대가 주축이 되었으며, 제1수청의병대라 불렸다.⁵⁷⁾

이와 아울러 내수청으로부터 온 정재관이 수주허지방의 김준(金俊), 안영진(安永鎭) 등과 협의하여 수주허지방 한인총회를 조직하여 일반 거주민들의 산업과 식산을 도모하고 군사와 교육에 대한 후원을 추진케 하였다. 총회장 최학진(崔鶴鎭)을 비롯하여 박문우(朴文友), 김석준(金錫俊), 강희덕(姜熙德) 등이 간부로 선출되었다. 수주허 한인총회는 전지방을 12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에 지방회를 설립하고 구역마다 소학교 하나를 설립하도록 하고 8세 이상의 남녀의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수주허 한인총회는 “소자하지방의 신기원으로 혁구종신(革舊從新)의 길로 나아가게 된” 시원이 되었다.⁵⁸⁾

1921년 4월, 수청 수주허 흥두동에 본부를 두었던 고려노농군회는 한인독

57) 십월혁명십주년원동대기념준비위원회 편, 『십월혁명십주년과 쏘베트그려민족』, 51쪽; 반병률, 「고려노농군회」 『한국독립운동사사전』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241쪽.

58) 黃郁, 「在外各地方狀況 4 蘇子河地方情況(2)」 『獨立新聞』 1923년 5월 2일자 4면.

립군부대 혈성단의 단장 강국모(姜國模), 한일제(韓一濟) 등 간부들과 두 단체의 연합과 사관양성 문제를 협의한 후 통합에 합의하였다. 혈성단은 수이푼(秋風)의 한인농촌인 자피겨우에서 1920년 1월에 조직되어 활동하다가 1920년 말 아누치노 지방으로 이동해온 단체였다. 그리하여 수청 다우지미(大鳥吉密)에 있는 김경천(金擎天)을 초청하여 군무과 사관양성을 맡기기로 하고 통합하여 조직된 새로운 단체를 연해주한인총회(한인사회당 연해주총회)라고 하였다. 1921년 4월 27일의 일이었다. 창립직후의 연해주한인총회의 간부는 회장 강국모, 부회장 김종화, 군무부장 겸 사령관 김경천, 고문 정재관, 재무부장 한일제, 민사부장 강석봉(姜石鳳, 강백우), 외교부장 한창걸(韓昌傑), 선전부장 박성혁(朴星赫) 등이었다. 이와 아울러 고려노농군회 군대(제1수청의병대)와 혈성단을 통합하여 수청의병대로 하였으며, 트레치푸진(Tretifutin)에 6개월 속성의 사관학교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각처에서 몰려든 한인빨찌산병력이 800명 이상이 되었다.⁵⁹⁾

수청의병대는 1922년 10월 시베리아내전이 끝날 때까지 백위파군과 여러 차례의 전투를 벌였다. 수청전쟁(1921년 10월), 올가항 전투 1차(1921년 10월), 2차(1922년 4월), 새영 전(1922년 7월), 이포(이바노브카) 동령전투(1922년 9월)이 그것이다. 1922년 수청의병대 소속의 기병대는 하마탕(라즈돌리노예)까지 추격하였으나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수청의 본대로 돌아왔다. 1922년 말 시베리아내전이 끝나고 모든 연해주의 한인빨찌산부대들이 해산되면서 연해주한인총회 산하의 수청의병대도 해산되었다.⁶⁰⁾

한편, 1921년 7월 외수청(슈코토보) 지역에서도 한인의병대가 조직되었다. 당시 치무허 구역에는 조선인거류민회와 자위단(30명), 일본군 2개 연대 그

59) 반병률, 「연해주한인총회」 『한국독립운동사사전』 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545~546쪽.

60) 십월혁명십주년원동대기념준비위원회 편, 『십월혁명십주년과 쏘베트고려민족』, 51쪽; 반병률, 「고려노농군회」 『한국독립운동사사전』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241쪽.

리고 백위파군대 1개 대대 이상이 주둔하고 있었다. 김병하, 정인여, 허철 등은 노보로시아(Novorossia)와 노보모스크바(Novomoskva)에 아니시모프(Anisimov)가 지휘하는 러시아빨찌산대에 참여하기로 하여, 50명의 한인중대가 조직되었다. 한인자위대의 최태은, 한윤익 등도 참여하였다. 이 빨찌산부대는 러시아아마를 레시차(Resitsa)에서 백위파와 전투하는 등 수차례의 전투에 참여하였다. 1922년 7월 한인부대는 90명에 달하였는데, 사령관 김여하, 참모장 김정하, 군정위원 정인여, 군대결의부장으로 허철, 재무 및 사령부 비서 김병하 등이었다. 치머우 한인의병대라고 불렸던 이 부대는 1922년 9월 원동빨찌산 사령부의 명령에 의하여 전부 다우비허로 집결하였다. 거기에서 리포(이바노브카) 동령 싸움에서 수청의병대와 연합하여 전투에 참가하였다. 이후 일본군이 철수하고 백우파들이 구축된 후 치무허로 돌아와 1922년 11월에 무장을 해제하였다.⁶¹⁾ 이후 지원자를 모아 농업꼬무나를 조직하여 군대에서 쓰던 재봉틀, 인쇄기, 말 등을 인계하고 고상준에게 인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 치무허 지역 한인의병대 출신들이 조직한 농업꿀호즈가 치무허 꼬무나이다.⁶²⁾

의병활동 외에 러시아혁명시기 수청지방의 한인활동에서 주목할 것은 홍의적(紅衣賊 또는 紅鬚賊, 홍후즈) 토벌 활동이었다. 제정러시아시기부터 한인농민들을 약탈하고 괴롭혔던 홍의적들은 1920년 일본군의 빨찌산부대에 대한 공세가 강화된 후 일본군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한인농촌마을을 빈번하게 습격하였다. 1919년 일본군은 내수청에서 철수하여 외수청에만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근거를 둔 홍의적들을 선동하고 무기를 공급하였던 것이다. 당시 홍의적들의 상황을 보면 외수청 변강(邊江)에 장승파(張勝派)

61) 「김병하가 이인섭에게 보낸 편지」 1958년 1월 15일자 9~11쪽.

62) 십월혁명십주년원동대기념준비위원회 편, 『십월혁명십주년과 소비에트고려민족』, 51쪽; 반병률, 「고려노동군회」 『한국독립운동사사전』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241쪽.

150명과 청산대대(靑山大隊) 1천여 명, 외수청 철산동(鐵山洞)에 룡자파(龍者派) 2백여 명, 외수청 치머우에 금산대대(金山大隊) 350명, 외수청 이수해(二水海)에 충록파(忠祿山派) 780명, 외수청 해상(海上)에 수적파(水賊派) 80여 명 등이었다.⁶³⁾

1920년 봄 다우지미촌에서는 홍의적 토벌을 목적으로 다우지미 마을을 거점으로 활동했던 중심조직이 창해소년단(滄海少年團)이다. 일본군이 자행한 4월침변을 당하여 도피하여온 정재관, 장기영, 김경천이 지방유력자인 박춘성, 황석태 등과 협의하여 마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무기를 구입하고 군인을 모집한 것이 첫 출발이었다. 김경천 휘하에 4소대로 나누어 제1대장에는 장기영, 제2대장에는 김만송(金萬松), 제3대장에는 박창섭(朴昌燮), 제4대장에는 장지호(張志浩)를 선임하였다. 음력 4월 초파일 충록산(忠祿山派, 告山派) 홍의적 380여 명이 다우지미마을에 침입하자 김경천 휘하의 내수청지역의 45명, 도비허로부터 온 100여 명, 그리고 신영거우에서 온 한창걸의 40명으로 구성된 우리측 부대가 러시아빨찌산부대 6백명과 연합하여 침입한 홍의적 360여 명을 몰살시켰다.⁶⁴⁾

이 전투 이후 앞으로 있을 마적들의 침입에 대비하여 상설적 조직으로서 창해소년단(滄海少年團, 또는 창해청년단)이며, 명예단장 김규면, 단장 박춘성 총지휘관 김경천, 참모장 정재관이었다. 창해소년단의 본부는 다우지미에 두고, 수청지역을 우지미, 칫쿤(赤楊村), 신영거우의 3개 구(區)로 나누고, 각 구마다 상비경비대와 예비대를 두었다. 우지미 구역: 지휘관 총지휘관(김경천) 겸무, 참모 참모장(정재관) 겸무, 상비경비대 30명, 예비대 278명. 칫쿤 구역: 지휘관 정순철, 참모 김규면, 상비경비대 22명, 예비대 191명. 신영거우 구역: 지휘관 한창걸, 참모 선우정, 상비대 50명, 예비대 476명. 총합계 상비대 102명, 예비대 945명.⁶⁵⁾

63) 「水淸紅衣賊亂實記(1)」 『獨立新聞』 1923년 1월 17일자 3면.

64) 위와 같음.

창해소년단을 주축으로 한 자위단은 이후 4월에 충록산과의 변란 이후 8월까지 4개월간 홍의적 토벌에 몰두하였다. 이후 홍의적을 토벌한 4개의 주요 전투는 따니채 산중의 난전(亂戰) 4월 20일경), 변강촌락의 전(戰) 5월 15일 경, 이수해(二水海) 지방의 전(戰) 6월초 무렵, 왕포수홀로에 전(戰) 7월 상순이었다.⁶⁵⁾

1922년 9월 5일군 아누치노에서 개최된 연해주고려인의병대 혁명군사의 회 임원 회의(술밭관 ‘공산주의군대’ 대표 총사령관 김규식, 연해주당간부 대표 군정위원장 최호림, 연해주 당간부내 고려부 대표 사령관대리 안동백, 러시아 연해주의병 혁명군정의회 대표의원 스타코프, 고려인의병대 대표의원 한창길 등 5명으로 구성)에서 고려혁명군을 편성하였는데 2개 본대와 3개 지대로 구성하였다. 제1본대는 포시예트 훈춘군사구역에 두고 그 지방을 수비하며 총사령부를 겸하게 하였다. 제2본대는 아누치노 군사구역에 두고 제3지대 강알렉세이군대를 직속시켜 그 지방을 수비케 하였다. 제1지대는 포시예트 훈춘구역 남부를 수비하고 본영을 이도구(二道溝)에 위치케 하고, 제2지대는 쉬코토보 구역을 수비하고 본영을 쉬코토보에 두었다.⁶⁷⁾

연해주 고려의병대 혁명군정의회는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러시아적군사령관 우보레비치는 일본영사관의 요구에 따라 한인무장세력의 무장해제를 선언하였고 결국 고려혁명군은 일본군의 철수 후인 1922년 11월 15일부터 24일에 걸친 기간에 무장해제 되었다.⁶⁸⁾

65) 「蘇城方面不逞鮮人の行動에 關한 件」(1920년 10월 14일자),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の部 在西比利亞』(日本外務省史料館 所藏) 10권(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66) 「水淸紅衣賊亂實記」 『獨立新聞』 1923년 1월 24일자 4면; 3월 7일자 4면; 1923년 3월 14일자 4면.

67) 최호림, 「遠東邊疆高麗人生活-歷史抄錄」 第1冊(手稿本), 132~134쪽.

68) 최호림, 「遠東邊疆高麗人生活-歷史抄錄」 第1冊(手稿本), 135쪽.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수청지방에 위치했던 신영거우, 다우지미 등 원호촌을 비롯한 한인마을들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특히 러시아혁명 이후 시베리아내전 시기에 한인빨찌산 부대들의 성립과 활동을 살펴보았다.

수청지역은 러시아연해주 지역에서도 산악지역에 해당하여 산골짜기마다 한인마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곳의 한인거주자들의 대부분은 러시아 국적이 없어 토지를 분배받지 못하여 러시아인 지주나 원호인들의 토지를 임대, 소작하거나 머슴살이하던 여호나 고용농민들이었다. 이 점에서 수청 지역은 오래전에 이주해 정착한 원호인(촌)들이 많았던 추풍지역이나 연추 지역과도 크게 대비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와 여호농촌마을들의 형성으로 국내나 다른 지역으로 부터 이동해오는 정치적 망명객이나 사회활동가들이 많았다. 그 결과 수청 지역에는 한말의병의 책원지로 인식되었고, 한말 미국에 본부를 둔 공립협회와 국민회의 지회가 조직되었고, 이후 러시아당국의 공식인가를 받아 활동했던 권업회와 비밀항일결사 철혈단(철혈광복단)의 지방조직들이 조직되었다. 이러한 전통과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수청지역은 러시아혁명 이후 특히 내전시기에 항일빨찌산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었다.

러시아혁명과 연해주해방전쟁 그리고 한인

윤상원

1. 머리말

세계사의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혁명은 20세기 인류사회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굳이 세계사까지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러시아혁명은 광대한 러시아의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혁명 당시 극동 연해주를 비롯한 러시아 전역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지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한인들도 러시아혁명의 물결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특히 혁명 이후 전개된 내전은 러시아의 한인들에게 혁명과 반혁명 중 양자택일을 요구했다.

혁명 초기 불분명하던 한인들의 입장은 일본군이 내전에 개입하며 시베리아에 출병하면서 명확해지게 된다. 시베리아에 출병한 일본군이 백군을 지원하면서 러시아 지역의 한인들 대부분은 적군 편에 서게 되었다. 시베리아

내전 초기부터 직접 적군에 가담하거나 빨치산부대를 조직하여 백군에 맞선 한인들은 내전에서 적군이 승리를 거두는데 커다란 공로를 세웠다. 특히 시베리아내전의 마지막 국면인 연해주해방전쟁에서 소비에트적군이 승리를 거두는데 기여한 한인들의 공로는 이후 연해주에서 한인들이 입지를 넓히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즉, 1920~1930년대 연해주 한인사회 발전의 배경에는 러시아혁명과 내전에서 활약한 수많은 한인들의 피와 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글은 러시아혁명과 내전에서 활약한 한인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중에서도 시베리아내전의 마지막 국면인 연해주해방전쟁에서 활약한 대한의용군을 비롯한 한인 빨치산부대들의 활약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해주해방전쟁의 승리에 기여한 공로가 이후 연해주에서 한인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기여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해주해방전쟁과 대한의용군

1) 극동공화국과 연해주해방전쟁

시베리아에서 콜차크정부가 붕괴되고 난 후 1920년 4월 6일 이르쿠츠크에 극동공화국(極東共和國)이 수립되었다.¹⁾ 이전 하바롭스크 극동소비에트정부의 수반이었던 크라스노쇼코프가 수상 겸 외상으로 취임했다.²⁾ 부르주아민

1) E.H. Carr, "A History of Soviet Russia, The Bolshevik Revolution, 1917-1923", vol.1, London, 1954, p.356.

2) Б.И.Мухачев, "Александр Краснощекков, Историко-биографический очерки" (『알렉산드르 크라스노쇼코프, 역사적 전기』), Владивосток, 1999, с.85-90.

주공화국을 표방한 극동공화국은 가능한 한 일본군과의 대결을 피하면서 백군과의 전투에만 몰입하고자 했다. 일단 극동공화국은 영내의 백군을 격파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다른 제국주의간섭군들이 대부분 떠난 상황에서 시베리아에 대규모 일본군 병력이 남아있는 것은 명분상으로는나 현실적으로나 큰 부담이었다. 일단 애초 출범의 구실이었던 체코군단의 본국으로 송환이 완료되어가는 상황에서 4월 6일 수립된 극동공화국의 존재는 일본군이 시베리아에 머무르는 것을 더욱 힘들게 했다. 표면상 극동공화국은 부르주아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과격파(볼셰비키 - 필자) 군대의 절멸”을 위해 재출병했다는 명분 역시 더 이상 내세울 수가 없었다. 결국 1920년 7월 일본군은 극동공화국과의 협정을 통해 하바롭스크를 내어주고 이만을 거쳐 스파스크까지 철수했다.³⁾ 제13사단과 제14사단을 비롯하여 아무르주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들은 모두 일본이나 만주로 귀환했다. 든든한 버팀목이던 일본군이 철수하자 세묘노프 백군 부대는 급격히 몰락했다. 10월에 치타를 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에게 넘겨준 세묘노프 백군은 11월 20일 최후 근거지였던 다우리아를 빼앗기고 세묘노프 자신은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뤼순(旅順)으로 망명했다.⁴⁾ 그해 11월 극동공화국은 수도를 치타로 이전했다.⁵⁾ 이렇게 하여 1920년 11월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에는 중앙의 소비에트정부와 연결된 극동공화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는 연해주의 메르쿨로프의 임시프리야무르정부가 대치하게 되었다.

3) “Японская интервенция 1918-1922 гг. в документах”(자료로 본 일본의 간섭), Москва, 1934, с.15.

4) 憲兵司令部, 『西伯利出兵憲兵史』, 東京:國書刊行會, 1976, 65~67쪽. 이후 세묘노프는 조선, 일본, 만주 등지를 전전하면서 일본정보부와 관계를 가지고 소비에트로부터 탈출해 온 백계러시아인들의 반소비에트 활동을 지도했다. 그는 1949년 9월 만주에서 소련군에게 생포되어 소련 대법원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처형되었다.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Москва, 1969-1978гг.)

5) 憲兵司令部, 위의 책, 18쪽. 이로 인해 이후 일본은 극동공화국을 치타정부라고 불렀다.

극동공화국은 곧 연해주에서 일본군의 철병을 요구하며 교섭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극동공화국은 먼저 임시프리야무르정부와의 사이에 중립지대를 설치했다. 중립지대는 이만 남쪽, 스파스크 북쪽 지역으로 설정되었다.

극동공화국과 소비에트 러시아의 지도부는 임시프리야무르정부를 구성한 메르쿨로프 백군을 하루빨리 제압하고 내전을 끝내고 싶어 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일본군의 철수가 필수적이었다. 극동공화국은 일본군을 연해주에서 철병시키기 위해 온갖 외교적 노력을 시도했다.

일본 역시 장기간에 걸친 출병으로 인해 국내외적인 반발에 직면해 있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위기가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호황이 끝나고 1920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일본정부로 하여금 정부예산을 모험적인 출병정책에 더 이상 지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 반전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났다.⁶⁾ 아울러 대외적으로 미국 등 제국주의 열강들의 압박이 있었다. 이미 1920년 초 시베리아에서 철병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은 시베리아를 혼자 차지하려고 드는 일본에 대해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미국은 1921년 5월 31일 “일본군에 의한 東部시베리아의 계속 점령은 同 지방에 있어서의 무질서를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⁷⁾라는 항의 통첩을 보냈다.

이처럼 극동공화국과 일본 사이에 이해관계가 합치되면서 1921년 8월 26일부터 따렌(大連)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양측의 기대와는 달리 따렌회담은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극동공화국 측은 시베리아로부터 일본군의 즉시 철병과 소비에트러시아 대표의 회담 참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소비에트러시아 대표의 참가를 거부했다. 극동공화국 대표단은 즉각 회담장

6) 「일본 로동자의 활동」, 「로동운동자가 붓잡히어」, 「얻은 것이 일흔 톱도 못되」, 『로동자』, 1922. 7. 15, 2면.

7) 鹿島守之助, 『日本外交の史的考察』, 49쪽.(金敬泰, 「1925年の 蘇日協約과 소련의 朝鮮政策」, 『韓國史學』 13, 1993, 194쪽에서 재인용)

을 떠났다. 이후 회담 막바지에 일본은 극동공화국에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 내용은 “극동공화국은 육상과 해상에서 무장해제할 것, 공산주의 체제를 포기할 것, 80년간 사할린 북반부를 조차할 것”⁸⁾ 등이었다. 이외에도 “러시아 원동에서 일본 상민에게 특별한 이권을 부여할 것과 철병은 조약성립 후에도 석 달 후라야 할 것”⁹⁾이 제기되었다. 극동공화국 측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¹⁰⁾ 회담은 1922년 4월 16일 결렬되었다.¹¹⁾

한편, 파렌회담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도 일본군은 백군을 지원하여 극동공화국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도록 했다. 이는 파렌회담에서 극동공화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였다. 1921년 12월 일본군의 지원을 받은 메르쿨로프 백군의 총공세가 시작되었다. 시베리아내전의 최후단계인 연해주해방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연해주해방전쟁 초기 백군과 일본군은 이만을 점령하고 12월 중순에는 다시 한 번 하바롭스크를 점령했다. 그러나 중앙 소비에트정부로부터 제5군이 증파되고 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과 적군빨치산부대들이 전열을 가다듬어 반격을 시작하면서 전세는 역전되었다. 1922년 2월 10일 볼로차예프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소비에트적군은 곧 하바롭스크를 함락하고 4월에는 이만까지 점령했다. 일본군은 더 이상 백군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내전에서 발을 빼는 것이 유리했다. 일본군은 애써 구축했던 요새들을 백군에게 넘겨주고 마침내 1922년 6월 시베리아와 연해주에서 철병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¹²⁾ 철병시한은 그해 10월 말까지였다.¹³⁾

8) 김 Сын-хва,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изд. наука, Алма Ата, 1965. (정태수 편역, 『소련한족사』,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89, 124쪽)

9) 「대련회의의 결렬. 일본정부는 서로 책망」, 『로동자』, 1922. 6. 15, 2면.

10) 김 Сын Бин, “Очерк партизанск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йце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918-1922)” (김승빈, 『극동에서 한인 빨치산운동 개략』, 1981, c.22.

11) 「대련회의의 결렬. 일본정부는 서로 책망」, 『로동자』, 1922. 6. 15, 2면. 이 기사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대련회담의 실패에 대해 외교부와 육군부가 서로의 잘못이라고 싸우고 있다고 했다.

2) 대한의용군사의회와 대한의용군

이 무렵 자유시사변 당시 무장해제를 피하여 도주한 군인들 가운데 100여 명이 완충지대 이북인 연해주 이만으로 집결했다. 그 중에는 김규면, 장기영, 이용, 한운용, 임상춘 등 옛 한인사회당 계열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¹⁴⁾ 당시 이만에는 임표, 김홍일 등이 이끌고 간도에서 건너온 군비단이 주둔하고 있었다. 이만으로 건너와 ‘고려혁명의용군’으로 개편한 군비단 군사부는 사관양성을 위해 이용, 한운용, 임상춘 등 군사지도자들에게 사관양성사업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군비단 군사부의 요청을 아무 조건 없이 선뜻 받아들였다.¹⁵⁾

그리하여 자유시에서 이동해 온 상해파 인사들과 고려혁명의용군의 간부들은 1921년 9월 15일 이만 와구통촌에서 대회를 열고 고려의용군사의회를 재편했다. 재편된 의용군사의회는 비서부, 사령부, 재무부, 문화부, 서무부, 외교부를 두고 위원장에 간도지역의 저명한 독립운동가인 마용하를 필두로 위원으로 임표, 이용, 김찬, 김덕은, 최종천, 강재관, 박춘근, 운동선을 선정했다.¹⁶⁾ 그런데 일본 정보문서는 군사의회의 위원장을 김규면이라고 파악하고 있다.¹⁷⁾ 여기에는 군사의회가 예전 자유시에서 조직되었던 전한군사위원

12) 「機密 第124號, 不逞鮮人ノ行動ニ關スル件」, 1922. 7. 1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이하 『在西比利亞』) 13권, 107항.

13) 憲兵司令部, 앞의 책, 65-68쪽.

14) 「浦潮 第372號, 白軍ニ抵抗スルイマン鮮人軍隊ニ關スル件」, 1921. 12. 29, 『在西比利亞』 13권, 29항.

15) 강상진, 「군비단약사」(1967. 3. 29), 『독립군의 수기』, 국가보훈처, 1995, 249-250쪽.

16) 「강우건 유고」, 『독립군의 수기』, 국가보훈처, 1995, 111쪽. 이때 선정한 각 부서의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위원장-마용하, 비서-임상춘, 사령관-이용, 사령부관-박춘근, 참모장-임표, 참모부원-한운용, 김홍일, 재무부장-김덕은, 문화부장-최종천, 부원-최태열, 서무부장-김찬, 외교부장-강재관.

17) 金正明 篇, 『朝鮮獨立運動』 2권, 286-287쪽. 위원도 김찬, 김덕은, 임표, 이용, 마용하,

회(全韓軍事委員會)의 재건이라는 일본 정보당국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설립당시 군사회의의 위원장은 김규면이 아니라 마용하였음이 분명해 보인다.¹⁸⁾ 김규면은 회고록에서 자신은 “쁘리아물주 ‘군정의회’ 전 권위원으로 겸 고려빨치산군사회위원장의 일흔을 가지고 원동쁘리아물주 ‘군정의회’의 지도에 따라 고려빨치산군대를 지도했다”¹⁹⁾고 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재편된 의용군사회의의 위원장은 이전에 이어 마용하가 맡은 상태에서 김규면은 소비에트 당국과의 교섭을 담당하여 군사업무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²⁰⁾ 즉 상해파 인사들은 정치조직으로서 의용군사회의는 기존의 인물들에게 맡긴 채 군사회의의 가장 주된 활동인 무장부대의 조직에 힘을 쏟은 것이다.

때문에 의용군사회의의 사령관에는 이용이 선정되었다. 이용은 의용군사회의 산하에 1개 대대로 편성된 대한의용군(大韓義勇軍)을 조직했으며, 사관양성을 위해 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자신이 교장을 겸임했다.²¹⁾ 한운용과 김홍일이 교관으로 있던 사관학교는 6개월 과정으로 약 50명의 생도가 교육을 받았다.²²⁾ 이를 기반으로 대한의용군은 3개 중대로 편성되었다. 사령관에는

주영섭, 강재관, 박춘근, 최기학이라고 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18) ‘간도 15만원사건’의 주동자로 대한의용군에 참가했던 최계립도 “그대 會長을 馬용河을 내었는데 그는 無식한 老人이나 임이 間島國民會 東部會長으로 일하다가 日本討伐에 도난하여 왔는데 그의 일흔을 利用한 것이다. (중략) 그 때 金규면이나 박일니아도 그곳에 없었오.”라고 하여 회장이 마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준다.(최계립, 「이만 빨찌산대, 최계립 동지 회상기 1958. 7. 16」, 『이인섭 친필 노트』 9권, 173~184쪽)
- 19) 「老兵 金規勉 備忘錄」, 『誠齋 李東輝 全書』 下卷,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62쪽.
- 20) 최호림 역시 군사회의의 구성에서 김규면을 제외시키고 있다. Цой-Хорим, “Корейское партизанское движение в годы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в ДВК”(최호림, 「내전 시기 극동주에서 한인빨치산운동」. (Исторический очерк о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на ДВ. 1932г. 228листов), ГАХК Ф.П-44, оп.1, дело 599, с.162. 강우건은 김규면이 위원회의 고문으로 선정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강우건 유고」, 앞의 책, 113쪽)
- 21) 강상진, 「군비단약사」(1967. 3. 29), 앞의 책, 250쪽.
- 22) 「강우건 유고」, 앞의 책, 112쪽.

이용, 1중대장 겸 참모로 임표, 2중대장에 한운용, 3중대장에 김홍일이 임명되었다. 소대장은 김동명, 이빈, 강신우, 박홍, 마춘걸, 마건, 이성춘, 오동명 등이었으며 병력수는 357명이었다.²³⁾ 이렇게 재편된 대한의용군은 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과 연합하여²⁴⁾ 1921년 12월 초 이만전투를 시작으로 연해주해방전쟁에 투입되어 활약하게 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유시로부터 이동해 온 한인사회당계 인사들이 전한군사위원회를 재건하여 대한의용군을 조직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대한의용군은 이전 군비단 군사부를 확장, 재편성한 것이라는 점이다. 최호림이 “1921년 8월 군비단은 자발적으로 빨치산 군사소비에트를 조직했다”²⁵⁾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말한 것이었다. 이때부터 군비단은 명칭을 대한의용군, 또는 고려혁명의용군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보다는 군비단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려졌다.

한인사회당 계열 인사들이 연해주에서 전한군사위원회를 재건하여 대한의용군을 조직할 때 군비단이 선택된 것은 무엇보다 이전부터 한인사회당 성원들과 군비단이 연관을 맺어왔다는데서 비롯된다. 애초에 군비단이 이만으로 옮겨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소년모험단을 조직하고 있었던 홍파였다. 홍파는 한인사회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의 노력으로 군비단의 연해주 이전이 계획되고 추진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군비단은 애초 자유시로 옮겨가고자 했으나 그들이 이만에 도착했을 당

23) 위의 책, 115쪽. 병력수에 대해 최호림도 역시 동일하게 357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Цой-Хорим, Там же(최호림, 「내전 시기 극동주에서 한인빨치산운동」), c.162. 대한의용군이 3개 중대 9개 소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1개 소대 병력이 40명 안팎이라고 계산할 때 이 숫자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인다. 일본의 정보당국도 이만지역의 한인 군인수가 400명 내외로 파악하고 있었다. 「公信 第73號, イマン不逞鮮人二關スル件」, 1921. 12. 17, 『在西比利亞』 13권, 31항.

24) 대한의용군은 C. 세리세프프가 사령관으로 있던 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 제6연대와 연합했다. 강상진, 「군비단약사」(1967. 3. 29), 앞의 책, 253쪽.

25) Цой-Хорим, Там же(최호림, 「내전 시기 극동주에서 한인빨치산운동」), c.162.

시의 자유시 사정은 군비단을 이만에 눌러앉게 했다. 한인사회당과 관계를 맺고 있던 연해주 한인 빨치산부대들은 신민단부대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유시로 옮겨갔다. 때문에 연해주에 남은 빨치산부대 중 그나마 한인사회당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진 부대가 군비단이었다.

한인사회당 계열 인사들의 입장에서도 군비단이 이만에 눌러앉은 것은 행운이었다. 왜냐하면 자유시에서 통합된 한인무장부대를 조직하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난 후 한인사회당으로서는 이만의 군비단 덕분에 쉽게 전열을 복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인사회당 계열 인사들은 군비단을 기반으로 다시 한 번 연해주지역 한인 빨치산부대들의 조직과 통합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그 방식은 이전에 자유시에서 시도했던 방식과는 달랐다. 즉 그들은 단일한 지휘권 아래 수직적으로 편성되는 통합이 아닌 개별부대의 연합체적 형식의 통합을 꾀하게 되었다. 이는 자유시에서 통합운동의 실패가 통합된 부대의 통수권을 둘러싼 갈등으로부터 야기되었다는 자기반성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전한군사위원회가 군비단을 중심으로 대한의용군을 조직했다는 것은 전한군사위원회가 전체 연해주에 있는 한인 빨치산부대에 지도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포기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만일 전체 빨치산부대에 지도권을 행사할 요량이었다면 모든 부대를 통합해 대한의용군을 조직하거나, 적어도 군비단을 중심으로 다른 부대와 통합운동을 벌여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군비단이 중심이 된 대한의용군은 굳이 다른 빨치산부대와 통합을 추구하지 않았다. 단지 사안별로 연합작전을 전개하는 선에서 다른 부대와 관계를 맺었다. 각 부대의 자율권을 최대한 인정해 줌으로써 통수권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대의 탄력적인 운용에 아주 적절했다. 강력한 지도권 아래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의용군은 사안별로 다른 한인 빨치산부대 또는 소비에트 적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할 수 있었고 이것이 연해주 해방전쟁에서 다른 부대의 이름 앞에 군비단의 이름

을 놓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탄력적인 부대 운용은 얼마 후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즉 이후 전체 연해주의 빨치산부대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대한의용군은 그 움직임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만다. 1922년 8월 연해주 고려혁명군이 조직되고 연해주 한인 빨치산부대의 혁명군사소비에트가 설립되어 이 혁명군사소비에트가 전체 연해주의 한인 빨치산부대에 지도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대한의용군은 주도적인 위치에 서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도부 내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3) 한운용 중대의 이만 전투

군비단이 대한의용군으로 재편되어 이만에 주둔하고 있던 1921년 말 이만 남쪽 스파스크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과 백군은 하바롭스크를 향해 북쪽으로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첫 공격지점은 이만이었다. 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 제6연대장 C.세리세프는 전군에 동원령을 발포함과 동시에 대한의용군에게도 합류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용군사의회는 회의를 열어 전투에 참가할 것을 결정하고 1921년 12월 2일 사령관 이용 명의의 동원령을 내렸다.²⁶⁾ 곧 대한의용군 전 부대가 집합하여 사령관으로부터 출전명령을 받고 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과 함께 전선으로 이동했다.

여기에서 “원동해방전의 첫 희생자”²⁷⁾이자 “소비에트권력을 수립하기 위한 극동지역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투쟁의 역사에서 위대하고 잊을 수 없는 한 페이지를 차지한”²⁸⁾ 한운용 중대의 이만방어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는 뛰어난 전과와 희생으로 인해 살아남은 많은 빨치산들의 회고에 거의 빠지

26) 「강우건 유고」, 앞의 책, 113~114쪽.

27) 강상진, 「군비단약사」(1967. 3. 29), 앞의 책, 256쪽.

28) Цой-Хорим, Там же(최호림, 「내전 시기 극동주에서 한인빨치산운동」), c.165.

지 않고 남겨졌다.²⁹⁾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이만전투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자.

1921년 12월 2일 이만으로 진격하고 있던 백군에 대해 출동하라는 동원령에 따라 대한의용군의 모든 부대는 이만으로 집결했다. 대한의용군은 이곳에서 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 사령부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았다. 이전까지 제대로 된 무장을 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12월 3일 밤 3개 중대로 이루어진 대한의용군은 전열을 갖추어 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과 함께 백군을 공격하기 위해 출동했다. 이들은 강행군을 거듭하여 무라비요프-아무르스키(Муравьев-Амурский)역을 지나 우수리강에 도착했다. 정찰대가 와서 백군이 이미 우수리역에 나타났다는 보고를 했다. 이에 따라 대한의용군 부대와 인민혁명군은 즉각 전투태세에 돌입했다. 그런데 사령부로부터 전투를 미루고 일단 그라프(Граф) 마을까지 철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부대들은 곧 철수했다. 인민혁명군은 철도를 따라, 대한의용군은 우수리강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퇴각했다.

29) 이만전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김 Сынь-хва, 앞의 책, 126~127쪽; 십월혁명십주년 원동기념준비위원회 편찬, 『십월혁명십주년과 쏘베트 고려민족』, 해삼위도서주식회사, 1927, 70~75쪽; 『Боевой путь отряда Херсендана воспоминания участника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ак Чен Лима』(「극동내전 참가자 박청림이 회고한 혈성단부대의 전투행로」), (В.Д. Ким, 『Туманган пограничная река』(국경의 강 두만강), Изд. Узбекистон, 1994), с.33~34; 김규면, 「이만전쟁」,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 洪範圖편』, 정신문화연구원, 181~188쪽; 홍과, 「군비단」,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 洪範圖篇』, 111~112쪽; Цой-Хорим, Там же (최호림, 「내전 시기 극동주에서 한인빨치산운동」), с.162~165; 「강우건 유고」, 앞의 책, 1995, 115~121쪽; 강상진, 「군비단약사」(1967. 3. 29), 같은 책, 252~257쪽; 김하경, 「이만빨치산 김하경 회상기」, 『이인섭 친필 노트』 6권, 22~26쪽; 리종하, 「이만전투」, 『이인섭 친필 노트』 9권, 146~151쪽; 최계립, 「이만빨치산대, 최계립 동지 회상기 1958. 7. 16」, 『이인섭 친필 노트』 9권, 173~184쪽; 김원, 「이만戰役에서 戰死한 韓雲用씨의 略史」, 『이인섭 친필 노트』 9권, 154~155쪽; 김 Сынь Бин, 『Очерк партизанск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йце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1918-1922)』(김승빈, 『극동 한인빨치산운동 개관』), 1981, с.24~26.

인민혁명군의 퇴각을 알아차린 백군은 즉각 공격을 시작했다. 그들은 정면공격과 함께 철도 연선의 오른쪽으로부터 인민혁명군을 포위하며 이만으로 접근했다. 인민혁명군과 대한의용군은 이만과 그래프 사이에서 포위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백군에게 포위당하지 않기 위해 인민혁명군은 빠르게 그래프를 지나 이만까지 퇴각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용군 1, 3중대와 인민혁명군은 급히 이만으로 향했다. 대한의용군 2중대만이 그래프에 남겨졌다.

12월 4일 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 5시 대포의 포격과 기관총사격을 앞세운 백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포연이 이만 시가지를 뒤덮었다. 백군의 강력한 공격에 밀린 인민혁명군은 이만으로 진입하는 요충지인 이만철교를 버리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인민혁명군 사령부는 즉각 이만 북쪽 비킨(Бикин) 역으로 퇴각했으며, 부대들도 사령부의 뒤를 따랐다. 대한의용군 1, 3중대는 퇴각하는 인민혁명군의 후미에서 철수부대를 엄호하는 임무를 맡았다. 사령관 이용의 명령에 따라 이만철교를 지키기 위해 1중대 1소대가 남았다. 아침 7시 백군의 전초부대가 이만철교에 나타났다. 주위가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1소대는 그들이 백군인지 인민혁명군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백군은 기습적으로 사격을 가해왔다. 소대장 윤동선과 소대 군정위원 주병록, 그리고 2명의 병사가 적탄에 쓰러졌다. 남은 소대원들은 급히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곧 비킨으로 퇴각하는 본대에 합류했다. 이만은 별다른 저항없이 백군의 수중에 떨어지고 말았다.

문제는 그래프에 남겨졌던 대한의용군 2중대였다. 한운용이 지휘하는 2중대는 본대와의 연락이 끊어진 채 백군의 포위망 속에 남겨졌던 것이다. 그래프에서 밤을 지새운 한운용 중대는 본대를 쫓아 이만으로 퇴각했다. 이들은 이만이 이미 백군에게 점령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한운용 중대는 어떤 의심도 품지 않고 대열을 갖추어 이만역으로 접근했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이만을 점령하고 역 근처에 보병과 기병을 배치해두고 있던 백군 역시 역으로 접근하는 부대를 적이라고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도 자신

들이 이미 반나절 전에 점령한 이만 부근에 인민혁명군이 남아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상대를 먼저 알아본 것은 한운용 중대였다. 둘 사이의 거리가 약 200미터 가량 남았을 때 한운용은 이만역에 주둔한 부대가 자신들의 본대가 아니고 백군 부대임을 알아차렸다. 한운용은 즉각 산개하여 사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운용 중대는 백군을 향해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던 백군은 이 뜻밖의 공격에 당황하여 30분 만에 백기를 올렸다. 한운용 중대는 백군을 포로로 잡고 부상자들을 정돈하면서 전투 정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승리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한운용 중대의 뒤를 이어 무라비요프-아무르스키역으로부터 약 1,500명에 이르는 백군 부대가 도착한 것이다. 항복하던 백군들은 자신들의 본대를 알아보고서는 들었던 백기를 부러뜨리고 다시 사격을 가해왔다. 한운용 중대는 곧 자신들보다 수십 배 많은 적들에게 포위되었다. 전투를 해서는 승산이 없었다. 항복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운용 중대는 항복하기를 거부하고 최후의 한사람까지 싸우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곧 적들을 향해 맹사격을 가했다. 백군 측으로부터 총탄이 비오듯 쏟아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격소리가 끊어졌다. 탄약이 떨어진 것이다. 한운용 중대와 함께 전투에 참가했던 약 30여 명의 인민혁명군들 중 절반이 항복했다.

그러나 죽더라도 결코 항복하고자 하지 않았던 대한의용군 병사들은 곧 백병전에 돌입했다. 불행히 그들의 총에는 총검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 개머리판으로, 맨몸으로 백군과 최후의 일전을 벌이던 그들은 하나 둘씩 쓰러져갔다.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았던 전투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대한의용군 2중대원들은 모두 쓰러졌다. 그러나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았다. 중상을 입고 동지들의 시체들 속에 파묻혀 있던 중대장 한운용과 소대장 강신우, 분대장 엄관호, 윤상원, 한익현은 전투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시체를 정리

하던 백군을 향해 마지막 권총사격을 가했다. 이 공격으로 18명의 백군이 더 죽었다. 50여 명의 한운용 중대는 전멸했지만 백군의 피해는 이보다 훨씬 컸다. 백군은 사망자 약 600명에 부상자가 200여 명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전투가 끝난 후 18군데에 칼을 찔린 채 시체더미 속에 누워있던 마춘걸은 밤이 되자 기어서 이만의 한인 농가들 중 한 곳으로 숨어들었다. 그곳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그는 곧 이만을 탈출했다. 김치울과 김덕현은 부상당한 상태로 적십자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병원에서 도망하는데 성공했다. 전투 후 3일이 지나고 이만의 한인 주민들은 시체를 거두어 눈 속에 임시로 매장했다. 1922년 4월 6일 인민혁명군이 이만을 탈환한 후 이들의 시체는 동지들과 한인 주민들에 의해 이만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한운용 중대는 마춘걸, 김치울, 김덕현 3명의 생존자를 제외하고 전원 전사했다. 이들의 희생 덕분에 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과 대한의용군 1, 3중대는 안전하게 후방으로 퇴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운용 중대의 저항이 이만 지역 한인들에게 남긴 대가는 컸다. 이 전투에서 600명 이상이 전사하는 큰 피해를 입은 백군은 한인들에 대해 극히 가혹한 태도를 취했다. 백군은 이만 점령 후 종래 소비에트 적군과 관계하던 한인민회를 해산하고 친일적인 한인들로 구성된 새로운 민회를 조직하여 이만지방 한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게 했다.³⁰⁾ 그리고 소비에트 적군과 관계한 한인을 체포하여 구금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일반 한인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사를 취했다. 예를 들어 가택수사를 할 때 만약 청년이 신을 신고 있는 것을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구금, 투옥하여 한인들은 아예 외출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³¹⁾ 이러한 백군의 태도로 인하여 이만의 한인들은 백군에 대해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

30) 「浦潮 第374號, 白軍占領前後イマン方面鮮人ノ情況ニ關スル件」, 1922. 1. 4, 『在西比利亞』 13권, 27항.

31) 「公信 第73號, イマン不逞鮮人ニ關スル件」, 1921. 12. 17, 『在西比利亞』 13권, 31항.

었다.³²⁾

한편 이만전투에서 한운용 중대의 희생은 백군으로 하여금 이만의 한인들에게 가혹한 태도를 취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지만 이후 전투에서 백군이 한인부대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꺼리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한인부대의 용기를 두려워한 백군은 계속되는 전투에서 대한의용군의 방어선 쪽은 회피하곤 했다. 그래서 소비에트 적군 장교들도 “이르보! 빼료드!(여보! 앞으로!)”라는 대한의용군의 구령을 배워 사용하곤 했다고 한다.³³⁾ 즉 맞서는 부대가 한인부대인 것처럼 속여 백군의 사기를 꺾어 놓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로도 대한의용군은 한운용 중대의 희생을 발판삼아 이후 백군 및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가장 용감하게 싸웠다. 그리하여 연해주해방전쟁사의 첫머리에 대한의용군의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었다.

4) 퇴각

한운용 중대의 희생 덕분에 비킨으로 안전하게 퇴각한 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 6연대와 대한의용군 1, 3중대는 전열을 정비했다.³⁴⁾ 하바롭스크로부터 인민혁명군 총사령관 부관인 C.세리셰프가 도착했다. 하바롭스크로의 퇴각이 결정되었다. 12월 7일 대한의용군은 우수리강 우안을 따라 인민혁명군 포병의 철수작전을 엄호하여 그들을 전장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성공했다. 대

32) 『浦潮 第372號, 白軍二抵抗スルイマン鮮人軍隊二關スル件』, 1922. 12. 29, 『在西比利亞』 13권, 29항.

33) 십월혁명십주년 원동기념준비위원회 편찬, 『십월혁명십주년과 쓰베트고려민족』, 해삼위도서주식회사, 1927, 77쪽. “이르보! 빼료드!”는 “앞으로!”라는 러시아어 빼료드(Перед) 앞에 한국어 “이르보(여보)”를 붙인 말이다. 돌격할 때 쓰여진 구령이라고 생각된다.

34) 강우건은 당시 우수리강에 연안에 자리잡고 있던 박일리아의 부대 70명도 비킨으로 왔다고 회상하고 있다. (『강우건 유고』, 앞의 책, 66쪽) 자유시사변 당시 탈출했던 소수의 부대원만을 데리고 탈출했던 박일리아는 이후 대한의용군과 함께 움직였다.

한의용군도 철수하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우수리강변 중국 요하현 맞은편 어느 러시아촌이었다.³⁵⁾

시베리아 12월 추위에 철수작전은 매우 힘들었다. 저녁 7시경 시작한 철수작전은 밤을 새워 이루어졌다. 식량이 바닥이 난 지는 오래되었다. 대원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허덕이며 밤을 새워 행군을 계속했다. 철수작전의 막바지에 대원들을 이끌던 3중대장 김홍일마저 실신하고 말았다. 그는 이튿날 아침 부근을 수색하던 인민혁명군에 발견되어 요행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한다.³⁶⁾ 중대장마저 추위와 기아에 쓰러졌는데 일반 부대원들의 형편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12월 12일 하바롭스크에서 군사당국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인민혁명군 본대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전을 펼치는 것은 불리하니 지구전을 하자는 견지로 하바롭스크를 버리고 베라(Вера)로 퇴각하기로 결정되었다.³⁷⁾ 대한의용군이 또다시 인민혁명군의 철수를 위한 엄호에 나섰다.

하바롭스크 인근 블라디미로프카(Владимировка)에서 12월 14일부터 3일간 벌어진 전투에서 김홍일의 3중대는 백군의 진격을 차단하여 인민혁명군이 안전하게 인(ИИ)역까지 퇴각하게 했다.³⁸⁾ 대한의용군 외에 하바롭스크에 있던 프리아무르주 한인공산당연합회에 속해 있던 박영, 박 모이세이, 김치준, 황삼봉, 한기권 등 23명이 김치준을 소대장으로 하여 하바롭스크를 방어하는 전투에 참가했다.³⁹⁾ 인민혁명군 총사령관 부관 C.세리세프는 퇴각전에서 보여준 한인 빨치산부대의 용맹에 감탄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35) 최계립, 「이만빨치산대 최계립 동지 회상기 1958. 7. 16」, 『이인섭 친필 노트』 9권, 173~184쪽.

36) 金弘壹, 『大陸의 憤怒 - 老兵의 回想記』, 文潮社, 1972, 145~147쪽.

37) 「강우건 유고」, 앞의 책, 67~68쪽.

38) 최계립, 「이만빨치산대 최계립 동지 회상기 1958. 7. 16」, 『이인섭 친필 노트』 9권, 173~184쪽; 金弘壹, 앞의 책, 149~150쪽.

39) 박노순, 「쏘련원동에서 1918년 1921년까지 국민전쟁에 참가한 朴魯順 회상기」, 『이인섭 친필 노트』 10권, 84~91쪽.

아군의 손실없이 하바롭스크에서 현재 우리들이 안전하게 퇴각한 것은 블라디미로프카와 하바롭스크 지역에서 적의 공격을 지연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 임무를 전례없는 용감성과 전투력을 보여준 한인 중대에게 맡겼다.⁴⁰⁾

하바롭스크로부터 퇴각한 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과 대한의용군은 볼로차예프카(Волочаевка)역을 거쳐 인역까지 퇴각하여 전열을 정비하고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인역과 볼로차예프카역 사이에서 수차례 소규모 전투가 거듭되다 12월 24일 마침내 백군은 인역에 대공격을 개시했다. 인민혁명군도 더 이상은 물러날 수가 없었다. 인역을 사수하기 위한 대전투가 벌어졌다. 대한의용군도 인민혁명군과 함께 인역 사수를 위한 전투에 돌입했다.

이 전투에 참가했던 김하경의 회고를 통해 당시 급박했던 전투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다.

1921년 12월 23일 김하경의 부대는 인정거장 뒤 언덕위에 자리잡은 병영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인민혁명군 사령부로부터 다음날 새벽 백군의 공격이 있을 거라는 통지가 왔다. 그날 밤 정거장으로 돌입한 백군들은 새벽을 기해 인민혁명군 병영을 향해 기관총과 대포 사격을 시작했다. 병영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 인민혁명군 병사들은 혼돈 속에서 무질서하게 퇴각했다. 김하경이 속한 대한의용군 부대도 인민혁명군과 함께 퇴각하던 중이었다.

그때 인민혁명군 기병대가 원조하러 나타났다. 기병대장은 퇴각하던 병사들에게 대열을 정비하여 돌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의를 잃고 달아나던 인민혁명군의 소대장은 그 명령에 불복하려 했다. 그러자 기병대장은 그 자리에서 명령에 불복하는 소대장을 총살하고 다시금 진격명령을 내렸다. 전

40) Ким Сын-хва, Там же, с.128.

열을 가다듬은 인민혁명군과 대한의용군 연합부대는 “우라(Ура)”, “만세”, “뽀료드(Перед)”, “앞으로”를 외치면서 인정거장을 향해 반격을 개시했다. 대포와 기관총이 공격을 엄호했다. 백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정거장으로부터 퇴각했다.⁴¹⁾

이후에도 백군은 하루 종일 세 차례에 걸쳐 인역을 공격했다. 그러나 인민혁명군과 대한의용군의 강력한 저항에 맞닥뜨린 백군은 마침내 퇴각했다. 인역 방어에 성공한 것이다. 다음날 대한의용군 사령관 이용은 부대를 이끌고 올리콥트까지 백군을 추격하고 돌아왔다.⁴²⁾

마침 서쪽으로부터 총사령관 B.K.블류헤르가 지휘하는 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 본대가 인역에 도착했다. 백군은 볼로차예프카역에 방어선을 구축했다.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 때문에 양측은 1922년 1월 한 달간 전력을 추스르며 대치했다.

5) 반격

1921년 12월 22일 부대를 이끌고 인역에 도착한 인민혁명군 총사령관 B.K.블류헤르는 부대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인민혁명군 6연대에 속해 있던 대한의용군은 제5, 6연대와 특립아무르연대로 이루어진 혼성여단에 들어가 철도연선을 따라 진군하여 빨치산부대의 지원 하에 백군의 우측을 공격하고 볼로차예프카를 점령한 후 하바롭스크 방면으로 적을 추격하는 임무를 맡았다.⁴³⁾

1922년 2월 10일 볼로차예프카에 대한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최계립과 임표가 이끄는 한인중대는 인민혁명군 제6연대의 최선봉에 서서 볼로차예프카

41) 김하경, 「이만빨치산 김하경 회상기」, 『이인섭 친필 노트』 6권, 22~26쪽. 이 전투에서 김하경은 두 손가락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한다.

42) 「강우건 유고」, 앞의 책, 70~71쪽.

43) Ким Сын Бин, Там же(김승빈, 『극동 한인빨치산운동 개관』), с.28.

요새의 철조망을 헤치고 돌격했다. 백군의 참호로부터 기관총이 발사되어 많은 희생자가 속출했다. 하루 종일 계속된 공격에도 볼로차예프카 요새는 점령되지 않았다. 한인중대가 포함된 혼성여단을 지휘했던 여단장 B.A. 포포프는 이 전투 광경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2월 10일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진격을 개시했다. 제6연대 한인중대가 제일 먼저 철조망에 이르러 돌격을 감행했다. 대부분의 전사들은 철조망을 절단하는 도구가 없었다. 그래서 철조망을 총칼, 총 끝 아니면 자신의 몸으로라도 제거해야만 했다. 적군의 장갑자동차에서 발사되는 집중 기관총사격으로 한인중대 전체가 전사했다.

한인 기관총수 니콜라이 김의 헌신적이고 용감한 행동을 나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적의 총탄에 의해 기관총수인 에피로프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니콜라이 김이 그의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장갑을 벗어 버리고 기관총의 보탄대를 채워 넣고, 공격하는 백군에게 집중사격을 가했다. 맥심 기관총은 니콜라이 김의 굳건한 손에서 부단히 작동했다.⁴⁴⁾

2월 10일 전투에서 한인중대 전체가 전사했다는 기술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그만큼 많은 희생을 치르고 용감하게 싸웠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2월 10일의 공격에서 볼로차예프카 요새의 약점을 알아낸 제6연대는 2월 11일 밤 장갑차를 이끌고 남쪽으로부터 공격을 시작했다. 2월 12일 아침까지 계속된 전투는 제8호 장갑차가 철조망을 돌파하고 뒤이어 인민혁명군 병사들이 총공세를 가함으로써 오전 11시 끝났다. 볼로차예프카는 점령되고 백군은 수많은 사상자를 남긴 채 도주했다.⁴⁵⁾

44) Ким Сын-хва, Там же, с.130~131.

45) 강상진은 볼로차예프카 전투에서 “아군측 전망자는 482명, 중경상자 48명이었고 백군은 사망자 2000여 명”이라고 했다. (『강우건 유고』, 앞의 책, 70~71쪽) 이인섭은 전

볼로차예프카 전투에서 보여준 용감하고 영웅적인 투쟁으로 한인중대가 소속되어 싸웠던 제6보병연대는 가장 뛰어난 부대에게 수여하는 적기훈장을 받았다. 제6보병연대는 ‘적기훈장 제4 볼로차예프카보병연대’로 개명되었다. 볼로차예프카 공격 전투에서 전사한 병사들을 위해 이운-코란산에 기념비가 건축되었다. 전사한 이들이 묻힌 형제묘 위에 손에 장총을 든 인민혁명군 병사의 동상이 세워졌다. 이 형제묘에는 18명의 한인 병사들이 잠들어 있다.⁴⁶⁾

볼로차예프카 전투는 연해주해방전쟁에서 전환점이 된 전투였다. 이후 인민혁명군은 거침없이 진격했다. 2월 14일에는 하바롭스크로 진격했고 2월 28일 마침내 이만을 탈환했다. 이만탈환전에 대한의용군은 참가하지 않았다. 다만 이전 김정천 부대의 병사였던 김희열, 송순학 등 35명이 인민혁명군에 가담하여 참가했다.⁴⁷⁾

볼로차예프카 전투 이후 한인중대는 더 이상 전투에 참가하지 않고 독립보병중대라는 이름으로 인, 볼로차예프카, 블라디미로프카 일대를 수비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⁴⁸⁾ 이만이 탈환되고 난 후 한운용 중대의 생존자인 마춘걸이 와서 이만전투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용과 임표는 예전 군비단원 50명을 데리고 장례를 지내기 위해 이만으로 떠났다. 한인특립보병중대는 김홍일과 최계립이 남아 지휘했다.⁴⁹⁾ 이만에 갔던 이용과 임표는 그곳에서 대한의용군사회를 재조직하고 눈 속에 파묻어 두었던 한운용 중대의 전사자들을 다시 이만시 공원에다 묻고 장례를 지내주었다.

투 후 인에서 볼로차예프카, 블라디미로프카까지 전쟁터를 청소하는데 “얼마나 사상자가 많았는지 500여 명 되는 부대들이 24일간 소제하게 되었”다고 회상했다.(이인섭, 「망명자의 수기-모스크바에서 해삼까지」, 『이인섭 친필 노트』 15권)

46) 김 Сын Бин, Там же(김승빈, 『극동 한인빨치산운동 개관』), c.29.

47) 「강우건 유고」, 앞의 책, 72~73쪽.

48) 김하경, 「이만빨치산 김하경 회상기」, 『이인섭 친필 노트』 6권, 22~26쪽; 이종학, 「이만전투」, 『이인섭 친필 노트』 9권, 146~151쪽.

49) 최계립, 「이만빨치산대 최계립 동지 회상기 1958. 7. 16」, 『이인섭 친필 노트』 9권, 173~184쪽.

3. 한인부대의 활약과 연해주해방전쟁의 종결

1) 연해주해방전쟁에서 한인부대의 활약

(1) 솔밭관공산당부대 - 수이푼 지역

극동공화국과 백군 사이에 완충지대가 설치되고 대한의용군이 극동공화국의 영내인 이만에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을 때, 백군의 점령지역인 스파스크 이남 지역에 남은 한인들은 빨치산부대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 하나이니 수이푼지역에는 솔밭관공산당부대가 있었다. 솔밭관공산당부대는 1921년 7월 한경서, 신우여, 윤형 등이 이끄는 신민단부대 그리고 최경천, 최성삼, 신광호 등이 이끄는 한민회부대와 결합했다.⁵⁰⁾ 이들을 받아들인 부대는 대대 규모로 재편되었다.⁵¹⁾ 이로써 솔밭관공산당부대는 명실상부한 수이푼지역의 대표적 빨치산부대가 되었다.

1922년 4월 29일 솔밭관에서는 당과 군대의 주도 아래 메이데이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했다. 당시 2, 3중대는 남부지방으로 출장을 가고 허성환의 중대만 남아있었다. 이때 일본군 1개 여단이 솔밭관을 공격했다. 허성환 중대는 불리한 형세를 피하여 퇴각했다. 일본군은 4~5시간에 걸쳐 포격을 실시하고 솔밭관에 들이닥쳐 40여호의 민가를 불태우고 당과 군대의 서류 일체를 압수하여 다음날 물러갔다.⁵²⁾ 솔밭관공산당부대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50) 「연해주솔밭관고려혁명군실기」, 『십월혁명십주년과 쏘베트고려민족』, 해삼위도서주식회사, 1927, 64쪽.

51) Цой-Хорим, Там же(최호림, 「내전 시기 극동주에서 한인빨치산운동」), c.150; 朝鮮總督府 警務局, 「松田關韓族共產黨の真相」, 『大正11年 朝鮮治安狀況』, 高麗書林, 1989, 72쪽.

52) 「機密 第35號, 露領松田館二根據ヲ有スル不逞鮮人姜錫勳及崔斗哲等ノ行動二關スル件」, 1922. 6. 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 13권, 99항.

솔밭관공산당부대는 이후로도 일본토벌군과의 소규모 전투를 계속 치렀다. 1922년 6월 8일에는 포타포카촌의 일본군을, 6월 16일에는 시베창과 재 피겨우의 적을 습격했다.⁵³⁾ 7월에는 인민혁명군 총사령관 И.П.우보레비치의 명령에 따라 공격전을 준비하던 중 일본군 한 중대가 허커우 지방을 점령했다는 급보를 전해 받았다. 여기에서 일본군과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이 전투에 직접 참가했던 황운정의 회고를 들어보자.

“1922년 7월 일본군은 허커우를 점령하고 우리 부대의 기지인 시베창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허커우의 부농들은 일본군을 열렬히 환영했다. 그들은 일본군에게 우리 부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쉽게 우리를 격멸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우리는 함정을 준비했다. 우리의 주력부대는 일본군이 지나가야만 하는 계곡의 산기슭에 위치했다. 나를 포함한 몇몇 병사들은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일본군 정찰병들은 우리와 마주쳐 전투를 벌였다. 우리는 퇴각을 하는 체 하면서 일본군을 함정으로 끌어 들였다. 우리 기관총이 불을 뿜자 사방에서 보병들과 기병들이 일본군들에게 사격을 가했다. 공포에 휩싸인 일본군은 사상자를 버려두고 퇴각했다. 우리는 단지 문무원 동지 1명만을 잃었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⁵⁴⁾

솔밭관공산당부대는 이어 공격전을 펼쳐 허커우, 황거우를 잇달아 점령했다. 위협을 느낀 육성촌에 있던 일본군수비대는 니콜스크-우수리스크로 철병했다.⁵⁵⁾ 이후 솔밭관공산당부대는 1922년 9월 조직된 한인빨치산부대 혁명군사소비에트 산하 연해주 고려혁명군의 제1지대가 되었다.⁵⁶⁾

53) Ким Сын-хва, Там же, с.132.

54) Хван Ун-ден, *Я жизнь прожил напрасно*(황운정, 『나의 생애』), Алматы, 1999, с.13~14.

55) 「솔밭관빨치산과정」, 1927.(박환, 『재소한인민족운동사』, 국학자료원, 1998, 379쪽)

56) Цой-Хорим, Там же(최호림, 「내전 시기 극동주에서 한인빨치산운동」), с.148.

(2) 신용걸 부대의 올가 전투

수이푼과 더불어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지역 중 하나인 수찬지역의 한 인들은 수찬의 산악지대인 뜨레찌이-푸진에서 ‘연해주 한인총회’를 조직하고 그 산하에 수찬한인빨치산부대를 만들어 통합되었다. 사령관은 김경천이었고 병력은 700~800명 정도였다.⁵⁷⁾

1921년 가을 수찬한인빨치산부대에 올가항으로 일본군이 침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올가항을 구원하기 위해 신용걸이 3개 소대를 이끌고 파견되었다. 신용걸은 평안도 태생으로 1915년경 훈춘(琿春)에서 황병길과 함께 훈춘의용대를 조직해 활동하다 연해주로 건너와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 한민 학교 교사가 되었다. 그는 뜨레찌이-푸진에서 통합 수찬한인빨치산부대가 결성될 때 김경천이 설립한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장교가 되었다.⁵⁸⁾ 그는 중대장이 되어 부대를 이끌고 1921년 가을 올가항에 도착했다. 부대는 라자렌코가 지휘하는 올가항수비부대에 편입되었다. 이곳에서 11월 14~16일에 걸쳐 신용걸 중대는 “수청고려인빨치산부대들 중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⁵⁹⁾였던 올가항전투에 참가했다. 올가항전투는 한운용 중대의 이만전투와 마찬가지로 많은 빨치산들의 회고에 언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옛 혈성단부대원으로 올가항전투에 참가했던 박청림의 회고가 가장 생생하다. 그의 회고 속에 나타난 올가항전투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1921년 11월 14일 밤 우리 중대 척후병이 올가항으로 잠입하는 수상한 배를 발견했다. 척후병이 불빛 신호를 해도 반응이 없었다. 놀랍게도 아군 대대 참모부는 우리에게 포사격을 금지시켰다. 일본상인들이 빨치산들이

57) Хан Чан Гер, “Воспоминание об участии трудящихся корейцев в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한창걸, 「극동내전에 한인 노동자들의 참여에 대한 회상」), ГАХК, ф.44-п, оп.1, д.601, лл.1-64.

58) 「申龍傑 同志에 對한 참고들」, 『이인섭 친필 노트』 7권, 3~16쪽.

59) 「老兵 金規勉 備忘錄」, 앞의 책, 164쪽.

입을 군복을 신고 온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착각으로 우리는 때를 놓쳐버렸다. 일본 함선은 제일 위험한 수역을 지나 새벽녘에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병영 가까이에 육전대를 상륙시키기 시작했다. 빨치산대원들은 참호를 따라 방어태세를 취했다. 좀 지나자 일본군 토벌대의 맹공격이 시작됐다. 그러나 우리들의 맹렬한 대응사격을 당하자 물러서고 말았다.

그날 오전 10시경에 백군 군함들이 우리 진지 쪽으로 바짝 들어와 대형 포로 함포사격을 계속했다. 사격은 저녁 늦게야 멎었다. 적의 대구경 기관총 사격은 아주 위험했다. 한 총알이 병사 벽돌에 맞고 옆으로 튀어나가 한 유격대원에게 부상을 입혔다.

적의 맹사격이 멎은 지 약 1시간 동안 조용했다. 우리는 적의 거동을 주의깊게 살피고 있었다. 감시소 대원의 보고가 입수되었는데, 해안 근처 숲이 무성한 곳에 백군 장병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군함 갑판에서는 응원대 편성이 한창이었다.

이 기회를 이용해 우리는 적들이 집결된 곳을 향해 기관총 사격을 개시했다. 응원대가 탄 보트에도 화력을 집중했다. 뭐라고 짓거리는 소리가 먼 데서 들려왔다. 배가 총알을 맞자 곤두박질하듯 뒤집어졌다. 마치 바다가 그들을 삼켜버리는 듯했다. 오직 20명 가량 간신히 육지에 올라 두블린카 촌 쪽으로 달아났다.

백군장병들은 다시 무력을 편성해 재차 공격했다. 수적으로 우세한 적과의 결투는 참으로 힘겨웠다. 유격대원들은 탄환이 떨어지자 기마육박전에 나섰다. 신용걸 중대장이 장도를 휘날리며 선두에서 질풍같이 돌진하자 부하들은 '만세!'를 외치면서 총공격을 개시했다. 이 가열전이 얼마나 계속되었는지 지금 기억되지 않으나 우리의 손실도 컸다. 우리 지휘관이 전사했고 나도 중상을 입었다. 유격대원들은 부상당한 우리들을 옮기향 부근 한인촌으로 이송해 주었다. 현지 동포들이 우리를 반갑게 마중했다. 기력을 회복한 우리가 본영에 돌아갔을 때는 백군 군함들이 올라항을 이미 떠났다. 여러 전우들은 우리와 함께 없었다.⁶⁰⁾

⁶⁰⁾ *Боевой путь отряда Херсендана воспоминания участника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

박청림이 부상을 당해 한인마을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11월 16일 원기를 회복한 빨치산들은 다시 올라향을 공격했다. 공격의 중앙을 한인중대가 담당했다. 약 2시간 동안의 치열한 전투 이후에 올라가는 빨치산에게 점령되었고, 백군과 일본군은 퇴각했다. 이 전투에서 중대장 신용걸 이하 22명의 한인 빨치산이 전사했다.⁶¹⁾ 신용걸은 포위공격을 당하는 도중 포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백군과 일본군의 피해는 사망 90여 명에 부상자는 120여 명이었다.

전투를 마친 한인부대는 전사한 전우들을 올라시 공원 안에 묻고 올라향을 떠나 수찬 수주허로 돌아와 한창걸 부대에 합류했다.⁶²⁾

(3) 김경천 부대의 이만전투

한편 1921년 11월 한인사회당군대를 이끌고 수찬구역 니콜라예프카 마을로 이동하다 일본군과 백군에게 공격을 당해 퇴각한 김경천은 중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나아가 연해주 빨치산사령부가 있는 칼리닌 구역 카르톤 마을에 도착했다. 30명으로 이루어진 김경천 부대는 곧 부근 엘레-소스노프카 마을로 이동하여 주둔했다.⁶³⁾

당시 백군은 일본군의 지원을 받아 연해주 일대 빨치산부대에 대한 총공격을 펼치는 한편 중립지대를 돌파하여 하바롭스크를 향해 진군하고 있었다. 12월 4일 이만전투 이후 북상한 일본군과 백군은 하바롭스크 이남 우수리강 일대에서 전선을 펼쳐놓고 있었다. 백군의 총공격을 받는 극동혁명군 인민혁명군을 원조하기 위해 연해주 빨치산부대의 주력 쉘브첸코 대대는 우

н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ак Чен Лима(「극동내전 참가자 박청림이 회고한 혈성단부대의 전투행로」), Там же, с.32~33.

61) 『십월혁명십주년과 소비에트고려민족』, 53~54쪽.

62) 강호여, 「연기우 의병대와 수청빨치산대에 참가한 강호여 동지 회상기」, 『이인섭 친필 노트』 10권, 52~53쪽.

63) Цой-Хорим, Там же(최호림, 「내전 시기 극동주에서 한인빨치산운동」), с.181.

수리전선을 향해 떠나갔다. 카르톤 마을에는 빨찌이 지휘하는 제2대대와 빨치산부대 사령부만 남아있었다. 12월 15일 백군이 카르톤을 포위했다. 대대장 빨찌은 백군에게 항복했고 지휘자를 잃은 2대대 빨치산들은 일부는 포로가 되고 일부는 도망했다.⁶⁴⁾ 4대의 기관총을 보유한 보병 60명과 기병 40명으로 이루어진 강고한 빨치산들이 엘레-소스노프카의 김경천에게로 옮겨왔다. 김경천은 이들을 자신의 부대에 편입시켜 임시혼성부대의 사령관이 되었다.⁶⁵⁾ 이들은 백군과 일본군이 하바롭스크 함락에 신경을 쏟는 동안 이만을 공격하여 점령하기로 결정했다. 백군의 중간연락을 끊기 위함이었다.

1922년 1월 6일 김경천이 이끄는 혼성 빨치산부대는 이만을 향해 진격했다. 당사자인 김경천의 회고에 따르면 약 6시간에 걸친 전투 결과 이만을 정복했다. 그는 약 200명의 혼성 빨치산부대로 700여 명이 지키던 이만시를 공격하여 점령했다는 것이다. 김경천은 이만전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그 이듬해 정월에 백군이 『이만』 땅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적군(赤軍)이 모다 나오나보다 하고 다시 행군을 하여 나오다가 『하바로프스크』에서 흥백전쟁이 잇섯는데 그 전쟁중에 나는 백군의 중간연락을 끈키 위하여 『이만』에 잇는 백군(白軍) 총공격을 시작하니 그때는 정월 엿던날이라. 데일차로 백군이 수백명 죽고 대략 여섯시간동안 격렬히 싸호는데 백군은 대포를 걸고 내리다 질너서 탄환이 우박 쏘다지듯 하였소. 조선 군사가 참싸움을 잘함되다. 여러가지 미비로 훈련이 부족하고 기계가 불비하것마는 빠득 빠득 약을 쓰고 싸호는데 늦는 방마다 그 큰 아라사 군사가 떠러지지 않을 때가 업섯소. 이리하여 아라사 군사가 이때는 조선군사라면 떨게되

⁶⁴⁾ Там же.

⁶⁵⁾ 적군사령관이 백군에게 항복하여 자신이 적군의 일부를 지휘했다는 김경천의 회상은 이것을 말한다. 金擎天, 「氷雪싸힌 西伯利亞에서 紅白戰爭한 實地經驗談」, 『동아일보』 1923. 7. 29.

였소. 그들의 말이 적군뿐이면 어질 것 업는데 고 눈 깜안 놉들 때문에 결단이라고 하였섯소.

이때 적군의 사령관이 백군에게 항복하야 그리로 가서 부텃슴으로 적군의 일부를 내가 지휘하야 싸호게 되얏는데 이때 나는 악에 바친 사람이라 탄환이 비쏘다지듯 하는 속에 말을 타고 서서 지휘하는데 백군들이 대포를 놏타가 번한 물뱃에 나를 보고 『꺼레이즈』란 소리를 지르고 다라나는 자가 잇섯소. 이리하야 『이만』은 완전히 점령하엿으나 이때는 적군의 힘이 약할 때이라 략 이백여 명의 우리 군사로 백군 칠백여 명이 직히든 곳을 점령하기는 하엿으나 배후에는 일본군사가 잇는 터이라 오래 직힐 수가 업시 다시 퇴각하엿소.”⁶⁶⁾

이 전투로 인해 김경천은 러시아 빨치산부대에서도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최호림은 이 전투에 대해 “내전시기 빨치산이 거둔 빛나는 승리들 중의 하나였으며, 극동 내전의 역사의 위대한 페이지 중 한 페이지를 구성”한다고 극찬했다.⁶⁷⁾ 그러나 이만 점령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전투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수리역으로부터 대규모 백군 지원병을 실은 기차가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김경천 부대는 이만으로부터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만전투 승리 후 김경천은 연해주 빨치산부대 총사령부가 있는 아누치노로 돌아갔다. 이후 1922년 여름 연해주 빨치산부대의 혁명군사소비에트에 의해 김경천은 포세트-훈춘지구 한인 빨치산군대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⁶⁸⁾

66) 金擎天, 위와 같음.

67) Цой-Хорим, Там же(최호림, 「내전 시기 극동주에서 한인빨치산운동」, c.181.

68) ‘Список Корейских партизанских отрядов, действовавших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1919-1922’, “Корейцы - жертвы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в СССР 1934-1938”(「1919-1922년 극동에서 활동한 한인빨치산부대 목록」, 『1934-1938년 소련에서 정치적 박해의 희생자들 - 고려인』) книга девятая, Москва, 2007, c.275.

(4) 한창걸 부대의 올라 탈환전

김경천과 강국모가 떠나고 난 후 수주허에서 재조직된 한창걸의 수찬빨치산부대는 일본군의 사주를 받아 침입한 꼬산과 흥후즈부대를 방어하면서 혼란하고 있었다.⁶⁹⁾ 1922년 4월초 부대는 연해주군사소비에트 사령부로부터 올라가시를 점령한 카벨네프 백군을 몰아내라는 특별전투명령을 받았다. 부대는 사령관 한창걸과 참모장 박경철의 지휘하에 보병 1개 중대, 1개 기병소대, 1개 기관총소대 그리고 통신대의 병력으로 올라항을 향해 출전했다.⁷⁰⁾ 병사들은 그 전해 전사한 신용걸 등의 원수를 갚자고 결의하여 사기가 충천해 있었다.⁷¹⁾

부대는 러시아 빨치산부대와 합세하여 올라항으로부터 11킬로미터 떨어진 페름 마을에 도착했다. 페름에 90명 가량의 백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수찬빨치산부대는 페름을 포위 공격했다. 2~3시간의 전투 후 백군은 15~16명의 사상자를 남기고 도망했다. 한창걸은 이 페름전투가 “연해주 빨치산부대 사령부와 의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한 후 우리 부대의 첫 전투”였다고 평가했다.⁷²⁾ 이후 수찬빨치산부대는 라자렌코의 러시아 빨치산부대와 함께 올라항을 포위했다.

올라항을 포위한 후 새벽이 밝아오자 빨치산부대는 도시에 대한 총공격을 시작했다. 한인 빨치산부대는 올라항 부두에까지 다다랐다. 그러나 백군의 저항은 의외로 완강했다. 오후까지 전투가 이어졌으나 탄약이 부족하여 빨치산부대는 부득이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투는 지구전으로 이어졌다. 빨치산부대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올라항을 포위하고 백군에게 압박을 가했다.⁷³⁾ 고상준은 이 포위전에서 한인 빨치산부대의 활동을 다음

69) 고상준, 「수청 第一빨치산軍隊」, 『이인섭 친필 노트』 9권, 127~138쪽.

70) Хан Чан Гер, Там же(한창걸, 「극동내전에 한인 노동자들의 참여에 대한 회상」).

71) 『십월혁명십주년과 소비에트고려민족』, 54쪽.

72) Хан Чан Гер, Там же(한창걸, 「극동내전에 한인 노동자들의 참여에 대한 회상」).

73) 강호여, 「연기우 의병대와 수청빨치산대에 참가한 강호여 동지 회상기」, 『이인섭 친

과 같이 묘사한다. “其 都市 - 올긴을 封쇄하고도 四方으로써 一切 通行을 斷絶케 하여서 食料 供給을 中斷시키고, 우리는 4~5명씩 적은 分조로 단총, 포탄을 가지고서 적軍 步哨室을 파괴하고, 놈들을 쫓고 사로잡고, 놈들 포태를 파괴하고, 電신연락을 끈허노코, 不時에 市內에 돌입하여 小隊室을 질부시니 원수놈들은 市外로 나오지 못하고 兵營에서 惶惶상태에 있었다.”⁷⁴⁾ 결국 7월 말 백군은 수많은 사상자를 남기고 기선에 올라 올라가항을 떠났다. 올라항은 다시 빨치산의 손에 들어왔다.

3개월간의 전투 과정에서 수찬빨치산부대가 입은 피해에 대해 『십월혁명 십주년과 쏘베트고려민족』과 강호여는 단지 1명의 전사자만 있었다고 기록했다.⁷⁵⁾ 그러나 3개월간의 긴 전투기간 동안 단지 1명의 전사자만 있었다고는 믿기지 않는다. 이에 대해 고상준은 좀 더 현실적인 기록을 남겨두었다. 그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러시아 빨치산 50여 명이 죽고 20여 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한인 빨치산은 28명이 죽고 9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⁷⁶⁾

올가탈환전이 끝난 후 한창걸의 수찬빨치산부대는 수주허로 돌아왔다.

한편 1922년 당시 수찬지역에는 한창걸의 수찬빨치산부대 외에 다른 빨치산부대들도 조직되어 있었다. 쉬코토보에는 100여 명으로 이루어진 치머우 군대가 있었다. 이 부대에는 모스크바 사관학교를 졸업한 김려하가 사령관으로, 김정하가 참모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⁷⁷⁾ 아누치노의 웨브첸코 빨치산부대 안에도 한인 중대가 활동하고 있었다. 두 개 소대로 이루어진 한인 중대의 중대장은 채현이었고 소대장은 전태준, 김청산이었다.⁷⁸⁾ 이 외에도

필 노트』 10권, 54~56쪽.

74) 고상준, 「수청 第一빨치산軍隊」, 『이인섭 친필 노트』 9권, 127~138쪽.

75) 『십월혁명십주년과 쏘베트고려민족』, 56쪽.

76) 고상준, 「수청 第一빨치산軍隊」, 『이인섭 친필 노트』 9권, 127~138쪽.

77) 김병하, 「치머우 조선빨치산대」, 『이인섭 친필 노트』 9권, 3~12쪽; 이영도, 「치머우 빨치산대 모연대장 리영도 회상기」, 『이인섭 친필 노트』 10권, 100~104쪽.

78) 정상현, 「셉첸코빨치산대 내 조선인부대이던 채현 중대에 대한 회상담」, 『이인섭 친필 노트』 25권, 56~69쪽.

수찬 일대와 올라, 추고이카, 도비허 등지에 수십에서 수백명에 이르는 지방대가 조직되어 있었다.⁷⁹⁾

2) 연해주해방전쟁의 종결

1922년 6월 극동공화국 정부에 철병을 통지한 일본정부는 파렌에서 중지되었던 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의했다. 1922년 9월 4일 창춘(長春)에서 회담이 열렸다. 이번에는 극동공화국 대표와 더불어 소비에트러시아정부 대표도 참가했다. 이들은 일본군의 전면적 철병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소위 니항 사건에 대한 보상으로 북사할린 점령의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협상은 결국 21일 만인 9월 25일 결렬되었다.

한편 일본과의 회담을 통해 일본군의 철병을 이끌어내고 마지막 전투를 위한 준비를 끝낸 소비에트 적군은 1922년 9월 백군에 대한 총공격을 실시했다. 이미 6월에 철병을 선언한 일본군은 중립을 선언하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철수해 있었다. 창춘회담의 결렬과 함께 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만에 주둔하고 있던 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 본대는 시베리아횡단철도를 따라 남진하기 시작했다. 1922년 10월 7일 인민혁명군은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길목인 스파스크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를 개시했다. 스파스크에는 1921년 일본군에 의해 엄폐물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진지가 구축되어 있었다. 백군은 스파스크에서 최후 결전을 준비했다. 이틀 만에 걸친 격렬한 전투 끝에 인민혁명군은 스파스크산에 설치된 백군의 진지를 돌파하고 스파스크시를 점령했다.⁸⁰⁾ 스파스크가 점령됨으로써 실질적

79) 고상준, 「수창 第一빨찌산軍隊」, 『이인섭 친필 노트』 9권, 127~138쪽. 고상준에 따르면 지방대원 총수는 2,315명에 달했다.

80) Н. Ильюхов, И. Самусенко, “Партизанское движение во приморье(1918-1922)”(연해주에서 빨치산운동), Москва, 1962, с.112.

인 내전은 끝을 맺었다. 이후의 전투는 백군을 추격하여 몰아내는 것이었다. 스파스크를 점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민혁명군은 10월 15일에 니콜스크-우수리스크에 도착했다.

연해주 고려혁명군으로 재편된 연해주 한인 빨치산부대들도 백군과 전투에 돌입했다. 수찬지역에서 활동하던 빨치산들은 연해주군사혁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아누치노를 경유하여 수찬 이바노프카(한인들은 이포동령이라고 불렀다)⁸¹⁾에 주둔한 백군들을 몰아내는 전투를 시작했다. 이들 중에는 한창걸이 지도하는 수찬빨치산부대도 포함되어 있었다.⁸²⁾ 당시 이바노프카에는 500여 명의 백군들이 주둔하고 있었다. 9월 20일 한창걸 부대가 포함된 빨치산부대에게 이바노프카를 점령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⁸³⁾ 첫 번째 공격은 실패했다. 빨치산부대는 이바노프카에 다다르지도 못한 채 백군의 반격을 받아 이즈베스트카 마을까지 퇴각했다. 다음날 시도로프와 쉘브첸코 군대까지 합세하여 백군을 이바노프카까지 퇴각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이바노프카를 해방시키지는 못했다. 이바노프카에는 좋은 임페물과 참호들이 있었다. 빨치산부대를 돕기 위해 인민혁명군 제5군단으로부터 특수임무부대(ЧОН)가 도착했다.⁸⁴⁾ 빨치산부대와 특수임무부대의 연합작전의 결과 마침내 이바노프카는 점령되었다.⁸⁵⁾ 수찬빨치산부대는 하마탕(라즈돌리노예)까지 백군을 추격했다. 그러나 외교상 관계로 인해 자기들이 공작하던 지방으로 돌아가라는 혁명군사위원회의 명령으로 수찬빨치산부대는 수찬구역 신영거우(니폴라예프카)로 회군했다.⁸⁶⁾

81) 『십월혁명십주년과 쓰베트고려민족』, 55~56쪽.

82) 강호여, 「연교우 의병대와 수찬빨치산대에 참가한 강호여 동지 회상기」, 『이인섭 친필 노트』 10권, 56~58쪽.

83) *Приказ № 70* 명령 제70호, 1922. 9. 22, РГИАДВ Ф.725, оп.1, д.5, с.170.

84) 고상준, 「수청 第一빨치산軍隊」, 『이인섭 친필 노트』 9권, 127~138쪽.

85) Хан Чан Гер, Там же(한창걸, 「극동내전에 한인 노동자들의 참여에 대한 회상」).

86) 『십월혁명십주년과 쓰베트고려민족』, 55~56쪽; 고상준, 「수청 第一빨치산軍隊」, 『이인섭 친필 노트』 9권 127~138쪽.

김정하와 김여하가 이끄는 치머우군대와 쉘브첸코 부대 내 채현의 한인중대도 이 전투에 참가했다. 치머우부대 역시 전투 종료 후 치머우로 돌아갔지만,⁸⁷⁾ 채현의 한인 중대는 수찬빨치산부대가 회군하고 난 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 진격하여 니콜스크-우수리스크를 함락하는 전투에 참가했다.⁸⁸⁾

패전한 백군은 국경을 넘어 도망하기 위해 라즈돌리노예에서 그들의 군대를 양분하여 한 그룹은 블라디보스토크로, 다른 한 그룹은 포세트지방으로 퇴각했다. 수이푼지방의 한인 빨치산부대들은 포세트지방으로 도망한 백군들을 추격했다. 김희천이 이끄는 약 700명의 빨치산부대가 포세트지방까지 백군을 추격하여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주었다.⁸⁹⁾

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은 스파스크와 니콜스크-우수리스크를 거쳐 10월 25일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블라디보스토크에 입성했다. 이미 10월 19일 인민혁명군은 블라디보스토크 입구 오케안스카야역에 이르렀지만 일본군 때문에 시내로 진입할 수 없었다. 시내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단행하며 일본군을 압박했다. 결국 10월 24일 일본군사령부와 인민혁명군 대표 사이에 철병을 위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다음날 인민혁명군은 붉은 기를 들고 블라디보스토크의 중심지 스페틀란스카야 거리를 행진하여 들어왔다.⁹⁰⁾ 일본군은 소비에트적군과 대적하지 않고 조용히 철병을 서둘렀다. 블라디보스토크가 소비에트 적군의 수중에 들어감으로써 시베리아내전에서 적군의 승리가 선포되었다.⁹¹⁾ 장장 5년간에 걸친 러시아내전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가 해방된 다음날인 10월 26일 레닌은 극동공화국 수상에게

87) 김병하, 「치머우 조선빨찌산대 김병하 동지 회상기 1958. 1. 15」, 『이인섭 친필 노트』 9권, 3-12쪽.

88) 정상현, 「셸첸코 빨찌산군대에서 공작하던 정상현이가 채현 중대에 대한 회상담」, 『이인섭 친필 노트』 6권, 90-98쪽.

89) Kim Сын-хва, Там же, с.123-124.

90) 「붉은 기는 해삼에서 휘날리었다」, 『연해주어부』, 1932. 11. 5, 4면.

91) Н. Ильюхов, И. Самусенко, Там же(연해주에서 빨치산운동), с.115-116.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냈다.

10월 혁명 5주년에 즈음하여 적군은 외국인 점령자들로부터 러시아연방공화국과 그의 가맹 공화국 영토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일보를 내디뎠습니다. 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의 극동지역 장악은 일본제국의 힘겨운 압제를 경험했던 러시아시민을 러시아 근로자대중과 결합시켰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승리에 대해 러시아 노동자와 용감한 적군에게 경의를 표하며, 극동공화국 정부가 해방된 주민들과 블라디보스토크시의 전 노동자·농민에게 러시아연방공화국 인민위원 소비에트의 인사를 대신 전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⁹²⁾

비록 수이푼지역과 남우수리주의 중국과 국경일대에 백군의 잔여병력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블라디보스토크를 점령함에 따라 소비에트 러시아는 시베리아내전에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경일대에 남아있던 백군과의 마지막 전투에는 임병극이 지휘하는 한인 빨치산부대가 참가했다. 원래 군비단의 별동대장이었던 임병극은 1921년 8월 5일 군인 75명을 이끌고 장백현 본단을 떠나 군사본부인 이만으로 향했다. 20여 일만에 추풍에 도착한 임병극부대는 이만으로 가지 않고 하마탕, 얼두거우 지방에 주둔하고 있었다.⁹³⁾ 1922년 9월 소비에트 적군이 백군을 몰아내는 전투를 개시하자 임병극의 부대도 이에 참가하여 수이푼에서부터 중국국경에 이르기까지 추격전을 개시했다.⁹⁴⁾ 결국 바라바시를 지나 명구가이에서 백군은 국경을 넘었다. 이 광경을 박청림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92) 『레닌 전집』(Ким Сын-хва, 앞의 책, 136쪽에서 재인용)

93) 「강우건 유고」, 『독립군의 수기』, 국가보훈처, 1995, 131쪽.

94) 류학관, 「림炳극 군隊와 軍備團」, 『이인섭 친필 노트』 9권, 32~36쪽.

1922년 11월 2일 항일 빨치산부대는 후퇴하는 백군부대를 계속 추격했다. 저녁 무렵에 백군 패잔병들은 중국 국경에 당도했다. 고개에 오른 그들은 일제히 공중사격을 했다. 아마 고향땅과 이별을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모두가 껴안고 울고 있었다. 그들 모두가 서쪽 중국땅으로 걸기 시작했다.⁹⁵⁾

이들을 마지막으로 러시아극동 연해주 땅에는 백군이 모두 사라졌다. 명실상부 시베리아내전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이 마지막 연해주해방전투에 한인 빨치산부대가 참가했던 것이다.

한편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하던 일본군의 철병이 곧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차례로 철병을 진행하던 일본군이 마지막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난 것은 1923년 4월 2일이었다.⁹⁶⁾ 1918년 4월 5일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한 이래 만 5년만이었다. 『선봉』지의 기사에 따르면 일본군은 떠나는 마지막 날 공산주의 선전문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장교 1명과 병사 2명을 총살했다고 한다.⁹⁷⁾

4. 나오며

1920년 4월 6일 이르쿠츠크에 극동공화국이 수립됨으로써 시베리아내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제국주의간섭군 중 유일하게 남은 일본군

95) *Боевой путь отряда Херсендана воспоминания участника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ак Чен Лима*(「극동내전 참가자 박청림이 회고한 혈성단부대의 전투행로」), Там же, с.33-34.

96) 「일본군함 본국으로」, 『선봉』, 1923. 4. 5, 2면.

97) 「海參에서 돌아간 日本海軍 十七人 監禁」, 「군함 떠나는 날 軍人을 銃殺」, 『선봉』, 1923. 4. 17, 2면.

은 연해주 남부로 퇴각하였으며 이만과 스파스크 사이에 중립지대를 둔 채 전선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교착상태는 1921년 12월 일본군의 지원을 받은 백군이 중립지대를 넘어 총공세를 벌이면서 깨지게 되었다. 시베리아내전의 최후단계인 연해주해방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당시 이만에는 3개 중대로 이루어진 대한의용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1921년 12월 4일 “소비에트권력을 수립하기 위한 극동지역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투쟁의 역사에서 위대하고 잊을 수 없는 한 페이지를 차지한” 대한의용군 2중대인 한운용 중대의 이만방어전투가 벌어졌다. 이만역을 방어하는 전투에서 한운용 중대는 3명의 생존자를 제외하고 전원 전사했다. 백군의 피해는 600명 이상이었다. 한운용 중대의 영웅적 희생 덕분에 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과 대한의용군 1, 3중대는 안전하게 후방으로 퇴각할 수 있었다. 또한 한인부대의 용기를 두려워한 백군은 계속되는 전투에서 한인부대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꺼려하게 되었다.

이후 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은 하바롭스크를 포기하고 인역까지 퇴각하였다. 그러나 인역에서 전열을 정비한 인민혁명군은 1922년 2월 볼로차예프카 공세를 시작으로 전세를 뒤집어 2월 말에는 다시 이만을 수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한의용군은 퇴각전인 비킨전투, 블라디미로프카전투, 인역 그리고 반격전인 볼로차예프카전투와 하바롭스크수복전투에서 큰 공헌을 세웠다.

또한 연해주해방전쟁의 과정에서 수이푼지역과 수찬지역의 한인 빨치산 부대들은 러시아 빨치산부대들과 연합하여 일본군의 지원을 받는 백군과의 전투에서 큰 공로를 세웠다. 수이푼지역에서는 솔밭관공산당부대가 활약했으며, 신용걸 부대는 올가항을 지키는 전투에서 큰 희생을 치르기도 하였다. 김정천 부대는 한때 이만을 점령하기도 하였으며 한창걸 부대는 올가를 탈환하는 전투에서 공로를 세웠다.

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의 공세에 밀린 일본군은 결국 1922년 6월 철병을 통지했다. 인민혁명군은 백군에 대한 마지막 공세를 시작하여 1922년 10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 입성함으로써 연해주해방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마지막 전투에 연해주 고려혁명군으로 재편된 연해주 한인 빨치산부대들도 합세하였다. 수찬지역에서 한창걸이 지도하는 수찬빨치산부대, 김정하와 김여하가 이끄는 치머우군대와 쉘브첸코 부대 내 채현의 한인중대, 김희천이 이끄는 약 700명의 빨치산부대가 마지막 전투에 참가했다. 그리고 국경일대에 남아있던 백군과의 마지막 전투에는 임병극이 지휘하는 한인 빨치산부대가 참가했다.

이렇듯 시베리아내전의 마지막 국면인 연해주해방전쟁에서 대한의용군과 한인 빨치산부대들의 활약은 매우 컸다. 그리고 연해주해방전쟁에서 소비에트적군이 승리하는데 세운 이들의 공로는 이후 연해주에서 한인사회가 발전하는데 기반이 되었다.

내전 후 연해주에서 사회주의 건설과 한인

윤상원

1. 머리말

“함남 단천 출신으로, 1911년 하바로프스끄 육군유년학교에 입학했다. 1913년부터 이르쿠츠크사관학교에 입학했다. 1916년 졸업 후 이르쿠츠크 보병 제27연대 소위로 임관했다. 10월혁명이 일어난 뒤 모스크바에서 러시아공산당에 입당했고 1921년 고려공산당 군사부 위원, 고려혁명군 장교 단장을 역임했다.”¹⁾

“..... 1925년 조선으로 귀환한 뒤 조선총독부 및 친일인사들과 관계를 맺으며 적극적인 친일활동에 나섰다. 1931년 일제가 간도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생단(民生團)을 조직할 때 잠시 참여했다. 간도협조회를 총지휘하면서 과거 공산주의운동에 몸담았다가 전향한 인물들을 간도협조회 일원으로 참가시켰는데, 이들을 이용해 중국공산당 동만특위에서 활동하는 조선인 간부들을 비롯한 공산당원과 항일부대원을 살해, 체포하거나 전향시켰다. 또 전향자들을 간도협조회 공작원으로 투입하여 항

1)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60쪽.

일군 파괴공작에 내몰았다. 1935년 관동군 헌병대사령부 북지(北支) 파괴공작반 반장, 1936년 6월 만주국협화회 동변도특별공작부 본부장, 12월 만주국협화회 싼장성특별공작부 부장, 1937년 1월 만주국협화회 중앙본부 지도부 촉탁 등의 직책으로 각지에서 활동했다. 일본 관동군헌병대 예산으로 공작비를 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동북항일연군 주둔지를 습격하고 항일무장부대원을 살상, 체포했으며, 투항 및 정탐공작을 진행했다. 항일 세력 내부로 침자를 잠입시키는 한편 항일부대에 대한 내부교란공작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1930년대 중반기 만주 일대의 항일운동 파괴와 대민통제사업을 주도했다.”²⁾

전혀 다른 삶과 활동을 보여주는 위의 약력은 한 인물에 관한 내용이다. 김동한(金東漢)이 그 주인공이다. 그가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에 이렇게 양극단을 걷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 단초를 1925년 7월 ‘김동한 송환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24년 12월부터 소련 국가보안부(ГТИY계폐우 - KGB의 전신)에 반소비에트 혐의로 체포되어 수감 중이던 김동한은 이듬해 7월 어느날 갑자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추방되어 청진으로 송환된다. 김동한의 송환을 둘러싸고 소련 국가보안부와 일본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일제 당국은 이 송환사건을 꽤 이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다. 소련에서 한인을 본국(식민지 조선)으로 추방한 예는 극히 드물며, 더구나 김동한이 공산당 관계자로서 한인 민족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³⁾ 일제 당국은 김동한을 심문하여 추방의 진짜 이유를 밝혀냄과 동시에 이를 통해 연해주 한인사회의 정치지형을 파악하려 했다.⁴⁾ 그렇다면 김동한을 조선으로 송환하게끔 한 1920년대 중반 당시 연

2) 『친일인명사전』 1권, 민족문제연구소, 2009, 317-319쪽.

3) 「高警 第2743號, 露領ヨリ送還セラレタル朝鮮人二關スル件」, 1925. 8. 10, 『不逞團關係 雜件-朝鮮人部-在西比利亞』(이하 『在西比利亞』) 15권, 126항.

해주 한인사회의 정치지형은 어떠했을까?

1922년 말 5년을 끌어오던 내전이 종결되고 난 후 러시아 극동 연해주와 과제는 빠르게 소비에트 건설을 이룩하는 것이었다. 이에 맞추어 연해주 한인사회 역시 소비에트 건설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연해주에서 소비에트 건설의 주체는 내전 당시 소비에트 적군 및 빨치산으로 활동하던 이들이었다. 이들은 곧 생업 현장으로 파견되었다. 그리고 연해주 한인사회의 소비에트 건설을 지도할 '정치'가 나타났다. 이 '정치'의 지형은 '군사'를 중심으로 하던 내전시기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이 글은 내전 이후 연해주 한인사회가 소비에트 건설로 나아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한인사회의 정치지형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추적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2. 내전의 종결과 한인 빨치산부대의 해산

1) 내전의 종결과 극동공화국의 해산

1922년 10월 25일 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이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입성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가 소비에트 적군의 수중에 들어감으로써 시베리아내전에서 적군의 승리가 선포되었다.⁵⁾ 1918년부터 시작되어 5년간에 걸친 기나긴 내전이 끝나고 난 후 극동공화국 정부는

4) 김동한 심문조서의 범위는 김동한 개인사부터 시작해 연해주 한인사회 전체를 망라하고 있다. 「諸往 第22號, 金東漢送還二關スル件」, 1925. 7. 5, 『在西比利亞』15권, 127항.

5) Н. Ильюхов, И. Самусенко, *Партизанское движение во приморье(1918-1922)*(연해주에서 빨치산운동), Москва, 1962, с.115~116.

1922년 11월 14일 노동자 대중의 일치된 의지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극동공화국 인민회의의 해산을 선언함.
2. 러시아극동 전역에 소비에트 정권을 선언함.
3. 극동공화국 민주주의 헌법과 법률의 폐지를 선언함.
4. 러시아공화국 헌법과 법률 적용을 극동에까지 확대시켜 극동을 러시아공화국에 편입시킬 것을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와 러시아소비에트대회에 청원함.⁶⁾

1920년 4월 6일 완충지대로서 수립된 극동공화국을 폐지하고 극동지역에 까지 소비에트권력을 확대시키겠다는 결정이었다. 이틀 후인 11월 16일 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는 극동지역 노동자들의 청원을 수락하여 극동공화국을 러시아공화국의 일부로 선포했다.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РСФСР)의 영토가 유럽 동부에서 태평양 연안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러시아공화국 헌법에 입각하여 선출된 소비에트에 정권을 이양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혁명위원회 구성이 필요했다. 먼저 블라디보스토크에 소비에트 임시기관인 극동혁명위원회가 창설되었다. 혁명위원회는 각 지방에도 창설되었다.

극동혁명위원회와 각 지방 혁명위원회의 지도 아래 1923년 2~3월에 122개의 한인마을 소비에트를 포함하여 458개 마을에서 소비에트 선거가 끝났다.⁷⁾ 내전시기 빨치산들과 빈농 및 중농들이 소비에트의 중심이 되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당시 러시아극동에서 한인들의 생활을 이해해야 한

⁶⁾ *Три года советск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극동에서 소비에트 건설 3년), Хабаровск, 1926, с.17.

⁷⁾ РГИА ДВ ф.р-1, оп.5, д.28, с.79.

다. 1923년 조사에 따르면 연해주 한인농가 수는 총 17,226호 90,561명이었다. 그중 11,831호의 농가는 임차한 땅에 농사를 짓고 있었다.⁸⁾ 즉 소작농이었다. 제정러시아 시대에 귀화한 한인들에게 15테샤치나의 토지를 분배해 준 이래⁹⁾ 토지를 분배받은 귀화 한인, 즉 원호인들은 부농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데 비해, 대다수의 비귀화한인, 즉 여호인들은 러시아인 지주나 원호인들의 토지를 소작하는 처지를 벗어날 수 없었다. 위 1923년의 조사에서 러시아 극동지방 한인마을의 계급구성은 빈농 75%, 중농 20%, 그리고 단지 6%만이 부농으로 집계되었다.¹⁰⁾ 즉 러시아 극동지역 대다수의 한인들은 빈농 또는 잘해야 중농이었으며, 바로 이들이 시베리아내전시기 빨치산으로 활동했다.

빈농 및 중농들이 소비에트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소비에트가 기층 민중의 전폭적인 지지아래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조직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앞으로 소비에트 러시아의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이들이 중핵을 담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농민과 노동자가 중심이 된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에 내전 종료 이후 이전 빨치산들이 큰 역할을 했다.

이제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건설의 시대가 도래했다. 연해주 한인사회도 이에 발맞춰 변화해야 했다. 한인사회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임무와 함께 고국의 독립을 위한 민족해방운동과의 관계 또한 정립해야 했다. 내전 기간 소비에트적군 및 러시아 빨치산들과 함께 활동하던 한인 빨치산들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다. 연해주에 남아 러시아혁명을 완수하던지, 조선혁명을 위해 새로운 투쟁지를 찾아 떠

8) С. Анасов, *Корейцы на Уссурийском крае*(아나소프, 『우수리주의 한인들』), Вла дивосток, 1928.

9) В. Граве, *Китайцы, Корейцы, и Японцы в Приморье*(그라베, 『연해주의 중국인, 조선인, 일본인』), Хабаровск, 1912.

10) С. Анасов, Там же(아나소프, 『우수리주의 한인들』).

나던지. 대다수의 한인들은 연해주에 남아 그곳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업에 참여했다. 하지만 고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투쟁하고자 했던 이들은 새로운 활동지를 찾아 떠났다.

2) 한인 빨치산부대의 해산

10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가 해방됨으로써 연해주해방전쟁의 승리가 선언되고 11월 2일 마지막 백군 잔여병력이 중국국경을 넘음으로 해서 연해주해방전쟁은 종결되었다. 이제 전쟁의 시기가 끝나고 평화의 시기가 도래했다. 전쟁기간 동안 파괴되었던 극동 연해주를 새롭게 건설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여기에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빨치산부대의 장래에 관한 문제였다. 전쟁이 끝났으니 빨치산부대는 해산하고 생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순서였다. 러시아 빨치산부대에게는 그랬다. 하지만 한인 빨치산부대는 어떠했을까?

1922년 11월 연해주 고려혁명군과 한인빨치산부대 군사혁명소비에트의 해산과 국민전쟁 참가자 귀가에 대한 인민혁명군 총사령관 우보레비치의 명령 799호가 내려졌다. 이 명령의 실행을 촉구하는 명령서가 11월 12일 다시 내려지는 것으로 보아 명령은 11월 초 연해주해방전쟁이 종결된 직후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11월 12일 제1, 2사단 사령부와 기병여단 사령부에 내려진 총사령관 우보레비치 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¹⁾

내가 명령 799호에서 승인한 한인 빨치산부대 해산에 대해서 우리 지휘관들 중 일부는 매우 비전술적이게도 이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 용인할 수

¹¹⁾ Главком НРА Уборевич, *Комдиву 1 и 2 Комбригу кавалерийской Никуссурийский*(인민혁명군 총사령관 우보레비치, 「제1, 2사단 사령부와 기병여단 사령부에」), 1922. 11. 12, РГВА Ф.221, оп.2, д.45, л.190б.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첫째, 한인군사소비에트의 지시에 따라 한인부대들의 해산과 무장해제를 실시할 것. 인민혁명군 부대들은 그들의 요구가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만 한인부대들과 협력할 것. 훈춘 포셋트 구역의 한인부대들을 맨 먼저 무장해제시킬 것.

둘째, 회수한 모든 무기는 한인군사소비에트가 니콜라예프카 마을 한 장소에 모아둘 것. 이를 지키기 위해 그곳에 임시로 200명의 한인 무장병력을 유지하고, 그 중 100명은 공산당원과 정치활동가로 할 것. 해산에 즈음하여 부대의 병사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러시아적군 사관학교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지휘관들은 한인군사소비에트의 추천을 받아 사단참모부와 기병여단참모부를 통해 처리할 것.

셋째, 빨치산부대들을 해산할 때 한인군사소비에트와 야전군사령부와 의 연락은 러시아공산당 니콜스크-우수리스크현위원회를 통해 취할 것.

넷째, 부대해산을 올해 12월 1일까지 완료할 것. 이 명령의 정확한 집행을 위한 모든 책임은 한인군사소비에트 위원인 스탄코프, 안 니콜라이, 최호림, 한창걸 동무가 질 것.

다섯째, 이 명령의 수령을 확인하고, 한인군사소비에트가 집행하도록 전달할 것.

즉, 한인빨치산부대 혁명군사소비에트의 주도로 한인부대들을 즉각 해산하고 무장해제시키라는 것이었다. 해산을 위한 책임과 지원은 한인빨치산부대 혁명군사소비에트와 러시아공산당 연해주부류에서 맡기로 했다. 여기에서 연해주 한인들의 활동의 중심을 ‘군사’에서 ‘정치’로 이동하겠다는 소비에트정부의 의도가 읽힌다. 이는 무기를 지키는 임시무장병력 중 절반을 공산당원과 정치활동가로 하겠다는 두 번째 항목에서도 확인된다.

명령서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위 명령의 어조는 매우 단호하다. 소비

에트정부의 의지가 두드러져 보인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급히 한인 빨치산 부대에 대한 해산과 무장해제를 결정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제국주의 간섭군과 백군들로부터 연해주가 해방되고 난 후 소비에트화 과정에서 빨치산부대들은 더 이상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을 평화사업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한인 빨치산부대에 대한 무장해제는 일본의 요구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일본군 철병을 위한 따렌(大連)회담부터 창춘(長春)회담까지 일본은 연해주에 있는 한인 무장부대의 해산을 계속해서 요구했다. 기왕에 철병하는 마당에 적성국인 소련에 무장한 한인들을 남겨놓는 것은 아무래도 안심이 되지 않는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군 철병이 선언된 때부터 한인 빨치산부대 해산에 관한 일본 측의 요구가 계속되었다.¹²⁾ 일본군의 철병을 급선무로 여겼던 극동공화국 정부로서도 이 문제 때문에 철병회담이 지연되는 것은 원치 않았다. 극동공화국으로선 표면적으로나마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는 제스처를 취해야 했다. 그래서 내려진 것이 연해주 고려혁명군에 대한 무장해제와 소비에트 건설사업으로의 전화에 대한 명령이었다.

내전 종결 이후 연해주에 남은 한인 빨치산들과 민족운동가들이 택한 길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12) 「關機高手 第16953-1號, 浦潮赤軍司令官うぼるびちノ朝鮮人軍隊二對スル態度」, 1922. 11. 30, 『在西比利亞』 14권, 21항.

3. 연해주 한인들의 사회주의 건설로의 전화

1) 러시아 정규군으로 편입

내전 종결 이후 연해주에 남은 한인 빨치산들이 택한 길 중 첫 번째는 군인으로 계속 남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전이 끝났기 때문에 비정규 빨치산이 아닌 정규군으로 재편되어야 했다. 많은 한인 빨치산들이 러시아 정규군으로 편입되는 길을 택했다. 일본의 정보문서에 따르면 한인 빨치산들은 러시아 적군 정규군으로 편입되거나 그 감시 하에서 지방경비, 광산대, 철도수비근무에 복무하며 적군을 보조하고 있었다. 이들의 수는 러시아적군 정규군에 편입된 자가 약 400명이고, 적군의 감독 하에 속한 자가 약 1,200명에 이르렀다. 적군 수뇌부는 자신들의 감독 하에 속한 약 1,200명도 빨리 정규군에 편입시켜 러시아와 중국 국경 수비에 종사하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¹³⁾ 이외에 러시아 적군은 러시아와 중국 국경 포크라치나야역 부근의 중동철도선 경비를 담당할 목적으로 현재 연해주 일대에 걸쳐 귀화한인 장정을 소집중인데 응소자가 이미 300명 이상에 달해 니콜리크-우수리스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정규병으로 편입될 예정이라고 한다고 했다.

한편, 러시아 정규군으로 편입되는 경우는 대부분 사병으로 복무하는데 비해 러시아 정규사관학교에 진학하여 학업을 마친 후 장교로 임관되는 빨치산들도 그 수가 굉장히 많았다. 다만 지금으로선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몇몇 대표적인 인물들의 예를 통해 그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을 따름이다.

빨치산 출신으로 소련군 장교가 되었던 이들 중에 가장 유명한 이는 아마

13) 「高警 第621號, 露支領二於ケル不逞鮮人ノ狀況ニ關スル件」, 1923. 2. 24, 『在西比利亞』 14권, 77항.

김유경일 것이다. 연해주 수이푼구 재피거우에서 1900년 태어난 김유경은 1921년부터 혈성단에 참가하여 빨치산투쟁을 시작했다. 그는 김정천의 지휘 아래 1922년 2월 이만전투에서 커다란 공적을 세워 김정천에게 용감하고 재치있는 빨치산 투사로 기억되었다.¹⁴⁾ 내전 종결 후 그는 김항탁, 김춘완 등과 함께 레닌그라드 국제사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친 후 장교가 되었다.¹⁵⁾ 1929년 김유경은 중동철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싸움에 참가했다. 그곳에서 그는 영웅적으로 전사했다.¹⁶⁾ 그의 이름을 영구히 기리기 위해 하바롭스크시의 한 거리가 그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었다.¹⁷⁾ 그와 함께 레닌그라드 사관학교에 입학했다던 김항탁, 김춘완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들이 입학했다던 레닌그라드 사관학교에는 조선과가 있었다. 1922년 여

14) Матвей Ким, *Корейские интернационалисты в борьбе за власть совет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1918-1922)*, изд. наука, Москва, 1979.(마트베이 켄모피에 비치 김 지음, 이준형 옮김, 『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 사회주의자들』, 역사비평사, 1990, 166~167쪽)

15) *Боевой путь отряда Херсендана воспоминания участника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ак Чен Лима*(「극동내전 참가자 박정림이 회고한 혈성단 부대의 전투행로」), (В.Д. Ким, *Туманган пограничная река*(국경의 강 두만강), Изд. Узбекистон, 1994), с.33~34.

16) *За сухой строкой судьбы, судьбы...*(건조한 글속에 담긴 운명, 운명...)(В.Д. Ким, *Туманган пограничная река*(국경의 강 두만강), Изд. Узбекистон, 1994.) с.117~118. 여기에는 극동특수군 정치국 기관지에 실린 김유경의 최후전투에 대한 다음의 기사가 있다. “김유경은 전사하지 않았다. 그가 중국어로 ‘중국군 병사들이여, 당신들은 고관들에게 속아 대포밥이 되지 말고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싸움을 그만두고 우리편으로 넘어오시오!’라고 호소하자 적들은 맹사격을 개시했다. 그러자 김유경 소대장은 명중사격으로 적병을 하나하나 사살했다. 적에는 아수가 된 러시아 백군 장병들도 많았다. 숫적으로 우세한 적과의 전투에서 부하들이 모두 전사하자, 김소대장은 참호에서 뛰어나왔다. 그때 포탄 파편이 그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이렇게 김유경은 영웅적으로 전사했다.”

17) 김유경의 이름은 자료에 따라 김유천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하바로프스크에 조성된 거리 이름도 김유천거리(Ул. Ким Ючена)이다. 이는 러시아어로 Ким Юген을 Ким Ючен으로 오기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인섭은 중동철도에서 영웅적으로 전사한 이의 이름을 김유경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인섭, 「동청철도사변을 회상하면서」, 『이인섭 친필 노트』 6권, 27쪽.

름 이르쿠츠크 고려혁명군을 떠나 모스크바 고급간부과정에 입학했던 오하목¹⁸⁾이 조선과 창설을 위임받았다.¹⁹⁾ 조선과 과장 겸 중대장에는 오하목이, 부과장에는 박 알렉세이가, 소대장들로는 김낙현, 안기석, 연지연, 박 표도르 등 이르쿠츠크 사관학교 출신들이 임명되었다. 조선과에는 사관생들이 120명 가량이었고 포병과에서 훈련받는 조선인 사관들은 25명이었다. 그리고 통신병, 전기기술공병, 해군, 비행사들은 따로 양성했다.²⁰⁾ 많은 한인 빨치산들이 이 학교를 통해 장교가 되어 소련군에서 복무했다.

2) 소비에트 생산현장으로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빨치산들이 택한 길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생산현장에 뛰어드는 것이었다. 많은 빨치산들이 총을 버리고 대신 생산의 도구를 잡았다. 일부는 빨치산에 입대하기 전 종사했던 생업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빨치산들 대부분의 출신성분은 빈농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간다고 해서 그들에게는 얻어 부칠 땅 한 조각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토지개혁을 통해 그들도 마음만 먹는다면 토지를 분배받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빨치산 생활을 하며 체득한 사회주의적 생활방식을 사회주의적 생산조직을 만들어 그 안에서 이룩해 보고자 했다. 이에 대해 솔밭관공산당부대 출신 50명이 연해주현 당위원회 한인부에 제출한 청원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우리는 일련의 한인 빨치산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의심할 바 없이 공동정신(집단주의)이 몸에 배어있다. 그러므로 농업공산자치단의 창설은 제

18) 「高麗革命軍 名單(共產黨 豫備者)」, РГВА. Ф.1709, оп.1, д.32, л.1-33.

19) Матвей Ким, Там же, 166~167쪽.

20) 김낙현, 「빨치산의 수기」,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 洪範圖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416~417쪽.

대한 우리에게 유일한 출발점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들 가운데는 훌륭한 농부, 벼 재배자, 원예가, 다른 부문의 전문가도 있다. 우리는 전시동안 함께 살아 친숙해서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범적인 농장을 조직하기를 원한다.²¹⁾

그리하여 많은 빨치산 부대들이 해산을 택하는 대신 빨치산부대를 그대로 콜호즈로 전환했다. 위 솔밭관공산당부대 출신 빨치산들은 수이푼지역 라즈돌리노예역 부근 우두거우(五道溝)촌에서 콜호즈 ‘공생조합(Коммюон)’을 창설하였다.²²⁾ 빨치산 지도자였던 황원오가 초대 책임자였다. 솔밭관공산당부대원으로 이 콜호즈 조직에 참가했던 황운정의 회고에 따르면 1923년 봄 당과 소비에트기관의 충고에 따라 자신을 포함한 30여 명의 이전 빨치산들이 공생조합(Коммюон)’을 조직했다.²³⁾ 그들에게는 우두거우에 6000 헥타르의 토지가 제공되었으며, 30마리의 소와 5개의 쟁기, 그리고 트랙터가 주어졌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첫 해 콜호즈원들은 트랙터를 사용하지 못했다. 트랙터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손으로 농사를 지어야만 했다. 열심히 일했지만 수확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다음해 봄 콜호즈는 조선에서 3개월 과정의 운전학교를 다닌 사람을 찾아냈다. 그러나 트랙터를 사용한 지 3일 만에 이번에는 트랙터가 고장이 났다. 다시 손으로 농사를 지어야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전 빨치산들은 콜호즈 ‘공생조합(Коммюон)’을 라즈돌리노예 부근에서 가장 성공한 콜호즈로 만들었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황운정은 라즈돌리노예로 파견되어 그곳에서 부근의 몇 마을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콜호즈를 조직하고 그곳의 책임자가 되기도 했다.²⁴⁾ 얼마 후 ‘공생조합’ 콜호즈는 ‘신세계’ 또는 ‘새세계’ 콜호즈로 명칭

21) 「연해주지방에서 빨치산운동 지휘관 ‘김백추’의 회고」, РГИА ДВ, ф.р-919, оп.1, д.18.

22) Хван Ун-Ден, *Я жизнь прожил не напрасно*(나의 일생), Алматы, 1999, с.15.

23) Там же.

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²⁵⁾

수찬빨치산부대는 그대로 콜호즈로 조직되었으며 해산된 부대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도 이 빨치산 조합에게 넘겨졌다. 이 조합은 최종적으로 농업코뮌인 ‘붉은 별’로 재조직되었다.²⁶⁾ 이 외에도 이만지역에 있던 대한의용군 출신 60명은 이만군의 한인마을을 엘레-소스노프카에 정착하여 농업콜호즈를 창설했다. 또한 뿌리아무르 지방 빨치산들은 자바이칼주의 페스찬스카촌에서 콜호즈 ‘소비에트 조선’을 조직했다. 이 조합의 초대 조합장은 채임이었다. 포세트 지역에서도 빨치산 출신들로 구성된 ‘안산’ 콜호즈가 조직되었다.²⁷⁾

해산된 빨치산들이 단지 농업 콜호즈만 만들었던 것은 아니다. 연해주의 주요 생산기반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농업 콜호즈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을 뿐이다. 바닷가 마을에서는 어업 콜호즈가, 타이가지역에서는 임업 콜호즈가 조직되기도 했다.²⁸⁾

김동한이 일본경찰에 넘겨진 후 진술한 바에 따르면 빨치산부대의 해산으로 홀연히 의식을 공급받을 길을 잃어버려 한인 해산군인들은 해산조선군인구제회(解散朝鮮軍人救濟會)를 조직하고 회장인 김동한과 박군팔, 이성, 김중구, 임표, 조덕진 외 2명의 이름으로 해산군인에게 연해주 수청에서 어업권 특허 출원을 허가해 달라고 러시아 관헌에 청원했다. 이 해산조선군인구제회는 김동한이 게페우(ГПУ-КГВ(KGB)의 전신)에 체포되고 난 후 이르쿠츠크

24) Там же.

25) 반병률, 「전면적 집단화」 시기 러시아 연해주 수청(水淸) 지방 한인농촌사회의 제문제, 『역사문화연구』 30집, 2008, 185쪽.

26) Хан Чан Гер, *Воспоминание об участии трудящихся корейцев в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한창걸, 「극동내전에 한인 노동자들의 참여에 대한 회상」), ГАХК, ф.44-п, оп.1, д.601, лл.1-64.

27) Kim Сын-хва,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김승화, 『소비에트 한인의 역사 개관』, изд. наука, Алма Ата, 1965.(정태수 편역, 『소련한족사』,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89, 161쪽)

28)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에 있었던 어업 콜호즈 중에는 ‘수찬빨치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콜호즈도 있었다. (『선봉』, 1931. 4. 26)

크파가 실권을 장악하여 해산군인어업조합이라고 고쳤다가 1924년 다시 목선조합으로 개칭하고 김하석이 조합장이 되었다.²⁹⁾

3) 연해주 한인사회의 지도자로

마지막으로 연해주에 남은 빨치산들이 택한 길은 당과 소비에트의 관료가 되거나 교육, 문화사업에 투신하는 것이었다. 연해주 한인사회의 지도자로 나서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길은 쉽지 않았다. 우선 빨치산부대원 중 교육을 받은 이들이 많지 않았으므로 일정 정도의 교육을 받은 이들은 빨치산부대의 간부로 활동했다. 그리고 이 빨치산 간부들 중에 일부가 이 길을 택했다.

그러나 이미 당과 소비에트에는 빨치산 출신이 아닌 다른 종류의 한인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전 대한국민의회 출신의 이르쿠츠크계열 고려공산당 성원들을 비롯한 정치활동가들이 그들이었다. 시베리아내전의 마지막 단계인 연해주해방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1922년 후반기부터 연해주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그들은 곧 당과 소비에트를 장악하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1) 돌아오는 사람들

1922년 4월 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에 의해 이만이 점령되고 난 후 연해주에서의 전황은 소강상태에 빠졌다. 극동공화국은 일본군의 철병을 위한 회담을 계속하는 한편 인민혁명군으로 하여금 마지막 전투를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게 했다. 그 결과 1922년 6월 마침내 일본군은 시베리아와 연해주에서 철병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³⁰⁾

29) 「諸往 第22號, 金東漢送還二關スル件」, 1925. 7. 5, 『在西比利亞』 15권, 127항.

일본군의 철병 성명은 그들의 지원으로 내전을 수행해 왔던 백군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하지만 적군에게는 승리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한편 연해주와 한인 빨치산부대들은 일본군의 철병선언을 기뻐하며 일본군 철퇴 이후 상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무엇보다 마지막 연해주해방전쟁에 참가하기 위해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한인 빨치산부대를 단일한 대오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아무르주로부터 이영선을 비롯한 9명의 공산당원들이 연해주 빨치산사령부가 있는 아누치노로 파견되었다.³¹⁾ 이들은 연해주 각지로 파견되어 빨치산부대 통합을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로는 이영선과 조일용, 스파스크로 심순과 김제경, 수찬으로 최호림과 차도운, 니콜스크-우수리스크로 오병묵과 천일계 그리고 심순이 쿠린노로 갈 예정이었다. 프리아무르주 인민혁명군 군정위원인 아브제예프가 이들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³²⁾ 아울러 연해주 빨치산부대 군사소비에트와 아무르주 제1치타여단 사령관 앞으로 이들의 활동을 위해 가능한 모든 도움을 제공하라는 전문이 발송되었다.³³⁾ 1922년 6월 23일 치타를 출발한 이들은 7월경 아누치노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³⁴⁾

이들은 대체로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계열과 직간접적 관계를 가진 인물들이었다고 판단된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짜르 러시아정부에 의해 노무자로 징집되어 우크라이나의 돈바스까지 가서 탄광지대에서 일하던 한인 노

30) 「機密 第124號, 不逞鮮人ノ行動ニ關スル件」, 1922. 7. 15, 『在西比利亞』 13권, 107항.

31) *В Военсовет Парторядов Приморья*(연해주 빨치산부대 군사소비에트 앞), 1922. 6. 23, РГВА, Ф.221, оп.1, д.587, л.315~316.

32) *Удостоверение*(증명서), 1922. 6. 23, РГВА, Ф.221, оп.1, д.587, л.319.

33) *В Военсовет Парторядов Приморья*(연해주 빨치산부대 군사소비에트 앞), 1922. 6. 23, РГВА, Ф.221, оп.1, д.587, л.315~316; *Военкомбригу 1 Читинской тов. Мальшеву*(제1 치타여단 군정위원 말리셰프 동무 앞), 1922. 6. 23, РГВА, Ф.221, оп.1, д.587, л.324.

34) 이영선이 1921년 8월 7일 아누치노에서 하바롭스크의 오성묵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다. *Лиенсен, Тов. Осенмук*(이영선, 「오성묵 동무 앞」), 1922. 8. 7, РГВА, Ф.1055, оп.1, д.44, л.56.

동지들의 단체였던 ‘우크라이나 고려노동회’의 대표였던 이영선은 1922년 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피압박민족대회에서부터 이르쿠츠크파와 행동을 같이 하고 있었다.³⁵⁾ 최호림은 자유시사변 이후 이르쿠츠크로 회군하였던 고려혁명군의 정치위원이었다.³⁶⁾ 당시 고려혁명군은 이르쿠츠크파의 주도 아래 있었다.

당시는 1922년 4월 코민테른의 조선문제결정서에 따라 치타에서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두 공산당의 통합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준비를 하던 시기였다.³⁷⁾ 이후 베르흐네우딘스크로 옮겨 개최되는 통합대회를 위해 양 공산당은 경쟁하고 있었다. 이영선은 빨치산부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통합을 준비하는 것 뿐 아니라 이 대회에 참가할 한인빨치산 대표를 선정하는 임무도 맡고 있었다.³⁸⁾ 이르쿠츠크파가 상해파보다 한 발 빨랐던 것이다. 이들이 연해주 빨치산부대 통합의 전면에 나서면서 통합의 주도권은 빨치산지도자들이 아닌 정치활동가, 그것도 이르쿠츠크파 정치활동가의 손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³⁹⁾ 이영선은 이후 러시아공산당 연해주부로 고려부 책임자가 되었다.

35) ВКП(б), Коминтерн и Корея(1918-1941)(전소련공산당, 코민테른과 조선), Москва РОССПЭН, 2007, с.773.

36) 「고려인 제1여단 장교 이력조사표」, РГВА, Ф.1709, оп.1, д.5, л.8-11; Цой-Хорим, *Корейское партизанское движение в годы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в ДВК*(최호림, 「내전 시기 극동주에서 한인빨치산운동」), (*Исторический очерк о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на ДВ*, 1932г. 228листов), ГАХК Ф.П-44, оп.1, дело 599, с.162.

37) 베르흐네우딘스크대회에 대해서는 임경석, 「1922년 베르흐네우딘스크 대회의 결렬」, 『한국사학보』 제27호, 2007, 107~143쪽 참조.

38) Лиенсен, *Тов. Осенмук*(이영선, 「오성묵 동무 앞」), 1922. 8. 7, РГВА, Ф.1055, оп.1, д.44, л.56.

39) 이를 두고 이인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연해주 혁명위원회가 근거하고 공작하던 지대 안우친 산곡으로는 일꾸쓰크에서 국민전쟁 당시 전선을 피하여서 붉은 군대와 빨치산들이 해방한 지대로 따라다니면서 종파싸움만 조성함으로써 혁명사업을 말살시키면 어른들이 떼를 지어 나와서는 빨치산부대에는 아니가고 혁명위원회 주위에서 행사하게 시작하였는 그때까지 비밀연해주공산당간부 내 고려부 주임이던 오세현 동지를 공부를 가라고 하여서 따라 쫓고서 리영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군사혁명위원회에는 최호림이라는 어른이 들어서 조선 빨치산 대표 행사를 하였다.

이들과 함께 이르쿠츠크파의 한 축을 이루는 예전 대한국민의회의 지도자들도 속속 연해주로 몰려들었다. 1922년 7월 중순 수이푼지역 술밭관에서 열린 각단통일규칙 제정 회의에 김하석이 참석해 재무부장의 직위를 맡은 것을 비롯해,⁴⁰⁾ 한명세, 김철훈, 최고려 등이 연해주로 돌아왔다.

이들은 곧바로 내전이 끝나고 난 후 사회주의 건설의 도정에서 있는 연해주에서 당과 정부의 중요 직위를 차지하며 한인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 1923년 초 연해주 거주 한인들의 입적에 대한 수속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입적위원회(入籍委員會)에 김만겸이 위원장, 한명세와 최고려가 위원으로 선정되었다.⁴¹⁾ 이어 6월 24일 블라디보스토크 시소비에트 선거에서 한인들은 6명의 의원과 3명의 후보자를 선출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러시아공산당원이면서(1명은 후보당원) 대부분 이르쿠츠크파로 분류되던 이들이었다.⁴²⁾ 그 후 연해주 한인사회와 관련된 당과 정부의 요직은 거의 대부분 이르쿠츠크파 그중에서도 예전 대한국민의회 계열의 인사들로 채워지게 된다. 즉,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산하 꼬르부로는 한명세가, 연해주러시아공산당 고려부에는 김철훈이 그리고 연해주러시아공산청년회 고려부에는 최성우가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김만겸은 연해협집행위원회 한인문제 전권위원으로, 이형근은 블라디보스토크 직업회 고려부장으로 활동했다.

그러하여 미리 연해주가 해방되면 당기관, 쏘베트기관을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섯다.” 이인섭, 「망명자의 수가-모스크바에서 해삼까지」, 『이인섭 친필 노트』 15권.

40) 「高警 第2824號, 露支國境方面不逞鮮人團ノ統一ニ關スル件」, 1922. 9. 6, 『在西比利亞部』 13권, 118항.

41) 「한인에 대한 입적위원회 조직. 연해협회에서」, 『선봉』, 1923년 4월 5일, 2면.

42) 「海參韓人の議會選舉. 有權者一千百八十五人, 六人の議會員, 三人의 候補者」, 『선봉』, 1923년 6월 29일, 3면. 이때 선출된 의원은 다음과 같다. 의회원 - 김만겸, 리영선, 최성우, 남 알렉산드라, 리희수, 김병률, 후보자 - 남만춘, 리 따찌안나, 박승만.

(2) 떠나는 사람들

한편 내전이 끝나고 한인 빨치산부대의 해산 명령이 내려진 후 연해주에서 무장투쟁은 끝났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무장투쟁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일부는 이제 새로운 활동지를 찾아 나섰다. 그곳은 그리 멀지도 않은 곳이었다. 그들은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갔다. 가까이는 간도로, 조금 더 나아가면 산해관을 넘어 중국 관내(關內)로, 한 발짝 더 디더 중국 남부 광저우(廣州)까지 항일무장투쟁의 장소를 찾아 떠났다.

연해주에서 간도로 넘어온 이전 빨치산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적기단(赤旗團)이었다. 적기단은 1923년 1월 10일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 백산학교 2층에서 소집된 한인청년회의에서 결성되었다. 이 회의에는 46명의 청년들이 참가했으며 코민테른 극동비서부 위원 이텔손도 참석했다. 임시집행부로 이텔손, 최계립, 김아파나시, 최동욱, 이승(홍파), 전창순 등이 선임되고, 단체의 명칭을 적기단으로 승인함으로써 이 회의는 적기단 조직총회로 선언되었다.⁴³⁾ 적기단의 행동강령은 조선공산당의 척후대 임무를 실행하기 위해 남만, 북만, 동만 3개 지대에 사령부를 설치하여 일본제국주의 군벌과 투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파괴와 암살을 감행하는 것이었다.

위 적기단의 집행부 명단을 보면 적기단이 상해파 고려공산당원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연해주해방전쟁이 끝나서 한인 빨치산부대를 해산할 당시 부대를 해산시킨 후 무장투쟁의 길을 찾아 떠났던 젊은 상해파 고려공산당계 인물들이 가장 먼저 조직한 것이 바로 적기단이었다.⁴⁴⁾ 따라서 적기단은 간도 곳곳에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것을 자신의 주요 활동으로 삼았다. 조선 내지로 파견된 적기단원들은 대체로 함흥시를 중심으로 하여 비밀활동을 하다가 다수가 체포, 투옥되었다. 적기단의 사업결과

43) 「赤旗團略史」,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 洪範圖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174쪽.

44) 강상진, 「군비단약사」(1967. 3. 29), 『독립군의 수기』, 국가보훈처, 1995, 272쪽.

당시 함흥시 비료공장에는 27명의 공산주의청년들이 결합된 공산청년회가 조직되었으며, 함흥시 영생중학교, 고등보통학교, 농민학교 학생들을 망라한 청년단체에는 19명의 청년들이 가담해 있었다. 적기단 단원은 1925년 12월말 까지 700명가량에 달했다.⁴⁵⁾

적기단이 만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동안 산해관을 넘어 중국 관내로 넘어간 예전 빨치산들이 있었다.

김규면은 1923년 상해에 가서 중국 노동자 동맹파업에 참가하고 북벌전쟁에 자신의 동지들을 동원시키는 등 활동을 계속했다. 그러나 1927년 장개석의 쿠데타에 이은 공산당 탄압으로 그는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오고 말았다.⁴⁶⁾ 김규면처럼 중국 관내로 가서 북벌전쟁에 참가한 이가 또 있었다. 그는 예전 대한의용군의 중대장이었던 김홍일이다. 그러나 그는 이후 김규면과는 가는 길이 달랐다. 그는 국민당군에 가담했다. 북벌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는 상해 병공창의 창장으로 근무했으며, 황포군관학교의 교관 등을 거쳐 중국 국민당군의 장군으로 진급했다.⁴⁷⁾

박영은 이들보다 더 나아갔다. 본래 간도에서 최진동이 이끄는 군무도독부의 참모였던 박영은 하바롭스크에서 프리아무르주 공산당 한인부 책임비서로 있으면서 연해주해방전쟁에도 직접 참가했다. 그러나 연해주가 해방되고 난 후 박영은 6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남중국으로 가서 북벌전쟁에 참가했다. 장개석의 상해 쿠데타가 일어난 후 박영은 중국공산당원으로 고려의 용군 부대와 함께 광저우폭포에 참가한다. 이어 벌어진 시가전에서 박영 형제, 김용배, 이원준 등 24명이 국민당군의 총칼 앞에 희생당했다.⁴⁸⁾

내전 종결 후 러시아혁명의 완수를 위해 연해주에 머무르지 않고 조선혁

45) 『赤旗團略史』, 앞의 책, 179쪽.

46) 『老兵 金規勉 備忘錄』, 『誠齋 李東輝 全書』 下卷,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8, 221쪽.

47) 金弘壹, 『大陸의 憤怒 - 老兵의 回想記』, 文潮社, 1972,

48) 『老兵 金規勉 備忘錄』, 앞의 책, 218쪽.

명을 위해 주로 중국으로 떠나간 이들은 대부분 상해파 고려공산당원이거나 상해파와 함께 활동을 하던 이들이었다. 그런데 조금의 시간이 흐른 후 조선혁명을 위해 연해주를 떠나는 다른 부류의 한인들이 있었다. 바로 ‘원조’ 이르쿠츠크파였다. 이들은 연해주에서 꼬르부로의 운동방침을 둘러싸고 한명세 그룹, 즉 예전 대한국민의회파와 대립했다.⁴⁹⁾ 이로 말미암아 꼬르부로는 해산되고 오르그부로, 즉 재노령 고려공산당창립대표회준비위원회가 설치된다. 오르그부로는 상해파와 ‘원조’ 이르쿠츠크파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한국민의회파는 그 결성에 반대하여 오르그부로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줄곧 오르그부로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했다.⁵⁰⁾

오르그부로에 참여한 ‘원조’ 이르쿠츠크파는 더 이상 연해주에만 머무를 수 없었다.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 책임비서를 지내고 내전 종결 이후 블라디보스토크로 와서 『선봉』 신문의 편집장을 맡고 있던 이성(李成)은 옛 라이벌이던 이동휘와 함께 꼬르부로 해체를 주도했다. 이어 설립된 오르그부로의 핵심성원이 된 그는 스스로 조선혁명을 지도하기 위해 1924년 7월 경성으로 파견됐다. 국내에서 통일된 조선공산당을 건립하기 위해 각파 공산주의자그룹의 지도자들과 협의하던 그는 그해 9월 일본경찰에 검거되었다.⁵¹⁾ 이성과 함께 ‘원조’ 이르쿠츠크파의 대표주자였던 조훈(趙勳)은 국제공청(KIM)의 전권위원으로 계속해서 조선과 중국 그리고 연해주와 모스크바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었다.

내전 종결 후 연해주에서 활동하지 않고 모스크바의 동방노력자공산대학(KYTB)에서 수학했던 채성룡(채 그리고리)은 1928년 지하공작을 위해 조선으로 파견되었다가 신의주에서 체포되었다. 수감 중 폐병에 걸린 그는 병보

49) 이에 대해서는 임경석, 「코민테른 고려총국의 기능 정지에 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제71집, 2010 참조.

50) 이에 대해서는 강호출, 「재노령 고려공산당창립대표회준비위원회(오르그부로) 연구」, 『역사와 현실』 28집, 1997 참조.

51)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341~342쪽.

석으로 풀려난 뒤 곧바로 사망했다.⁵²⁾

(3) 남은 사람들

연해주해방전쟁에 참여했던 상해파 성원들 중 많은 수가 내전 종결 이후 조선혁명과 중국혁명을 위해 연해주를 떠났다. 물론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영수였던 이동휘가 조선혁명을 지도하기 위한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의 직속 기구인 꼬르뷰로 위원으로 남아있었고, 그를 중심으로 한 옛 상해파 그룹이 여전히 존재하기는 했다. 또한 지역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 중 많은 수가 상해파 성원이었다. 예를 들면 내전이 끝나고 난 후 한인사회당 시절부터 이동휘와 함께 활동했던 오성묵은 하바롭스크시당위원회에서, 이 인섭은 니콜스크-우수리스크시당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상해파 고려공산당 성원의 대부분은 당과 정부 그리고 코민테른의 핵심요직에서 한 발 비껴나 있었다.

대신 이들은 정치일선이 아닌 언론 문화사업에 종사하거나, 후일을 위해 재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지고자 하였다. 내전이 끝난 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창간된 한글 신문인 『선봉』이 그들의 주된 무대였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남아있던 상해파 인사들 중 오성묵, 김하구, 이백초, 계봉우, 김 아파나시 등은 『선봉』 신문에서 주필 또는 간부로 활동했다.⁵³⁾

상해파 그룹 중 젊은 세대들은 재교육의 길을 택했다. 박진순은 1922년부터 1925년까지 모스크바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다. 이동휘의 사위이기도 했던 김정하는 극동피압박민족대회에 참석한 후 모스크바의 동방노력자공산대학(КУТВ)에 입학했다. 한인사회당원이던 김진(金震) 역시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입학했다. 연해주에서는 김 미하일이 러시아공산당 연해현위원회

52) ВКП(б), Коминтерн и Корея(1918-1941)(전소련공산당, 코민테른과 조선), Москва РОССПЭН, 2007, с.778.

53) 『諸往 第22號, 金東漢送還二關スル件』, 1925. 7. 5, 『在西比利亞』 15권, 127항.

에서 일하면서 극동대학을 야간과정으로 마쳤다. 한편 러시아공산당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당학교를 설립하였는데 100명의 정원 중 한인학생이 24명에 달했다.⁵⁴⁾ 이 표트르, 정순철, 최추송, 이중집, 최찬식 등이 블라디보스토크 당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내전 기간 빨치산 투쟁을 했던 이들이었다.⁵⁵⁾

즉 내전이 종결된 후 연해주로 와서 당과 소비에트 기관을 장악한 이들은 이르쿠츠크파 성원들, 그중에서도 예전 대한국민회의의 간부들이었다. 상해파 계열의 빨치산 지도자들은 물론 중립적인 지도자들도 당과 소비에트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기는 힘들었다. 수찬빨치산부대 해산 이후 1923년부터 1929년까지 구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 구위원회 및 전소련공산당(볼셰비키) 위원회의 책임자로 일했으며, 1929년 2월부터 체카-게페우-내무인민위원회의의 기관에서 일했던 한창걸⁵⁶⁾이 그나마 몇 안되는 케이스 중의 하나가 될 정도였다. “당-소비에트 기관에는 국민전쟁 당시에는 힌파들을 옹호하던 자들이나, 로력군중들은 무기를 가지고 빨치산에서 싸호는데 살곰살곰 피신하여 붉은 군대와 빨치산들이 해방시킨 지대 암물주나 일꾸쓰크에 가서 혁명사업 대신에 종파를 형성하고 파장을 일삼던 어른드리 가방을 들고 와서 사업을 한다기 보담 밥자리 다툼을 하게 되었고 무기를 들고 싸호던 빨치산들은 어더 볼 수 없이 되었다.”⁵⁷⁾는 이인섭의 푸념은 바로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었다.

54) 「黨學校 設立. 定員은 백명. 그 안에 한인이 二十四人」, 『선봉』, 1923년 4월 17일 2면.

55) 「諸往 第22號, 金東漢送還二關スル件」, 1925. 7. 5, 『在西比利亞』 15권, 127항.

56) Хан Чан Гер, *Вюграфия*(자서전), Ного-Киевск, 1935. 5. 9.

57) 이인섭, 「망명자의 수기-모스크바에서 해삼까지」, 『이인섭 친필 노트』 15권.

4. 내전 후 연해주 한인사회 정치지형의 변화

1920년대 중반 연해주의 정치세력은 코민테른, 연방소비에트 집행위원회, 러시아공화국 집행위원회, 러시아공산당 집행위원회의 각 연해주 지방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각 지방기관에는 조선문제와 한인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었으며, 많은 수의 한인들이 각 부서들에 포진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해주 한인의 정치를 담당하는 인물들이 점차 이르쿠츠크파, 그 중에서도 예전 대한국민의회 성원들로 채워져 나갔다. 러시아혁명과 내전 기간을 거치며 빨치산투쟁을 했거나, 러시아의 혁명을 조선혁명으로 이어나가려 했던 이들은 점차 연해주에서 정치의 중심으로부터 밀려났다. 그들은 새로운 활동지를 찾아 떠나거나 연해주 내에서 다른 활동분야를 찾았다. 이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김동한 송환사건'이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김동한은 내전이 종결된 후 한인 빨치산부대 해산으로 홀연히 의식을 공급받을 길을 잃어버린 한인 해산군인들을 모아 해산조선군인구제회(解散朝鮮軍人救濟會)를 조직하고 회장이 되었다. 그러나 김동한이 중국군벌과 결탁하여 반소비에트 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게페우(ГПУ-КГБ(KGB)의 전신)에 체포되고 난 후 이 해산조선군인구제회는 이르쿠츠크파가 실권을 장악하여 해산군인어업조합이라고 고쳤다가 1924년 다시 목선조합으로 개칭하고 김하석이 조합장이 되었다. 이 때 김동한을 체포한 게페우의 담당자는 최고려였다. 김동한과 최고려는 개인적으로 나쁜 감정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유시사변을 겪은 후 김동한은 극동피압박민족대회에 상해파 대표로 참여하며 당시 대회에 참석했던 최고려를 적극적으로 비판했다. 최진동, 홍범

도와 함께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 올린 보고에서 김동한은 최고려가 콜차크 정부와 간섭군이 아무르주를 점령하였을 때 일본침략군의 식량정부업자였다고 과거전력을 들어 비판하면서 최고려, 김하석 등을 면직시키고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⁵⁸⁾ 이러한 주장은 극동피압박민족대회 과정에서 뿐 아니라 자유시사변 이후 1922년 6월까지 계속되었다.⁵⁹⁾

내전 종결 후 블라디보스토크의 게폐우에서 일하게 된 최고려는 그동안 자신을 그토록 괴롭혀왔던 김동한을 그냥 두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고려는 김동한이 1924년 10월경 직예파(直隸派)로부터 밀파된 중국인 양야 오시안(楊耀先)과 접촉한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 더구나 당시 연해주의 정치 상황에서 김동한을 구명해 줄 수 있는 이전 상해파의 영향력은 극도로 약해져 있었다. 결국 그는 1924년 12월 6일 마침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그 후 아무런 재판도 없이 1925년 7월 5일 돌연 블라디보스토크 게폐우에서 나와 러시아 재류금지 선고를 받고 일본영사관 비서관에게 인도되었다. 그는 곧바로 블라디보스토크 부두로 연행되어 정박중이던 후쿠유마루(北祐丸) 사무장에게 인도되었으며 마침내 7월 6일 청진경찰서로 송환되었다.⁶⁰⁾

58) Доклад о корейском партизанском движении(한인빨치산운동에 대한 보고), 1922. 2, РГАСПИ ф.Р-17, оп.84, д.370, лл.13~26.

59)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иморской Корейско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уполномоченный от делегатов на съезде, прибывших из рус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чальник Корейского Красного Партизанского Отряда Кимдонхан, Представитель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Корейской Красной Молодежи А.ф. Ким, Уполномоченному Штаба Красной Армии Республики(러시아 극동에서 온 대표들의 대회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연해주 고려공산단체 대표이자 고려적 위빨치산 사령관인 김동한, 극동 붉은조선청년회 대표 김 아파나시, 공화국 적군 사령부 전권위원 앞), 1921. 10. 28, Ф.495 оп.135 д.28, л. 29~38; Кимдонхан · Ли-Дон-Хы, Особое мнение членов Объединенного ЦКККП Лидонхи и КимДонХуан предлагаемое Дальбюро ЦК Рос.Ком.Партии(김동한 · 이동휘,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 극동국에 제출한 통합 고려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이동휘와 김동한의 소수 의견), 1922. 6. 6, РГАСПИ ф.495 оп.135 д.13с. 2, л. 10б.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1920년대 중반 연해주 한인사회의 정치지형은 예전 대한국민의회 성원들이 주도하게 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 연해주 지방이 이제 더 이상 한인 민족해방운동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1925년 4월 국내에서 조선공산당이 수립되고 연해주에서 오르그부르가 유명무실화된 이후 조선혁명운동 지원의 중심적 위치는 모스크바로 옮겨가고 만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단지 국내와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중개지 역할에 머무르게 되었다. 상해파의 상징적 인물인 이동휘 역시 혁명운동을 주도하는 위치에서 물러나 모플(MOИP, 국제혁명자후원회)을 통해 활동을 계속해 나가게 되었다.

한일합방 이후부터 1920년대 초까지 해외 민족해방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연해주 지역은 이후 민족해방운동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었다. 다만 러시아 내에서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하며 한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다. 상해파의 중심인물로 1920년대 초 민족해방운동 과정에서 큰 활동을 한 상해파 성원 중 그 이후에도 연해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김 아파나시, 김 미하일 등도 1930년대에는 민족해방운동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연해주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온 노력을 경주했다.

5. 맺음말

1922년 말 5년간을 끌어오던 시베리아내전이 끝났다. 러시아혁명의 성공에서 조국 해방의 가능성을 보았던 연해주의 한인들은 빨치산부대를 조직하여 소비에트적군과 함께 백군 및 제국주의 간섭군들과 싸웠고, 이제 그들은

60) 「高警 第2743號, 露領ヨリ送還セラレタル朝鮮人二關スル件」, 1925. 8. 10, 『在西比利亞』 15권, 126항.

승리자가 되었다. 하지만 내전의 종결과 함께 정세가 변했다. 이제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건설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연해주 한인사회도 이에 발맞춰 변화해야 했다. 한인사회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임무와 함께 고국의 독립을 위한 민족해방운동과의 관계 또한 정립해야 했다. 내전 기간 소비에트적군 및 러시아 빨치산들과 함께 활동하던 한인 빨치산들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다. 연해주에 남아 러시아혁명을 완수하던지, 조선혁명을 위해 새로운 투쟁지를 찾아 떠난던지.

대다수의 한인들은 연해주에 남아 그곳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업에 참여했다. 하지만 고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투쟁하고자 했던 이들은 새로운 활동지를 찾아 떠났다. 그들은 만주로 가서 적기단을 조직하여 항일투쟁을 지속했고, 더 나아가 중국 관내로까지 진출했다. 조선혁명의 완수를 위해 조선으로 파견되어 조선공산당 조직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한 이들도 있었다. 이들 중 많은 수는 상해파 고려공산당과 관계를 맺고 있던 인물들이었다.

이들이 떠난 빈자리를 내전 종결과 함께 시베리아에서 연해주로 돌아온 한인들이 채워나갔다. 그들은 대체로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계열과 직간접적 관계를 가진 인물들이었다. 특히 '4월 참변'으로 연해주를 떠났던 예전 대한국민회의 지도자들도 속속 연해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내전이 끝난 후 사회주의 건설의 도정에 서 있는 연해주에서 당과 정부의 중요 지위를 차지하며 한인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 그 과정에서 예전 대한국민회의 핵심인물은 최고려에 의해 상해파의 중요 인물이었던 김동한이 체포되어 조선으로 추방되는 '김동한 송환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1920년대 중반 연해주 한인사회의 정치지형은 예전 대한국민회의 성원들이 주도하게 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 연해주 지방이 이제 더 이상 한인 민족해방운동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1925년 4월 국

내에서 조선공산당이 수립되고 연해주에서 오르그부르가 유명무실화된 이후 조선혁명운동 지원의 중심적 위치는 모스크바로 옮겨가고 만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단지 국내와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중개지 역할에 머무르게 되었다. 한일합방 이후부터 1920년대 초까지 해외 민족해방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연해주 지역은 이후 민족해방운동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었다. 다만 러시아 내에서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하며 한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다.

2부:

정착(1937~1991) 시기
러시아지역 한인의 이산과 정주

강제이주 직후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

홍응호

1. 머리말

1937년 가을 소비에트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17만 명이 넘는 고려인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이주 되었다. 갑자기 화물열차에 태워지고 근 한 달을 걸려 낯선 중앙아시아에 내려졌을 때, 고려인들의 막막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소비에트정부와 중앙아시아의 현지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순간에 도착했을 때 그 대책들이 효력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잠잘 곳을 찾아야했고, 먹을 것을 찾아야 했고, 헤어진 가족들을 찾아야 했다. 또 떠나오면서 남겨놓은 고향의 곡식들과 집들, 살림살이, 키우던 가축들, 이 모든 것이 걱정이었다. 더 큰 걱정은 갑자기 던져진 중앙아시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앞날의 불안함은 그들의 가슴을 옥죄어 왔다.

기존의 강제 이주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되어 왔다. 즉 강제이주의 역사는 강제이주 과정을 중심으로 강제이주의 부당성

과 폭력성, 강압적인 조치와 강제이주 직후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의 삶도 아무런 보장 없이 '사막에 버려지다 시피 내던져진' 것으로 묘사되었고, 또 그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 왔다. 이는 고려인들과 고려인사회를 바라보는 동포로서의 우리들의 시선과 감정이 녹아들어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측면만 있을까? 오히려 이러한 측면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보다 객관적으로 고려인들의 강제이주를 파악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비록 강제이주의 역사는 가슴 아프고, 슬프고, 부당하고, 화나는 고통의 역사이지만 그들 고려인들도 사람이었고, 고통 속에서도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없을까?

필자는 이러한 단초와 실마리를 《레닌기치》의 기사를 통해 찾고자 한다. 《레닌기치》 신문은 1938년 5월 15일부터 카자흐스탄 공산당(불) 중앙위원회 크즐오르다주 조직부로서 씨르다리아 구역위원회 결정에 따라 발행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이 신문은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조선말로 발행하는 당 기관지였다. 서재욱을 주필로, 럽사일을 부주필로 한 이 신문은 1938년 5월 15일부터 한 해 동안 75호를 간행했다.¹⁾ 총 4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8 코페이카로 판매되는 이 신문은 좁게는 카자흐스탄과 넓게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배포되었다.²⁾ 따라서 《레닌기치》는 고려인들의 사회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자

1) 1939년에 《레닌기치》는 115호를 발행하여 평균 3일에 1회 발간했다.

2) 《레닌기치》는 당 기관지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당대회 보고나 결정문을 게재하는 날이나 10월혁명 기념일인 11월 7일 등 특별한 날에 6면을 발행했다. 발행부수는 호수에 따라 약간씩 달라진다. 1호의 경우 2,500부, 2호 2,500부, 3-6호 2,300부, 7호-7호 2,700부, 10-25호 2,300부, 29-36호 2,600부, 38-39호 2,970부, 40-45호 3,280부, 47호부터 4,000부였다. 구독료는 기간에 따라 달랐다. 1부 8코페이카, 1개월 80코페이카, 6개월 4루블 80코페이카, 1년 9루블 60코페이카였다. 신문의 구성을 보면 1,2면은 주로 소련공산당과 카자흐스탄 공산당의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나 보고, 또

료 중의 하나임에 분명하다.

물론 《레닌기치》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당 기관지라는 특성상 고려인들의 강제이주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곳이나 기사는 단 하나도 없다. 고려인들이 사회주의체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도 찾아볼 수 없다. 또 부주필 련사일을 비롯한 기자들은 사회주의이데올로기를 선전하기 위한 기사를 끊임없이 작성하여 당 기관지로서, 사회주의의 선전 선동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레닌기치》 기사를 통해 고려인들의 콜호즈 건설과 콜호즈를 중심으로 한 생활, 고려사범학교 및 콜호즈내 학교 등의 교육, 고려극장의 활동, 고려인들의 문화생활 등 고려인들의 일상생활을 미시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고려인들의 이주 역사를 전면적으로 다시 쓰거나 정확한 통계를 통해 이주 고려인의 수나 지역, 그들이 건설한 콜호즈의 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 분석한 대상 시기도 1938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주 직후의 고려인 사회를 전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초기 그 기사들의 행간 속에서 우리는 고려인들의 삶의 단면 단면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단면 속에서 고려인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이 삶의 단면과 그들의 숨결을 조금이나마 복원해 봄으로써 기존의 고려인 역사 서술에 대한 작은 문제제기의 불씨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는 프라우다 사설을 조선말로 번역하여 신고, 3,4면은 고려인의 콜호즈를 비롯한 고려인 기사들과 국제뉴스를 실었다. 《레닌기치》의 1938년 표기는 《레닌의 기치》였다. 이 글에서는 《레닌기치》로 표기할 것이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 신문을 인용할 경우 맞춤법과 표현의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원문의 느낌과 표현을 살리기 위해 당시의 표기를 따른다.

2. 콜호즈

1938년 카자흐스탄에 정착한 고려인들은 직업별로, 지역별로 여러 지역에 분산 배치되었다. 아래 표는 1939년 고려인들의 배치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1939년 1월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직업과 가구 수³⁾

고려인들이 정착한 직장	직장 수	가구 수
어업 콜호즈	13	1,331
신설 농업 콜호즈	61	7,205
기존 농업 콜호즈	169	4,018
가내공업 협동조합	9 + ∞	1,039
도시와 농촌지방 노동자 사무원		4,495
총 계		18,088

표 2. 1939년 11월 1일 카자흐스탄 고려인 이주민 배치 현황⁴⁾

주 이름	독립 농업 콜호즈		기존 콜호즈 편입		독립 어업 콜호즈		솥호즈		노동자 및 사무원 가구 수	총 가구 수
	콜호즈 수	가구 수	콜호즈 수	가구 수	콜호즈 수	가구 수	콜호즈 수	가구 수		
알마아타	15	1,910	31	697	4	380	1	48	782	3,817
약튜빈스크	4	359	2	42	-	-	-	-	115	516
구리예프	3	298	9	160	1	225	-	-	300	983

3) 부가이, 『재소 한인들의 수난사 - 해설 및 관계 공문서 - 』, 세종연구소, 1996, 110쪽; 이지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 연구, 1938-1953 : 「레닌기치」의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25쪽에서 재인용.

4) 부가이, 『재소 한인들의 수난사 - 해설 및 관계 공문서 - 』, 세종연구소, 1996, 239쪽; 이지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 연구, 1938-1953 : 「레닌기치」의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24쪽에서 재인용.

서카자흐스탄	-	-	34	330	-	-	1	2	156	488
카라간다	3	538	1	37	-	-	-	-	713	1,288
쿠스타나이	2	363	14	88	-	-	4	62	585	1,098
크즐오르다	26	2,201	69	1,443	3	201	-	-	2,858	6,703
북카자흐스탄	5	792	1	53	-	-	-	-	-	845
남카자흐스탄	3	262	32	465	-	-	1	1	436	1,164
총 계	61	6,723	193	3,315	8	806	7	122	5,945	16,902

위 <표 1>과 <표 2>는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직업과 직장, 살고 있는 지역, 콜호즈 수, 가구 수 등 주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고려인들은 위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알마아타와 크즐오르다에 주로 배치되었다. <표 1>과 <표 2>에서 총계와 총 가구 수의 일부 수치상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인용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는 급박하게 배치한 고려인들의 직업과 거주지, 강제이주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지역별 특징 등을 고려하여 콜호즈를 통합하거나 분산하거나 고려인들을 재배치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따라서 자료 조사 시점에 따라 그 결과가 반영되어 위와 같은 차이를 보인다.

이주 고려인들은 새로 조직된 독립 농업콜로즈 61개에 6,723 세대로 전체 고려인 가구 수의 약 40%가 배치되었고, 기존 농업 콜호즈 193개에 3,315세대로 약 20%가 배치되었다. 즉 농업 콜호즈에 약 60%의 고려인들이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업 콜호즈에는 806세대가 배치되어 약 5%를 차지했으며, 솜호즈에는 122세대로 1%가 채 되지 않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공업협동조합 및 사무원으로 5,945세대가 배치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전체 고려인 가구 수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도시와 지방의 행정 기구에 배치되었다.

도시에 정확히 몇 가구에 몇 명의 고려인들이 배치되었는지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고려인들이 사막이나 황무지에 배치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러한 내용은 《레닌기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38년 《레닌기치》 기사에서 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 고려인 콜호즈 수는 49여 개 정도이다.⁵⁾ 카자흐스탄에 대략 8천개의 콜호즈가 존재하고, 여기에는 공화국 내 모든 농민의 97.5%가 망라되어 있으며,⁶⁾ 크즐오르다주에 333개의 콜호즈가, 씨르다리아 구역에는 41개의 콜호즈가 있다.⁷⁾ 1939년 1월 현재 농업 콜호즈와 어업 콜호즈, 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확인 가능한 252개의 고려인이 속한 콜호즈와 비교해 볼 때 《레닌기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콜호즈 명칭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콜호즈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례들은 전체 고려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사례임에는 분명할 것이다.

이제부터 《레닌기치》 기사를 통해 콜호즈의 여러 사례 속에 나타난 고려인 사회를 들여다보자. 《레닌기치》 7호에서 고려인 콜호즈의 형성을 알 수 있다. 씨르다리아 구역 《붉은농부》 콜호즈는 삼월 15일에 《블류헤르》 콜호즈와 연합한 후 145호에 600명의 인구를 망라한 콜호즈가 되었으며 콜호즈 회장으로 정홍규가 선출되었다.⁸⁾ 또한 크즐오르다시 부근에 위치한 《오

5) 1938년 《레닌기치》 기사에서 그 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 콜호즈는 총 49개로 다음과 같다 : 오고로드니크, 몰로도브, 붉은 농부, 블루헤르, 카스리쓰, 스팔린, 인페르나치오날, 달리네위쓰프즈니크 알젤리, 프루도위크 알젤리, 붉은 놀, 광동 꼬무나, 기간트, 선봉, 폴로쓰, 까라콜라이, 아츨놀, 크슬-우란, 원동, 붉은동방 어업 콜호즈, 크라스니 꼴로콜, 사라크-아미크, 체르윈나야 세믈라, 연해주 빨찌산, 쏜판 쓰따하노브, 위로실로브, 삼월일일, 초르나야 세믈라, 새세계, 깔리닌, 크슬뚜, 십월의 길, 신투지네츠(Синтужинец), 칼-립크네흐트, 붉은 십월(Красный Октябрь), 새길, 크라스니 빠하르, 레닌, 볼세위크, 콤인페른, 십월, 빠울롭스크, 모쁘르, 빠울롭스크, 빠울롭까, 볼리트웃젤, 콜렉티브리스트(Коллективист), 콤소몰(Комсомол), 제삼인페르나치오날(제삼 국제당), 붉은 발갈이군 등이다. 이 중에는 농업콜호즈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알젤리로 표현되는 공업협동조합과 일부 우즈베키스탄의 콜호즈도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6) 《레닌의 기치》 58호. 1938. 11. 7. 4~5면.

7) 《레닌의 기치》 63호. 1938. 11. 24. 4면.

고로드니크》 콜호즈는 113호에 인구 500명 이상으로, 카사흐 15호, 유태인 1호, 축치 1호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고려인으로 복합적인 민족으로 조직되었다.⁹⁾ 사실 씨르다리아 구역은 1938년 초에 고려인 이주 결과로 생겨난 지역이었다.¹⁰⁾ 그러나 빠른 시일 안에 정착하였고 고려인들도 이 과정에 함께 했다. 그래서 김춘봉, 남천 등이 자도사업에 등용되었고, 전 안드레이가 구역위원회 켈레눔(ПЛЕНУМ, 총회)의 셋째 비서로 선출되었다.

1938년 고려인 콜호즈의 최대 사업은 벼농사를 시작하기 위해 경지를 정리하고 수로를 만들고 파종을 하는 일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카자흐스탄에서는 일찍부터 벼농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사실, 1937년 소비에트 정권에 의해 연해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들이 강제이주되기 전에도 얼마간의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었다.¹¹⁾ 1920년대 후반 뚜렷한 이주동기를 가지고 극동지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 온 일단의 고려인들이 있었다. 이들이 주체가 되어 형성된 것이 카자흐스탄 고려인 농업협동조합 ‘카스리스(카자흐스탄 쌀)’다. 이들의 이주 계기는 1920년대 후반 카자흐스탄 지역의 벼농사 진흥책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20년대 후반 소련 당국은 카자흐스탄 지역의 벼농사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벼농사 전문가와 벼 재배 경험자가 없었다. 이에 마련된 방안이 벼 재배 경험이 풍부한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들을 이 지역으로 초청하여 그들의 벼 재배 경험을 전수받는다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928년 봄 카자흐스탄 농업인민위원회의 초청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살고 있던 70가

8) 《레닌의 지침》 7호, 1938. 6. 4. 4면. “콜호즈사업을 해독적으로 파탄시키는 자들을 폭로하라”.

9) 《레닌의 지침》 1호, 1938. 5. 15. 3면. “《오고로드니크》 콜호즈의 형편”.

10) 《레닌의 지침》 1호, 1938. 5. 15. 3면. “씨르-다리아 구역 당꾼페렌치야”. ‘씨르-다리아 구역이 성립된지는 석달이 넘지 못한다.’

11) 전경수,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26쪽; 블라지미르 김 지음/김현택 옮김, 『러시아 한인 강제 이주사 - 문서로 본 반세기 후의 진실』, 경당, 2000, 19~31쪽.

구, 300명 이상의 고려인들(도작업자, 양잠업자)이 투르키스탄-시베리아 횡단 철도 부설에 인접해 있는 세미레친스크에 도착했다. 이들은 ‘카스리쓰’라는 고려인 농업협동조합을 결성하고, 1929년 1월에는 다른 생산 농장에 법씨를 나누어주었다.¹²⁾

이 지역에서 벼 재배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한 소련 당국은 1929년 횡단철도 인근의 투루시브 구역에 벼 재배 습호즈를 만들라는 명령을 하달한다. 이에 따라 같은 해에 적당한 벼 재배지를 얻어 낸 특별위원회는 이 지역의 풍토에 적합한 벼 종자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종류의 법씨를 파종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이 지역의 개간사업이 1930년대 초에 본격화되었고, 1931년에는 카라탈 운하 건설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이 지역 농경지의 관개가 가능하게 되자 벼농사는 풍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드디어 1931년에 ‘카라탈스크’ 벼 재배 습호즈를 세울 결정이 채택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습호즈는 1937년에 와해되어 버리고 만다. 바로 여기에 연해주에서 이주한 고려인들이 조직한 콜호즈들이 자리잡게 되었다.¹³⁾

이처럼 이전부터 연해주에서 벼농사를 해 온 경험과 일찍이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에 와서 벼농사를 하고 카자흐인들에게 이를 전수한 사실에 기반하여 고려인들은 이주지에서 빠르게 정착해갔다. 고려인들이 주로 파종한 곡물은 벼와 채밀, 보리, 귀밀, 기장, 목화 류쨌른, 피마자, 감자, 차소, 참외, 수박, 옥수수 등 매우 다양했다.¹⁴⁾

건축사업은 파종이 마무리된 이후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콜호즈의 주택건설과 학교, 병원, 유치원, 사무소, 축사 등 모든

12) 《레닌의 지침》 63호, 1938. 11. 24. 4면. “농촌엔 오직 사회주의적 변명과 룡성이 있을뿐” 기사를 보면 《까쓰리쓰》 콜호즈의 조직 역사를 알 수 있다. 이 콜호즈는 1929년에 고려농민 80호와 카사흐 및 기타민족 3호고 조직되었으며, 현재 이 콜호즈는 200여호의 콜호즈원들이 사는데 그 중 고려인은 30%였다.

13) 전경수, 앞의 책, 27쪽.

14) 《레닌의 지침》 6호, 1938. 5. 30. 4면. “파종진행에 대한 통계”.

것을 수리하거나 새로 지어야 했다.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고려인 콜호즈의 건축비로 8백만 루블을 책정하고 주택건설을 독려했다.¹⁵⁾

가을인 9월부터 고려인 콜호즈에서 최대 사업으로 결정된 것은 추수였다. 《레닌기치》는 고려인들이 계획된 기한 안에 추수를 실행하도록 독려하고, 각 콜호즈에서의 추수진행 상황을 기사로 게재했다. 또한 우수한 성과를 올린 콜호즈와 콜호즈원들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널리 선전하고 미진한 결과를 낳은 콜호즈에 대해서는 심한 질책을 가하기도 했다.¹⁶⁾

콜호즈와 콜호즈원들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례들을 통해 고려인 사회를 이해해 보자.

고려인들의 콜호즈는 필요에 따라 다른 콜호즈와 연합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합쳐진 콜호즈간의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보자. 시르다리야 구역에 있는 《붉은 농부》 콜호즈는 삼월 15일에 《블류헤르》 콜호즈와 연합하여 145호에 600명으로 구성되었다.

씨르-다리야 구역 ‘붉은 농부’ 콜호즈는 삼월 15일에 ‘블류헤르’ 콜호즈와 연합한 후 145호에 600명의 인구를 망라한 콜호즈가 되었다. 그런데 이 콜호즈 회장 정홍규를 비롯하여 집행부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레닌기치》에서는 “로동자와 콜호즈회원들의 편지” 형식을 빌어 비판하고 있다. 브리가 지르(작업반장) 류안드레이와 고봉준이 파종 시기에 술만 마시고 집에서 며칠씩 낮잠만 잔다거나 해서 작업일정에 차질을 초래했다. 그리고 집행부원들이 콜호즈의 공동재정을 남용하기도 했다. 즉 회장 정홍규가 재정 8천루블을 남용하고, 이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최미혜에게 5백루블, 검사부장 리호남에게 5백루블, 유안드레이에게 5백루블, 조이범에게 600루블 그리고

15) 《레닌의 기치》 14호, 1938. 6. 24. 4면. “고려인 콜호즈들의 주택건축비로 8백만 루블리”.

16) 《레닌의 기치》 53호, 1938. 10. 22. 4면. “벼납부계획 실행을 위하여 분투하라”, “벼 추수의 속도를 더 높이라”. 이외에도 추수를 독려하는 기사는 수없이 확인할 수 있다.

고봉준에게 200루블을 뇌물로 주었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원들의 출장비로 5개월간 3천루블을 소비했다. 회장 정홍규는 1938년 정월 1일부터 오월까지 40일의 출장비로 780루블을, 김영식이 19일간의 출장비로 380루블을 소비했다. 이는 콜호즈 내규에 정한 ‘출장비는 콜호즈 총 수입의 1.5~2%에서 허용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¹⁷⁾ 이러한 비판 기사로 콜호즈회장 정홍규는 씨르다리아구역 검사국에서 조사를 받고 인민재판에 회부되었다.¹⁸⁾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고려인 콜호즈가 이미 1938년 1월 1일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필요에 따라 공동재정에서 출장비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콜호즈를 재정비하면서 고려인 콜호즈들간의 통합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더욱 흥미를 끄는 사실은 《레닌기치》에 정홍규를 비롯한 콜호즈원들의 비리를 투고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것이다. 신문에 투고자는 단지 ‘S생’으로만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투고 내용은 내부 사람이 아니고는 알지 못하는 매우 자세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즉 ‘내부고발’이었던 것이다. 이는 아마도 《붉은 농부》 콜호즈와 《블류헤르》 콜호즈가 연합하면서 주도권을 상실한 전 《블류헤르》 콜호즈 소속원 일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강제이주 이후 고려인들은 짧은 기간 안에 콜호즈를 형성하고, 이 콜호즈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며, 그 과정에서 고려인들 간에 반목과 갈등이 생길 만큼 이미 그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다른 예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리’라는 성으로만 알려진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 ‘씨르다리아 구역 《몰로토프》 콜호즈는 집행부 일꾼들의 호상간 반목과 질시와 또는 지도층의 결점을 콜호즈 건설에 은근히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파종이 지연되

17) 《레닌의 기치》 7호, 1938. 6. 4. 4면. “로동자와 콜호즈회원들의 편지 콜호즈사업을 해독적으로 파탄시키는 자들을 폭로하라”.

18) 《레닌의 기치》 14호, 1938. 6. 24. 4면. “기사의 실효”.

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 이유는 지도층이 “개인의 명예”를 위하여 무원칙한 질투를 일삼고 상호 불신임했기 때문이며, 또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콜호즈 회장이나 공청동맹원인 안안똥은 책임자들 사이에 콜호즈 사업을 협의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출타 중에는 부회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지 않고 자신이 신임하는 회계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다. 또한 콜호즈 안의 공청동맹 초급단체 조직원 김봉석은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외부사람을 콜호즈원으로 권고하거나 콜호즈원들을 축출하기도 했다.¹⁹⁾

또한 《인테르나치오날》 콜호즈의 코스네라우스크 셀포(сельпо, 농촌소비조합이자 판매점) 지점 주임 리 올가는 소비에트 상업의 질서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았다. 그녀는 저울없이 가루를 마대로 판매하고, 거기에 마대당 국가에서 정한 값에 1루블씩 더 추가하여 가격을 받았다. 이는 콜호즈 회장 리 그리고리의 명령에 의해 행했다는 것이다. 또 빈병 회수 비용에서 25%를 제하고 지불하기도 했다. 코스네라우스크 셀포 회장 김로만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²⁰⁾

이와 유사한 사례는 또 확인할 수 있다. 알마아타주 까라팔구역 우스토베의 《모쁘르》 콜호즈 셀포 주임으로 일하는 허귀남(일명 다위드)은 자기의 친척과 친근한 사람들에게 좋은 물품들을 분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질 낮은 물품을 분배했다. 그리고 보리쌀을 자기집으로 빼돌리거나 처갓집으로 천을 빼돌린 다음 러시아인 콜호즈를 돌아다니면서 팔기도 했다. 그래서 지방공청동맹단체에서는 허귀남을 출회시켰다.²¹⁾

19) 《레닌의 기치》 7호, 1938. 6. 6. 3면. “검열이 요구되는 《몰로도브》 콜호즈”.

20) 《레닌의 기치》 16호, 1938. 6. 30. 4면. “쏘베트 상업의 질서를 위반하는 리 올가”.

21) 《레닌의 기치》 59호, 1938. 11. 12. 3면. “셀리뵤에서, 공유물을 절취하는 허귀남을 축출하라”.

고려인들은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보탬을 하기 위해 콜호즈에서 생산한 물건을 팔기도 했다. 《레닌기치》에 보면 재미있는 광고가 하나 실려 있다. ‘시부근 비행장결 《오고로드니크》 콜호즈에서 채소를 파니 각 단체에서는 와서 사가기를 바람: 한킬로의 물외(?)·50코페이카, 보민도르(토마토)·1루블(짐채용 푸른 보민도르도 있음), 루크(파)·1루블이 그것이다.’²²⁾

이러한 것이 사람 사는 모습이었다. 강제이주 이후 고려인들도 사람들이었고, 사람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때로는 강제이주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그 속에서 서로 간에 협력하고 반목하고 속이고 투고하고....

3. 학교

1938년 《레닌기치》에서 강제이주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찾아 볼 수 없다. 단지 강제이주를 간접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추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강제이주 이후 학교의 개설과 관련한 부분이다.

원래 크즐오르다의 조선인²³⁾ 초급학교는 1937년 십일월 1일부터 시작해야 했지만 ‘특수 사정’²⁴⁾과 ‘부득이한 사정’²⁵⁾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조건’²⁶⁾ 하에서 시작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즉 강제이주라는 특수하고도 부득

22) 《레닌의 기치》 35호, 1938. 8. 24. 4면. “광고”.

23) 《레닌기치》에서는 이주 한인들을 통상 고려인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조선’이라는 용어도 종종 등장한다. 학교를 언급할 때 조선인 학교, 또는 고려인학교 등으로 기자에 따라 혼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언급할 때는 고려인과 고려인학교로 표기할 것이며, 신문을 그대로 인용할 경우 원문에 표기된 것을 따른다. 따라서 조선인 학교라는 표현도 동시에 사용할 것이다.

24) 《레닌의 기치》 9호, 1938. 6. 10. 4면. “조선인 십년제 학교에서의 년중시험”.

25) 《레닌의 기치》 18호, 1938. 7. 6. 4면. “두학교의 학년도 총화”.

이한 사정 때문에 매우 어려운 조건 하에서 다른 학교들보다 근 한학기 늦게 시설이 불완전한 가운데서 조선인 초급학교의 학년도를 시작했다.

그러나 당장 이루어져야할 교육이 원활하게 수행되지는 못했다. 학교 건물을 수리하거나 신축해야 했고, 교과서와 필기도구들이 부족했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사 확보문제였다. 이에 1938년 팔월 15일, 9월 1일 새학년 준비상황을 점검한 카자흐스탄공산당(불) 씨르다리아 구역위원회 회의의 구역교육부장 보고에 따르면, 교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을 학교수리비로 사용되었고, 고려인학교 10개교에 필요한 교원 55명 중에서 40명만 확보되었다.²⁷⁾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1938년 8월 18일 《레닌기치》 1면에 실린 “불세위크적 준비로써 새학년을 맞자!”라는 제목의 기사이다. 기사에 따르면 1938~1939년도 교육의 목표는 ‘전국의 학교건설, 인민교육 및 문화의 총향상’이었다. 그런데 크즐오르다 주내 5만 2천명의 학생들 중 수 천명에 달하는 조선인 아이들의 학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주민들이 정착한 거의 대부분의 콜호즈에는 학교 건물이 없었다. 그래서 크즐오르다주에서는 1938년도에 조선인학교 20개소를 건축하기로 계획했지만 예정된 기한 안에 완공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교원확보 문제도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새학년을 앞둔 시점에서 부정확한 학무부의 자료에 근거하더라도 160명의 교원이 부족했다. 씨르다리아 구역의 학무부 자료에서도 조선인학교에 15명의 교원이 부족했다. 그러나 구역학무부는 물론 주학무부에서도 어디에 어떤 교원이 얼마나 부족한 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주학무부는 씨르다리아구역에 교원이 남는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려인들에게 훨씬 더 많은 교원이 필요했다.

26) 《레닌의 기치》 13호, 1938, 6, 21, 1면. “가스, 쎄쎄르 최고소베트 선거일에 주는 선물 라보르트”.

27) 《레닌의 기치》 33호, 1938, 8, 18, 3면. “씨르다리아 구역위원회에서”.

교과서와 기타 시설품에 있어서도 형편은 비슷했다. 개학을 앞두고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시내 조선중학교에서도 고급학년용 교과서는 전혀 없으며, 《인페르나치오날》 콜호즈내 중학교에는 심지어 어떤 교과서도 전혀 없었다. 다른 시설은 그만두더라도 조선인학교에 책상이라고는 전혀 없었다.²⁸⁾

다른 기사를 보자. 앞에서 언급한 《인페르나치오날》 콜호즈에는 팔학년 까지 학급이 개설되는 학교가 있지만 학교 건물은 불완전해서 콜호즈원들의 주택을 학교 건물과 교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 교원은 고려반에서 수업을 담당할 3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부족했다. 《레닌기치》 신문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쓰딸린》 콜호즈에서도 중학교가 개설되는데 학교 건물은 절반에 못미치게 준공되었고 교원도 9명 중 2명이 부족했다.²⁹⁾

대학이라고 해서 사정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 크즐오르다 사범대학은 구월 1일에 개학했지만 학생들에게 불만을 일으키는 문제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 먼저, 학생들에게 필요한 참고서나 교과서, 소설책들이 도서관에 거의 없었다. 그리고 대학 내 식당도 문제였다. 점심값이 2루블 50코페이카로 상당히 비쌌지만 비위생적이고 심지어 절반이나 썩은 돼지고기 국이 나와 먹지를 못하기도 했다. 또한, 강의실도 부족해서 독서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³⁰⁾

그러나 극히 일부지역에서는 학교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크즐오르다주 야닌-꾸르간 구역에 있는 고려인 초급 중학교 김병수 교장은 학교 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사 업한 결과 많은 성과를 전취하였”는데, “학교 건물과 교과서, 책상 및 교원들을 제때에 옹게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아모리한 지장이 없이

28) 《레닌의 기치》 34호, 1938. 8. 22. 1면. “볼세위크적 준비로써 새학년도를 맞자”.

29) 《레닌의 기치》 34호, 1938. 8. 22. 4면. “새학년도 준비에 골몰한 학교들의 진상”.

30) 《레닌의 기치》 43호, 1938. 9. 18. 3면. “학과실행에 결점이 많다”.

학과 생산계획을 100% 실행하였다.”³¹⁾

고려인들의 교육열은 대단했다. 예를 들어, “크즐오르다시 조선인 십년제 학교는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학교들보다 한 학기를 늦게 또는 시설이 불완전한 가운데서 학년도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잇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당국과 교원 일동의 굳세인 투쟁과 사업으로써 일년학과 강령을 대체로 성과 있게 실행하였다. 오월 20일부터 년중시험을 시작하였는데 벌써 대체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만일 둘째학기에 최우등생이 1명이었고, 제삼학기에 3명이었다면 마지막 학기에는 40명에까지 이르렀다. 시학무부는 이 최우등생들에게 시상하기 위하여 금 1800루블리를 지불하였다. 이 최우등생들 중에서도 특히 8학년생 서순과 9학년생 립리다를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이 두 학생은 공부를 시작한 첫날부터 이때까지 각과에 있어 ‘오틀리츠노’³²⁾란 성적을 잃어본 적이 없다. 학교당국은 지금 시험을 끝맞추면서 새 학년도 준비에 착심하고 있다. 가을붙어는 지금 칼-맑쓰거리에 건축하고 있는 새학교 2층집에서 공부하게 될 것인바 새 의자들과 또 실험실준비에 열중하고 있다.”³³⁾

또, “크즐오르다 조선인 십년제 학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기 학년도를 다른 학교보다 떨어지어 시작하였음과 어려운 형편에서 학업을 진행하였”지만 “학교 당국 직원들의 굳세인 사업결과에 학년도 총화를 낮브지 않게 끝매즈었음을 말치 않을 수 없다. 다른 학교들보다 한 학기를 떨어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학년도 계획을 96.4%까지 실행하였다. 학생들의 절대성적을 보면 78.79%이오 상대적 성적을 보면 93.8% 이다. 씨그다리야 구역내 조선인 초급중학교는 전학년도 계획을 98.88%까지 실행하였다.”³⁴⁾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부모나 고려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31) 《레닌의 기치》 4호, 1938. 5. 24. 4면. “학교사업을 위한 김병수 동무의 열성”.

32) 소비에트러시아에서 성적은 1점에서 5점까지이다. 5점이 최고점수인데 모든 과목에서 5점을 획득할 경우 ‘오틀리츠노’라 표현하며, 최고 우등생을 의미한다.

33) 《레닌의 기치》 9호, 1938. 6. 10. 4면. “조선인 십년제 학교에서의 년중시험”.

34) 《레닌의 기치》 18호, 1938. 7. 6. 4면. “두학교의 학년도 총화”.

콜호즈로 내려가 고려인들의 삶을 안정시키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크즐오르다시 농촌경리전문학교는 사회주의적 농촌경제를 옹계 조직하고 지도할 새로운 젊은 간부를 양성하는 학교였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주기적으로 현장 활동을 수행했다. 벼농사 전문과의 10명의 학생들은 사월 초에 파종캠페인을 올바로 지도하기 위하여 크즐오르다주 각 엠떼쓰(MTC)³⁵⁾로 파견되었다. 칠월 1일에 19명이 졸업하는데, 졸업하는 학생 중에서 성적이 제일 우수한 학생들은 엄알렉세이, 리 알렉산드라, 김찬세로 모두 고려인이었다. 특별히 엄알렉세이는 전과를 통하여 ‘오틀리츠노’로 졸업할 예정이다. 졸업하는 학생들은 전동맹 토지인민위원부의 지도하에서 각 공화국과 주로 파견될 것이다.³⁶⁾

한편, 알마아타 법률대학에서 학생을 모집한다는 기사는 흥미를 끈다. 왜냐하면 대학 입학에 위한 자격 조건은 어떤지, 고려인들도 입학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접수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자격조건은 전문학교, 십년제학교, 노동학원 졸업생들과 교외공부를 수행하여 중학교 졸업증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따로 준비과를 두어 9년급 정도의 학업을 이수한자들이 입학할 수 있었다. 입시과목은 수학, 물리, 화학, 러시아어, 카자흐어, 지리, 정치, 역사와 외국어였다. 특전으로 학비와 기숙사 제공되었다.³⁷⁾ 그러면 고려인들이 과연 알마아타 법률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을까? 위 조건으로 볼 때 원칙적으로는 가능했으리라 판단한다. 그러나 고려인들이 러시아어와 조선말에는 익숙했지만 짧은 기간에 카자흐어를 익히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고려인들이 이 대학에 입학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35) 기계·트랙터 배급소(Машинно-Тракторная Станция, 약칭 MTC)로 콜호즈를 비롯한 농촌의 생산 활동을 돕기 위해 기계와 트랙터를 공급하는 소비에트 정부에서 만든 기관.

36) 《레닌의 기치》 15호, 1938. 6. 28. 3면. “농촌경리 전문학교를 졸업하면서”.

37) 《레닌의 기치》 25호, 1938. 7. 28. 3면. “법률대학 학생모집”.

고려인들이 다니던 초급학교나 중학교, 그리고 사범대학은 기본적으로 카자흐스탄의 학무부 체제에서 운영되던 교육기관이었다. 따라서 학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체제와 정부 당국에서 정한 정책을 따라야 했다. 특히 고려인들은 강제이주 이후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 개인적이고 민족적인 울분은 가능한 속으로 삭히고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당교육을 비롯한 사업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고려인들에게 비판이 가해지기도 했다. 또한 고려인들은 이주 이후에 관공서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 종사했다. 예를 들어, 크즐오르다 사범대학의 당 책임비서는 강알렉세이였다. 이 대학에서 카자흐스탄 최고 소비에트 대의원 후보자 추천자로 훈장을 받은 김홍빈이 첫 후보자로 스탈린을 추천하고 이는 박수갈채로 통과되었다.³⁸⁾

1938년 가을부터 소련공산당사와 사상 교육에 대한 강조는 점차 높아갔다. 그래서 이 교육의 실시를 매우 강조하고 이를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곳과 사람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가해졌다. 크즐오르다시 고려중등학교에 5명의 당원과 22명의 공청동맹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비판한 것이 그 예 중의 하나이다.³⁹⁾

또한 크즐오르다시 사범대학내 공산청년동맹 위원회 결산 및 선거회의가 위원회 비서인 석필언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공산청년동맹원 후보로 추천된 23명중 8명은 지도적 수완이 없다는 이유로 후보에서 배제되기도 했다.⁴⁰⁾ 크즐오르다시 고려중학교내 공산청년동맹회 결산-선거회의에 시위원회 대표로 서가이가 참여했는데 당사업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38) 《레닌의 지침》 2호, 1938. 5. 18. 4면. “사범대학의 학생 과학일군 및 행정 기술일군들의 군중대회”.

39) 《레닌의 지침》 42호, 1938. 9. 16. 2면. “당생활-당교양망들에서 쎬쎬쎬 최고소비에트 제2차 쎬쎬의 결정을 연구한다”.

40) 《레닌의 지침》 55호, 1938. 10. 27. 2면. “당생활-사범대학내 공산청년동맹 결산 - 선거회의”.

대해 신랄한 비판이 가해졌다.⁴¹⁾

1938년 말이 가까워오자 이주와 재정착 시기의 혼란은 점차 안정되고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에 대한 지원이 점차 확대되어 갔다. 크즐오르다주에서는 이주민 콜호즈들에 유치원과 탁아소를 열기위한 투자 결정을 내렸고, 이주민 콜호즈의 모든 학교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아침 급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⁴²⁾

4. 고려극장

고려극장은 1932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원동변강조선극장으로 창립되었다.⁴³⁾ 극동의 고려극장도 강제이주시기인 1937년 9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강제이주의 첫 열차를 타고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로 이주했다. 이 열차에는 고려극장의 배우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문화일꾼들, 《선봉》 신

41) 《레닌의 기치》 62호, 1938. 11. 22. 3면. “당사업-고려중학교내 공산청년동맹 결산 - 선거회의”.

42) 크즐오르다주 조직위원회는 유치원과 탁아소 설치를 위해 36만 6천 루블을 지원했다. 그래서 씨르다리아 구역과 깔막치구역에 각각 10만 루블, 칠리구역에 7만루블, 쩌린우샤크 구역에 3만 4천루블, 아랄스크 구역에 3만루블, 야니-크루간 구역에 2만 5천루블, 카살린스크구역에 5천루블이 배정되었다. 학교의 아침 무료 급식을 위해서는 179,500루블이 지원되어, 가르막치구역에 4만 1천루블, 칠리구역에 3만 6천루블, 아랄스크구역에 2만 4천루블, 카살린스크구역에 2만 8천루블, 야니-꾸르간구역에 1만 천 5백루블, 쩌린 우샤크구역에 1만 루블이 배정되었다. 《레닌의 기치》 64호, 1938. 11. 28. 2면. “이주민 콜호즈들에 유치원들과 탁아소들이 열린다”, “덥은 아침을 무료공급하는 이주민의 학교들”.

43) 초대 극장장은 김태였고 연성용, 김진, 태장춘, 이길수, 이함덕, 최봉도, 정후겸, 리경희 등이 참석했다. 초기에 극장은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점을 두고 지역을 순회하는 이동극장의 형태를 유지했던 한국 최초의 해외극단이었다. 극동에서의 활동시기에 주로 무대에 올려졌던 작품은 “장평동의 햇불”(연성용작, 1934), “밭두렁”(태장춘, 1934), “종들”(태장춘, 1937), “춘향전”(이정립, 1934), “심청전”(채영, 1936) 등이다.

문사 직원들, 조선 라디오방송의 직원들, 그리고 조선사범대학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

소비에트 시기에 고려극장은 민족예술의 형식에 사회주의 사상을 담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일종의 사회주의 선전 선동 기구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 극장을 창립하고 초기에 활동했던 많은 예술가들이 모스크바 국립 영화대학 출신이라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38년 《레닌기치》에 고려극장과 관련하여 총 11회의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들을 통해 중앙아시아 고려극장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자.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고려극장은 “콜호즈 솅호즈 고려극장 순회공연”이란 명칭으로 이주당한 고려인들을 위무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레닌기치》 신문에 나타난 고려극장의 첫 공연은 5월 20일 저녁에 크즐오르다시의 공원에서 열렸다. ‘아리랑’, ‘조국에 대한 놀애’, ‘사랑’, ‘만일 전쟁이 난다면(합창), ‘피피꿀’, ‘농민유희’ 등등의 내용이었다. “이 끈짜르트야말로 우리의 놀애들을 넓은 군중, 즉 로씨야 사람, 카사흐, 기타 민족들에게까지 들리어 준 그 점에 있어서 그 의의가 적지 않았다. 그리고 만중의 인기기를 끄오는 배우 리함텃 동무의 ‘피피꿀’과 ‘화초단가’, 연성룡, 리경희 동무들의 ‘사랑가’, 새로 나온 ‘만일 전쟁이 난다면’의 합창, ‘농민유희’등은 적지 않은 환영을 받은 것이 사실”이었다.⁴⁴⁾

크즐오르다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마친 고려극장은 이주 고려인들이 정착한 지역의 콜호즈를 중심으로 순회공연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레닌기치》에는 총 3회에 걸쳐 순회공연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이를 통해 고려극장의 순회공연 지역과 일시, 그리고 공연 프로그램들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극장은 1938년 6월 4일부터 21일까지 제1차 순회공연, 7월 4일부터 9일까지 제2차 순회공연,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제3차 순회공연을 실시했

44) 《레닌의 기치》 7호, 1938. 6. 4. 4면. “고려극단의 끈짜르트에 대하여”.

다. 고려극장이 제1차 순회공연을 진행한 곳은 크즐오르다의 지방 콜호즈로, 까르막치 구역, 칠리 구역, 야니 꾸르간 구역, 쨤린-우샤크 구역 등의 도시와 12개 콜호즈였고, 제2차 순회공연 지역은 쨤렌우샤크 구역의 《붉은 놀》과 《광동꼬무나》 콜호즈, 씨르다리아 구역과 칠리 구역이었고, 제3차 순회공연 지역은 아랄스크, 까르막치, 까살린스크 구역 등이었다. 순회공연 프로그램은 보통 공연과 노래 및 연주였다. 공연 프로그램은 ‘춘향전’, ‘사랑받는 여섯사람’, ‘탈을 벗어라!’, ‘숨은도적’, ‘양반과 종’, ‘농민유회’ 등이었다.⁴⁵⁾ 이 중 가장 많이 공연되고 가장 많은 인기를 받은 것은 ‘춘향전’이었다. 수만 명의 이주 고려인들은 낯선 정착지에서 ‘춘향전’을 비롯한 공연과 노래들을 들으면서 극동의 고향과 헤어진 친지들을 보고픈 서러움을 달래곤 했다.

고려극장은 카자흐스탄에만 조직된 것은 아니었다. 1939년 2월 23일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주(호레즘주) 구를렌 구역에 고려극장이 생겨났는데 크즐오르다의 고려극장에서 상연 중에 있는 각본들을 보내주어 우즈베키스탄의 고려극장이 운영되도록 도와기도 했다.⁴⁶⁾

그러나 고려극장은 기본적으로 카자흐스탄 공산당과 크즐오르다주 및 씨르다리아 구역에 소속된 예술단체이자 사회주의의 가치를 예술이라는 매체를 통해 인민들에게 전달하는 선전 선동 기관의 하나였다. 따라서 고려극장의 단원들은 당과 구역집행위원회의 정책방향을 따라야만 했고, 공연 프로그램도 이 성격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개발해야만 했다.

그래서 고려극장 내에는 여러 사회단체들의 초급 단체들이 형성되었고 그 단체들의 특성에 맞는 활동을 했어야 했다. 예를 들어, 오소⁴⁷⁾단체는 씨르다

45) 《레닌의 기치》 8호, 1938. 6. 6. 4면. “크즐오르다 고려극단은 순회를 떠났다”, 《레닌의 기치》 18호, 1938. 7. 6. 3면. “크즐오르다 고려극단은 첫 번 순회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레닌의 기치》 20호, 1938. 7. 12. 4면. “크즐오르다 고려극장은 순회에서 돌아왔다”, 《레닌의 기치》 42호, 1938. 9. 16. 4면. “크즐오르다 고려극장은 순회를 나간다” 등.

46) 《레닌의 기치》 43호, 1938. 9. 18. 2면. “우스베끄스탄 고려극장”.

리아시에 52개의 초급단체가 있는데 고려극장도 그 중 하나였으며 김관학이 회장으로 활동했다.⁴⁸⁾

가장 대중적인 단체로 공산청년동맹이 있다. 이 단체도 하위에 초급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했다. 고려극장의 경우 조직원 태장춘을 비롯하여 9명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활동이 대단히 불만족스럽다고 무자비하게 비판했다. 즉 “최근 십개월 동안에 공산청년동맹은 배우 청년 1명도 자기의 대렬에 받지 않았으며 정치교양사업에 있어서 국제소식 및 국내소식에 대한 매일 15분간의 담화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정치크루소크(그룹) 사냐찌야(학습)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청년남들중에서의 사업과 또는 회의가 거의 전부 없었다. 그뿐만아니라 생산에서 공산청년동맹원들의 선봉적 조직적 역할이 약하였나니 동맹원들 주에서 다만 4명이 생산에서 우다르니크로 일하였으며 각개 동맹원들에게 대한 사업상 검열이 전부 없었다”⁴⁹⁾는 것이 그것이다.

소비에트 정부는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채를 발행했다. 제3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1938년에 5밀리아르드(миллиард) 루블, 즉 50억 루블을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전인민이 구입할 것을 촉구했다. 카자흐스탄에서도 모든 인민들이 이를 구입해야만 했고, 그 진행상황을 신문을 통해 알려 나갔다. 고려극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서 고려극장은 1938년 7월 3일까지 43명의 단원 가운데서 병자 2명을 제외하고 41명이 15,520루블에 해당하는 공채를 구입했다. 이것은 한 달 임금(16,100루블)의 96.3%에 해당했다.⁵⁰⁾

47) 오소(Осо-Общество содействия обороне СССР)는 소련방 국방후원회의의 약자로 각 기관에 초급단체의 형태로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국방후원을 주목적으로 하며, 자위단 조직, 사격 등 초급 군사훈련, 전쟁시 비상동원의 임무를 수행했다.

48) 《레닌의 지침》 33호, 1938. 8. 18. 4면. “시네 오소단체들의 사업형편”.

49) 《레닌의 지침》 59호, 1938. 11. 12. 2면. “당생활 - 고려극장내 공산청년동맹결산선거회의”.

사회주의 체제에 부합하는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고려극장이 일찍부터 안고 있던 과제였다. 《레닌기치》는 이와 관련하여 일찍부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래의 기사는 매우 흥미롭게 그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 - 나타샤, 온흘 저녁엔 콘체르트에나 갈가?

- 번번히 그것이니 나는 자미없더라!

이와 같이 ‘새것을 내놓으라’의 웨침 소리는 시내 수천명 청중의 속으로 붙어 울리어 나옴을 우리는 력력히 들고 있다. 아니, 이것은 고려극단 당국자들에게 있어서도 물론 전연 모를 사정이 아닐 것이다.

(……)

우리는 여기서 ‘좋은 놀애도 넘우 들으면 염증이 난다’는 속담을 기억하지 않을수 없다. 작년, 재작년에도 아리랑, 아리랑, 금년에도 아리랑, 아리랑, 1934년에도 ‘피피꿀’, 1938년에도 ‘피피꿀’, 이것이야 말로 넘우나 도수에 넘친 중복이 아니고 무엇이라!

(……)

고려극단의 당국자들은 희곡 창작에 대한 사업과 동시에 새 콘체르트를 내어 놓을데 대한 일을 신중히 해결하여야 하겠다. (……)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하지 못할 난관이 없으며 ‘…점령하지 못할 수 없는 요새’ 없는 것이다(쓰팔린). (……)더 좋고 재미있는 내용과 형식을 가진 재료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⁵¹⁾

고려극장에서는 위와 같은 비판을 수용하여 끊임없는 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10월혁명 21주년 기념에 즈음하여 ‘십월혁명전 사회주의 빅이에서의 승리자들’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고려극장의 그간 활

50) 《레닌의 기치》 18호, 1938, 7. 6. 3면. “크슬-오르다 시내 공채보급”.

51) 《레닌의 기치》 7호, 1938, 6. 4. 4면. “고려극단의 콘체르트에 대하여”.

등을 높이 평가했다.

“십월혁명 21주년 기념 선전 - ‘고려극장의 자기의 사업에 있어서 새 전 환기에 들어섰다. 그리하여 새 극을 준비하며 이미 상연하던 극들을 개작 함에 비상한 활동을 뽑내고 있다.

극적 예술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선진적 모범을 보이는 11명의 우 다르니크들이 선발되었나니 태장춘, 작춘섭, 최봉도, 장길환, 리함덕, 리이 노겐지, 리길수(배우들), 최경환(극장목수), 최아파나씨(전기조절수), 최남 수(극장 로동자) 및 채영(극장감독) 동무들이다.

이 동무들은 자기들에게 배당된 배우적 역할, 배우적 기교를 연구 및 획득함에 있어 또는 자기들의 창작사업과 전체 극장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사업하며 온갖 사회사업에서까지 충실히 일하는 모범적 일사군들 이다.”⁵²⁾



그리고 그 중심인물로 배우인 리길수와와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쏘베트 주권의 혜택을 넘어 자라난 사회주의적 내용에 민족적 형식을 가진 고려극장은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민족예술의 새 성과들을 위한 투쟁에서 적지아니한 성과를 달성하였’고 ‘이 예술 일군들중 한사람이 리길수 동무’였다.⁵³⁾

이처럼 고려극장은 강제이주와 함께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다주로 단원들과 이주해

52) 《레닌의 지침》 58호, 1938. 11. 7. 3면. “쎬쎬르를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공업과 기술과 가장 생산력이 많은 농업의 국가로 변하자. 식료품의 풍족을 달성하자 - 십월혁명전 사회주의 빅이에서의 승리자들” 중 “극장예술의 향상을 위한 투쟁”. 여기에서 빅이는 경쟁을 의미한다.

53) 《레닌의 지침》 64호, 1938. 11. 28. 3면. “사랑을 받는 쏘베트 배우”.

왔다. 초기 어려운 정착과 재정비를 거친 고려극장은 5월부터 여러 지역에 순회공연을 하면서 이주 고려인들을 위로하는 한편, 소비에트 단체의 하나로 사회주의 선전 선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사상 학습 교육을 실시하면서 카자흐스탄 사회주의 사회에 정착해 들어갔다.

5. 문화

고려인들의 강제이주는 극동에서 직장별, 직업별, 지역별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지들이라 하더라도, 또는 여행이나 업무차 다른 지역이 있을 경우에도 그들이 원하던 지역, 원하던 사람들과 함께 이주하지 못했다. 따라서 《레닌기치》에서는 한민족의 전통인 이산가족 찾기와 죽은 사람에 대한 부고를 광고 형식을 취해 게재했다. 그러나 무료로 기사를 실어주는 것은 아니었다. 광고 크기에 따라 단가를 달리했다.⁵⁴⁾

이에 1938년에 사람을 찾는 광고와 부고 광고가 총 24회에 걸쳐 실렸다. 이 광고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이 사위 송용준을 찾는 광고였다. 홍범도 장군은 1938년 6월 10일 다음과 같은 광고를 《레닌기치》에 실었다. “나의 사위 송용준이 아랄스크 모레루 갔다는데 그의 거처를 아시는 동무는 г. Кызыл-Орда, Красный городок, No.60 홍범도에게 전하여 주시오.”⁵⁵⁾ 이 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홍범도의 사위 송용준과 그의 딸이 아랄스크해 근처로 이주당했다는 사실과 홍범도가 중앙아시아로

54) 사람을 찾는데 있어서 그에 일정한 광고료가 있습니다. 오호 한줄에 1루, 사호, 삼호 한줄에 1루 50코, 이호 한줄에 2루, 일호 한줄에 3루. 주소 : Г. Кызыл-Орда, Сырь-Дарьнский район, Редакция кор. Газеты "Ленины Кичи". 《레닌의 기치》 4호, 1938. 5. 24. 4면. “독자동무들에게 두어가지 충고”.

55) 《레닌의 기치》 9호, 1938. 6. 10. 4면. “송용준을 찾소”.

강제이주 당한 후 기거했던 주소이다. 그런데 이 주소는 앞에서 언급했던 고려극장 주소였다. 즉 홍범도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노년에 고려극장에 근무했다는 것이다.⁵⁶⁾

이산가족을 찾는 기사 대부분은 강제이주로 헤어진 가족과 친지를 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에서 헤어진 가족과 친지를 찾는 광고도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강제이주 이후 보다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지들과 헤어진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헤어져 다시 만나기 힘들어진 이유는 강제이주 과정에서 소비에트 당국이 고려인들의 공민증을 압수한 후 되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새로 발급해 주지도 않아서 고려인들의 이동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⁵⁷⁾

강제이주라는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과 사건이 있었지만 중앙아시아 척박한 곳에서도 사람들은 살았다. 사람 사는 곳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부족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일들은 지적하고 개선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크즐오르다 시에는 수만명의 노동자와 사무원들을 위한 문화적 휴식공간이 있었다. 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반 이상이 고려인들이었다. 그러나 고려말로 연극을 하거나 음악 연주를 하는 일이 거의 없으며 독서실에는 고려 책자를 한권도 갖춰놓지 않았고, 당에서 발행하는 《레닌기치》 신문도 없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다.⁵⁸⁾

강제이주 직후 고려인 사회에서도 다양한 체육행사와 예술 올림피아드, 라디오페스티벌 등 각종 문화행사들이 열렸다.

56) 홍범도 장군은 《레닌기치》에 총 3회에 걸쳐 실리는데, 사위를 찾는 광고를 낸 것과, 1943년 10월 27일자에 그가 10월 25일 별세했다는 기사, 1968년 8월 27일자에 그에 관한 특집기사 등이 그것이다.

57)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에 대한 공민증 재발급은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인 1953년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58) 《레닌의 기치》 21호, 1938, 7. 16. 4면. “시공원엔 결함이 많다”.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크즐오르다 시내에서 크즐오르다주 콜호즈 운동대회가 개최되어 다양한 경기들이 열렸다. 육상과 카자흐 전통 씨름은 물론 조선 씨름도 대회 종목의 하나였다. 육상경기는 콜호즈별 단체 경기로 칠리구역의 《선봉》 콜호즈가 우승을 차지하고 씨르다리아구역의 《폴로쓰》 콜호즈가 2등을 차지했다. 카자흐 씨름과 조선씨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었다. 카자흐 씨름은 고려인들에게 생소하여 등위에 드는 고려인들이 없었다. 대신 조선 씨름은 우리의 전통 경기답게 고려인들이 우승에서 3등까지 모두 차지했다.⁵⁹⁾

《레닌기치》 신문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단편소설 공모전을 실시하기도 했다. 국제청년의 날과 콤포소물 20주년을 기념하여 실시된 공모전에서는 국방과 콜호즈 건설을 주제로 한 단편소설로 1등과 2등에게 상금 100루블과 75루블을 각각 수여하고 원고료는 가작까지 포함해 지불했으며, 당선된 작품들은 신문에 실리기도 했다.⁶⁰⁾

크즐오르다주 내에서는 1938년 한 해 동안 성년자들의 올림피아드, 아동들의 예술 올림피아드와 산업동맹 예술 올림피아드 등 세 번의 올림피아드가 개최되었다. 10월 10일에 개최된 크즐오르다주 산업동맹 주최 올림피아드는 30여종의 예술품 전시와 연극공연, 합창과 독창, 현악연주, 시낭송, 소설읽기, 무도 등의 프로그램이 있었다. 합창에서는 《라스노쁘롬》 알렐리 회원들로 조직된 조선인 합창대가 2등을 했고, 독창에서 최운학이 3등을 차지했다. 특히 관중들의 인기를 끈 것은 까르막치의 《뻬료드》 알렐리 회원 안 류드밀라의 춤 공연으로 당당히 1등을 차지했다. 그런데 《레닌기치》에서는 이 문화행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

59) 《레닌의 기치》 25호, 1938. 7. 28. 6면. “주 운동대회의 결과”. 조선 씨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등 - 조알렉세이, 콜호즈 “아츨놀”, 까르막치 구역, 이등 - 황룡, 콜호즈 “크슬-우란”, 쩌렌우샤크 구역, 삼등 - 김웅연, 크슬 오르다시.

60) 《레닌의 기치》 34호, 1938. 8. 22. 4면. “도라오는 국제청년날과 레닌 콤포소물 20주년에 주는 선물 - 단편소설 현상모집”.

다. 크즐오르다주 산업동맹 관할 내에 15개의 알쩨리가 있는데 농촌 및 구역의 알쩨리들 중에는 《빠료드》 하나만 참여하여 지방에 대한 연락 및 참여 독려를 촉구했다. 그리고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위한 숙소 및 식당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을 지적했다. 가장 핵심적인 지적사안은 올림피아드에 참여한 노래들이 거의 대부분 자연과 새에 대한 노래나 아리랑 또는 성주 푸리 뿐이었고, 사회주의 승리와 소비에트조국, 그리고 영웅적 노동민 붉은 군대에 대한 노래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다.⁶¹⁾

1938년 십월 10부터 31일까지 크즐오르다시 라디오 페스티발이 개최되었다. 이 페스티발에는 크즐오르다 시내에 있는 전체 학교들과 몇몇 생산단체들, 그리고 성악가와 시인들이 참가했다. 《라스노프롬》 알쩨 리가 합창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성악에서는 리 니콜라이(조선극장 배우)가 1등, 최운학이 2등을 차지했다.⁶²⁾



사진: 라디오 페씨왈에서 일등상받은 《라스노프롬》의 합창대의 일동

61) 《레닌의 기치》 51호, 1938, 10, 16, 3면. “주적 예술올림피아드”.

62) 《레닌의 기치》 59호, 1938, 11, 12, 3면. “라디오 페씨왈의 총화”.

강제이주 직후라 하더라도 고려인들은 기본적으로 소비에트 시민으로 간주되어 소비에트 당국에서 실시하는 복지 혜택을 여타 민족들과 동일하게 누렸다. 예를 들어 여성들이 임신을 할 경우 산전 및 산후에 1개월씩 노동동원이 면제되었다.⁶³⁾

소비에트 여성들은 다산을 할 경우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예를 들어, 구리예브주 박사이 구역 《빠울롭까》 콜호즈에 사는 전옥은 7명의 자녀를 두어 아이 많은 어머니에게 주는 보조금 4천 루블을 받았다. 그녀는 그 돈으로 젓소와 돼지를 사고 나머지는 자녀들의 학비로 지출했다.⁶⁴⁾ 《레닌기치》는 이와 같이 여성들이 정당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할 경우 이를 도와주기도 했다. 1938년 9월 10일 기사를 보면 까르막치 구역에 사는 최 엘레나가 보조금을 지불받기 위해 《레닌기치》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서는, “아이 많은 어머니들을 방조함에 대한 쉼쉴레르 인민위원소베트의 1936년 6월 26일 결정의 기초에서 나는 아이 7명이 있는 여자로서 국가로 붙어 1936년 6월 26일~1937년 6월 26일 일년치 구제금 2,000루블리를 받았다. 그런데 맞으막 아이가 1933년 11월 7일생으로 1938년 11월 7일에 가서야 5세되기 때문에 1937년 6월 26일~1938년 6월 26일 일년치의 구제금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까르막치 구역 인사등록부에 가서 알아본즉 이제는 보조금 받을 권리가 전혀 없다하기에 이에 대한 사실을 귀신문사에 쓰면서 이 문제를 상당히 해결하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레닌기치》에서 크즐오르다주 검사국과 까르막치 구역 검사국에 문의하여 답장을 받은 결과 최엘레나는 1937~1938년치의 구제금을 받게되었다.⁶⁵⁾ 이 편지와 기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사실은 소비에트정부가 1936년 6월 여성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하나로 아이를 많이 낳은 여성에게 보

63) 《레닌의 기치》 18호, 1938, 7. 6. 4면. “한심천만한 로력동원”.

64) 《레닌의 기치》 49호, 1938, 10. 10. 3면. “4천 루블리의 보조금을 받은 어머니”.

65) 《레닌의 기치》 40호, 1938, 9. 10. 4면. “기재되지 아닌 편지의 실효”.

조금을 지불했다는 사실과 고려인들도 동일하게 그 혜택을 누렸다는 것이다. 또한 고려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혜택을 찾기도 했다는 것이다.

6. 맺음말

1937년 고려인들의 강제이주는 고통의 역사였다.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져 버린 황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1937년 가을 한 달여의 지난한 이동의 열차. 그리고 땅을 밟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은 전혀 다른 기후,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사람들의 땅이었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콜호즈를 건설하면서 살아갈 길을 찾았다. 《레닌기치》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인들의 콜호즈 건설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곳은 삶의 공간이 되었고, 사회가 되었다. 9만여 명의 고려인들이 정착한 카자흐스탄에서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은연중에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일상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강제이주당한 고려인들 스스로 말하듯이 이주 이후 2년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그러나 그 시기에도 고려인들의 삶의 양태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콜호즈에서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공금의 유용과 횡령이 나타나고 이를 문제 삼아 그 문제를 야기한 사람을 콜호즈에서 축출하고 벌을 받게 하기도 했다. 고려인들의 부족한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콜호즈에서 재배한 야채들을 파는 임시 시장을 열기도 했다.

어디에 있던 어느 시대이던 한민족의 특징 중의 하나인 교육열은 강제이

주 이후 고려인 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비록 '특수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늦게 학교를 열었지만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학교를 운영했다. 학생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자신들의 부모와 형제들이 있는 콜호즈에서 지식을 바탕으로 삶을 개척해 갔다.

고려극장은 강제이주당한 고려인들이 정착한 콜호즈를 순회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무하고 이주의 아픔을 달래고,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춘향전'을 중심으로 고려인들에게 친숙한 공연들을 올리고 노래를 같이 불렀다. 물론 공연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았지만 그것 또한 고려인들의 삶이자 생각이었다.

카자흐스탄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이해해 가면서 살아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몸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씨름을 비롯한 운동경기 개최와 각종 경연대회는 고려인들과 카자흐인들이 융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고려인들은 운동대회와 경연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려, 카자흐인들에게 자랑하고 고려인 스스로 보듬어 안았다.

물론 《레닌기치》의 자료가 고려인들의 역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조명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조선말로 발행하는 당 기관지이기 때문에 소비에트 당국의 선전과 선동의 도구임은 분명하다. 18만여 명의 고려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의 역사를 남겨준 강제이주에 대해서는 당시에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이 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벗어나면 그 기사 속에서도 고려인들의 삶의 모습은 있었다.

소련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중앙아시아 고려인 콜호즈들의 역할 (1937~1991)

명 드미트리

1. 들어가는 말

국가 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주민들을 정착시키고 그들을 조속히 생산 활동에 편입시키는 일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컸다. 이주 고려인들의 중앙아시아 정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탄압당한 여러 민족 중의 하나였지만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고려인들은 결국 살아남았고 견재하고 있다. 바로 험난했던 1937년을 기점으로 고려인들은 미래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오늘날 고려인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자신들의 삶과 투쟁은 마르크스주의의 유토피아라는 기치 아래 거짓과 허상 속에 지나왔음을 알 수 있다. 국가, 사회, 정치구조에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개인의 의식과 정신 속에 권위주의가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여기에 고려인들의 불행과 시련, 빈곤과 상호 분노, 고립된 원을 따라 도는 역사적인 방향의 근원이 있다. 권력과 사회·정치기

구의 유형은 변했지만, 사람들의 상황은 변함없이 그대로이다.

인간은 늘 죄를 지어왔다. 그게 조직적이었던 자연발생적이었던 말이다. 그러나 스탈린주의처럼 자민족을 상대로 저지른 엄청난 범죄는 없었다.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한 것으로 위장되었으나, 실상은 인간 경시가 저변에 깔려 있다. 테러는 곧 미래를 담보로 인간의 물질을 변화시킨다.

스탈린주의는 사회적 광기 체제이다. 즉 뛰어난 고려인 지식인들을 처형하였고, 민족정신유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였다. 최종적으로, 소련 전역의 노동군대와 강제노동수용소에서 형제의 무덤을 파헤쳤던 기독교도들의 무덤과 같았다. 역사를 난도질하고 왜곡하며 날조하고 숨기고 고쳐 쓸 수는 있어도 결코 기만해서는 안 된다. 고려인 디아스포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의 역사에서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가 있으나, 진실을 알려야 한다. 바로 여기에 한국학 학자들의 존재 목적이 있다.

어떻게 되었든 어디에 있던 소비에트 고려인들은 파시스트 적들에 대한 승리의 기치 아래 헌신적으로 일하며 자신의 노력으로 빛나는 승리를 쟁취했다. 그들은 군자금으로 수백만 루블을 기부했다. 승리가 가까워 졌을 때, 그들은 전쟁만 끝나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치욕적 구속도 사라지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 희망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 소련 국민 특별법에 따라 모든 이주민들과 특별 이주민들은 이주지에 영구히 남아야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금지 되었으며, 무단으로 정착을 포기하면 최고 20년이라는 기나긴 징역에 처해졌다. 1953년 전인민의 수령인 스탈린이 죽고, 1956년 제20차 소련공산당대회가 있는 후에야 몇몇 법적 제한이 폐지되었고 특별등록제가 해제되었다.

고려인이라 하면 주변사람들은 종종 농경민족을 떠올리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 분야의 농사에, 예를 들어 쌀농사, 인피섬유농사, 참외농사 등 농업에 소질이 있음은 오늘날까지도 잘 알려져 있다. 그

것은 생존을 위한 힘들고 지난한 투쟁이었다. 바로 이 투쟁에서 고려인들의 장점이 드러났다. 극한의 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재능을 닦은 땅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에 쏟아 부었다. 황량한 늪지에 잘 정비된 마을과 꽃이 핀 정원, 쌀 농장과 밀 농장을 조성한 그들의 기념비적 성과의 우수성에 당국은 경의를 표했다. 소비에트 시기(1948년부터 1991년까지)에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135명과 카자흐스탄 고려인 67명에게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가 수여되었으며, 수천 명에게는 훈장과 메달이 증정되었다. 우즈베키스탄 ‘폴랴르나야 즈베즈다’ 콜호즈 회장 김병화는 두 차례나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받았다.

그것은 대중들의 노동영웅 훈장에 대한 자극과 신호탄이 되기도 했다. 고려인 콜호즈들은 놀랄 만큼 단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했다. 쌀농사, 밀농사, 인피섬유작물 농사, 채소농사, 축산 분야에서 진정한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1941년 우즈베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농업인민위원회(농업부)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수로 시설이 상대적으로 잘 조성된 타슈켄트 주 고려인 특별 콜호즈들에는 농사일들이 기본적으로 기계화되어 있어, 파종은 이른 시기에 이루어지며, 거름을 주고, 2~3회 제초작업을 하는데, 벼 수확량이 평균 1.5~2배를 상회한다.”¹⁾ 바로 농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이 농장들이 많은 인력 및 물자가 투입될 필요가 있는 하천부근에 건설이 되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고려인들이 새로운 경작지에 단순히 적응하는 차원을 넘어서 수년 만에 수확량을 10배 이상 증가시키는데 성공한 인피섬유작물 농사의 성과는 더욱 놀랍다. 1920~30년대 우즈베키스탄 내 황마 수확량은 헥타르 당 10~15 켄트네르²⁾였다. 50년대 초반 고려인 콜호즈들은 사실상 황마 생산을 독점하다시피

1) 김 Б.И. Корейцы Узбекистана : кто есть кто. Справочное издание. - Ташкент : 1994. - С. 157.

2) 1 켄트네르(Центнер)=100kg.

했고, 70~80센트네르의 수확능력을 달성했으나 이것도 이내 2~3배의 기록을 달성하며 넘어섰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농민들의 노동 실적을 예로 들어보자. ‘아방가르드’ 콜호즈는 재배량을 늘리면서 수준 높고 안정된 수확을 달성했다. 전쟁 중이던 어려운 시절에도 이곳의 수확 증대는 멈추지 않았으며 특히 주 재배 품종인 벼농사가 그랬다. 1943년 콜호즈는 계획을 초과하여 6,000푸드가 넘는 곡물을 판매하였다. 많은 지역에서, 특히 1942년도 쌀 수확량의 세계 기록(헥타르 당 150센트네르 이상)을 달성한 바 있는 유명한 김만삼은 매우 높은 수확량을 기록했다.³⁾

이러한 매우 뛰어난 성과들 덕분에 많은 고려인 콜호즈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입지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족한 삶을 도모할 수 있었다.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분야에도 급격한 발전들이 나타났다.

2.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콜호즈의 발전

1937년 8월 21일자 당과 정부 지시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놀랄 만큼 짧은 기간 안에 “이주민들을 새로운 장소에 생산적으로 적응하도록” 보장해야 했다. 과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과거의 스탈린식 집단화로 인해 무력해진 우즈베키스탄은 1937년부터 1938년 사이 추운 겨울 직전에 자신들에게 배분된 이주 장소로 도착한 수만 고려인 가구를 배치해야하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았다.⁴⁾

³⁾ Kim Сын Хва, Очерк по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Алма-Ата : 1965.- С. 234~235.

⁴⁾ Ли У Хе, Kim Ен Ун, Белая книга. О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в 30-40 годах. Книга первая.- М. : 1992.- С. 65~66.

소련 정부의 결정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달되었다. 이 조치는 군사전략적 성향을 지녔으며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한 대규모 조치에 따라 사전 준비도 없이 엄청난 수의 이주민들을 받아들여야 했다. 공화국은 6천 가구(30,000명)를 수용해야 했으며, 10월에는 5천 가구(22,000~25,000명)가 추가로 수용되었다.⁵⁾

이 결정은 우즈베키스탄에 어려움을 양산했다. 그러한 규모의 이주민을 물적·기술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1930년대 중반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사회적·경제적 발전 정도는 국내 하위권 공화국 중 하나로, 공화국은 이주민들은 물론이고 자국민에게도 사회·경제·주거생활 여건을 정상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건축자재와 식료품이 다른 공화국으로부터 공급되지 않아 가옥과 식량이 부족했고, 병원과 의사, 의약품이 전무했으며, 말라리아가 창궐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배치와 급식, 가옥과 일자리 보장에 대한 모스크바의 결정을 수행해야 했다. 국가 지도부는 1937년 9월 16일 <고려인 가구 이주에 대한> 결정을 받아들였고, 이주민의 수용과 배치를 위한 공화국 비상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 문서에는 생활에 중요한 조치들이 규정되어 있어, 그것의 즉각 시행은 고려인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단지 그것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상기 문서 일부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주민을 위한 가옥 건립 완료 전까지 지역의 기존 시설에 배치하되 부족할 경우 가옥 설비에 즉각 착수하고, 보건인민위원회는 조속히 구호소들을 조직하며, 의료진과 의약품을 보장하고, 70개 침상을 갖춘 규격화된 병원의 예산을 포함한 기획안을 2주 내에 제출한다. 교육인민위원회는 교과 과정을 준비한다. 이주민들에게 농작물 등을 재배할 경지를 보장한다.”⁶⁾

⁵⁾ Централь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ЦГА РУ). Ф. Р837. Оп. 1. Д. 587. Л. 12.

물론 본 결정은 이주 고려인들의 수용과 배치에 필요한 모든 사업들을 철저히 규정했다. 결정의 모든 조항이 시행되었다면 강제 이주자들은 겪어야 했던 그 불행들로부터 구제되었을 것이었다. 하지만 객관적인 이유에서든, 주관적인 이유에서든 본 결정의 시행은 현실성이 없었다.

1937년 9월~10월 동안 공화국 내에서는 고려인 이주민들의 수용을 위한 준비 사업이 투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인민위원 소비에트는 9월 26일 특별회람을 통해 이주민들이 도착할 예정인 역의 역장들과 교신하고, 수송열차의 도착일자와 시간을 확인하며, 교통편을 마련하고, 식료품 판매를 시작할 것을 전체 구역집행위원회에 지시했다. 이를 위해 지역 대표자들은 이주민 수송에 필요한 교통편 현황을 보고했다. 700가구를 위한 가옥을 마련했고, 식료품을 비축했으며,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숙련된 일꾼들이 고용되었다. 이주민 수송을 위해 호레즘 주에서만 차량과 짐마차를 포함하여 530명이 동원되었다.⁷⁾

대부분이 시르다리아 강을 따라 위치한 갈대숲과 하안 산림으로 된 미개척지에 이주민들을 이산시켜야 하므로 막대한 관개시설 건설 사업이 예정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37년 10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조성되는 고려인 콜호즈들을 위해 토지개량 도량형 체계를 만들었다. 그 당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주택 건설에 950,000루블을 할당하였다.

1937년 9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스투드네치르치크 구역 2,562평방미터 부지에 유르타(유목민 천막집) 625채와 움막집 134채를 건설하였고 2,655평방미터 규모를 다양한 주거용 건물 46채로 개조하였으며, 공공경제인민위원

6) См. : Ким П.Г. Корецы Узбекистана :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 Ташкент : Узбекистан, 1993. - С. 17~19.

7) РА ИПСИ ЦС НДПУ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й архив Института политических и социаль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Центрального Совета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Узбекистана) Ф.58.Оп. 12. Д. 15. Л. 102.

부는 같은 목적으로 최소 875,000루블을 지출했다.

그러나 각별한 중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본 결정의 시행은 무수한 이유들로 인해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다. 건설 관련 서류와 자재의 부재가 노동력 등의 부족에 반영되었다. 그 결과 이주민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마련된 택지는 2,500 이하의 가구에 지나지 않았다. 사정이 더 심각해 진 것은 소련 정부가 6천 가구 외에 5천 가구 22,000~25,000명을 추가로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⁸⁾

이 결정은 공화국을 극히 힘든 상황에 처하게 했는데, 이는 공화국이 이미 소련 정부가 최초로 정해진 수용과 배치에 인력과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버렸기 때문이었다. 청산된 벼 재배 습호즈 부지와 이미 건설된 고려인 콜호즈들로 5천 가구를 추가 배치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주민 수용을 위한 전 준비과정에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말해 둘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제 막 이주민 수용 준비사업을 시작했는데, 나라의 반대편 끝자락 극동에서는 낯선 지역으로 고려인들을 보내기 위해 신속하게 수송열차에 싣고 있었다.

주로 벼농사와 어로인 기본적인 생산 활동의 특성에 맞는 유희지를 가진 지역의 콜호즈들 밑에 경제 기지를 전략적으로 둘 수 있는 곳에 그들을 배치했다. 국경 지역으로부터 되도록 멀리 떨어지게 하라는 소련 정부의 지시도 감안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총 74,500명으로 구성된 16,307가구를 수용했다. 그들 모두가 가옥과 음식과 일자리를 찾고, 새로운 곳에 적응하도록 도와야 했다.⁹⁾ 상당수 이주민들은 자신들을 위해 특별히 건립된 콜호즈에 1938년 봄까지 정착했고, 나머지는 기존의 우즈베크 콜호즈들로 이주하였다.

⁸⁾ ЦГА РУ (Центрадь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Ф. Р-837. Оп.32. Д.587. Л.12.

⁹⁾ См. : Ким П.Г. Кореяцы Узбекистана :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Ташкент : Узбекистан, 1993.- С. 35.

어업 콜호즈의 운명은 험겨웠다. 고려인 어업 콜호즈(700가구) 11곳이 카라칼파키야로 이주했는데 물적·기술적 기반이 없어 어로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지방관청들과의 오랜 협의 끝에 이전의 고려인 극동 어업 콜호즈들은 1938년 4월 타슈켄트 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콜호즈의 조직화된 배치는 동시에 고려인들을 곤경에 빠트렸다. 목화 단일재배 투쟁은 30년대 말까지 공화국 내 모든 양질의 토지를 목화재배에 활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고려인 콜호즈들은 벼를 재배할 작정이었다. 그들이 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목화에 적합하지 않은 땅을 분여 받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땅은 주로 늪지와 같은 미개척지와 갈대숲이었으므로 경작을 위해 일정한 노력과 재원을 필요로 했다.

힘겨운 생활 여건과 질병은 적지 않은 생명을 앗아 갔다. 초반 2년 동안 고려인들 사이에서 사망률이 특히 높았다. 출생률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 인구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려인들의 출생률과 사망률 사이에 역전현상은 1939년 말이 되어서야 변하기 시작했다.

간선 운하가 건설되고, 콜호즈 내 관개용 수로망이 개조되었으며, 가옥 건립을 위한 늪지의 배수 작업을 시행하는 등 막대한 사업이 완수되었다. 벼 재배 고려인 콜호즈들은 배수관 건설을 위해 기존 관개용수로 시스템의 청소 및 공사를 차례로 진행했다.

1938년도 전체 파종지 10,488헥타르가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조성되었다. 고려인 콜호즈를 위한 1938년도 관개사업 시행에 관한 모든 대책에 연방 예산에서 2,000,000루블과 공화국 예산에서 260,000루블이 할당되었다. 또한 텃밭 포함 총 30,448헥타르가 고려인 콜호즈에 분여되었으며, 그 중 29,879헥타르는 새로 조직된 독립 고려인 콜호즈에 분여되었다.

1938년도 파종 계획을 분석해보면, 고려인들이 연해주에서 주로 파종했던 쌀, 콩, 밀, 옥수수과 수수 등의 전통적 농작물들을 재배할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벼 재배에 있어 고려인 콜호즈들에는 우선권이 주어졌다. 모

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곡물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고려인 콜호즈들은 종자를 보장받았다.

가장 힘든 일은 파종할 땅을 개간하는 것이었다. 콜호즈들은 기계도 없이 이 일을 시작했다. 헌신적으로 일을 했으며 노동만이 기아로부터 그들을 구할 것임을 알았다. 결국 토지사업 할당량의 400~700%를 수행했다.

고려인들에게는 특히 여름철이 힘들었는데 그런 무더위가 익숙지 않아서였다. 물을 댄 논은 수온은 35~40도까지 올라갔고, 제초는 3~4회 실시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했고, 곡물 파종용 경지에 곧바로 농경을 진행했다.

배치문제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1938년도 봄 파종작업을 시행했고, 파종 계획은 전면적으로 달성되었다. 헥타르 당 평균 20~40센트네르라는 상당히 높은 수확고를 보여준 추수 또한 성공리에 완료되었다. <폴라르나야 즈베즈다> 콜호즈 개별 작업반들의 경우, 수확량을 헥타르 당 평균 60~70센트네르까지 달성했다.

1939년에는 주로 처녀지를 개간하여 벼 파종지를 1.5배 확장하였다. 실시된 파종 및 수확 작업이 높은 성과를 가져다주었다. 예를 들어, 타슈켄트 주의 쌀 수확량은 1938년도의 헥타르 당 20.8센트네르 대비, 1939년도에는 29센트네르까지 증가하였으며 1941년에는 이미 31.1센트네르에 달했다.

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낸 곳은 레닌 콜호즈로 300헥타르 면적에 39.5센트네르의 수확고를 달성했으며 콜호즈원들은 노력일당으로 쌀 15.5kg을 받았다. <세베르니 마야크> 콜호즈에서는 금전적 보수를 제외하고도 헥타르 당 37.5센트네르의 수확고를 달성하고 노력일당으로 17.4kg의 쌀을 받았다.

농사기술의 발전, 새로운 토지의 개간, 고수확성 종자의 재배, 노동기관의 개선은 1940년 콜호즈들로 하여금 510,634센트네르의 쌀을 마련하게 해주었는데, 이는 1939년과 비교해 176,692센트네르가 증가한 것이다. 고려인 이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생산 작물은 목화 재배였다. 이 시기부터 고려인들은 목

화 재배 기술을 익히기 시작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5,820호의 이주 고려인 가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콜호즈 50곳을 새로이 조직하였다. 가옥으로 개조할 만한 건물이 하나도 없었으므로 그들 모두가 맨손으로 시작하였다. 살아남기 위한 투쟁에서 그들은 유사한 악조건에 적용되었던 움막집 건설이라는 입증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 사업은 첫출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고려인들에게는 용구도, 건축자재도, 기계도 없었다. 현지 주민들이 도우러 왔다. 거의 모든 가정이 짓고 있는 움막집 건설에 자신의 용구인 삽, 곡괭이, 후치, 손수레와, 건축자재, 골풀 판지, 가옥 난방용 땔감 등을 기부했다. 자기희생에 가까운 이 지원은 상당수의 고려인들로 하여금 단기간 내에 가옥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어 바깥에서 지내지 않게 해주었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상황에 있던 사람들은 기존 콜호즈에 편입된 사람들이었다. 그런 식으로 콜호즈 206곳에 5,017 이주민 가구가 합류했다.

상당 수 고려인 가구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 가구의 상당수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자는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자발적으로 고려인 가구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고려인 가구에게 자신의 가옥을 내주고 정작 자신들은 임시로 머물기 위해 친척집으로 옮겨갔다.

현지 주민이 경계심을 갖고 이주민들을 맞은 경우도 있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정부 당국은 이주민들이 사상적으로 믿기 힘들며 심지어 일본 스파이와 관련 있다는 것을 알리려 백방으로 노력했다. 이런 모든 도덕적·심리적으론 힘든 상황 속에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과 공화국의 기타 민족들은 고려인들에 대한 자제력과 관대함을 보여주었다. 아랍인, 몽골인, 제정의 독재 정치기들에 의한 냉혹한 시험과 굴욕, 억압을 견뎌낸 민족의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로 비난받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었다. 그들은 탁월한 인도주의를 발휘하고, 모든 분야에서 응분의 원조를 실시

하면서, 넓은 이해심과 동정심을 가지고 고려인들을 수용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온 이주 고려인들이 토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착민의 삶을 혼란스럽게 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주민들의 정착은 공화국 토착민의 사회경제, 일상생활, 문화생활 및 기타 영역에서의 희생을 담보로 이루어졌다.

시간이 흘러 1939년 말 무렵, 엄청난 고통과 인명 손실이 있는 후에야 이주 고려인들은 형제와 같은 민족들과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원, 그리고 자신의 뛰어난 근면함 덕분에 어느덧 자신의 고향이 된 새로운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고려인들은 1938년에서 1940년 사이에 확연히 공고해져서 기초 생산 자본이 2~3배 증가하였고, 이익금은 4~5배 증가하였으며, 총 쌀 수확량은 2.5배 증가하였다. 콜호즈들은 부유해지고 생산 부문은 다양해졌다.

1941년 무렵, 우즈베키스탄은 소련에서 최고의 쌀 재배지역이 되었으며 이는 대조국전쟁 때 공화국 주민들과 나라 전체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여기에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이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모든 여느 국민들처럼 그들 역시 1941년 6월 그들에게 닥친 어려운 시련들을 견뎌야만 했다.

우즈베크인들의 옛 땅에서 힘들게 산지 4년이 지나고, 고려인들에게는 새로운 시련의 시간이 찾아왔다. 파시스트와의 대조국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고려인 콜호즈들이 생산에 집중할 시기에 전쟁이 발발했다. 콜호즈들 중 상당수가 트랙터, 콤파인, 자동차, 축력기 등 기계를 장만했다.

공화국의 모든 민족들처럼 고려인들은 국민 경제를 군대 방식으로 재건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고려인들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전선으로 동원하지 않고 노동전선의 노동군으로 남성들을 보냈다. 벌목장, 광산, 도로 및 도시 건설 현장에서 그들이 얼마나 일했으며, 또 얼마나 죽어갔는지 학자들은 오늘날까지 연구하고 있다. 노동 전선의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인권도 박탈당했다. 그들은 휴식이나 여가활동, 가족과 연락할 자격도 없는 수감자처럼 수용되었다. 어림잡아 수만 명이 사망했다.

전쟁 시기에 고려인 콜호스원들은 수력발전소와 제철소의 건설현장 및 질소비료 단지와 기타 국가의 주요 건설 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때부터 이들은 다민족 노동자 계급 대열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우즈베키스탄으로의 고려인들의 강제이주는 농업생산 특히 목화재배에 필요한 노동력 제공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전쟁 상황에서 노동자의 일손, 기계, 비료가 부족할 때 고려인 콜호스 〈폴랴르냐야 즈베즈다〉, 〈세베르니 마야크〉, 〈노비 푸티〉, 〈디미트로프〉 등은 높은 노동생산성의 본보기가 되었다. 전쟁 중에도 연 평균 쌀 수확량이 헥타르 당 50~60센트네르까지 증대하였고, 개별 콜호스들의 경우 70~80센트네르까지 증가하였다. 4년의 전쟁 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기타 공화국들로부터 곡물 조달을 받지 않고 자체 생산한 곡물로 식량 수요를 충족시켰다. 여기에 고려인 농촌 노동자들의 업적이 상당 부분 차지하며, 주된 쌀 공급원이었던 고려인 콜호스들이 달성한 농업 생산의 성공이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조속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선을 돕고자 콜호스 근로자들이 주도하여 ‘방위성금회’를 조직하고, 군사장비 건설을 위한 모금을 하며, 군대용 보온물품을 모으고, 국채 매입을 조직하고, 농산물 재배를 위한 추가 파종을 진행했다. 고려인 콜호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본 성금회에 현금과 채권, 귀금속 등을 기부했다.

고려인들은 방위성금회에 크게 기여했다. 타슈켄트 주 트랙터 기사인 임 파벨은 자신의 개인 예금을 기부했다.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에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비행중대 〈소베츠키 우즈베키스탄〉의 건설을 위해 콜호스원들이 4,316,000루블을 모금하여 국립은행에 입금했으며, 저는 콜호스에서 정직하게 일해서 모은 303,000루블을 개인적으로 기부했습니다. 이 성금이 원수같은 적을 조속하게 섬멸하기 위한 전투기 제작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¹⁰⁾ 〈세베르니 마야크〉 콜호스 회장 최 세르게이는 항공기 제작에 1,000,000루블

을 기부했다. 고려인들은 전선을 지원하는 성금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쟁 국채를 매입했다. 이러한 애국자들은 끝도 없이 계속해서 거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는 수백 가지를 들 수 있다.

공화국 고려인들은 따뜻한 옷과 선물을 모으기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담요, 솜옷, 장갑, 양말을 기워 만들지 않는 가정이 없었다. 등불 옆에서 바느질을 하며 지나간 겨울밤을 보냈다. 전선용 보온물품 수집운동에서 고려인 콜호즈들의 참여에 관한 니즈네치르치크 구역위원회 비서의 보고에 따르면 “모든 콜호즈와 기관이 보온물품 수집을 실시하는데 다른 곳들보다 부덴노보 고려인 콜호즈가 가장 잘 조직했다”고 한다.¹⁰⁾

전쟁동안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은 개인예금과 국채에서 4,226,000,000루블을 방위성금회에 기탁했다. 전국의 고려인들로부터 본 성금회로 수백억 루블이 답지했다. 이 자금으로 탱크와 비행기를 제작했다. 탱크중대와 비행중대를 〈소베츠키 우즈베키스탄〉, 〈드뱃차티흐 레트 우즈베키스탄나〉, 〈콜호즈니크 우즈베키스탄나〉라고 불렀다. 이와 같은 모든 전투 장비에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의 노고의 일부가 들어 있다.

전쟁은 소비에트 민족 모두에게 혹독한 시련이었지만 고려인들에게는 특히 더 그랬다. 승전모금회 창립 사업의 결정과 관련된 대책에 고려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들은 자신이 소련 민족의 뗄 수 없는 일부분이라 여겼다. 이곳에 살면서 패망으로부터 새로운 조국을 옹호하고 구원했던 소비에트 고려인들은 우즈베크인, 러시아인, 기타 형제와 같은 민족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승리를 위한 자신의 애국 의무를 수행하였다.

고려인 콜호즈도 자신들의 구체적인 과제를 5개년 계획에 관한 법에 준해 정했다. 전쟁 이전과 전쟁 중에는 고려인들에게 주로 쌀을 생산하는 과제가 주어졌다면, 전쟁이 끝난 후에는 주로 목화와 기타 산업 작물 생산이 과제로

10) РАИПСИ ЦС НДПУ. Ф. 1. Оп. 2. Д. 1109. Л. 24.

11) РАИПСИ ЦС НДПУ. Ф.1. Оп. 2. Д. 916. Л. 72.

주어졌다.

파시즘에 대한 승리와 더불어, 온 나라가 다 그랬던 것처럼 고려인 콜호즈도 힘을 얻기 시작했고, 노동군으로 참가한 사람들도 돌아왔다. 국가가 자금, 기계, 비료, 가축을 할당했고,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자질을 갖춘 요원을 양성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소비에트 시기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콜호즈들의 성과와 공로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겠다.

1) 〈플랴르나야 즈베즈다〉 콜호즈 (1974년 이후에는 ‘김병화’ 콜호즈로 개칭)

1940년부터 1974년까지 이 콜호즈의 회장은 두 차례 사회주의 노동영웅이 된 김병화이며, 그의 이름은 향후 30년이 넘는 콜호즈의 역사와도 연관이 있다. 낙후된 콜호즈를 선도적 콜호즈로 이끌었다. 이 콜호즈는 면화, 쌀, 기타 작물 수확에 있어 거대한 약진을 이루었으며, 그 결과 공화국 내 제1의 집단 농장 중 하나가 되었다. 국가에서는 콜호즈원들의 탁월한 공로를 공과에 따라 평가하여, 〈플랴르나야 즈베즈다〉 콜호즈 26명의 일꾼들이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콜호즈원 수백 명이 훈장과 메달을 받았다. 소비에트 농업 역사상 그런 전례는 없었다.

콜호즈의 상당한 경제적 성과는 주민들의 복지, 생활, 문화를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고, 현대적인 문화센터, 교육기관, 의료, 아동복지 및 주거시설을 건립하게 해 주었다. 인민 고려극장과 국립극단은 지금도 공화국 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모국어인 한국어 학습 사업도 잘 보급되어 학교를 기반으로 한국어 교육 문제에 관한 공화국 토론회와 학술회의들이 개최되고 있다.¹²⁾

¹²⁾ См. : Ким Б.И. Корейцы Узбекистана : кто есть кто. Справочное издание.- Ташкент : 1994.- С. 56.

2) 〈폴리트웃젤〉 콜호즈

사회주의 노동영웅이었던 황만금(1921~1997년)이 1953년부터 이 콜호즈의 회장을 지냈다. 그의 지도하에 〈폴리트웃젤〉은 수년 만에 저성장의 미력한 콜호즈로부터 소비에트 우즈베키스탄에서 선도적이고 채산성 높은 농장 중 하나로 변신했다. 황만금의 혁신적 활동과 착수사업은 시간을 앞서가 콜호즈는 10년 동안 과학기술 혁신의 선봉에서 있었고, 콜호즈원들의 복지 후생과 문화, 교육, 보건, 스포츠의 발전 수준은 소련의 평균을 상당히 웃돌았다.

황만금의 이름은 인피섬유업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 콜호즈 내에 농산물과 가축의 우량종을 생산하는 종자연구소와 선종시협소가 있었다. 콜호즈의 인피섬유 재배농들은 6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다. 황마를 타슈켄트 주 토양에 길들이는 농학적 처치 방법을 개발하였다. 황마 줄기 및 종자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확고인 헥타르 당 150~200센트네르를 바로 〈폴리트웃젤〉 콜호즈가 달성했다. 콜호즈는 소비에트 시절 쌀농사, 면화농사, 축산업의 발전에 탁월한 성공을 거두었다.

황만금은 소련에서 공훈을 인정받았다. 우즈베키스탄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공화국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 우즈베키스탄 최고 소비에트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소련 공산당과 우즈베키스탄 공산당 대회에도 참석했다.¹³⁾

축산업은 사료재배의 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콜호즈는 이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며, 결과는 즉각 반영되었다. 콜호즈는 60~70년대 사료용과 곡물용 옥수수의 수확고가 가장 높았다. 여기에 〈폴리트웃젤〉 콜호즈의 사회주의 노동영웅인 이 류보피 분조장의 공이 컸는데, 옥수수 재배의 수확고를 상당한 수준으로 높여 오늘날에도 공화국 뿐 아니라 주변국에서 채종

¹³⁾ Ким Б.И. Корейцы Узбекистана : кто есть кто. Справочное издание.- Ташкент.

재배업의 토대가 되고 있다.

1961년 소련 전역에 이 류보피의 노동성과에 대한 명성이 퍼져 모든 중앙지 및 공화국 신문에 그녀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70헥타르 면적인 그녀의 분조에서 옥수수 사료 1,967켄트네르를 수확했는데 이는 43,000사료 단위와 430켄트네르의 귀리, 100켄트네르 가량의 곡물에 해당되는 양으로, 옥수수 1헥타르로 36톤의 우유 혹은 1,600kg의 버터를 제공할 수 있다. <폴리트웃젤> 콜호즈를 토대로 옥수수 재배의 선구적 경험을 연구하는 다양한 토론회와 학술회의가 조직되었다.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서기장 흐루쇼프는 1961년 10월 14일자 환영사에서 이러한 성공에 대해 언급하였다.¹⁴⁾

콜호즈 산업 전 분야에서의 성공적 발전과 더불어 그 구성원에 대한 물질혜택 또한 개선되었다. 70~80년대 콜호즈의 연소득은 13,000,000~14,000,000루블이었다. 이것은 소련 콜호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였다. 그에 알맞게 콜호즈원들도 가장 높은 임금을 받았다.

<폴리트웃젤> 콜호즈의 주요 업적 중 하나가 사회 문제의 성공적 해결이다. 콜호즈는 생활·문화 및 산업시설에 연간 2,500,000루블을 배정했다. 콜호즈 재원으로 4,000명 규모의 학교 8곳과 1,100석 규모의 문화 궁전, 클럽 4곳, 23,000석 규모의 종합운동장 2곳, 120개 침상의 입원병원, 외래진료소 5곳과 약국, 유치원과 탁아소 10곳을 건립했다. 4~6개의 방이 딸린 아파트를 지어주고, 콜호즈원들 집 앞까지 아스팔트를 깔아 주었으며, 각 가정마다 전화가 있다. 콜호즈는 <폴리트웃젤>이라는 축구팀과 여성 필드 하키팀, 20명이 넘는 다양한 종목의 운동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폴리트웃젤> 콜호즈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모스크바, 알마아타와 다른 도시에서 온 방문단들로부터 갈채를 받은 콤포몰 수상자인 앙상블 <청춘>과 같은 자신의 창의적 활동 단체를 보유한 것으로 유명하다.

¹⁴⁾ Kim П.Г. Корейцы Узбекистана :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Ташкент : Узбекистон, 1993.- С. 103.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 소련 고려인들은 공식적으로 불신의 낙인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일본 스파이’라는 이 치욕스러운 비난을 16년 동안 달고 다녔다. 벌써 7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고려인들은 공화국의 다른 민족들과 동등해졌다. 이 세월동안 많은 상황이 변했고, 무자비한 탄압도 있었으며, 새로운 곳에서의 정착과 사회주의 건설, 시장경제로의 이행기도 있었다.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고려인들은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든 모든 것을 견뎌 냈으며, 불굴의 의지로 강인하게 헤쳐 나와 형제와 같은 다른 민족들과 함께 시장경제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다.

시장의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려인 콜호즈들도 우즈베키스탄의 다른 모든 집단농장들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공화국이 독립한 지 20년이 지났고, 국가는 예전의 사업 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이 조만간 경제 강국들 사이에서 응당한 위치를 점할 것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3. 카자흐스탄의 경제 발전에서 고려인 콜호즈의 역할

1937년 9월 말, 이주 고려인들을 태운 수송열차가 카자흐스탄의 지정된 지점과 임시 이주 지점에 도착하게 되었다. 움막집과 클럽, 헛간, 곡물창고 등에 그들을 배치하였다. 잘라가시 역에서는 농업전문학교의 짐을 내렸고, 카잘린스크에서는 사범전문학교의 짐을 내렸다. 어부들은 생선가공공장 구내에 배치되었다. 사범대학, 라디오 스튜디오, 〈아방가르드〉 신문 편집국은 크질오르다에 배치되었다.

배치와 적응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고통스러웠다. 주된 이유의 첫째는 극동과 카자흐스탄 간의 기후 조건 차이였으며, 둘째는 연방 예산에서 충분한

재정 및 건축자재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수와 착오, 흔히 지도부의 직접적인 위반과 횡령으로 인해 독립 콜호즈는 물론이고 추가 이주 콜호즈의 고려인 가구 대부분이 물적 자산, 가옥, 식료품을 보장받지 못했다. 기본적인 생활여건도 충족되지 못했다. 여기에서 모든 정치적 권리로부터 외면당하고 천대받은 고려인들의 심리상태도 추가해야 한다. 이동의 자유권을 제한하면서 정해진 지역에서만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신분증에 찍혀 있다.

많은 다른 이주민들과 달리 정부는 고려인들에게 상당한 물질적 금전적 비용을 할당했다. 물론 어떤 지원은 이주민들에게 바로 전달되었고, 어떤 (대부분) 지원은 계획된 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도 있다. 물질적, 재정적 지원이 있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각 가정에 개별 가옥을 제공하고, 콜호즈들의 생활 지원과 경제적 정착을 위해 최소 규모의 공공시설물 단지를 건설해 주었다.

1938년 7월 1일, 알마아타 주 고려인 콜호즈들에 대해 4,448,000루블 규모의 신용 대부가 개설되었는데 그중 상환 대부가 1,605,700루블이고, 미상환 대부가 2,842,300루블이다. 건축비를 포함하여 가구당 4,042루블을 지출하게 되며, 그 중 유상 대부는 2,518루블이고 무상 대부는 1,524루블이다.¹⁵⁾

어려운 자금 상황을 감안하여 소련 정부는 고려인들에게 무상 원조수당을 한 차례 더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가난한 가정들에 대한 물적 지원에 자금이 전달되었다. 그 밖에도 개인 가옥의 건설 및 수리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 및 사무원 가구에 대한 신용대부 지급을 정부가 허용하였다. 정부는 2년간 현물로 갚는 조건으로 각 가정에 식량 3첸트네르 씩을 지원하였다. 1939년 10월 1일 이주민들 사이에 식량대부가 전액 지급되었다.

¹⁵⁾ Ан Р.К.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корейцев в Семиречье (1937-2003 гг. Исторический аспект).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Алматы : 2004.- С. 37.

1938년 5월 25일 <고려인촌락 건설을 위한 운송 용구에 관한> 결정 제 506/13호가 수용되었다. 알마아타 주 고려인 콜호즈에 화물차 72대가 배정되었는데, 상당수의 고려인 가구가 추가 이주한 콜호즈들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되었다. 고려인 지원에 관한 그런 지시들은 강제 이주 이후 상당부분 시행되었다. 하지만 제대로 사용할 능력이 없어 응당한 효과를 얻지 못했다. 위수단들은 종종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았으며, 금전과 물적 재원을 약탈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고려인 이주민들은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1939년에 고려인 콜호즈들은 조사를 받았으며 상당수 콜호즈의 가옥 건조 상태가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옥들에 대해 유지 및 복구 보수가 반드시 필요했다. 수원 공급 역시 불충분해 식수가 모자랐고, 샘터 탐사작업이 많이 지연되었으며, 수질 또한 만족스럽지 못했다.

의료구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들이 자주 홍역과 성홍열에 걸렸고,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채소와 과일 같은 식품이 없어 괴혈병, 출혈성 대장염, 디프테리아가 유행했다.

인민교육과들은 제때에 학습년도에 대비하지 못해, 학교는 거주지로부터 2~3km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스푸호즈로부터 수용됐거나 임시 학교로 개조된 건물, 가건물 혹은 개조된 가옥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교실이 부족해 아이들은 3부제로 수업을 했다. 교사문제는 더 심각했다. 교사진이 구성되지 않거나 충원되지 않았다. 유치원 건립에 대해서는 이야기조차 없었다.

‘특별이주민’ 지위는 없었지만 이동에 제한을 받는 고려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애매했다. 구역을 벗어나려면 내무인민위원회(내무부) 해당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고려인들은 공식적인 차별대우를 받았다. 고려인 남성들은 징집 대상이 아니었다. 고려인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강제 이주가 있기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 이주기와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

다. 탄압 과정 중에 인텔리겐치아, 당 지도자 및 장교들이 ‘일본 스파이에 대한 투쟁’ 명목으로 거의 전멸되었다. 수천 명의 고려인학자들과 당 일꾼이 총살당하거나 감옥에서 사망했다. 체포되면 모든 가족들에게 낙인이 찍혀 직장에서 해고되고, 아이들은 교육기관에서 퇴학당했으며, 공산청년동맹에서 제명되었다.

대조국전쟁기에 고려인들은 비하와 모욕의 감정을 억누르고 승리에 공헌하기 위해 모든 소련 인민들과 함께 일어섰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콜호즈들이 승리의 날을 앞당겼고, 새로운 땅을 길들였으며, 파종면적을 확장했다. 크질오르다 주 치일린스크 구역 〈아방가르드〉 콜호즈에서는 4년간의 전쟁 동안 731헥타르의 미개간지를 개척했다.

그들은 당당히 공화국 고려인 주민 100,000명을 대표했다. 거기에는 훈장과 메달을 수여한 생산 선도자들이 우선 포함되어 있었다. 1948년 3월 28일자 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 명령으로 탈디쿠르간 주 고려인들에게 사회주의 노동영웅의 고귀한 칭호가 부여되었다. 상당수가 훈장과 메달을 받았다고 기록되었다. 극동으로부터 강제 이주를 당한지 10년 후의 일이었다.

1949년 5월 21일 크질오르다 주에서 훈장과 메달을 수여한 92명 중 52명이 고려인이었으며 그 중 16명은 레닌훈장, 20명은 노동적기훈장, 14명은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받았다.¹⁶⁾

〈아방가르드〉 콜호즈를 예로 들면, 사회주의 노동영웅 김홍빈의 지도하에 전쟁의 힘든 시기에도 쌀 수확 증가세가 멈추지 않았다. 1943년 콜호즈는 계획을 초과하여 6,000푸드의 곡물을 판매했다. 공화국에서 유명한 쌀 생산자인 김만삼은 특히 탁월한 가을걷이를 했는데 1942년에 헥타르당 157센트네르의 쌀을 수확하면서 세계 기록을 수립했다. 그의 지도하에 콜호즈에서 쌀

¹⁶⁾ См. : Мен Д.В., Квон Л.А., Ким З.В., Пан Н.Г.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Алма-Ата : Казахстана, 1992.- С. 11~43.

수확량의 지속적 증대를 위한 시험을 진행하고 새로운 방식을 모색했다.

소비에트 정부는 김만삼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기록적인 쌀 수확을 보장해준 선진적 방식의 농업기술 도입으로 1946년 그에게 사회주의 노동영웅의 숭고한 칭호가 부여되었다.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부여받은 안도주, 김익세, 김창정, 김한규, 라병설, 이용근, 장금철, 최춘제, 황찬일, 허세운 등과, 두 번이나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부여받은 김만삼의 제자 이브라이 조하예프 등, 〈아방가르드〉 콜호즈에서는 완전한 쌀 생산전문 집단이 육성되었다.

전쟁 중에 콜호즈 〈불세비키〉, 〈트레치 인테르나치오날〉, 〈기간트〉, 〈칸톤스카야 코무나〉의 농사일꾼들이 노동영웅의 훌륭한 본모기를 보여주었는데, 여기에서도 수십 명의 사회주의 노동영웅들이 성장하고 있었다. 전쟁 기간 동안 대중적인 휴일노동을 조직하고, 국가에 방위성금을 납부하며, 항공기, 탱크, 장갑열차의 제작에 필요한 재원을 징수하고, 출정한 군인들을 위해 선물을 마련하고, 소비에트 용사들의 가족을 지원하는 등 도처에서 고려인들의 애국심이 발현되었다. 그들의 노력 영웅주의는 소련 국민들의 심장 속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일궈냈다. 고려인 콜호즈들은 다양한 분야의 대규모 농장이 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농작물 파종 면적이 확대되었고, 축산업과 양잠업 등도 발달했다.

1950년 1월 19일 〈카자흐스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유즈노카자흐스탄주와 잠불 주내 목화재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에 관한〉 소련 각료회의 결정이 나왔다. 목화재식농업으로 남 카자흐스탄 제티사이의 단층지괴 토양에 대한 적응이 시작되었다. 처녀지와 황무지의 개척과 관련된 농업 발전의 새로운 단계는 탈디쿠르간 주 농업생산량의 신장을 가져왔다. 농업생산력의 집중과 집결 필요성은 지속적인 콜호즈 강화와 슝호즈로의 변환을 가져왔다.

콜호즈가 강화된 이후 모든 고려인 콜호즈들의 민족 구성이 바뀌었다. 고려인 콜호즈들은 더 이상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주

로 카자흐 주민으로 구성된 콜호즈들과 합병했기 때문이다. 다민족 콜호즈들에서는 농업분야에 따라 다양한 민족들 간의 조건부의 전문적 분업을 발견할 수 있다. 고려인들은 주로 농작물 재배에 종사했다. 경제의 우선사항은 생산의 질이라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가는 생산 및 총생산량 경쟁을 독려하면서 발전을 위한 비상수단을 계속해서 사용했다.

고려인들, 카자흐스탄인들, 전 소비에트 민족은 이 시기 전국에 폭 넓게 전개된 사회주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상향된 생산 의무를 져고 다른 작업반들과의 경쟁에도 나섰다. 그들은 벼 파종과 사탕무 재배 뿐 아니라, 주내 축산과 과수재배에서도 높은 생산수치를 달성했다. 일정을 앞당겨 정부에 밀 공출 계획을 완수했으며, 계획 이상으로 높이 책정된 농산품 공출 의무도 수용하였다.

1960년대 후반, 고려인들은 더 이상 카자흐스탄 내 쌀 생산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도시화의 가속화 및 사회구조 변화 뿐 아니라 벼농사를 보다 채산성 높은 다른 작물 재배로 방향 전환했기 때문이었다. 고려인들은 채소재배업과 텃밭재배업에 종사하기 시작했다. 양파 재배에서 보여준 선구적 채소재배의 경험은 공화국 밖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¹⁷⁾

60년대 카자흐스탄 공산당은 경작에 부적합한 관개지의 곡물 파종 면적을 확장하고 집약화 함으로써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을 방향으로 잡았다. 이를 목표로 국내에는 대규모 수력기술 공사가 확대되었고, 관개망이 해마다 더 많은 면적의 건조지를 농지로 만들었다. 1965년 5월 소련공산당의 결정에 따라 관개지를 대폭 확대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1967년 알마아타 내 당 기관의 주도로 알마아타 남쪽 일리 강 하류에 위치한 악달라 단층지괴의 부지 개간이 시작되었다. 이 단층지괴는 건조한 스텝

17) Ан Р.К.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корейцев в Скмиречье (1937-2003 гг. Исторический аспект).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Алматы : 2004.- С. 84.

지대에 속하며 독특한 토양 및 수분 조건을 가지고 있다. 농사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다양한 염분지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하지만 태양에 타버린 이 초원을 관통해 흐르고 있는 일리 강은 그들에게 새로운 생활을 향한 부활의 원천이 되었다. 수세기 동안 황무지였던 곳이 쌀 뿐 아니라 기타 농작물을 위한 곡물창고가 되었다. 관개를 활용하면서 다년생풀과 채소 참외류 농작물 수확을 크게 늘일 수 있었다.

관개지는 500,000헥타르에 달했으며 벼 파종에 250,000헥타르가 배정되었고, 벼 재배 농장 47곳이 건립되었다. 바카나스 촌락지역에는 바카나스 양사 육소호즈의 박박틴스크 지부를 근거지로 대규모 <박박틴스크> 소호즈가 조직되어 알마아타 주와 크질오르다 주로부터 200가구가 이주하였다. 이들은 주로 쌀과 채소를 재배한 경력이 있는 고려인 가구들이었다. 1966년부터 1972년까지 소호즈 지배인을 역임한 사람은 사회주의 노동영웅 황 세르게이 그리고리에비치였다. 그는 본인이 콜호즈 경영의 막강한 조직일꾼임을 보여주었다. 그의 지도하에 <박박틴스크> 소호즈는 곡물 수확에 있어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소호즈 총 면적은 33,888헥타르에 달했다. 쌀을 단층지피 토양에 적응시키는 일이 1967년에 시작되었으며, 이 때 소호즈는 최초로 벼 458헥타르를 파종했다. 벼 파종은 모두 온전하게 유지되어 헥타르 당 34.7센트네르라는 나쁘지 않은 수확도 가져다주었다. 악달라 단층지피의 토양과 기후 조건이, 이러한 재배 수요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으므로, 새로운 땅의 개간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었다. 이후 년도에 벼 파종 면적이 다음과 같이 증가했다. 1968년도 1,683헥타르, 1969년도 3,200헥타르, 1970년도 3,300헥타르.¹⁸⁾

1968년에는 벼 파종용 경작지 준비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상 조

¹⁸⁾ БФГА (Балхашский филиал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рхива). Фонд 17. Опись 1. Дело 305. Лист 6.

건이 나뻗음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자들은 쌀 2,100톤을 정부에 판매하며 생산 및 조달 계획을 달성했다. 상당수 쌀 생산자들은 다음과 같은 높은 기록을 세웠다. 최 야콥의 분조는 85헥타르 면적에서 평균 41,2센트네르 썩을 거둬들였으며, 살수부 신 블라디미르가 살수를 전담한 20헥타르 면적에서는 52센트네르 썩의 쌀을 거둬들였다.

파종작업 준비에 질적 향상을 보였던 이듬해인 1969년에는 쌀 생산 계획과 정부 구매 계획을 상당 부분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 계획된 수확량이 헥타르 당 23센트네르였던 반면, 총 수확량은 계획의 117% 초과하여 이행되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작물의 파종 및 관리에 정해진 농업 기술적 조치를 조직적으로 수행해 낸 고려인 쌀 생산자들의 헌신적인 노동의 결과였다. 그들 중 상당수가 다음과 같은 높은 생산 지수를 달성했다. 황 B.G.가 작업반장으로 있는 제5 작업반은 519헥타르 면적에 평균 37센트네르 썩을 수확했고, 콜호즈원인 황 니콜라이는 30헥타르 면적에 67센트네르 썩, 콜호즈원 신 블라디미르는 62,5센트네르 썩, 콜호즈원 신 블라디미르는 60,5센트네르 썩을 수확했다. 쌀의 재배 및 수확 전 과정이 현대의 농학적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해 적정기간 내에 진행된 것이었다.

1970년 <박박틴스크> 솥호즈는 계획을 초과하여 3,300톤의 쌀을 생산하였으며, 계획을 초과하여 2,000톤가량의 현미를 정부에 공출했다.¹⁹⁾

1967년부터 1970년에 걸쳐 이전의 사막지대에서 297,583센트네르의 쌀과 8,000센트네르 이상의 채소 및 참외류, 1,420톤의 알팔파 등을 포함한 기타 생산물이 높은 생산고를 기록했다. 솥호즈는 1969년 한해 30,000센트네르 생산을 계획하였으나 65,900센트네르의 쌀을 정부에 공출하였다. 말하자면 계획을 2배 이상 초과 달성한 셈이다. 일리 강 하구지방에서 벼농사 육성을 방향으로 잡은 것이 적중했음은 지난 4년간의 결과가 보여주었다. 1975년에는

19) БФГА, Ф. 42. Оп. 1. Д.59. Л.17.

7,900헥타르까지 파종 면적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상기 기간 동안 스푸즈의 연 평균 일꾼 수는 1968년 472명에서 1970년 735명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 수확을 위한 관개 시스템과 경지 계획 준비에 있어, 작업 초기 단계에서 빚어진 실수만 아니었더라면 스푸즈의 공적은 훨씬 높았을 것이다. 여름-가을에 벼 파종 경지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 파종년도 봄에 필수 작업을 진행한 결과 파종시기가 지연되었다. 손실의 결과를 낳은 이유는 생산의 조직 및 물질·금전적 재원과 노동을 활용하는 데 미흡했기 때문이다.

벼 파종과 함께, 대형 빨가축의 축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젖을 생산하는 가축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스푸즈에서 축산업은 농장의 부수적인 분야가 되어 내수와 공공급식 보급을 위해 주로 육성되었다.

1971년 이전까지 소련 및 해외 선종학자들은 유망한 신종 벼를 다량 개발했으며, 그 중에는 발하시 구역의 〈박박틴스크〉 스푸즈 쌀 생산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악달라 단층지괴 여건에서는 벼 품종시험 사업이 1971년이나 시작되었다. 사실상 1971년 이전까지 악달라 토양에서 어떤 파종을 실시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다.

1971년 들어 준비된 논이 없어 스푸즈는 당초 계획보다 100헥타르 적게 벼를 재배했으며, 벼농사를 위해 예전에 심었던 148헥타르 규모의 다년생 작물을 갈아야만 했다. 수확고를 높이기 위해 2년간 벼를 경작한 후 다년생 작물 종자로 돌려짓는다. 81헥타르에 4년마다 벼 재배를 배치했는데, 이는 지금처럼 바람직하지 않았다. 농업 기술 규정에 위배되었다.

저장용기 무게를 포함하면 평균 쌀 수확량은 헥타르 당 25,9센트네르에 이른다. 높은 이물성으로 인해 상품용 쌀 출고가 극히 저조하여 정부의 쌀 구매 계획을 완수하지 못했다. 벼 재배 시 파종적량보다 많이 파종하고, 종자의 추가적 소비가 발생하고, 미네랄 비료의 사용량 증가로 지출이 증가한 반면, 수확은 줄어 결과적으로 쌀의 원가가 상승했다. 높은 원가와 저조한 수확으로 인해 1971년도 스푸즈에는 515,075루블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미수급

이 344,961루블에 달했다.

1972 생산년도에 솅호즈는 757,890루블의 수익을 내면서 국립은행의 빚을 완전히 청산했다. 하지만 거주지 부족으로 인해 솅호즈는 노동력 부족을 체감하면서도 구성원을 충원할 수가 없었다. 또한 들일에 즉각 윤작을 실시하여 3년 이상 (더 좋은 방법은 3년째 파종부터 벼 파종으로 전환) 벼 파종을 금해야 했다. 하지만 농장은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윤작을 하지 않았고, 도입된 모든 시스템은 3년 내내 벼 재배만 하였고, 일부 토지에서는 4년째도 벼 재배만 했다.

그 이후에도 곡물 중 특히 벼의 파종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정부 쌀 수매 계획은 점차 확대되었지만 솅호즈는 체계적으로 그 계획을 초과 달성하였다. 계획은 초과 달성했지만 모든 농산물의 원가는 지나치게 높았다. 예를 들어, 1971년 국내의 몇몇 농장에서 쌀의 원가는 10루블 이하였으나, 박박틴스크 솅호즈에서는 26루블 56코페이카에 달했다.

솅호즈가 가장 높은 수확고를 올린 때는 벼 파종 3,900헥타르, 보리 1,190헥타르, 채소 및 참외류 작물 28헥타르에 달했던 1976년이었다. 쌀 수확은 작업반 별로 다양했다. 9작업반의 경우 483헥타르 면적에서 44,2헥트네르 썩을 거두어들였고, 6작업반의 경우, 547헥타르에서 43헥트네르를 거두어들였다. 한편 1작업반의 평균 수확량은 현미 1헥타르 당 27,2헥트네르에 불과했고, 김 이반의 경우 63,4헥트네르, 김 레바의 경우 64,4헥트네르였다. 솅호즈에서 30명이 45~74,7헥트네르를 수확했는데, 김 표트르의 경우 25헥타르에서 74,7헥트네르 썩, 허가이 이반의 경우 25헥타르에서 73헥트네르 썩을 달성했으나 상당수는 수확이 저조했다.

솅호즈는 구역에서 주도적 위치를 점하는 곳 중 하나였으며 1979년도 대차대조표에 36,000,000루블이 표시되어 있었다. 박박틴스크 농촌소비에트 37명의 의원 가운데 제16회 정기회의 소집에 참석한 자들 중 9명이 고려인이었다. 1981년까지 솅호즈 상황은 안정되었다. 1981년도 식료품 정부 수매 계획

량은 곡물 총 11,850톤이었으며 이 중 쌀이 10,750톤이고, 채소 330톤, 고기 30톤, 우유 733톤, 양털 1.8톤, 비타민 채소, 밀가루 1,100톤이었다. 총 매출은 4,397,052루블에 달했으며, 순이익은 179,692루블, 총 농산품 가액은 3,271,736루블에 달했다.²⁰⁾

하지만 1981년을 기점으로 쌀 수확량이 점차 줄어들었다. 매년 쌀 생산과 정부 쌀 공출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채소, 감자, 참외류 농작물, 공공축산을 위한 사료 문제 또한 사정이 좋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습호즈는 막대한 수자원을 보유한 물이 가득한 일리 강 바로 옆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작이 가능한 전답이 제한되어 있었다, 즉 예비지가 없었다. 습호즈는 정부계획을 수행하면서 당시 보유 중인 파종지에서만 출발했으므로 이 사업은 감당해낼 수 없었다. 쌀을 생산하고 안정된 수확을 얻기 위해 벼-풀 윤작을 해야 했으나, 막대한 양의 물이 걸러지고 지하수가 매섭게 상승하는 박박틴스크 습호즈 여건에서 풀들은 젖어 썩어버린다.

토지 재정비와 윤작에 따른 올바른 작물 배치도 필요했다. 노동의 조직이 저조하고 쌀, 보리와 기타 작물의 흔뿌리기 파종을 위한 관개용수가 부족해 쌀의 원가 상승을 초래했다. 게다가 일꾼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한 생활여건이 성원들의 이탈을 촉발했다.

박박틴스크 습호즈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고려인들은 핵심적인 민족이 아니었지만 그 당시 상당히 높은 직책을 맡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쌀 전문가, 작업반장, 수력공학기사, 관개시설 책임자, 카자흐스탄 농업대학장, 농학자, 이동수리소장 등으로 일했다.

1982년 1월 1일 현재, 박박틴스크 농촌소비에트 조직에 19개의 민족이 거주하였는데 카자흐인 1749명, 러시아인 1389명, 고려인 569명, 독일인 257명, 키르기스인 5명, 위구르인 18명, 타타르인 40명, 우크라이나인 149명, 벨로루

20) БФГА, Ф. 17. Оп. 1. Д. 304. Л.11. Д.364. Л.17.

스인 6명 등이었다.²¹⁾ 고려인들은 농촌소비에트 주민 전체 구성원 중 총 13,6%였다. 1994년에는 농촌소비에트의 1039 가구 중 113명 혹은 10,8%의 고려인들만이 남았다.²²⁾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나라에 혼돈과 혼란이 시작되었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한때 막강하고 융성했던 농장은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토지의 염류화, 늪지화가 시작되었으며 아치형의 관개 배수 시설망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선종 및 채종업이 경시되었으며 훌륭한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은 쫓겨났다. 이 모든 요인들이 박박틴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심하게 악화시켰다.

2000년 박박티(Бакбакты) 마을에 사업가들이 나타났다. 자신의 자본을 마을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중소기업 대표들이었다. 그 중 하나가 유한조합 <아르카다>이다. 신 P. P.는 <아르카다>의 책임자이자 조합 창립자이며 발하시 고려인 농작물센터 대표이다. 1년간 102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연 매출은 미화 200,000달러에 육박했다. 주된 사업 분야는 농작물 재배업과 그에 동반된 모든 사업이다. 아르카다 직원들은 첫해부터 파종지 1헥타르 당 현미 45센트네르 씩을 수확했다. 전반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이것은 괜찮은 성과이지만, 아르카다 직원들은 더 높은 수확고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한조합 <아르카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개간지였던 1,600헥타르를 경작하고 있는데 그 중 612헥타르는 쌀, 135헥타르는 소맥밀, 135헥타르는 알팔파 재배에 할당되었다. 오늘날 박박티에는 단순히 최근에 상당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상품용 쌀 생산 과정이 진행 중이라기보다는 주내 채종 사업이 면밀하게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아르카다의 계열사 중 하나로 김 R.A.가 조합장이고 김 I. Ya.가 작업반장을 맡고 있는 유한조합 <타스무린>이 담당하고 있다. 이 유한조합은 한국으로부터 벼농사 장비세트를 증정 받았으며,

21) БФГА, Ф. 17. Оп. 1. Д. 346. Л. 12-13.

22) БФГА, Ф. 76. Оп. 1. Д. 4. Л. 1-49.

새로운 벼 재배 기술 도입과 신품종의 구역별 배치에 대한 계약을 프리아랄 쌀 연구소와 체결하였다.

쌀 가공 역시 조합 생산 활동의 중요 분야이다.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설립하고 조립하여 하루 69톤의 쌀 생산성을 보유한 소형 한국산 쌀 공장은 조합의 자랑거리이다.

토지의 관개지화와 합리적 선종 및 채종 사업, 황무지를 최초로 개간한 사람들의 저돌적인 노동이 쌀의 안정된 수확이라는 당연한 결과를 가져왔다. 사업은 점진적으로 계획품종 생산의 예정된 목표량을 달성하게 되었다.

카자흐스탄 〈박박틴스크〉 솅호즈의 사례에서 소비에트 시기 고려인 농장의 발전과 번창 그리고 1991년 소련의 해체와 함께 시작된 쇠퇴와 고려인촌 근로자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몇 가지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오늘날 농촌 거주 고려인들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미 상당수가 일찍이 자신들이 정착했던 곳을 버리고 떠났다. 일부는 도시로 떠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머나먼 혹은 가까운 타국으로 떠났다. 후손들에게는 자신에 대한 좋은 기억만을 남겼다.

1967년부터 1980년까지 카자흐스탄 벼농사 발전에 있어 〈박박틴스크〉 솅호즈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후손들은 언제나 기억할 것이다. 고려인들은 벼농사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이를 통해 식량계획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정부에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감독 관리 방식이라는 난관보다 농사법에 심하게 위배되는 난관에 부딪쳐 결국 생산이 감소되는 결과를 야기했다.

현재 유한조합 〈아르카다〉는 농업기술의 현대적 방식을 적용하면서 한국의 지원으로 더디지만 당차게 상승하고 있다. 솅호즈는 농사기술에 선진적 기술력을 도입하여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무역관계법을 확고히 체득하는 등 벌써 좋은 결과와 향상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익히 겪었다. 강제 이주와 멸시, 스탈린 시절의 권리 침해를 견뎌냈고 민족적 자의식을 부활시켰다.

구소련의 독립국가연합에서 고려인들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오늘날 국민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고려인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유명 정치인, 산업체와 과학계 지도자, 학자, 문화·스포츠 분야 종사자도 상당하다. 이 모든 것은 고려인 농민의 노동을 기반으로 한다. 흙이 고려인 농민을 키워 성장시켰고, 자국의 우수한 국민으로 길러냈다.

현재 고려인들은 구소련 전역에 흩어져 있다. 그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든, 어떤 직책이나 칭호를 받든, 모든 것이 흙에서 시작되었음을 결코 잊지 않는다. 다음 장에서는 고려인들이 불필요하게 겪어야 했고, 살아오면서 가담했던 <노동군대>와 <고본질>에 대해 필자는 짧게 학문적 방향을 밝히고자 한다.

4. 노동군대 내 고려인들

노동군대와 그 노동병사들에 대해 일찍이 객관적인 정보가 많지 않았다. 대조국전쟁 연력에서 이 페이지는 삭제되었다. 거대한 민간인 부대가 조국 수호를 위해 비밀리에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파시스트와의 전쟁에 참가하였다.

죄수들에 대한 무보수 강제 노동의 효율은 전체주의 체제에 이미 알려져 있다. 주로 이주민들인 소련 노동자 2백만 명 이상이 전쟁 시기에 노동대에 징집되어 채벌장, 공장, 굴착탑 공사현장에서 일했으며 광활한 국토에서 석탄, 광석, 화학원료 등 기타 많은 것들을 채굴하였다.

노동군 수용소의 생활규칙은 방식 면에서 강제노동수용소와 흡사했다. 특별이주민들과 노동이주민들 사이의 차이점은, 전자는 수용소의 다른 모든 부속물인 기관총, 개들과 함께 가시 박힌 철조망 뒤에 서 있었지만, 후자는 모든 고난과 고역의 노동 여건을 가진 병영체제 안에 있었다.

1942년 초반, 정치위원부를 통해 고려인들을 노동군으로 징집하기로 결정하였다. 석탄, 석유, 기타 소련의 전략적 주요 공업 분야 사업을 위해, 예비역, 45세 이하의 군복무에 적합한 자, 적군 동원 시 정치·윤리적 문제로 탈락한 자들로 노동대를 충원했다. 고려인들은 마지막 부류에 속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에 남았던 상당수 고려인들은 우랄과 시베리아의 석유, 화학, 야금 공업에 노력 동원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현지 노동대인 내무인민위원부 비행장건설본부 제3건설국 소속 전사대열을 보강하기 위해 배치되었다.

1943년 5월 구리에프 시에는 제441호 연방 정유공장의 건설을 보장하기 위해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비행장건설본부 제3건설국이 조직되었다. 1943년 4월 14일자 소련 국방위원회 결정에 다음과 같이 강조되어 있다. “구리에프 공장 설립은 고속의 절차를 밟아 일차으로 완수해야 한다.”²³⁾ 본 공장은 1943년 10월에 착공되었다. 건설전사대열이 공사의 주된 노동력을 제공했다. 민간인 구성원은 거의 없었다. 노동군을 제외하면 시설에는 전쟁포로와 다른 주 노동교화소에서 온 죄수들이 일했다. 1944년 1월 1일 당시 노동군과 민간인 노동자 수는 각각 10,200명과 850명이었다.²⁴⁾

비행장건설본부 제3건설국 구조 내에 8개의 건설대와 6개의 특별대가 있었으며, 독일인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와 크림 출신 특별이주민들이 주축인 50개 민족으로 구성된 전사 연합이었다. 그들과 함께 고려인들도 노동에 참여했다. 일례로 537,547건설대에는 그리스인, 불가리아인들과 함께 박사이 지역과 덴기스 지역의 〈파마티 일리차〉 콜호즈 출신 고려인 수십 명이 일했다.²⁵⁾ 건설대 일반대원들을 적군 구성원으로 간주하여 ‘전사’라 칭했으며 그

23) ГАА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Атырауской области). Ф. 198. Оп. 2. Д. 5. Л. 59.

24) ГААО, Ф. 198. Оп. 2. Д. 14. Л. 6.

25) ГААО, Ф. 198. Оп. 1. Д. 294. Л. 55-56.

들에게 근대 규정을 적용했다. 노동 기준량 달성이 '투쟁 과제'였다.

수입 중장비의 하적 및 부설, 철골구조 조립 시 잡역일, 엄청난 규모의 농사일에 따르는 집단적 노동이 특별이주민들이 수행하는 노동의 유형이었다. 노동의 하루는 11~12시간 지속되었다. 노동군들의 생활 여건은 고달팠지만 이런 고난은 전쟁이었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정신적 고통이었다. '국외추방자' 꼬리표가 붙은 민족 범주에 속한다는 열등의식이 무거운 짐처럼 억눌렀다.

전사들이 배치되었던 움막집들은 모든 주거 요건을 충족시켜주지는 않았다. 침구를 배급하지 않아 전사들은 옷을 입은 채 잠이 들었다. 움막집은 칠을 하지 않았으며, 동절기 난방은 충분치 않았고, 갈아입을 옷가지도 제공받지 못했다. 쉬는 날도 거의 없었다. 전사들 사이에 발진 티푸스가 폭발적인 전염병으로 번졌던 1944년 2~3월 이후에야 검찰과 내무인민위원부의 개입으로 건설 지도부가 전사들의 문화 및 일상생활 여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공장 설립에 착수하기 전, 사전 준비 작업을 하던 시기, 아직 노동준비로 지치지 않았을 때 이미 상당한 노동력 상실과 죽음이 있었다. 비통한 통계 수치의 증가를 아래 기록에서 볼 수 있다. 1944년 1월 19명이 병사하였고, 2월에 45명 중 23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하였으며, 3월에는 71명 중 56명이, 4월에는 94명 중 72명이 각각 영양실조로 사망하였다.

그 사이 공사는 계속되었다.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헌신적으로 일했다. 승리와 더불어 공장이 설립되었다. 1945년 10~11월 정부위원회는 공장 인수검사를 실시해 건설공사의 질적 총평이 '우'인 공장의 모든 설비와 구조물들을 수용했는데, 그 중 몇몇 시설은 평점 '수'를 받았다.

공장 설립에 동참한 상당수 참가자들은 '1941~1945년에 걸친 대조국전쟁에서 보여준 영웅적 노동으로' 메달을 수여했다. 메달을 수여한 건설대 전사 1146명 중 고려인들도 있는데 김 니콜라이, 김채길, 김 솔로몬, 남용연, 박 이그나트, 정성한 등이 그들이다.²⁶⁾

카자흐스탄 노동군들은 <카자흐스탄 석유단지>와 <카자흐스탄 석유공사>와 같은 기업소와 합동기업소들에서 일했다. 고려인들은 이곳에서 카프카스의 특별이주민들, 포볼지예의 독일인들, 강제노동수용소 노동교화소 수감자들, 전쟁포로들과 함께 일했다. 노동 동원된 자들의 생활여건은 지극히 열악했다. 전사들을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움막집과 반 지하 건물에 배치하였다. 모든 종류와 형태의 노동 조직과 노동을 장려할 만한 임금 체계가 노동대로 전파되었다. 우수 노동자 명부에 독일인, 그리스인, 타타르인, 불가리아인, 체첸인 그리고 고려인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별이주민들이 주된 핵심이었던 노동군대는 전쟁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몇몇 고려인은 이후에도 노동 부역의 의무를 졌던 곳에 영구적으로 살기 위해 남았다. 전쟁 후에도 새로운 멸시와 불평등을 자행하며 노동군들을 경시했다.

오늘날 노동군은 대조국전쟁 시기 노동전선 참가자들과 같은 지위에 있다. 노동군들에 대한 정당성과 그들의 과거가 지닌 중요성을 후손들 앞에서 회복시키기 위해 사회는 노력을 다 했다. 노동군들 역시 후방에서 승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갔다. 노동대에 징집된 고려인 명부는 매우 길다. 이 주제를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5. 생존수단으로써의 고려인 ‘고본질’

고려인들의 농작시스템인 ‘고본질’은 초기 자본 투자를 토대로 한 집단노동 조직, 혹은 모든 참가자가 제공한 물질적·노력적 투자를 토대로 정해진

26) ГААО. Ф. 198. Оп. 1. Д. 233. Л. 15.

기간 내에 얻은 공동 수익을 분배하는 노동 조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고려인의 농경 방식 고본질은 60년여를 존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생명력은 자유노동의 요소와 각 참가자의 기여와 투자에 따른 결과물의 배분에서 기인한다.

농업 집단화 이전까지 극동 고려인들은 러시아 이주민들에게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지었다. 이러한 농작 방식을 한국어로 소작제라고 하는데 주인에게 땅을 빌리는 개별적인 농지 임대방식을 뜻한다.

비슈케크 출신 한국학 학자 이 게론 니콜라예비치는 고려인들의 농민노동 조직의 다른 양상들을 조사하면서 위 방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렸다. 집단농장식 생산방식과 콜호즈 공유지 임대법의 부재 속에서 고려인 농업은 반합법적 기반을 둔 새로운 농작방식을 낳았다. 이 때문에 농지 소유자 측은 농작법 위반이 불가피했으며, 농민들에게는 불확실성이 생겨났다. 거대 국가는 1980년대 말까지 매우 소극적으로 농촌에 집단적 공급계약방식을 도입하면서 존속했다. 집단적 공급계약 발의자와 실행자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는 고려인 농민이었다. 고려인들은 이 방식을 한 마디로 고본질이라 부른다.²⁷⁾

고본질 작업반들은 자발적 토대위에서 만들어지며, 독자적으로 반원을 충원하고, 직접 작업규칙을 정한다. 자신의 땅에서 자유노동만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달성한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의무이행은 임대 계약서의 필수조건이다.

고본질 방식은 집단책임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동일 규모의 필지가 작업반원들 사이에 분할된다.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물적 인적 자원에 따라 작업반원 1명은 몇 헥타르의 필지를 임대할 수 있다. 모든 고려인들이 이 방식을 알고 있으며, 쌀, 채소, 참외류 작물 농작에 압도적 다수의 고려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27) Ли Г.Н. Гобонди. Записки наблюдателя о любви корейцев к земле.- Бишкек : 2000.- С. 144-145.

농작 방식으로 고본질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41~1945년 전쟁 중이던 우즈베키스탄에서였다는 주장이 있다. 소비에트 국가 전역에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근면한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은 바로 고려인들이 고본질에 참여한 덕분이었다. 그러한 전 인민적 소명이 다수의 사회주의 노동영웅, 학자, 정부 및 문화 분야 종사자 등을 탄생시켰다.

고본질에는 사실상 고려인 전체가 참여했으며, 이 방식은 물적 활동을 가능하게 해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게 해 주었다. 고려인들의 고된 노동의 결과를 전 소련 국민이 누렸다는 점은 자긍심을 느껴야 한다. 소련 전역 대도시의 모든 시장에 고려인이 고본질로 기른 채소와 참외류 농작물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소련 시절 생산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의 대가 혹은 단순히 참여한 대가를 업무의 개별적 공정과 단계의 수행 결과에 따라 받았다. 유감스럽게도 농업에서도 그랬다. 노동의 결과에서 개인적 관심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이것 역시 높은 수확고를 올리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다.

고본질에서는 비용 정산은 되나 업무의 단계별 지급은 제외된다. 다른 모든 생산처럼 이 방식도 같이, 파종, 경작, 살수, 수확, 수송, 보관 및 판매 단계로 세분화된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지표는 최종 결과인 생산물이다. 그러니까 모든 자원과 역량이 결과의 극대화에 맞춰져 있다.

고본질로 점차 새로운 계층의 고려인들이 흘러들었다. 그들은 벼농사와 채소농사를 전개하는데 알맞게 새로운 땅을 개간했다. 그들을 끌어당기는 것은 개인적 관심이었다. 지칠 줄 모르는 노동의 결과로 그들은 공공 콜호즈 농지에서보다 5~8배 더 많은 수확량을 거둬들일 수 있었다. 농작 임대 형식 고본질은 고려인들의 보편적인 특징이었다. 소비에트 시절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고본질을 노동의 부가적 형태로 연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주목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고려인의 중요성을 비하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고려인들은 현대적 생활조건에 가장 먼

저 적응한 민족 중 하나가 되었다.

6. 결론

한민족의 역사적 자취를 돌아보면 비극적인 삶의 시기에도 결코 침울해하지 않고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적 난관을 예견했음을 알 수 있다. 수난이 많았던 한민족의 역사에서 20세기는 내전, 산업화, 집단화, 기아, 스탈린 강제이주, 대조국전쟁, 대중에 대한 집단 이데올로기화로 인해 가장 힘든 시련의 시기에 해당한다. 고려인들의 삶은 세계가 정치적으로 들끓고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이 일어났던 시대와 맞물렸다. 이는 진보적 정치관 형성과 민족의식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의 민주화 과정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대다수가 접하지 못했던 우리 역사 속의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밝히고 있다. 그들은 민족의 기억 속에 빛나는 별들로, 창조적 인물들로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 농촌 일꾼들은 고려인들이 민족적 궁지에 싹을 틔우는 데 든든한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고려인 역사 속에 그들의 이름은 황금빛 글자로 새겨져 있다.

상당수 농업 선도자들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공화국들의 공훈록에 이름을 올렸다. 노동성과의 많은 부분은, 자신들의 지치지 않는 철저한 노동으로 국가 자산을 불린 이전세대가 이룩한 것이다. 현대적 여건 속에서 모든 사회·경제적 난점을 해결하는 문제는 고려인들과 연관이 있다. 그것은 스스로의 노동으로 얻은 산물과 전담으로부터 농민을 내모는 것이다. 도시로 이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급격한 도시화 과정이 보여줄 사회 경제적 결과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시에 문학, 예술, 문화 전반의 발전 토대인 모국어 습득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한다.

페레스트로이카로 촉발된 소비에트 사회의 제도적 위기는 소련의 해체를 가져왔고, 이는 대다수의 소비에트인들에게 심각한 사회적·심리적 쇼크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이 변동을 가장 고통스럽게 겪은 자들은 역사적 조국이 구소련 지역 밖에 위치하는 사람들이었다. 소련의 해체로 가장 괴로웠던 사람들은 동포들과의 혈연관계 상실이 이미 독립국가연합 내에서 일어난 소수민족들이었다.

고려인들은 독립국가연합의 무한한 공간 도처에 살면서 일한다. 그들은 화목하게 지낼 뿐 아니라 이 땅 원주민들과 친족관계가 되었다. 민족의 우정은 이데올로기적 신화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으로 알게 된 현실이다. 사랑과 우정은 세월이 가도 빛을 잃지 않는 영원한 범주라는 것을 고려인들은 깨달았다.

구소련과 현 CIS의 고려인 농촌일꾼의 역사는 거주지의 본질적 부분이었던 중대 사건들과 일상의 문제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화국들은 자주권을 획득했고, 힘든 고비의 순간에 국가 조직을 형성했으며, 소련 전 공화국들 간의 모든 경제적·개별적 관계들은 붕괴되었다. 이런 상황을 가장 많이 겪는 이들은 각각의 인종집단이며, 특히 자신의 역사적 조국 이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소비에트 시절 농업에서 고려인들의 성과는 실로 무한했다. 높은 학력과 문화수준도 핵심적인 성과였다. 과연 이뿐인가? 소련이 존재하는 여건 속에서 다른 민족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반대하는 사람은 러시아인, 우즈베크인, 카자흐인, 키르기스인과 기타 민족들이 중앙아시아 내 한민족의 문화 발전에 끊임없는 역할을 했다는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이다. 이들 민족은 고려인들의 물질적·정신적 번영을 위해 가장 다양하고 큰 도움을 주었다.

평범한 인간관계의 심화, 수월한 일상적 인적 접촉, 문화적 교류의 강화,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심오한 인도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것이며, 문명화된 사회의 객관적인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고려인들은 다른 민족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의 기틀을 마련한다. 이는 단일과 단합,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던 우리에게는 공동의 운명과 미래가 있다는 확고한 인식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여러 공화국에서 고려인들은 80년을 넘게 집단화와 탄압, 기아와 전쟁을 견뎌냈으며 힘든 고난 속에서도 버텼다. 우리의 미래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달려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고려인들은 정부의 가장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말을 통해, 그리고 일을 통해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동양인들이다. 우리는 친척과 친구들에 대한 호의적이고 성실한 자세와 뛰어난 전통적 뿌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

약어 목록

- БФГА - Балхашский филиал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рхива
국가문서보관소 발하시 지소
- ГАО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Атырауской области
아티라우 주 국가문서보관소
- Га - гектар 헥타르
- ГУЛАГ -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лагерей 강제노동수용소
- ГУАС - 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аэродромных строителей 비행장 건설 본부
- ГКО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обороны 국방위원회
- ИТЛ ГУЛАГ - Исправительный трудовой лагер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лагерей 강제노동수용소 노동교화소
- КПСС -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소련 공산당
- Колхоз - коллективное хозяйство 콜호즈
- НКВД - 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иат Внутренних дел 내무인민위원부
- СНГ - Содружество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독립국가연합
- СК - Строительные колонны 건설대
- СМ СССР - Совет Министров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소련 각료회의
- Трудармия - Трудовая армия 노동군대
- ТОО - Товарищество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유한조합
- ОСО - Особый специальный отряд 특별지대
- РА ИПСИ ЦС НДПУ -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й архив Института политических и социаль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Центрального Совета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Узбекистана
우즈베키스탄 인민민주당 중앙소비에트 정치사회연구소
공화국문서보관소
- ЦА -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중앙아시아
- ЦГА РУ - Централь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립중앙문서보관소
- ц - центнер 쉐트네르

ЦК КПСС - Центральный комитет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

УзССР - Узбекский Союз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우즈베키스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소련 한인 가족의 사회화 (1937~1991)

송 잔나

1. 들어가는 말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과 상호작용하여 공동의 작업에 참여한다. 개인이 다양한 사회집단에 가입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역할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사회적 관계나 협력행동에서 나타나는 사람들 간의 상호관계는 그들이 단체나 사회집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황(지위)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개인이 사회나 집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정 상황은 단체나 집단에서 권리와 의무 체계를 통해 다른 상황들과 연관되어 있고 사회적 신분을 규정한다.

사회적 신분에는 인간이 사회집단, 단체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역할이 포함된다.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주사회에 형성되어야 하는 특정한 조건이 꼭 필요하다. 사회적 신분은 사회적 계층에서의 개인의 위치, 다양한 영역의 사회생활에서의 개인 활동, 이 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특성을 정한다. 사회적 신분은 내적 지위(목표나 가치추구)와 외적 형상(의복, 행동방식, 그리고 기타 사회적 소속의 표시들) 모두에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소련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 중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의 사회적 신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사람의 행동은 다기능적이기 때문에 한인 지역사회에도 다양한 사회적 계층과 지위가 존재한다. 직업 분야에서의 상황, 권력 구조나 수입(규모와 형태)과의 관계와 같은 사회적 신분의 기준에 의하면 러시아에서 한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150년 동안 계속해서 변해왔다.

본 주제에 대한 객관적 연구와 폭넓은 접근을 위해서는 러시아 영토로 한인이주가 시작된 역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A.I. 페트로프¹⁾가 언급했듯이, 한인 이주의 주요 원인은 자신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려는 바람이었고, 러시아 이주규정에 따르면 한인들이 러시아에 그 어떤 세금도 납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대한 한인농민들의 깨달음과 유즈노-우스리스크 변경에 이주하여 러시아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려는 그들의 희망은 한국 봉건-관료 체제의 심각한 위기를 반증해주고 있다.

또한 러시아 극동으로의 한인이주는 이미 조선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도, 적어도 조선정부가 이주에 대해 엄격한 법률을 취소할 때까지는 귀국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A.I. 페트로프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러시아로 이주한 한인 농민은 조선 민중에게는 새로운 세계관, 즉 조선에서의 개인에 대한 봉건전제적 획일화를 부분적으로나마 부정하는 세계관을 소유한 자들이었다.²⁾

과도한 세금이나 지주, 관리들의 횡포에 고통 받는 아무런 힘도 없는 가장 가난한 농민들이 러시아 이주 한인의 주요 근간을 이루었다. 조선의 가장 가난한 농민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더 나은 삶을 향한 자신의 희망이나 욕망, 동기에 제약을 받았을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로 이주하면서 한인 농민들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노동하려 애를 썼는데, 이는 자신들의 노력의 열매

1) 페트로프 A.I. 19세기 60-90년대 러시아 극동에서의 한인이주, 2000. 참조.

2) 앞의 책.

가 여기서는 그들의 재산, 소유물, 상품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한인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조건을 창출하고 그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려 애를 썼다. 이러한 노력은 한인들이 이민과 낯선 문화나 언어, 정 신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들은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감당 할 준비가 되어있었다.

한인들의 높은 수준의 이민 적응 능력에 관해서는 러시아 제국, 소련, 그 리고 러시아공화국의 러시아 학자들이 연구논문, 학술논문으로 출판했을 뿐 아니라,³⁾ 한국의 학자들 역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⁴⁾

³⁾ *Пак Б.Д.* Корейцы 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период. М., 1993; Он же. Корейцы в 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и (1917 - конец 1930 г.). М. - Иркутск. Дипакадемия МИДа РФ, 1995; *Хан Г.Б.* Прошлое и настоящее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Историко - документальное повествование о жизни корейско й диаспоры (1937 - 1997). Алматы, 1997; *Джарьылгасинова Р.Ш.* Корейцы // Вера и жизнь. М., 1997. № 9-10; *Югай Г.А.*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 социально -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й портрет своего поколения. Ташкент, 1990; *Ли В.Ф.* Ист очники и проблемы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этнического меньшинства в Со ветском Союзе // Источниковедение и историография стран Востока. Вы п. 3 : Россия и АСЕАН (судьба России и будущее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М., 1995; Он же. О бессрочном нейтралитет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 рова в свете мирового опыта XX века // Корусфорум. М., 2000. № 9. С. 57-69; Он же. Культурно-национальная автономия и возрождение корейск ой диаспоры в России : Доклад на Междунар. семинаре в Ун-те иностр. яз. (Хан Гук), февраль 2000 г. // Диаспоры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 в Китае и России. Сеул, 2000; *Ли В.Ф.* Россия и Корея в геополитике Еврази йского Востока. М., 2000; *Бугай Н.Ф.* Социальная натурализация и этничес кая мобилизация (Опыт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М., 1998; Он же. Российские ко рейцы : новый поворот истории. (90-е годы). М., 2000; Он же.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и политика «солнечного тепла». М., 2002; *Б.Д. Пак, Н.Ф. Буга й.* 140 лет в России. Очерк истор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М., 2004; *Бугай Н.Ф.* Корейское этническое меньшинство в Союзе ССР (России) : проблем ы репрессий. 1930 - 1940-е годы. (120-летие сеульской конвенции и 140-ле тие доброволь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б юллетень. Спец.выпуск. М., 2004. № 6; *Бугай Н.Ф.*, О Сон Хван. Испытани е временем. М., 2004; *Бугай Н.Ф.* «Третья Корея» : новая миссия и пробл

한인들의 자발적인 러시아제국으로의 이주는 1860년대에 시작되었다. 이 때부터 한인들은 러시아 다민족 공동체의 주류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고유한 민족성인 준법성 덕분에 자신의 성실성으로 한인들은 다양한 영역의 국가 경제 발전에, 특히 농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대체 무엇이 한인들로 하여금 낯선 땅에 살며 수고를 하게 했는가라는 당연한 질문이 떠오른다. 엄청난 난관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그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지침으로 삼았는가? 답은 하나이다. 가족. 뿌리 깊은 유교국가인 한국에서 가족은 최고의 가치로 평가되었고 지금까지도 이 전통이 보존되었다. 가족은 유교정신의 중심이고 모든 집단의 기본 단위로 간주되었다. 유교 전통에서 협력의 단위로 인식되는 가족은 국가와 사회의 주요 부분이다. 삼라만상은 사실상 하나의 가족이다. 사회적 도덕은 인간사랑, 또는 인간존중, 사람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런 인간적 사랑이다.⁵⁾ 바로 이 원칙에 의해 러시아의 현대 한인들이 살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을 준법적이고

емы глобализации... М., 2005; *Он же*. Корейцы стран СНГ : общественно-географический «синтез» (начало XXI века). М., 2007; *Он же*. Корейцы России :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и культуры. М., 2009 и др.

⁴⁾ *Сим Хон Ёнг*. Динамика демографических изменений рас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XIX - XX век) // Мир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проблемы объедине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М., 1995; *Он же* : Корейский этнос в систем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на евразийском континенте : проблемы депортации в 30-е - 40-е годы // Россия и Восток : проблемы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и политика движений. Челябинск, 1995; *Бэ Ын Гиёнг*. Краткий очерк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1922 - 1938). М., 2001; *Shin Youn - Cha*. Soviet Koreans and their Culture in the USSR // Koreans in the Soviet Union / Ed. : Dae-Sook Suh,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1987; *Ко Сон Му*. Корейцы СССР : Корё Сарам. Сеул, 1989; *Kho Songmo*. Koreans in Soviet Central Asia / Helsinki, 1987; *Ким Хён Ёнг*. Истори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за рубежом : тяготы и испытания. (재외동포사회의 역사적 고찰과 연구방법론 모색. 김현영). Сеул, 2005 и др.

⁵⁾ 이광순. 가족의 사회철학적 분석 (한국 가족의 예) // 철학과 사회, No 3, 7월-9월 1910. p. 153.

성실하게 만들고 있다.

극동에서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공화국으로 강제이주된 이후, 소비에트 한인들은 완전히 새로운 민족문화 조건에서 새로운 삶을 건설해야만 했다. 새로운 거주지에서의 한인들의 사회화 문제는 자의식이나 민족의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가족의 보호와 가족을 위한 삶이라는 주요한 삶의 원칙은 변화하지 않았다.

1937년은 소비에트 한인들의 역사에서 실질적인 급변기가 되었다. 소련 인민위원회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1937년 8월 21일자 결정 № 1428-326 (극비) 《극동 변방 국경지대에서의 한인 추방에 관하여》에 의해 한인들의 모든 업적이 제거되었다.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승인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국의 1938년 1월 24일자 결정 № 79 《민족 구역과 농촌소비에트의 제거에 관하여》⁶⁾와 《민족학교와 학교 내 민족분과의 제거에 관하여》⁷⁾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일부 주와 변방에 다양한 민족 구역(독일, 핀란드, 한국, 불가리아 등등)과 농촌소비에트가 건설되었는데 그 실재가 민족구성이나 주민들과 들어맞지 않는다고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규정한다.”⁸⁾ 계속해서 “이 구역들 중 많은 곳이 반소비에트 사업을 전개하려는 해악적 목적으로 인민의 적들에 의해 건설되었다”⁹⁾고 언급되어 있다. 이와 같이 소련 내 소수민족 전체의 민족 정체성의 완전한 획일화가 일어나고 인접국가들과 관계를 가진 민족 공동체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사실상 공포되었던 것이다. 민족구역이나 농촌소비에트, 학교의 폐쇄와 함께 소수민족의 발전도 정지되었고, 전체주의적 일원화와 민족적 다양성의 획일화를 지향하는 정책이 채택되었다.

6) 전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와 민족 문제. 책 2. 1933-1945. 소비에트 역사 문서. 모스크바. 2009. p. 341.

7) 같은 책. p. 342.

8) 같은 책.

9) 같은 책. p. 314.

소비에트 극동 영토에서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공화국으로 강제이주된 후, 새로운 지역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나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한인들은 '새로운 삶'의 건설을 위해 자신의 육체적, 지적 힘을 전력을 다해 동원할 줄 알았다.

소비에트 한인들은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의 허허벌판에 농업을 정착시키는 선구자가 되었다. 한인들의 조밀한 인구분포는 그들이 농업 관리에서 한민족 전통을 보존할 수 있게 해줬고, 그들이 역사적 조국에서는 물론이요 극동 지역에서도 사용했던 농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해줬다. 토지 경작의 비밀은 세대를 걸쳐 계승되었다. 상당히 많은 콜호즈 농민들이 탈트-쿠르간 지역, 우수토베, 크질오르다, 북카자흐스탄, 카라간다로 이주되었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타슈켄트 주와 호레즘스크 주 등등으로 이주되었다.

2차세계대전 직전 한인 콜호즈는 특히 타슈켄트 주(우즈베키스탄 공화국)와 우수토베(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글자 그대로 2년 만에 엄청난 양의 쌀을 생산했다. 한인 콜호즈의 복지는 즉각 향상되었다. 한인들은 1938년부터 1940년까지 콜호즈에 새로운 집과 기차역, 학교, 극장, 클럽, 도서관 등 중앙아시아에는 없었던 것들을 건설하였다. 한인들은 자신들의 자녀의 미래를 위해, 그들이 편안히 살고 노동하며 교육받을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열정과 힘을 쏟았다.

이 지역 외에도 크지 않은 집단의 한인들이 거주하며 콜호즈 협동조합에서 작업하고 농업에 일정한 업적을 쌓았던 다른 지역의 한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북카프카즈가 그런 지역인데, 이곳은 거주 한인이 많았던 지역과 비교하여 적응이 훨씬 더 어려웠다.

1930년대 크라스노다르 변강, 스타브로폴 변강,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체첸-인구시 자치공화국에 한인 집단이 나타났다. 크라스노다르 변강 문서보관소에는 북카프카즈 변강의 농촌경제생산에 등장한 새로운 방향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선별 서류가 보존되어있다. “앞으로 3년 동안 제르노

트레스트 슝호즈의 쌀파종 면적이 1931년 만 헥타르에서 1933년 15만 헥타르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파종을 실시할 곳은 이전부터 쌀농사를 지어왔던 지역인 중앙아시아와 충분히 개간된 극동뿐 아니라 새로운 카자흐스탄이나 다게스탄(북카프카즈)에도 지정된다. 쌀 종자의 증대를 목적으로 실시된 과거 파종 경험이나 더 넓은 지역에 파종했던 작년의 경험이 이 지역이 쌀문 화권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¹⁰⁾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남쪽에 북카프카즈 쌀트러스트를 필두로 새로운 방향의 경제 감독기관들이 조직되었다. 1933년 이미 쌀트러스트가 마르코프 북카프카즈 철도(로스토프-나-도누)청으로 다음과 같은 《비밀》 편지를 썼다. “중앙에서 내려온 과제에 따라, 북카프카즈 쌀트러스트는 체첸 자치주 구데르메스 구간에 있는 쌀 슝호즈의 관개 시스템에 대한 기술-경제적 기획을 구성하기 위해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¹¹⁾

소비에트 지도부는 한인들이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임을 알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극동에서와 같이 모스크바에서도 한인 농업 협동조합이 결성되기 시작했다. 1930년대 중반 북카프카즈 도처에 쌀을 재배하는 콜호즈가 만들어졌다.

첫 한인 콜호즈인 100가구 정도의 디미트로프 콜호즈는 1933년 크라스노다르 변강 이바노보 마을에 조직되었다. 한인 농업협동조합이 1935년 - 1936년 동안 스타브로폴 변강 소비예츠크 마을(노보파블롭스크), 체체노-인구시 자치공화국 구데르메스,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키즐랴르에 만들어졌다. 목격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콜호즈의 대표로는 중국인 공산주의자들이 임명되었는데 콜호즈 구성원은 한인들이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¹²⁾ 이는 소비에트

10) 크라스노다르 변강 변강 문서보관소(앞으로 КАКК). Ф. - Р. 296. Оп. 1. Д. 13. Л. 37~51.

11) Там же. Д. 24. Л. 47.

12) Из дневниковых записей Ж.Г. Сон «Беседы с очевидцами, воспоминания Хван Донгука». 2002.

지도부가 일본의 비난을 우려하여 농촌에 실재 존재하는 한인 체류와 이용을 숨기려 다방면에서 노력하였음을 증명한다.

2. 소련에서의 한인가족의 사회화 (1937~1938)

1) 황덕삼의 가족

평균적인 한인가족의 사회적 신분을 규정하고 개별 가족의 사회화를 분석하기 위해 1936년 북카프카스로 이주했던 가족에 대해 살펴보겠다. 황덕삼은 대가족의 가장으로 그의 자손이 5대에 걸쳐 100명 이상이 된다. 이 가족은 모든 면에서 전통적 한인 가족으로서 지금까지도 조상에 대한 추도를 영예롭게 생각하고 한인들의 전통과 일상을 준수하고 있다.

이 가족의 역사는 러시아 한인들의 사회 문제 연구에서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다. 1917년부터 이 가족 구성원들은 새로운 소비에트 국가의 참여자이며 건설자였다. 현재는 황덕삼 가족의 4세대(그림 1)가 5세대를 가르치며 새로운 민주 러시아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조선에서 태어나 자신들의 부모와 함께 러시아로 이주했던 황덕삼(1876~1937)과 그의 아내 전 마리아(1884~1968)는 러시아령 이주민 제 1세대이자 우수리스크 변강 정착의 선구자들이다.

황덕삼의 자손들은 그들의 결혼날짜를 알지 못한다. 이 가족에게 7명의 아들과 2명의 딸 등 모두 9명의 자녀가 태어났다. 9명의 자녀들 중 맏아들과 맏딸은 극동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서류에 의하면 이 가족은 프리모르스크 변강의 가이다마크 만과 타우디미 마을(현 파르티잔스크)에 살았다. 1937년

무렵 황의 아들들은 모스크바, 노보시비르스크, 비로비잔과 같은 소련의 여러 도시에서 일하고 공부했다.

황덕삼 가족 구성원에 대해 간략히 묘사해 보겠다. 황덕삼¹³⁾은 1876년 조선 경원에서 태어났으며, 1937년 크라스노다르 변강의 이바노보 구역에 거주하였는데, 당에 소속하지 않았고, 교육받지 못했으며, 크라스노다르 변강 디미트로프 콜호즈에서 집단농장원으로 일하였다. 1937년 12월 18일 스탈린 숙청 시기에 체포되었다. 그는 저장시설, 승강기 폭발을 준비한 집단의 성원이라는 혐의를 받았다. 1938년 1월 18일 소련 내무인민위원회에 의해 심판을 받아 최고형 - 총살의 판결을 받았다. 1938년 1월 28일 크라스노다르 시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벨로루시 군사지구 군사재판의 결정으로 1957년 10월 29일 복권되었다.

첫 아들은 (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 극동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그에게는 아들 그레고리 하나가 남았다.

둘째 아들 황동현(니키타 페드로비치)(1906~1989)은 극동에서 당학교를 졸업하고 비로비잔 시에서 소연방공산당 주위원회 서기로 일했다. 1937년 침켄트(카자흐스탄)로 강제이주되어 학교 교장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알마아타 시로 이주하여 오랫동안 지도자를 역임했다. 1965년 퇴직하고 형제들이 살고 있는 북카프카즈 오르조니키제 시로 이사했다. 소연방 개인연금 수령자가 되었다. 자녀로 아들 니콜라이와 발레리, 딸 이리나와 메리가 있다.

셋째 아들 황동한¹⁴⁾(1910~1937)은 극동의 연해주 타우디미 마을에서 태어났다. 1930년대 초 모스크바에 살며 공부했고¹⁵⁾ 코민테른과 정치적 망명자를 위한 V.M. 자고르스키 명칭 국제 클럽에서 적극적인 사회 정치적 사업을

13) Корейцы - жертвы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Кн. 2. 1934-1938. М., 2000. С. 177.

14) Там же. С. 176.

15) РГАСПИ. Фонд 495. Оп. 136. Д. 3. Л. 207; Д. 4. Л. 13; Д.10. Л. 1-85; Д. 13. Л. 1-9.

전개했다.¹⁶⁾ 국제클럽의 한인 분과의 주도로 북카프카즈에 콜호즈를 조직하는 사업에(1933)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아조보-츠히르노모르스크 변경(크라스노다르 변경)의 첫 한인 콜호즈인 디미트로프 콜호즈의 조직책이었다.¹⁷⁾

황동한의 부모는 이 당시에 극동에서 살고 있었다. 디미트로프 한인 콜호즈가 변창하게 되자 1936년 황동한은 부모와 남녀 동생들을 자기 쪽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도착하고 1년 뒤 전국에서 대대적인 체포가 시작되었다. 1937년 12월 18일 드미트로프 한인 콜호즈에서도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한인 남자 69명이 체포되었다.¹⁸⁾ 황동한의 가족 6명 중 가족의 가장인 황덕삼과 아들 동한, 동범 3명이 정치적 탄압 대상이 되었다.

황동한은 철도를 따라 위치한 저장창고 폭파를 준비한 간첩 파괴집단의 지도부라는 죄목으로 1937년 12월 18일 체포되었다.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위원단에 의해 1938년 1월 18일 재판을 받았고 총살형을 선고 받았다. 1938년 2월 28일 크라스노다르 시에서 총살되었다. 1957년 10월 29일 벨로루시 군사 지역 군사법정의 결정으로 복권되었다. 그에게는 아들 에베레스트가 있다.

다섯째 아들 황동선¹⁹⁾은 1914년 프리모르스크 변경 부둔노이 지구 가이다마크 만에서 태어났다. 노보시비르스크 시 철도 대학 3학년 학생이었던 1937년에 체포되어 총살되었다. 복권되었다. 그에게는 딸이 있다.

여섯째 아들 황동변²⁰⁾은 1919년 극동 부둔노이 지구 타우디미 마을에서 태어났다. 소연방 레닌공산청년동맹 회원이었으나 1937년 제명되었다. 톤넬 보로실롭스크 철도 역의 터널 폭파를 준비한 간첩 파괴활동 그룹 참가자로 체포되었다.

16) См. : Сон Ж.Г.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 всеилие власти и бесправие этнической общности, М., 2013. С. 167~177.

17) ЦДНИ КК. Ф. 1391, Оп. 1, Д. 20. Л. 14, 15.

18) См. : Сон Ж.Г. Указ. соч. С. 334~337.

19) Там же. С. 177.

20) Там же.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산하 특별 협의회에 의해 1938년 1월 16일 유죄판결을 받았다. 노동수용소 10년 수감을 선고 받았다. 1955년 12월 6일 북카프카즈 군사구역 군사재판의 결정으로 복권되었다.

이와 같이 대가족 황씨 일가에서 4명이 스탈린시대 숙청으로 목숨을 잃었다. 소련과 일본의 복잡한 정치외교 관계의 결과였다. I. 스탈린은 극동에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국가 내부에서 《인민의 적》을 찾아 사실상 재판이나 조사도 없이 “일본에 이익이 되는 첩자”의 죄목으로 한인들을 체포하여 총살형에 처하거나 소련 영토 전반에 퍼져있는 수용소로 보냈다.

황덕삼의 부인 전 마리아는 1937년의 비극적 사건 이후 디미트로프 콜호즈에 딸 동희, 막내아들 동철과 함께 남겨졌다. 남편과 아들들의 체포 이후 가장이 없이 남겨진 한인 여성들이 이 콜호즈에 남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들은 한인 협동조합이 형성되어 있던 스타브로폴 변경의 한인들에게 도움과 지원을 요청했다.

넷째 아들 황동국²¹⁾(그림 2)의 운명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1918년 극동 부둔노이 지구 타우디미 마을에서 태어났다. 1936년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북카프카즈의 황동한에게 떠났을 때 동국은 학교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남았다. 1937년 그는 모든 한인들과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으로 이주되어 사마르칸드에 남겨졌다. 1939년 그는 사마르칸드 국립 대학교 수리물리학부에 입학하였다.

2차세계대전(1941~1945)이 발발했을 때 이미 2학년이었던 그는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다. 그는 노동능력이 있는 다른 한인 남자와 마찬가지로 특별 소집에 따라 노동 군대로 동원되었다. 1941년 8월부터 하리코프 근교에 참호를 뚫고, 이어서 전략적 철도 지선을 건설했다.

21) Сон Ж.Г. От Волги - до Берлина / Шин Д.В., Пак Б.Д., Цой В.В.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 - 1945 гг. М., 2011. С. 524-526.

한인은 '사상적으로 위험한' 경우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선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황동국은 결단성을 보여 요세프 스탈린에게 '소비에트 조국의 적들과 직접 싸우기 위해 그를 전선에 나가게 해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1942년 9월 그의 청원은 수락되었다. 그는 전선에 나갈 수 있었다. 황동국은 일시 체류지가 위치했던 아스트라한 시에 배치되었다. 그곳에서 석 달 동안 130 사단이 형성되었다. 그는 대학에 있을 때 이미 자동차 운전을 익혔었다. 황동국은 76-mm 대전차용 포병부대 지휘관으로 화기병참부대에 배치되었다.

1942년 12월 초 130 사단은 엘리스타 방향으로 전진했고 바타이스크에 도착하여 로스토프-나-도누 시와 마리우폴(즈다노프) 시를 파시스트의 손에서 해방시켰다. 짧은 휴식을 끝내고 130 사단은 1943년 벨로루시 전선 산하로 재배치되었다. 황동국은 브레스트 해방에 참여하였다. 브레스트 부근에서 부상을 당해 타박상을 입었다.

회복된 후 폴란드 해방에 참여하였고 벨로루시 전선과 제 2 우크라이나 전선의 성원으로 괴닝스베르그 장악을 위해 싸웠다. 괴닝스베르그 해방 전선 참여로 《괴닝스베르그 점령》에 대한 메달을 수여 받았다. 베를린 해방으로 제2 수준의 조국수호 전쟁 훈장을 받았고, 《용기》에 대한 메달 2개와 《전공》에 대한 메달 2개를 수여 받았다.

전쟁이 끝난 후 황동국은 1946년 군대에서 퇴역하여, 당시 그의 어머니가 남매와 함께 살고 있던 북카프카즈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북오세티야 자치 공화국 다르그-코흐 마을에 살고 있었다. 전선에서 그는 소련공산당에 가입하였고, 전쟁 후에는 공산주의자로서 농업 복구를 위한 선두에 섰다. 황동국은 쉬타인그라트 콜호즈의 벼농사 작업반 반장으로 임명되었다. 1940년대 말 그의 작업반은 콜호즈 최고의 작업반 중 하나가 되었다.

콜호즈는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독일 파시즘의 점령을 겪은 한인

이외에 상당히 많은 수의 러시아 독일인, 오세트인, 코사크인이 일하고 있었다. 황동국의 조직자로서의 능력은 다민족 작업반을 단결시켜 전진하게 만들 수 있었다.

1950년 황동국은 스타브로폴 변경의 네비노미스크 지역 레닌 콜호즈의 회장으로 임명되었다. 자기 주위에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그의 재능과 토지에 대한 주의 깊은 태도 덕분에 문자 그대로 전후 몇 년 만에 이 콜호즈는 유례 없는 알곡작물 수확의 성과를 올렸다. 이 콜호즈의 성원들은 주로 쿠반에서 온 코사크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성실한 노동은 콜호즈인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현저히 높였다. 사람들은 배고픔과 궁핍함이 무엇인지 잊어버렸다. 그러나 좋은 일은 항상 나쁜 일을 동반한다는 말이 있다. 레닌 콜호즈 회장 황동국은 사보타지의 혐의를 받았다. 1954년 그는 콜호즈 회장직에서 해임되었다.

스탈린 사후 한인들이 중앙아시아 공화국과 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 이주가 허용되면서 소비에트 한인들의 역사에서 특별한 장이 열린다. 많은 한인들이 강제로 이주당했던 지역에서 떠나게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우선, 넓은 지역에 덤성덤성 분포되어 사는 현실, 잃어버린 친척들, 친척이나 친구들과 함께 살려는 바람이 있다. 둘째, 덥고 건조한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 기후에 적응하지 못한 한인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받았다. 북카프카스의 날씨는 한반도의 기후와 매우 유사하다. 이 당시 한인들은 북카프카스로 적극적인 이주를 시작하였다.

중앙아시아에서 온 한인들은 초기에는 체체노-인구시 자치공화국 니쉬니에 아찰리키와 베르흐니에 아찰리키 마을에 거주하였다. 그들은 2차세계대전 시기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이주당한 인구시 사람들이 남겨두고 간 빈 집에 정착하였다. 1958년 인구시가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한인들은 이 집들을 비워주고 다른 거주지를 찾아야만 했다. 사실상 모든 한인들이 북오세티아 자치공화국의 수도인 오르조니키제 시로 이사하였다. 농업을 위

한 토지는 체체노-인구시 자치공화국에서 임대되었기 때문에, 한인들은 농사철에 들로 떠나는 전통을 가지게 되었다.

1955년 황동국은 체체노-인구시 자치공화국에서 전후 최초의 콜호즈 중 하나를 이끄는 책임을 맡았다. 콜호즈는 유명한 오세티아 시인 코스트 헤타구로프²²⁾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는데 이는 의심의 여지없이 한인들의 문화에 대해, 그들이 살며 노동하고 있는 환경의 문화를 인정하려는 소망에 대해, 또한 다른 민족을 향한 그들의 존중에 대해 말해준다. 한인들은 오세티아 사람들, 체첸 사람들, 인구시 사람들과도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기 위해 항상 노력했다. 1950년대 말 북오세티아 자치공화국 오르조니키제 시와 그 인접 구역과 같은 북카프카즈에는 120세대 이상의 한인가족이 살고 있었다.²³⁾

가깝고 먼 친척들과 지인들이 포함되어있는 콜호즈를 이끌면서 황동국 회장은 처음 몇 년은 특히 어려웠다. 북카프카즈 민족들의 다민족 환경에서 문화 간의 의사소통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경우 리더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데, 황동국은 뛰어난 지도자와 관리자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콜호즈를 전면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해줬던 그의 조직화 능력이 이곳에서 특히 드러났다. 그는 동포들의 합당한 인기와 존경을 받았다. 충고나 도움, 도덕적 지지를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

이 한인 집단에서 주의를 끄는 사람이 또 한 명 있다. 채 령 이세노브나이다. 사진에는 코스트 헤타구로프 콜호즈(체체노-인구시 자치공화국 니쥐니에 아찰리키)의 한인들이 찍혀있다. 사진의 중앙에는 콜호즈 회장 황동국이 있고 오른쪽에 사회주의 노동 영웅 채 령 이세노브나(1910 - 1991)가 있다. 이 멋진 여인은 1948년 중앙아시아에서 농업 노동 공적으로 레닌훈장과 사회주의 노동영웅 금메달을 수여 받았다.

22) Коста Хетагуров (1859-1906) - осетинский поэт, просветитель, скульптор. Основоположник осетин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23) Сон Ж.Г. Интервью с Хван Донгуком. 2003.

1964년 황은 새로운 장소 스타브로폴 변경 《폴탑스키》 습호즈에서 일을 시작한다. 그의 작업반에는 100명이 넘는 인원으로 이루어진 한인 가족 30세대가 일하고 있었다. 이렇게 큰 집단이 농업 인프라가 없는 스타브로폴 변경의 초원에 거주하려면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야 했고 이를 위해 토지를 임대하고, 퇴비나 종자를 구하며, 주택 정비에 관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지역 지도부, 습호즈 지도부와 좋은 관계를 구축해야만 했다. 황동국이 이를 이루었고, 작업반 반원들은 그를 믿고 기쁜 마음으로 일했다.

황은 작은 집단의 소비에트 한인에게 제2의 조국이 된 북카프카즈의 이 낮은 변경에서 한인들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작업반은 농업 생산물 납부에 관한 국가의 계획을 항상 초과 달성하였고, 작업반 반원들은 정기적 수입이 있어 부유하게 살았고, 모든 가족은 도시에 개인 소유의 집과 자동차, 정기적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1978년 황동국은 은퇴하였다.

북카프카즈 한인의 역사에서 1960년~1970년대는 적극적인 창조적 노동의 시대이자 복지수준 향상의 시기이다. 오르조니키제 시에서 넓지 않게 분포되어 살면서 한인들은 명절이나 국치일에 단일공동체, 하나의 가족을 지키려 노력했다. 황동국 가족 문헌에서 찾은 사진에는 그의 가족들의 삶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소비에트 시기 오르조니키제 시 한인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다. 이 모든 사진의 가운데에는 한인 이주의 유명한 지도자 황동국이 자리하고 있다.

전투활동이나 노동활동에서의 모든 업적 속에서도 그의 인생에서 가족이 확실히 남아있었다. 1953년~1960년 사이에 그는 어려웠던 1930년대와 강제이주, 2차세계대전을 겪고도 살아남은 친척 전부를 불러모았다. 그의 친척들은 북카프카즈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1965년 알마아타에서 형 황동현이 가족과 함께 이사했다. 1968년 어머니 전 마리아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는 삶의 마지막 몇 해를 자신의 자녀와 손주들에 둘러싸여 살았었다.

황동국은 4명의 딸 벨라, 나탈리아, 조야, 엘리자베타와 한 명의 아들 안드레이를 낳아 길렀고 11명의 손주와 10명의 증손주가 있었다. 그들 모두는 고등교육을 받았다. 그들 중에는 회사 간부, 교사, 엔지니어, 의사, 매니저, 군 수사관, 법률가, 경제학자, 간호사 등이 있다. 그들 모두 러시아의 경제적 정신적 잠재력 발전에 빛나는 업적을 쌓았다.

이와 같이 황동국의 가족사는 1938년부터 1990년대의 기간 소련의 한인공동체에서 지적 잠재력이 크게 성장했고 새로운 세대의 지식인이 성장했음을 증언하고 있다. 교육과 상급학교 진학, 전공에 따른 직업이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측면이었다.

1989년 전연방 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소련의 한인 수는 43만9천명이었다.²⁴⁾ 그들 중 49.4%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생각하고, 43.3%가 러시아어를 구사하며, 3.7%는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생각하고, 21.3%는 고등교육을 받았다. 한인 1세대와 2세대는 여전히 한국어를 구사했지만 3세대 자녀들에게는 (43.3%) 러시아어가 모국어가 되었다. 황동국의 가족도 마찬가지이다.

²⁴⁾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СССР 1989 г. http://istmat.info/files/uploads/17594/naselenie_ssr_po_dannym_vsesoyuznoy_perepisi_naseleniya_1989g.pdf

2) 박헌영의 가족

2차세계대전 이후 부모를 잃고 남겨진 고아들의 문제가 스탈린 시대 탄압 이후 소비에트 시기 무척 첨예하게 제기되었다. 국가에는 보육원이 부족했는데 고아들은 떠돌아다니고, 도둑질을 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소련의 일반 보육원 중에는 정치적으로 수감된 자들의 아이들을 위한 국제 보육원도 있었다. 이 보육원 원아들의 삶과 운명은 다른 보육원 원아들과 본질적으로 달라서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조건이 창출되었다. 이 보육원 원아들 중에는 뛰어난 학자나 군인, 유명한 정치인, 예술가 등등이 존재한다. 이 국제보육원원아들은 과연 누구인가?

1920년대에 소비에트 정권 첫 시기 가장 대중적인 단체 중 하나인 국제혁명운동희생자 구원회(모프르)라는 사회단체가 널리 유명해졌다. 모프르는 재외 외국 혁명가들에게 국제적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코민테른이 창설한 자선단체였다.

1920년대 말 블라디보스토크의 모프르 한국 지국은 일본 감옥에 수감된 한인 공산주의자들에게 물질적, 도덕적-정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모프르는 코민테른과 한국의 한인 혁명가들 사이에서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다. 1920년대 말 한국 민족해방운동 투쟁은 일본 권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았고, 많은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모프르의 직접적인 도움 하에 비밀리에 소비에트 극동 영토로 넘어왔다.

사망하였거나 투옥된 혁명가들의 자녀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국제혁명운동희생자 구원회 사업의 주요 방향이 되었다. 사망하였거나 감옥에 갇힌 아버지들이 일반적으로 그 가족의 유일한 부양자였고 이로 인해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은 생존할 수단이 전혀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 아이

들에게 빵 몇 덩어리와 비를 피할 집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국가 영토에 보육원을 건설할 것이 결정되었다. 모프르는 이 보육원 건설에 재정적으로 보조했다.

《모프르의 길》²⁵⁾이라는 잡지가 재외 어린이들을 위한 원조금 모금을 호소하였다. 당시 국제 아동 주간이라 불렀던 대중 캠페인 기간 동안 자금의 상당부분을 모았다. 이 활동의 가장 적극적인 참가자는 이바노보 시 노동자들이었다.

이바노보 시민들은 (독일의) 《비렌펠드》 감옥과 (폴란드의) 《소스노베츠》 감옥의 정치적 수감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후원회를 건설하였다. 1924년 여름 이바노보-보즈네센스크에서 독일 프롤레타리아트 자녀들을 위한 후원연맹 분과가 개설되었다. 분과는 보육원 건설과 정치적 탄압으로 희생된 자들의 자녀들에게 여름 휴가 야영장을 건설해주기 위한 자금을 모았다. 특히 이바노보-보즈네센스크 현 주민들은 (독일의) 에렌펠드에 보육원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독일에서는 모프르의 자금으로 몇몇 보육원을 열었고, 1923년 - 1928년 동안 약 천 명의 아이들이 이 보육원들에서 머물렀다. 그들 중 420명은 양친을 잃었고 393명은 아버지가 감옥에 있었다.²⁶⁾ 독일의 《적색》 보육원은 호주와 불가리아 혁명가들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만들어졌다. 1920년대 그와 같은 보육원들이 이탈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등등에 건설되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적색》 보육원은 오랫동안 존재하지 못했다. 모프르의 지도자들은 아이들을 소비에트 연방으로 이주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클라라 체트킨 보육원이 모스크바에서 가장 유명했다. 이곳에서 외국인 아이들은 따로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 소비에트 아이들과 함께 교육받았다.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문화

25) Балдин К.Е. Интердом - моя планета! ИД «Референтг», Иваново, 2008, С. 14.

26) Там же. С. 15.

에, 다른 언어에, 가혹한 기후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 이 모든 것들이 심리적 불안과 곤혹, 잦은 눈물, 변덕을 불러왔다.

다른 측면에서 살펴도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독일, 호주, 중국, 한국, 또 다른 나라 출신의 남녀 아이들이 《러시아인》이 되어 고유한 문화와 언어를 잊어갔다. 모프르의 지도자들은 소련에서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아이들이 성장한 후 반드시 조국으로 돌아가 자기 부모들의 혁명투쟁을 이어받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아이들을 위한 특수 보육원을 건설할 것이 결정되었다. 이 보육원에서 아이들은 합당한 사상적 교육을 받으며 자기들의 기원이 독일, 불가리아, 중국 등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모스크바근교, 바스키노 마을의 농지가 이와 같은 보육원이 되었으나 이곳은 12살 미만의 아이들만이 머물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12살이 넘은 아이들은 이후 자기 동포들과 헤어져 다른 장소에서 살며 학습해야 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주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국제 보육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유명한 혁명가 E.D. 스타소바와 이바노보 시 ‘노령 불세비키들’의 발기에 따라 이바노보 시 노동자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정치적 망명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원이 건설되었다. 정치적수감자들의 아이들을 위한 스타소바 국제 보육원은 2013년 8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 보육원의 첫 원아들이 80세~90세가 되었고 그들은 국제보육원에 대한 애정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며 낙심도 후회도 하지 않고 과거의 삶을 회상하며 살고 있다.

85평생 동안 대단히 활동적이고 긍정적이며 어떤 순간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있는 박 비비안나는 이바노보 국제보육원 원아 중 한 명이다. 그녀의 모든 대화와 강연은 그녀가 자란 국제보육원에 대한 회상으로 귀결된다.

박 비비안나는 1928년 9월 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났다. 1931년부터 모스크바 근교 바스키노 마을에 있는 보육원에서 살며 교육받았다. 1933년 그녀는 이바노보 시의 첫 번째 국제보육원으로 옮겨졌다. 1943년 비비안나는 이고르 모이세예프가 지도하는 민속무용 국립 아카데미 앙상블 산하의 무용 강습소에 입학하였다.

1946년 앙상블에 가입하여 20년 동안 그곳에서 활동하였다. 1968년에서 2011년까지 이고르 모이세예프 민속무용 국립 아카데미 앙상블 산하 강습소(전문학교)에서 강의하였다. 프라하의 민주청년 국제페스티벌(1947) 최고상 수상자이고 1958년 《노동 영예》의 메달을 수여 받았으며 문화교육성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011년 퇴직하였다.

박 비비안나의 삶은 첫 눈에 보기에 그렇게 특별한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 재능 있는 한인이 어린 시절부터 춤추는 것을 좋아했는데 유명한 이고르 모이세예프 앙상블에서 자신의 소명을 찾았을 뿐이다. 어려웠던 당시 보육원의 원아는 무척 많았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많은 수의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다. 그러나 비비안나의 운명에는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는데, 그녀의 삶이 소련, 북한, 남한 이 세 나라 역사의 일부와 좋은 싫든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동시에 그 역사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사실 비비안나는 한국 문화나 한국어를 전혀 몰랐다. 그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 부모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게 하였을까? 이 대목에서 그들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하겠다. 아버지 박현영과 어머니 주세죽은 한국 독립을 위한 반일 투쟁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걸출한 애국 혁명가들이었다.

많은 《노회한 혁명가들》 중 한 명인 박현영(호 이정)은 25년간의 지하 혁명 활동과 투옥생활 이후 살아남았다. 1939년 출옥한 후 한반도 남쪽에서 조선 공산당을 재건하였다. 북한의 내각 부총리 겸 외무장관(1948년 - 1953년)을 지냈다. 평양에서 1953년 미국의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어 1955년 사형 당했다.

주세죽(일명 한 베라)(1901년 - 1953년)은 한국 여성들 사이에서 공산 조직을 만든 혁명가이다. 공산주의 사상을 선전한 죄목으로 한국에서 여러 번 체포되었고, 소련에서 탄압을 받았으며(1937년 - 1943년),²⁷⁾ 6년간 유형지에 머물렀다가 복권되었다. 주세죽은 2008년 한국에서 한국독립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로 사후 훈장을 받았다.

비비안나 박 부모의 삶과 활동은 역사학자들이 객관적인 시각을 기술하며 더 연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분단된 한국의 정치적 편견 때문에 박현영의 이름이 잊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1919년 3.1운동 이후 무차별적인 체포가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3.1 운동에 참가했던 젊은이들의 상당수가 조국을 떠나야만 했다. 그들 중 일부는 중국을 통해 러시아 영토로 들어왔고, 다른 일부는 중국에 머물렀다. 바로 그곳에서 박현영과 주세죽이 만났다.

박현영은 그 당시 이미 혁명가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열광적으로 학습했으며 한국 청년의 지도자였다. 그는 김만겸, 이동휘, 그리고 다른 유명한 혁명활동가들이 지도하고 있던 조선공산당의 당원이었다. 그는 주세죽을 상하이의 마르크스 소그룹으로 인도하였고 또한 조선공산당의 입당을 추천하였다.

1924년 11월 7일 상하이에서 박현영과 주세죽은 결혼하였다. 이때부터 그들의 공동 정치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함께 잠행활동을 위해 한국을 다녔고 콤포몰 그룹이나 소그룹, 공산주의 그룹이나 소그룹을 건설하였다. 박현영은 《동아일보》 편집국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그는 일본 군부에 의해 행해지는 조선 노동자 농민의 견딜 수 없는 조건의 삶에 대해 기사를 썼다. 한국 청년운동과 조선공산당의 조직자이자 지도자로서 1925년 박현영은 일본 경찰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고 여러 번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주세죽은

27) Личный архив Пак Вивианы. Личное дело из архива ФСБ.

간호사로 일하며 한국 여성들 사이에 공산주의 선전 활동을 벌였고 여성 콤플렉스 소그룹을 조직하였다. 그녀도 역시 여러 번 체포되었고 투옥되었다.

1928년 일본 권력의 계속되는 추적으로 인해 박현영은 아내 주세죽과 함께 나라를 떠나 소련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²⁸⁾ 그들은 국제혁명운동희생자 구원회(모프르)의 협조로 블라디보스토크를 걸쳐 모스크바에 도착하였다. 1928년 9월 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비비안나가 태어났다.

1929년 1월에 박현영의 가족은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박현영은 코민테른 산하 한인분과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시에 모스크바 레닌 학교를 다녔으며, 주세죽은 동방노력자 공산대학을 다녔다.

부모가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수행하고 있었기에 1931년 비비안나는 모프르의 발기로 조직된 모스크바 근교 바스키노 마을의 정치적 망명자들을 위한 보육원에 배정되었다. 바스키노의 보육원과 이후 이바노보의 정치적 수감자의 자녀들을 위한 국제보육원이 박 비비안나의 본가가 되었다.

코민테른에서 활동했던 여러 나라의 많은 국제주의자 혁명가들은 자신의 자녀를 보육원에 맡겨야 했다. 체포될 위험을 가진 계속되는 해외 파견이나 코민테른 사업 등 모든 것이 공산주의자 혁명가들에게 자녀들의 양육에 온전한 관심을 가질 수 없게 했다. 비비안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해당되었고 1931년부터 그녀는 보육원에서 키워졌다.

이바노보에 있는 정치적 수감자 자녀를 위한 국제 보육원에 관한 비비안나의 회상 중에서:

“보육원에는 30개국의 아이들이 있었다. 제일 큰 집단은 중국출신이었다고, 두 번째 집단은 독일 출신, 그 다음은 불가리아 출신이었다. 한인은 모두 4명이 있었다. 내가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취학 전 부서에 배정되었다. 우리를 맨 매트리스에서 강제로 재우고, 여름에는 우리가 신선한

28) РГАСПИ. Ф. 495, оп. 228, д. 23, л. 26~27.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숲의 해먹에서 재웠던 것을 기억한다. 밤에는 보모가 우리에게 겨자를 바른 흑빵을 가져다 줬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먹었다. 내 생각에 보모가 우리를 불쌍히 여겼던 것 같다. 우리의 양육자 빅토르 안드레예비치 바비체프가 우리에게 《눈먼 악사》, 《지하의 아이들》, 《네로와 파트라슈》 등등 코롤렌코의 이야기책을 읽어줬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내가 8살이 되자 학교 부서로 옮겨졌다. 우리 보육원은 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옆에는 커다란 소나무숲이 있었는데 우리는 여름과 겨울 그곳을 산책했다. 우리는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생활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복도에서 곧바로 체조를 한 후 침대를 정돈하고 아침을 먹으러 갔고, 그 다음 학교로 갔다. 학교가 끝난 후 보육원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자신의 반에 가서 수업을 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으면 선배들에게 물었다. 우리들 모두는 서로 달라서 누군가는 수학을 잘했고, 또 누군가는 물리를 잘했다. 수업이 끝나면 합창, 음악, 율동, 철공, 스포츠 활동과 같은 다양한 소그룹 활동을 했다. 나는 당연히 율동활동에 참여했다. 내게 무용의 기억 니은을 가르쳤던 마리아 빼트로브나 바시나를 잘 기억하고 있다.

보육원에는 도서관이 있었고 우리 모두는 독서를 많이 했다. 아이들은 다방면으로 성장했다. 모두 러시아어로 말했다. 자기 조국의 언어를 알고 있던 아이들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교사와 공부했다. 일요일마다 우리는 영화를 봤다. 축제도 기념했다. 제일 좋아했던 축제는 새해였다. 커다란 트리를 가져오면 모두 함께 장식했다. 우리들의 힘으로 콘서트를 조직했고, 3월 18일 《파리코문》의 축제를 열었다. 이날은 우리들의 후원자들이 와서 선물도 주고 우호적인 티타임을 가졌다. 우리는 우리들의 부모님이 방문하는 부모님의 날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다. 나의 엄마는 내가 취학 전 부서에 있을 때 방문한 적이 있다. 1937년 그녀는 이미 체포되었다. 물론 나는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었다.²⁹⁾

²⁹⁾ Интервью Пак Вивианы, 2012.

비비안나는 어렸을 때부터 춤을 추는 것을 무척 좋아해서 학교의 모든 축제에서 공연하였다. 1943년 보육원의 교육자들 덕분에 비비안나는 이고르 모이세예프가 지도하고 있는 무용학교에 입학한다. 그녀의 어머니 주세죽이 소련의 58조항에 의해 처벌을 받았고 아버지 박현영은 1933년부터 한국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에 빠진 재능 있는 소녀는 이 학교에 입학할 허락 받았다. 알다시피 처벌받은 부모의 자녀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대중 예술 유형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되었었다.

박 비비안나의 운명은 당시 소비에트 연맹의 시민에게는 가끔씩이나 볼 수 있었던 특히 운이 좋은 경우 중 하나이다. 그녀는 부모도 없이 혼자서 탁월한 무용가가 될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 근면함과 무용을 향한 애정, 그리고 한인 시민들의 특징인 인내심이 도움이 되었다.

개인적인 특징 이외에도 그녀의 스승 이고르 모이세예프가 아니었다면 비비안나가 그러한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란 점 또한 언급해야 한다. 험난했던 전쟁시기와 전후 시기, 스탈린 숙청의 압력 속에서 살아남기란 매우 힘들었다. 전적으로 혼자 모스크바에 있으면서 비비안나는 이고르 모이세예프 덕분에 앙상블에 남을 수 있었고 자신의 예술 경력을 이어갈 수 있었다.

비비안나는 자신의 스승인 앙상블의 지도자에 대해 가장 따스한 말로 응답한다.

“나는 이 직업에서 요구되는 20년을 이고르 모이세예프 앙상블에서 근무했다. 나는 대단히 운이 좋았고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감사한다. 그는 나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했다. 나를 프로그램에 넣어주려 애를 썼는데 사실 앙상블에서 러시아인의 외모가 아닌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다.”

라고 비비안나는 자신의 스승에 대해 감사의 마음으로 회상했다.

이고르 모이세예프 앙상블에서 비비안나는 자신의 동양인 외모와 작은 키

때문에 러시아 무용에도 우크라이나 무용에도 참가할 수 없었다. 이고르 모이세예프의 지시에 따라 1943년에 이미 «타지키스탄 무용»이 기획되었고, 이 무용으로 비비안나는 첫 국제 대회에서 최고수상자의 칭호를 얻었다. 이후 그녀를 위해 특별히 기획된 다른 동양 무용이 생겼다. «몽고의 조각상», «한국의 전원» 등이 그것이다.

부모가 없이 자란 국제보육원의 원아들은 아주 따뜻하고 정성스레 서로를 대했다. 키가 가장 작았던 비비안나는 항상 사랑받고 존경받았다. 이바노보 국제보육원 원아였던 롤프 글류카우프는 자신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썼다.

“1944년 7월 7일, 오늘 아침 공연에 이고르 모이세예프 앙상블에서 온 아이들이 나왔다. 비바 박이 춤을 췄는데 이것의 그녀의 데뷔 무대였다. 그녀는 타지키스탄 무용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찹다르가 그녀에게 보육원을 대표해 꽃다발을 전해줬다...”³⁰⁾

«피오네르스카야 프라우다» 신문은 한인 비바 박이 작고, 우아하며 명랑하고 긍정적인 소녀인데 이바노보의 국제보육원에서 이미 자신의 재능을 펼쳤고, 이후 발레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왔다고 썼다.³¹⁾

보육원 동무인 롤프에게 쓴 편지 중 하나에서 박 비바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썼다.

“우리 앙상블은 순회공연을 준비하고 있어. 나는 이제 자립해서 발레 예술가가 될 거야. 그렇지만 나는 아직 많은 것을 배워야만 하고 연습해야 해. 나는 진정한 소비에트 예술가가 되고 싶어. 소비에트식으로 단련된 예술가 말이야.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니 ...”

30) Личный архив Пак Вивианы.

31) Пионерская правда. 1944.

1946년 비비안나 박은 이고르 모이세예프 앙상블 멤버가 되었다. 1947년 앙상블은 첫 국제 청년 페스티벌에 참가했고 그곳에서 타지키스탄 무용을 공연하여 비바가 자신의 파트너 슬라바와 함께 이 페스티벌의 최고상 수상자의 영예를 얻었다. 이고르 모이세예프 지도 하의 민속 무용 앙상블은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소련의 모든 대도시들, 그리고 폴란드, 헝가리, 동독, 서독, 프랑스, 영국, 그리스, 중국, 일본, 네덜란드, 핀란드, 이집트, 미국 등 전 세계를 순회하였다.

프랑스와 일본의 순회공연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싶다. 프랑스에서는 (1955년) 이브 몽땅을 필두로 한 프랑스 상류사회 전체가 이고르 모이세예프 앙상블의 공연에 열광했다. 그는 《몽고의 조각상》 춤에 나타난 동양적 우아함에 감탄하였고 또한 동양 민족의 민족적 섬세함을 춤으로 구현한 박 비비안나의 재능에 감탄하였다.

일본 《카부키》 극장에서 비바는 일주일 동안 정적인 춤의 예술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가장 어려운 춤을 익히기 위해서는 의심할 필요도 없이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녀는 관객에게 이 일본 춤의 단지 외형적 모양만이 아니라 엄청난 능력으로 감정과 영혼을 전달할 수 있었다.

1958년 미국 순회공연 이후 이고르 모이세예프 앙상블의 우수한 솔리스트들이 정부의 표창을 받게 되었다. 연방 회관의 원주가 있는 홀에서 소련 상원 소비에트 상임위원회 의장 K.E.보로실로프가 박 비비안나에게 《노동 영예》의 메달을 수여했다.

1989년까지 박 비바는 자기 부모와 짧은 시간이나마 만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진짜 운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몰랐다. 비밀이 해제된 고문서 자료를 본 후에야 부모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

딸과의 이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항상 자기들의 딸 비비안나에 대해 기억했다. 주세죽(소련에서 그녀는 한 베라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은 카자흐스탄 유형이 끝나자 제일 먼저 1944년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그녀의 방문은 짧았고 실제로 불법이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1953년까지 여행금지 상태였기 때문이다. 15살의 딸과 어머니의 이 첫 만남은 꽤나 냉정했다. 이 만남에 대해 비바의 친구 올가 구바노바는 자신의 회상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비비안나 엄마와의 만남

이고르 모이세예프 앙상블 솔리스트 올가 구바노바의 회상에서³²⁾:

“전쟁이 최고조에 달했던 1943년 9월에 조직된 우리 발레 교습소에 이바노보 보육원 출신의 한인 비바 박이 입학했다. 그렇게 그녀가 나와 살게 되었다. 엄마가 (페르보마이스크 시에서) 그녀를 방문했는데, 그녀의 엄마는 키가 매우 작았고, 애처로울 정도로 연약했으며, 정말 작은 손에 (완전히 어린아이의 손이었음) 매우 피곤한 모습이었으나 아름다운 얼굴이었고 자존심을 잃지 않은 모습이었다.

눈길이 마주치자 단숨에 나는 자상하고 배려 깊은 모성애를 느꼈다. (나는 모성애가 무척 그리웠었다.) 비바의 엄마는 우리들과 단지 며칠만 머물렀다. (얼마 전 엄마의 사랑을 잃게 된 나는 비바 엄마의 방문을 가족의 행복이 돌아온 것처럼 받아들였다.) 비비안나는 자기 엄마에게 재봉기계를 사줬다. 그녀는 대체 어떻게 돈을 모았을까? 그 당시 우리는 거의 기아 상태로 살고 있었다. 우리는 양말조차 사신지 못했었다.

비비안나는 항상 가장 친절할 사람 중 한 명이었고 또 지금도 그러하다. 인생에서 그런 사람과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이별의 순간 비바의 엄마는 잊을 수 없는 슬픈 말을 내게 남겼다. “아가야 너는 내게 남이지만, 남의 엄마인 내게 친딸보다 훨씬 더 진솔하게 대해줬구나...” 나는 그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설명을 해줬다. 비바는 지금 자신의 딸로서의 감정을 끈이곤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그녀는 3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살지 않

32) Личный архив Пак Вивианы.

았느냐. 그러나 나는 최근에 부모를 잃었고 오빠를 의용대로, 그 다음 전선으로 보냈다. 나는 이 전쟁 중에 혼자 남았다. 발레 교습소에 입학한 후 (엄마 아빠가 없는) 같은 처지의 친구를 얻었고, 비바의 엄마가 나타난 것이 말할 수 없이 기뻐지며 밀려든 감정이 지금까지 내 안에 머물고 있다. 누군가 행복하면 나는 기쁘다. 게다가 비바와 같이 그렇게 가깝고 사랑스런 친구가 그렇다면 더욱!”

비바의 회상에서: “그녀(엄마)는 유형지에 살고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벌써 여러 해가 흘렀지만, 나는 그때 내가 어떻게든 그녀를 도울 수 있지 않았을까를 고민한다. 그녀는 아마도 굶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엄마를 위해 한 유일한 일은 아빠에게 다녀왔을 때 그녀에게 돈을 준 것이다. 이 돈으로 엄마는 그렇게 필요했던 재봉틀을 샀다. 이 돈은 내가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내게 준 것이었다.”

비비안나는 아버지와 몇 차례 만났다. 첫 번째 만남은 조선이 해방된 후 1946년에 박헌영이 스탈린과의 만남을 위해 비밀리에 모스크바에 왔을 때였다. 아버지 덕분에 비비안나에게는 정치적 망명자들을 위한 기숙사에 자리가 주어졌다. 이때까지 그녀는 집이 없어서 친구네에서 살기도 하고 보육원 원장의 집에서 살기도 했었다.

아버지와의 첫 만남에 대한 비바의 회상에서: “나의 아버지가 오셨다고 어느날 갑자기 내게 말했고 나는 그와 만나게 되었다. 만났을 때 나는 불편함과 부끄러움의 감정을 느꼈고 이로 인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했다. 어느 날 우리를 과자공장 《붉은 10월》에 데려갔던 것이 기억난다. 러시아 동무들이 내게 말했다. “에효, 그를 아빠라고 부르기라도 해라”. 제일 이상했던 것은 그가 단 한 번도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1948년 박헌영은 북한의 공식 사절단과 함께 모스크바에 도착했고 비비안나를 평양으로 초대했다. 그녀는 북한에 한 달을 머물렀고 거기서 한국 무용을 배울 기회를 얻었다. 아버지는 그와 함께 살자고 설득했으나 비바는 양상

블에서 춤을 추고 싶어했다. 직업에서 자신의 선택을 하는 이미 성인이 된 아가씨로서 그와 같이 유혹적인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힘들었다.

이고르 모이세예프 양상블에서 20년을 일한 후 비비안나는 은퇴를 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활동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어서 1966년 그녀는 이고르 모이세예프 민속무용 국립 아카데미 양상블 산하 양성소에 동양무용 지도자로 초청되었다. 이 학교에서의 노동으로 비비안나는 《공훈 문화일꾼》의 칭호를 얻었다. 비바는 40년 이상을 동양무용을 가르쳤고 많은 수의 제자를 길러냈다. 그녀의 기술과 재능, 엄청난 성실성, 교육적 경험이 오랫동안 요청 받았다.

박 비비안나의 역사는 소비에트 인간 형성 역사의 하나이다. 정치적 망명자의 자녀들을 위한 국제보육원은 수백 명의 혁명이 자녀를 길러냈다. 소비에트 권력은 개인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모든 조건을 만들어줬다. 그곳은 다른 세상, 다른 행성이었다.

다양한 민족의 외국 어린이들은 선생님들과 보육자들의 돌봄과 관심에 둘러싸여 기아, 탄압, 가난 등등 소비에트 생활의 실재를 몰랐다. 그들을 위해서 미래 공산주의 체제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 코뮌이 만들어졌다. 그들은 그곳에서 학습했고, 택지 텃밭에서 노동했으며, 공장 시스템에서 일을 했고, 좋아하는 활동에 종사했으며, 상급 교육기관에서 공부했고, 전문분야에서 국제주의 정신으로 일했다.

국제보육원 원아들의 사회화는 상당한 정도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에서, 1세대 공산주의자-국제주의자들이 꿈꿨던 환상 속에서 이루어졌다. 일본공산당 지도자 쉐 카타야마가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보육원의 개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수감된 자들의 자녀를 위한 국제보육원은 그 동안 살아왔던 낡은 삶을 재건하는 전선에서의 커다란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정을 얻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관심으로 둘러싸일 것이고, 또

여러분은 자유롭게 자라고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³³⁾ 이것은 당시로는 전형적인 발언이었는데, 그들이 언젠가는 더 잘 살게 될 것이고 사회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1930년대 사람들의 믿음이 마치 거울처럼 반영되어있다.

국제보육원 첫 원아들의 역사는 그에 대립한 모든 것들과 함께 그들의 가슴에 커다란 흔적을 남겼다. 정치적 망명자들의 자녀를 위한 스타소바 국제보육원의 모든 원아들에게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중요한 덕목을 가르쳤다. 바로 국제주의, 애국주의, 의무감, 연대성이 그것이다.

3) 한인 - 2차 세계대전 참가자들(1941~1945)

소비에트 역사에서 1940년~1950년대는 소비에트 인민들에게 가장 비극적인 시기이다. 2차 세계대전(1941~1945)은 독일 파시즘에 대항한 가장 위대한 싸움으로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독일 파시즘의 뒤를 이어 역사적으로 러시아 민족과 크고 오래된 숙제가 남아있던 일본 제국주의가 참패를 당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전 소비에트 국민의 영웅적 노력과 자기희생, 민족 단결 덕분에 달성되었다. 소비에트 한인을 포함하여 다민족 소비에트 연방의 모든 민족들이 위대한 승리에 공헌하였다.

1930년대 말 소비에트 지도부는 소련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을 불신하는 태도를 보였고 많은 민족이 ‘불순분자’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938년 6월 24일 소련 방위 인민위원회의 지령 № 200/III이 채택되었는데 그 주요 요구는 소련 방위 지역에서 한인 뿐 아니라 폴란드인, 독일인, 루마니아인, 레트인, 에스토니아인, 그리고 다른 민족공동체들의 대표자들을 즉각 추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³³⁾ Балдин К.Е. Интердом - моя планета! ИД «Референт», Иваново, 2008. С. 36.

2차세계대전 초기의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연방에 살고 있던 다수의 한인들은 자기들을 전선에 내보내달라는 단 하나의 청원을 들고 국가 정치위원부를 찾았다. 소비에트 한인들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준비가 되어있었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조상에 대한 존경과 자기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선택한 조국인 러시아제국, 그 뒤를 잇는 소비에트 연방에 대한 사랑을 보여줬다.

독일 파시즘과의 전쟁 초기부터 소련의 한인 주민들은 위대한 애국심을 나타냈고 파시즘이란 질병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손에 무기를 들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줬다. 중학교를 막 졸업한 젊은 한인들이 자신들을 전선에 내보내 달라는 청원서를 시 정치위원부나 지역 정치위원부에 제출하였다.

알려져 있듯이 전 소비에트 한인들이 ‘일본의 첩자’라는 죄목으로 그들이 정착했던 극동 변강 영토에서 카자흐스탄이나 중앙아시아 공화국들로 강제 이주되었다. ‘일본의 첩자’라는 낙인 때문에 그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조국을 지킬 권리가 없었다. 한인 당사자들의 사회적 의식에 소비에트 한인들은 전선에 나갈 수 없다는 민족 전체에 모욕적인 표현이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이유로 한인들이 2차세계대전에서 후방이나 노동현장에 참여하였다고 생각되어왔다.

현재 전쟁에 참가했던 한인 372명의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그들 중 195명이 사망했거나 소식을 모르는 경우이고 127명이 살아 돌아왔다.³⁴⁾ 나머지 사람들의 운명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인 전투참가자 중 19명은 고등군사 교육을 받았고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던 전문 군인이었다.³⁵⁾ 핵심장교들은 전선에서 남다른 영웅적 자질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그들 중 대다수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나 전사하였다.

34) Шин Д.В., Пак Б.Д., Цой В.В.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М., 2011. С. 26.

35) См. : Шин Д.В., Пак Б.Д., Цой В.В. Указ. соч.

주요 한인전투참가자들은 러시아공화국 영토 내에서 소환되었는데 203명이다. 그들 중 코미 자치공화국에서 41명, 모스크바와 모스크바 주에서 15명, 연해주와 아무르 주에서 8명, 북오세티아 자치공화국과 이르쿠츠크 주에서 6명, 아르한겔스크 주에서 5명, 스페르드롭스크 주와 부랴트-몽고 자치공화국, 크림 자치공화국에서 4명, 다게스탄 자치공화국과 타타르 자치공화국,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 몰로토프스크 주(페름 주와 톰스크 주)에서 3명씩, 야쿠트 자치공화국과 크라스노다르 변경, 아스트라한스크 주, 고리코프스크 주, 키롭프 주, 쿠이비츠프스크 주, 노보시비르스크 주, 사라토프스크 주, 고르노알타이스크 자치주에서 2명씩, 나머지 주에서 1명씩 소환되었다. 카자흐스탄 소비에트공화국에서는 54명이, 우즈베키스탄 소비에트공화국에서는 24명, 우크라이나 소비에트공화국에서는 5명, 벨라루시 소비에트 공화국에서는 3명, 그루지야 소비에트공화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소비에트 공화국에서는 2명씩, 키르기스스탄 소비에트공화국과 타지키스탄 소비에트공화국에서는 1명씩 소환되었다.³⁶⁾ 이 한인들은 모든 징집자들처럼 정치위원국의 소환장에 의거한 일반 소집으로 전선에 나갔다. 그들 중 상당수가 학생, 노동자, 근로자 지원자들이었다.

전선으로의 한인 소환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이는 1930년대 말 한인들이 소련방 전 지역에 거주하며 노동하고 소비에트 건설의 전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

종종 한인들을 일반군으로 군대에 소집하여 새로 편성된 부대로 데려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들은 노동전선에 편입되었다. 전쟁 때 코미자치공화국 노동현장에 소집되었었던 러시아 역사학자 M.N. 한의 증언에 의하면, 1926년생 한인 청년이 우즈베키스탄에서만도 1,500명 소집되었다. 그때 그들에게 적군군대로 전선에 데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두를 짐칸에 싣고 코

³⁶⁾ Там же.

미 자치공화국 노동전선으로 데려갔다.³⁷⁾ 그런데 몇몇은 그곳에서 전선으로 들어가는 것에 성공했다.

한인들이 노동부대에서 전선으로 간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잘 알려져 있다. 노동부대에 소집되어 세베로도빈스크 근교 채벌장에서 일하고 있던 차가이 그리고리 콘스탄티노비치는 1941년 3번이나 전선으로 갔다. 두 번은 실패했고, 세 번째 시도에서 고리키 시에 도착하여 공장 노동자로 자리 잡았고 거기에서 전선으로 나갔다. 황동국은 1941년 8월 하리코프 근방 노동부대로 파견되어 참호를 파고 있었는데 스탈린에게 ‘소비에트 조국의 적들과 직접 싸우기’ 위해 전선으로 보내 달라는 청원의 편지를 썼다. 1942년 9월 그의 청원이 받아들여져 황동국은 130 사단이 배치된 아스트라한에 파견되었다. 그는 중사로 대전차 부대를 지휘하였고 베를린 공격에 참가하였다. 한인청년들이 자기들을 최전방에 내보내 달라고 스탈린이나, K.E.보로실로프, M.I.칼리닌에게 청원했던 일은 적지 않았다.

한인들 중 일부는 성이나 민족을 바꾸어 (당시 농민들에게는 여권이 없었다) 실전부대에 불법적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그들은 징집병이 되었고 전선으로 파견되었다. 예를 들어 후에 소비에트 군대 대령이 된 니 블라디미르 아파나세비치는 전선에 배치되기 위해 아내의 성을 쓰고 부칭과 민족을 바꿔 드로즈돕스키 블라디미르 인노켄티예비치라는 이름으로 1941년 7월 지원자명단에 기록되었다. 근위대 상사 명 표트르 니콜라예비치는 부랴트인이라 칭하며 울란우데에서 전선으로 자원했다.

하사 리 알렉세이 빅토르비치는 사돕스키라는 성으로 전투에 참가했다. 김 아나톨리 보리소비치는 1943년 카즈흐 성으로 칭하며 자원해서 전선에 나갔다. 1939년 이미 노농적군이 되었던 차 그리고리 알렉산드로비치는 카

37) Хан М.Н. 60-летие трагической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из рай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Дорогой горьких испытаний : К 60-летию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 Сост. В.В. Тянь. М., 1997. С. 57.

자호인으로 1941년부터 시베리아 군관구 군사소비에트에 소속되어 있었고, 1942년부터는 대위계급으로 173 근위포병연대 대대장과 서부전선 31군 소속 160 포병연대 대대장이 되었고 1942년 8월 전투에서 사망했다.

제2 우크라이나 전선 보병중대 특무상사 김덕선은 야쿠트인 카무스 로만 플레예비치라는 이름으로 전선에 자원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더 많았었다. 전쟁 참가자의 본명과 민족은 문서자료로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문서에는 단지 공식적인 정보만이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이력은 동시대인들이나 친척들의 증언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

2차세계대전 시기 한인들은 적의 후방에서 빨치산 부대로 싸웠다. 라즈돌넨스크 구역 지역박물관(크림)의 자료들은 크림이 독일 부대와 루마니아 부대에 점령된 후, 치칼롭스크 공군학교를 졸업했던 조종사 김 알렉산드르 표드로비치³⁸⁾가 점령지역에 남아 약-세이흐스크(라즈돌넨스크) 구역의 사디르(슬라반스코예) 마을에서 빨치산 지하활동 조직가가 된 경우를 보여준다. 김 A.P.는 빨치산 부대 통합에 참가하고 소비에트부대의 점령지역 상륙도하에도 참가한다. 1943년 그는 치칼로프 빨치산 통합 부대 № 1의 대표자로 임명된다. 1944년 김 A.P.는 파시스트에게 붙잡혀 게스타포에서 고통스럽게 죽는다.

김 A.P. 대신 그의 동생인 콤포몰 소속 김 안톤 표트로비치³⁹⁾가 빨치산 부대에서 싸움을 계속하여, 1944년 과제를 수행하다 전사하였다. 라즈돌넨스크 지역 주민들은 김씨 가족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1965년 라즈돌노예의 보스토치나야 거리가 안톤 김의 거리로 개명되었다.

2차세계대전 전선에서 투쟁한 한인 여성들에 대해 특별히 언급해야겠다. 그들 중에는 간호사, 의사, 문화노동자, 전쟁 시기에 활동하는 기타 공영사업

38) См. : Шин Д.В., Пак Б.Д., Цой В.В.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М., 2011. С. 105.

39) Там же. С. 128.

노동자들이 있었다. 다음과 같은 여성들이 있었다. 유명한 한인 정치가 블라디미르 세르게예비치 이(이위중 - 20세기 초 페트르부르크 한인 대사 이범진의 아들)의 딸인 예피모바 논나 블라디미로브나⁴⁰⁾가 있다. 1927년 생 안 안나 필리포브나⁴¹⁾는 1941년 7월에 오르조니키제에서 참호를 뚫고 1942년 로스트프-나-도누, 하리코프의 전선근처 병원에서 간호사로 활동했다. 이외에도 다른 여성들이 있었다.

한인여성 전쟁참가자는 소비에트 권력 하에 태어난 한인 1세대들이다. 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슬픔이 있었다.

소비에트 한인들에게는 독일과의 전쟁 이외에도 그들을 특히 필요로 한 전쟁이 또 하나 있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일본 강점으로부터의 한국해방 투쟁에 참가하였다. 전쟁 전과 전쟁 시기 한인들은 다음과 같은 전투영역에 주로 배치되었다. 극동 전선 소속의 해병대 특수 정찰대, 자바이칼 전선 36 군 국경 정찰거점, 극동 전선 25 군 88 육군 보병부대, 극동 합동국가보안부 카멘-리볼롭스크 국경부대, 극동 전선 크라스킨스크 수색거점, 우수리스크 국경부대, 극동 전선 정치감독(선전) 7분과, 칸 군사정찰 학교, 내무인민위원회 군사정찰 동방분과, 노농적군 총참모부 특수군사학교 등등. 한인 척후병 20명 이상이 언급된 모든 군사 분야를 걸쳐갔다.⁴²⁾ 그들 중 많은 수가 중앙아시아나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한인들 중 선택되었다.

이와 같이 한인들은 모든 유형의 전투에 참가하였고, 분대 보충 분야, 군 의무대에 종사하였다. 또한 전투에 직접 참가하여 적군 분대를 지휘하고, 척후병으로 근무하거나 빨치산 투쟁 학교를 끝마쳤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러시아 성이나 우즈벡 성, 카자흐 성, 부랴트 성을 가장하여 전선에 나갔으며, 일부는 파시스트에게 생포되었다.

40) Там же. С. 64.

41) Там же. С. 37.

42) См. : Там же.

전선에서 돌아온 한인들은 원칙대로 고등교육시설에 진학하였고 훌륭한 전문가, 학자, 교사가 되었다.

3. 결론

러시아 한인들에게 자유롭게 이사를 갈 기회와 거주 이전의 기회가 생긴 이후, 북카프카즈 지역이 그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곳이 되었다. 왜냐하면 기후 조건이 보다 성공적인 농사에 잘 맞았기 때문이다. 한인들은 지역의 현지 조건에 빠르게 적응했다.

1960년~1980년 동안의 러시아 한인들의 자연스런 이주는 극동이 아니라 주로 로스토프 주나 스타브로폴 변경, 크라스노다르 변경, 카바르디노-발카르 공화국으로 이루어졌다. 북카프카즈 지역들 중 북오세티야 공화국에 상당수의 한인들이(약 3천명) 집중되었다. 상당수가 모즈독스크 지역에 살았다. 한인들은 공화국에서 농업 이외에도 상업에 종사하였다.

공식자료에 따르면, 1989년 북카프카즈에는 크라스노다르 변경에 1,157명, 다게스탄에 800명의 한인이 살고 있다. 카바르디노-발카르 공화국에는 한인 수가 7,000명에 이른다. 공화국 한인 공동체의 주요부는 프로흘라드니 시와 마이스키 시 두 곳에 집중되어 있다.⁴³⁾

한인들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은 로스토프 지역이다. 1989년 전연방 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에는 7,132명의 한인이 살고 있다. 이곳의 한인들도 역시 중앙아시아공화국이나 카자흐스탄, 사할린 섬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역의 모든 영토에 분포되어 있지만 아좁스크, 악사이스크,

⁴³⁾ Пак Б.Д., Бугай Н.Ф. 140 лет в России. М., 2014. С. 368.

바가엠프스크, 볼고돈스크 지역과 로스토프나 도누에 더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⁴⁴⁾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 한인들은 채소 재배를 하고 있다.

한인들은 스타브로폴 변강 영역에도 분포했다. 이곳에 한인들의 수는 많지 않았다. 한인들은 이웃 공화국이나 변강에서 계절노동을 위해 스타브로폴 변강의 스텝지역으로 나가거나 채소를 재배하기 위해 토지를 임대했다.

언급한 모든 지역에는 말할 나위 없이 중간단위 소조의 지도자나 기업 대표, 기타 도시 공동사업 대표, 학교 선생, 의료관계자들이 존재한다.

한인들은 어떠한 생활 조건에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생산과정에 빨리 편입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소비에트 연방의 한인들은 경제, 인민교육, 감독, 문화 등의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활동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농업 생산 영역에 종사했다. 그들은 자신의 노동으로 생활보장이라는 자신의 문제와 동시에 국가 개별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문제도 해결하였다.

한인들에게 노동이란 삶과 생존, 자녀교육, 사회에서의 존경과 인정의 원칙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어떤 사회에서든 적응하고 이해를 받는다고 N.F. 부가이 교수가 자신의 연구논문에서 소비에트 한인들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⁴⁵⁾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 1937년에서 1991년 동안 소비에트 한인들은 소비에트 국가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전후 붕괴된 폐허를 복구하는 일에 소련 모든 민족들과 동등하게 참여하였고 학문과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처녀지를 개간했다. 그들이 농업발전에 기여한 업적으로 한인들은 농업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였다.

어려웠던 1940년~1960년대에 소비에트 한인들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규합하고 단결할 수 있었다. 서로 돕고 인내하는 것만이 그들이

44) Там же.

45) Бугай Н.Ф. Корейцы стран СНГ : общественно-«географический синтез» (начало XXI века). М., 2007. С. 125.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줬고, 또한 이미 이론 결과에 머물지 않을 수 있게 도와줬다. 소련에서 400명 이상의 한인이 《사회주의 노동 영웅》의 칭호와 레닌 훈장을 받았다.

1970년에서 1991년까지의 기간은 건설적 활동과 소비에트 한인 전체의 복지수준 향상이라는 특징을 갖는데, 이는 한국과 러시아 두 문화의 상호작용 덕분에 가능했다. 러시아 문화와 소비에트 권력의 영향이 지대했다. 그 덕분에 소련의 한인들은 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까지 무상으로 받을 가능성을 가졌고, 의료보장이나 다른 유형의 사회보장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다른 한편 그들은 근면, 관용, 교육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같은 한국민족의 특징을 보존하고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부터 한인들은 학문에 매진하고 있다. 수백 명의 한인들이 인문학과 기술적 분야에서 박사가 되었고, 두 명의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회원이 있다. 김 그레고리 표도로비치와 김 막심 파블로비치가 그들이다. 소련 한인들의 업적 목록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고 모든 시련을 책임감 있게 고결하게 극복해나간다는 것이다.

러시아 한인들은 러시아에 완벽하게 동화된 민족 중 하나이다. 미래 자신들의 역사적 운명과 끊을 수 없는 관련을 맺고 있는 러시아공화국 이외에 다른 민족국가란 그들에게 없다. 이는 유명한 학자 박 미하일 니콜라예비치의 말인데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3부:

재이산(1991~현재) 시기
러시아지역 한인의 이산과 정주

독립국가연합에서 고려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을 중심으로

한 발레리

1. 들어가며

우즈베키스탄 한인을 포함한 고려인이 현대 중앙아시아 역사에 남긴 탁월한 업적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1937년 강제이주로 인해 고려인의 법적 권리가 제한을 받게 되었다. 고려인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난 스탈린 민족 정책의 특성과 특권을 박탈당한 소수민족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고려인이 이룩한 뛰어난 업적은 참으로 경이롭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 분포된 한인 이주민 중 그 누구도 중앙아시아 고려인처럼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의 사회적 관계에서 그렇게 높은 지위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소비에트 한인 중 2백 명 이상이 농촌경제 부문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겨 '사회주의 노동영웅'의 칭호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고려인은 농촌경제 부문의 성공만으로 자

부심을 느낄 수는 없었다. 고려인은 공업, 건설, 과학, 보건을 비롯하여 인민 경제의 다른 부문에서 중요한 계층을 구성했다. 이 실례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에게서 찾을 수가 있다.¹⁾

2. 1989년 경제부문에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현황²⁾

전체 경제 분야	숫자(천명)	%
농림업	22,7	26,3
공업	17,2	19,9
건설	10,5	12,2
인민교육	8,7	10,1
교통 및 통신	4,9	5,7
무역, 보급, 농산물 가공	4,6	5,3
보건 및 위생	4,4	5,1
관리기관과 사회기관	3,6	4,1
주택, 시영·공영 사업, 민간부처	3,1	3,6
과학 및 과학 탐구	2,5	2,8
문화 및 예술	1,1	1,4
기타 공업과 서비스 부문	3,0	3,5
총 계	86,4	100

중앙아시아 고려인 출신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저명한 정치인들 및 부총리, 장관, 차관,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의장 등과 같은 정부 요직을 지낸 인물들이 있다.

1) 『김 B.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명부』, 타슈켄트, 2000 참조.

2) 김명길,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사회통계학적 특성,” 『김 B.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명부』, 타슈켄트, 2000, 별첨 1, 144쪽.

러시아과학 아카데미 회원 및 대학총장이나 부총장, 학장이나 부학장, 대학 이상 교육기관 내 학부의 학장이나 부학장, 학과장이나 부학과장, 학술연구소 및 프로젝트 수행 연구소 내 분과나 하부 분과의 분과장 같은 교육과 학문 분야의 지도자들이 있다.

대규모 공업, 금융업, 농업부문의 국영 및 민간기업, 국영 항공회사, 은행들의 회장이나 사장들이 있다.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있다. 올림픽메달 수상자, 세계나 유럽 챔피언 대회 의 챔피언들, 프로스포츠의 챔피언들, 여러 국제대회의 챔피언들, 전소연방과 독립국가연합 챔피언대회의 챔피언들, 혼성팀의 노련한 트레이너들,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위원들, 여러 스포츠협회의 회장들이 있다.

국제적 명성을 지닌 작가, 작곡가, 화가, 연극배우, 오페라배우, 발레리나와 발레리노 등이 있다.

3. 고려인이 우즈베키스탄 농업 발전에 끼친 공헌

강제이주 이후, 고려인의 절대 다수는 콜호즈와 슝호즈에 집중되면서 농업 생산활동에 전념했다. 당시 고려인 콜호즈는 기계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중앙아시아 자연과 기후 및 토양 조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콜호즈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심각했다. 그럼에도 정착 초기 고려인은 이미 높은 수확량을 달성했다. 이에 대해 전소연방 볼셰비키 공산당 산하 우즈벡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볼셰비키 공산당 중앙위원회 농업부 부장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³⁾

3) 김 П.Г.,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이주민에 대해,” 『카자흐스탄 한국학 통보』 6권, 알마티, 1999, 49쪽.

“타슈켄트 주 주요 지역의 콜호즈들이 벼농사의 농작법에 관해 수준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그 결과, 이주한 고려인은 매우 높은 수확량을 거두었는데 개별 가정의 수확량은 2톤에서 4톤, 개별작업반의 수확량은 7톤에 이르렀다.”

고려인 콜호즈 대원들은 고려인의 전통적인 작물인 벼나 콩에서만 높은 수확량을 올린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우즈베키스탄 스투드네치르치크 지역에 있는 콜호즈 《폴라르나야 즈베즈다》는 1941년부터 목화재배를 시작했다. 당시 스투드네치르치크 지역 콜호즈들의 평균 목화 생산량은 1헥타르당 2.18톤이었다. 그런데 고려인 농민들은 이미 초기에 1헥타르 당 3.87톤을 수확했다.⁴⁾ 그리고 1944년~1946년 그들은 1헥타르 당 3.94톤을 수확했다.

또한 고려인은 밀, 사탕무, 감자, 전류, 양파, 참외 등의 수확량에서 최고 수확량을 달성했다. 가령, 1헥타르당 0.9톤~1.1톤의 밀을 수확할 계획이었는데 고려인은 3톤~3.8톤의 밀을 수확했다. 또 사탕무는 1헥타르당 25톤~26톤을 수확할 계획이었는데 고려인은 50톤~80톤을 수확했다. 뿐만 아니라 감자는 4톤~4.5톤을 수확할 계획이었는데 15톤~50톤을 수확했다.

‘특수한 이주’와 정권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이 정부로부터 포상을, 그것도 집단적으로 받기 시작했다는 것은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콜호즈 《폴라르나야 즈베즈다》에서는 선도적인 고려인 6백명 이상이 훈장과 메달을 받았으며 그들 중 26명은 사회주의노동영웅의 칭호를 받았다.⁵⁾

1940년대 말부터 1970년대까지 농업활동에서 보여준 높은 업적으로 2백명 이상의 고려인이 사회주의노동영웅의 칭호를 받았다. 그런데 1천명이 여러 종류의 훈장과 메달, 존경스런 칭호를 받았다는 사실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전체 고려인의 수와 고려인 영웅의 수를 비교해보자. 해당 민족의 개

4) 『선도적 콜호즈 ‘폴라르나야 즈베즈다’의 경제』, 타슈켄트, 1954, 12쪽.

5) 김승화(Ким Сын Хва), 『소비에트 고려인사 개요』, 알마-아타, 1965, 234쪽.

체 수와 수상자들의 수를 상호 비교하면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의 다른 민족들 중 단연 소비에트 고려인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콜호즈 《플라르나야 즈베즈다》의 회장 김병화(Ким Пен Хва)는 두 번이나 참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다. 전체적으로 사회주의노동영웅의 칭호를 두 번이나 세 번 받은 경우는 모두 전쟁 이후의 일이었다. 이에 관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60년대 말 그와 같은 사람들은 총 65명이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고려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전소연방의 역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사회주의노동영웅의 칭호를 두 번 받은 사람은 모두 세 사람이 있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 김병화이다.

새로운 땅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고려인은 성실성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목화나 전구같은 새로운 작물을 재배해도 이미 몇 년 후면 최고 수확량을 달성했다.

중앙아시아 여러 공화국들에 있는 십여 개의 콜호즈와 슝호즈가 고려인의 지도를 신뢰하게 되면서 고려인은 농업부문에서 그 조직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또 고려인은 지역 단위, 주 단위, 공화국 단위와 전연방 단위의 농업경제 부문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했다. 이런 사람들로써 우즈베키스탄 국립수산업 위원회 위원장 정(X.T. Тең), 우즈베키스탄 농산물부 차관 정(H.Д. Тең), 우즈베키스탄 청과물재배부 장관 정(X.T. Тең.),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양봉협회 회장 윤(M.И. Юн), 카라칼팍스탄 농업부 산하 곡물제품부 부장 장(H.H. Тяң) 등을 들 수 있다.

4. 고려인이 공업, 금융업 및 다른 경제 부문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

고려인은 농업부문에서의 공헌과 함께 중앙아시아 공화국의 다른 경제 부문에도 실질적인 공헌을 했다. 그들은 공화국 차원의 공업협회를 이끌었으며 국가 기관의 여러 분야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했다. 예컨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은 공화국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지위를 차지했거나 차지하고 있다. “우즈오토사노아트트랜스(UzAutoSanoatTrans)”사의 회장 김(Е.Х. Ким), “우스트랜스가스(UzTransGas)”사의 회장 조(В.И. Тё), 국영항공기회사 “우즈베키스톤 나보 율라리(Uzbekiston Havo Yullari)”사의 회장 장(В.Н. Тянь), 경공업기업인 “우즈레그프롬(UzLegProm)”사의 이사회 부회장 김(Ф.Н. Ким), 자동차제작사 “우즈마쉬프롬(UzMachProm)”의 부회장 한(А.М. Хан), 교통시설물 제작기업인 “우스트란스스트로이(UzTransStroy)”사의 부회장 김(Л.П. Ким), 우즈베크 부문별 연합인 “쇼들릭(Shodlik)” 회장단의 소비에트 이사회 회장 오가이(В.В. Огай) 등이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은 많은 공업기업에서 회장단의 지위를 차지했거나 차지하고 있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알마타 공장 공장장 김(Ф.М. Ким), “이르마취(IrMach)” 안디잔 공장 공장장 박(В.Г. Пак),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공장 아한가란 공장 공장장 백(Л.Х. Пяк), 금속제품 생산 공장인 마르길란 공장 공장장 김(М.Ч. Ким), 음료수와 맥주 생산 공장 누투스 공장 공장장 김(В.М. Ким), 타슈켄트 합성기계 공장 공장장 정(Э.В. Тен), 타슈켄트 스포츠용품 생산공장 공장장 장학봉(Тянь Хак Пон), 타히아타쉬 건물 부속기계 수리공장 공장장 채(Н.Д. Цхай), 토이-테핀 제철제품 생산공장 공장장 신(В.В. Шин), 우즈베키스탄 불용해성 금속과 내열금속 생산업체 콤비네이션 회장 박(В.И. Пак), 목화수확용 기계생산공장 공장장 천(В.А. Чжен)

등이 있다.

고려인은 금융, 세무, 보험 분야에서도 높은 지위를 차지했거나 차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우즈베키스탄 국유재산 분배 및 국가투자펀드 본부의 부분부장 김(Г.С. Ки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산하 회계검사원 위원회 총감독관 김(А.В. Ким), 우즈베키스탄 국가가격조정위원회 산하 부처의 부장 방(Т.А. Пан) 등이다.

페레스트로이카와 이후 이어진 독립의 기간 동안 은행 시스템이 발전했는데 고려인은 이 부문에서도 고위직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이 분야에 있는 고려인들과 그 직책은 다음과 같다. 우즈베키스탄 국립은행 은행장 박(А.Т. Пак), “트라스트 은행(Траст Банка)”의 은행장 박(В. Н. Пак), “인베스트 은행(Инвест Банка)” 이사회 회장 지가이(В.В. Дигай), “우즈레그콤 은행(UzLegCom Bank)” 이사회 회장 김(А.К. Ким), “알로크 은행” 이사회 회장 김(К.А. Ким), “인베스트 은행(Инвест Банка)” 이사회 부회장 방과 지가이(Т.А. Пан, В. В. Дигай), “아사크 은행(Асака Банка)” 이사회 부회장 김(А.К. Ким) 등이 있다.

5. 학문, 교육, 문화

고려인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이다. 고려인은 학업을 위해 여권에 명시된 관할지역이나 거주지를 떠나는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야만 했다. 고려인은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키예프, 그 외의 다른 대도시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안 해본 행동이 없었다. 다른 사람의 서류를 이용하기도 했고 자신의 여권에 기재된 빨간

글씨를 세탁하기도 했다. 그 결과 그들의 일부는 위대한 학자나 전문가가 되었다.

이미 1950년 초에 고려인이 쓴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되었다. 고려인은 물리학, 수학, 지질학, 기계학, 농학, 수의학, 지리학, 화학, 생물학, 의학, 약학, 철학, 역사학, 경제학, 정치학, 법학, 어문학, 교육학, 예술학 등의 분야에서 박사학위와 대박사학위를 받았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학자 명부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중 박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 받은 사람은 모두 3백 명 이상이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학자들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회원 1명, 대학 총장 2명, 부총장 8명, 아카데미과학조사연구소 부소장 1명, 대학이나 연구 및 프로젝트 기관의 학장과 학과장 및 실험실 실장을 지낸 사람이 10명 정도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활동하는 고려인은 학교의 교사부터 교장까지 그 폭이 넓다.

고려인은 문화예술의 여러 분야에서도 명성을 떨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 부류의 사람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들 수 있다. 발레의 예가이(В. Егай)와 К.Н. 김, 연극의 Г. 신과 고가이(О.Н. Когай), 고전음악의 А.Б. 김, Н.Х. 이, С. 전, 민속무용의 Е.Н. 김, 황정옥(Хван Ден Ук), 고전무용의 Р. 강, 회화의 В. 안, Г.Н. 강, Е. 이, Б.А. 김, Г.Н. 김, А.В. 이, Н.С. 박, Н.С. 신, И. 신 등, 작곡의 Д.Н. 이, 박영진(Пак Ен Дин), Е. 박, 정인묵(Тен Ин Мук), 산문과 시의 조명희, 우가이 재욱(Угай Де Гук), В. 이, Б. 박, М. 김 등, 연극과 TV 감독 Г.Н. 김, 예가이(Эгай С.В.) 등이다. 고려인 문화활동가들의 일부는 ‘우즈베키스탄 공로배우’, ‘우즈베키스탄 공로문화인’, ‘우즈베키스탄 공로예술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6. 스포츠

고려인은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의 스포츠 발전에도 생생한 공헌을 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스포츠맨들은 다음과 같은 상을 차지했다.

역도. 공화국 선수권대회 우승자 B.A. 리가이와 B.Ю.; 소연방 선수권대회 우승자 B.И. 안과 B.A. 리가이; 우즈베키스탄 선수권대회 우승자 Д.Ф. 김. 유도. 우즈베키스탄 및 소연방 선수권대회 우승자 H.P. 안.

삼보. 우즈베키스탄 챔피언 Г.Г. 김, B.A. 김, P.M. 김, Ю.С. 김, M.Д. 이, 카자흐스탄 챔피언 B.A. 김, 소연방 청소년선수권대회 우승자 Г.Г. 김, P.M. 김, 소연방 선수권대회 우승자 M.Ф. 안, 유럽 챔피언 M.Ф. 안,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우승자 M.Ф. 안,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우승자 P.M. 김,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P.M. 김.

쿠라시 격투기. 우즈베키스탄 챔피언 И.О. 니가이.

권투. 우즈베키스탄 챔피언 A.Д. 최, 우즈베키스탄 선수권대회 우승자 A. Д. 진, A.П. 양, 소연방 챔피언 Ф.Ф. 박, 소연방 우승컵 소유자 Ф.Ф. 박, 소연방 선수권대회 우승자 Ф.Ф. 박, B.H. 신, 소연방군인선수권대회 우승자 Г.Б. 정, B.H. 신, 소연방군인 선수권대회 우승자 P.A. 염, 유럽청소년선수권대회 우승자 Ф.Ф. 박, 소연방 선수권대회 우승자 B.H. 신, 세계우승컵 소유자 B. H. 신.

그레코-로만형 레슬링. 우즈베키스탄 챔피언 M.H. 리, O.Л. 백, 소연방 선수권대회 우승자 M.H. 이.

가라데. 우즈베키스탄 챔피언 A.Ф. 이, A.B. 이, M.H. 리, B.B. 리가이, O.Л. 백, 소연방 선수권대회 우승자 M.H. 이, Ә.Н. 이, H.A. 유가이, 소연방 선수권대회 우승자 A.B. 이, O.Л. 백, 소연방청소년선수권대회 우승자 A.B. 이.

태권도. 우즈베키스탄 챔피언 A.Ә. 김, A.B. 이, A.A. 니(Нн), A. 전; 유럽

챔피언 Э.Н. 리, 유럽선수권대회 우승자 А.Э. 김, О.В. 김,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О.В. 김, Л.Ю. 리,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우승자 Л.Ю. 이.

축구. 우즈베키스탄 챔피언 С.В. 니(Нн), 유럽청소년선수권대회 우승자
М.И. 안.

핸드볼. 우즈베키스탄 챔피언대회 우승자 А.Е. 함.

배구. 우즈베키스탄 청소년대회 챔피언 А.Р. 김

하키. 우즈베키스탄 챔피언, 소연방 선수권대회 우승자, 아시아 챔피언대
회 우승자 А.А. 김, И. 엄, 소연방 챔피언 А. Е. 함,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자
Л. 이, 올림픽대회 우승자 А.Е. 함.

펜싱. 카자흐스탄 챔피언대회 우승자 М.Н. 김.

탁구. 우즈베키스탄 챔피언 В.А. 신.

체스. 우즈베키스탄 챔피언 О.С. 김, А.Ч. 헤가이.

고려인은 스포츠 부문에서 개인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맨 양성에도 지대한 역할을 했다. 다음과 같은 우즈베키스탄 국가대
표팀의 감독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유도인 М.Ф. 안, 태
권도의 Э.Н. 이, О.Л. 백, 권투의 В.Н. 신, 역도의 Л.Ф. 김, 피겨스케이트의
И.А. 한, 하키 여자대표팀의 И.А. 황, 카라칼팍스탄 국가대표팀 감독 В.А.
박, 태권도 소연방국가대표팀 감독인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О.Л. 백 등이다.

이 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은 스포츠행정부문에서도 높은 지위를
차지했으며 현재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로는 우즈베키스탄 올림픽국
가대표팀 총서기 В.В. 리가이, 우즈베키스탄 국가스포츠위원회 부회장 В.В.
변, 쿠라쉬 아시아연맹 총서기 В. В. 리가이, 우즈베키스탄 유도연맹 총서기
Ю.С. 김, 우즈베키스탄 체스연맹 집행위원장 겸 총서기 Р.В. 김, 아시아태권
도연맹(ITF) 회장 В.В. 리가이, 우즈베키스탄태권도연맹(WTF) 회장 О.Л. 백
과 А.В. 이, 우즈베키스탄유도연맹회장 М.Ф. 안, 우즈베키스탄씨름연맹부회
장 유가이 등이 있다.

7. 국가권력 기관

고려인은 권력의 여러 부문도 진출했다. 정부 고위직에 대해 언급하자면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은 다음과 같은 직위에 올랐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부총리 B. A. 진
국유재산과 국유재산 사유화 관리 국가위원회 위원장 B. A. 진
지방공업부 장관 B. A. 진
국가수산업위원회 위원장 X. T. 정
건설부 차관 H. II. 정
곡물제품부 차관 H. II. 정
청과물경제부 차관 X. T. 정
지질과 광물자원 담당 국가위원회 부위원장 P. B. 최
카라칼팍스탄공화국 노동부 차관 P. M. 이
카라칼팍스탄공화국 교육부 차관 A. A. 박.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각 주와 지역 및 도시행정기관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베르흐네치르치크 지역의 치르치크, 안키예르, 누쿠스, 페르가나와 같은 지역에서 그러하다.

고려인들은 또한 각계각층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도시 차원에서는 안디잔, 안그렌, 알말리크, 아한가란, 베카바트, 코칸트, 마르길란, 나보이, 누투스, 사마르칸트, 타슈켄트, 탈리마르잔, 타히아타쉬, 테르메스, 페르가나, 치르치크와 같은 도시에서 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지역차원에서는 스투드네치르치크와 베르흐네치르치크 지역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주 차원에서는 안디잔, 부하라, 사마르칸트, 시라린, 타슈켄트, 페르가나와

호레즘 주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김병화, 황만금, 신정직, 정해균, H.B. 김은 여러 차례 우즈베키스탄 상원 의원에 선출되었다.

또한 A. 강, J. 이와 B.И. 조와 같은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은 소연방 최고입법기관과 상원의회에서 활동했다.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한 이후 고려인 C.C. 김은 국회의원으로, B.Б. 박은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었다.

8. 선거에 앞서

페레스트로이카와 그 이후 이어진 독립의 기간은 고려인의 삶과 직업, 새 국가체제에 맞는 장기적인 생존 계획 등에 현저한 영향을 주었다. 소연방이 해체된 이후 고려인이 공직을 떠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독립 초기 고려인의 직업 변화에는 독립국가연합 여러 나라들의 경제 위기가 강하게 반영되었다. 소비에트 인민경제 복합체는 각 부문이 정말 조밀하고 거대하게 연결된 매우 복잡한 유기체였다. 소비에트 경제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율은 70%를 상회했다. 소연방의 해체가 가져온 경제적 연결고리의 붕괴는 포스트소비에트라는 공간에서 정말로 모든 기업의 활동을 정지시켰다. 수많은 기업들이 완전히 활동을 멈추었으며 그 기업의 인적 자원들은 부득이하게 무급휴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협동조합은 인접한 여러 기업들이 함께 엮여 있는 복잡한 시스템이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고도의 기술력 갖춘 공장들은 살아남기 위해 냄비, 대야, 유모차 그리고 그다지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은 다른 물품들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대대적인 감축은 전문가들을 외국으로 떠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가들의 대규모 양산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고려인이 국가경제 부문에서 사기업 부문으로 이동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경제적 자유화와 국가부문의 위기 그리고 소연방 해체 이후 조성된 새로운 정치적 현실이다.

이것이 어떻게 표출되었을까?

우선 주민의 구성에서 수적으로 다수인 민족들의 비중이 증가했고 다른 민족들의 비중은 낮아졌다. 이에 대한 증거로 민족적 소수 집단이 중앙아시아에서 다른 나라로, 특히 러시아로 꾸준히 이민을 떠난 사실을 들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데이터를 참고하면, 이미 1980년대 중반 5만 명 이상이, 90년대에는 8만~9만 명 이상의 인구가 줄어들었다. 독일인, 크림 타타르인, 유대인, 터키인들은 거의 모두 떠났다. 이민은 러시아인, 백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서도 명백한 현상이었다.⁶⁾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높은 이민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민 과정에서 나타난 고려인의 수적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수는 1989년 183,140명에서 2001년 1월 1일에 172,384명으로 감소했다.⁷⁾ 그 이후에도 고려인의 수적 감소 현상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우즈베키스탄 국가위원회의 통계 수치에 따르면 고려인의 수는 2002년에는 16만 9천6백 명, 2003년에는 16만 6천1백 명, 2004년에는 16만 1천7백 명, 2005년에는 15만 7천3백 명, 2006년에는 15만 명, 2007년에는 15만 1백 명, 2008년에는 14만 7천7백 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독립국가연합국가들에 속한 제 민족의 이민으로 야기된 가장 복잡한 문제 중의 하나는 새로운 언어 상황이다. 중앙아시아 모든 공화국들에서 수적으로 다수인 민족의 언어가 국가공영어가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수적으로 소

6) 아타-미르자예프 O. · 겐트쉬케 B. · 무르타자예바 P, 『다민족 국가 우즈베키스탄 : 역사·사회통계학적 관점』, 타슈켄트, 1998, 73~75쪽.

7) 김 B. Ⅱ,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 과거와 현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역사, 문화 그리고 생활』, 바쉬케크, 2003, 46쪽.

수인 민족의 구성원들은 그 언어를 사용할 줄 몰랐다. 공직에 진출하려면 국가공용어가 된 언어의 습득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는 국가 기관이 해당 언어 사용자로 채워지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것이 다시 고려인의 이민을, 또 국가 기관에서 근무하던 고려인이 국가공용어의 습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부추겼다.

특히 많은 고려인이 상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중 1천 명이 개인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등록증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고려인은 가장 먼저 집단적으로 도매업 부문에서 성공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큰 도매시장인 《이포드롬》이다. 이 시장은 우즈벡 시장과 고려인 시장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고 현재도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인구 구성 비율에서 고려인은 1% 이하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나라의 대규모 도매시장에 ‘고려인 시장’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상업 부문에서 고려인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었는지를 말해준다.

고려인이 열정적으로 지향하는 개인 사업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크게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유형의 사업은 특별한 전문 지식이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우선 이것은 소규모 도매업이다. 사업가들은 특정 나라들에서 의류, 화장품, 장난감이나 몇 가지 식료품, 전기제품 등을 구매한 뒤 자신의 거주지에서 되판다. 따라서 상품의 특성이나 상품의 종류에 대한 문의 사항과 관련된 전문 지식의 습득은 매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두 번째 유형의 사업은 특정한 기술이나 경험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외식업, 건설업, 수선사업, 자동차 서비스업, 복잡하지 않은 여러 종류의 상품 판매 등이다.

세 번째 유형의 사업은 고등교육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1990년대 고려인 프로그래머들은 타슈켄트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컴퓨터 회사에서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고려인 의사들은 여러 분야의 병원에서 대다수를 차지했다.

상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와 공직에 진출한 고려인의 감소는 소비에트 시대에 고려인이 택했던 직업의 균형을 일정 정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려인 대학생들, 과학과 기술 전문가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젊은 고려인 전문가들이 과학, 교육, 문화, 의료 및 기타 부문에서 비즈니스 부문으로 이동했다. 현재 이미 직업의 계승성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문에 열정적으로 전념했던 젊은 고려인 학자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독립국가연합의 모든 민족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적 잠재능력을 가진 고려인 이주민들의 상실이라는 현실은 수적으로 다수인 민족들에게서 보다 더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다.⁸⁾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 앞에 제기된 새로운 도전은 고려인문화센터연합회의 필요성과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전략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⁸⁾ 한 B. C. · 김 Γ. H, “고려인 이주민의 현안 문제,” 『국제저널 중앙아시아학』, 서울, 제5호, 52쪽.

오늘날 극동 러시아의 한인 디아스포라 : 발전 상황과 경향

트로야코바

1. 들어가며

15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러시아 내 한인 디아스포라는 그동안 모순되고 비극적인 길을 걸어왔다. 19세기 후반, 한인들의 공동체 의식 형성은 러시아 제국 극동 변방지역의 식민지화를 배경으로 진행되었다. 내전 이후, 소비에트 정권은 국가정신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했는데, 이는 한인 디아스포라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모든 민족의 단결을 위해, 외부로부터는 위협이 계속되고 내부에는 적들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신화가 초반 10년 동안 지지를 받았고, 1930년대에는 한인들이 ‘고의적 음모’의 희생양이 되었다. 소련시절에는 국가와 동일시하는 이데올로기적 양상에 초점이 주로 맞춰져 있었다. 다양한 민족 집단마다 소비에트 정체성은 그 중요도가 달랐다. 중앙아시아의 공화국들로 이주 당한 한인들에게 소비에트 정체성은 2순위로 밀려났고, 민족·지역적 요소가 우선순위를 차지했다. 1960년대, 소련 극동

에는 한인들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주된 변화는 1990년대 초반에 일어났다.

이 글에서는 러시아 극동의 새로운 한인 디아스포라 형성에 관한 다양한 양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인 디아스포라의 정의와 특징에서부터 시작된다. ‘러시아’ 한인과 ‘러시아어권’ 한인이라는 용어에 대한 논의는 ‘러시아 한인’이라는 용어 사용에 근거를 부여해준다. 〈줄로토이 로크〉신문과 〈프리마미디어〉 및 〈데이터〉통신 사이트에 1996년부터 2012년까지 게재된 한인 디아스포라 활동에 대한 보도의 내용분석 자료는 한인 디아스포라 활동 현황과 방향에 관한 명료한 결론을 이끌어내게 해 준다.

2. 한인 디아스포라의 특징

디아스포라는 인간 상호관계의 특정한 유형이며, ‘역사적 조국’에서 기인한 공통성 혹은 역사적 기억에 대한 관념 그리고 그러한 시초에 대한 신화에 기반을 두고, 받아들이는 사회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공식·비공식적 교류의 독특한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는 주어진 것이 아니며, 그 발생과 존속, 소멸이 시·공간과 다양한 상황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에서 볼 때, 민족의 발원지를 떠나 살고 있는 단일 민족 집합체의 존재는 새로운 조국에서 다수가 뿌리를 내리며 살게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디아스포라가 되지 못한다. 이는 단지 디아스포라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일 뿐이다. 러시아는 모든 집단의 탈소비에트화 결과로 한인 디아스포라가 형성 과정 중에 있다고 하겠다. 최근 20년간 한인들에게 있어 주된 요소 중 하나는 종종 고향땅의 영토적 공통성을 통해 표출되는 민족적

소속감이었다. 일례로 1990년대 초에 연해주에 한인 민족관구를 창설하자는 제안이 일었다.¹⁾

소비에트 정권의 정책은 한인과 그 후손들의 자아감, 그들의 자기정체성, 생활양식 및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소련 시절 정부는 한인들의 민족 자체조직을 매우 불신했으며, 그들을 소비에트화 하여 가능한 최대한 러시아화 시키려고 애썼다. 그러한 정책의 결과중 하나가 한인과 그 후손들의 가치를 보편적인 척도에 두고 민족 정체성의 중요성을 축소시키는 것이었다.

스탈린의 탄압과 강제이주에 대한 슬픈 기억이 한인들로 하여금 국경밖에 있는 ‘발원지와의 교류’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디아스포라를 드러내 보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으며 성공적인 삶의 전략을 세운다는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기까지 했다. 소련이 존재하던 시기에 적응과 성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써 민족성이 과연 한인들의 생의 전략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

이후 러시아 한인들의 위치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러시아 내 민족 간의 교류에도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으로는 공식적인 국제주의 정책의 종료와 함께 민족 자주성 문제가 더 이상 금지사항이 아니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 부흥’이라 불리는 과정이 도처에서 확대되었다.

민족성과 민족적 요인의 중요성이 사회적 동원과 권력 투쟁의 수단으로 정책에 포함되었다. 다수의 사회적 갈등이 민족적 색채를 띠었다. 기존의 민족적 선입견, 편견,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게 되었고, 이는 러시아 내 사회적 관계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예전에도 소수민족 대표들을 집단이라 여겼으나, 이제는 공식적 입장에서 대중적이고 공개적 성격을 띤다. 그러한 태도는 중립적이거나 부정적 혹은 긍정적 색채를 띠 수 있지만 어찌 되었든 러시아 한인들을 강화시켜 스스로가 그런 자격이 있음을 깨닫게 만든다.

¹⁾ Нам С. Г.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район. Пути поиска исследователя. М. : Наука, 1991. С. 21.

현재 러시아 극동에 있는 한민족은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지난 20년간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귀환한 한인들이 제1그룹을 구성한다. 한인들의 이주 풍조가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로, 1993년 4월 러시아 연방 최고회의에서 “러시아 한인들의 복권에 대한” 결정을 수렴한 이후이며,²⁾ 그 중 상당수인 2만 명 이상이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다. 계통에 따르면 이들은 러시아제국 국경지대로부터 극동으로 이주했던 한인들의 후손에 속한다.

제2그룹은 1920년대부터 사할린 섬에 거주했던 한인들이다. 그들 중 상당수가 일본 통치하에 일거리를 찾아 사할린으로 떠난 사람들이다. 이들은 주로 한반도이남 출신들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부 한인들은 사할린을 떠났지만 나머지는 소비에트 시기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살려고 남았다. 그들 중 일부는 공민권조차 없었다. 최근 20년 동안 이 그룹에는 구성원들의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사할린 주 한인들의 수는 3만 명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제3그룹에는 정치 체제 민주화의 결과로 1950~1960년대 중앙아시아로부터 연해지방으로 이주 온 한인들이 속한다. 1960년 말, 어업분야 일자리로 한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체결된 소련과 북한 간의 협정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소련에 남게 된 한인들도 이 그룹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시기 한인들의 수는 몇 천 명을 넘지 않았다. 1959년 전소연방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연해주에는 6,592명이 살았다.³⁾ 그 이후의 전소연방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연해주에 사는 한인 수는 1979년의 8,125명에서 1989년의 8,454명 사이를 오간다.⁴⁾

한해 규모 5천~1만 명인 러시아 극동의 북한 노동자들이 지방의 한인 디아스포라 발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여지

2) Реабилитация народов России.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и материалов. М., 2000. С. 192~193.

3) Итоги Всесоюзн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1959 года. РСФСР. М., 1963. С. 334.

4)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РСФСР : по данным Всесоюзн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1989 г. М., 1990. С. 145~145.

가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2007년 정부 간에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북한 간의 노동이민자 규제 조치에 관한 협정에 준하여 연해주, 하바롭스크 주, 아무르 주에서 일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북한 사람들의 교류는 다양한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나훗카와 하바롭스크에 각각 북한 영사관이 있는데 이곳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한민족의 명절에 진행되는 행사에 러시아 한인 사회단체 대표들도 참석한다. 일례로 2006년 6월 기업가 박 V.P.의 주도로 2000년에 있었던 한반도 북남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아르툼에 있는 고려인문화센터에서 북한 총영사 안준균과 대한민국 총영사 전대완이 처음으로 만났다. 2007년 6월 고려인문화센터에서 가진 모임의 참석자 중에는 남북한 총영사들뿐 아니라 연방, 변경, 구역 기관장들과 사회 단체장들, 교육 기관장들도 포함되어 있었다.⁵⁾

극동의 몇몇 도시에 문을 연 북한 식당들은 러시아 한인들과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의 교류의 장소가 되고 있다. 그밖에도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아파트를 수리해 주는 등의 부업을 한다. 이런 과정까지 고려되기는 힘들었지만, 그들의 근면함과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에 대한 의견은 이미 생겨났다. 한인 디아스포라가 북한 국민들과의 연계에 협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 20년 간 일어난 급진적 변화 요인은 월경 이민의 폭발적인 증가 결과로 새로운 상황이 조성된 점이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경제적 시장변화, 국경의 개방, 이동의 자유였다. 이전의 국내 이주는 소련 해체와 함께 월경 이민이 되었다. 어제의 동포가 (바로 이웃나라이긴 하지만) 오늘날의 외국인이 되었다. 한인들은 경제적, 문화적, 법적 문제의 새로운 상태와 유형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되는 ‘민족 부흥’과

⁵⁾ Дробышева И. Две Кореи соединились в Приморье.// Золотой Рог. 19.06.07. С.3.

정과 새로운 국가조직 창설은 이민족 정치를 기반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들 나라를 떠나고자 하는 한인의 수가 증가하고, 동기부여 체계, 생활양식, 적응 가능성 및 수단이 변하고 있다. 이러한 풍조와 유형의 이주 한인들은 집단적 협력 체제와 친족, 씨족, 민족 관계망을 훨씬 더 필요로 한다. 한인 집단의 수가 증가하고, 집단은 유입되는 새로운 이들로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러시아 한인은 1990년대 18,000명에서 현재 25,000명으로 그 수가 증가하였다. 러시아 한인들로 인해 주민 '민족 구성'의 복잡함이 특히 눈에 띄는 곳은 연해주 아르툰 시와 우수리스크 시이다.

이 요인들은 민족성과 민족 정체성의 구조적, 구성적 의미를 확대시키고, 디아스포라적 자의식을 형성하며, 디아스포라의 탄생을 돕는다. 예전에도 존재했던 민족적 토대위에서 조직 및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생존수단과 업무 및 사회적 성공의 중요성이 질적으로 변한다.

몇몇의 경우, 양적 성장이 이미 질적 변화를 가져왔지만, 이는 이러한 양적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집단의 등장으로 표현되는 고유의 '정신적 성장'이 자의식과 주변 통찰력에서 일어난다. 러시아 한인들은 자신을 단일 집단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의 집단 구성원처럼 행동하고, 민족적 토대 위에서 관계를 형성한다.

국내의 새로운 정치·사회적 상황, 민족적 요인의 보편적 활성화, "탄압받은 민족의 복권에 관한" 법령과 결정의 시행을 위한 투쟁의 필요성, 이 모든 것이 러시아 한인들로 하여금 정치·사회적 적극성을 강하게 고조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 1990년 우수리스크에 민족문화센터가 창립되어 영내에 한국어 학교가 개설되고, 한민족 합주단 '아리랑'이 탄생했다.

한인 디아스포라의 형성과정에 대한민국 정부기관과 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에 있는 인적 요소로써 문화, 언어 및 정보 공간의 유지 및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대외정치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1990년 9월 양국 간의 외교 수립 및 정상화 이후, 러시아 극동에는 정치, 경제, 문화 부문에서의 교류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1992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설치되었으며, 코트라 블라디보스토크 대표부는 1992년 2월부터 러시아 극동에서 남한 제품의 판촉과 투자를 담당하고 있다.

1996년 “민족문화 자치권에 관한” 법적 틀 안에서 한민족문화자치기구(HIKA)가 설치되었다. 우수리스크 한민족문화자치기구는 2004년 한인주간신문인 〈고려신문〉의 창립자가 되었다. 개인, 사회단체 〈동북아평화연대〉, 대한민국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이 신문 발행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1995년 3월 대한민국 교육부는 극동국립대학교와 함께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현지 주민들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에 교육원을 개원했으며 현재까지도 그 업무는 계속되고 있다. 극동국립대학교의 한국학 학부는 1995년 9월 신축 건물을 기증받아 한국학 고등대학이라 부르게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2012년 극동국립대학교가 극동연방대학교로 개편되고 ‘러시아’ 섬에 있는 새로운 캠퍼스로 이전한 후, 한국학 고등대학 건물은 예전의 위상을 상실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어와 역사, 문화에 대한 연구는 극동연방대학교 내에서 계속되고 있다.

“탄압받은 민족의 복권에 관한” 러 연방법 조항과 “러시아 한인들의 복권에 관한” 러 연방 최고소비에트의 결정이 권리 회복과 면책 부여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1993년 8월, 연해주 행정당국은 특혜성 대출과 가옥 건설 및 생산 목적의 토지를 나눠주면서, 민족 문화의 재건과 정비 과제를 유보 조항으로 붙인 결정의 시행 조치 계획을 공고히 했다. 이후에 “러시아 한인들의 민족 문화 재건 통합 프로그램으로의 제안에 대한” 결정과 “연해주에 도착한 러시아 한인 가구의 영역 배치에 관한” 결정을 수용했다. 지역 당국은 토지와 가옥 분배 가능성에 대해 통지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위기 상

황에서 가옥 및 업무 분배에 따른 연방 및 주 정부당국의 결정이 귀환한 모든 한인들에게 시행되지는 않았다.

1997년 9월에는 “연해주 영내에 철수한 군사도시 양도에 관한” 변경 이주 프로그램이 수립되었으며, 이에 연해주지역 한인들을 위한 기금인 “재생”을 무상으로 이용하여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달네레첸스키 구역, 미하일로프 구역, 나테지딘스키 구역, 한카이 구역, 호롤스크 구역, 우수리스크 구역에 있는 이전 군사 도시들 영내에 소형 촌락들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1998년부터 5년 간 약 50헥타르 규모의 토지에서 농업 정비 계획이 수립되었다. 재정적 원천으로는 목적 지향적 정부 프로그램과 개인 자금, 후원금 그리고 러시아-한국 합작사의 창립으로 창출되는 이익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 계획들을 구체화해나가는 데 엄청난 규모의 관료주의적 장애물들이 나타났다. 특히, 시민권 취득 절차 시 거주지 등록이 필요한데, 이전 수비대들이 위치한 주택 지구는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결국 연해주지역의 주택 건설과 러시아 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위해 몇 군데에서 재원을 마련했다.

한국의 <중소건설업협회>와 다수의 기타 기관들이 미하일로프 구역에서 <드루즈바>라는 상징적 이름의 촌락 건설에 착수하였다.⁶⁾ 연해주 행정 당국의 지원은 이전에 군사 공항 터였던 곳의 토지 임대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드루즈바>마을은 2004년 초반에야 공식적으로 행정단위의 지위를 획득했으며, 수행 과정에 각양 각층의 관료 2000명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했다. 건설된 주택은 지방자치의 소유이다. 주택을 소유하려해도 비싼 부동산세가 구입하기 힘들게 만든다. 한국의 투자자들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러시아 한인들을 위해 연해주의 다른 구역에서도 주택을 구입하는 등 이주민들을 돕기 위해 여러 형태를 활용하게 되었다.⁷⁾

⁶⁾ См. : Троякова Т.Г. «Корейская деревня» в Приморье : один из проектов «национального возрождения». //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е обозрение, 2008, № 4. С. 37~44.

생산·조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민족적 요소의 우위가 연해주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위기의 극복을 위한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이 생각들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한인 기관장들은 ‘한인촌’이 다양한 민족 집단 대표들의 공동 거주지와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데 동의했다.

2005년 3월 〈예진스트보〉 재단 이사장과 고려인문화센터장 박 V.P.의 지도하에 한인조직연합을 창설하여 연해주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합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해 말하자면, 연해주의 사회·경제·문화적 생활에 있어 새로운 요소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한인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와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자신들의 기관과 활동가, 일자리 창출, 집단 혹은 단체의 목표 추구와 같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3. 용어의 선택 : 러시아 한인 또는 러시아어권 한인

러시아 정보 공간, 그 중 연해주지역 대중매체는 러시아 연방 영내에서 거주하는 모든 한민족을 통상적으로 러시아 한인이라 부른다. 이 정의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이주민들과 사할린 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도 해당된다.

‘러시아 한인’과 ‘러시아어권 한인’이라는 조어가 포함된 보도의 내용 분석을 진행한 결과, ‘러시아어권 한인’에 대한 보도 보다 ‘러시아 한인’에 대한 보도 양이 훨씬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조어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사용하고

7) Пак О. «Дружба» налаживается// Золотой Рог. 5.06.07. С. 5.

있는 신문의 보도 기사와 단신을 대상으로 한 검색에서는 〈데이터 통신〉, 〈프리마미디어〉의 보도나 〈졸로토이 로크〉지 어느 곳에서도 ‘러시아어권 한인’이라는 용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별첨 1 참조).

러시아 최고의 검색 엔진인 〈안텍스〉에서 1999년에서 2013년까지 검색한 결과 러시아 신문 및 통신의 모든 보도 검색은 ‘러시아어권 한인’에 대한 보도가 5건뿐이었음을 보여주었다(별첨 2 참조). 그 중 하나가 바로 윤상원 교수와 홍용호 교수가 진행 중인 연구에 관한 기사라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이주 한인들을 ‘러시아어권 한인’이라 부르는 것이 과연 정확한 것일까? 필자는 러시아어권 한인들이라 함은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모든 한인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러시아 연방, 한국이 아닌 세계 어느 나라에 살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한민족을 포함한 러시아 국민이 이주하는 나라인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러시아어권 한인들의 디아스포라는 생겨난다.

따라서 러시아어권 한인들의 국적이나 자기정체성은 중요하지 않으며, 러시아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한민족,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한인 그리고 러시아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대한한국 국민을 러시아어권 한인으로 동등하게 포함시킬 수 있다.

러시아어권 한인이라는 용어는 러시아 국적을 가진 한민족에 적용시켜도 충분하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인을 포함한 러시아 국민은 압도적 다수가 러시아어를 구사하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의 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을 러시아어권 한인(혹은 보다 정확하게 ‘독립국가연합의 러시아어권 한인’, ‘중앙아시아 국가의 러시아어권 한인’)이라는 용어로 기술하면 적합하다 하겠다. 각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의 국어가 아닌 러시아어의 구사 여부가 한민족을 구분 짓는 특징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은 러시아로부터의 이주(혹은 강제 이주)민과 더불어, 자신들도 러시아 한인

이라 부르는 것을 허용하는 중앙아시아의 러시아어권 한인들의 자기정체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러시아 한민족의 경우, 러시아 한인이라는 용어는 민족의 소속과 현재의 한민족 선대 중 몇 대가 거주한 나라를 나타낸다. (중앙아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을 포함해) 러시아에 거주 중인 한인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러시아 연방 다른 민족 집단의 일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생겨난 문화·언어적 차이를 감안하면, 러시아 한인이라는 용어가 러시아어권 한인이라는 용어보다 러시아 한민족을 더 정확하게 기술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4. 연해주 언론 보도에서의 한인 디아스포라

주간지 <졸로토이 로크>를 선택한 이유는 업무 영역으로 연해주 뿐 아니라 러시아 극동까지 목표를 둔 발행 특징 때문이다. 1996년도를 선택한 이유는 간행물의 전자신문 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1996년부터 2012년까지 ‘한인’, ‘한인 남성’, ‘한인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204건의 보도(기사, 단신)가 신문에 실렸다.

한인들이 언급된 보도의 대부분은, 연해주지역과 극동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 혹은 북한 출신 노동자에 관한 내용이다. 중앙아시아에서 되돌아온 한인들에 대한 기사 중 3건은 한인 여성 올가 박이 쓴 기사라는 것은 지적할만하다.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로 되돌아온 한인들에 관한 내용은 15건의 기사와 단신뿐이다. 사할린에서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한 한인들에 대한 기사는 드물게 찾을 수 있다.

러시아 한민족의 민족적 가치 회복과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실현함에 있

어 다른 민족들과 동일한 가능성을 러시아 한인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런 과정의 모범적인 사례 중 하나가 연해주로 한인들이 대거 귀환하는 제안과 한민족구의 지위를 받을 수 있는 전망이 있는 한인경제구역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의 주도자 중 한 명이 역사문서 연구를 토대로 ‘소련의 한민족 복권은 한민족구와 민족농촌소비에트의 복구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그들이 상실한 모든 시민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남 S.G.이다.⁸⁾

연해주 지역에서는 이 발상에 대한 논의가 신문 지상에서와 1991년 2월 연해주 인민대의원 소비에트 평의회에서 있었다. 하지만 한민족자치구 창설에 대한 발상은 주 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한인조직 대표들의 지지도 받지 못했다. 연해주가 경험했던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러시아 한인들의 문제는 다른 해결책을 요구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05년 이 주제는 ‘한인자치구의 수수께끼’라는 기사에서 제기된 바 있으며 기자는 이 발상이 신화 같은 것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연해주 지역에서의 한인 디아스포라 활동에 대한 기사가 이전 년대보다 더 많이 실렸다. 1990년대에는 한인 디아스포라 활동과 관련이 있는 주제가 정부와 지역 주민들의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 ‘연해주 지역 한인들이 분리주의 혐의를 부정했다’(〈졸로토이 로크〉 1997년, 제63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연해주 지역 한인들의 소형 촌락 건설 예상 계획인 ‘러시아 한인들의 부흥과 가상의 ‘한인의 위협’과 관련된 연해주 내무국장의 우려에 대해 썼다. ‘한인이 한인에게 - 형’이라는 단신(〈졸로토이 로크〉 1997년, 제69호)에서는 연해지역 한인들의 이주와 귀환에 관한 컨퍼런스 ‘러시아 한인: 역사성과 현대성’에 대해 보도했다. ‘군사도시에서 한인들은 불편하다’라

⁸⁾ Нам С. Г.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район. Пути поиска исследователя. М. : Наука, 1991. С. 21.

는 기사(〈졸로토이 로크〉 1999년, 제63호)에서는 중앙아시아로부터 온 한인들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사회 보장과 경제 및 주거 지원 문제도 언급되었다. ‘한카이 땅의 한인들’이라는 기사(〈졸로토이 로크〉 2000년, 제68호)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연해주 남부지역으로 이주한 한인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한인촌”이 눈앞에서 비싸지고 있다라는 단신(〈졸로토이 로크〉 2000년, 제50호)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중앙아시아로부터 온 한인 이주민들을 위한 주택 건설에 계획된 예산이 대폭 상승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해지역 한인 문제, 문제 있다’라는 단신(〈졸로토이 로크〉 2002년, 제27호)에는 연해지역 내 “한인촌” 건설과, 건설을 진행하는 문제점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고 있다. ‘미하일로프 구역에 한인 자금 투자된다’라는 단신(〈졸로토이 로크〉 2002년, 제56호)에는 맨 먼저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한 러시아 국적 한민족을 위한 한인촌 “드루즈바” 완공에 대해 전하고 있다. 2건의 기사(‘한인 드루즈바의 운명’ 〈졸로토이 로크〉 2006년, 제72호 및 “드루즈바”가 정상화되고 있다’, 2007년, 제43호)에서는 이주지로부터 연해주 지역으로 귀환한 한인들을 위한 소형 촌락 건립의 문제점들에 대해 적고 있다.

위 보도들의 특징은 중앙과 지방당국이 표방하는 국가이민정책의 목적과 우선사항 간에 생겨나는 모순을 반영했다는 데 있다. 지방당국에게 있어 이민정책의 주요 목표는 그곳의 사회·정치·경제적 안정을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초, 특수한 정치적 지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 한인들의 노력이 연해주 이민족 간의 관계에 긴장감을 증대시켰다. 수가 급증한 한인 이주민들이 지역 주민에게 ‘자리를 비워 줄 것’을 강요했으며,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할 필요성을 표명했던 사실은 갈등의 근원이 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신문 보도의 어조나 주제가 다른 성격을 띠게 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 ‘달네고르스크에 있는 아시아의 맛있는 한입’(〈졸로토이 로크〉 2002년, 제42호)이라는 기사는 한식 레스토랑에 관한 것으로, 명백하게

상업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레스토랑 주인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주한 한인들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 한다. ‘혼자만의 저녁, 만세’(〈졸로토이 로크〉 2005년, 제88호)라는 기사는 1990년대 초 한인 이민자들과 함께 연해주 지역에 나타난 한국식 샐러드, 홍무채의 성공에 대해 상기시키고 있다.

‘어떻게 한인들을 이주시켰나?’(〈졸로토이 로크〉 2007년, 제82호)라는 기사 또한 한인들의 이주에 대한 것인데, 기사는 ‘러시아는 한인 동포들이 극동으로 귀환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라고 쓰고 있다.

2007년 이후의 기사를 보면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한 한인들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하지만 한인들에 대한 기사의 총량은 줄지 않았는데, 이는 주로 연해주 영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기업에 관한 보도 덕분이다.

극동 한인들에 관한 몇몇 기사(‘한국 미녀의 새로운 우승’, (〈졸로토이 로크〉 하바롭스크판 2005년, 제21호; ‘나는 러시아 한인, 타타르인...’, (〈졸로토이 로크〉 2009년, 제88호)에 나타난 한인들은 더 이상 이주민과 손님의 자격이 아니며, 이는 그들의 성공적인 사회와의 융합을 말해주는 증거임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표 1.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로 귀환한 한인들이 언급된 발행물의 지면별, 연도별 표

연도	사회	정치	사건·사고	경제	이주민들에 관한 총 기사 수	한인들에 관한 총 기사 수
2012					0	8
2011					0	19
2010					0	2
2009					0	8
2008					0	12
2007	1	1			2	16
2006	1				1	29
2005		1	1	1	3	32
2004					0	6

2003					0	9
2002	1			2	3	7
2001					0	7
2000	1			1	2	7
1999	1				1	11
1998					0	12
1997	1	1			1	10
1996				1	1	9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8월 1일까지 <졸로토이 로크> 지에는 ‘한인’, ‘한인 남성’, ‘한인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보도(기사 및 단신)가 36건 있었다. 과거 동향에 이어 <졸로토이 로크> 지에서 언급하는 한인들의 보도 상당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국민에 관한 것이다.

이 중 3건의 기사만이 한국 출신 러시아 국민을 주제로 삼고 있다. ‘한인들이 아르투에서 술랄을 만났다’(〈졸로토이 로크〉 2012년 1월 24일자)라는 단신에서 기자는 고려인협회 회장이 한인들의 설 명절을 축하하기 위해 연해주를 방문한데 대해 전하고 있다. ‘인구조사 때마다 연해지역 민족 구성이 변하고 있다’(〈졸로토이 로크〉 2012년 4월 5일자)라는 기사에서는 연해주 주민에 대한 새로운 통계 자료에 대해 쓰고 있다. 기자는 연해주 지역에 17,000명 이상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여성분들, 승전기념일 축하드려요!’(〈졸로토이 로크〉 2013년 3월 6일자)라는 기사에서 기자는 러시아와 한국에 사는 현대 도시 여성들의 사고방식이 유사한 것에 대해 말하면서 연해주 지역 한인들을 언급한다.

2012~2013년 사이에는 <졸로토이 로크> 지에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로 귀환한 이주 한인들에 대한 기사가 단 1건도 없다. <졸로토이 로크> 지에 마지막으로 언급된 이주 한인들에 대한 기사는 2007년까지이다.

‘사건·사고’면에서 (러시아 국적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 한인에 대한

보도가 사라진 것도 지적할만하다. 1996년~2004년까지 <졸로토이 로크>지에 실린 기사를 2012년~2013년 기사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건수의 기사가 한국과 관련된 경제에 할애되었으며 그중 의료관광, 연해주 경제에 대한 한국의 출자는 2005년부터 감지되는 동향이다.

표 2. 중앙아시아로부터 연해주로 귀환한 한인들에 관한 <졸로토이 로크>지의 보도 기사

	이주민에 관한 총 기사	러시아 한인들에 관한 총 기사	한인들에 관한 총 기사
2013		1	10
2012		2	26

<졸로토이 로크>지에 나타난 한인 이주민 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 동향을 입증하기 위해 극동의 주요한 인터넷 매체의 2012년~2013년까지의 자료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리마미디어> 및 <데이터> 통신의 자료 검색은 <졸로토이 로크>지의 자료 검색 작업에서와 동일한 키워드를 적용해 수행되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8월 1일까지 <프리마미디어> 통신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 중 ‘한인’, ‘한인 남성’, ‘한인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는 78건이었다. <졸로토이 로크>지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몇몇 자료는 한국 관광과 한국산 자동차의 서브리미널 광고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기사도 상당 건수에 달했다.

<프리마미디어> 통신 3건의 기사에서 러시아 한인들이 언급되었다. ‘연해 지역에는 민족 간의 분쟁 근거가 없다 - 부지사(<프리마미디어> 2012년 12월 29일자)라는 기사에서 한인들은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타타르인들과 함께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는 수적으로 가장 다수인 민족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 소규모 한국공원이 생길 수도 있다(<프리마미디어> 2013년 6월 24일자)라는 기사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와 한국과의 관

계를 상징하는 공원을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쓰고 있다. 기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사는 한인들의, 초기 이주민들로부터 시작해 1937년 강제 이주 전까지의 오랜 역사를 독자들에게 상기시킨다. 주목할 것은 기자들에게 한국 공원의 조성 가능성에 대해 알려준 사람은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라는 점이다. ‘연해지역 한인들이 10년 동안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기사는 1990년대 중앙아시아로부터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한 한인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것이다. 보도의 여주인공은 자신을 러시아 한인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관료주의적 지연으로 인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별첨 3 참조).

표 3. 중앙아시아로부터 연해주로 귀환한 한인들에 관한 <프리마미디아>의 보도 기사

	이주민에 관한 총 기사	러시아 한인들에 관한 총 기사	한인들에 관한 총 기사
2013		1	22
2012	1	2	56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8월 1일까지 <데이터> 통신 사이트에는 ‘한인’, ‘한인 남성’, ‘한인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가 78건이 게재되었다. <졸로토이 로크>, <프리마미디아>의 보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통신의 자료 상당 부분도 한국인 및 한국의 관광 및 비즈니스와 관련이 있었다. 이밖에 <데이터> 통신 기자들은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상호교류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졸로토이 로크>, <프리마미디아>와의 다른 점은, <데이터> 통신의 경우 대한민국과 북한 국민이 대상이 되어 희생된 일련의 범죄사건에 대해 보도했다(2013년 5월 23일자 기사 ‘아무르인 2명이 한인 대상 폭력으로 처벌을 받았다’와 2012년 3월 29일자 기사 ‘6살 외국 여아가 연해주 지역에서 유괴되었다’). <데이터> 통신의 경우, <졸로토이 로크>나 <프리마미디아>에서 보다 범죄 보도에 대체로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점을 말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한인들은 2건의 <데이터> 통신의 뉴스 기사에서만 언급되고 있다. ‘사할린에서 한류 페스티벌이 시작되었다’라는 기사(<데이터> 2012년 10월 19일자)에는 사할린에 25,000명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있음을 알려준다. ‘연해주 지역에 영주하는 우즈베크인과 타지크인 수가 수배 증가했다’라는 기사(<데이터>, 2012년 4월 4일자)에는 연해주 지역에는 17,000명 이상의 한민족이 살고 있다고 전한다. 이 자료는 <졸로토이 로크>지의 2012년 4월 5일자 기사 ‘인구조사 때마다 연해주 지역 민족 구성이 변하고 있다’와 유사한 것으로, 두 기사 모두 블라디보스토크 행정기관의 보도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표 4. 중앙아시아로부터 연해주로 귀환한 한인들에 관한 <데이터> 통신의 보도 기사

	이주민에 관한 총 기사	러시아 한인들에 관한 총 기사	한인들에 관한 총 기사
2013		0	29
2012		2	40

5. 결론

연해주 지역 한인 디아스포라는 이 지역의 가장 적극적인 다민족 주민 집단 중 하나로, 민족·문화적 접촉을 가장 활발하게 수행한다. 한인 디아스포라의 대표들 중 다수는 다양한 분야의 국민 경제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해주 당국의 입법 및 행정기관에 몸담고 있다. 지역 경제에 이익이 되면서 러시아에서 인간과 사회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가능성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은 자명하다.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추가적인 노동력뿐 아니라 추가적인 인구임을

감안할 때, 이민자의 통합과 같은 도구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통합은 지금 이미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종종 합법성과 거리가 먼 형태로 진전되는 자연발생적 과정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수용하는 사회와 정부가 제안한 조건과 형태 속에서 계속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인 디아스포라가 지방과 전국에서 성공적으로 활약하는데 필요한 3가지 기본적인 통합 방향을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귀화의 틀 안에서 러시아의 극동과 러시아에서 최대한 많은 수의 러시아 한인들에게 법적 체류 지위와 경제 활동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별첨 3 참조).

둘째, 공동의 문화와 관습, 가치 체계, 행동 규범 등의 기본 요소를 받아들여 소통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한인의 일부는 이미 동화 과정을 거쳐왔을 수도 있다.

셋째, 한인 디아스포라가 획득한 이윤이 소비와 다양한 프로젝트의 발전에 투자되면서 러시아와 지방의 생산조직체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별첨 1.

〈졸로토이 로크〉지, 〈데이터〉통신, 〈프리마미디어〉의 보도에서 ‘러시아 한인’과 ‘러시아어권 한인’이라는 단어 조합을 엄밀한 검색 결과

	러시아어권 한인에 대한 보도	러시아 한인에 대한 보도
졸로토이 로크	0	3
데이터	0	0
프리마미디어	0	3

별첨 2.

〈안텍스 노보스티〉의 색인 시스템을 통해 보도에서 ‘러시아 한인’과 ‘러시아어권 한인’이라는 단어 조합을 엄밀한 검색 결과

	러시아어권 한인에 대한 보도	러시아 한인에 대한 보도
2013	2	13
2012	1	20
2011	1	9
2010	0	7
2009	0	19
2008	1	3
2007	0	9
2006	0	3
2005	0	3
2004	0	5
2003	0	3
2002	0	1
2001	0	0
2000	0	2
1999	0	2
15년간(1999-2013) 총계	5	99

별첨 3. <프리마미디아>의 2012년 6월 19일자 기사

연해주 지역 한인들은 10년 동안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신이민정책의 배경에서 나훗카 출신 김 나탈리아씨의 이야기는 특히 모순이 있어 보인다.

<프리마미디아> 6월 10일자, 블라디보스토크.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15년 전 우즈베키스탄을 떠나와야 했던 한인 가정 이 연해주 지역에 정주했으나 담당자들의 관료주의와 노골적 묵살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은 아직까지도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나훗카 출신 김 나탈리아씨가 이에 대해 편집국으로 글을 보내왔다.

“우리는 1997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했으며, 우즈베키스탄 여권은 있지만 러시아 여권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벌금을 물 수 밖에 없습니다. 딸(25세)과 아들(22세)에게도 역시 여권이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이민증서도 없는데 이유는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딸은 벌써 1년 동안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고 있는데, 갈 때마다 어떤 조치를 취해준다는 약속을 받지만 막상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은 없어 모든 게 낭비며 하루 종일 걸리는 헛된 여정입니다.

저희는 우즈베크인도 아니고 타지크인도 아닙니다. 저희 조상들이 이곳 연해주 지역에 살았던 그냥 러시아 한인일 뿐인데, 스탈린이 1937년 저희 조상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것이 진정 저희 잘못이던가요? 저희 가족은 1903년부터 러시아에 살고 있으며, 6대가 이곳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저희를 도와주지 못하나요?

신분증이 없으니 벌금이 너무 많아 정식 직장에서는 뽑아주지도 않습니다. 의료보험카드가 없어 일 년 내내 의료서비스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모르고 낄 해도 우리 스스로에게 ‘존재’가 아닌 ‘삶’을 자유롭게 허락하지 못하게 하

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되나봅니다.”

통신원에 따르면, 편지 내용을 접한 연방이민국의 에벨리나 곤토바 극동 사무소 부소장은 김 나탈리아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다.

에벨리나 곤토바 부소장은 덧붙여 “우리는 이 가족이 처한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상황이 점차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신이 승인한 새로운 이민정책의 개념 부분에서 강제 이주민의 주거 정비에 대한 협조, 난민 지위 허용 절차 및 인도주의적 상황에 따른 임시 피난처 완성에 대한 필요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1990년대 러시아 연방에서 약 1백 5십만 명이 난민과 강제 이주민 지위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그들에게 법적으로 공고화한 사회적 약속이 모두 이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개념에 명시되어 있다.

이제는 약속을 이행할 때가 왔다. ‘불법 체류자’ 김 나탈리아씨 스토리의 결말이 유일할지언정 긍정적인 사례 중 하나이길 바란다.

20~21세기 아시아 방면 러시아의 한인 : 이주와 사회·문화적 위상의 특수성 (서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 변방)

보이코

한인들이 러시아에 등장하게 된 것은 1860년대 러시아와 청나라가 베이징 조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다. 그들은 러시아와 한국의 국경 지역에 작은 촌락을 이루며 살았다. 20세기 초 국가 권력의 약화로 한국 국내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일본의 침략 정책이 가속화 되면서 한인 이주민촌이 두드러지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주 거주지는 극동과 동시베리아였다. 당시 아시아 방면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의 수는 5천 명 남짓이었다. 그런데 1910년 한일 합방과 1914~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상황이 변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이주는 정치·경제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다른 나라와 지역 전체의 사회·정치 상황, 사회구조와 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러시아에 몰려온 외국인 이주민 중 가장 눈에 띄는 나라는 단연 한국이었다. 먼 아시아에서 온 한인 이주민들은 전체적으로 인류학적, 문화·언어학적, 그리고 다른 특성들에서 러시아 사회와 현격하게 구

별되어졌다.

유럽 방면 러시아로 한인의 이주는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경제적 성격을 띠었다. 당시 우랄 인근 특히 서시베리아에서는 점차 사회 계층이 형성되면서 세분화되어 갔고 민족 별 주요 거주지가 형성되고 있었다. 저자는 여러 차례 소비에트 초기 한인 이주사를 연구한 후 그 연구 결과물을 보고서와 논문 형식으로 발표했다.¹⁾ 저자는 연구의 초점을 서시베리아 한인공동체의 역사에 맞추었다. 1950년대를 연구할 때는 우랄 인근과 동시베리아에 거주하는 한인 그룹에 초점을 두어 자료를 수집했고, 지리적으로는 아시아 방면 러시아로 제한했다. 실질적으로 이후 수십 년 동안, 특히 2000년대 한인 이주사와 한인이주경로에 대한 연구는 많은 기초 작업과 자료 수집으로 보완되어졌다.²⁾ 한인 이주 경로, 이주의 원인과 사회·문화적 위상 그리고 러시아제국 말기, 소비에트 초기, 특히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와 현대 러시아에서 한인 생활 문화의 특수성은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새롭게 수집한, 주로 시베리아 문서보관소의 자료들과 그 외 다른 기관 소장 자료들, 개인 소장 자료들에 대한 역사지리적 분석을 토대로 이러한 문제들을 규명하는 것이다.

한인 이주 140주년을 맞이하여 러시아 중앙과 남부³⁾, 페름 지역⁴⁾, 시베리

1) 보이코(Бойко В.С.), 「서시베리아 한인공동체의 역사. 카자흐스탄 국경지역의 인종-사회통계학적 현상」, 제5차 학술대회 자료집, 우스타-카메노고르스크 시, 2003년 10월 20-21일, 우스타-카메노고르스크, 미디어알리안스 출판사(Медиа-Альянс), 2004, 56-59.

2) 이(Ли Г.Н.), 최(Цой А.Д.), 최(Цой Б.) 외, 『러시아 한인 백과사전 : 러시아 이주 140주년』, 최 브로닌(Цой Брони) 편집, 러시아자연과학 아카데미, М. : РАЕН, 2003; 박(Пак Б. Д.), 부가이(Бугай Н.Ф.), 『러시아에서 140년 : 러시아 한인사 개요』,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М. : 러시아과학아카데미역사학연구소, 2004; 바닌(Ванин Ю.В.) 외, 『1918~1937년 소연방 한인들』 (인쇄 중) :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학 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바닌(Ванин Ю.В.) 책임 편집, М. : ИВ, 2004; 부가이(Н. Ф. Бугай), 『20세기 소비에트사회주의 연방공화국과 러시아의 한인들 : 자료로 본 역사』, М. : ИНСАН, 2004.

3) 「사할린 한인들 : 역사와 현재성 (1880-2005년 자료 및 문서)」,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아⁵⁾와 그 외 지역에서 이루어진 한인 이주의 특성을 고찰하는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극동⁶⁾과 중앙아시아⁷⁾ 한인공동체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여러 학술 논문들에서는 러시아제국 말기 한인 노동자들의 노동 문제, 소비에트 시기 타민족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한인 문제, 한인들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형성 과정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⁸⁾ 러시아 한인 지역공동체에 관한 논문에서는 사할린 한인 문

극동지부, 극동 제민족 역사·건축·민속학연구소, 사할린주 사건 문서보관소 관리국, 국립사할린문서보관소, 쿠진 (Кузин А.Т.) 편집, 남·사할린스크 주립 출판사, 2006.

- 4) 한(Хан В.С.), 『고려 사람. 우리는 누구인가? (한인사 개요)』, 3판, 비스케크, 2009년 외.
- 5) 「학술대회 자료집 : 민족과 문화의 소통에서 로스토프 주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할과 위상」, 2004년 8월 21일, 로스토프-나-돈누 시, 문(Мун М.Е.) 편집, 로스토프-나-돈누시, 2004년; 「학술대회 자료집 : 한인의 과거와 현재 (로스토프 주 한인연합 설립 15주년 기념)」, 로스토프-나-도누, 2006년 10월 28일, 문(Мун М.Е.) 편집, 로스토프-나-도누, 2007; 「러시아한인의 민속학적 역사와 문화의 문제 : 한인의 자발적 러시아 이주 14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아멜리나(Амелина В.В.) 책임편집, 오렌부르크 : ОГАУ, 2005; 포포바(Попова Ю.Н.),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 한인디아스포라 : 20세기~21세기 초 역사 문화적 전망」, 역사학 박사학위논문 요약집, 크라스노다르, 2004.
- 6) 부시마코프(Бушмаков А.В.),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페름 주 중국과 한인 노동자」, 「인터넷 학술대회 자료집 : 연방 이주국과 러시아 지역 간 이주 과정: 역사와 현재성」, 페름, 2008, 75-81; 「사할린 한인들 : 역사와 현재성 (1880-2005년 자료 및 문서)」,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극동 제민족 역사·건축·민속학연구소, 사할린 주 사건 문서보관소 관리국, 국립사할린문서보관소, 쿠진 (Кузин А.Т.) 편집, 남·사할린스크 주립 출판사, 2006.
- 7) 체르노보드스키(Черноводский А.Л.), 「시베리아 남부 한인디아스포라 형성 과정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과 하카시공화국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시베리아 제민족간 상호관계의 문제』, 노보시비르스크, 2002, 114-119; 「학술논문자료집 : 북·동아시아에서 시베리아와 한국」, 이르쿠츠크국립대학, 백제대학, 지역사회학 연구소(МИОН), 쿠즈네초프(Кузнецов С.И.), 이길주(Ли Гил Лжу) 책임편집, 이르쿠츠크, 2004; 최(Е. Б. Цой), 구시나(А. М. Гущина), 황(А. Н. Хван), 「러시아-한국 : 문화소통」, 『노보시비르스크 주 한인 지역, 민족문화, 자치단체』, 노보시비르스크 : 노보시비르스크국립기술대, 2005.
- 8) 란초바(Ланцова Ю. Н.), 「자바이칼 주 중국과 한인 노동자 : 1860~1917년」, 역사학 박사학위논문 요약집,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몽골학, 불교학, 티벳학 연구소, 울란-우

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⁹⁾

중국과 일본의 정치 문제를 다룰 때 1910년 이후의 한국인들은 일본의 신민으로 간주된다. 특히 소비에트 지도부는 이 두 나라로 부터의 이주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했다. 즉 일본의 식민지화는 극동에서만 허용되었다. 조금 더 봐준다면 시베리아의 중앙이 아닌 남쪽으로만 이주가 가능했다. 한인에 대해서는 다른 식의 입장을 취했다. 1926년 봄의 자료를 보면 한인들은 《시베리아의 중앙에서 꽤나 먼 지역》까지 이주가 가능했다.¹⁰⁾

제2차 이주 결과, 아시아 방면 러시아의 한인공동체는 극동의 경계를 넘어 동시베리아에도 형성되었는데 주로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한 것이었다. 러시아-소비에트의 현실 적응에 성공했지만 1920년대와 1930년대 초 소연방 내에서 이루어진 복잡한 이주로 많은 한인들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거나 자신들의 현 거주지에서 탄압을 받았다. 이는 많은 희생자를 낳았고 한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을 안겨주었는데 당시 희생자 수는 10만 명을 웃돈다. 1950~70년대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한인 이주는 전이나 전후 행해지는 특별 이주와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그 규정이 점차 관대해졌다. 무엇보다 공권력을 박탈당했던 사할린 한인들이 소비에트 시민권을 획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소비에트 말기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한인의 이주 경로, 직업이나 여타 사안들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는 한인들의 경제, 사회·문화적 본질, 외부적 요인과 영향, 한인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궁극적으로는

데. 2009; 손(Сон Ж. Г.), 「1920~1930년대 소연방 민족 관계 시스템에서 극동한인들」, 역사학 박사학위논문 요약집,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역사학연구소, Москва, 2009; 심(Сим Л. М.),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한인들 : 1920년대 사회문화적 과정」, 역사학 박사과정 논문요약집, 크라스노야르스크, 2006.

⁹⁾ 쿠진(Кузин А. Т.), 「러시아 사할린 한인이주사 : 19세기 말-21세기 초」, 역사학 대 박사 학위 논문 요약집, 블라디보스톡, 2011.

¹⁰⁾ 러시아 최신 역사 문서 보관 및 연구 센터(РЦХИДНИ), ф. 514, оп. 1, д. 181. Л. 59.

지역 사회에서 현재 한인 디아스포라의 근본적인 특성 규명을 요구한다.

1. 알타이의 한인들

알타이, 혹은 더 넓게는 우랄 인근과 알타이 지역은 한민족의 역사적 시원지로 간주되고 있다. 한인의 선조들은 1세기에 걸쳐 동방으로 이동하여 한반도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한반도란 명칭은 나중에 붙여진 것이다. 현대 알타이의 한인공동체는 대부분 1920~30년대 2차 이주 당시 극동과 한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한인들의 뛰어난 생활적응력은 민족 별로 경제 단위를 조성할 때 두드러졌다. 카자흐스탄과 국경 지역에 있는 루브좁 스텝 지대의 《신 한국 (Новая Корея)》과 산악 알타이 지역의 톱미 콜호즈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첫 한인 이주민들은 스탈린의 탄압과 민족 숙청 작업을 견디어 낼 수가 없었다. 무사히 살아남은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고아가 된 아이들은 강제 이주된 중앙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애를 썼다. 1950년대 이후 새로운 사회·직업적 프로필을 지닌 한인들이 알타이로 이주해 왔다. 또 블라디미르 형제나 박 이반, 이창섭 등과 같이 강제 노동수용소나 위대한 조국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들도 돌아왔다. 2002년 자료에 따르면 알타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은 1,300명 이상인데 계절적 노동 인구와 같은 한시적 이주민을 제외하더라도 실제로 그들의 수는 2천 명을 웃돈다. 알타이의 한인공동체는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민족·문화적 전문성이 불분명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공동체의 전반적인 상황이 확연하게 두드러진다. 즉 공동체의 대표들은 알타이 지역 사회의 모든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말하자면 천(Г.В. Тен)은 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비국립 전문학교의 하나인 알타이 경제학·법학 아카데미를 창립한 후 여러 해 동안 이 아카데미를 이

끌어오고 있다. 레오니드 천 가족은 다른 많은 한인 가족들처럼 1930년대 말 극동에서 카자흐스탄의 크질-오르드(Кзыл-Орда) 지역으로 강제 이주 당했다. 과거 콤포물 노동자였던 천의 아버지는 전후 일본인들로부터 해방된 사할린에 오게 되었다. 1957년 레오니드 천은 톰스크 대학 법학부에 입학했고 대학을 졸업한 후 일정 기간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바르나울에 정착했다. 그는 이곳에서 법률가, 대학교수, 학자의 직위를 가지게 되었고 1990년대 알타이에 비국립전문학교인 알타이 경제학·법학 아카데미를 창설하고 지도하게 되었다. 그의 아들인 천(А.И. Тен)은 이 아카데미에 조교수로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학과를 이끌어가고 있다. 천(И.В. Тен)의 여동생과 딸도 법학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천(И.В. Тен)의 남동생인 유리 바실리예비치는 의학박사로서 지역 어린이병원의 과장이다. 그는 시베리아 연방 관구 소아외과 총책이다. 가장 흥미로운 이력을 가진 사람은 바르나울 국립교육대학의 조교수인 박(Г.А. Пак)이다. 그는 1930년 5월 5일 러시아연방공화국 프리모르 지역 그로데코보 마을의 회계원 가정에서 출생했는데 형제가 많았다. 박의 가족에게도 모든 소비에트 한인들이 겪었던 불행이 닥쳐왔다. 그들은 극동에서 강제이주 되었는데 가장은 사보타지를 주도했다는 죄명으로 총살되었다. 겐나지와 친척들은 생활 도구 하나 없이 카자흐스탄 동쪽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 그들의 생명의 은인은 이모인데 이모는 자신의 집에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아버지는 곧 석방되었지만 노동 능력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겐나지 박은 초등학교에 불과했지만 광산에서 일을 했고 «1941-1945년 위대한 조국 전쟁 때 노동 영웅»의 메달을 받았다. 1948년 뛰어난 성적으로 중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레닌그라드 국립 대학 동방학부에 입학했다. 이곳에서 그는 뛰어난 언어학자이자 동방학자인 홀로도비치(А.А. Холодович)의 지도 하에 역사적 조국의 언어인 한국어를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학업 성적 우수자에 수여하는 미클루호-마클라이(Н.М. Миклухо-Маклай) 장학금을 받았다. 그의 학문적 성장은 비

약적이었다. 고학년 때는 벌써 학생 신분으로 한국어학부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으며 1959년에는 한국어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1965년까지 이곳 레닌그라드 국립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그 동안 레닌그라드 국립대학 계산센터 산하 수리언어학팀과 기계번역 실험실에서 수리언어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연구했다. 박의 학문적 관심 분야는 한국어 의미론과 다양한 언어 현상들이었고 그의 연구물들은 소비에트 언어학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¹¹⁾

1960년대 중반 박은 가정 사정으로 바르나올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에는 그의 부모님, 큰 누나인 아샤 알렉산드로브나 박과 남편인 안드레이 트로피모비치 채가 거주하고 있었다. 아샤 알렉산드로브나는 전문 역사학자로 지금은 알타이 국립공업대학으로 바뀐 알타이 종합공업대학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 박은 40년 동안 바르나올 국립교육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러시아어·외국어학부에서 강의와 연구를 병행했다. 박은 러시아어, 한국어, 일본어, 영어를 구사하는 유일무이한 전문가인데 일반언어학, 러시아어, 문학작품의 시어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자신의 학문적, 방법론적 발견을 동료들, 중등학교 교사들과 과감하게 공유했다.

1990년대 초 겐나지 알렉산드로비치는 사회적 공익 실현 차원에서 일요학교에서 한국어를 강의했는데 수업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들을 수 있었다. 당시 그는 러시아연방 교육부의 지령을 받아 단 하나뿐이었던 한국어 학술실험실을 지도했다. 외국어로서의 러시아어 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 개발, 다양한 언어학적 실험 실습 등과 관련된 그의 업적은 모스크바에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생애 마지막 기간 겐나지 알렉산드로비치는 리한사전 편찬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편찬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 그는 폭넓은 지식과 높은 문화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었으며

11) 『소비에트 언어학 50년』, M., 1967, 305.

연령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주변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진정한 인텔리겐치아이자 교육자이고 학자였다. 겐나지 알렉산드로비치는 새 학기 신입생을 맞을 준비를 하던 중 2004년 8월 말 사망했다.

바르나올 한인들이 수행한 흥미로운 사업 중의 하나는 1991년 일요학교를 개설하여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 것이다. 겐나지 알렉산드로비치 박은 이 학교에서 자신의 독창적인 교수법을 사용하도록 승인해 주었다. 이 학교의 설립자는 오랫동안 바르나올 문화단체에서 창의적인 젊은이들 양성에 힘을 쏟아 온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 채이다.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지만 이후 가족과 함께 타시켄트로 이주해서 모스크바문화대학을 졸업했고 그 이후 바르나올에 정착했다. 이미 첫 발을 내디딘 일요학교 설립은 그녀의 역사적 조국의 문화 부흥을 위한 자연스런 사업이었다. 1990년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힘을 합쳐 바르나올에 한국문화센터를 설립했다.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한인대표단에 포함되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청결함,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선조들의 땅에서 목격할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에 감동받았다.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한국어를 할 줄 안다. 그럼에도 처음에는 주인의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주인이 사용하는 단어나 억양에 지역 사투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 방문은 《코레아다(Кореада)》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에 의한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에는 2년에 1회(기수 해에) 남한 측에서 해외 한인들을 초대해서 만남을 가지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해외 한인들을 위해 남한 여행과 관광을 조직한다. 《코레아다(Кореада)》는 일본에서도 일정 정도 자금 지원을 받는다. 일본이 자금 지원을 하는 이유는 쿠릴열도를 아시아민족 본거지로 강화시키기 위해 언젠가 이곳으로 강제 이주시킨 사할린 출신 한인들 때문이다. 비록 분단되어 있지만 역사적 조국은 한인들의 민족정체성 보존에 일정 정도 노력을 기울인다.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 채는 일요학교를 위해 남한

에서는 한국어 교재들을, 북한에서는 학습용 카세트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학교는 2년 만에 폐쇄되었다. 소수에 불과한 알타이 한인공동체는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줄 기관이나 단체들을 찾지 못했고 1990년대 중반 그녀의 열정은 굳어버렸다. 타마라 이바노브나 오가이는 오랫동안 한민족센터를 이끌어 왔다. 사할린 한인 출신인 그녀는 남한 식 한국어를 구사한다. 그녀의 조상들은 언젠가 한국의 남쪽 지방에서 쿠릴 열도로 이주해 왔다고 한다. 현재는 겐나지 미하일로비치 김이 한인공동체를 이끌고 있다. 그는 포스트소비에트 시절에 중앙아시아에서 알타이로 이주해 왔는데 관광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다.

한민족센터는 알타이 한인 디아스포라의 자연발생적 조직화의 유일한 표현 방식이다. 하지만 한인공동체의 문화 생활에 커다란 힘을 부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센터의 지도부들은 독창적인 재능과 창의력으로 가득 차 있다. 예컨대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 채의 딸인 이리나 소로키나 채(Ирина)는 언어 구사력이 아주 뛰어난데 그녀는 이미 «러시아의 라디오»가 조직한 «전리젊은작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리나는 특히 구연 능력이 탁월하다.

이리나 소로키나 채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역사적 조국의 의미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알마-아타 출신의 법학교수인 그녀의 할아버지 이노켄티 안토노비치 채는 1949년부터 1951년까지 북한에 극비 파견되어 있었다. 북한의 수장 김일성은 그를 북한 검찰 부총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판결을 내릴 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령 불교 승려들에 대한 탄압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의 운명이 바뀐 것은 이 때문인지도 모른다. 1951년 검찰 부총장 이노켄티 안토노비치 채는 «인민의 적»으로 간주되어 총살되었고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타 이바노브나는 어린 세 아이들과 어렵게 중국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중국 하얼빈에는 한국전쟁 발발로 북한에서 철군한 소비에트 시민들이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었다. 가장을 잃은 가족들은 결

국 모스크바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스탈린 체제는 그녀와 아이들을 범죄자 대하듯 경멸했다. 1953년 엘리자베타 이바노브나와 아이들의 거주지로 그녀의 오빠이자 위의 Г.А. 박의 아버지가 정착한 바르나올로 결정되었다. 지나치게 늦은 감이 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한 것이었다. 이노켄티예비치 안토노비치 채의 아들인 빅토르 이노켄티예비치는 어린 시절 유라 김정일과 함께 놀았던 일들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 그는 귀한 손님으로 북한에 초대되었고 아버지의 복권 기념으로 상을 받았다.

1991년 타지키스탄에서 로자 니콜라예브나 세미키나 (한)이 알타이로 이주해왔다. 그녀는 우즈베키스탄의 다자녀 가정에서 출생했다. 그녀에게는 세 명의 남자 형제와 세 명의 여자 자매가 있다. 그녀의 아버지 니콜라이 니콜라예비치 한 (한상익)은 수학자인데 한글 문어와 구어 및 한자에 정통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의 하나였다. 니콜라이 니콜라예비치는 치르치크에서 살았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한국어를 구사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죽기 직전 전통 의식에 따라 장례식을 치러하는 슬픈 시간이 되면 한인들은 반드시 그에게 도움을 청했다.

로자 니콜라예브나는 능력이 뛰어난 어문학자로 우랄국립대학을 졸업했으며 그 대학에서 도스토옙스키 작품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녀는 많은 한인 가정들 사이에 퍼져있는 무언의 규율을 어기고 러시아인 저널리스트 이반 그리고리예비치 세미킨과 결혼했다. 젊은 부부는 두산베로 배치되었으나 1990년대 초의 사건으로 다시 바르나올로 돌아왔다. 알타이 경제학·법학 아카데미 교수인 로자 니콜라예브나는 도스토옙스키 연구자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바르나올 한인 디아스포라는 한국 및 한국문화의 보급과 연구에서 아직은 보조적인 의미밖에 지니지 못한다. 짧은 기간 일요학교에서 수행했던 한국어 교육은 휴지기에 들어갔다. 2000년대 초 알타이국립대학에 한국어 학부 과정이 개설되면서 한국어 교육이 다시 재개되었지만 강사들이 떠나면서 지

속성을 띠지 못했다.

한인공동체는 문화, 교육, 학문 분야에서만 두각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한인들 가운데는 성공한 기업가들, 다양한 분야의 매니저들도 있다. 과거 러시아 남부 지방의 한인들은 경제와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그리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었다. 하지만 현재는 투바공화국 경제부 간부로 있는 천(С.И. Тен)은 알타이 지역 행정부 부지사를 역임하기도 했으며 경제와 투자부 부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중앙아시아 출신의 계절형 한인작업반은 오랫동안 알타이 야채 사업의 발전에 탁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은 과거 국가 차원에서 조직해야만 했던 대규모 특용작물 사업을 조직할 수 있었다. 양파, 참외, 기타 야채 작물 재배 기술을 완성한 한인들은 시민들에게, 일부는 농민들에게도 생산물을 조달했으며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알타이 지역에 농경지를 추가로 개발하기도 했다.

알타이와 남한, 북한의 직접적인 경제교류는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역의 외국상품 유통 총액을 보면 2000년대 초 총액 5억 1810만 달러 중 북한이 17,400달러를 차지한다. 그 중 16,500달러는 고무 원료나 고무 제품 수출액이고 900 달러는 철도 차량 수입액이다. 남한의 몫은 1,268,500달러인데 그 중 1,212,000달러가 수출액이다. 이 중 40만 달러는 보일러, 기계 설비, 모피 등의 수출액이고 41만 달러는 가구, 침구류 수출액이며 28만 4,800 달러는 약용제품 수출액이다.¹²⁾

알타이와 남한, 북한의 문화적, 학문적 관계는 아직 충분하게 발전하지 못했다. 물론 2004년 남한 측 대표단이 바르나울과 산악 알타이를 방문했다는 성과는 있다. 2013년 여름 동국대와 한국외국어대 교수들이 알타이를 방문했다. 그들은 알타이 국립교육아카데미 산하 《러시아와 동방》 실험실 팀과 공동으로 《한인의 러시아 이주와 디아스포라의 형성: 역사와 현재성》이라

12) 「대외무역 관세 통계 : 2003년 알타이 지역. 러시아연방 국립 관세위원회 시베리아지역 보고서」, 노보시비르스크, 2004, 4, 52, 54.

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조직했다.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시베리아 사람들, 한인들, 러시아인들은 아직은 희귀한 손님이다. 평양을 방문한 첫 사령관이 다름아닌 알타이 지역 주민인 자루빈(Н.Д. Зарубин) 대위였다는 흥미로운 역사도 있다. 그는 훗날 북한의 지도자가 된 김일성을 1945년에 만나 공동 행동을 하기도 했다.¹³⁾

2. 노보시비르스크의 한인들

2000년대 초의 자료에 따르면 노보시비르스크에는 대략 1,500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주 단위까지 계산한다면 그들의 수는 2,500명에 이른다. 1998년 이곳에 천봉연(Б.Я. Тең)을 지도자로 《노보시비르스크 한인민족문화자치단체》를 조직했다. 현재 이 단체는 주 단위의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 많은 한인 협회, 센터, 펀드 등과 연계되어 있다. 단체의 회장은 박(В.А. Парк)인데 그는 시베리아 연방관구 민족문화자치단체연맹 민족소비에트 부의장을 겸하고 있다.¹⁴⁾

자료에 의하면 시베리아에 한인의 출현한 것은 1920년대부터이다. 이후 시베리아 주요 도시로의 한인이주사는 거의 90년의 역사를 헤아리지만 초기 한인의 수는 36명에 불과했다. 노보시비르스크로 한인의 집단 이주는 1950년대 정치적 해빙과 맞물려 있다. 이들의 목적은 노보시비르스크에서 고등교

13) 솔구노프(Солгунов Т.В.). 『20세기 중반 국지적 군비 경쟁에 놓인 시베리아인들 : 1950-1953년 한국전쟁』, "...자신의 민족을 위해, 자신의 조국을 위해...", 「학술대회 자료집」, 「전쟁은 자신의 굴레를 벗겨준다」, 2003년 12월 4일; 「전쟁 복무에 대한 정신적-도덕적 근거」, 2004년 11월 25일, 바르나울, 2004, 77.

14) 『시베리아 메가폴리스의 민족 집단 : 문화적 상호작용, 정치문화와 민족 교육의 특수성』, 노보시비르스크, 2003, 48쪽.

육을 받은 뒤 직업을 갖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발전된 사회주의>의 조건 속에서도 한인들은 학교나 전공 선택 시 보이지 않는 제약을 받아야만 했다. 예컨대 유명한 노보시비르스크 전자기술대학의 경우 한인들은 단 세계의 학부에만 입학이 허용되었다.¹⁵⁾ 특히 사할린 출신 한인들에게는 더 많은 제약이 뒤따라 다녔다. 그들은 대부분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 제약을 많이 받았는데 노보시비르스크에서 다른 곳으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이들은 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지정된 곳에서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한 이후에야 소비에트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1980년대까지 계속되었다.¹⁶⁾

1956년 처음으로 소연방 중고등특수교육부의 지침으로 노보시비르스크 전자기술대학에 북한 학생들이 입학했다. 모두 5명이었는데 전자기계와 기계설비학부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들의 교육과정은 일반적인 교육 과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예외적으로 생산기계 실습 과정은 북한에서처럼 노보시비르스크 기업에서 수행했다. 교육부가 노보시비르스크 전자기술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당시 이 대학이 소연방 내 극소수에 불과한 직업전문대학의 하나였고, 이 대학이 사할린 출신 한인들 같은 무시민권자들의 입학을 공식적으로 허가했기 때문이다.

예브게니 보리소비치 최는 시베리아 토착민인데 전후 노보쿠네쯔크에서 태어났다.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자동제어시스템으로 최고 엔지니어 교육을 받았으며 그곳에서 학문적 역량을 차곡차곡 쌓아나갔다. 그는 기계학 박사인데 이미 10년 이상 노보시비르스크 국립기술대학(НГТУ) 국제관계 총괄

15) 최(Цой Е.Б.), 구시나(Гущина А.М.), 황(Хван А.Н.). 『러시아-한국 : 문화 소통』, 노보시비르스크, 2005, 94쪽.

16) 노보시비르스크 사람들과 <소백>사 사장 백태근(Бэк Тэ Гын)에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는 사할린 한인의 후손으로 29살이 되던 1980년에야 비로소 여권을 소지하게 되었다. 최(Цой Е.Б.), 구시나(Гущина А.М.), 황(Хван А.Н.), 『러시아-한국』, 112.

부총장 겸 응용수학·자동제어시스템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또 이 대학 인문학 국제관계학부의 학부과장을 역임했다. 1994~1996년 합작 무역 기업인 《한청(Хантен)》의 회장을 지냈으며 몽골 기술학아카데미 외국인 석좌회원이고 뉴욕아카데미회원이며 고등아카데미 시베리아지부 객원회원이다. 최(Е.Б. Цой)가 수행한 연구는 1995, 1997, 1998, 2002, 2003, 2004년 아카데미 교환 독일 분과(DAAD), 러시아 기초학문 펀드, 러시아연방 교육과학부의 지원을 받았다. 1981~1982년 그는 독일 쾰니츠 기술대학 수학과에서 연구했는데 연구결과물을 영어로 작성하여 1989년 공동 저술의 형태로 발표했다. 최(Е.Б. Цой)의 부인인 프로스쿠리나(О.В. Проскурина)는 노보시비르스크 국립아카데미 경제학·행정학과 교수이고 딸인 최(М.Е. Цой)는 노보시비르스크 국립기술대학 비즈니스 학부 시장이론학과 조교수이다. 최(Е.Б. Цой)는 1992년 노보시비르스크 한인협회 발기자의 일원으로 활동했고 1998년에는 협회 상임이사회 이사가 되었다. 1998년 협회는 민족문화자치단체의 위상을 획득했다. 최교수는 한국과 시베리아 여러 지역 특히 노보시비르스크 주와 그 주에 소재한 공업, 행정, 학문 센터들의 공동협력 관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노보시비르스크의 객관적인 지리적 위치, 경제, 학문, 교육의 통합을 추구하는 세계적 경향성, 시베리아 학문의 높은 잠재력, 국가 경제의 다양한 부문의 학문 수용 능력과 그 결과물을 정착시키려는 한국과 노보시비르스크 주의 관심도가 주는 이익 등이다.

1995년 7월 노보시비르스크 국립기술대학과 울산대학은 기술, 학문, 학생 교류를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우호협정을 체결했다. 1995~1997년에만도 양 대학에서 60명 이상의 교수들이 학술 탐방을 가졌고 전기, 항공기제작, 기계제작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그러한 학문적 열정은 1996년 여름 노보시비르스크 국립기술대학 총장이 노보시비르스크와 톰스크 전문기술대학, 아카데미 대학이 참가하여 3개의 주제로 러-한 학술심포지엄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제안은 남한의 학술단체와 기업들뿐만 아니

라 남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1996년 12월 이 심포지엄을 위해 국제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이는 국제적 차원에서 개최한 최초의 러-한 학술심포지엄이었다.

1996년부터 시작한 노보시비르스크 국립기술대학과 울산대학의 하기 학생교환 프로그램이 해마다 발전하면서 학생이나 박사과정생들이 적극 참가하고 있다. 러시아와 한국 측에서 각각 20명씩 보낸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파트너 대학에 대해 알게 되고 러시아와 한국의 역사, 경제, 문화, 언어를 익히는 것이다.

시베리아연방관구와 한국의 활발한 사업적, 학문적 상호협력은 언어, 역사, 문화, 한국인들의 생활 습관 등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필요로 한다. 시장의 수요에 대답하듯 노보시비르스크 국립기술대학은 2001년부터 지역전문가 즉 한국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남한 대학들과 노보시비르스크 국립기술대학의 파트너 ship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그들은 노보시비르스크 국립기술대학과 협력 관계에 있는 국민대학과 수원대학의 어학연수센터에서 1달에서 1학기까지 단기연수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가장 고무적인 사건은 시베리아 연방관구 기술전문대학과 남한의 학술 협력이다. 이로 인해 학술 연구 활동의 상업화, 한국에서 시베리아대학들 석·박사과정생의 단기연수와 실습, 어학과정, 현장 실습 프로그램, 관광 실습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학생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4년 여름 노보시비르스크에 남한과 학술-기술공동협력센터를 설립했다. 그 이전에는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 지부와 <<삼성>>이 공동학술실험실을 개설한 바 있다.¹⁷⁾

노보시비르스크 국립대학 산하에 한국문화센터를 설립했고 시베리아연방관구 기술전문대학과 노보시비르스크 국립기술대학에서도 동방학, 지역학-국제문제전문가 등의 분야에서 한국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노보시비르스

17) 『시베리아의 학문』 No. 41, 2004년 10월.

크 국립대학 동방학과에서는 1998년부터 한국어 전공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2003년 한국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졸업생 6~7명을 배출했다. 서시베리아에서 노보시비르스크 특히 노보시비르스크 국립기술대학과 노보시비르스크 국립대학이 러시아-한국 공동협력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혁혁한 역할을 했는지 자료들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

3. 톰스크의 한인들

최근 400주년을 맞이한 고풍스런 도시 톰스크의 한인공동체는 러시아 전체에서 가장 활동성이 뛰어나다. 톰스크는 수적인 면에서는 시베리아의 다른 행정·문화와 공업중심지에 비해 뒤진다. 하지만 톰스크는 시베리아 학문의 중심지이자 독창적인 학문도시라고 할 수 있다. 한인들이 톰스크에 거주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바실리 글레보비치 김을 비롯한 일부 한인들이 당시 톰스크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사실을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50년대 톰스크 주에 신한인촌이 등장했다. 이들은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극동 한인들의 자녀들이었다. 그들은 대학 입학 을 위해 톰스크에 왔는데 이미 당시 톰스크에는 유명한 기술전문대학과 학술단체 등이 있었다. 한인들이 특별히 선호한 대학은 톰스크 기계제작대학이었다. 블라디미르 다유노비치 리(Владимир Даюнович Ли)가 그 중 한 명인데 그는 이전에는 자신의 모교에서 근무했다. 1950년대 처음으로 이곳에 북한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받으러 왔다.

2000년대 초의 공식자료에 의하면 톰스크에 거주하는 한인의 수는 1,149명이었는데 2002년에는 그들을 토착민으로 인정했다. 열정적인 톰스크 한인들

은 이미 1989년에 민족문화자치단체를 창설했는데 이는 소연방에서 최초로 세워진 자치단체의 하나이다. 오야마 연복(Оояма Ен-Бок)이 단체장이었는데 지금은 올렉 페트로비치 김(Олег Петрович Ким)이 단체장을 맡고 있다.¹⁸⁾

톰스크에는 한국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술교육기관이 두 곳이 있는데 바로 톰스크 국립대학 국제관계학부와 톰스크 국립종합기술대학이다. 이 대학들에서는 지역학 전문가 육성 차원에서 한국학 전문가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문가 등 폭넓은 프로필을 지닌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국어 수업은 한국어 전공자가 담당하는데 조교수 유진수(Ю Жин-Сю)의 지도하에 톰스크 국립종합기술대학 학생들은 한국어의 기초를 다져 나갔다.

4. 크라스노야르스크의 한인들

크라스노야르 지역에는 1907년부터 한인 디아스포라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는 기업가 발란디나(В.А. Баландина)의 자금으로 시작한 탄광 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다. 첫 임금노동자에는 프리아무르와 극동 출신 한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¹⁹⁾

1930년대 초 중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정책은 이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지만 새로운 한인 이주의 물결을 몰고 왔다. 당시 이곳으로 340명 가량의 한인들이 왔다. 이들은 북만주 송화강 지역 출신들이었다. 한인 도망자들은 처음에는 포시예트 지역, 시니 우테스(Синий Утес) 마을에 정착했

18) 『톰스크 소식지』 № 39, 2004년 9월 23일, 8.

19) 체르노보드스키(Черноводский А.Л.), 러시아 남부 한인 디아스포라 형성 과정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과 하카시공화국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시베리아 제 민족 간 상호관계의 문제』, 노보시비르스크, 2002, 114-115.

는데 1933년 겨울 시베리아 남쪽의 탄광촌인 체르노고르 탄갱으로 이주했다. 1936년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에 한 그룹의 한인 이주민이 또 밀려왔는데 만주 시민들이었다. 사실 그들은 모두 일본인 장교가 지휘하는 군대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었다. 사실 특이하게도 1936년~1937년 탄압 국면 당시 그러한 유형의 탈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인 2~5년만 수감되었다. 하지만 1938년 탄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한인 축출정책을 취하면서 120명가량의 탈주자가 총살되었다.

그 이후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에 한인이 출현한 것은 1940년대 말 위대한 조국 전쟁이 종결된 이후였다. 이곳에 과거 극동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추방된 한인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에게는 시베리아 남부 주로 하카시공화국에 정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유감스럽게도 현대 크라스노야르스크와 예니세이 지역 한인공동체 문제는 아직 연구에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상황을 보면 과거와 현재 한인 이주도에 이 지역을 그려 넣어야만 할 것이다.

5. 결론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21세기 초까지 아주 생동감 넘치는 현대사의 경계에서 볼 때 아시아 방면 러시아의 한인들은 우랄 인근지역, 시베리아,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경계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혹은 이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대도시와 지역 혹은 주 단위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수는 1~2천명 사이를 오간다. 그들은 모두 현재는 러시아인이며 과거에는 소연방 시민권자들이었는데 후손들은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산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들에게도 자신의 정체성 유지는 중요한 문제였지만 1940년대부터 2000년

대 초까지 분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도 분단된 역사적 조국과 굳건한 연계를 갖지 못하고 있고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여러 지역에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조직을 갖추지 못한 한인들은 문명사회에서 《자아》를 상실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아시아 고대민족 중의 하나였듯이 디아스포라의 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사회적 기반과 문화적 소양, 직업적 역량 등을 배가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이 오래 전부터 토착민족으로 간주되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역사적 조국과 협력 체계를 이루어내고 발전시킬 수 있던 것은 이로 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그들은 특별한 《강인함을 비축》해 두어야만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그들은 내외적 요인에 맞게 활동을 조절하면서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새로운 구상 속의 한인 : 정치, 이념, 실천

부가이

‘대안 세계’에서는 인류가 급격한 변동의 문턱에 서 있다고 간주한다. 그리고 인류의 향후 발전 가능한 방안을 제안한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미래를 예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전문가들은 전지구적 세계발전 경향 2030이란 주제에 집중하여 ‘토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보고 있다.

이러한 노선을 러시아연방도 견지하고 있다. 2012년 12월에는 새로운 공식문서인 “러시아연방 국가민족정책 전략 2025”를 채택하였다. 그 문서에는 러시아연방 국가민족정책의 현대적 우선권 체제, 목적, 원칙, 주요방향, 임무 그리고 실현 방법 등이 드러나 있다.

학자들은 러시아와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한반도의 모든 국가가 미래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많다. 현대적 조건에서 그리고 미래에 민족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의견에 일치한다.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어깨 너머에는 지나온 20여 년 간의 협력 경험이 존재한다.** 바로 여기에 서울과 인천 그리고 한국과 러

시아의 주요 문화센터가 수행한 공헌이 적지 않다. 관계가 어떤 형태로 발전할 것인지 그리고 성취 결과를 보존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채우는 메카니즘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를 알아보고 예측하는 일은 중요하다.

각 국가들은 본질상 자신의 ‘민족국가이념’이 있는데, 이는 사회정치적 개념으로 주요한 정치적 권력수단인 국가가 어떤 형태로 자신의 활동 속에서 사회의 희망과 요구를 표출하며 어떻게 이들을 권력이 소유하는 지를 설명하게 한다. 한인은 러시아에 거주하면서 러시아 역사의 매 단계마다 러시아 사상을 신봉해 왔다. 이 러시아 사상이란 ‘신성 루시’와 ‘수도원, 궁전, 공동체’ 그리고 ‘은혜 베푸는 사회’ 간 벡터 결합으로 체제전환을 감내하는 사상이다. 이는 자유와 사생활 이념이며 평등한 시작과 같은 사회적 이념을 의미한다.

러시아 국가체¹⁾의 현대적 발전과정이란 그 국가의 영토에 거주하는 종족공동체가 현저하게 구성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종족공동체는 새로운 조건 속에서도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그물망이거나 한 사회 내에서 그리고 민족간 관계에서 시민적 합의와 평화 옹호자로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인류의 전지구적 문제 중 하나는 객관적이면서도 상호 의존하는 두개의 경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하나는 민족을 통합으로 끌어들이는 경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특수성을 표출하는 경향이다. 두 번째 법칙성과 관련하여 국가는 민족주의와 분리주의로 제약을 받는, 그리고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요소를 불러일으키는 매우 험난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평화적 접촉을 강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각각의 종족 공동체는 자신을 방어하려는 특수성이 또한 발현된다.

러시아는 종족공동체가 190개 이상 열거되는 다민족 구성의 나라로 남을

1) 역주: 민족국가는 민족국가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지칭할 때는 국가체로, 하나의 이념 내지 정책적 구상으로 언급할 때는 국가성으로 구분하여 번역하였다.

것이다. 1990년대와 최근 10여 년 사이에 전개된 러시아사회의 변혁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 논쟁거리를 일으키지도 않았으며 문제들 그 자체는 국가성의 정신이나 이념과 조응했던 현상들로 보였던 것들이었다. 현대 러시아에서 우선적인 문제는 어느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인데, 말할 것도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공동체에는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종족공동체의 국가체 구성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연구목표는 분명하다. 나라 전체에 적용할 종합적 관념을 제시하는 것이며 다민족사회의 삶에 자신의 특질을 발현할 수 있는 일정한 교정을 가하는 것이다.

소유하고 있는 실제 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한 발표문은 복잡하면서도 모순적인 그리고 논쟁적인 문제인 한인민족국가체의 창설과 소련-러시아 영토에서의 진화 그리고 새로운 구상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는 간단치 않은 시기에 러시아가 국가 내부 구조를 건설하는데 보다 유용한 모델을 분석해 내고 사회정치적 발전을 위한 벡터 모델을 강구하며 다양성 속에서 통합성을 주는 모델을 분석해 내는데 주요한 구성요소이다.²⁾

이는 핵심적 문제의 하나이다. 이 문제는 다민족 국가에서 이러저러한 공동체의 지위 그리고 가족과 시민의 형편과 자유 그리고 권리 보호의 수준을 규정한다. 그러나 러시아 사회의 중첩된 현실을 고려할 때 현실 분석은 다소 새로운 결론을 야기한다.

물론 진행과정 자체를 연구하면 구두계획을 분석함으로써만이 아니라 실천적 측면을 보여줌으로써 임무를 도출할 수도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가 러시아를 포함한 여타 국가를 경제적 동반자로 규정한 취임식에서 찾을 수 있다.

²⁾ 이 '모델'은 미래의 목표란 이름으로 안정과 결속에 도달하고 이익을 고려하며 편리한 거주 조건의 창출을 제시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러시아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이나 러시아한인 그리고 기타 여러 종족공동체의 에너지는 주요하게는 과거로부터 생성된다는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에너지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 성스런 사회의 상태, 국민의 신앙, 문화의 기원 그리고 언어 등등에 의해 규정된다고 치부해선 안된다.

러시아한인은 공동체의 98%가 러시아어를 구사하며 러시아어로 풍족해졌다는 특징이 있다. 종족간 교류 언어인 러시아어로 1억 2천만 명의 러시아인과 러시아어 사용자가 말을 한다. 이것이 민족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교류 속에서 언어가 고양시킨 역할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해를 통합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러시아에서 유명한 학자이자 교육자인 엄 넬리는 한인에게 러시아어가 갖는 의미를, “러시아어는 우리에게 교육과 일을 주었다. 러시아어가 지닌 의미는 우리 앞에 문화 간 교류를 풍부하게 열어준 데 있다.”³⁾ 고 말했다. 의심할 여지없이 언어는 러시아 다민족 국가의 특징 그 자체를 이룬다.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에서 1864년 이전은 에피소드 관계로 끝났다. 그러한 관계는 해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져 연속적이고 중단없는 성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우리의 관념에는 한인이 러시아로 자발적으로 이주하여 향후 관계와 접촉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단단히 놓았다고 본다. 이러한 면은 러시아 정부의 문서 속에도 반영되어 있다.

한인에게는 러시아의 다민족 구조 속에 건설할 방안을 모색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었다. 남우수리변강주 국경 판무관 꾸지민은 1914년 주지사에게 한인들이 마치 ‘러시아나 러시아 국가가 아니라’ ‘러시아의 한국’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말들이 있으며, ‘포시에트 지구 일대가 미래 한인의 자치주 - 한국’⁴⁾이라고 간주하며 한인 사회 내 모종의 자치주 사상을 불러들이고 있다

³⁾ 천 V. “아마도 미래를 예견하는 꿈으로 실현될 것이다.”//러시아한인, N. 143, Nov. 2012, p. 3.

고 주지사에게 보고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사상은 논의 목적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바라본 일본인에 의해서 정치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물론 모든 것을 장미빛 색깔로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20세기 초 관계에서 러일전쟁은 일정한 무질서를 초래하였다. 그 당시 러시아 영토 내에서 처음으로 한인들이 러시아 제국의 영토 내에서 부분적인 이주를 강요당했다. 물론 그들은 러시아에 계속 머물렀지만 극동에서 우랄 산맥의 산자락으로, 특히 페름의 산악지역으로 이주되었다. 애석하게도 러시아 문헌에는 이 사안이 덜 연구되었다. 이 문제에 처음으로 관심을 둔 학자는 아포나센코이며 그 뒤로 카멘스키흐(러시아과학아카데미 우랄분과 역사고고학연구소)와 부가이가 관심을 가졌다.⁵⁾

자우스틴스키 중령이 언급한 것처럼, “1895년에서 1905년까지 만주와 시베리아에는 2만 5천 명의 일본인이 다녀갔는데 주로 러시아제국의 군대가 전개되는 정보를 수집해 갔다.”⁶⁾ 1904년 카멘스키흐의 보고에 따르면 페름주에는 이미 700명의 일본인이 존재하고 한인과 중국인이 150명에 이르렀다.⁷⁾ 1904년 9월 708명의 일본인이 페름에서 추방되었다.(강제이주된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페름주 지역에는 131명의 중국인과 한인이 남게 되었다. 1905년 8월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평화협약이 체결된 이후 상황은 급격히 변해 갔다.

소련 영토 내에서 소수민족 한인의 운명이 모순적으로 증첩된 시기는 1920~1930년대이다.⁸⁾ 그 것은 전혀 공평한 것이 아니었고 정치적 계획에서는

4) Пак Б. Д., Н. Ф. Бугай, 140 лет в России. Очерки истор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М. : ИВ РАН, 2004), с. 91-92.

5) Бугай Н. Ф. Кавказ в судьбах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 контакты, трансформации, перспектива //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Волгоград, 1-2 ноя. 2011. с. 6-23.

6) Заустинский, Когда и как закончится наша война с Японией, Изд. 2-е. Спб., 1905, с. 23.

7) Там же.

하강이나 상승이 동반되었다. 그같은 상황에 따라 극동의 당적 조직과 소비에트 국가권력 기관이 지역 내 민족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결정을 내렸다. 러시아한인이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 자신의 자치적 국가체(автономн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를 구성하는 문제를 대했던 사례는 주의를 기울일 만하다.

1920년대 전반기 극동지역에서 내전이 종식된 이후 소련 내 다른 지역에서는 민족국가 건설(национально-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обустройство)에 속도를 냈다. 제 민족들은 자신의 국가체 형태를 자치화 원칙(принцип автономизации)에 따라 창설해 갔다. 당연하게도 **한인 엘리트들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예외될 수 없었다.** 극동지역의 한인이 러시아공산당(볼) 연해주위원회와 연해주 집행위원회 한인부(이 영선) 앞으로 한인자치주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우선 안건으로 한인들이 집중거주하는 지역을 한인노력한인꼬뭉(о Трудовой корейской комуне)으로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했다. 그러나 국가권력 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주(область, губерния) (수준의 - 역사) 권력 기관의 지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때 한인공산당 중앙부로(Центральное бюро корейской компартии) 위원이자 코민테른에 대표로 (파견된) 한명세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 묶음의 보고서 “연해주 한인주민의 상태”(보고서는 스탈린의 <특별서류철>에 보관됨)을 발표하면서 한명세는 해당 문제에 대한 테제를 요약하여 기술하였다. 한명세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인들에게 영토적 주자치체(территориальная областная автономия)⁹⁾를 제공하는 일일 것이다**라고 평가

8) 선행 시기의 한인 추방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시오. См. : Бугай Н. Ф. Социальная натурализация и этническая мобилизация(Опыт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М., 1998. 등

9) 역주 : 러시아어 автономия에 대한 번역은 자치주, 자치체, 자치제를 혼용하였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치주는 러시아연방의 연방구조에 있어서 하나의 연방주체로 사용할 때이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구상으로 사용할 때는 자치체로,

하였다. 그러나 정치가로서 한명세는 (그러한 해결책이 - 역사) “한국에는 혁명적 열기가, 일본과는 프롤레타리아트 연대가 강화될 것이다”라며 정치적 판단으로 결론을 맺었다.

한명세는 동시에 이 문제를 더 세부적으로 연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실 현존했던 주민에 대한 스탈린식 등급을 고려한다면 설정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같은 입념(идея)이 현실 생활 속에 도입될 수 있었겠는가? 스탈린은 자치제를 언급하면서 **최소한 5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야 (당시 한인은 10만 명 조금 넘는 정도였다.)** 논의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코민테른 한국부로 부대표인 보이쥬스키(Г. Войтинский)는 한인을 자치단위체(автономная единица)로 분리하는 문제와 연해주 주혁명위원회, 읍혁명위원회에 한인문제전담위원기구를 조직할 가능성을 연구하자며 논의를 한정시켰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가 유용하다는 것이었다.¹⁰⁾

보이쥬스키는 이같은 제안을 민족문제인민위원회(나르폼나츠)의 클링게르(Клингер)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기술하였다. 1923년 2월 보이쥬스키는 나르폼나츠(클링게르, 브로이도)로 문제를 구체화시켜 재차 문의하였다. 문제는 코민테른 제5차 회의(5 Конгресс Коминтерна), 특히 1924년 5월 9일의 협의회에서 논의되었다.

이 고안에 반대하여 러시아공산당(불) 연해주 주위원회가 발언하였다. “현시점에서 즉각적인 자치주(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 설립은 시의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나 진지하고도 확실하게 준비할 가능성과 필요성은 있다.”¹¹⁾ 이런 입장에 대한 증명은 1924년 도출된 한인자치국가체(корейская матономная

그리고 하나의 제도로 설명할 때는 자치제가 합당할 듯하다.

10) Нам, С. Г.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район. Пути поиска исследователя. М., 1991. с. 108.

11) ГАРФ. Ф. 1235, оп. 1, д. 141, л. 140~142.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를 극동에 창설하는 문제에 대한 설문결과 결과로 나타났다.

물론 이 문제로 한인은 특별히 열광적으로 의견을 내지도 않았고, 심지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 역자) 주저하는 모습도 보였다. <러시아 한인>들이 1924년 여름에 개최된 <고려인연합회> 대회에서 자치주 문제를 열성적으로 논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문제가 권력의 속성에 맞춰 소비에트 한국을 창설하는 것으로 들렸다. **한마디로 말해 구상(идея)에 따라 드러나지 않고 단지 언어적 선언에 한정되어** 매우 언사뿐인 성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일정한 시간이 흘러 1928년 유태인자치주 설립과 관련하여 비로비잔에 거주하는 한인활동가들이 다시금 한인자치주(корейская автономия)를 동시에 설립하자고 주도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소련 정부에게 청원을 넣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청원은 거부되었다.

한인자치주 구상(мысль)은 최근 다시금 지성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1930~1940년대에는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종족과정이 발전해 간 정황에 집중해 보면 된다. 혹독한 전체주의 체제에서 다민족국가를 통치하는 일이 가능하진 않았을 것이다. 단지 1930년대 후반6 즉 1936년 10월 1일에서 1938년 6월 1일까지 (여러 가지 날조된 이유로) 5,116명(0.3%)의 소비에트 한인이 총살당했고 그들과 함께 8,538명(0.7%)의 중국인도 총살을 당했다. 당시 실상이 그러하였다.

더우기 소련에서 연방 건설의 최하위 단계라 할지라도 무관심 속에 방치되지는 않았다. 연방구조에는 민족지구(национальные районы)가 1933년에는 250개, 1934년에는 240개 그리고 1937년에는 100개가, 그리고 민족소비에트(национальные советы)가 5,300개, 1937년에는 11,000개가 있었고, 1937년 12월 17일 전러공산당(불) 중앙위원회가 “민족지구 및 농촌소비에트 폐지법”을 채택했다. 이런 민족권력기관에 대한 평가가 전러공산당(불) 입장

에서는 마치 “독일인지구, 핀란드인지구, 불가르인지구, 그리고 한인지구가 인민의 적이 해악을 줄 목적으로 창설한 것”으로 의심되었다. 많은 소비에트 조직이 1940년대 초에 거의 해체되었다.

알다시피 소련 정부는 국경지구에서 혼란이 발생하자 “전략적 관계에서 아주 위협적인 연해주의 지점”에서 “한인을 이주시키는 것이 합목적성”을 지닌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즉 “불순민족” 이념을 재차 불러일으킨 것이다. 1937~1938년간 간간히 지속된 파괴적인 정책이 진행된 결과 극동에서 17만 2천명 이상의 한인이 추방되었다.

1940~1970년대 새로운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했지만 순전히 단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으며 어떠한 결과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었다. 1958년 10월 30일 타슈켄트에 거주하는 한인 29명이 진술한 집단편지가 흐루쇼프 명의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당대회 연단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은 그동안 소비에트나 현대 러시아 문헌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문서에는 “극동으로 소비에트 한인을 이주시키고 민족자치주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내용이 담겨 있었다.¹²⁾

편지 작성자들은, “소비에트 권력과 공산당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요청을 호소합니다. 흐루쇼프 동지! 소비에트한인들에게 다른 소수인구 민족체(малые национальности)가 소지하고 있는 민족자치주를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하나의 문제를 당신께 호소합니다. 잉구쉬, 체첸, 칼미크, 핀, 카렐, 부랴트, 이쿠트인이 지닌 것과 동일한 민족자치주를 우리가 받는다면 소비에트한인들은 민족문화와 정책 그리고 이념에 있어서 급속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한인노력자들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평등한 권리를 지니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12) 편지내용은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있다. 원문은 국립러시아최신역사문서보관소(РГАНИ)에 보관되어 있다. РГАНИ. Ф, 5, оп. 31, д. 117. л. 5~7.

그러나 우리는 민족자치주가 없음을 매우 애석하게 여깁니다. 흐루쇼프 동지! 우리는 우리의 요청이 올바로 설명되어 그에 상응한 조치가 내려지길 바랍니다. 만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국내 조선족자치주가 인접한 우리의 고향인 연해주에 민족지구(национальный район)가 제공된다면 이는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민족문화와 정치 그리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커다란 힘을 제공한 일일 것입니다. 흐루쇼프 동지! 우리는 귀하의 올바른 조치를 기대합니다.”¹³⁾

이 모든 것이 **한인들이 소련의 민족국가 건설 분야에서 진행된 과정에 관심을 드러냈음을** 증명해 준다. 1959년 2월 27일 당대회 연단에 등장한 “29인의 한인의 집단편지”는 어떻게 되었는가? 1959년 2월 27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연방구성공화국 당기관부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한인 극동민주와 민족자치주 제공의 비정당성 견해**”는 우즈베키스탄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통보된 대로 타슈켄트주 우르타-사라이지구 마을에 거주하는 요청서 작성자들에게 설명되었다. 토론 중에 요청자들은 답변에 만족을 표시하였다.¹⁴⁾

한인들은 그 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러시아의 그들 거주지역에서 전개된 개혁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중 209명의 한인들은 조국에서 최고 명칭인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수여받았다.

현대란 시대적 조건에서 많은 한인들이 자신을 러시아와 연관지어 정체성을 갖는다. 한인은 러시아 주민의 유기적 부분을 차지한다. 러시아 사회에서 (한인들이) 잘 알려진 덕분에 현대에서 **한인은 〈사마르한인〉, 〈돈한인〉, 〈쿠반한인〉, 〈모스크바한인〉과 같이 현실성있게 불리는 개념을 얻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는 대중언론매체나 일상 생활에서 올려 퍼지

13) См. : РГАНИ. Ф. 5, оп. 31, д. 117, л. 2-4. 원본. 결정문 : “Шейбрлик М. Ф. 동지에게. 이 문서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들에게 보고해 주십시오.”(지금 흐루쇼프 동지는 그 문제를 다룰 수 없습니다. 26. 12. 58. V. 레베제프); (Yu. V. 안드로포프 동지에게, 27. 12. 58 V. 레베제프).

14) РГАНИ. Ф. 5, оп. 31, д. 117, л. 9 원본.

고 있다. 이 역시 진실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이 또한 러시아사회계(российскийсоциум)에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이를 지각하는 종족공동체가 지니는 정체성의 한 특징이다. <고려인협회> 지도자인 강형옥(알렉산드르((Александр Хён Нок Кан)(사마라)¹⁵⁾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는 러시아인이다. 문화나 문학도 (러시아의 것이다. - 역자). 그럼에도 우리는 한민족 문화를 보존하려 노력하고 있다.”¹⁶⁾ 여기에 한민족 생활습관의 증표가 있고 일상성 그리고 안정성이 있으며, 러시아영토 내에서 한인공동체가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긍정성이 있다고 본다.

확신컨대 바로 여기에 종족공동체 사이에 긴밀한 상호관계나 풍부해지는 민족의 문화, 민족간 교류문화에서의 교육 그리고 세상을 더 풍요하게 추구하는 것에 긍정적 징표가 존재한다. 물론 생활조건은 더욱 편리해 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목표를 제기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어쨌든 1990년대 독립국가연합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로 유입되어 온 **한인의 적응은 기본적으로 지속성을 띠지만 대체로 본질상 조용하고 평화적이었었다.** 지난 짧은 시기에 한인들은 러시아사회계(российский социум)에 통합될 수 있었다.

이같은 방향에서 **종족공동체의 높은 수준의 정치문화**가 민족의식과 자기인식을 형성하면서 통합성을 갖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문화에 있어서 정치적 자기인식은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등장한다. **이 모든 것이 사회의 정치화 조건에서 시민이 정치생활에 젖어들고 정치적 일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특별한 의미를 획득한다.** 그들은 삶이 사회 앞에 제기한 임무를 복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해 준다. 이는 가정에서 배운 상호존중,

15) 강형옥의 아버지는 1956년 사할린에서 사마르주로 이주해 왔다. 그는 사할린에서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해 왔다. 1957년 그의 가정에 아들 알렉산드르가 태어났다. 그는 1990년대 사마르주 고려인협회를 이끌었다.

16) 한인들은 자발적으로 러시아에 140년간 이주해 왔다. <http://news.samaratoday.ru/showNews.php?id=34744>

상호이해, 준법정신, 근면, 젊은 세대의 노인 공경, 교육, 민족문화에의 충실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적 지위 등을 이른다. 한인들은 노력할 줄 안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전반기의 새로운 단계에서 자치주문제는 다시 금 한인 공동체사회(корей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앞에 제기되었다. 한마디로 이 문제는 독특한 반향을 견디어 냈다. 격동하는 국가 변동 시기에 한인 자치주문제는 더욱 빈번히 정치포럼에서 논의되었다. 그 결과 1990년 2월 초에 소련공산당 국제위원회와 모스크바 시당위원회 사회정치센터가 개최한 <원탁회의>(좌장 박 미하일 N.)에서 종합되었다.

나라 내에서 실현된 페레스트로이카로 소비에트 한인에게 과거 개인우상화 시기에 상실한 권리를 회복할 역사적 기회가 주어졌다. 소비에트한인은 거의 전 재산을 잃었고 오래 동안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고 물질적 토대를 창출해 주었던 밀집거주지역을 상실했으며 참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다.

여기에 더하여 한인들은 모든 종족공동체의 생존과 보존에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모국의 민족언어를 거의 전부 상실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한인민족엘리트들의 <원탁회의>에서는 다른 목적, 즉 극동지역에 한인민족영토자치주(корейская националь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ая автономия) 형성문제를 어떤 접근법으로(в каком ракурсе) 이해해야 하는지를 규정해야 했다. 이 시기에도 한인자치주 문제는 안전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분명히 반대되는 의견도 등장했다. <모스크바한인> 집단은 **한인자치주의 설립 필요성**이란 문제제기가 시기상조라 평가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적 자료를 준비하고 바로 실천적 측면인 1) 한인이 현재 살아온 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지 동시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2) 거주지 주민의 잠재된 사회심리적 분위기는 어떠한지를 고려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판단하였다. 게다가 이즈음 소비에트 독일인이 뽀볼쭈야독일인 자치주를 회

복하려 했던 선행 경험이 축적되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라토프주에서 시도된 독일인의 노력은 일정한 부정적 결과를 안은 채 완전 실패로 종결되었다.

문화부흥 문제는 민족자각 과정을 지원하고 모국어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당시 소비에트한인의 3/4 이상이 모국어를 구사할 줄 몰랐으며 독창적인 한민족 문화와 전통을 잃어 버렸다.

종족공동체의 발전 전망이 평화와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고찰되었다. 중요한 민족적 임무 중의 하나가 바로 가까운 미래에 지구(район)와 주(область) 그리고 지방(регион) 차원의 기구를 그리고 장차 시민 사회단체 조직인 한 인민족문화협회, 한인문화센터를 강화발전시켜 소비에트한인의 종족문화를 부흥시키고 소비에트 애국주의를 교육시키는 활동을 널리 확산시키는 것이다.¹⁷⁾

이 일에서 실제 진척된 일은 작업을 토대로 상세한 국가프로그램을 채택한 일일 것이다. 1990년 11월 30일 준비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인 최 V. V.와 소련인민대의원이자 소련 최고회의의 위원이었던 김영웅의 수기록 〈소비에트한인의 비영토적 자치제 문제〉가 증명해 준다. 문서상에는 “일부 소비에트한인 주민이 보다 확신있게 1937~1938년 스탈린의 강압적 강제이주 이전에 전통적으로 살아왔던 극동지역으로 이주하는 대가로 소비에트한인의 자치주 창설을 요구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¹⁸⁾

1980년대 말 종족운동(этническая мобильность)의 움직임이 이전과 다르게 고양된 새로운 조건 속에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당면한 자치주 문제를 아무런 상처없이 해결하는 것은 자신의 고유한 돌파구였다. 그같은 상황은 한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꾸르디, 체르케스, 레즈긴, 노가이 민족에게도 해당되었다.

17) РГАНИ, Ф. 5, оп. 972, л. 94-98. 원본.

18) РГАНИ, Ф. 5, оп. 103, д. 972, л. 90-91. 복본.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한 위원회에서는 당의 민족정책에 따라 소비에트한인의 비영토적 자치체를 논의하는 게 합당하다고 권고되었다. 1990년대 시민사회 내에 형성된 한인 관련 단체 지도자들은 한인들이 자치주 창설 움직임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그같은 입장은 받아들여져 러시아연방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의 지지를 받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 사이에는 다른 정서가 있을 수 있다. 전러소비에트 고려인협회(BACK) 지도자들은 1991년 이미 한인이 약 20만 명 거주하고 있던 연해주에 즉각 이주해 갔으면 하는 희망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¹⁹⁾ 연해주 주민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들의 불만스런 선언문이 한인에게 얼마나 혹독한 압박이 되었는지 모른다.

민족자치주를 연해주에 설립하자는 구상을 가진 소비에트한인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이주하려는 데 대응한 대안적 조치가 필요했다. 따라서 모스크바에 지도부를 둔 구조에 상응하게 민족문화자치체나 비영토적 협회의 설립 등 외국의 경험이 매력적인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종족 및 정치세력이 권력과 자원을 재분배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투쟁하는 현존의 대립을 대체할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권력은 한인권력엘리트를 조성하며 자원과 재분할하는 두 개의 경향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민족정책부의 한인자치제에 대한 입장은 분명했다. 고려인협회는 국가정치체제의 일부로 법적근거를 갖추어 포함되었고 그에 상응한 권리를 분배받았다.²⁰⁾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민족정책부는 이러한 제안 사항들을 실천적 측면에 도입하기 위해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마르크스엔겔스레닌연구소(ИМЭЛ)에 제1차 전소학술실천협의회 <소비에트한인: 역사와 현재>를 소집하였다.²¹⁾

19) РГАНИ. Ф. 5, оп. 103, д. 972, л. 90-91. 복본.

20) РГАНИ. Ф. 5, оп. 103, д. 972, л. 90-91. 복본.

그같은 협의회는 계속 개최되었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반향이 있어 1993년 4월 1일 러시아연방 최고회의는 “러시아한인 명예회복법”(N. 4721-1)을 채택하였다. 명예회복과정은 논쟁적인 주제인 러시아한인의 국가성(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문제를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²²⁾

변치 않는 하나의 결과로 얻을 수 있다. 주민 집중지역, 그 곳이 어느 한 종족공동체에 속하는 데라면 곧바로 효과적인 관리문제가 제기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극동지역의 언론에 한인자치주 창설전망과 그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졌음은 당연할 일이다. 많은 경우 이러한 주제에 대한 기사는 순전히 선전적인 성격을 지닌다.²³⁾

이 문제에 대하여 러시아에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국민투표가 패름주의 창설, 크라스토야르크크변경주의 확장, 캄차가 변경주의 조성 문제를 결정하였다. 러시아는 사실상 러시아사회주의공화국연방(РСФСР)의 구체제로 회귀하였다.

이 기간에 연해주 땅에 농업단지를 건설하지는 한인측 제안이 논의되었

21) 그 이전에 유사한 협의회가 소비에트독일인, 그리스인, 쿠르드인 문제로 개최된 적이 있었다.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 마르크스레닌연구소(키타예프 I. N.)로부터 안건(вопрос) 논의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 (참조 : РГАНИ. Ф. 89, оп. 21, д. 65, л. 1. 원본).

22) См. БугайН. Ф. О выселении корейцев с территор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 Отечественная история. №6. М., 1992 ; Он же : Досье «Востока». Корейцы в СССР из истории вопроса о националь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 Восток. №2. М., 1993 ; Насильственное перес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 Сейко («Синие горы»), №15. Япония. Токио, 1993 (на япон. яз.) ; Выселение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5. М., 1994 ; Депортация народов (конец 30-х - начало 40-х годов) // Россия в XX веке. М., 1994 ; Трагические события не должны повториться //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российского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М., 1994 и др.

23) <http://www.vostokmedia.com/news/details.php?id=40216>; <http://www.vostokmedia.com/forum?read.php?f=1&i=64786&t=64786>.

다. 그 곳에서 한국의 기업가들이 항카호 주변에 있는 토지 85만 ha를 49년간 임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⁴⁾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구도는 러시아가 토지를, 남한이 자본을 그리고 북한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프로젝트에 25만 명의 한인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연해주가 인력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연해주 주민의 1/10 수준이다. 이것이 프로젝트를 성사시킬 모든 조치의 내용이다.

실제로 러시아지역 신문 〈졸로토포이 로그〉 4월호(2005)에는 “한인자치주란 수수께끼”란 기사가 다루어졌다.²⁵⁾ 그 기사에는 연해주에 남한의 투자와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할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발간물이 증명하듯이 기사 자료는 연해주 만이 아니라 남한 내에서도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의 재외동포재단(Фонд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이나 국제농업개발원(Международный институт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은 오래 전부터 러시아정부와 해당문제를 협의해 왔다. 남한에서는 당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었던 유명한 학자이자 역사가 그리고 인류학자 이광규가 러시아 신문 〈졸로토포이 로그〉에 관심을 두고 글로써 한국정부에 제기하였다. 이광규 교수는 터무니없이 근거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어느 한 나라에 자치주를 설립하는 문제를 타국에서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²⁶⁾며 확인해 주었다. 그 후 논쟁은 신문의 이어지는 발간호에서 계속되었다.

이처럼 한국측에서는 프로젝트가 갖는 경제적 타당성, 그 실현 메카니즘

24) 이 제안은 아마도 항카호 주변 210만 에이커에 대해 말하는 듯하다. 이 지역은 대부분 목초지, 초원, 목장 그리고 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38만 에이커로서 동일한 이름의 남한 종교 〈대순진리회〉의 지부가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00년 러시아 정부 소유의 이 토지를 구매하였다. 비정부 조직의 정보에 의하면 이 토지에는 석유나 천연가스가 풍부히 매장되고 있다.(См.: <http://www.vostokmedia.com/forum/read.php?f=1&i=64786&t=64786>, (13. 03. 2005).

25) Золотой Рог. 5 апреля 2005. № 25.

26) Какая такая автономия... // Золотой Рог. 2005. № 34.

에 있어서 중요한 지지를 받았다. 사회의 경제적 측면과 연관된 문제를 유명한 학자이자 저자인 역사학-한국학자인 김 게르만(카자흐스탄)도 고찰하였는데, “한인자치주 설립은 불합리”함을 논증해 주었다.²⁷⁾

한인자치주 설립 구상에 대한 유사한 견해로 러시아한인 사회단체의 지도자들(연방적 민족문화자치회(ФНКА), 전러고려인연합회(ООК))의 언급내용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타민족과의 공동거주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²⁸⁾ 2006년 2월 15일 러시아연방 대통령 푸틴은 민족(Нация)과 민족체(национальность)간 우의와 협력의 강화에 대한 공훈법을 제정하여 우정 훈장을 전러고려인연합회 회장인 조 바실리에게 수여하였다.) 국가의 경제적 자원을 개발하고 배가시키는데 함께하며 문화발전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간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해 왔다.

국가의 경제생활에 대한 효과적 관리, 구체적으로 농업분야의 경우 지역 전체와 지역 일부의 경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새로운 정치공학적 기술(политическая технология)이 요구된다. 또한 러시아 땅을 개별 민족에게 추가로 부분할당해 주는 것이 엄청난 오산일 수도 있음이 인식되어 왔다.²⁹⁾

이 분야에서 첨예한 문제를 연구하고 아태 지역 국가간 미래 발전 과정에 특별함이 있음을 표명하는 데 있어 2005년 12월 16~17일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제학술실천협의회(주제: 한반도와 독립국가연합 한인들)에서 동북아 학자들의 논의에 현저한 진전이 있었다.

27) Ким Г. Н. Вечные странники или перманентная мобильность коре сарам пост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http://siteistok.host.net/kg/bibl/Korean_2003/21_KimGN.htm

28) 조 바실리는 〈원탁회의〉(극단주의 - 러시아 국가성애의 위협, 참여자 입장)에 참석하여 발언하였다.(모스크바, 2005. 12. 2, 6쪽).

29) См. Калачинский А.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и хотели выделить в автономную область//http://www/hroorg/fctions?nazi/7/html.

협회의 논의 방향에 있어 러시아한인 자치주 형성에 대한 이 블라지미르(Ли Владимир Ф.) 교수의 시각, 즉 “객관적으로 합목적성 원칙을 고려하자”고 호소할 점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이 점에 일본 학자 오카 나츠코(Ока Нацуко)가 유사한 입장을 나누었다.³⁰⁾ **한인들이 극동에서 어떠한 지역이든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 한인은 강압적 이주 당시에 연해변경주, 하바로프스크변경주, 치타주, 유태인자치주에 분포거주하고 있었다. 오늘날 그 중 5만 명이 남부연방관구와 북카프카즈연방관구의 연방구성주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즉 문제는 답변할 내용보다도 훨씬 많은 상태이다.

이 점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국가의 경제분야가 발전하는 상태에 따라 규정될 것이다. 경제, 문화, 군사활동, 즉 국가의 방어와 관련한 분야에 있어서 상호 연관성 문제는 항상적인 사회의 속성을 나타낸다. 이 문제는 통합성에 서만이 바라볼 수 있으며 러시아 국가를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본래의 속성에 다름 아닌 것으로 모든 다민족사회공동체가 이해해야 할 문제이다.

러시아에서 진행되어 온 자유주의 개혁은 모두 사회건설과 발전이란 측면에서 가치있고 규범적인 서구자유주의 기준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 과정은 러시아민족과 민족체에 내재된 본래의 대립이 오랫동안 불가피하게 겪어 왔다는 점이며 러시아한인 역시 평등한 기준 속에 전개해 왔다

이미 형성된 상태에서부터 탈출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수적인가? 완전한 민족적 자기실현이 필수적인데, 이는 진정으로 (정체성, 직업선택의 자유, 모국어이자 종족공동체 언어의 연구, 유용한 노동이 가능한 직업, 신앙의 자유, 여타 정신적 수요에 대한 충족) 등이 가능한 자유로운 사회에서 가능할 것이다.

³⁰⁾ Ока Нацуко. Корейцы в современном Казахстане : стратегия выживания в роли этнического меньшинства//Диаспоры. 2001. № 2-3; Государство-этническое меньшинство-этническая родина этого меньшинства(русские, уйгуры и корейцы в постсоветском Казахстане)//Казахстан и России : общества и государства.М., 2004. С. 398.

이 점에 있어서 인문분야의 학자들이 자주 검증해 주고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사회의 근대화 과정은 미진한 상태이다. 러시아는 재정-정치 구조가 체제전환되면서 침체 상태에 놓여 있으며 여기서 빠져나올 출구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더우기 (사회) 상태의 (발전 - 역자) 변증법이 그러하므로 러시아의 선행 발전단계에서 이룬 성과를 창조적으로 거부(비판의 의미 - 역자)하는 일은 그동안 축적한 이념적 짐에서 긍정적 요소를 보존하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짐이란 종교적 믿음에 대한 집단적 종족의 역량, 강력하고 사회적으로 평등한 국가이념, 소유형태의 다원주의, 자기표출의 시민적 자유 그리고 민족적 자기실현의 완전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 또한 대한민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와 접촉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는데 달려있다.

러시아어

РОЛЬ КОРЕЙСКИХ КОЛХОЗО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СОЦИАЛИЗМА В СССР (1937~1991 гг.)

Мен Дмитрий

1. Введение

По директив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делу хозяйственного устройства переселенцев и их немедленному включению в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ую жизнь придавалось исключительное политическое и хозяйственное значение. Устройство корейцев переселенцев на местах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ЦА) проходило с огромными трудностями. Несмотря на тяготы и лишения, выпавшие на долю репрессивного народа, корейцы все же сумели выжить и достойно себя сохранить. Именно в трудные с 1937 года корейцы смогли заложить фундамент для своего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Когда, мы корейцы, прокручиваем свою жизнь с высоты

сегодняшнего времени можно заметить, что наша жизнь и борьба проходила во лжи и страхе, под знаменем утопии марксизма. Авторитарность въелась не только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оциальные и политические структуры, но они глубоко въелась в сознании и психике почти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Здесь корни наших бед и проблем, бедности, взаимного ожесточения, исторического хождения по замкнутому кругу, когда меняются формы власти,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их институтов, но положение человека остается почти неизменным.

Люди всегда совершали преступления. Делали это организованно и спонтанно, но такой массовой преступности против собственного народа, которую проводил сталинизм, в общем-то, не было. И все это совершалось под прикрытием заботы о человечестве, но на основе полного пренебрежения к конкретному человеку. Террор - вот переделки человеческого материала во имя будущего.

Сталинизм - это система социального помешательства, когда физически были уничтожены лучший цвет корейской интеллигенции, закрыты доступ к национально-духовной наследий, наконец, это кладбищенский крестосеятель, вырывший братские могилы в трудовых армиях, ГУЛАГах, по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сторию можно кромсать, уродовать, фальсифицировать, утаивать, переписывать, делать с ней что угодно, но обмануть ее нельзя. То же самое и с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ой, много ещё «белых пятен» в его жизненной истории, но правду доносить мы обязаны, в этом смысл всей жизни ученых-корееведов.

Но как бы ни было, где бы ни находились заклеменные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они самоотверженно работали во имя победы над врагом фашизма. Своим трудом, приближая ее светлый час. В фонд обороны от них поступали миллионы рублей. Когда же настал час победы, они надеялись, что после войны все станет на свои места, восстановят заслуженные права и отменят позорное ограничение. Но, к сожалению, этого не случилось. По специальному принятому Указу граждан СССР всем переселенцам и спецпереселенцам решено было оставить навечно в местах переселения. Всем им запрещалось возвращаться в родные края, а самовольное оставление поселений устанавливались длительные сроки заключения до 20 лет каторжных работ. Только после смерти вождя всех народов Сталина (1953 г.) и XX съезда КПСС (1956 г.) были отменены некоторые правовые ограничения и ликвидирована система специального учета.

Нередко окружающие представляют корейцев по преимуществу как народ земледель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В этом есть резон: не ушла ещё в прошлое предрасположенность многих к сельскому хозяйству, к определенным отраслям и видам занятия и даже к конкретным агрокультурам: рису, луку и бахчевым. То было суровая и жестокая борьба за выживание. И в этой борьбе проявились лучшие качества корейцев. В экстремальных условиях они смогли сконцентрировать всю свою энергию, весь свой талант на обустройство новой жизни на неизведанной земле. Вечный памятник им, выросшие на пустынных и заболоченных землях благоустроенные поселки, цветущие сады, рисовые и хлопковые плантации. Их трудовой подвиг по достоинству был отмечен

государством. В советское время (1948-1991 гг.) 135 корейцам Узбекистана и 67 Казахстана было присвоено высокое звание Геро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тысячи награждены орденами и медалями. А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лхоза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Полярная звезда» Ким Пен Хва был удостоен этого высокого звания дважды.

То было какое-то озарение, всплеск массового трудового героизма. За невиданно короткие сроки корейские колхозы осуществили прорыв, подлинную революцию в рисоводстве, хлопководстве, лубоводстве, овощеводстве и животноводстве. Вот, что сообщается в свободном отчете Наркомзема (Министерств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УзССР за 1941 г.: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корейских колхозах Ташкентской области, где ирригационная сеть более устроена, основные работы на рисовых полях механизированы, посевы проводят в ранние сроки, применяют удобрения и 2-3 кратные прополки, урожайность риса превышает в среднем в 1,5-2 раза».¹⁾ Это был всего лишь четвертый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й сезон. Нужно также учесть, что эти хозяйства были созданы в тугаях, освоение которых требовало огромных людских сил и материальных затрат.

Ещё более впечатляющими были достижения лубоводства, которые не просто освоили эту новую для корейцев культуру, но и за несколько лет смогли на порядок увеличить ее урожайность. В 20-30 годы XX в. в Узбекистане урожайность кенафа составляла

¹⁾ Ким Б.И. Корейцы Узбекистана : кто есть кто. Справочное издание.- Ташкент: 1994.- С. 157.

10-15 центнеров с каждого гектара. К началу 50-х годов корейские колхозы, которые по существу монополизировали производство кенафа, добивались 70-80 центнеров урожайности, а вскоре и этот рубеж был побит в 2-3 раза.

Приведем пример из трудового подвига тружеников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Казахстана. Повышая культуру земледелия, колхоз «Авангард» добился высоких, устойчивых урожая. Даже в трудные годы войны здесь не приостанавливался рост урожая, особенно ведущей культуры риса. В 1943 г. колхоз продал сверх плана более 6000 пудов зерна. Особенно высокие урожаи на значительных площадях снимал знатный рисовод республики Ким Ман Сам, который в 1942 г. достиг мирового рекорда урожайности риса (свыше 150 центнеров с гектара).²⁾

Благодаря этим поистине выдающимся достижениям многие корейские колхозы не только прочно встали на ноги, укрепили св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но и смогли резко повысить свое материальное благосостояние. Мощное развитие получили также и социальная сфера, культура, образование, спорт.

²⁾ Ким Сын Хва. Очерк по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Алма-Ата : 1965.- С. 234~235.

2. Развитие корейских колхозов в Узбекистане

В невероятно короткий срок партийно-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иректива от 21 августа 1937 года обязала власти Узбекистана обеспечить «хозяйственное освоение на новых местах переселяемых». Задача оказалась далеко не простой. Обескровленные до этого сталинской коллективизацией Узбекистан принял на себя нелегкую ношу по обустройству десятки тысяч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прибывших в отведенные им места поселения в канун холодной зимы 1937-1938 гг.³⁾

Реш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ССР было принято волюнтаристски, без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согласия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Узбекистана.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носило военно-стратег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обсуждению не подлежало. Предстояло переселить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практически без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и к такому большому мероприятию. Республика должна была принять 6 тысяч семей (30 тысяч человек), а в октябре это число было увеличено ещё на 5 тысяч семей (22-25 тысяч человек).⁴⁾

Для Узбекистана это решение создавало массу трудностей. В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м отношении он не был готов к приему такого количества переселенцев. В середине 30-х годов республика по своему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занимала одно из

³⁾ Ли У Хе, Ким Ен Ун. Белая книга. О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в 30-40 годах. Книга первая.- М. : 1992.- С. 65-66.

⁴⁾ Централь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ЦГА РУ). Ф. Р837. Оп. 1. Д. 587. Л. 12.

последних мест в стране. Она не в состоянии была обеспечить нормальным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ми и жилищно-бытовыми условиями не только переселенцев, но и своего населения. Не хватало жилья,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поскольку стройматериалы и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завозили из других республик, ни больниц, врачей, лекарств, свирепствовала маляр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збекистана обязано было выполнить решение Москвы, разместить, накормить, обеспечить жильём и трудоустроить. Руководство страны принял 16 сентября 1937 г.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расселении корейских хозяйств». Была создана Республиканская Чрезвычайная комиссия по приему и размещению переселенцев. В этом документе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жизненно важ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их своевременное выполнение могло оказать положительное воздействие на жизнь корейцев. Только осуществить это было очень трудно.

В нем в частности говорилось: «разместить до оконча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илищ для переселенцев в имеющихся районах помещениях, а в случае нехватки, немедленно приступить к оборудованию жилищ, Наркому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ю немедленно организовать медпункты, обеспечить медперсоналом и медикаментами, в двухнедельный срок представить проект-смету типовой больницы на 70 коек. Обязать Наркомат просвещение подготовке к учебным процессам. Обеспечить переселенцам землями для посадк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культур и пр., пр.».⁵⁾

⁵⁾ См. : Ким П.Г. Корецы Узбекистана :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Ташкент : Узбекистан, 1993.- С. 17~19.

Безусловно, это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бстоятельно определяло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работы по приему и размещению корейцев-переселенцев. Выполнение всех его пунктов избавило бы вынужденных мигрантов от тех несчастий, которые им пришлось вытерпеть. Но по всем объективным и субъективным причинам выполнение этого Постановления было нереальным.

В течение сентября-октября 1937 г. в республике шла напряженная работа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приему коре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Совет Народных комиссаров Узбекистана 26 сентября в специальном циркулярном письме обязал все райисполкомы установить связь с начальниками станции назначения, куда будут прибывать переселенцы, установить день и час прибытия эшелонов, подготовить транспорт, наладить торговлю продуктами питания. Для этого районные председатели провели учет транспорта для перевозки переселенцев. Было подготовлено жильё для 700 семей, заготовлены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для ускорен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илья приглашены мастера рабочие. Всего для перевозки переселенцев только в хорезм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о мобилизовано 530 человек с автомашинами и арбами.⁶⁾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переселенцев должны были расселить на целинных землях, которые в большинстве представляли собой камышовые заросли и тугаи вдоль реки Сыр-Дарья, предстояли большие работ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ирригационных сооружений.

⁶⁾ РА ИПСИ ЦС НДПУ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й архив Института политических и социаль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Центрального Совета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Узбекистана) Ф.58.Оп. 12. Д. 15. Л. 102.

Для решения этих проблем в октябре 1937 г.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збекистана разработало систему мер по мелиорированию земель для создаваемых корейских колхозов. Но тогда самой важной проблемой была подготовка жилья. На е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Узбекистан выделил 950 тысяч рублей.

За период с 20 сентября по 1 ноября 1937 г. по Среднечирчикскому району было построено 625 юрт площадью 2562 кв. м, 134 землянки, переоборудовано 46 различных помещений под жильё площадью 2655 кв. м, Нарком 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зрасходовал на эти цели более 875 тысяч рублей.

Но, несмотря на особую важность и срочность выполнение этого Постановления шло очень медленно, причин было очень много: отсутствие документации и материалов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казалось и на нехватки рабочей силы и др. В итоге ко времени приезда переселенцев всего было подготовлено жилой площади не более чем для 2500 семей. Дело усугубилось ещё, ког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ССР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дополнительно к 6 тысяч семей, направить в Узбекистан 5 тысяч, то есть 22-25 тысяч человек.⁷⁾

Это решение поставило республику в крайне тяжелое положение, ибо она уже мобилизовала до последнего предела силы и средства для приема и размещения первоначально определе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ССР. Размест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о 5 тысяч семей решили на землях ликвидированного рисового совхоза и уже

⁷⁾ ЦГА РУ (Центрадь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Ф. Р-837. Оп.32. Д.587. Л.12.

созданных корейских колхозах.

Необходимо отметить, что во всех этих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 приему переселенцев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принимали все народы, проживающие в Узбекистане. В Узбекистане была только начата подготовительная работа по приему переселенцев, когда на другом конце страны -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спешном порядке шла погрузка в эшелоны корейцев для отправки их в неведомые края.

Расселяли их в тех районах, где можно было оперативно подвести экономическую базу под их колхозы, где были свободные земли, отвечающие специфике основных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занятий -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рисоводству и рыболовству. И учитывая указа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ССР подальше от по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ов, Узбекистан принял всего 16307 семей, состоящих из 74500 человек. Всем им надо было найти кров, пищу, работу и помочь обжиться на новом месте.⁸⁾ К весне 1938 г. большая часть переселенцев была устроена в специально созданных для них колхозов, другая доприселена к ранее существующим узбекским колхозам.

Трудно сложилась судьба рыболовецких колхозов. В Каракалпакию были переселены 11 корейских рыболовецких колхозов (700 хозяйств). Но заняться рыболовством они не смогли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й базы. После долгих переговоров с местны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в апреле 1938 г. бывшие корейские

⁸⁾ См. : Ким П.Г. Корейцы Узбекистана :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Ташкент : Узбекистан, 1993.- С. 35.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рыболовецкие колхозы переехали в Ташкентскую область и занялись земледелием.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организованным устройством колхозов корейцы оказывались в трудных условиях. Борьба за монокультуру хлопчатника привела к тому, что к концу 30-х годов все лучшие земли в республике были отданы под хлопчатник. Корейские же колхозы ориентировались на выращивание риса. Оставалась единствен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обеспечить их землей и отвести им площади, не пригодные под хлопчатник. Таковыми явились целинные земли, камышовые заросли, чаще всего это были заболоченные земли, поэтому для их обработки требовались определенные усилия и средства.

Тяжелые бытовые условия, болезни уносили немалое число жизней. Особенно большая смертность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была в первые два года. И хотя рождаемость не сокращалась, естественный прирост населения не наблюдался. Отрицательный баланс между рождаемостью и смертностью корейцев начал меняться лишь в конце 1939 г.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осуществилась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магистральных каналов, переустройству внутриколхозной оросительной сети, проведена дренажная работа заболоченных мест для постройки жилищ. Возделывание риса корейскими колхозами поставили на очередь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оллекторов, очистку и ремонт уже существующей ранее оросительной системы.

Таким образом, вся посевная площадь в 1938 г. 10488 гектаров была освоена полностью. На вс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проведению

ирригационных работ для корейских колхозов в 1938 г. было ассигновано по союзному бюджету 2 млн. рублей и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му - 260 тысяч рублей. Всего для 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освоения корейским колхозам было отведено, включая приусадебные участки, 30448 гектаров земли, из них 29879 гектаров под вновь организованные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е корейские колхозы.

Если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посевной план на 1938 г., то можно заметить, что было запланировано в основном выращивание тех традиционных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культур, которыми корейцы засеивали земли Приморья - рис, бобы, пшеница, кукуруза, просо. Корейским колхозам был отдан приоритет в выращивании риса. Несмотря на трудности, с решением зерновой проблемы, все корейские колхозы были обеспечены семенными фондами.

Самой трудоемкой работой являлась подготовка земли для посева. Колхозы начали эту работу, не имея техники. Работали самоотверженно, знали, что только труд спасет их от голода. В результате земные работы выполнялись на 400-700 % сверх нормы.

Особенно трудно пришлось корейцам в летнюю пору, поскольку такая жара им была непривычна. Вода на рисовых полях нагревалась до 35-40 градусов, надо было провести 3-4 прополки. Но они работали от зари до темноты и своевременно провели агротехническую обработку земли для посева зерна.

Несмотря на нерешенность проблемы с обустройством, посевную кампанию весны 1938 г. корейцы провели в установленные сроки, план посева был выполнен полностью. Успешно проведена также уборка урожая, которая показала довольно высокую урожайность -

в среднем от 20-40 центнеров с гектара. А в отдельных бригадах колхоза «Полярная звезда» урожайность достигла до 60-70 ц с гектара.

В 1939 г. посевные площади под рис были расширены в 1,5 раза, в основном за счет освоения целинных земель. Проведенные посевные и уборочные работы дали высокие результаты. Например, в Ташкентской области урожайность риса повысилась в 1939 г. до 29 ц с гектара против 20,8 центнеров в 1938 г., а в 1941 г. составила уже 31,1 ц.

Особенно высоких показателей добились колхозы им. Ленина с площади 300 га урожайность составила 39,5 ц и на один трудодень колхозники получали 15,5 кг риса, в колхозе «Северный маяк»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37,5 ц с га и 17,4 кг риса, не считая денежной оплаты.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агротехники, освоение новых земель, выведение высокоурожайных сортов, улучшение организации труда позволили колхозам заготовить в 1940 г. 510634 ц риса, что на 176692 ц больше, чем в 1939 г. Новой для коре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хозяйственной культуры явился хлопчатник. С этого времени корейцы начали осваивать науку возделывания хлопчатника.

Как уже отмечалось, 5820 семей коре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организовали вновь 50 колхозов в Узбекистане. Все они начинали с нуля, так как не было никаких строений, которые можно было бы переоборудовать в жильё. Поэтому им пришлось обратиться к испытанному методу в борьбе за выживание, применявшемуся в

аналогичных экстремальных условиях - строительству землянок.

Трудности в этом деле начались с первых же шагов. У корейцев не было ни орудий труда, ни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ни техники. На помощь пришли местное население. Почти каждая семья пожертвовала для строящихся землянки свои орудия труда: лопаты, кирки, кетмени, носилки, а также стройматериалы, камышовые щиты, заготовленные для отопления жилища дрова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Именно эта помощь, граничащая с самопожертвованием, позволили большинству корейцам за короткий срок построить жилища и не оказаться на улице. В сравнительно лучшем положении оказались те, кто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ранее существующим колхозам. Так, 5017 семей переселенцев влились к 206 колхозам.

Многие корейские семьи были заселены на уплотнение к узбекским семьям. Большая часть из них пустили к себе корейские семьи добровольно, движимые светлыми помыслами - помочь людям, оказавшимся в беде. Они предоставили корейским семьям свое жильё, а сами переезжали на временное жительство к родственникам.

Имелись случаи, когда местное население настороженно встречало переселенцев. По-человечески их вполне можно было понять. Официальная власть всячески старалась представить переселенцев, как неблагонадежных, даже связанных со шпионажем с Японией. И все же в этой сложной морально-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й узбеки и другие народы республики проявили сдержанность и великодушие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орейцам. Мудрость народа,

пережившего жестокое испытание, унижения и притеснения от арабов, монголов, царского самодержавия подсказало, что целый народ нельзя обвинять в преступлении. Они приняли корейцев с большим пониманием и сочувствием, проявив высокий гуманизм, оказывая им посильную помощь во всем.

Что и говорить, приезд коре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в Узбекистан, хотя и не по своей воле, осложнил жизнь коренного населения. Устройство переселенцев проходило за счет ущемлен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бытовых, культурных и других сфер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коренного народа республики.

Шло время, к концу 1939 г. корейские переселенцы после тяжелых страданий, больших человеческих потерь, благодаря помощи братских народов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Узбекистана, а также своему большому трудолюбию, стали обживать на новой земле, которая для них стала Родиной. За 1938-1940 гг. корейские значительно окрепли, основные средства производства выросли в 2-3 раза, денежные доходы увеличились в 4-5 раза, валовой сбор риса в 2, 5 раза. Колхозы стали сильными и многоотраслевыми хозяйствами.

К 1941 г. Узбекистан был ведущим рисосеющим регионом в СССР, что очень помогло и жителям республики и всей стране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елик вклад в это дело корейцев Узбекистана. Им, как и всем жителям страны, пришлось пережить тяжелые испытания, которые обрушилась на них в июне 1941 г.

Через четыре года после тяжелых проживаний на древней земле

узбеков наступил новый час испытания для корейцев, началась Великая 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ойна с фашизмом. Война застала корейские колхозы на стадии их хозяйственного укрепления. Многие из них приобрели технику: трактора, комбайны, автомашины, тягловую силу и др.

Как и все народ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йцы активно включились в перестройке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 военный лад. На действующий фронт их не мобилизовали, так как их считали неблагонадежными, мужчин отправляли на трудовой фронт (трудармия). Сколько им трудилось и умерло на лесозаготовках, шахтах, строительстве дорог и городов ученые до сих пор изучают. Работающие на трудовом фронте были лишены элементарных человеческих прав. Они содержались как заключенные, без права на отдых и передвижение, общение с родными. По грубым подсчетам их погибло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тысяч.

Корейские колхозники в годы войны принимали самое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на стройках гидро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их заводов, азотнотуковых комбинатов и на других важных строительных комбинатах страны. С этого времени они стали пополнять ряды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рабочего класса. Депортация корейцев в Узбекистан должна была частично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обеспечения рабочей силой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режде всего хлопководства.

В условиях военного времени при нехватке рабочих рук, а также техники, удобрений корейские колхозы «Полярная звезда», «Северный маяк», «Новый путь», им. Димитрова и другие

показали образец высокой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и труда. Средняя урожайность риса в годы войны выросла до 50-60 ц с гектара, а в отдельных колхозах до 70-80 ц. За четыре года войны Узбекистан, не завозя из России, Украины и других республик зерна, обеспечивал потребности в продовольствии хлебом соб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Здесь есть значительная доля трудового подвига корейских тружеников села и во всех успехах сель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росматривается определенный вклад корейских колхозов, которые являлись основными поставщиками риса.

По инициативе тружеников колхозов помощь фронту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скорой победы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Фонд обороны»: сбор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сбор теплых вещей для нужд армии, организации подписки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займ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осевы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культур. Целые коллективы корейских колхозов вносили в этот фонд наличные деньги, облигации, дорогие вещи и др.

Весомый вклад в фонд обороны внесли корейцы. Тракторист из Ташкентской области Лим Павел внес свои личные сбережения. В телеграмме Сталину он писал: «Колхозники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виаэскадрильи «Советский Узбекистан» собрали и сдали в Госбанк 4 млн. 316 тыс. рублей, в том числе я лично внес 303 тысячи рублей накопленной честной работой в колхозе, и прошу на эти средства построить боевой самолет, чтобы скорее и окончательно разбить ненавистного врага».⁹⁾ А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лхоза «Северный маяк» Цой Сергей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амолета

внес 1 млн. рублей. В фонд помощи фронту корейцы также активно подписывались на военны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займы. Здесь можно бесконечно продолжить и называть имена патриотов, таких примеров можно привести сотни.

Корейцы республики также проявили боевую активность в проведении мероприятий по сбору теплых вещей и подарков. Не было семьи, которая не занималась шитьём одеял, телогреек, варежек, носков. Длинными, зимними ночами у керосиновой лампы были охвачены этой работой. Об участии корейских колхозов в сборе теплых вещей для фронта говорит информация секретаря Нижнечирчикского райкома: «Сбор теплых вещей проводят все колхозы и организации. Лучше других организовали корейские колхозы им. Буденного».¹⁰⁾

Всего в годы войны трудящиеся Узбекистана из личных сбережений внесли в Фонд обороны из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займов 4 миллиарда 226 млн. рублей. Десятки миллионов в этот фонд поступило и от корейцев страны. На эти средства были построены танки, самолеты. Танковые колонны, авиаэскадрильи так и назывались «Советский Узбекистан», «20 лет Узбекистана», «Колхозник Узбекистана». Во всех в этих боевых машинах вложена частица труда корейцев Узбекистана.

Война явилась суровым испытанием для всего советского народа, а для корейцев в особенности. В мероприятиях, связанных с решением задач по созданию фонда победы, корейцы принимали

⁹⁾ РА ИПСИ ЦС НДПУ. Ф. 1. Оп. 2. Д. 1109. Л. 24.

¹⁰⁾ РА ИПСИ ЦС НДПУ. Ф.1. Оп. 2. Д. 916. Л. 72.

самое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Они почувствовали себя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народов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Обретаясь здесь, приютившим и спасшим от гибели новую Родину,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плечом к плечу вместе с узбеками, русскими и другими братскими народами страны выполняли свой патриотический долг для побед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пятилетнем плане определили свои конкретные задачи и корейские колхозы. Если в довоенные и годы войны они в основном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лись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риса, то после войны перед ними как основную задачу поставили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производство хлопка и других технических культур.

С победой над фашизмом, как и вся страна, корейские колхозы стали набирать силу, возвратились участники трудового фронта. Государство выделило денежное средство, технику, удобрение, скот, начался процесс подготовки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через вузы. На нескольких примерах расскажем о достижениях и подвигах корейских колхозов Узбекистана в советские годы.

Колхоз им. «Полярная звезда» (с 1974 г. колхоз им. Ким Пен Хва). С 1940-1974 гг.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лхоза являлся дважды Гер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Ким Пен Хва, с его именем связана дальнейшая более 30-летняя история колхоза. Из отсталого колхоза он вывел колхоз в передовые. Мощный рывок в урожайности хлопка, риса и других культур был совершен этим колхозом,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стал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хозяйств в республике. Выдающиеся заслуги колхозников по достоинству

были оценены Родиной, 26 работников «Полярной звезды» были удостоены высокого звания Геро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сотни колхозников награждены орденами и медалями. Такого прецедента не знала история советског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Огромные хозяйственные достижения колхоза позволили коренным образом улучшить благосостояние жителей, быт, культуру, построить современный дворец культуры, школы, медицинские и дет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жилых домов. А народный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национальный ансамбль пользуются популярностью и сейчас в республике. Хорошо поставлена работа по изучению род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 базе школы проводятся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е семинары и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проблеме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¹¹⁾

Колхоз «Политотдел» председателем с 1953 г. являлся Гер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Хван Ман Гым (1921-1997 гг.). Под его руководством «Политотдел» из маломощного, слаборазвитого колхоза за считанные годы превратился в одно из передовых и рентабельных хозяйств в советском Узбекистане. Новаторские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начинания Хван Ман Гыма опережали время,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есятилетий колхоз находился в авангарде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прогресса, а уровень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колхозников,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ы, образова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порта значительно превышал союзные показатели.

С именем Хван Ман Гыма связано развитие лубоводства, в

¹¹⁾ См. : Ким Б.И. Корейцы Узбекистана : кто есть кто. Справочное издание.- Ташкент : 1994.- С. 56.

колхозе были созданы семенная лаборатория и селекционная станция, которые были заняты производством лучших семян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культур и отборных пород животных. Наивысшего успеха лубоводы колхоза достигли в 60-е и в середине 80-х годов. Ими были найдены агрономические приемы, которые позволили акклиматизировать кенаф в Ташкентской области. Именно в колхозе «Политотдел» был получен самый высокий в мире урожай стебля и семян кенафа, 150-200 центнеров с гектара. Значительных успехов колхоз достиг в советское время в развитии рисоводства, хлопководства и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Хван Ман Гым снискал заслуженное уважение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избирался членом ЦК Компартии Узбекистана, 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республики, депутатом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Узбекистана,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на съездах КПСС и компартии Узбекистана.¹²⁾

Животноводство тесно связано с развитием кормовой культуры. Этой работе колхоз уделял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результат не замедлил сказаться. В 60-7-е годы колхоз получил самый высокий урожай кукурузы на силос и на зерно. В этом немалая заслуга звеньевой колхоза «Политотдел» Геро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Ли Любови, в возделывании кукурузы она подняла на такую высоту, что и поныне является основой семеноводче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не только по республике, но и соседним государствам.

В 1961 г. по всему Советскому Союзу облетела весть о трудовой

¹²⁾ Ким Б.И. Кореяцы Узбекистана : кто есть кто. Справочное издание. - Ташкент.

славе Любови Ли, о ней писали все центральные и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е газеты. Ее звено с площади 70 гектаров получило по 1967 центнеров зеленой массы кукурузы - это эквивалентно 43 тысячам кормовых единиц, 430 ц овса, около 100 ц зерна, гектар кукурузы может дать 36 тонн молока или 1600 кг сливочного масла. На базе колхоза «Политотдел»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различные семинары и совещания по изучению передового опыта возделывания кукурузы. Эти достижения были отмечены в приветствии Первого Секретаря ЦК КПСС Н.С. Хрущева 14 октября 1961 г.¹³⁾

С успешным развитием всех отраслей хозяйства колхоза повышалось и материальное благосостояние его членов. В 70-80-е годы ежегодный доход колхоза составлял 13-14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Это были самые высокие показатели среди колхозов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колхозники получали самые высокие заработные платы.

Одним из важных достижений колхоза «Политотдел» является - это успешное решение социальных проблем. Колхоз ежегодно выделял 2,5 млн. рублей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ультурно-бытовых 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объектов.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колхоза построены 8 школ на 4000 учащихся, Дворец культуры на 1100 мест, 4 клуба, 2 спортивных комплекса на 23 тысячи мест, стационарная больница на 120 коек, 5 амбулаторий, аптека, 10 детских садов и яслей. Возведены 4-6 комнатные квартиры, к домам колхозников

¹³⁾ Ким П.Г. Корейцы Узбекистана :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Ташкент : Узбекистон, 1993.- С. 103.

подведена асфальтированная дорога, каждый дом имеет телефон и т.д. Колхоз имеет футбольную команду «Политотдел» и женскую команду хоккея на траве, свыше 20 мастеров спорта по различным видам спорта. «Политотдел» известен также своими творческими коллективами как ансамбль «Чен-чун», ставший лауреатом премии Ленинского комсомола, ему аплодировали залы Нью-Йорка, Лос-Анджелеса, Москвы, Алматы и другие города.

Только в 1953 г., наконец-то, после смерти Сталина было официально снято с корейцев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клеймо неблагонадежности, 16 лет они носили это позорное обвинение «японского шпиона». Прошло уже 75 лет, как корейцы стали равными со всеми народами республики. За эти годы много воды утекло, были в истории жестокие репрессии, обустройство в новых местах,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оциализма, затем переход к рыночным отношениям. Одно можно с уверенностью сказать - корейцы выстояли все, что было уготовано судьбой, вышли закаленными и сильными, вместе с другими братскими народами успешно освоили рыночную экономику.

В связи с переходом на новую систему рынка корейские колхозы, как и все коллективные хозяйства Узбекистана переживают не лучшие времена. Прошло более 20 лет независим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страна налаживает былые хозяй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Есть полная уверенность, Республика Узбекистан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займет достойное место среди экономически мощных государств.

3. Роль корейских колхозов в 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Казахстана

В конце сентября 1937 года эшелоны с корейцами-переселенцами стали

прибывать в Казахстан, в пункты назначения и временного расселения. Их размещали в землянках, в клубах, сараях, амбарах и пр. На станции Джалагаш был разгружен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й техникум, в Казалинске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техникум. Рыбаков размещали в помещениях рыбзаводов.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радио студ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Авангард» были размещены в Кзыл-Орде.

Процессы размещения и адаптации происходили сложно, довольно болезненно. Основными причинами являлись: во-первых, отличие природно-климатических услов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Казахстана; во-вторых, несмотря на достаток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о стороны союзного бюджета и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в результате ошибок и просчетов, а зачастую и прямых нарушений, хищений руководства, основная часть корейских хозяйств, как в самостоятельных колхозах, так и в доприселенных, не были обеспечены материальными ресурсами, жильём, продуктами и т. д. Отсутствовали элементарные бытовые условия. Сюда же следует добавить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е состояние корейцев, униженных и лишенных всяк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ав. В паспорте стоял штамп о праве проживания в определенной местности, с ограничением прав свободного передвижения.

Корейцам, в отличие от многих других переселенных народов, было выделено государством значительные материальные и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Конечно, вопрос о том, какая часть помощи доходила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до переселенцев, а какая (большая) была не по назначению. Нельзя отрицать очевидный факт, что помощь, как материальная, так и финансовая была оказана. Каждой семь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лось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отдельной квартиры и постройка миним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общественных зданий для бытов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и хозяйственного устройства колхозов.

На 1 июля 1938 г. корейским колхозам Алма-Ат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 открыт кредит на сумму 4448000 рублей, из них: возвратных средств - 1605700 рублей и безвозвратных - 2842300 рублей. Затраты на 1 хозяйство, включая стоимос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ставляла 4042 рубля, из них: возвратных - 2518 рублей, безвозвратных - 1524 рубля.¹⁴⁾

Учитывая тяжелое матери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ССР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о выдаче корейцам одновременно безвозвратного пособия. На оказание материальной помощи особо нуждающимся семьям были переведены средства. Кроме т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зрешило выдавать кредит для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нуждающимся семьям рабочих и служащих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ремонт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жилищ. Правительство

¹⁴⁾ Ан Р.К.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корейцев в Семиречье (1937-2003 гг. Исторический аспект).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Алматы : 2004.- С. 37.

оказало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ую помощь в размере 3 центнера хлеба на каждую семью, с погашением натурой в течение 2 лет. На 1 октября 1939 г.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ая ссуда была полностью распределена между переселенцами.

25 мая 1938 г. было принято Постановление № 506/13 «О транспортном инвентаре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орейских поселков». Корейским колхозам Алма-Ат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и выделены 72 грузовые автомашины. Причем,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пользовались те колхозы, в которые были доприселены 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корейских хозяйств. Таких директив о помощи корейца было принято множество после депортации. Однако они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крайне неумело и без должного эффекта. Часто эти средства не доходили АО своему прямому назначению, были случаи и прямого разворовывания денежных и материальных средств.

Положение коре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оставалось тяжелым. В октябре 1939 г.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обследование корейских колхозов. Выяснилось, что состояние жилых построек было признано в большинстве колхозов не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ым. Жилые дома требовали обязательного текущего и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ого ремонта. Обеспеченность водными источниками была также недостаточной, не хватало питьевой воды, работы по изысканию источников начались с большим опозданием, да и качество воды было не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ым.

Очень плохо была поставлена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частые случаи заболевания детьми корью, скарлатиной приводили к смертельному исходу.

Отсутствие продуктов, как овощей и фруктов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цинги, гемоколита, дифтерии.

Отделы народ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е во время подготовились к учебному году, школы находились за 2-3 км от места жительства. Обучение велось в зданиях, принятых от совхоза и временно приспособленных под школы, во временных помещениях или приспособленных жилых домах. Из-за недостатка помещений дети учились в три смены. Хуже обстояло с учителями, 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ий состав не был подобран и комплектован. А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детских садов не было и речи.

Социальный статус корейцев оставался неопределенным, хотя у них не было статуса «спецпереселенца», передвижения их были ограниченным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ыехать за пределы района, они должны получить разрешени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органов НКВД (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иат внутренних дел - Министерство внутренних дел).

До самой смерти Сталина в 1953 г. корейцы подвергались официальной дискриминации. Корейцев мужчин не призывались к армейским службам. Политические репрессии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йцев начались задолго до депортации и продолжались как во время нее, так и после. В ходе репрессии были почти поголовно уничтожены интеллигенция, партийные руководители, офицеры под предлогом «борьбы японского шпионажа». Тысячи корейских ученых, партийных деятелей были расстреляны или погибли в лагерях для заключенных. Арест ложился клеймом на всю семью, увольняли с работы, детей исключали из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из

комсомола и т.д.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подавив чувства унижения и обиды корейцы поднялись вместе со всеми народам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чтобы внести посильный вклад для победы. Приближали день победы корейские колхозы Казахстана, осваивали новые земли, увеличивали посевные площади. Так, в колхозе «Авангард» Чиилийского района Кзыл-Орд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четыре года войны был поднят 731 гектар целины.

Они достойно представляли 100 тысячное корейское населе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 ним относятс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ередовики производства, награжденные орденами и медалями. Так, только одним Указом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от 28 марта 1948 г. 21 корейцам Талды-Курга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о присвоено высокое звание Геро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Многие были отмечены орденами и медалями. Это после десяти лет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депортации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А 21 мая 1949 г. среди награжденных орденами и медалями по Кзыл-Орд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з 92 человека 52 были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в том числе 16 - удостоены орденом Ленина, 20 - орденом Трудового Красного Знамени, 14 - удостоены звания Геро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¹⁵⁾

Для примера возьмем колхоз «Авангард», в трудные годы войны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Геро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Ким Хон Бин не приостанавливался рост урожая риса. В 1943 г. колхоз

¹⁵⁾ См. : Мен Д.В., Квон Л.А., Ким З.В., Пан Н.Г.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Алма-Ата : Казахстана, 1992.- С. 11~43.

продал сверх плана более 6000 пудов зерна. Особенно высокий урожай собирал знатный рисовод республики Ким Ман Сам, который в 1942 г. достиг мирового рекорда по сбору риса, свыше 157 ц с гектара. Под его руководством в колхозе проводились опыты, велись поиски новых методов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подъёма урожайности риса.

Совет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ысоко оценило достижения Ким Ман Сама. За внедрение передовых приемов агротехники, обеспечивающих получение рекордных урожаев риса ему в 1946 г. была присужде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емия СССР, а в 1948 г. присвоено высокое звание Геро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В колхозе «Авангард» выросла целая плеяда мастеров рисоводов, которые также удостоены звания Геро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это - Ан До Дю, Ким Ик Се, Ким Чан Ден, Ким Хан Гю, Ла Бен Сер, Ли Ен Гын, Тянь Гым Чер, Цой чун Зе, Хван Чан Нир, Хе Се Ун и др., а Ибрай Жохаяев ученик Ким Ман Сама удостоен этого звания дважды Геро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Достойный пример трудовой доблести в годы войны показали хлеборобы колхозов «Большевик», «3-ий Интернационал», «Гигант», «Кантонская коммуна», где также выросло десятки Героев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Патриотизм корейцев в годы войны проявлялся повсюду, организация массовых воскресников, взносы в Фонд обороны страны, сбор средств на постройку самолетов, танков, бронепоездов, подарки для фронтовиков, помощь семьям советских воинов. Их трудовой героизм находили самый горячий отклик в сердцах советских граждан. Корейские

колхозы стали крупными многоотраслевыми хозяйствами. Из года в год они расширяли посевные площади под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культуры, развивали животноводство, тутоводство и др.

19 января 1950 г. вышло Постановление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 «О мерах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развитию хлопководства в Южно-Казахстанской и Джамбульских областях Казахской ССР». Началось освоение Джетысайского массива Южного Казахстана под хлопковые плантации. Новый этап в развит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вязанный с освоением целинных и залежных земель привел к росту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 Талды-Курга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концентрации и интеграц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ривели к дальнейшему укреплению колхозов и преобразованию их в совхозы.

После укрепления все корейские колхозы изменили свой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они перестали быть мононациональными, поскольку объединились с колхозами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с казахским континентом населения. В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х колхозах можно заметить условно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разделение труда между различными национальностями по отраслям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Корейцы были заняты в основном в полеводстве. Хотя приоритетом экономики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качество производства, на самом деле страна продолжала экстенсивный путь развития, поощряя производство и гонку вала.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цы и весь советский народ, активно включились в широко развернувшееся в тот период по всей стране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е соревнование, брали повышенны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вызывали на соревнование другие бригады. Они достигли высоки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показателей не только в рисосеянии и свекловодстве, но и в области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и садоводства. Выполняли досрочно планы по сдаче хлеба государству и принимали высоки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сдач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одуктов сверх плана.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60-х годов XX в. корейцы уже не имеют значительного удельного веса среди рисоводов в Казахстане. Причинами этого явились не только ускоренная урбанизация, и как следствие, изменения в социальной структуре, но и переориентация рисосеющих хозяйств на культивирование иных, более рентабельных культур. Корейцы начинают заниматься овощеводством и огородничеством. Опыт передовых овощеводческих хозяйств в культивировании лука был широко известен за пределами республики.¹⁶⁾

В 60-е годы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ей Казахстана был взят курс на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утем его интенсификации, расширение площади посевов культур на орошаемых землях, ранее не пригодных для земледелия. В этих целях в стране широкий размах получило гидротехническ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росительная сеть с каждым годом охватывало все большую площадь засушливых земель. В мае 1965 г. по решению КПСС была принята программа, которая предусматривала

¹⁶⁾ Ан Р.К.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корейцев в Скмиречье (1937-2003 гг. Исторический аспект).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Алматы : 2004.- С. 84.

значительное увеличение орошаемых земель.

По инициативе партий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 Алма-Аты в 1967 г. началось освоение земель Акдалинского массива, находящегося в низовьях реки Или под Алма-Атой. Этот массив относится к зоне сухих степей и имеет специфические почвенные и водные условия. Здесь встречаются почвы разной степени засоленности, дл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не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никакой выгоды. Однако река Или, текущая через эти сожженные солнцем степи, стала для них источником возрождения к новой жизни. Эта веками пустовавшая земля стала житницей не только риса, но и других культур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 применением орошения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большие урожаи многолетних трав и овоще-бахчевых культур.

Орошаемых земель составили 500 тысяч гектаров, под посев риса было отведено 250 тысяч гектаров и создано 47 крупных рисоводческих хозяйств. В районе поселка Баканас на базе Бакбакт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Баканасского овцесовхоза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крупный совхоз «Бакбактинский», куда было переселено из Алмаатинской и Кызылординской областей 200 семей. В основном это были корейские хозяйства, имеющие опыт выращивания риса и овощей. Директором совхоза с 1966-1972 гг. был Гер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Хван Сергей Григорьевич. Он показал себя крупным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лхоз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д его руководством совхоз «Бакбактинский» добился значительных успехов по сбору зерновых культур.

Общая площадь земель совхоза составляла 33888 гектаров.

Освоение массива под рис началось в 1967 г., когда совхоз засеял рисом первые 458 гектаров. Посевы риса были сохранены полностью и дали неплохой урожай - по 34, 7 ц с га. Это показало, что почвенно-климат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Акдалинского массива полностью отвечают требованиям этой культуры, поэтому освоение новых земель шло с большими темпами. В последующие годы объём площади, засеваемых рисом растёт: в 1968 г. было засеяно - 1683 га, в 1969 г. - 3200 га, в 1970 г. - 3300 га.¹⁷⁾

В 1968 г., несмотря на несвоевременности подготовленности полей к посеву риса и неблагоприятных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рисоводы выполнили план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заготовок, продав государству 2100 тонн риса. Многие рисоводы добились высоких показателей: звено Цой Якова с площади 85 га собрало в среднем по 41,2 ц, поливальщик Шин Владимир с закрепленных за ним 20 га получил по 52 ц риса.

В следующем 1969 г., когда более качественно подготовились к посевным работам, сделали возможным значительное перевыполнение плана производства и сдачи риса государству. При плановой урожайности 23 ц с га, план валового сбора был выполнен на 117 %. Это результат самоотверженной работы корейцев рисоводов, которые в тяжелых условиях сумели организованно провести намеченные агротехниче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посеву и уходу за культурами. Многие из них достигли высоки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показателей. Так бригада № 5, где

¹⁷⁾ БФГА (Балхашский филиал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рхива). Фонд 17. Опись 1. Дело 305. Лист 6.

бригадир Хван Б.Г., собрала в среднем с площади 519 га по 37 ц, колхозники Хван Николай на площади 30 га получил по 67 ц, Син Владимир - по 62, 5 ц, Шин Владимир - 60,5 ц. Все процессы выращивания и сбора риса производились в полном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современными требованиями агротехники и в лучшие сроки.

В 1970 г. совхоз «Бакбактинский» также произвел сверх плана 3300 тонн риса, сдал сверх плана государству около 2000 тонн риса-шалы.¹⁸⁾

За 1967-1970 гг. бывшая полупустыня дала 297583 ц риса, более 8 тысяч ц овоще-бахчевых, 1420 тонн люцерны и много другой продукции. Только в 1969 г. совхоз сдал государству 65900 ц риса при плане 30000 ц, то есть план был выполнен более чем в два раза. Результаты четырех лет доказали правильность направления на развитие рисосеяния в низовьях реки Или. К 1975 г. планировалось увеличить посевную площадь риса до 7900 га. В этот период увеличилась среднегодовая численность рабочих в совхозе с 472 в 1968 г. до 735 в 1970 г.

Однако успехи совхоза могли быть значительно выше, если бы не ошибки, допускаемы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борьбы за урожай в подготовке оросительных систем и планирование земли. Вместо заблаговременной подготовки земель под посев риса в летне-осенний период, основной объем работ переносился на весну посевного года, в результате сроки сева затягивались. Причиной убыточ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также являлись недостатки в организации

¹⁸⁾ БФГА, ф. 42. Оп. 1. Д.59. Л.17.

производства, использовании материальных и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и труда.

Наряду с рисосеянием намечалось улучшить структуру стада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путем приобретения молочного поголовья скота. Животноводство в совхозе являлось сопутствующей отраслью хозяйства и развивалось в основном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внутривозрастных нужд 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К 1971 г. советскими и зарубежными селекционерами было создано много новых перспективных сортов риса, среди которых были и представляющие интерес для рисоводов Балхашского района совхоза «Бакбактинский». Однако работы в направлении сортоиспытания риса в условиях Акдалинского массива были начаты только в 1971 г. Практически до 1971 г. не было объективных данных о поведении тех или иных сортов в условиях Акдалы.

В 1971 г.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подготовленных рисовых плантации совхоз засеял рисом на 100 га меньше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го и был вынужден распахать по посевам риса многолетние травы прошлых лет на площади 148 га. В целях повышения урожайности необходимо после 2-х летнего стояния риса роля переводить в севооборот с посевом многолетних трав. Однако на площади 81 га рис был размещен по 4-му году, что было крайне нежелательно. Нарушались агротехнические правила.

Средняя урожайность риса в бункерном весе составила 25,9 ц с гектара. Вследствие большой засоренности выход товарного риса был крайне низкий,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план сдачи риса

государству не был выполнен. Затраты, произведенные на рис за сче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расхода семян на перепосев и подпосев, увеличения дозы внесения минеральных удобрений увеличились, а урожай уменьшился, в результате повысилась себестоимость риса. Урожай при высокой себестоимости был низкий, поэтому в 1971 г. совхоз вышел убыточным в сумме 315075 рублей, недостаток оборотных средств составил 344961 рублей.

Хозяйственный 1972 г. совхоз закончил с прибылью 757890 рублей, полностью рассчитался с долгами Госбанка. Хотя совхоз ощущал недостаток в рабочей силе, руководство совхоза не могло заняться с комплектацией кадрами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жилья. Да и в полевых работах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срочно вводить севообороты и отказаться от размещения посева риса более 3 лет, еще лучше от 3-х летнего посева по рисосеянию. Однако, хозяйство не имело такой возможности, так как с приемом новой системы не вводили севооборот, а все принимаемые системы полностью засеивались рисом в течение 3 лет, а на отдельных площадях и четвертый год.

В последующие годы происходили дальнейшее расширение посевных площадях зерновых, и в частности риса. Несмотря на постоянное увеличение плана сдачи риса государству, совхоз его систематически перевыполнял. Однако на перевыполнение плана была очень высокая себестоимость на все продукты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пример, в 1971 г. себестоимость риса в некоторых хозяйствах страны составляли ниже 10 рублей, в Бакбактинском совхозе было 26 рублей 56 копеек.

Самый высокий урожай совхозом был получен в 1976 г., когда посевы риса составили 3900 га, ячменя 1190 га, овощей и бахчевых культур - 28 га, кормовых культур - 1438 га, всего - 6.656 га. Урожайность риса по бригадам была разная. Например, бригада № 9 с площади 483 га собрали по 44, 2 ц, бригада № 6 с площади 547 га - 43 ц. В то же время средняя урожайность бригады № 1 составила - только 27,2 ц с га риса шалы; Ким Иван - 63,4 ц; Ким Рева - 64,4 ц. По совхозу 30 человек получили урожай от 45 до 74,7 ц. Например, Ким Пётр с площади 25 га получил по 74,7 ц, Хегай Иван с площади 25 га по 73 ц, но многие получили низкие урожаи.

Совхоз занимал одно из ведущих мест в районе, на его балансе в 1979 г. находилось 36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Из 37 депутатов Бакбактинского сельсовета,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на Сессии XVI созыва было 9 корейцев. До 1981 г. положение совхоза было стабильным. Плановый объем сдачи продукции государству в 1981 г. составил: зерна всего 11850 тонн, в том числе рис- 10750 тонн, овощи - 330 тонн, мяса - 30 тонн, молока - 733 тонн, шерсть - 1,8 тонн, витаминных трав, муки - 1100 тонн. Общая сумма выручки составила 4397052 рублей. Прибыль составил 179692 рублей, валовая продукц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 3271736 рублей.¹⁹⁾

Однако, начиная с 1981 г., урожайность риса стала постепенно снижаться. Из года в год не выполнялся план производства и сдачи риса государству, плохо обстояло дело с овощами, картофелем, бахчевыми культурами, кормами дл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¹⁹⁾ БФГА, ф. 17. Оп. 1. Д. 304. Л.11. Д.364. Л.17.

стада. Вывод: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совхоз был расположен вблизи полноводной реки Или, имея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водных ресурсов, земли, пригодные дл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од пашню были ограничены, то есть резервов не было. Выполня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лан, совхоз исходил только из тех посевных площадей, которые имелись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с этой работой совхоз не справился.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риса и получения его устойчивого урожая был необходим рисово-травяной севооборот, но в условиях совхоза «Бакбактинского», где образовалась большая фильтрация воды и резкое поднятие грунтовых вод, наблюдалось вымокание трав, вследствие чего погибали их посе́вы.

Были в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ерепланировки земель, правильное размещение культур по севооборотам. Низ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труда, нехватка орошаемой воды для полива риса, ячменя и других культур приводили к высокой себестоимости риса. Кроме того, не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ые бытовые условия жизни рабочих вызывали текучесть кадров.

При изучении истории совхоза «Бакбактинский», позволяет сделать вывод, что корейцы занимали в то время достаточно высокие должности, хотя не являлись доминирующей нацией. Они работал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по рису, бригадирами, гидротехниками, начальниками оросительной системы, директор Казах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земледелия, агроном, начальник ПМК и др.

На 1 января 1982 г. в составе Бакбактинского сельсовета проживало 19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казахов - 1749, русских - 1389, корейцев - 569, немцев - 257, киргизов - 5, уйгуров - 18, татар - 40,

украинцев - 149, белорусов - 6 и т.д.²⁰⁾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орейцы составляли всего 13,6 % общего состава населения сельсовета. В 1994 г. из 1039 хозяйств сельсовета оставалось 113 корейцев или 10,8 %.²¹⁾

В 1991 г. развалился СССР, в стране начался хаос, неразбериха. В 1990-1999 гг. некогда сильное и процветающее хозяйство пришло в упадок. Началось засоление почвы, заболачивание, пришла в негодность арычная, оросительная дренажная сеть, в забвение пришли селекция и семеноводство, не у дел оказались класс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механизаторы. Все эти факторы привели к резкому ухудшению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бакбактинцев.

В 2000 г. в селе Бакбакты появились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решившие применить свой капитал на селе. Одним из них ТОО (товарищество с органической) «Аркада». Его руководитель и основатель товарищества, председатель Балхаш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Шин П.П. За год было создано 102 рабочих мест, его годовой оборот приближался 200 тысяч долларов США. Его основ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 растениеводство и все, что ему сопутствует. В первый же год аркадовцы получили по 45 ц риса-шалы с каждого гектара засеянной площади. В целом по Казахстану это хороший показатель, однако, аркадовцы считают, что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более высокие урожаи.

ТОО «Аркада» обрабатывает 1600 га ещё недавно брошенной

²⁰⁾ БФГА, ф. 17. Оп. 1. Д. 346. Л.12-13.

²¹⁾ БФГА, ф. 76. Оп. 1. Д. 4. Л. 1-49.

земли, из которых под рис отведено 612 га, под пшеницу 135, столько же под люцерну. Сегодня в Бакбакты идет не просто процесс производства товарного риса, имевшего ещё недавно большую известность, идет кропотливая работа в области семеноводства. Этим занимается одно из подразделений «Аркады» - ТОО «Тасмурин», где директор Ким Р. А. и бригадир Ким И. Я. ТОО получило в подарок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исовод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заключило договор с Приаральским Институтом риса на предмет внедрения новой технологии посадки риса и районирования новых сортов.

Переработка риса тоже важная отрасль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товарищества. Компактный рисовый завод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имеющий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ую мощность 69 тонн риса в сутки, поставленный и смонтированный специалистами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едмет гордости товарищества.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ая работа в области мелиоративного орошения земель, селекции и семеноводства, ударный труд первоцелинников закономерно привели к стабильным урожаям риса. Постепенно хозяйство вышло на проектные мощности по выпуску плановой продукции.

На примере казахстанского совхоза «Бакбактинский» можно сделать некоторый анализ развития и подъём корейских хозяйств в советский период, затем спад с развалом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1991 г. и настоящего состояния тружеников села корейцев. Непростые времена сегодня переживают корейцы сельчане, многие уже покинули, когда-то обустроенные места. Одни подались в города

и занимаются бизнесом, другие в дальние и ближние зарубежья. Оставили о себе хорошую память своим потомкам.

Они будут всегда помнить, что в 1967-1980 гг. совхоз «Бакбактинский» сыграл существенную роль в развитии рисоводства в Казахстане. Корейцы внесли существенный вклад а рисоводстве, тем самым помогли государству в решении проблемы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Они сталкивались с грубыми нарушениями правил земледелия, возобладающими над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м методом управления, что в конце концов привело к падению производства продукци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ТОО «Аркада», применяет современные методы агротехники и при помощ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едленно, но уверенно поднимается. Уже есть хорошие результаты и прогресс, совхоз приобретает былую славу на основе новой технологии в агротехнике, уверенно осваивает законы рыночной отношений. Им этого не привыкать, они выдержали насильственное депортацию, унижение и бесправие в сталинский период, возрождение свое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амосознания.

Успехи корейцев в СНГ, сейчас уже бывшего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очень велики. Сегодня корейцев можно встретить во всех отраслях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реди них много знаменит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деятелей, руководителей промышленных и научных производств, ученых, деятелей культур и спорта. Основой всего этого был труд корейца-земледельца, земля вскормила его, вырастила и сделала достойным гражданином своей стран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корейцы разбросаны по всему бывшему Союзу и где бы они не трудились, какие бы должности и звания не занимали, никогда не забывают, что все начиналось с земли. Далее автор хочет кратко ввести в научный оборот, «трудовая армия» и «Гобонди», в котором корейцы с избытком пришлось пережить и участвовали в жизненном процессе.

4. Корейцы в трудовой армии

О трудовой армии (трудармия) и ее рядовых работников прежде мало имелось объективной информации. Эта страница была вычеркнута из летопис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Между тем огромный отряд людей участвовал в годы войны с фашизмом в защите Отечества на секретном, как бы несуществующем фронте.

Эффективность дармового,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заключенных уже известна тоталитарному режиму. В годы войны более 2 миллиона трудящихся СССР,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переселенцев, были призваны в трудовые колонны, которые трудились на лесоповалах, строительных площадках заводов, буровых, добывали уголь, руду, химическое сырьё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в огромном просторе страны.

Режим в трудоармейских лагерях был по образу и подобию ГУЛАГ. Разница между спецпереселенцами и рабочими колонистами состояла лишь в том, что первые находились за колючей

провоолокой со всеми лагерными атрибутами: пулемётами, собаками, а последние - на казарменном режиме со всеми лишениями и каторжными условиями труда.

Призывать корейцев через военкоматы в трудовую армию было решено в начале 1942 г. Рабочие колонны комплектовались для работы в угольной, нефтяной и других стратегически важных отраслях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ССР из военнообязанных запаса, из числа ограниченно годных к воинской службе в возрасте до 45 лет, а также отсеянных при мобилизации в Красную армию по политико-моральным соображениям. Корейцы относились к последней категории.

Многие корейцы, находившиеся на поселении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были трудмобилизованы на объекты нефтяной, химической,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Урала и Сибири. Часть из них пополнила местные рабочие колонны - ряды бойцов третьего стройуправления ГУАС (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аэродром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КВД.

Третье строите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ГУАС НКВД СССР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в городе Гурьеве в мае 1943 г.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юзного нефте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го завода № 441. В Постановл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обороны (ГКО) СССР от 14 апреля 1943 г. подчеркивалос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Гурьевского завода подлежит выполнению в скоростном порядке 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²²⁾ Строительство этого завода началось в октябре 1943

²²⁾ ГАА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Атырауской области). Ф.198. Оп. 2. Д. 5. Л.59.

г. Основную рабочую силу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ставляли бойцы строительных колонн. На долю вольнонаемного состава приходилась самая не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Кроме трудармейцев на объекте работали военнопленные и заключенные, прибывшие из ИТК (исправительно-трудовая колония) других областей. На 1 января 1944 г. трудармейцев и вольнонаёмных рабочих было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10200 и 850 человек.²³⁾

В структуре 3-го СУ (строите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ГУАС насчитывало 8 строительных колонн (СК) и 6 особых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отрядов (ОСО), в которые были сведены бойцы 50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в основном из числа спец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оккупированных немцами областей Украины, Крыма. Наряду с ними трудились и корейцы. Например, в строительных колоннСК №№. 537, 547 вместе с греками, болгарам работало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корейцев из Баксайского, Денгизского районов, колхоза «Память Ильича».²⁴⁾ Рядовых строительных колонн считалось состоящими в Красной армии (поэтому их называли бойцами)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на них воинского устава. «Боевым заданием» было выполнение нормы выработки.

Специфика выполняемого рабочими колонистами труда на стройплощадке завода состояла в массовых работах по разгрузке и укладке тяжеловесного импорт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подсобных работ при монтаже металлоконструкций, большом объеме земляных работ. Рабочий день длился 11-12 часов. Сложными

²³⁾ ГААО, Ф. 198, Оп. 2, Д. 14, Л. 6.

²⁴⁾ ГААО, Ф. 198, Оп. 1, Д. 294, Л. 55-56.

были условия быта трудармейцев. Эти трудности объяснимы войной, всем было тяжело. Но более тяжелыми были трудности мора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Камнем давило на человеческое достоинство мысль о неполноценности из-за свое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 категории граждан с ярлыком «депортант».

Землянки, в которых были размещены бойцы, не отвечали всем требованиям для жилья. Бойцы спали в одежде, постельных принадлежностей не выдавались. Землянки не обмазаны, отопление в период

холодов было не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ым, сменного белья бойцы не получали. Выходные дни представлялись редко. Только после вспышки в феврале-марте 1944 г., когда среди бойцов вспыхнуло эпидемия сыпного тифа руководств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ри вмешательстве прокуратуры и НКВД стало внимательно заниматься вопросами культурно-бытовыми условиями бойцов.

Ещё не начиная строить завод, только в период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х работ, когда рабочий фонд ещё не был изношен, уже имелись значительные трудовые потери и смертность. Так выглядела возрастающая печальная статистика: в январе 1944 г. умерло от болезней 19 человек, в феврале 45, в том числе 23 от дистрофии, в марте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71 (56), в апреле 94 (72) человека.

Между тем стройка продолжалась. Невзирая на все трудности, люди трудились самоотверженно. Завод был построен, когда наступила побе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ая комиссия в период октябрь-ноябрь 1945 г. произвела приемку завода и приняла все

объекты и сооружения завода с общей оценкой качества строительных работ на «хорошо», в том числе несколько объектов с оценкой «отлично».

Многие участник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завода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медалью «За доблестный труд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1941-1945 гг.).» Среди 1146 награжденных медалью бойцов строительных колонн есть также корейцы. Это Ким Николай, Ким Чуе Гири, Ким Соломон, Нам Ен Ен, Пак Игнат, Тен Сен Хан и др.²⁵⁾

Трудармейцы работали в Казахстане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промысловых объединениях: «Казахстан нефтяной комбинат», «Казахстан нефтестрой». И здесь корейцы работали вместе с спецпереселенцами из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немцами Поволжья, заключенными ИТЛ ГУЛАГ и военнопленными. Бытовое положение трудо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было крайне тяжелым. Бойцы размещались в непригодных землянках и полуподвальных бараках. На трудовые колонны распространялись все виды и формы организации труда, также поощрительные системы оплаты. В списках лучших работников - фамилии немцев, греков, татар, болгар, чеченцев, корейцев и др.

Трудармия, основной костяк которой составляли спецпереселенцы, продолжалась и после войны. В дальнейшем некоторые корейцы так и остались там,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где проходили трудовую повинность. И после войны трудармейцы

²⁵⁾ ГААО. Ф. 198. Оп. 1. Д. 233. Л. 15.

пребывали в забвении, подвергаясь новым унижениям и несправедливостям.

Сегодня трудармейцы приравнены к участникам трудового фронта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Общество сделало все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трудармейцам, значимости их прошлого в глазах потомков. Трудармейцы также активно ковали Победу в тылу. Список корейцев, призванных в трудовые колонны очень длинный. Ученым ещё предстоит внимательно исследовать эту тему.

5. Гобонди корейцев как средство выживания

Корейская система земледелия «гобонди» трактуется как организация коллективного труда на основе вноса первичного капитала или способ организации труда и распределения совместного дохода в установленные сроки, полученного на основе материального и трудового вклада каждым участником. Корейский метод земледелия гобонди существует около 60 лет и будет жить дальше. Причина живучести этого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в нем заложены элементы свободного труда и распределения результатов по вкладу каждого участника.

До коллективизац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корейц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основном занимались земледелием, арендуя земли у рус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Эта система по корейски называлась «соджакти», то есть индивидуальная форма аренды земли у

хозяев.

Ученый кореевед из Бишкека Ли Герон Николаевич, исследовав другие аспекты организации крестьянского труда корейцев, дает определение своего видения этого метода. Он утверждает, что работа корейского крестьянства в колхозном производстве и при отсутствии закона об аренде зем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го фонда колхозов, это привело к возникновению новой системы земледелия на полуполюгальной основе. Отсюда возникали неизбежные нарушения земельных законов со стороны владельцев земли и неуверенность земледельца. Так жила огромная страна вплоть до конца 80-х годов XX в. очень робко начал внедряться и метод коллективного подряда на селе. Зачинателями и исполнителями коллективного подряда являются корейские земледельцы, не имевшие прав на землю. Корейцы эту систему называют одним словом «гобонди».²⁶⁾

Бригады гобонди создаются на добровольной основ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комплектуется состав коллектива, сами устанавливают режим работы.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труда достигается исключительно на основе свободного труда на своих участках земли. Выполнени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еред заказчиком является неременным условием договора аренды.

Система гобонди базируется на коллектив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и делается так: участки земли делят равными долями между участниками бригады. Один участник бригады может арендовать

²⁶⁾ Ли Г.Н. Гобонди. Записки наблюдателя о любви корейцев к земле.- Бишкек : 2000.- С. 144-145.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материальных и людских ресурсов под сво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несколько гектаров земли. Этот метод знают все корейцы, он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участием подавляющего большинства корейцев в земледелии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риса, овощей и бахчевых культур.

Утверждают, что гобонди, как форма земледелия появилась в Узбекистане в военные годы 1941-1945 гг. Именно за участие в гобонди корейцы получили по всей советской стране оценку как трудолюбивые люди во всех сферах жизни. Такому всенародному призванию в какой-то степени явилось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Героев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уче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культурных деятелей и др.

В гобонди практически участвовали все корейцы, эта система дала возможность материальным просторам, получить хорошее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Этим надо гордиться, ибо результатами тяжелого труда корейцев пользовались всё население СССР. Все рынки в крупных городах бывшего Союза были завалены овощами и бахчевыми трудами корейских гобонди.

В советское время люди, занятые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за свои труды получают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выполнения отдельных процессов, этапов работы или просто за участие во времени. К сожалению, так было и 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м производстве. Не учитывалась личная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в результатах труда. Это и явилось большим тормозом в получении высокого урожая.

В гобонди исключается оплата по этапам работы, хотя ведется учет расходов. В этой системе, как и в любом производстве,

подразделяются на этапы. Пахота, посев, обработка, полив, уборка,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а, хранение и реализация. Для всех работников основным показателем является конечный результат, продукт, то есть все средства и силы направляются на получение максимального результата.

В систему гобонди вливались все новые и новые прослойк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они осваивали новые земли пригодные для развития рисоводства и огородничества. Притягательной силой явилась личная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В результате такого изнур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частники умудрялись получать урожайность в 5-8 раз больше, чем на общественных колхозных полях. Арендная форма земледелия гобонди приняла всеобщий характер для корейцев. К великому, сожалению, в советское время у некоторых людей гобонди ассоциировалось с формой приложения труда, не заслуживающей внимания, унижающей достоинство корейцев. С переходом к рыночным отношениям корейцы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адаптировались к современным условиям жизни.

6. Заключение

Заглядывая в историческое прошлое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нельзя не отметить, что в драматические периоды жизни никогда не унывал, а всегд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л тяжесть судьбы, которая ему выпадала. В многострадальной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XX век

занимает особое место, как время тяжелейших испытаний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ой, индустриализацией, коллективизацией, голодом, сталинской репрессией,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ой, тотальной идеологизацией масс. Жизнь корейцев совпала с периодом, когда в мире бурлили политические страсти, пробуждалось националь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е движение в колониях. И это не могло не оказать своего благотворного влияния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прогрессивн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мировоззрения и укреп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амосознания народов.

Сейчас, когда благодар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м процессам в обществе мы раскрываем все новые «белые пятна» в нашей истории, в котором большинство пребывало в невиденье. В памяти народной они останутся, как яркие звезды, творческие личности, именно они, труженики села заложили прочный фундамент для корейцев первые ростки национальной гордости. Их имена золотыми буквами вписаны в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Многие передовик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были занесены в Книги Почета республик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значительной мере эти трудовые успехи являются достижениям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торого своим неустанным кропотливым трудом приумножили достояние страны. В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овиях все проблемы решен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в большей мере относятся к корейцам. Это - отчуждение крестьянина от земли и созданного его трудом продукта. Немаловажными представляютс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следствия ускоренных процессов урбан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его миграция в города. Одновременно остро возникает проблема изучения родного языка, как основы развития литературы, искусства и культуры в целом.

Системный кризис советского общества, ускоренный перестройкой, привел к распаду СССР, что вызвало глубокий социально-психологический шок у большинства советских людей, особенно болезненно эту катастрофу переживают те, у которых историческая родина находится за пределами бывшего Союза.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развал СССР переживают национальные меньшинства, для которых означает потерю родственных связей со своими соплеменниками уже внутри СНГ.

Корейцы живут и работают везде в необъятных пространствах СНГ. Они не только уживаются, но подружились и породнились с исконными жителями этих земель. Дружба народов - это не идеологический миф, а реальность, которую мы знаем по собственному опыту. Корейцы поняли, что дружба и любовь категории постоянные, не увядающие веками.

История корейских тружеников села бывшего СССР и нынешнего СНГ вобрала в себя как эпохальные события, так и житейские проблемы, ставшие органической частью в местах проживания. Обретение республиками суверенитета, становл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пришлось на тяжелый период кризиса, расстройство всех связей от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до личностных между бывшими республикам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менно эт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больше всего переживается каждым этносом и особенно теми, кто живет вне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В советские время достижения корейцев был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громадными, особенно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в то же время неизменным успехом была высокая образованность и культура. Да только ли это. И тот, кто опровергает значение помощи других народов в условиях существования СССР, поступает правдой, правдой в том, что русские, узбеки, казахи, киргизы и другие народы сыграли непреходящую роль в культурном развит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Материальному и духовному расцвету корейцам эти народы оказывали самую большую и всестороннюю помощь.

Углубление нормальных челове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облегчение повседневных контактов людей и укрепление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 все это, в конечном счете, имеет глубоко гуманистическую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и определяется объективными законами цивилизованного общества. Корейцы вместе с другими народами создают основу лучшего будущего. Оно немислимо без единства и сплоченности, без ясного осознания того, что у нас, где бы ни жили - общая судьба и общее будуще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за более чем 80 лет проживания в республиках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корейцы пережили коллективизацию, репрессии, голод, войну и выстояли в тяжелых испытаниях. Мы верим, что наше будущее зависит от всех народ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этом регионе. Корейцы всегда готовы поддержать и словом, и делом в решении самых сложных проблем государства. Мы Восток, мы не должны терять замечательные традиционные корни, сердечное, душевное, отношение к своим близким и друзьям.

Принятые обозначения и сокращения

БФГА - Балхашский филиал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рхива

ГААО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Атырауской области

Га - гектар

ГУЛАГ -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лагерей

ГУАС - 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аэродромных строителей

ГКО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обороны

ИТЛ ГУЛАГ - Исправительный трудовой лагер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лагерей

КПСС -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Колхоз - коллективное хозяйство

НКВД - 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иат Внутренних дел

СНГ - Содружество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СК - Строительные колонны

СМ СССР - Совет Министров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Трудармия - Трудовая армия

ТОО - Товарищество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ОСО - Особый специальный отряд

РА ИПСИ ЦС НДПУ -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й архив Института политических
и социаль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Центрального Совета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Узбекистана

ЦА -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ЦГА РУ - Централь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ц - центнер

ЦК КПСС - Центральный комитет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УзССР - Узбекский Союз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Социализация корейской семьи в СССР (1937~1991)

Сон Жанна

1. Введение

Человек, будучи социальным существом, взаимодействует с другими людьми, участвует в совместных действиях. Для анализа включения индивида в различные социальные группы используют понятия социальный статус и социальная роль.

В пространстве социальных связей и взаимодействий поступки людей, их отношения друг с другом в решающей степени определяются положением (позицией), которую они занимают в обществе и социальной группе. Определенная позиция, занимаемая индивидом в обществе или группе, связанная с другими позициями через систему прав и обязанностей, определяет социальный статус.

Социальный статус содержит тот набор функций, которые должен выполнять человек в социальной группе, обществе. Для осуществления этих функций необходимы определенные условия,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о создавать в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м обществе. Социальный статус характеризует место личности в социальной стратификации общества, ее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оценку эт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о стороны общества. Социальный статус отражается как во внутренней позиции (установках, ценностных ориентациях), так и во внешнем облике (одежда, манера поведения и иных знаках социаль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В представленном исследовании предлагается рассмотреть социальный статус сравнительно небольшой группы людей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проживающе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ССР. Поскольку деятельность человека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а, то и в корейском сообществе имели место различные социальные слои и статусы. Согласно критериям социального статуса: положение в сфере занятости, связи с властными структурами, доходами (размер и форма), социальный статус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и в течение 150 лет неоднократно менялся.

С целью объективного изучения и широкого подхода к представленной теме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к истории начала корейской иммиграции на российскую территорию. Как отмечает исследователь А.И. Петров¹⁾, главной причиной корейской

¹⁾ См. : *Петров А.И.*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60-90-е годы XIX века. Владивосток, 2000.

иммиграции явилось стремление улучшить свое матери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за счет того, что в России им, согласно российским правилам переселения, не надо было платить никаких налогов. Осознание корейскими крестьянами своих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и их желание, переселившись в Южно-Уссурийский край, обрести «новую жизнь» в России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свидетельств глубокого кризиса феодально-бюрократических порядков в Корее.

Более того, корейская иммиграция на рус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началась переселением крестьянских семей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шли в Россию с намерением уже никогда не возвращаться обратно в Корею или, во всяком случае, до тех пор, пока 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не будут отменены суровые законы в отношении эмиграции. Справедливо отмечает А.И. Петров, что иммигрировавшие в Россию корейские крестьяне были в определенной мере носителями нового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мировоззрения, которое,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отчасти отрицало феодально-деспотическую нивелировку индивидуума в Корей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²⁾.

Основным источником корейской иммиграции в Россию стало беднейшее крестьянство, как наиболее бесправная часть населения Кореи, страдающая от непомерных налогов, произвола помещиков и чиновников. Именно беднейшие крестьяне в Корее по этим причинам вынуждены были всячески ограничивать свои желания, стремления и побуждения к лучшей жизни. Переселяясь

²⁾ Там же.

в Россию, корейские крестьяне стремились сделать свой труд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м, так как были уверены, что плоды их труда станут здесь их достоянием, собственностью, товаром. Прежде всего, корейцы стремились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для будущего своих детей, дать им образование и т.д. Эти стремления побуждали корейцев к иммиграции, к принятию чужой культуры, языка, менталитета, они были готовы к любым трудностям и невзгодам.

О высокой адаптационной способности корейцев в иммиграции, в частности, 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СССР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публикованы монографии, научные статьи не только российских ученых³⁾, эту проблему активно изучают и ученые Республики

³⁾ Пак Б.Д. Корейцы 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период. М., 1993; Он же. Корейцы в 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и (1917 - конец 1930 г.). М. - Иркутск. Дипакадемия МИДа РФ, 1995; Хан Г.Б. Прошлое и настоящее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Историко - документальное повествование о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1937 - 1997). Алматы, 1997; Джарылгасинова Р.Ш. Корейцы // Вера и жизнь. М., 1997. № 9-10; Югай Г.А.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 социально -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й портрет своего поколения. Ташкент, 1990; Ли В.Ф. Источники и проблемы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этнического меньшинства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 Источниковедение и историография стран Востока. Вып. 3 : Россия и АСЕАН (судьба России и будущее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М., 1995; Он же. О бессрочном нейтралитет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свете мирового опыта XX века // Корусфорум. М., 2000. № 9. С. 57 - 69; Он же. Культурно-национальная автономия и возрождени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России : Доклад на Междунар. семинаре в Ун-те иностр. яз. (Хан Гук), февраль 2000 г. // Диаспоры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 в Китае и России. Сеул, 2000; Ли В.Ф. Россия и Корея в геополитике Евразийского Востока. М., 2000; Бугай Н.Ф. Социальная натурализация и этническая мобилизация (Опыт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М., 1998; Он же.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 новый поворот истории. (90-е годы). М., 2000; Он же.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и политика «солнечного тепла». М., 2002; Б.Д. Пак, Н.Ф. Бугай. 140 лет в России. Очерк истор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М., 2004; Бугай Н.Ф. Корейское этническое меньшинство в Союзе ССР (России) : проблемы ре

Корея.⁴⁾

Добровольное пересел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в Российскую империю началось в 1860-е годы. С этого времени корейцы прилагали свои усилия, чтобы стать органичной частью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России. Своим трудолюбием, благодаря законопослушанию, неотъемлем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черты, корейцы вносили ощутим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различных сфер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ы 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озникает естественный вопрос, что же побуждало корейцев жить и трудиться на чужой земле? Чем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ни руководствовались, преодолевая неимоверные трудности и лишения? Ответ получается один - семья. Семья в Корее

прессий. 1930 - 1940-е годы. (120-летие сеульской конвенции и 140-летие доброволь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бюллетень. Спец. выпуск. М., 2004. № 6; *Бугай Н.Ф.*, О Сон Хван. Испытание временем. М., 2004; *Бугай Н.Ф.* «Третья Корея»: новая миссия и проблемы глобализации. М., 2005; *Он же.* Корейцы стран СНГ: общественно-географический «синтез» (начало XXI века). М., 2007; *Он же.* Корейцы России: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и культуры. М., 2009 и др.

⁴⁾ Сим Хон Енг. Динамика демографических изменений рас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XIX - XX век) // Мир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проблемы объедине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М., 1995; *Он же.* Корейский этнос в систем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на евразийском континенте: проблемы депортации в 30-е - 40-е годы // Россия и Восток: проблемы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и политика движений. Челябинск, 1995; *Бэ Ын Гиёнг.* Краткий очерк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1922 - 1938). М., 2001; *Shin Youn - Cha.* Soviet Koreans and their Culture in the USSR // Koreans in the Soviet Union / Ed. : Dae-Sook Suh.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1987; Ко Сон Му. Корейцы СССР : Корё Сарам. Сеул, 1989; *Kho Songmo.* Koreans in Soviet Central Asia / Helsinki, 1987; *Ким Хён Ёнг.* Истори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за рубежом : тяготы и испытания. (재외동포사회의 역사적 고찰과 연구방법론 모색. 김현영). Сеул, 2005 и др.

считается высшей ценностью, будучи глубоко конфуцианской страной, она и сегодня сохраняет эти традиции. Семья была центром размышлений Конфуция и рассматривалась как основная ячейка любого общества. Воспринимаемая как ячейк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емья в конфуцианской традиции представлена как неотъемлемая часть государства и общества. Вселенная - это фактически одна семья. Общественная мораль основывалась на человеколюбии или гуманности, принципе любви. Это была естественная человеческая любовь.⁵⁾ Именно этими принципами живут и современные корейцы в России, это их делает законопослушными и трудолюбивыми.

После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Казахстан и Республики Средней Азии советским корейцам пришлось строить новую жизнь, в совершенно новых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условиях. Проблемы социал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в новых местах обитания привели к изменению самосозна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знания. Однако главный жизненный принцип - сохранение семьи, жизнь ради семьи, оставался неизменным.

Фактически 1937 год стал переломным моментом в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Совета Народных Комиссаров Союза ССР и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ВКП(б) от 21 августа 1937 г. № 1428-326 (совершенно секретно) «О высел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из по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были перечеркнуты все достижения корейцев.

⁵⁾ Ли Кван Сун. Социально-философский анализ семьи (на примере корейской семьи) // Философия и общество, № 3, июль-сентябрь 2010. С. 153.

В Постановлениях Оргбюро ЦК ВКП(б) от 24 января 1938 г. № 79 «О ликвидации национальных районов и сельсоветов»⁶⁾ и «О ликвидации национальных школ и 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делений в школах»⁷⁾ утвержденных ЦК ВКП(б), говорилось: «ЦК ВКП(б) устанавливает, что в ряде областей и краев искусственно созданы различные национальные районы и сельсоветы (немецкие, финские, корейские, болгарские и др.), существование которых не оправдывается национальным составом их населения»⁸⁾. Далее отмечалось, что «многие из этих районов были созданы врагами народа с вредительскими целями,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антисоветской работы»⁹⁾.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оизошла полная нивелировка национальной идентификации всех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 в СССР, фактически был объявлен вотум недоверия этническим общностям имевшим отношение с пригранич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С ликвидацией национальных районов, сельсоветов, школ прекратилось какое-либо развитие этнических меньшинств, был взят курс на тотальную унификацию и нивелирование этнонационального многообразия.

После насильствен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с территории совет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Казахстан и республики Средней Азии,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трудности адаптации на новых местах, на сложную политическую и экономическую обстановку, советские

⁶⁾ ЦК ВКП(б) и национальный вопрос. Книга 2, 1933-1945. Документы советской истории. М., 2009. С. 341.

⁷⁾ Там же. С. 342.

⁸⁾ Там же.

⁹⁾ Там же. С. 314.

корейцы сумели мобилизовать все свои физические 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е силы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ой жизни».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стали первопроходцами в освоен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 пустынных степях Казахстана и Средней Азии. Компактное расс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позволяло им сохранять корейские традиции веден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применять методы, которыми они пользовались как у себя на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так 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екреты возделывания земли передавались из поколения в поколение. Большая часть колхозных хозяйств была переселена в Талды-Курганский район, Ушгтобе, Кызыл-Орду, Северный Казахстан, Караганду, в Узбекистане - это были Ташкентская и Хорезмская области и др.

Накануне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корейские колхозы, буквально за два года получили колоссальные урожаи риса, особенно в Ташкентской области (Узбекская ССР) и Ушгтобе (Казахская ССР). Благосостояние корейских колхозов сразу улучшилось. Корейцы с 1938 по 1940 годы построили в своих колхозах новые дома,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школы, кинотеатры, клубы, библиотеки, которых не было в Средней Азии. Весь свой энтузиазм и трудолюбие корейцы вкладывали ради будущего своих детей, чтобы они жили комфортно, имели возможность трудиться и получать образование.

На наш взгляд, будет справедливым описать жизнь корейцев вне этих регионов, где также проживали небольшие группы корейцев, трудились в колхозных артелях, вносили посильный

вклад в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Таким регионом является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 где адаптация происходила намного сложне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местами многочисле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1930-е годы группы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оявляют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Ставропольского краев, в Дагестанской АССР, Чечено-Ингушской АССР. В архиве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хранится подборка документов, в которой содержится материал о новом направлении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ства в Северо-Кавказском крае: «В ближайшие три года площадь рисовых посевов в совхозах Зернотреста должна возрасти с 10 тыс. га в 1931 г. до 150 тыс. га в 1933 г., размещение этих посевов, намечено в районах, не только старых для культуры риса – Средняя Азия и достаточно испытанных –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но и новых Казахстан, Дагестан,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 где опытные посевы и посевы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более крупных размерах, произведенные с целью размножения семян риса, показали полную надежность условий этих районов для культуры риса...».¹⁰⁾

В связи с этим были сформированы органы управления нов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хозяйства на Юге страны во главе с Северо-Кавказским рисотрестом. Уже в 1933 году рисотрест, обращаясь в Управление Северо-Кавказских им. Маркова железных дорог (Ростов-на-Дону), в письме под грифом «секретно», писал: «По заданию центра Северо-Кавказский рисотрест приступает к производству детальных изысканий для составления технико-

¹⁰⁾ Краевой архив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далее - КАКК). Ф. - Р. 296. Оп. 1. Д. 13. Л. 37-51.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роекта ирригационной системы рисосовхоза в районе станции Гудермес в Чеченской автономной области...».¹¹⁾

Советскому руководству бы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корейцы являются лучши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в этой отрасли, в связи с этим, как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так и в Москве стали организовыватьс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корейские артели. В середине 1930-х годов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повсеместно были созданы колхозы по выращиванию риса.

Первый корейский колхоз им. Димитрова в количестве 100 семей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в 1933 году в станице Ивановская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В 1935-1936 гг. корейские сельхозартели появились в Ставропольском крае в станице Советская (Новопавловск), в Чечено-Ингушской АССР - Гудермес, в Дагестанской АССР - Кизляр. По рассказам очевидцев интересен следующий факт: председателями этих колхозов назначались китайцы-коммунисты, а членами колхозов были корейцы¹²⁾. Это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том, что совет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опасалось претензий со стороны Японии и всячески пыталось скрыть фактическое местопребывание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корейцев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11) Там же. Д. 24. Л. 47.

12) Из дневниковых записей Ж.Г. Сон «Беседы с очевидцами, воспоминания Хван Донгука». 2002.

2. Социализация корейской семьи в СССР (1937~1938)

1) Семья Хван Дексама

Для определения социального статуса среднестатистической корейской семьи, анализа социализации отдельно взятой семьи рассмотрим семью, переселившуюся в 1936 году на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 Хван Дексам - глава большой семьи, его потомки до пятого поколения насчитывают более 100 человек. Эта семья во всех отношениях является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где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с огромным уважением чтут память о предках, соблюдают корейские традиции и обычаи.

История этой семьи может служить наглядным примером в изучении социологических проблем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С 1917 года члены этой семьи были участниками и строителями нового сове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четвертое поколение семьи Хван Дексама (Рис. 1), воспитывает пятое поколение и участвует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нов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оссии.

Хван Дексам (1876-1937) и его супруга Тен Мария (1884-1968) уроженцы Кореи, переселившиеся в Россию вместе со своими родителями, являю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переселенцев на российскую территорию и первопроходцами в освоении Уссурийского края.

Потомкам Хван Дексама неизвестна дата их женитьбы. В этой

семье родилось девять детей: семь сыновей и две дочери. Из девяти детей - старшие сын и дочь умерли от болезне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удя по документам,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эта семья проживала в бухте Гайдамак и селе Таудими (ныне Партизанск). К 1937 году сыновья Хвана работали и учились в разных городах Союза ССР: Москве, Новосибирске, Биробиджане.

Представим кратки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членов семьи Хван Дексама:

Хван Дексам¹³⁾, 1876 г.р., уроженец города Кеонгун, Корея, в 1937 г. проживал в ст. Ивановская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беспартийный, без образования, работал колхозником в колхозе им. Димитрова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В ходе сталинских репрессий был арестован 18 декабря 1937 г., его обвинили в том, что был членом группы готовившей проведение взрывов складских помещений, элеваторов. Осужден комиссией НКВД СССР от 18 января 1938 г., приговорен к высшей мере наказания - расстрелу. Расстрелян 28 января 1938 г. в г. Краснодар. Реабилитирован 29 октября 1957 г. Определением ВТ Белорусск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Первый сын (имя его неизвестно) умер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т болезни. У него остался один сын Григорий.

Второй сын - Хван Донхен (Никита Петрович) (1906-1989)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закончил партийную школу, работал в г. Биробиджан секретарем обкома ВКП(б). В 1937 году был депортирован в Чимкент (Казахстан), работал директором школы,

¹³⁾ Корейцы - жертвы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Кн. 2. 1934-1938. М., 2000. С. 177.

затем переехал в г. Алматы, много лет занимал руководящие посты. С выходом на пенсию в 1965 г. переехал к братьям на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 в г. Орджоникидзе. Персональный пенсионер Всесоюзного значения. Дети: сыновья Николай и Валерий, дочери Ирина и Мэри.

Третий сын - Хван Донхан¹⁴⁾ (1910-1937), родился в деревне Таудими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ДВК. В начале 1930-х годов жил и учился в Москве, вел активную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ую работу¹⁵⁾ в Коминтерне и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ом клубе для политэмигрантов имени В.М. Загорского¹⁶⁾. По инициативе корейской секции Интерклуба принимал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организации колхоза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1933). Парторг первого корейского колхоза имени Димитрова в Азово-Черноморском крае (Краснодарский край)¹⁷⁾.

Родители Хван Донхана жили в это врем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Когда корейский колхоз им. Димитрова стал зажиточным, в 1936 году у Хван Донхана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вызвать к себе родителей с младшими братьями и сестрой. После их приезда через год по всей стране начались повальные аресты. 18 декабря 1937 г. в корейском колхозе им. Димитрова арестовали 69 корейцев¹⁸⁾, всю работоспособную мужскую половину колхоза. Трое

14) Там же. С. 176.

15) РГАСПИ. Фонд 495. Оп. 136. Д. 3. Л. 207; Д. 4. Л. 13; Д.10. Л. 1~85; Д. 13. Л. 1~9.

16) См. : Сон Ж.Г.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селилие власти и бесправие этнической общности. М., 2013. С. 167~177.

17) ЦДНИ КК. Ф. 1391. Оп. 1. Д. 20. Л. 14, 15.

из шести членов семьи Хвана подверглись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ям : глава семьи Хван Дексам, сыновья Донхан и Донбон.

Хван Донхана арестовали 18 декабря 1937 г. по обвинению в руководстве шпионско-диверсионной группой, подготавливавшей взрывы складских помещений по линии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Осужден комиссией НКВД СССР от 18 января 1938 г., приговорен к высшей мере наказания - расстрелу. Расстрелян 28 января 1938 г. в г. Краснодар. Реабилитирован 29 октября 1957 г. Определением ВТ Белорусск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У него остался сын Эверест.

Пятый сын - Хван Донсен¹⁹⁾, 1914 г.р., уроженец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Буденновского района, бухты Гайдамак. Студент 3-го курс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института в г. Новосибирск. Арестован и расстрелян в 1937 г. в Новосибирске. Реабилитирован. У него осталась дочь.

Шестой сын - Хван Донбон²⁰⁾, 1919 г.р., уроженец села Таудими Буденновского райо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бывший член ВЛКСМ, исключен в 1937 г. Обвинялся в том, что являлся участником шпионско-диверсионной группы, подготавливавшей взрыв тоннеля на станции Тоннельной Ворошиловск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18) См. : *Сон Ж.Г.* Указ. соч. С. 334~337.

19) Там же. С. 177.

20) Там же.

Осужден Особым Совещанием при НКВД СССР от 16 января 1938 г. Приговорен к 10 годам заключения в ИТЛ. Реабилитирован 6 декабря 1955 г. Определением Военного Трибунала Северокавказск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Таким образом, четверо из большой семьи Хванов погибли в результате сталинских репрессий. Это явилось следствием сложных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ССР и Японии. И. Сталин, опасаясь со стороны Японии развязывания войн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ыискивал внутри страны «врагов народа», фактически без суда и следствия по обвинению в «шпионаже в пользу Японии» корейцев арестовывали и приговаривали к расстрелу, отправляли в концлагеря по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Союза ССР.

Супруга Хван Дексама - Тен Мария после траг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1937 года в колхозе им. Димитрова осталась с дочерью Донхи и младшим сыном Дончиром. После арестов мужей и сыновей корейским женщинам, оставшимся без кормильцев, оставаться в этом колхозе было невозможно. Они стали искать помощи и поддержки у корейцев в Ставропольском крае, где также были сформированы корейские артели.

Примечательна судьба четвертого сына - Хван Донгука²¹⁾ (Рис. 2), 1918 г.р., уроженца деревни Таудими, Буденовского райо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В 1936 году, когда родители с младшими

²¹⁾ Сон Ж.Г. От Волги - до Берлина / Шин Д.В., Пак Б.Д., Цой В.В.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 - 1945 гг. М., 2011. С. 524-526.

детьми уехали на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 к Хван Донхану, Донгук из-за учебы осталс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1937 году он, как и все корейцы был депортирован в Узбекскую ССР и оказался в Самарканде. В 1939 г. он поступил на физико-математический факультет Самарканд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гда началась Великая 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ойна (1941-1945), будучи уже на втором курсе, вынужден был оставить учебу. Его, как и других работоспособных корейских мужчин, направили по специальному призыву в трудовую армию. С августа 1941 года рыл окопы под Харьковом, затем строил стратегическую железнодорожную ветку.

Зная о том, что корейцев по разным политическим причинам, в том числе и как «неблагонадежных», не призывали на фронт, Хван Донгук все же проявил решительность и написал письмо на имя Иосифа Сталина, в котором изложил свою просьбу «направить его на фронт, чтобы лично сражаться с врагами советской родины».

В сентябре 1942 года его просьба была удовлетворена. Он мог отправиться на фронт. Хван Донгука направили в г. Астрахань, где размещался пересыльный пункт. Там в течение трех месяцев формировалась 130-я дивизия. Еще, будучи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он научился водить машину. Хвана определили командиром противотанкового 76-мм орудия в артиллерийский полк.

В начале декабря 1942 года 130-я дивизия выступила в сторону Элисты, дошла до Батайска, освобождала от фашистов города Ростов-на-Дону и Мариуполь (Жданов). После кратковременного

отдыха 130-ю дивизию в 1943 году передислоцировали в распоряжение Белорусского фронта. Хван Донгук участвует в освобождении Бреста. Под Брестом был ранен, получил контузию.

После выздоровления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освобождении Польши, а в составе Белорусского и 2-го Украинского фронтов сражался за Кёнигсберг. За участие в освобождении Кёнигсберга был награжден медалью «За взятие Кёнигсберга».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Берлина был удостоен ордена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II степени, награжден двумя медалями «За отвагу» и двумя медалями «За боевые заслуги».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ойны, демобилизовавшись из армии в 1946 году, Хван Донгук приехал на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 где в то время проживали его мать с братом и сестрой. Они жили в селении Дарг-Кох Северо-Осетинской АССР. На фронте он вступил в ряды ВКП(б), после войны как коммунист был на передовой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Хвана назначили бригадиром рисоводческой бригады колхоза им. Штайнгардта. К концу 1940-х годов его бригада стала одной из лучших бригад колхоза.

Колхоз был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м, кроме корейцев, переживших немецко-фашистскую оккупацию, работало знач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российских немцев, осетин, терских казаков. Организаторские способности Хван Донгука сумели сплотить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ую бригаду и вывести ее в передовые.

В 1950 году Хван Донгука назначают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лхоза им. Ленина Невинномысского района Ставропольского края. Благодаря его таланту сплачивать вокруг себя людей, бережному отношению

к земле буквально за несколько послевоенных лет этот колхоз стал получать небывалые урожаи зерновых культур. Членами этого колхоза были в основном высланные из Кубани казаки. Добросовестный труд значительно поднял благосостояние и уровень жизни колхозников. Люди забыли, что такое голод и нужда. Но, как говорится, хорошему всегда сопутствует плохое.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лхоза им. Ленина Хвана Донгука обвинили во вредительстве. В 1954 году он был освобожден от должности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лхоза.

Особая страница в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открывается после смерти И. Сталина, когда корейцам было разрешено перемещаться из Республик Средней Азии и Казахстана. Многие причины толкали корейцев уезжать из мест, куда их насильственно переселили. Во-первых, разбросанные по огромной территории, потерянные родственные связи, желание жить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и друзьями. Во-вторых, не привыкшие к жаркому, сухому климату Средней Азии и Казахстана корейцы страдали различными болезнями. Климат же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очень похож на климат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эти годы и началась активная миграция корейцев на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

Первое время корейцы из Средней Азии жили в селах Нижние и Верхние Ачалыки Чечено-Ингушской АССР. Они заселялись в пустые дома, оставленные ингушами, которых во время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Сталин выселил в Среднюю Азию. В 1958 г. ингуши стали возвращаться на родину. Корейцы вынуждены были освободить эти дома и искать себе другое жилище.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корейцы переехали в г. Орджоникидзе - столицу Северо-Осетинской АССР.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земля дл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арендовалась в Чечено-Ингушской АССР, то так повелось у корейцев, что они стали выезжать на поля в период сезонных работ.

В 1955 году Хван Донгук берет на себ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возглавить один из первых в послевоенное время корейских колхозов в Чечено-Ингушской АССР. Колхоз был назван именем известного осетинского поэта - Коста Хетагурова²²⁾, несомненно, это говорит о культуре корейцев, желании признать ту культуру, в чью среду они приехали жить и трудиться, об их уважении к другим народам. Корейцы всегда старались жить в мире и согласии и с осетинами, и с чеченцами, и с ингушами. К концу 1950-х годов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в частности, в городе Орджоникидзе Северо-Осетинской АССР и прилегающих районах проживало более 120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ств.²³⁾

Возглавив колхоз, куда вошли все близкие и дальние родственники, знакомые председателю Хван Донгуку в первые годы пришлось особенно нелегко. Были сложности в выстраивании межкультурн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в полиэтничной среде северокавказских народов. В этом случае роль лидера особенно важна, Хван Донгук несомненно обладал талантом руководителя и управленца. Здесь особенно проявились его организаторские способности, позволившие

22) Коста Хетагуров (1859-1906) - осетинский поэт, просветитель, скульптор. Основоположник осетин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23) Сон Ж.Г. Интервью с Хван Донгуком. 2003.

вывести колхоз в передовые. Он пользовался заслуженн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и уважением со стороны своих соплеменников. Шли к нему за советом, помощью, за мор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ой.

В этой когорте корейцев заслуживает внимания еще один человек - Цай Рэн Исеновна. На фотографии (1955) запечатлены корейцы колхоза им. Коста Хетагурова (Нижние Ачалыки Чечено-Ингушской АССР). В центре фотографии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лхоза Хван Донгук, справа - Гер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Цай Рэн Исеновна (1910-1991). Эта замечательная женщина в 1948 году в Средней Азии за трудовые подвиги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была награждена орденом Ленина и Золотой Звездой Геро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В 1964 году Хван начинает свою работу на новом месте в Ставропольском крае в совхозе «Полтавский». В его бригаде работало до 30 корейских хозяйств,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ью более 100 человек. Такому большому коллективу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создать минимум условий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в степях Ставропольского края, удаленных от сель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а для этого требовалось наладить связь с руководством района, совхоза, чтобы арендовать землю, достать удобрения, семена, решать хозяйственные проблемы по обустройству жилья и т.д. У Хван Донгука это получалось, члены его бригады верили в него и работали с большим энтузиазмом.

Хван приложил немало усилий, чтобы корейцев уважали в этом новом незнакомом крае,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который стал малой родиной для небольшой группы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Его бригада

всегда перевыполнял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лан по сдач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члены бригады имели постоянный доход, жили зажиточно, каждая семья имела свои частные дома в городе, автомобили, постоянный заработок. В 1978 году Хван Донгук ушел на заслуженный отдых.

1960-1970-е годы в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являются периодом активного созидательного труда и роста уровня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Будучи небольшой диаспорой в городе Орджоникидзе, корейцы старались держаться одним коллективом, одной семьей и в праздники и в дни скорби. На фотографиях из семейного архива Хван Донгука запечатлена жизнь не только его семьи, но представлена фотохроника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г. Орджоникидзе советского периода. На всех этих фотографиях в центре находится Хван Донгук, как признанный лидер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Однако,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достижения в боевой и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епреложной частью его жизни оставалась семья. В 1953-1960-е годы он собрал вокруг себя все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оставшихся в живых после тяжелых 1930-х годов, депортации 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На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 стали приезжать родственники. В 1965 г. из г. Алматы переехал старший брат Хван Донхен с семьей. В 1968 г. ушла из жизни мать Тен Мария,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своей жизни она жила в окружении своих детей и внуков.

Хван Донгук вырастил и воспитал четырех дочерей: Нелля, Наталья, Зоя, Елизавета и сына Андрея, имеет одиннадцат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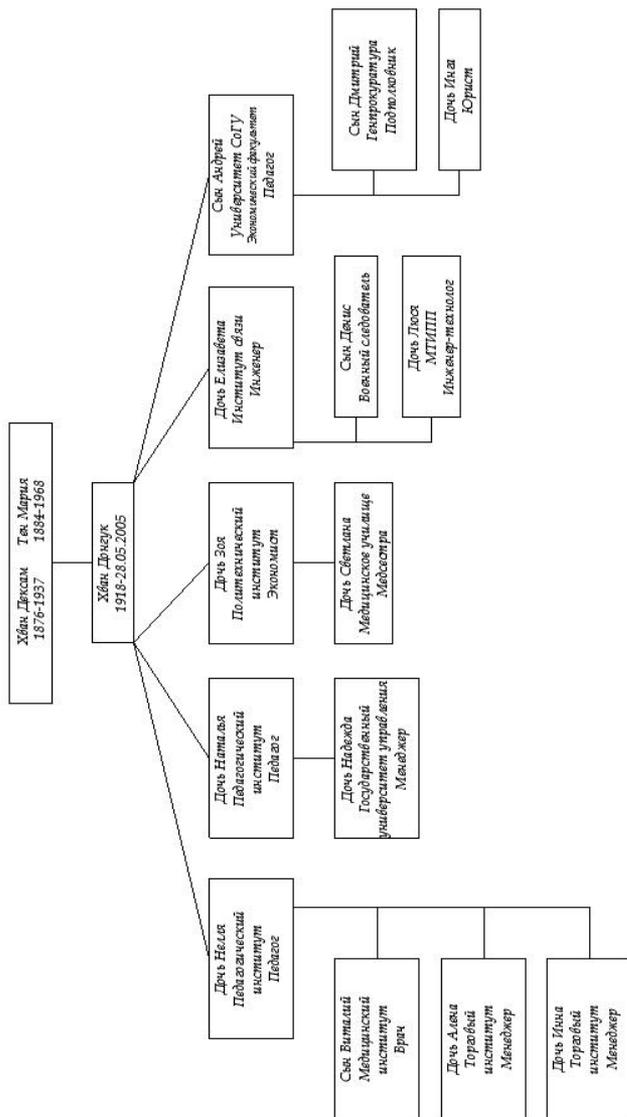
внуков, десять правнуков. Все они имеют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Среди них руководители предприятий, учителя, инженеры, врачи, менеджеры, военные следователи, юристы, экономисты, медицинские сестры. Все они вносят замет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духов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Росси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история семьи Хван Донгука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что в период с 1938 по 1990-е годы в СССР в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е значительно вырос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й потенциал, выросло новое поколение интеллигенции. В воспитании детей главным аспектом оставалось образование, поступление в высшее учебное заведение и работа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По данным Всесоюзн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1989 г. численность корейцев в СССР составляла 439 тыс. человек²⁴⁾, из них 49, 4% считали родным языком - корейский, 43, 3% - владели русским языком, 3,7% - другой язык, 21, 3 % - имели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Первое и второе поколения корейцев еще владели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третьего поколения (43,3 %) русский язык стал родным языком, в том числе и для семьи Хван Донгука.

²⁴⁾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СССР 1989 г. http://istmat.info/files/uploads/17594/naselenie_ sssr_po_dannym_vsesoyuznoy_perepisi_naseleniya_1989g.pdf

Рис.2 Родословная семьи Хван Донгука



2) Семья Пак Хонёна

В советское время проблема детей-сирот, оставшихся без родителей после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после сталинских репрессий стояла очень остро. В стране не хватало детских домов, дети-сироты бродяжничали, воровали, совершали преступления. Однако среди обычных детских домов в СССР были и другие детдома, так называемые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ые детские дома для детей политических заключенных. Жизнь и судьба воспитанников этих домов кардинально отличалась от обычных детдомов, для них создавались совершенно иные условия. Среди воспитанников этих детдомов выдающиеся ученые, военные, известные политики, артисты и т.д. Кто же они - эти интердомовцы?

В 1920-е годы широкую известность имела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 Международ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помощи борцам революции (МОПР) - одна из самых массовых в первые год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МОПР был основан Коминтерном как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для оказания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мощи иностранным революционерам за рубежом.

В конце 1920-х годов корейская секция МОПР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роводила активную работу по оказанию материальной и морально-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помощи узникам японских тюрем - корейским коммунистам.

МОПР являлся связующим звеном между Коминтерном и

корейскими революционерами в Корее. В конце 1920-х годов японскими властями жестоко преследовались борцы националь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и, многие корейцы-коммунисты нелегально переправлялись на территорию совет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помощи МОПРа.

Важ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работ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омощи борцам революции было оказание помощи детям убитых и сидевших в тюрьмах революционеров. Погибшие или попавшие в заключение отцы нередко были единственными кормильцами в семьях, поэтому их жены и дети оказывались совершенно без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этих детей куском хлеба и крышей над головой, было решено открыть детские дом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тех стран, где жили их семьи. МОПР обеспечивал финансовую сторону организации этих домов.

С призывами собирать деньги для помощи детям за рубежом выступил журнал «Путь МОПРа»²⁵⁾.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средств была накоплена во время массовых целевых кампаний, которые тогда назывались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детскими неделями. Самыми активными участниками этих акций были рабочие города Иваново.

Ивановцы установили шефство над детьми политических заключенных тюрем «Биленфельд» (Германия) и «Сосновец» (Польша). Летом 1924 г. в Иваново-Вознесенске было открыто отделение Лиги помощи детям германского пролетариата. Оно

²⁵⁾ Балдин К.Е. Интердом - моя планета! ИД «Референт», Иваново, 2008. С. 14.

собирали деньги на устройство детских домов и организацию летних лагерей отдыха для детей жертв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Особенно активно жители Иваново-Вознесенской губернии собирали средства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детского дома в Эренфельде (Германия).

В Германии на средства МОПРа были открыты несколько детских домов, где с 1923-1928 гг. в них отдохнули около одной тысячи детей. Из них у 420 погибли оба родителя, у 393 детей отцы сидели в тюрьме²⁶⁾. «Красные» детские дома Германии были открыты для детей австрийских и болгарских революционеров. В 1920-х годах такие же дома были открыты в Италии, Португалии, Польше и др.

Однако вследствие сопротивления властей этих государств «красные» детские дома просуществовали недолго и руководители МОПРа пришли к выводу, что остается один выход - переправить детей в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В Москве был наиболее известен детдом им. Клары Цеткин. Иностранные ребята воспитывались здесь не отдельно, а совместно с советскими детьми. Можно только представить, насколько сложна была адаптация маленьких детей в отсутствие родителей к другой культуре, иному языку, суровому климату. Все это вызывало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й дискомфорт, растерянность, частые слезы и капризы.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здесь была и другая проблема, мальчики и

²⁶⁾ Там же. С. 15.

девочки из Германии, Австрии, Китая, Кореи и других стран могли стать «русскими», забыть свою культуру и язык. Руководители МОПРа рассчитывали, что дети, повзрослев, вооружившись в СССР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идеологией, должны будут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и продолжить революционную борьбу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В связи с этим было решено организовать специальный детский дом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детей, в котором они получали б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идейное воспитание и не забывали о том, что они по своему происхождению немцы, болгары, китайцы и т.д.

Сначала таким детдомом была усадьба в Подмосковье в деревне Васькино, но он имел существенный недостаток, здесь дети могли находиться только до двенадцатилетнего возраста. Затем старшие дети вынуждены были жить и учиться в других местах, будучи оторванными от своих земляков.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и возникла идея о создании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ого детского дома, в котором могли воспитываться дети самых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По инициативе известной революционерки Е.Д. Стасовой и «старых большевиков» города Иваново для детей политэмигрантов был построен детдом, на добровольные сборы ивановских рабочих. В 2013 г.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ый детский дом для детей политзаключенных имени Е.Д. Стасовой отмечал свой 80-летний юбилей. Первым воспитанникам этого детдома под 80-90 лет, но они продолжают сохранять в себе любовь к Интердому, живут воспоминаниями о прошлой жизни без уныния и сожаления.

Одной из воспитанниц Ивановского Интердома является Пак

Вивиана, в свои 85 лет она необыкновенно активна, жизнерадостна и готова в любую минуту прийти на помощь. Все ее разговоры и беседы сводятся к воспоминаниям об Интердоме, где она выросла.

Пак Вивиана родилась 1 сентября 1928 год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С 1931 года жила и воспитывалась в детском доме под Москвой в деревне Васькино. В 1933 г. ее перевели в первый Интердом в г. Иваново. В 1943 г. Вивиана поступила в Хореографическую школу-студию пр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Академическом ансамбле народного танц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Игоря Моисеева.

В 1946 году была зачислена в состав ансамбля, где проработала 20 лет. С 1968 по 2011 год преподавала в школе-студии (техникум) пр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Академическом ансамбле народного танца (ГААНТ) имени Игоря Моисеева. Лауреат Всемирного фестивал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молодежи в Праге (1947), в 1958 г. награждена медалью «За трудовое отличие», имеет благодарности от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образования. С 2011 года находится на заслуженном отдыхе.

На первый взгляд, ничего необычного в жизни Пак Вивианы не прослеживается. Талантливая кореянка, она с детства любила танцевать и нашла свое призвание в знаменитом ансамбле Игоря Моисеева. В то тяжелое время детдомовцев было очень много. По разным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детей оставалось без родителей. Однако судьба Вивианы достойна внимания, потому что поневоле тесно связана и является частичкой истории трех государств: СССР, КНДР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авда, ни с языком, ни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Вива, не была знакома. Она

росла совершенно в другой среде.

Какие ж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заставили родителей отдать своего ребенка в детский дом? Здесь необходимо рассказать о них: отец - Пак Хонён и мать - Чу Седюк, выдающихся патриотах-революционерах, внесших огромный вклад в антияпонскую борьбу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Пак Хонён (псевд. Ли Чун) один из не многих «старых революционеров» после 25-ти лет револю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подполье и заточения в японских тюрьмах, остался жив. В 1939 г. после выхода из тюрьмы восстановил корейскую коммунистическую партию на юг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КНДР,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1948 - 1953). В 1953 г. в Пхеньяне обвинен в шпионаже в пользу США, в 1955 г. приговорен к смертной казни.

Чу Седюк (псевд. Хан Вера) (1901 - 1953), революционерка, организатор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х ячеек среди женщин в Корее. Несколько раз в Корее арестовывалась за пропаганду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х идей, репрессирована в СССР (1937 - 1943)²⁷⁾, находилась в ссылке в течение шести лет, реабилитирована. В 2008 г.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Чу Седюк посмертно награждена орденом за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борьбе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Жизнь и деятельность родителей Вивианы Пак, ученым-историкам предстоит еще изучить, изложив свой объективный взгляд, поскольку, в силу 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истрастий разделенной

²⁷⁾ Личный архив Пак Вивианы. Личное дело из архива ФСБ.

Кореи, имя Пак Хонёна предано забвению.

После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восстания 1919 года в Корею начались повальные аресты. В связи с этим, большая часть молодежи, принимавшая в нем участие, вынуждена была покинуть родину. Часть из них перебралась через Китай на российскую территорию, другая часть осталась в Китае. Там и познакомились Пак Хонён и Чу Седюк.

К тому времени Пак Хонён уже состоялся как революционер, страстно изучал марксистско-ленинское учение, был лидером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Он был членом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Кореи,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которой были Ким Мангём, Ли Донхви и другие известные революционные деятели. Он и привел, Чу Седюк в этот марксистский кружок в Шанхае и рекомендовал ее при вступлении в Корейскую компартию.

7 ноября 1924 г. в Шанхае Пак Хонён и Чу Седюк поженились. С этого времени началась их совместн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вместе они ездили в Корею для подпольной работы, организовывали комсомольские и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е группы и кружки. Будучи журналистом, Пак Хонён работал в издательстве газеты «Тона ильбо». В своих статьях он писал о невыносимых условиях жизни 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и крестьян, созданных японской военщиной. Как организатор и руководи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йско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в 1925 году Пак Хонён постоянно преследовался японской полицией,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двергался аресту и сидел в тюрьме. Чу Седюк работала медицинской сестрой и проводила коммунистическую

агитационную работу среди женщин-кореенок, организовывала женские комсомольские кружки. Она также неоднократно арестовывалась и сидела в тюрьме.

В 1928 году, постоянные преследования японских властей, вынудили Пак Хонёна²⁸⁾ с супругой Чу Седюк покинуть страну и уехать в СССР.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омощи рабочим (МОПР), через Владивосток, они прибыли в Москву.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1 сентября 1928 г. родилась Вивиана.

В январе 1929 года семья Пак Хонёна прибыла в Москву. Пак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ет в работе корейской секции при Коминтерне и одновременно учится в Московской ленинской школе, а Чу Седюк - в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трудящихся Востока (КУТВ).

Поскольку родители занимались актив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то в 1931 году Вивиана была определена в детский дом для политэмигрантов в деревне Васькино в Подмоскowie, организованног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МОПРа. Детский дом в Васькино, а затем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ый детский дом для детей политических заключенных в Иванове стал родным домом для Пак Вивианы.

Многие революционеры-интернационалисты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работавшие в Коминтерне, вынуждены были определять своих детей в детские дома. Постоянные командировки за рубеж, связанные с опасностью быть арестованными, работа в Коминтерне, все это не позволяло коммунистам-революционерам полноценно заниматься

²⁸⁾ РГАСПИ. Ф. 495, оп. 228, д. 23, л. 26~27.

воспитанием детей. Вивиану также постигла эта участь и с 1931 года она воспитывалась в детском доме.

Из воспоминаний Вивианы об Интердетдоме для детей политзаключенных в Иванове: «В детском доме были дети из 30 стран мира. Самая большая группа из Китая, вторая из Германии, потом из Болгарии. Корейцев было всего 4 человека. Когда я приехала в детский дом, то попала в дошко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Помню, как нас насильно укладывали спать на открытой террасе, а летом в лесу - в гамаках, чтобы мы дышали свежим воздухом. Ночью нянечка приносила нам черный хлеб, намазанный горчицей и мы с большим удовольствием его ели. Я думаю, она нас жалела. Хорошо помню, как наш воспитатель, Бабичев Виктор Андреевич, читал нам рассказы Короленко - «Слепой музыкант», «Дети подземелья», «Неллю и Патраш» и др.

Когда мне исполнилось 8 лет, меня перевели в шко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Я пошла в школу. Наш детдом располагался далеко от города, рядом находился большой сосновый бор, где мы гуляли и летом и зимой. Мы жили строго по режиму: утром вставали и шли на зарядку, которая проводилась прямо в коридоре, затем убирали постель и шли на завтрак, потом - в школу. После школы возвращались в детдом, обедали и шли в свои классы - делать уроки. Если что-то было не понятно, обращались к старшим ребятам. Мы все были разные: кому-то хорошо давалась математика, кому-то физика и т.д. После уроков посещали разные кружки: хор, музыка, ритмика, слесарную и спортивную секции. Я, конечно, ходила на ритмику. Очень хорошо помню Марию

Петровну Васину, которая научила меня азам танца.

В детском доме была библиотека, мы все много читали. Ребята были всесторонне развиты. Говорили вс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Дети, которые знали свой родной язык, занимались с педагогами, чтобы не забывать его. Каждое воскресенье нам показывали фильмы. Отмечали и праздники. Самым любимым праздником был Новый Год. Когда привозили большую елку, то наряжали ее все вместе. Собственными силами организовывали концерты, также отмечался праздник 18 марта - «День Парижской Коммуны». В этот день приезжали наши шефы, привозили подарки, устраивали товарищеский чай. Мы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али родительских дней, когда приезжали наши родители. Моя мама навещала меня, когда я была в дошкольном отделении. В 1937 г. она уже была арестована. Конечно, я ничего об этом не знала»²⁹⁾ .

С детства Вивиана очень любила танцевать, выступала на всех школьных праздниках. В 1943 году, благодаря воспитателям из детского дома, Вива поступает в школу танцев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Игоря Моисеева.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ее мать Чу Седюк была осуждена по 58 статье в СССР, а отец Пак Хонён с 1933 г. находился в корейской тюрьме, талантливая, влюбленная в танцы девочка, была принята в эту школу. Известно, что детям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х родителей запрещалось поступать в высши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заниматься публичными видами искусства.

Судьба Пак Вивианы - один из исключительных счастливых

²⁹⁾ Интервью Пак Вивианы, 2012.

случаев, которые выпадали иногда в тот период гражданам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Одна - без родителей, она сумела стать личностью, выдающейся танцовщицей и в этом ей помогли, прежде всего, трудолюбие, любовь к танцам и, безусловно, упорство, характерное гражданам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Здесь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помимо личных качеств, если бы не ее учитель - Игорь Моисеев, вряд ли бы Вивиана достигла таких успехов. В те тяжелые военные и послевоенные годы, под давлением сталинских репрессий выжить было очень трудно. Будучи совершенно одна в Москве, благодаря И. Моисееву, Вивиана оставалась в ансамбле и продолжала свою артистическую карьеру.

Самыми теплыми словами Вивиана отзывается о своем наставнике, руководителе ансамбля. «В ансамбле Игоря Моисеева я проработала положенные в этой профессии 20 лет. Мне очень повезло и я благодарна Игорю Александровичу. Он всегда очень хорошо относился ко мне. Старался занимать меня в номерах, ведь я была одна в ансамбле с нерусской внешностью», с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вспоминает Вивиана о своем учителе.

В ансамбле Игоря Моисеева из-за своей восточной внешности и малого роста Вивиана не могла участвовать ни в русских, ни в украинских танцах. По указанию И. Моисеева, уже в 1943 году, был поставлен «Таджикский танец», за который Вивиана была удостоена звания лауреата Перв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Затем были другие восточные танцы, поставленные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нее: «Монгольская статуэтка», «Корейский пастушеский» и др.

Воспитанники Интердома, выросшие без родителей, очень тепло и бережно относились друг к другу. А Вивиану, как самую маленькую по росту, всегда любили и уважали. Рольф Глюкауф, воспитанник Ивановского Интердетдома пишет в своем дневнике: «7 июля 1944 года. Сегодня утром был на выступлении детей из ансамбля Игоря Моисеева. Танцевала Вива Пак, это был ее дебют. Она великолепно исполнила таджикский танец. Чавдар передал ей от имени детского дома букет цветов...». ³⁰⁾

Корейнка Вива Пак, писала газета «Пионерская правда», - маленькая, изящная, веселая и жизнерадостная девочка, была знаменита своим талантом еще в Интердетдоме в Иванове, а позже отправилась в Москву, чтобы продолжить обучение в балетной школе³¹⁾.

В одном из писем Рольфу, своему товарищу по детскому дому, Пак Вива писала: «Наш ансамбль готовится к гастролям... Уже совсем скоро я стану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м человеком, артисткой балета. Но я должна еще очень многому учиться, должна работать над собой. Я хочу стать настоящей советской артисткой. Артисткой советской закалки, ты понимаешь, о чем я...».

В 1946 г. Вивиана Пак была зачислена в состав ансамбля Игоря Моисеева. В 1947 г. ансамбль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Перв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естивале молодежи, где за исполнение таджикского танца с дойрой, Вива со своим партнером Славой получила звание лауреата этого фестиваля. Ансамбль народного

³⁰⁾ Личный архив Пак Вивианы.

³¹⁾ Пионерская правда. 1944.

танц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Игоря Моисеева гастролировал по всему миру: Сибирь, Средняя Азия, все большие города СССР, а также - Польша, Венгрия, ГДР, ФРГ, Франция, Англия, Греция, Китай, Япония, Голландия, Финляндия, Египет, США и др.

Особо хочется отметить гастроли во Франции и Японии. Во Франции (1955) искусством ансамбля Игоря Моисеева восхищался весь французский бомонд, во главе с Ив Монтаном. Он с восхищением отмечал восточную грацию в танце «Монгольская статуэтка», талант воплощения в танце Пак Вивианой этнических тонкостей народов Востока.

В Японии, в театре «Кабуки», Вива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смогла постичь искусство статического танца. Несомненно, требуется обладать незаурядными способностями, чтобы в такие сжатые сроки научиться труднейшему танцу. Ей удалось передать зрителю не только внешний образ, но и с огромным умением, чувства и душу этого японского танца.

В 1958 г., после гастролей в США, лучшие солисты ансамбля Игоря Моисеева были отмече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ми наградами. В Колонном зале Дома Союзов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К.Е. Ворошилов вручил Пак Вивиане медаль «За трудовое отличие».

Вплоть до 1989 года Пак Вива не знала практически ничего об истинной судьбе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несмотря на кратковременные встречи с ними. Второе знакомство с родителями произошло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рассекреченных архивных материалов.

Несмотря на разлуку с дочерью и мать, и отец всегда помнили

о своей дочери Вивиане. Впервые после ссылки в Казахстане, Чу Седюк (в СССР она значилась под именем Хан Вера) приехала в Москву в 1944 году. Приезд ее был коротким, фактически, нелегальным, т.к. она оставалась невыездной до 1953 года. Эта первая встреча 15-летней дочери с матерью была достаточно холодной. Об этой встрече в своих воспоминаниях пишет подруга Вивы, Ольга Губанова.

Встреча с Вивиной мамой

Из воспоминаний Ольги Губановой, солистки ансамбля имени Игоря Моисеева³²⁾:

«К нам в балетное училище, организованное в самый разгар войны в сентябре 1943-го года, поступила девочка из Ивановского детского дома кореяночка Вива Пак. Так получилось, что она жила у меня. К ней приехала мама (из г. Первомайска), очень маленького роста, трогательно хрупкая, с очень маленькими ручками (совершенно детскими), с очень усталым, но не утратившим достойного благородства, красивым лицом.

Встретившись взглядом, я единым духом почувствовала внимательное, заботливое материнское тепло. (Я очень соскучилась по нему). Вивина мама погостила у нас всего несколько дней. (Я, потерявшая материнскую заботу недавно, восприняла приезд Вивиной мамы, как вернувшееся семейное счастье). Вивиана купила своей маме швейную машинку. Как она только наскребла денежек? Жили мы в те времена просто впроголодь. Мы не могли

³²⁾ Личный архив Пак Вивианы.

купить себе даже носочки.

Вивиана всегда была и осталась одной из самых добрых людей, каких мне посчастливилось встретить в своей жизни. При расставании Вивина мама мне сказала незабываемые горькие слова: «Ты чужая мне девочка, а проще относилась ко мне, чужой матери, чем моя родная дочь...». Я, как смогла, объяснила ей, что Вива и не может сейчас искренне выразить свои дочерние чувства, ведь она жила в детском доме с 3-х летнего возраста. А я,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похоронила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брат ушел в ополчение, а потом и на фронт. Я осталась одна в эти военные годы. Поступив в балетное училище и приобретя такую - же подругу (без мамы и папы), я несказанно обрадовалась, что нашлась мама у Вивы и нахлынувшие чувства до сих пор не покидают меня. Я радуюсь, когда кому-то хорошо. Тем более таким близким, любимым подружкам, как Вива!»

Из воспоминаний Вивы: «Она (мама) никогда не рассказывала мне, что живет в ссылке. Прошло уже много лет, а я очень переживаю, что не смогла тогда хоть чем-то ей помочь. Она наверняка голодала. Единственное, что я сделала для мамы, дала ей денег, когда вернулась от папы. На эти деньги была куплена швейная машина, в которой так нуждалась мама. Деньги эти дал мне папа,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я их не просила».

С отцом Вивиана встречалась несколько раз. Первый раз - в 1946 году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когда Пак Хонён нелегально прибыл в Москву для встречи с И. Сталиным. Благодаря своему отцу, Вивиане дали место в общежитии для политэмигрантов. До

этого у нее не было жилья, она жила то у подруги, то у куратора по детскому дому.

Из воспоминаний Вивы о первой встрече с отцом: «Однажды мне сказали, что приехал мой отец, и я с ним встречусь. Когда это произошло, я ощущала чувство неловкости и стыда, оттого, что ничего не почувствовала и ничего не могла выразить. Помню, однажды нас повезли на кондитерскую фабрику «Красный Октябрь». Русские товарищи сказали мне: «Ну, ты хоть назови его папой». Самое странное было то, что он ни разу не спросил, что с мамой».

В 1948 году Пак Хонён приехал в Москву с официальной делегацией от КНДР и тогда он пригласил Виву в Пхеньян. Ее поездка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длилась месяц, там она имела возможность учиться корейским танцам. Отец уговаривал остаться с ним, но Виве хотелось танцевать в ансамбле, будучи уже взрослой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девушкой, сделавшей свой выбор в профессии, трудно было не согласиться с таким заманчивым предложением.

Проработав 20 лет в ансамбле Игоря Моисеева, Вивиана вышла на заслуженный отдых. Но ее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этом не закончилась, в 1966 г. ее пригласили работать педагогом по восточным танцам в школу-студию пр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Академическом ансамбле народного танца (ГААНТ) им. Игоря Моисеева. За работу в этой школе Вивиане было присвоено звание «Заслуженный ра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Более сорока лет Вива преподавала восточные танцы, вырастила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учеников. Долгое время были востребованы ее мастерство, талант, огромное трудолюбие и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опыт.

История Пак Вивианы - это еще одна из историй становления советского человека. В Интердоме для детей политэмигрантов за время е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выросли сотни детей революционеров. Советская власть создавала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гармоничного развития личности. Это был другой мир, другая планета.

Иностранным детям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окруженных заботой и вниманием учителей и воспитателей, были неведомы реалии советской жизни: голод, репрессии, бедность и т.д. Для них была создана детская коммуна - прообраз будущего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го строя, где они учились, трудились на приусадебном участке, работали у заводских станков, занимались любимыми занятиями, учились в выс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работали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в духе интернационализма.

Социализация воспитанников Интердома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происходила в искусственно созданной среде, в иллюзиях, которыми грезили коммунисты-интернационалисты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Мы с огромной радостью, - писал Сэн Катаяма, руководитель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Японии, - встретили день открытия вашего детского дома. Наша радость естественна.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ый детский дом детей политзаключенных - большая победа на фронте перестройки старой, прожитой жизни. Вы получите свой очаг, ваша жизнь будет окружена вниманием, вы сможете свободно расти и учиться»³³). Эти слова типичны для того времени, в ней, как в зеркале, отразилась вера людей 1930-х

годов в то, что они когда-нибудь будут жить лучше, а социализм победит на всем земном шаре.

История первых воспитанников Интердома со всеми ее противоречиями оставила огромный след в их сердцах, но важные качества, необходимые в современном обществе, были привиты всем воспитанникам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ого детского дома для детей политэмигрантов им. Е.Д. Стасовой - это интернационализм, патриотизм, чувство долга и солидарность.

3) Корейцы – участник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1940-1950-е годы в советской истории являются самыми трагическими для советского народа. Великая 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ойна (1941-1945) навсегда останется в истории как величайшее сражение против германского фашизма. Вслед за фашистской Германией в 1945 году была разгромлена 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ая Япония, с которой исторически у русского народа были большие и давние счеты. Победа в этой войне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благодаря героическим усилиям, самопожертвованию 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му единению всех советских людей. Свой вклад в Великую Победу внес каждый народ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том числе и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В конце 1930-х годов со стороны советск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по

³³⁾ Балдин К.Е. Интердом - моя планета! ИД «Референт», Иваново, 2008. С. 36.

отношению к национальным меньшинствам, проживавшим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оюза ССР, было проявлено недоверие, многие народы считались «неблагонадежными». В связи с этим 24 июня 1938 г. была принята директива Наркомата обороны СССР № 200/ш, основное требование которой сводилось к тому, чтобы из сферы обороны СССР немедленно были уволены не только корейцы, но и поляки, немцы, румыны, латыши, эстонцы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ругих этнических общностей.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предписание в первые же дн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большинство проживавших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корейцев прибыли в военкоматы страны с единственной просьбой - отправить их на фронт.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были готовы исполнить свой гражданский долг, тем самым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уважение к предкам и любовь к той Родине, которую избрали их отцы и деды -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затем Советскому Союзу.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войны с фашистской Германией корейское население СССР проявило величайший дух патриотизма, готовность с оружием в руках бороться против фашистской чумы. Молодые корейцы, только что окончившие среднюю школу, подавали заявления в городские и районные военкоматы с просьбой отправить их на фронт. Но это было нелегко осуществить.

Как известно, все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по обвинению в «японском шпионаже» были насильственно переселены с территории обжитого им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в Казахстан и

Республики Средней Азии. Клеймо «японский шпион» не давало им право защищать свою родину с оружием в руках. В общественном сознании самих корейцев укоренилось обидное для всей нации выражение -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фронт не брали.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считалось, что корейцы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 тылу и на трудовом фронт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известны имена 372 корейцев - участников войны, из них 195 человек погибли и пропали без вести, живыми вернулись 127.³⁴⁾ Судьбы остальных остаются пока неизвестными. Среди корейцев-фронтовиков было 19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военных,³⁵⁾ получивших высшее вое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а также имевших опыт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Кадровые офицеры проявляли на фронте примеры исключительного героизма,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них получили тяжелые ранения или погибли.

Основная часть корейцев-фронтовиков была призван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РСФСР - 203 человека; из них призванных из Коми АССР - 41, Москвы и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 15, Приморья и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 8, Северо-Осетинской АССР и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 - 6, Архангельской - 5,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и, Бурят-Монгольской АССР, Крымской АССР - 4, Дагестанской АССР, Татарской АССР, Красноярского края, Молотовской (Пермской и Томской областей) - по 3, Якутской АССР,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Астраханской, Горьковской,

³⁴⁾ Шин Д.В., Пак Б.Д., Цой В.В.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М., 2011. С. 26.

³⁵⁾ См.: Шин Д.В., Пак Б.Д., Цой В.В. Указ. соч.

Кировской, Куйбышевской, Новосибирской, Саратовской областей, Горно-Алтайской автономной области - по 2, остальных - по 1. В Казахской ССР были призваны 54 человек, в Узбекской ССР - 24, Украинской ССР - 5, Белорусской ССР - 3, Грузинской и Туркменской ССР - по 2, Киргизской и Таджикской ССР - по одному человеку.³⁶⁾ Эти корейцы ушли на фронт на общих основаниях, как все призывники, по повесткам из военкоматов. Значительную их часть составляли добровольцы из числа студентов, рабочих и служащих.

География призыва корейцев на фронт обширна, это еще раз подтверждает тот факт, что к концу 1930-х годов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ли на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Союза ССР, трудились, принимали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о всех сферах советск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Зачастую корейцев призывая в армию на общих основаниях, якобы везли в места формирования, а в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они попадали на трудовой фронт. По свидетельству российского историка М.Н. Хана, который сам в годы войны был призван на трудовой фронт в Коми АССР, в одном только Узбекистане было мобилизовано 1500 молодых корейцев 1926 года рождения. Им тогда говорили, что берут в Красную Армию на фронт. Всех погрузили в товарные вагоны и привезли на трудовой фронт в Коми АССР.³⁷⁾ А уже оттуда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сумели попасть на

³⁶⁾ Там же.

³⁷⁾ Хан М.Н. 60-летие трагической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из рай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Дорогой горьких испытаний : К 60-летию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 Сост. В.В. Тянь. М., 1997. С. 57.

фронт.

Известны случаи бегства корейцев из трудовой армии на фронт. В 1941 году Чагай Григорий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призванный в трудармию и работавший на лесоповале под Северодвинском, трижды убежал на фронт. Дважды неудачно, с третьей попытки добрался до г. Горького и устроился рабочим на завод, оттуда ушел на фронт. Хван Донгук в августе 1941 года был направлен в трудовую армию на рытье окопов под Харьковом. В 1942 г. написал письмо И.В. Сталину с просьбой направить на фронт, чтобы «лично сразаться с врагами советской родины». В сентябре 1942 г. его просьба была удовлетворена, и Хван Донгука направили в Астрахань, где формировалась 130-я дивизия. В звании сержанта он командовал противотанковым орудием и участвовал в штурме Берлина. Вообще обращений молодых корейцев к И.В.Сталину, К.Е. Ворошилову и М.И. Калинин с просьбой отправить их на передовую было немало.

Часть корейцев попадала в действующую армию нелегально, изменяя фамилию и национальность (в те годы у крестьян паспортов не было), они становились призывниками, и их отправляли на фронт. Например, в июле 1941 г. Ни Владимир Афанасьевич, будущий полковник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чтобы попасть на фронт, взял фамилию жены, изменил отчество, национальность и под именем Дроздовского Владимира Иннокентьевича записался в добровольцы. Гвардии старший сержант Мян Петр Николаевич добровольно ушел на фронт из Улан-Удэ, назвавшись бурятом.

Младший сержант Ли Алексей Викторович воевал под фамилией Садовский. Ушел на фронт в 1943 г. добровольно, назвавшись казахом по фамилии Садыков, Ким Анатолий Борисович, Цай Григори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призванный в РККА еще в 1939 г. как казах, находился с 1941 г. в распоряжении Военного Совета Сибирск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а с 1942 г. служил в чине капитана командиром батареи 173-го гвардейского артиллерийского полка, командиром батареи 160-го отдельного минометного полка 31-й армии Западного фронта и погиб в бою в августе 1942 года.

Гвардии старшина стрелковой роты 2-го Украинского фронта Ким Туксен ушел на фронт добровольцем, назвавшись якутом Камус Романом Флеевичем. Одним словом, подобных случаев было гораздо больше. Подлинные фамилии и национальность участников войны по архивным материалам узнать не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возможным, поскольку они содержат лишь официа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Такие биографии можно узнат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по свидетельствам современников 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Во время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сражались в партизанских отрядах в тылу врага. Материалы Раздольненского район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Крым) показывают, что после оккупации Крыма немецкими и румынскими войсками летчик Ким³⁸⁾ Александр Петрович, окончивший Чкаловское военное авиационное училище, остался на оккупирова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и стал организатором партизанского

³⁸⁾ См. : *Шин Д.В., Пак Б.Д., Цой В.В.*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М., 2011. С. 105.

подполья в д. Садыр (Славянское) Ак-Шейхского (Раздольненского) района. Ким А.П.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объединении партизанских отрядов и переправе советского десанта на оккупированную территорию. В 1943 г. он был назначен комиссаром партизан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ного отряда им. Чкалова № 1. В 1944 г. Ким А.П. был схвачен фашистами и замучен в гестапо.

Вместе с Ким А.П. в партизанском отряде воевал его брат - комсомолец Ким Антон Петрович,³⁹⁾ в апреле 1944 года погиб при выполнении задания. Жители Раздольненского района бережно хранят память о семье Кимов. В 1965 г. ул. Восточная п. Раздольное была переименована в улицу Антона Кима.

Особо хотелось бы отметить женщин-кореенок, воевавших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Среди них были медицинские сестры, врачи, работники культуры, коммунальной и других служб, действовавших в военное время. Вот имена некоторых из них: Ефимова⁴⁰⁾ Нон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дочь извест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еятеля Владимира Сергеевича И (Ли Виджона - сына корейского посла в Петербурге в начале XX в. Ли Бомджина), Ан⁴¹⁾ Анна Филипповна, 1927 г.р., в июле 1941 года в Орджоникидзе копала окопы. В 1942 г. медсестра в прифронтовых госпиталях Ростова-на-Дону, Харькова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Корейки-участницы войны - это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ы первого

³⁹⁾ Там же. С. 128.

⁴⁰⁾ Там же. С. 64.

⁴¹⁾ Там же. С. 37.

поколения корейцев, родившихся при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На их долю выпало много трудностей и горя.

Для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кроме войны с Германией, была еще одна война, на которой они были особенно востребованы. Многие из них участвовали в освобождении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их оккупантов. В довоенные и военные годы корейцев брали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на службу в следующие боевые части: разведотряд особого назначения морской пехоты в состав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ронта; пограничный разведпункт 36-й армии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фронта; 88-я отдельная стрелковая бригада 25-й арм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ронта; Камень-Рыболовский погранотряд ОГПУ ДВК; Краскински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й пункт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ронта; Уссурийский погранотряд; 7-й отдел (пропаганды) политуправлен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ронта; Каннская школа военных разведчиков; Восточный отдел военной разведки НКВД; Военная спецшкола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РККА и др. Во всех перечисленных боевых частях прошли службу более 20 корейцев-разведчиков.⁴²⁾ Большая часть из них была набрана из корейцев-переселенцев в Средней Азии и Казахстан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орейцы были заняты во всех родах войск и в сфере обеспечения военных подразделений, в медицинской военной служб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участвовали в военных сражениях и командовали подразделениями в Красной армии, служили разведчиками, прошли школу партизанской борьбы.

⁴²⁾ См. : Там же.

Многие из них попали на фронт под русскими, узбекскими, казахскими, бурятскими фамилиями, а часть побывала в фашистском плену.

Вернувшиеся с фронта корейцы, как правило, поступали в высши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становились прекрасн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учеными, учителями.

3. Заключение

С тех пор как у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свободного передвижения, смены места жительства, самыми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и для них стали регионы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так как климат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позволяли более успешно заниматься земледелием. Корейцы быстро адаптировались к местным условиям региона.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естественная миграци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в 1960-1980-е годы шла не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а в основном в Ростовскую область, Ставропольский и Краснодарский края, в Кабардино-Балкарскую Республику. Из регионов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была сосредоточена в Республике Северная Осетия (около 3 тыс. чел.).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проживала в Моздокском районе. Помим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корейцы осуществляли в республике и коммер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 официальным данным,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числилось в

Краснодарском крае в 1989 г. 1157 граждан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в Дагестане - 800 человек. В Кабардино- Балкар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численность корейцев доходила до 7 тыс. человек. Основная часть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сосредоточена в республике в двух городах - Прохладный и Майский.⁴³⁾

Самая большая концентрац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наблюдается в Ростов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данным Всесоюзной переписи 1989 г., в области проживали 7132 гражданина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Сюда корейцы также переселялись из республик Средней Азии и Казахстана, а также с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 Они расселялись на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однако компактное их проживание отмечается в Азовском, Аксайском, Багаевском, Волгодонском районах и в Ростове-на-Дону.⁴⁴⁾ В области корейцы представлены в основном в сфер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занимаются выращиванием овощей.

Граждане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расселялись также 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авропольского края. Здесь их численность незначительная. В степные районы Ставропольского края корейцы из соседних республик и краев выезжают на сезонные работы, арендуют земли для выращивания овощей.

Безусловно, во всех перечисленных районах имею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среднего звена - директора предприятий, городских коммунальных и прочих служб, учителя школ, работники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Для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са характерна высокая способность адаптации

⁴³⁾ Пак Б.Д., Бугай Н.Ф. 140 лет в России. М., 2014. С. 368.

⁴⁴⁾ Там же.

к иным условиям проживания, быстрое вовлечение в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й процесс.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корейцы трудились фактически во всех сферах экономики, народ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управления, культуры, однако преобладающая часть из них работала в сфере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ства. Своим трудом они решали одновременно и свои проблемы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я, и проблемы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отдель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Труд для корейцев - это принцип жизни, выживания, воспитания детей, уважения и признания в обществе. Люди с такими качествами, как правило, адаптируются в любом обществе, встречают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е, отмечает в своих научных трудах о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ах профессор Н.Ф. Бугай.⁴⁵⁾

Таким образом, можно сделать вывод, что в период с 1937 по 1991 годы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ли в совет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Наравне со всеми народами СССР они восстанавливали послевоенную разруху, развивали науку и технику, осваивали целинные земли. Особая роль принадлежит корейцам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не оценим тот вклад, внесенный ими в его развитие.

В трудные 1940-1960-е годы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смогли консолидироваться, сплотиться для преодоления всех тягот и невзгод. Только взаимопомощь и терпение друг к другу помогли им выжить и не остановиться на достигнутых результатах.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более 400 корейцев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званием

⁴⁵⁾ Бугай Н.Ф. Корейцы стран СНГ : общественно-«географический синтез» (начало XXI века). М., 2007. С. 125.

«Гер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и орденами Ленина.

Период с 1970 по 1991 гг. характерен созидательным трудом, ростом уровня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всех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этому способствовало взаимовлияние двух культур, корейской и русской. Неоценимо влияние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корейцы в СССР име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ать бесплатное не только среднее, но и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бесплатно получали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и другие виды со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они сумели сохранить в себе такие черты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как трудолюбие, толерантность, особое отношение к образованию.

Начиная с послевоенного времени, корейцы активно занимаются наукой. Несколько сотен корейцев стали кандидатами и докторами наук в гуманитарном и техническом направлениях науки, два члена-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академии наук РАН: Ким Георгий Федорович и Ким Максим Павлович. Список достижений корейцев в СССР неизмеримо больше, чем можно себе представить и это не является целью дан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Главное, все-таки, заключается не в этом, важно, что они смогли сохранить свою национальную идентичность, ответственно и достойно преодолевают любые испытания.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представляют одну из полностью ассимилирован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России. У них нет друг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кром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которой неразрывно связаны их исторические судьбы в будущем - это слова известного ученого Пак Михаила Николаевича,⁴⁶⁾ что

является неоспоримым фактом.

⁴⁶⁾ Энциклопедия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М., 2003. С. 15.

Социальный статус и роль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в СНГ (на примере корейцев Узбекистана)

Хан Валерий

1. Введение

Одним из ярких, еще малоизученным феноменом современной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й истории являются выдающиеся достижения коре сарам, в том числе корейцев Узбекистана. Известно, что в результате депортации 1937 г. корейцы были ограничены в правах. Если учесть характер сталин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йцев и их статус «не привилегированного» этнического меньшинства, феномен столь значительных достижений становится особенно удивительным. Ни одна из корейских диаспор в мире (Японии, Китая, США, Канады и других стран), не смогла достигнуть такого высокого статуса в социальной

иерархии своих стран, как это сделали коре сарам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Достаточно упомянуть, что более чем 200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стали обладателями звания “Гер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за выдающиеся достижения в област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Но коре сарам могут гордиться не только успехами в области земледелия. Корейцы образовали серьезные прослойки в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наук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и других отраслях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Это можно увидеть на примере корейцев Узбекистана.¹⁾

2. Распредел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Узбекистана по отраслям труда в 1989 г²⁾

Все народное хозяйство	Численность (тысяч человек)	%
Сельское и лесное хозяйство	22,7	26,3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17,2	19,9
Строительство	10,5	12,2
Народ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8,7	10,1
Транспорт и связь	4,9	5,7
Торговля, снабжение, заготовка сельхозпродукции	4,6	5,3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и физкультура	4,4	5,1
Органы управления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3,6	4,1

¹⁾ См. : Ким Б. Корейцы Узбекистана. Кто есть кто. - Ташкент, 2000.

²⁾ Ким Мен Гир.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Узбекистана // Ким Б. Корейцы Узбекистана. Кто есть кто. - Ташкент, 2000. Приложение 1. - С. 144.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е хозяйство, служба быта	3,1	3,6
Наука и научн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2,5	2,8
Культура и искусство	1,1	1,4
Прочие отрасли производства и услуг	3,0	3,5
Итого	86,4	100

Среди корейце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есть или были:

- крупные политики и члены правительств (вице-премьер министр, министры и заместители министры, депутаты парламентов,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уда);

- члены национальных Академий наук, руководители учебных и научных подразделений (ректора и проректора, деканы и заместители деканов, заведующие кафедрами выс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директора и заместители директоров, начальники отделов и секторов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и проектных институтов);

- руководители крупных промышленных, финансовых 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част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национальных авиакомпаний, банков;

- известные спортсмены (олимпийские чемпионы, призеры чемпионатов мира и Европы, чемпионы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спорта, победители различ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турниров, чемпионы национальных чемпионатов СССР и стран СНГ, старшие тренеры сборных команд, руководители национальных олимпийских комитетов, руководители ассоциаций по различным видам спорта);

- известные, получивш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е признание писатели,

композиторы, художники, артисты эстрады, оперы и балета и т. д.

3. Вклад корейцев в развити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Узбекистана

После депортации, абсолютное большинство корейцы были сконцентрированы в колхозах и совхозах, и заняты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Несмотря на весьма сложное крит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корейских колхозов с точки зрения их необустроенности, технической оснащённости и незнакомства с среднеазиатскими природно-климатическими и зонально-почвенными условиями корейские земледельцы уже в первые годы своего обустройства демонстрируют успехи в получении высоких урожаев. Вот, что в частности писал зав. сельхозотделом ЦК ВКП (б) УзССР в ЦК ВКП (б):³⁾

«В колхозах основных районов вселения Ташкент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чается высокие знание агротехнических приемов возделывания культуры риса, в силу чего переселенческие корейские хозяйства на отдельных землях ... показали весьма высокую урожайность, достигнутую от 20 до 40, а отдельные бригады - 70 центнеров при высокой стоимости трудодня».

Высокие урожаи достигались корейскими колхозниками не

³⁾ Ким П. Г. О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е Узбекистана // Извест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Казахстана. Вып. 6. - Алматы, 1999. - С. 49.

только в традиционных для них культурах (рис, бобовые и др.). Например, колхоз «Полярная звезда» Средне-Чирчикского района Узбекистана начинает заниматься хлопководством с 1941 г. В то время средняя урожайность хлопчатника по колхозам Средне-Чирчикского района составляла 21, 8 центнера с гектара. Корейские земледельцы уже в первый год получили 38, 7 центнера с гектара.⁴⁾ В 1944-1946 гг. они собрали 39,4 центнеров.

Корейцы также добились рекордных урожаев пшеницы, сахарной свеклы, картофеля, кенафа, лука, бахчевых и т. д. Например, при плане урожая пшеницы в 9-11 центнеров с гектара корейцы собирали 30-38 центнеров. При плане сахарной свеклы в 250-260 центнеров с гектара корейцы собирали 500-800 центнеров, а при плане картофельного урожая в 40-45 центнеров с гектара, они собрали 150-500 центнеров.

Не удивительно,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статус «спецпереселенцев» и недоверие со стороны властей, корейцы, причем массово, начинают получа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награды. В колхозе «Полярная звезда» (Узбекистан) свыше 600 передовиков-корейцев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орденами и медалями, а 26 из них удостоены звания Геро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⁵⁾

С конца 40-ых по 70-ые годы за высокие достижения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больше чем 200 корейцев получили звание “Геро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не говоря о том, что тысячи получили

⁴⁾ Экономика передового колхоза «Полярная звезда». - Ташкент, 1954, С. 12.

⁵⁾ Ким Сын Хва.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Алма-Ата, 1965, - С. 234.

разного рода ордена, медали и почетные звания. Если мы сравним число корейских "Героев" к численности корейцев, то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среди других народов СССР будут занимать одно из высших мест по процентному соотношению численности награжденных к численно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анного этноса. А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лхоза «Полярная звезда» Ким Пен Хва дважды удостоивался этого высокого звания. Вообще дважды и трижды Геро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в стране появились лишь после войны. К концу 60-х годов, по данным статистики, в СССР их было всего 65. И среди них - кореец. В Узбекистане за всю его советскую историю было всего три человека, дважды удостоенных звания Геро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и один из них - Ким Пен Хва.

Оказавшись после переселения на новой земле, корейцы не изменили своему трудолюбию. Столкнувшись с новыми для себя культурами - хлопком или кенафом, они уже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лет стали давать рекордные урожаи.

Признанием организационных способностей корейцев в аграрном секторе стал тот факт, что десятки колхозов и совхозов в республиках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было доверено руководить корейцам. Корейцы также занимали высокие посты в сфер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 районном, областном,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м и всесоюзных уровнях. Это такие посты как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комитета по рыбному хозяйству Узбекистана (Х. Т. Тен), зам. министра хлебопродуктов Узбекистана (Н. Д. Тен), зам. министра плодовоовощного хозяйства Узбекистана (Х. Т. Тен.),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пчеловодства Узбекистана (М. И. Юн),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зерновых культур Министерств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Каракалпакстана (Н. Н. Тянь) и другие.

4. Вклад корейцев в развитие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финансовой и других сфер экономики

Наряду с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ми достижениями, корейцы внесли существенный вклад и в другие сферы экономики республик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Они возглавляли промышленные ассоциации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значения и занимали высокие посты в различных секто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труктур. Например, на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м уровне корейцы Узбекистана занимали (или занимают) следующие посты: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UzAutoSanoatTrans” (Е. Х. Ким),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ссоциации “UzTransGas” (В. И. Тё),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Национальной авиакомпании “Uzbekiston Havо Yullari” (В. Н. Тянь),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Ассоциации лег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UzLegProm” (Ф. Н. Ким),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Ассоциации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UzMachProm” (А. М. Хан),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Ассоциации транспорт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UzTransStroy” (Л. П. Ким),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ления Совета директоров Узбекского межотраслев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Shodlik” (В. В. Огай) и другие.

В Узбекистане корейцы также занимали (занимают) посты директоров многих 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Алмалыкского завода металлических конструкций (Ф. М. Ким), Андижанского

завода “IgMach” (В. Г. Пак), Ахангаранского завода строительной пластмассы (Л. Х. Пяк), Маргиланского завода металлоизделий (М. Ч. Ким), Нукусского завода безалкогольных напитков и пива (В. М. Ким), Ташкентского агрегатного завода (Э. В. Тен), Ташкентской фабрики спортивных товаров (Тян Хак Пон), Тахиаташского ремонтно-механического завода строительных конструкций (Н. Д. Цхай), Той-Тепинского завода металлоконструкций (В. В. Шин), Узбекского комбината тугоплавких и жаропрочных металлов (В. И. Пак), завода «Хлопкомаш» (В. А. Чжен) и другие.

Корейцы занимали (занимают) высокие посты в сфере финансов, налогов и страхования. В Узбекистане это - зам. Начальника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фонда приватизации Узбекистана (Г. С. Ким), главное инспектор Комитета Госконтроля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а (А. В. Ким),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 ценам Узбекистана (Т. А. Пан) и другие.

С развитием банковской системы в годы перестройки и последующе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рейцы начали занимать высокие посты и в этом секторе. В Узбекистане корейцы занимают (или занимали) такие посты как зам. председател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Банк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а (А. Т. Пак), президент “Траст Банка” (В. Н. Пак),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ления “Инвест Банка” (В. В. Дигай),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ления “UzLegCom Bank” (А. К. Ким),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ления “Алока Банка” (К. А. Ким), зам.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Инвест Банка” (Т. А. Пан, В. В. Дигай), зам.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Асака Банка” (А. К. Ким).

5. Наука, образование и культура

Одним из характерных черт корейцев всегда было стремление к образованию. Особенно трудно пришлось тем, кто рискнул для учебы выехать за пределы обозначенной в паспорте территории и местожительства. Чего только не делали корейцы, чтобы учиться в Москве, Ленинграде, Киеве и других крупных городах: использовали чужие документы, стирали злополучную отметку в своих паспортах.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впоследствии стали крупными учеными 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Первые корейские диссертации появляются уже в начале 1950-ых. Корейцы защищают диссертации на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ов и докторов наук в области физики, математики, геологии, инженер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етеринарных наук, географии, химии, биологии, медицины, фармацевтики, философии, истории, экономики, политологии, права, филологии, педагогики и искусствоведения. Всего, корейцы Узбекистана, согласно справочнику корейских ученых Узбекистана, защитили больше чем 300 диссертаций.

Среди корейских ученых Узбекистана были (или есть) один член Академии наук Узбекистана, 2 ректора и 8 проректоров университетов, 1 зам. директора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НИИ, десятки деканов, заведующих кафедрами и лабораториями в университетах,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и проектных институтов.

В системе 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орейцы широко представлены от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до директоров школ.

В культуре и искусстве корейцы также известны в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В Узбекистане они представлены: в балете (В. Егай, К. Н. Ким), эстраде (Г. Шин, О. Н. Когай),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е (А. Б. Ким, Н. Х. Ли, С. Тен), народном танце (Е. Н. Ким, Хван Ден Ук), классическом танце (Р. Кан); живописи (В. Ан, Г. Н. Кан, Е. Ли, Б. А. Ким, Г. Н. Ким, А. В. Ли, Н. С. Пак, Н. С. Шин, И. Шин и другие); композиторском искусстве (Д. Н. Ли, Пак Ен Дин, Е. Пак, Тен Ин Мук), прозе и поэзии (Тё Мен Хи, Угай Де Гук, В. Ли, Б. Пак, М. Ким и др.), режиссуре кино и телевидения (Ким Г. Н., Эгай С. В.) и другие. Ряд корейских деятелей культуры удостоены звания «Заслуженного артист Узбекистана», «Заслуженный деятель культуры Узбекистана», «Заслуженный деятель искусств Узбекистана».

6. Спорт

Корейцы также внесли существен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спорта республик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го региона. В Узбекистане корей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завоевывали следующие титулы:

в тяжелой атлетике - чемпионов республики (В. А. Лигай и В. Ю.); призеров чемпионата СССР (В. И. Ан и В. А. Лигай); призера чемпионата Узбекистана (Д. Ф. Ким);

в дзюдо - чемпионов Узбекистана и чемпионов чемпионата СССР (Н. Р. Ан);

в борьбе самбо - чемпионов Узбекистана (Г. Г. Ким, В. А. Ким,

Р. М. Ким, Ю. С. Ким, М. Д. Ли), чемпиона Казахстана (В. А. Ким), чемпионов молодеж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СССР (Г. Г. Ким, Р. М. Ким), призера чемпионатов СССР (М. Ф. Ан), чемпиона Европы (М. Ф. Ан), чемпиона мал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М. Ф. Ан), призера молодеж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Р. М. Ким), призера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Р. М. Ким);

в борьбе кураш - чемпиона Узбекистана (И. О. Нигаи);

в боксе - чемпиона Узбекистана (А. Д. Цой), призеров чемпионата Узбекистана (А. Д. Дин, А. П. Ян), чемпиона СССР (Ф. Ф. Пак), обладателя Кубка СССР (Ф. Ф. Пак), призеров чемпионата СССР (Ф. Ф. Пак, В. Н. Шин), чемпионов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СССР (Г. Б. Тен, В. Н. Шин), призеров чемпионата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СССР (Лем Р. А.), чемпиона молодеж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Европы (Ф. Ф. Пак), призера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В. Н. Шин), обладателя Кубка мира (В. Н. Шин);

в греко-римской борьбе - чемпионов Узбекистана (М. Н. Ли, О. Л. Пяк), призера чемпионата СССР (М. Н. Ли);

в каратэ - чемпионов Узбекистана (А. Ф. Ли, А. В. Ли, М. Н. Ли, В. В. Лигаи, О. Л. Пяк), чемпионов СССР (М. Н. Ли, Э. Н. Ли, Н. А. Югаи); призеров чемпионата СССР (А. В. Ли, О. Л. Пяк); чемпиона молодеж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СССР (А. В. Ли);

в таэквондо - чемпионов Узбекистана (А. Э. Ким, А. В. Ли, А. А. Ни, А. Тен); чемпиона Европы (Э. Н. Ли), призеров чемпионата Европы (А. Э. Ким, О. В. Ким), призеров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О. В. Ким., Л. Ю. Ли), чемпионов молодеж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Л. Ю. Ли);

в футболе - чемпиона Узбекистана (С. В. Ни), чемпиона молодеж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Европы (М. И. Ан);

в гандболе - призера чемпионата Узбекистана (А. Е. Хам);

в баскетболе - призера молодеж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Узбекистана (А. Р. Ким);

в хоккее на траве - чемпионов Узбекистана, призеров чемпионата СССР, призеров Кубка чемпионов Азии (А. А. Ким, И. Эм), чемпионов СССР (А. Е. Хам), призера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Л. Ли), призера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А. Е. Хам);

в фехтовании - призера чемпионата Казахстана (М. Н. Ким);

в настольном теннисе - чемпиона Узбекистана (В. А. Шин);

в шахматах - чемпионов Узбекистана (О. С. Ким, А. Ч. Хегай).

Наряду с личными достижениями в спорте, корейцы сыграли огромную роль в подготовке спортсменов. Достаточно сказать, что главными тренерами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манд в Узбекистане были: в дзюдо - М. Ф. Ан, в таеквондо - Э. Н. Ли, О. Л. Пяк, в боксе - В. Н. Шин, в тяжелой атлетике - Д. Ф. Ким, в фигурном катании - И. А. Хван, в хоккее на траве (женская команда) - И. А. Хван; главным тренером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манды Каракалпакстана в тяжелой атлетике - В. А. Пак; главным тренером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манды СССР в таеквондо - узбекистанец О. Л. Пяк.

Кроме того, в Узбекистане корейцы занимали (занимают) такие высоки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спортивные посты как генера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Национального О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Узбекистана (В. В. Лигай), вице-презид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 спорту Узбекистана (В. В. Фен), генера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Азиатского

Союза борьбы кураш (В. В. Лигай), генера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Федерации дзюдо Узбекистана (Ю. С. Ким), генера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и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Федерации шахмат Узбекистана (Р. Б. Ким), президент Азиат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аеквондо (ITF) (В. В. Лигай);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Таеквондо (WTF) Узбекистана (О. Л. Пяк, А. В. Ли); вице-президент Федерации дзюдо Узбекистана (М. Ф. Ан); вице-президент Федерации сирым Узбекистана (Н. А. Югай).

7. Орга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Корейцы были также широко представлены во властях различных уровней.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высших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структурах, то корейцы занимали в Узбекистане следующие посты:

- вице-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а (В. А. Чжен);
-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комитета по управлен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имуществом и приватизацией (В. А. Чжен);
- министр мест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А. Чжен);
-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комитета по рыбному хозяйству (Х. Т. Тен);
- зам. министр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 Д. Тен);
- зам. министра хлебопродуктов (Н. Л. Тен);
- зам. министра плодоовощного хозяйства (Х. Т. Тен);
- зам.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комитета по геология и минеральным ресурсам (Р. В. Цой);

-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труда Республики Каракалпакстан (Р. М. Ли);

-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ракалпакстан (А. А. Пак).

На уровне районов и городов корейцы также занимали руководящие посты в областных, районных и городских испол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ах власти Узбекистана: в Верхне-Чирчикском районе, в городах Чирчик, Янгиер, Нукус, Фергана.

Корейцы также избирались депутатами выборных органов различных уровней:

· на городском уровне - в Советы Андижана, Ангрена, Алмалыка, Ахангарана, Бекабада, Коканда, Маргилана, Навои, Нукуса, Самарканда, Ташкента, Талимаржана, Тахиаташа, Термеза, Ферганы, Чирчика;

· на районном уровне - в Советы Средне-Чирчикского и Верхне-Чирчикского районов;

· на областном уровне - в Советы Андижанской, Бухарской, Самаркандской, Сырдарьинской, Ташкентской, Ферганской и Хорезмской областей.

Депутатами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Узбекистана неоднократно избирались Ким Пен Хва, Хван Ман Гым, Шин Ден Дик, Тен Хайгюн, Н. В. Ким. Узбекистанские корейцы такж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в высшем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м органе СССР - в Верховном Совете СССР (А. Кан, Л. Ли и В. И. Цо). В независимом Узбекистане корейцы также избирались в парламент страны (С. С. Ким) и сенат (В. Б. Пак).

8. Перед выбором

Перестройка и последующие годы независимости существенно повлияли на жизнь корейцев, формы их трудовой занятости и перспективы дальнейше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в новых государствах. После распада СССР усилился отток корейцев из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феры.

В первые годы независимости на изменение трудозанятости корейцев сильно сказался экономический кризис стран СНГ. Советский народно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мплекс представлял собой сложный организм, где все его части были связаны огромным количеством связей: уровень кооперации в советской экономике превышал 70%. Разрыв хозяйственных связей, последовавший после распада СССР, поставил буквально все предприятия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на грань выживания. Многие предприятия полностью остановились, а их персонал был отправлен в неоплачиваемые вынужденные отпуска.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е производства, основанные на сложной системе кооперации со смежны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чтобы выжить стали выпускать кастрюли, тазы, детские коляски и другую несложную в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 отношении продукцию. Массовое сокращение и не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ь привели как к оттоку специалистов за границу, так и пополнению ими рядов част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Оттоку корейцев из сфер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экономики в сферу частн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способствовала не только

либерализация экономики и кризис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ектора, но и нов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реалии, сложившиеся после распада СССР.

В чем это выразилось?

Прежде всего, в увеличении удельного веса титульных наций и сокращении удельного веса других этнических групп в структуре населения. Показателем данного процесса стала устойчивая миграция этнических меньшинств из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другие страны, прежде всего в Россию. Если взять данные по Узбекистану, то уже в 80-х годах среднегодовая убыль составляла 50 тыс. человек, а в 90-е годы - 80-90 тыс. человек. Почти полностью уехали немцы, крымские татары, евреи, турки-месхетинцы. Устойчивая миграция наблюдалась среди русских, белорусов, украинцев.⁶⁾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миграции наблюдалась и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го региона.

В миграционные процессы оказались вовлечены и корейцы.

В Узбекистане число корейцев уменьшилось с 183 140 человек в 1989 году до 172 384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 января 2001 год.⁷⁾ В последующие годы численность корейцев продолжает уменьшаться. По данным Госкомитета Узбекистана по статистике, в 2002 году она составила 169,6 тыс. человек, в 2003 г. - 166,1 тыс., в 2004 г. - 161,7 тыс., в 2005 г. - 157,3 тыс., в 2006 г. - 153,0 тыс., в 2007 г. - 150, 1 тыс., в 2008 г. - 147,7 тысяч.

⁶⁾ Ата-Мирзаев О., Гентшке В., Мургазаева Р. Узбекистан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й : историко-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аспект. - Ташкент, 1998. - С. 73-75.

⁷⁾ Ким В. Д. Корейцы Узбекистана : прошлое и настоящее // История, культ ура и быт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Кыргызстана и Узбекистана. - Бишкек, 2003. - С. 46.

Одной из самых сложных проблем для этнических меньшинств в странах СНГ стала новая языковая ситуация. Во всех среднеазиатских республиках язык титульной нации был объявлен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языком, в то время как нетитульные этносы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владели им. Требование знания языка титульного этноса для занят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олжностей привело к корен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труктур, чт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стимулировало как миграцию корейцев, так и отток их из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труктур в сферу частного бизнеса, где зна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языка не обязательно.

Особенно много корейцев в торговле. Тысячи корейцев Узбекистана занимаются мелким бизнесом с частной лицензие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 или вообще без регистрации. Корейцы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в массовом порядке, освоили «челночный» бизнес. Показательным в этом плане является самый крупный оптовый рынок Узбекистана под названием «Ипподром». Он делился (и по сей день делится) на две части: узбекский базар и корейский базар. Если учесть, что корейцы составляли менее 1% в структуре населения Узбекистана, наличие понятия «корейский базар» на крупнейшем оптовом рынке страны говорит о мощной представленности корейцев в торговом бизнесе.

Частный бизнес, в который устремились корейцы, можно условно разделить на три большие группы.

Первый вид не требовал каких-либ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знаний и обучения.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челночный» мелкотогровый бизнес. Люди покупали товар (одежду, косметику, игрушки, некоторые виды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электротехнику и т. д.) в

одних странах и продавали у себя дома. Приобретение каких-то специфических знаний, например,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товара или спросе на те или иные виды товара, происходило естественным образом в процессе купли-продажи.

Второй вид бизнеса уже предполагал определенного рода квалификацию и опыт - это ресторанный бизнес,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ремонтные работы, автосервис, различного рода производства несложного типа и т. д.

Третий вид бизнеса основывался на высоко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знаниях, предполагающих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В 90-х годах корейцами-программистами был основан целый ряд компьютерных фирм, занимавших лидирующие позиции на рынке Ташкента, корейцами-врачами - медицинские клиники различного профиля и т. д.

Коммерциализац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знания и сокращение представленности корейцев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труктурах привели к определенному нарушению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й занятости корейцев, как это имело место в советское время. Наблюдается сокращение числ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студенчества, творческой, научной и технической интеллигенции. Произошел отток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корейцев из науки, образования, культур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других сфер в бизнес. Уже сегодня наблюдается разрыв в преемственности. Молодых ученых-корейцев, активно занимающихся наукой, становится все меньше. Хотя эта тенденция касается всех народов СНГ, потер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будут гораздо чувствительнее,

чем для численно крупных этносов.⁸⁾

Новые вызовы, стоящие перед корейцами Узбекистана предъявляют новые требования к деятельности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выработки стратегии эффективной адаптации в новых условиях.

⁸⁾ Хан В. С., Ким Г. Н.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 International Journal of Central Asian Studies, - Seoul, Vol. 5, - P. 52.

Современная диаспора корейцев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 состояние и тенденции развития

Тамара Троякова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 России за почти сто пятьдесят лет своей истории прошла противоречивый и трагический путь. Формирование общинной ментальности корейцев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IX века происходило на фоне колонизац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окраин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советская власть проводила политику созд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ментальности, что негативно отразилось на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Для обще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плочения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ервых десятилетий поддерживался миф о постоянной внешней опасности и существовании внутренних врагов и в 1930-е годы корейцы стали жертвами «концепции заговора».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основной акцент ставился на

идеологических аспектах идентификации с государством. А это приводило к тому, что значимость советск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у разных групп граждан различалась. Мож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у корейцев, депортированных в республики Средней Азии советская идентичность уходила на второй план, а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находилась этническая и региональная составляющие. Это проявлялось в постепенном росте численности корейцев на совет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1960-е годы. А кардина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произошли в начале 1990-х годов.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различные аспекты формирования нов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ачинается статья с определения 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Рассуждения о терминах «российские» и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цы позволяют обосновать употребление термина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Данные контент-анализа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сообщений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газете «Золотой Рог» и на сайтах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агентств «PrimaMedia» и «Дейта» за период с 1996 по 2012 гг. позволяют прийти к определенным выводам о состоянии и направлениях её деятельности.

1. Особ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Диаспору можно понимать как особый тип человечески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и как специфическую систему формальных и

неформальных связей, основанных на общности исхода с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или представлениях,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и мифах о таком исходе, на усилиях по поддержанию традиционн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в качеств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еньшинства в принимающем обществе. Ва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диаспора не является данностью, а её возникновение, существование и исчезновение может быть ответом на вызовы времени и места, различ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Исходя из такого подхода, наличие совокупности лиц одной этничности, живущих вн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очага, пусть даже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и укорененных на новой родине - это еще не диаспора, а только необходимое условие к ее реализации. Можно утверждать, что в России происходит процесс формировани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результате десоветизации всех групп населения. Для корейцев в последние двадцать лет одной из основ стала этническая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которая часто выражается через территориальную общность, родной земли. Например, в начале 1990-х годов появились предложения о создан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округа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¹⁾

На самоощущение корейцев и их потомков, их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ю, образ и стиль жизни огромное влияние оказала политика советских властей.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власти весьма подозрительно относились к национальной само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стремились

¹⁾ Нам С. Г.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район. Пути поиска исследователя. М. : Наука, 1991. С. 21.

советизировать и фактически максимально русифицировать корейцев. Одним из следствий такой политики стало снижение понятия этнической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и на общей шкале ценностей у корейцев и их потомков.

Печальная память о сталинских репрессиях и депортации заставляла опасаться корейцев связи с «национальными очагами» за предела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границ. Демонстрация диаспоральности была занятием опасным и даже тупиковым с точки зрения выстраивания успешной жизненной стратегии. Можно утверждать, что этничность в качестве ресурса адаптации и достижения успеха вряд ли играла решающую роль в жизненной стратегии корейцев во времена существовани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овременный период принес радикальные перемены в положение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в России качественно изменились.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с окончанием политики официального интернационализма проблема этнической самобытности перестала быть запретной.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повсеместно стали развиваться процессы, которые стали называться «национальным возрождением».

Значение этничности 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фактора вошло в политику как инструмент обществен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и даже борьбы за власть. Многие социальные конфликты приобрели этническую окраску. Существовавшие национальные предубеждения, предрассудки, недовольства стали открыто проговариваться и стали важным фактором обще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в России.

К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этнических меньшинств и раньше относились

как к группам, теперь же это носит массовый и открытый характер, в том числе и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уровне. Такое отношение может носить нейтральную, негативную или позитивную окраску, но в любом случае оно заставляет 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нсолидироваться и рассматривать себя и в таком качеств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редставлены несколькими группами. Первую группу образуют корейцы, которые вернулись на территорию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дцать лет. Основная волна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пришлась на 1990-е годы после принятия в апреле 1993 г. Постановления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реабилит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²⁾ Большая часть из них - свыше двадцати тысяч человек - проживают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По своему происхождению они относятся к потомкам корейцев, переселившихся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з пограничных с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ей территорий.

Вторую группу образуют корейцы, которые проживали на острове Сахалин с 1920-х годов. Значительное их число было вывезено на работу на Сахалин в годы японского правления. В основном это были выходцы из южной част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одни корейцы покинули Сахалин, а другие остались жить в сложных условиях советского времени. Часть из них не имела даже гражданства. В последние двадцать лет состав этой группы

²⁾ Реабилитация народов России.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и материалов. М., 2000. С. 192-193.

значительно изменился. Численность корейце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стигает тридцати тысяч человек.

Наконец третью группу образуют корейцы, которые приехали в Приморье в 1950-1960-е годы из Средней Азии в результате либерализации политического режима. К этой группе можно отнести и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остались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в конце 1960-х годов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действия соглашений между СССР и КНДР о привлечении корейцев на работу в рыбную отрасль.

Численность корейцев в эти годы не превышала нескольких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о данным Всесоюзн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1959 г.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проживало 6 592 человека.³⁾ По данным следующих всесоюзных переписей населения численность корейцев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колебалась от 8 125 человек в 1979 г. до 8 454 человек в 1989 г.⁴⁾

Проблематично утверждать,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рабочие, численность которых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колеблется от пяти до десяти тысяч в год, оказывают особое влияние на развити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регионе. Рабочие из КНДР работают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в Хабаровском крае и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м соглашением 2007 г. о порядке регулирования трудовой миграции между РФ и КНДР.

Общение северных корейцев с местным населением происходит

3) Итоги Всесоюзн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1959 года. РСФСР, М., 1963. С. 334.

4)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РСФСР : по данным Всесоюзн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1989 г. М., 1990. С. 145-145.

на разных уровнях. Консуль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КНДР, которые располагаются в Находке и Хабаровске, проводят различные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священных корейским праздникам,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пример,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 В.П. Пака в июне 2006 г. в Артеме в Центр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состоялась первая встреча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а КНДР Ан Жун Гунна 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а РК Чон Де Вана в честь годовщины подписания в 2000 г. Совместной декларации между Севером и Юго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Участниками встречи в Центр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которая состоялась в июне 2007 г. были не только генеральные консулы КНДР и РК, но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федеральных, краевых и районных властей,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вузов.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рестораны, которые открыты в ряд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городов, служат местом общения, как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так и туристов из Южной Кореи. Кроме тог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рабочие занимаю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работой, например, занимаются ремонтом квартир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Хотя этот процесс трудно поддается учёту, но уже сложилось мнение о трудолюбии и относительной дешевизне их услуг. Мож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поддерживает связи с гражданами КНДР.

Составной частью радикальных перемен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дцать

⁵⁾ Дробышева И. Две Кореи соединились в Приморье.// Золотой Рог. 19.06.07. С.3.

лет стало формирование новой ситуации в результате роста потоков трансграничных миграций. Этому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рыночн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экономики, открытость границ и свобода передвижения. Часть прежде внутренних миграций с распадом СССР стала миграциями трансграничными. Вчерашн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превратились в «зарубежных граждан» хотя и «ближнего зарубежья». И корейцы приобрели новый статус и набор экономиче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правовых проблем. Более того, в Казахстане и Узбекистане процесс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возрождения»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развиваются на этнократической основе. Количество корейцев, желающих выехать из этих стран, растёт, и система мотиваций, образ жизни, адаптацион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и ресурсы меняются. Мигранты-корейцы этой волны и этого типа неизмеримо больше нуждается в системе групповой поддержки, в сети родственных, клановых, этнических связей. Возрастает численность корейских групп, которые за счет притока новичков меняют свой облик. Численность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выросла с 18 тысяч в начале 1990-х годов до 25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Усложнение «этнической композиции» населения за счет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особенно заметно в городах Артёме и Уссурийске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Эти факторы радикально увеличивают структурообразующее значение этничности, национальной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и, формируют диаспоральное самосознание и способствуют созданию диаспор. Структуры и сети на этнической основе, существовавшие и

раньше, разрастаются, качественно меняется их значение как ресурса выживания и делового и социального успеха.

Дело не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этими количественными переменами, хотя в ряде случаев количественный рост уже привел к качественным сдвигам. Происходит своеобразный «ментальный рост», который выражается в появлении этих групп, как в собственном сознании, так и восприятии окружающих.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начинают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единой группой, и в некоторых ситуациях ведут себя как члены одной группы, формируют сеть связей и отношений на этнической основе.

Новая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стране, общая актуализация этнического фактор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борьбы за реализацию законов и постановлений о «реабилитации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х народов» - всё это вызвало мощный всплеск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у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В 1990 г. был создан на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в Уссурийске,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открылась школ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был создан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ансамбль «Ариран».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принимают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Поддержка сохран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ного, языковог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как фактора присутствия в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ах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важная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ая задач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сле установления и нормализаци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в сентябре 1990 г.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алачился интенсивный обмен в политиче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культурной областях. В 1992 г.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открылось Генераль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Корей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развитию торговли и инвестиций (КОТРА) с февраля 1992 г. занялось продвижением южнокорейских товаров и инвестиций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рамках закона 1996 г. «О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и» были созданы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е автономии (НКА) корейцев. НКА Уссурийска в 2004 г. стала учредителем еженедельника «Корё синмун»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изданию оказывают частные лица,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Фонд мира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Генераль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марте 1995 г.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 участ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ДВГУ) открыло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для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которые хотели бы изуча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у. Его деятельность продолжается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В сентябре 1995 г. факультет корееведения ДВГУ получил в дар новое здание и стал называться Высший колледж корееведения. К сожалению, в 2012 г. после реорганизации ДВГУ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 переезда в новый кампус на острове Русский здание Высшего колледжа корееведения утратило прежний статус. Однако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продолжается в рамках ДВФУ.

Положения Закона РФ «О реабилитации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х народов» и Постановления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РФ «О реабилит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создали юридическую основу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прав 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льгот. В августе 1993 г. краев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утвердила план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выполнению постановления, где оговаривались задачи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го возрождения и обустройства с выделением льготных кредитов,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илья 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целей. Позднее были приняты постановления «О предложениях в комплексную программу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го возрождения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О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м размещении прибывающих в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семей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Районные власти информировали о возможностях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и жилья. Однако в условиях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решения федеральных и краев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жилья и работы всем вернувшимся корейцам не были выполнены.

В сентябре 1997 г. была принята краевая миграционная программа "О передаче высвобождаемых военных городков, расположенн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 безвозмездное пользование краевого фонда приморских корейцев "Возрождение",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предполагалось, в частности, создание компактных поселений на территории бывших военных городков в Дальнереченском, Михайловском, Надеждинском, Ханкайском, Хорольском и Уссурийском района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лощадью около 50 тысяч гектаров с 1998 г. в течение пяти лет

планировалось наладить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Источники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включали целевы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программы, личные средства, спонсорские взносы и доходы от создания совместных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Но на пути воплощения этих планов встало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бюрократических препон, в частности процедура получ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требует регистрации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а жилой фонд в бывших гарнизонах не признается пригодным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В конце концов, инвестиции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Приморье жилья и создания рабочих мест для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ступили из нескольких источников.

Южно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малых строи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ряд друг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зяли з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 Михайловском районе поселка с символическим названием «Дружба».⁶⁾ Поддержк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ыразилась в оформлении разрешения аренды земельного участка, на котором раньше располагался военный аэродром. Официально деревня «Дружба» получила статус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единицы только в начале 2004 г., а процесс оформления потребовал сбора более двух тысяч подписей чиновников различного уровня. Построенные дома находятся в муницип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Высокие налоги на недвижимость не позволили приобрести их в собственность. С учетом полученного опыт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⁶⁾ См. : Троякова Т.Г. «Корейская деревня» в Приморье : один из проектов «национального возрождения». //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е обозрение, 2008, № 4. С. 37-44.

инвесторы ста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и другие формы помощи переселенцам. Например, для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купаются дома и в других районах Приморья.⁷⁾

Очевидно, что преобладание этнического фактора при решении хозяйственно-организационных проблем н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целям преодолен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в Приморье. В ходе претворения идеи лидеры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согласились на то, чтобы «корейская деревня» стала местом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и работы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зных этнических групп.

В марте 2005 г.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главы фонда «Единство» и председателя Центра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П. Пака, была создана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которая координирует разнообраз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можно говорить о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е как новом элемент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В целом в России можно говорить о происходящих сдвигах от растущего присутствия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к их структурированию, формированию общин, с их институтами, активистами, поиском ниши, выдвиганием коллективных или от имени коллектива целей.

⁷⁾ Пак О. «Дружба» налаживается// Золотой Рог. 5.06.07. С. 5.

2. Выбор терминологии

: российские или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цы

В российском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в том числе и в приморских средствах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всех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ак правило, называют россий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Это определение относится как к переселенцам из Казахстана, Узбекистана, так и к корейцам, живущи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оведенного контент-анализа сообщений, содержащих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и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цы», можно утверждать, что первое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намного превосходит количество сообщений о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ах. Поиск, произведенный по статьям и заметкам, содержащим точное употребление данных словосочетаний, показал, что ни в сообщениях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агентств «Дейта» и PrimaMedia, ни в новостях газеты «Золотой Рог» термин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цы» не употребляется вовсе. (См.: Приложение 1.)

Поиск по всем сообщениям российских газет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агентств, проиндексированным ведущей российской поисковой системой «Яндекс» с 1999 по 2013 гг., показал лишь пять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сообщений о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ах» (См.: Приложение 2).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одна из статей рассказывает об исследовании, которое ведут господина Юн Сан Вон и Хон Вунг Хо.

Корректно ли называть корейцев-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Казахстана и

Узбекистана «русскоязычными корейцами»? Авторы данной статьи полагают, что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цы - это все корейцы, владеющие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При этом не так важно, живут ли он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или в любой другой стране. Так, диаспоры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возникают в Канаде и США - странах, в которые эмигрируют граждане России, в том числе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гражданство или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не важны - в их число в равной степени можно включить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переселившихся из России в Канаду, корейцев-граждан Казахстана и Узбекистана, а также гражда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ыучивших и пользующихся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термин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цы» применительно к этническим корейцам-гражданам России избыточен, так как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российских граждан, в том числе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владеют русским языком. Термином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цы» (или, что более точно,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цы стран СНГ»,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цы государст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уместно обозначать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их республиках. В этом случае владение русским, а не национальным (казахским, узбекским, таджикским) языком является отличительной чертой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Однако этот факт говорит о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 переселенцами (или вынужденными переселенцами) из России,

позволяя также называть их «россий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В случае с этниче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России термин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ыражает этническую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и страну проживания нескольких поколений предков нынешних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Учитывая культурные и языковые отличия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оссии (в том числе и 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ложившиеся при многолетне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других этнических групп РФ, мы считаем, что термин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точнее обозначает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чем термин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цы».

3.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Причиной выбора еженедельника «Золотой Рог» является характер издания, который рассчитан на деловые круги не только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но и на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ыбор 1996 г. обусловлен наличием электронной версии публикаций. За период с 1996 г по 2012 г. в газете было опубликовано 204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сообщения (статьи, заметки), содержащих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корейцы», «кореец», «корейка».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в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сообщениях, в которых упоминаются корейцы, речь идет о гражданах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едущих бизнес в Приморье 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или о рабочих из КНДР.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среди

статей, посвященных корейцам, вернувшимся из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три статьи написаны корейкой Ольгой Пак.

Только пятнадцать статей и заметок посвящено корейцам, вернувшимся в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из Средней Азии. Статьи о корейцах, переселившихся в Приморье с Сахалина, встречаются редко.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достоинства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и обеспечение российским корейцам равных с другими народами возможностей в осуществлении сво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ав потребовало выработки новых подходов. Одним из показательных примеров этого процесса стало предложение о массовом возвращении корейцев в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и создания 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ы, которая в перспективе смогла бы получить статус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района.

Одним из инициаторов этой идеи была С. Г. Нам, которая на основании изучения исторических документов пришла к выводу о том, что «Реабилитац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Союза должна означать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всех нарушенных его гражданских и 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ав, включая права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района и национальных сельсоветов.⁸⁾

В Приморье эта идея обсуждалась в газетах и в феврале 1991 г. на совещании в Совете народных депутатов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Однако предложение о создании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автономии

⁸⁾ Нам С. Г.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район. Пути поиска исследователя. М. : Наука, 1991. С. 21.

не получило поддержки не только краевых властей, но лидеров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 условиях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который переживал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проблемы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ских требовали других решений.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эта тема была поднята в 2005 г. в статье «Загадка ко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ии» и журналист приходит к выводу, что эта идея оказалась мифом.

В середине 1990-х годов статей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Приморье публиковалось больше, чем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 1990-е годы темы, связанные с деятельностью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пользовались усиленным вниманием со стороны властей и местного населения. В статье «Приморские корейцы отвергли обвинения в сепаратизме» («Золотой Рог» № 63, 1997) говорилось о программе «Возрождение рус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едполагающей создание компактных поселений корейцев в Приморье, и опасениях начальника УВД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связанных с гипотетической «корейской угрозой». В заметке «Кореец корейцу - брат» («Золотой Рог» № 69, 1997) сообщалось о конференции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посвященной депортации и возвращению примор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татье «В военных городках корейцам неуютно» («Золотой Рог» № 63, 1999) поднимался вопрос получения российск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корейцами, переселяющимися из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а также затрагивались возникающие у переселенцев проблемы с получением социальных гаранти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мощи и жилья. Статья «Корейцы на Ханкайской земле» («Золотой Рог»

№ 68, 2000) рассказывает о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переселившихся на юг Приморья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Казахстана и Киргизии.

В заметке «“Корейская деревня” дорожает на глазах» («Золотой Рог» № 50, 2000) говорится о значительном превышении проектной сметы при постройке домов для коре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Средней Азии, финансируем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статье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в Приморье под вопросом» («Золотой Рог» № 27, 2002) речь снова идет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корейской деревни» в Приморье и проблемах,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 заметке «Корейские деньги вложат в Михайловский район» («Золотой Рог» № 56, 2002) сообщается о завершен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ервой очереди «корейской деревни "Дружба"» для «российских граждан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переселившихся в Приморье из Средней Азии. В двух статьях («Судьба 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Золотой Рог» № 72, 2006 и «"Дружба" налаживается», «Золотой Рог» № 43, 2007) речь идет о проблемах создания компактных поселений для корейцев, возвращающихся в Приморье из мест депортации.

Характер этих публикаций отражал противоречия между целями и приоритета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централь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Для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основной целью 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было достижение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здесь и сейчас. А попытк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к получению особ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статуса в начале 1990-х годов вызвали рост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 межэтн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Источником конфликта стало тот факт, что местное население вынуждали «потесниться», а корейские переселенцы, численность которых резко возросла, заявили о потребностях укрепить свой статус.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в начале 2000-х годов тональность и тематическ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газетных публикаций приобрели иной характер. Статья «Вкусный кусочек Азии в Дальнегорске» («Золотой Рог» № 42, 2002), посвященная ресторану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несмотря на свое явно коммерческое содержание, рассказывает и о том факте, что владельцы ресторана являются корейцами, переселившимися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В статье «Холостяцкий ужин идет на ура» (Золотой Рог № 88, 2005) упоминается успех корейских салатов, появившихся в Приморье в начале 1990-х годов вместе с корейцами-мигрантами.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цев посвящена и статья «Как выселяли корейцев» («Золотой Рог» № 82, 2007), в которой автор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Россия должна помочь возвращению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корейцев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статьях, опубликованных после 2007 года, тема корейцев, переселившихся в Приморье, не поднимается. При этом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упоминаний «корейцев» не снижается, в основном за счет сообщений, касающихс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в ряде статей, посвященных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 корейцам («Новая победа корейской красавицы», «Золотой Рог в

Хабаровске» № 21, 2005; «Я русский кореец, татарин...», «Золотой Рог» № 88, 2009), корейцы уже не выступают в качестве «переселенцев», «приезжих», что говорит об их успешной интеграции в общество.

Таблица 1. Упоминание корейцев, вернувшихся в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из Средней Азии, по рубрикам и годам публикации

	Общество	Политика	Происшествия	Бизнес	Всего статей о переселенцах	Всего статей о корейцах
2012					0	8
2011					0	19
2010					0	2
2009					0	8
2008					0	12
2007	1	1			2	16
2006	1				1	29
2005		1	1	1	3	32
2004					0	6
2003					0	9
2002	1			2	3	7
2001					0	7
2000	1			1	2	7
1999	1				1	11
1998					0	12
1997	1	1			1	10
1996				1	1	9

За период с 1 января 2012 по 1 августа 2013 года в газете «Золотой Рог» было опубликовано 36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сообщений (статей, заметок), содержащих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корейцы»,

«кореец», «корейка». Продолжая тенденцию прошлых лет, в большинстве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сообщений «Золотого Рога», в которых упоминаются корейцы, говорится о гражданах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НДР.

Только три статьи, так или иначе, затрагивают тему российских граждан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В заметке «Корейцы встретили Соллаль в Артеме» («Золотой Рог», 24 января 2012) автор сообщает о посещении председателем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праздно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Нового года. В статье «Между переписями произошли изменени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ставе Приморья» («Золотой Рог», 5 апреля 2012) говорится о публикации новых статистических данных о населени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Автор статьи отмечает, что в Приморье проживает более 17 тысяч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татье «С днём победы, женщины!» («Золотой Рог», 6 марта 2013) автор упоминает приморских корейцев, говоря о сходстве менталитета современных городских женщин Росс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Корейским переселенцам, вернувшимся в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из Средней Азии, в 2012-2013 годах не посвящено ни одной публикации «Золотого Рога». Последнее упоминание в «Золотом Роге» о коре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ах относится к 2007 году.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сообщения о корейцах (как о гражданах России, так и гражданах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счезли из рубрики «Происшествия». В статьях «Золотого Рога» 2012-2013 год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ериодом 1996-2004 годов значительно 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публикаций посвящено бизнесу, связанному с Кореей, в том числе медицинскому туризму, южнокорейским инвестициям в экономику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 тенденция, наблюдающаяся с 2005 года.

Таблица 2. Упоминание корейцев, вернувшихся в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из Средней Азии, в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сообщениях газеты «Золотой Рог»

	Всего статей о переселенцах	Всего статей о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ах	Всего статей о корейцах
2013		1	10
2012		2	26

Для проверки тенденций освещения темы коре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в «Золотом Роге» был проведен контент-анализ материалов ведущих интернет-СМ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за 2012-2013 гг. Поиск по материалам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агентств PrimaMedia и «Дейта» был осуществлен по тем же ключевым словам, что и при работе с материалами газеты «Золотой Рог».

За период с 1 января 2012 по 1 августа 2013 гг. на сайт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агентства PrimaMedia были опубликованы 78 статей, содержащих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корейцы», «кореец», «корейка». Как и в случае с газетой «Золотой Рог», ряд материалов является скрытой рекламой туристических поездок в Корею, корейских автомобилей. Знач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статей также посвящено КНДР.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упомянуты в трех публикациях PrimaMedia.

В статье «Почвы для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конфликтов в Приморье нет – вице-губернатор» (PrimaMedia, 29 декабря 2012) о корейцах говорится как об одной из наиболее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риморья, наряду с русскими, украинцами и татарами. Статья «В центре Владивостока может появиться маленький корейский парк» (PrimaMedia, 24 июня 2013) рассказывает об идее создания парка, символизирующего связь Кореи с Владивостоком. Автор напоминает читателям о долгой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от первых поселенцев до депортации 1937 года.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о возможности создания парка журналистам сообщает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статье «Приморские корейцы десятилетиями не могут добиться российск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речь идет о трудностях, которые испытывает семь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переселившихся из Средней Азии в Приморье в 1990-х годах. Главная героиня репортажа считает себя русской кореялкой, но не может получить гражданство из-за бюрократических проволочек (см. Приложение 3).

Таблица 3. Упоминание корейцев, вернувшихся в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из Средней Азии, в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сообщениях PrimaMedia

	Всего статей о переселенцах	Всего статей о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ах	Всего статей о корейцах
2013		1	22
2012	1	2	56

На сайт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агентства «Дейта» с 1 января 2012

по 1 августа 2013 года опубликованы 78 статей, содержащих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корейцы», «кореец», «корейка». Аналогично публикациям «Золотого Рога» и PrimaMedia,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материалов агентства «Дейта», связанных с корейцами и Кореей, посвящена туризму или бизнесу. Кроме того, журналисты агентства уделяют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роблемам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НДР. В отличие от «Золотого Рога» и PrimaMedia, «Дейта» сообщает о ряде криминальных происшествий, пострадавшими в которых были граждан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НДР («Двух амурчан судили за нападение на корейцев», 23 мая 2013; «В Приморье похитили 6-летнюю иностранку», 29 марта 2012).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в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сообщениях агентства «Дейта» криминальным сводкам в целом уделяется большее внимание, чем в публикациях «Золотого Рога» или PrimaMedia.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упоминаются только в двух сообщениях агентства новостей «Дейта». В статье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ая волна”» («Дейта», 19 октября 2012) говорится о наличии на Сахалине 25-тысячн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статье «Численность постоянно проживающих в Приморье узбеков и таджиков увеличилась в разы» («Дейта», 4 апреля 2012) говорится о том, что в Приморье проживает более 17 тысяч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Этот материал аналогичен статье «Между переписями произошли изменени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ставе Приморья» («Золотой Рог», 5 апреля 2012), оба сообщения ссылаются на пресс-релиз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ладивостока.

Таблица 4. Упоминание корейцев, вернувшихся в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из Средней Азии, в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сообщениях агентства «Дейта»

	Всего статей о переселенцах	Всего статей о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ах	Всего статей о корейцах
2013		0	29
2012		2	40

4. Заключение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 Приморье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самых активных групп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населения края, осуществляет активные этнокультурные контакты. Многие из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т в управлении различными сферами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входят в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и исполн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Очевидно, что необходимо создавать возможности, выгодные рег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е и не угрожающ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человека, общества и государства в России.

Учитывая то, что регион нуждается не только в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рабочих руках, а в дополнительном населении, огромное значение приобретает такой инструмент как интеграция мигрантов.

Интеграция стихийно происходит уже сейчас и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Вопрос в том, останется ли это стихийным процессом, часто протекающим в формах, далеких от законности, или он будет происходить на условиях и формах, предложенных принимающим обществом и государством. Можно говорить о трёх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интеграции,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ы для успеш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регионе и стране.

Во-первых, в рамках натурализации необходимо обеспечить обретение максимально большим числом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законного юридического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и вед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в России (См.: Приложение 3).

Во-вторых, необходимо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для восприятия и обмена основами общей культуры, обычаев, системы ценностей, норм поведения и т.д. Возможно, что часть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уже прошла процесс ассимиляции.

В-третьих,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должна стать частью 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организма региона и России - тратить полученные доходы, инвестировать в развитие различных проектов.

Приложение 1. Результаты строгого поиска словосочетаний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цы» и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сообщениях «Золотого Рога», агентств «Дейта» и PrimaMedia

	Сообщения о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ах	Сообщения о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ах
Золотой Рог	0	3
Дейта	0	0
PrimaMedia	0	3

Приложение 2. Результаты строгого поиска словосочетаний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цы» и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сообщениях, проиндексированных системой «Яндекс.новости»

	Сообщения о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ах	Сообщения о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ах
2013	2	13
2012	1	20
2011	1	9
2010	0	7
2009	0	19
2008	1	3
2007	0	9
2006	0	3
2005	0	3
2004	0	5
2003	0	3
2002	0	1
2001	0	0
2000	0	2
1999	0	2
Всего за 15 лет (1999-2013)	5	99

Приложение 3. Статья PrimaMedia от 19июня 2012 года

Приморские корейцы десятилетиями не могут добиться российск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На фоне новой 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история Натальи Ким из Находки выглядит особенно абсурдной

Владивосток, 19 июня, PrimaMedia. Корейская семья, вынужденная 15 лет назад после распада СССР выехать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поселилась в Приморье, но до сих пор члены семьи н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росси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из-за бюрократизма и черствости

чиновников. Об этом в редакцию написала Наталья Ким из Находки.

«Мы приехали в Приморье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в 1997 году, у меня есть паспорт гражданина Узбекистана, но нет российского паспорта, за что меня постоянно штрафуют. Ни у дочери (25 лет), ни у сына (22 года) тоже нет паспортов. У нас нет миграционных карт, потому что в то время их не давали. Вот уже год дочь ездит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каждый раз обещают что-то сделать, но ничего не происходит, одни траты и бесполезное поездки на весь день.

Мы не узбеки, и не таджики, мы вообще русские корейцы, наши предки тут жили в Приморье, разве наша вина, что Сталин наших дедов в Среднюю Азию депортировал в 1937 году? Наша семья живет в России с 1903 года, у нас шесть поколений тут родилось и выросло, так почему никто не может нам помочь?

Без документов на официальную работу никто не возьмет, слишком большие штрафы. Нет медицинского полиса - за все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все годы платим наличными. Может, это кому-то выгодно, чтобы мы не могли беспрепятственно сделать себе разрешение на жизнь, а не на существование?», - написала Наталья Ким.

Как сказала корр. заместитель начальника Примор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ФМС Эвелина Гонтова, ознакомившись с текстом письма, ведомство принимает меры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Натальи Ким.

«Мы знаем об этой семье и ее проблемах, принимаются меры

по решению вопросов. Постепенно ситуация будет исправлена», - сказала Эвелина Гонтова.

А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 утвержденной им концепции новой 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статье ясно указывает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одействие в жилищном обустройстве вынужденных переселенцев,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процедуры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и временного убежища по гуманитарным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

«В 1990-е годы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лучили статус беженцев и вынужденных переселенцев около 1,5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но до сих пор законодательно закрепленные социальн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еред ними до конца не выполнены», - говорится в концепции.

Кажется, пришло время выполнять обязательства, и пусть одним из положительных примеров станет конец истории «вынужденного нелегала» Натальи Ким.

Корейцы в Азиатской России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X - начале XXI веков.

: особенности рассел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ого статуса (Западная Сибирь, Красноярский край)

Владимир Бойко

В.С. Бойко (Алтайск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едагогическая академия, Барнаул)

Корейцы, появившиеся в России в 1860-е гг. после подписания Пекинского договора с Цинским Китаем, в результате которого образовался небольшой участок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а также ухудшения политического 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в самой Корее вследствие ослаб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и нарастающей экспансии Японии, к началу XX в. превратились в заметную общину и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Основными

местами их проживания стали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Восточная Сибирь, тогда как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Азиатской России находилось лишь около 5 тыс. корейцев. Но ситуация стала меняться после прямой аннексии Кореи Японией в 1910 г. и перв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1914 - 1918 гг. Начиная с этого периода, миграции, носящие в основном вынужденный политический и эконом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становятся глобальным явлением, оказывающим влияние на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ую обстановку, демографическую структуру и культурный облик отдельных государств и целых регионов. Волны внешних миграций охватили и Россию, и корейская была одной из самых заметных, поскольку корейцы-выходцы из дальней Азии отличались от принимающего общества по целому ряду антропологических, культурно-языковых и других характеристик.

Миграция корейцев в Европейскую часть России была связана с событиями перв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 носила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военно-эконом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тогда как в Зауралье и особенно на западе Сибири постепенно сформировались устойчивые социальные группы и даже компактные этнические поселения или анклавов. Поскольку их начальная история в раннесоветский период уже неоднократно становилась предметом исследований автора, а отдельные выводы опубликованы в тезисах докладов и статьях,¹⁾ предлагаемый материал хронологически ограничен

¹⁾ Бойко В.С. История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Западной Сибири. - Этнодемограф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в Казахстане и сопредель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Материалы V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г. Усть-Каменогорск, 20 - 21 октября 2003 г.). Усть-Каменогор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Медиа-Альянс», 2004, с. 56 - 59 и др.

второй половиной XX - началом XXI вв., а территориально - Азиатской Россией, с фокусом на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их общин Западной Сибири, на фоне аналогичных этносоциальных групп Зауралья и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Хотя на протяжении нескольких последних десятилетий,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уже в 2000-е гг., историография корейской иммиграции пополнилась рядом фундаментальных работ и документальных коллекций,²⁾ география рас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и особенности их миграционной мобильности, а также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ого статуса и образа жизни в условиях позднеимперской, раннесоветской, собственно советской и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 весь этот комплекс проблем нуждается в дальнейшем исследовании. Именно эти вопросы и составляют цель данной статьи, подготовленной на основе анализа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ографии и источников -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материалов сибирских архивов, других документальных и полевых материалов.

Наибольшее внимани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уделяют корейским община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³⁾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⁴⁾ хотя в связи с

²⁾ Энциклопедия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 140 лет в России / Ли Г.Н., Цой А.Д., Цой Б. [и др.] ; под ред. Цой Брони ; Рос. акад. естеств. наук. М. : РАН, 2003; 140 лет в России : очерк истории рос. корейцев / Б. Д. Пак, Н. Ф. Бугай ; Рос. акад. наук, Ин-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Общерос. об-ние корейцев М. : ИВ РАН, 2004; Корейцы в СССР : материалы сов. печати, 1918-1937 гг. / Рос. акад. наук, Ин-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Гос. ин-т истории Кореи (Кукса Пхёнчхан Вивонхве) Респ. Корея; [сост. : Ю. В. Ванин и др. ; отв. ред. Ю. В. Ванин] М. : ИВ, 2004; Корейцы в Союзе ССР - России : XX-й век : история в док. / [Н. Ф. Бугай] М. : ИНСАН, 2004

³⁾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 1880-2005) /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отд-ние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 наук, Ин-т истории,

140-летием начала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появился ряд работ, в которых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и особ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миграции в Центральную и Южную Россию,⁵⁾ Пермский край,⁶⁾ Сибирь⁷⁾ и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В новейших научно-квалификационны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освещены проблемы труда 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в позднеимперской России, корейцев в межэтн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Упр. по делам ар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 Гос. ар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 [авт.-сост. А. Т. Кузин]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Сахалинское обл. кн. изд-во, 2006

- 4) Хан В.С. Коре сарам : кто мы?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Изд. 3-е, перераб. Бишкек, 2009 и др.
- 5) Роль и место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Ростовской области в диалоге народов и культур : материалы науч.-практ. конф. 21 августа 2004 г. г. Ростов-на-Дону / Сост. Мун М. Е. Ростов н / Дг, 2004, 80 с.; Корейцы Дона прошлое и настоящее (К 15-летию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Ростовской области) : Материалы научно - 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 Ростов, -на - Дону, 28 октября 2006 г. / Сост. Мун М. Е. - Ростов - н / Д., 2007. 78 с.; Проблемы этн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 материалы област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вященной 140-летию со дня доброволь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 [под общ. ред. Амелина В. В.] Оренбург : ОГАУ, 2005; Попова Ю.Н.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е аспекты : XX в.-начало XXI в. : автореферат дис.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 Краснодар, 2004
- 6) Бушмаков А.В. Китайские и корейские рабочие в Пермской губернии в годы Перв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 Федеральная миграционная служба и миграционные процессы в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Материалы интернет-конференции. Пермь, 2008. С. 75-81
- 7) Черноводский А.Л. Этапы формировани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 Юге Сибири (на примере диаспор Красноярского края и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Проблемы межэтн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народов Сибири. Новосибирск, 2002. С. 114 - 119; Сибирь и Корея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 Сб. науч. ст. / Иркут. гос. ун-т, ун-т Пэ Джэ, Межрегион. ин-т обществ. наук (МИОН) ; [Отв. ред. : С.И. Кузнецов, Ли Гил Лжу] Иркутск : 2004; Россия - Корея : диалог культур / Е. Б. Цой, А. М. Гущина, А. Н. Хван ; Регион. нац.-культур. автономия корейцев Новосиб. обл. Новосибирск : НГТУ, 2005

советского времени, социокультурных процессов в корейской среде⁸⁾. Однако самая обстоятельная работа по региональным корейским общинам России посвящена корейцам Сахалина⁹⁾.

К вопросам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Китая и Японии (а в этих рамках и Кореи, жители которой с 1910 г. считались подданными Японии), в особенности миграции из этих стран, руководящие органы СССР подходили дифференцированно. Так, японская колонизация допускалась тольк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дальше к югу, «но не в глубине Сибири». Вопрос о корейцах рассматривался отдельно -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весну 1926 г. им могли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районы значительно дальше в глубине Сибири».¹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рейских общин в Азиатской России, но за пределам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даже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 результат вторичной миграции,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п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м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 После сложных перемещений в пределах территории СССР и небезуспешных

⁸⁾ Ланцова, Ю. Н. Китайские и корейские рабочие в Забайкальской области : 1860-1917 гг. : автореферат дис. ...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 Ин-т монголоведения, буддологии и тибетологии СО РАН Улан-Удэ, 2009; Сон, Ж. Г. Корейц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системе межэтн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оюза ССР. 1920-1930-е годы : автореферат дис.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 Ин-т рос. истории РАН Москва, 2009; Сим, Л. М. Корейцы Союза ССР, России и Казахстана : социокультурные процессы : 20-е годы XX в. - начало XXI в. : автореферат дис.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 Краснодар, 2006;

⁹⁾ Кузин, А. Т. Истор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го Сахалина : конец XIX - начало XXI вв. : автореферат дис. доктор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 Владивосток, 2011.

¹⁰⁾ 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хранения и изучения документов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РЦХИДНИ), ф. 514, оп. 1, д. 181. Л. 59

попыток адаптации к российско-советским реалиям 1920-х - первой половины 1930-х гг. многие корейцы подверглись насильственному переселению в Среднюю Азию либо репрессиям на местах их проживания. Это привело к многочисленным жертвам и безвозвратным потерям этой этнической группы, достигавшей в отдельные периоды 100 тыс. и более человек. Ситуация начала изменяться лишь в 1950-е - 1970-е гг., когда постепенно либерализовались правила перемещения корейцев, как спецпоселенцев предвоенного и военного времени, начали обретать совет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наиболее бесправны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Миграционн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и иные маршруты корейцев в позднесоветское и постсоветское время - отдельное явление, изучение которого призвано понять их экономическую,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ую природу, роль и влияние внешних факторов, а также персональ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и, в конечном счете, определить основ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ее региональном контексте.

1. Корейцы на Алтае

Алтай, или более широкий регион Зауралья и Алтая, считается исторической прародиной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предки которого в течение столетий продвигались на Восток, пока не остановились на полуострове, позднее принявшем и его имя. Современная

корейская община на Алтае сформировалась в основном в 1920-е - 1930-е гг. в результате вторичной миграции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амой Кореи, причем ее высокая адаптивность проявилась в образовании поселений этн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типа («Новая Корея» в Рубцовской степи на границе с Казахстаном, колхоз имени Томми в Горном Алтае). Но корейским первопоселенцам не удалось пережить сталинские репрессии и этнические чистки - уцелели лишь единицы, а их осиротевшие семьи пытались спастись в местах массового, и тоже насильствен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в Средней Азии. Но в 1950-е гг. и последующий период на Алтай стали прибывать корейцы нового социально-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профиля, и лишь единицы возвратились из трудовых лагерей и фронто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братья Владимир и Иван Пак, Ли Чан Себ и др.).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переписи 2002 г., в Алтайском крае проживает более 1300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хотя их фактическая численность превышает 2 тыс. чел. даже без учета временных мигрантов (сезонных рабочих и др.). Но корейская община Алтая, несмотря на относительную малочисленность и «нечеткость»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профиля, заметна на общем социальном фоне - е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есть во всех сферах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края. Так, Алтайскую академию экономики и права - один из самых авторитетных в регионе н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вузов - многие годы возглавляет ее создатель профессор Л.В.Тен. Семья Леонида Васильевича, как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корейские семьи, была насильственно переселена в конце 1930-х гг.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Казахстан, в район Кызыл-Орды, но

после войны его отца, бывшего комсомольского работника, командировали на Сахалин, освобожденный от японцев. В 1957 г. Леонид Тен поступил на юридический факультет Том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учебы работал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в Красноярске, но на постоянное жительство выбрал Барнаул. Здесь он состоялся как юрист, преподаватель и ученый, а в 1990-е гг. возглавил и первый на Алтае н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вуз - Алтайскую академию экономики и права. Его сын, доцент А.Л.Тен трудится здесь же, возглавляет кафедру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права. В сфере юриспруденции работают также сестра и дочь Л.В. Тена, его брат Юрий Васильевич - доктор медицинских наук, заведующий отделением краевой детской больницы. Он - главный детский хирург Сибирск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Интереснейшей личностью был доцент Барнауль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Г.А.Пак. Он родился 5 мая 1930 г. в поселке Гродеково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РСФСР в многодетной семье бухгалтера. Семью Паков не миновала общая для всех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участь - ее насильственно выселили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а главу обвинили в саботаже и арестовали. Геннадий и его близкие оказались в Восточном Казахстане без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их спасла тетя и приютила у себя. Отца вскоре выпустили на свободу, но трудностей не убавилось - Геннадий Пак, еще школьник, работал на шахте, был награжден медалью «За доблестный труд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1941 - 1945 гг.». Блестяще окончив в 1948 г. среднюю школу, он

поступил на Восточный факультет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где впервые стал изучать язык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 корейский -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выдающегося филолога-востоковеда А.А. Холодовича. За отличную учебу он получал именную стипендию имени известного исследователя Н.М.Миклухо-Маклая. 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взросление было стремительным - еще будучи студентом-старшекурсником, уже он читал лекции студентам родного факультета, потом поступил в аспирантуру и защитил в 1959 г. диссертацию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Здесь же, в ЛГУ, он работал до 1965 г. в качестве научного сотрудника, осваивая новые области (математическая лингвистика и др.) в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ой лаборатории машинного перевода, группе математической лингвистики Вычисли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ЛГУ. Сферой научных интересов Г.А. Пака были проблемы семанти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целый ряд других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явлений, его работы упоминаются в ряду наиболее значимых достижений советского языкознания.¹¹⁾

В середине 1960-х гг. Г.А. Пак по семейным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 переезжает в Барнаул - здесь к тому времени обосновались его родители и старшая сестра Ася Александровна Пак с мужем Андреем Трофимовичем Цхай. Ася Александровна -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историк, многие годы она проработала в Алтайском политехническом институте (ныне - Алтай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техниче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Поступив на работу в Барнауль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¹¹⁾ Советское языкознание за 50 лет. М., 1967, с. 305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доцент Г.А.Пак почти 40 лет трудился здесь на кафедрах русского и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ов. Специалист уникального профиля со знанием рус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понского и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ов, он интересовался проблемами общего языкозн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поэтического язык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щедро делился своими научными и методическими находками с коллегами, учителями школ.

В начале 1990-х гг. Геннади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на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чалах вел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воскресной школе, занятия в которой посещали не только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но и все желающие. Тогда же он по поручению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РФ возглавил единственную в своем роде виртуальную научную лабораторию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 в столице были хорошо известны его опыты по созданию новой методики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другие филологические эксперименты.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Геннади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много работал над созданием русско-корейского словаря и учебн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Это был человек колоссальных знаний, высокой культуры, настоящий интеллигент, педагог и ученый, умеющий расположить к себе человека любого возраста и рода занятий. Геннади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готовился к новому учебному году, встрече со студентами, но в конце августа 2004 г. его не стало.

Одним из интересных начинаний корейцев в Барнауле было создание в 1991 г. воскресной школы для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именно в этой школе апробировал свои уникальные

методики Геннади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Пак. Организовала школу Светлана Петровна Цхай, много лет отдавшая подготовке творческой молодежи в Барнаульском колледже культуры.

Светлана Петровна родилась в Казахстане, потом вместе с семьей оказалась в Ташкенте, а окончив Московский институт культуры, выбрала на жительство Барнаул. Открытие воскресной школы стало для нее естественным, но уже не первым делом на ниве возро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 еще в 1990 г. она вместе с группой таких же энтузиастов создала в Барнауле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В 1991 г. Светлана Петровна в составе делегац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первые попала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и испытала настоящий культурный шок - ее поразила чистота, береж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природе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увиденное на земле предков. В первые дни сложно было понимать язык хозяев - хотя Светлана Петровна владеет разговорным корейским, он отличается от местного говора и по фонетике, и по словарному составу. Эта поездка стала возможной благодаря специ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Кореада»,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раз в два года (в нечетные годы)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приглашает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живущих за рубежом («темко») на встречу - для них устраиваются экскурсии и поездки по стране. Частичн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Кореады» берет на себя Япония - она выделяет средства прежде всего для корейцев - выходцев из Сахалина, некогда насильственно переселенных в эти места для укрепления азиатской этнической основы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Но и историческая родина в лице обоих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предпринимала определенные усилия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ветлане Петровне Цхай удалось получить для корейской воскресной школы комплекты учебников из Южной Кореи и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ие кассеты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днако школа просуществовала лишь около двух лет - немногочисленная корейская община Алтая не нашла в своих рядах подходящих спонсоров, что обусловило свертывание ее активности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1990-х гг. Долгие годы корейским национальным центром руководила Тамара Ивановна Огай. Она по происхождению - из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ладеет родным языком, причем в е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м варианте - когда-то именно из южных районов Кореи были переселены ее предки на Курилы. Ныне корейскую общину возглавляет Геннадий Михайлович Ким - он перебрался сюда из пост-советской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занимается туристическим бизнесом на Алтае.

На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 пока единственное выражение само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Алтая, но есть все основания придать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большую публичность - в ее недрах вызревают оригинальные таланты и инициативы. Например, Ирина Сорокина (Цхай), дочь Светланы Петровны Цхай, блестяще владеет словом, она уже становилась лауреатом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молодых литераторов, организованного «Радио России». Ирине больше всего удаются сказки.

Понятие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для Ирины Сорокиной (Цхай) и ее

близких - не абстракция, - ее дед, профессор-юрист из Алма-Аты Иннокентий Антонович Цхай несколько лет, с 1949 по 1951 г. находился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 секретной командировке -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Ир Сен назначил его заместителем генерального прокурора КНДР. Но он придерживался независимой позиции при вынесении судебных решений - например, выступил против репрессивных мер в отношении буддистских монахов. Вероятно, это и решило его судьбу - в 1951 г.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 юстиции Иннокентий Антонович Цхай был объявлен «врагом народа» и расстрелян, а его жене Елизавете Ивановне с тремя малолетними детьми с трудом удалось выбраться в КНР - там в Харбине временно находились семьи советских граждан, эвакуированных из КНДР в связи с началом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В конечном счете, осиротевшее семейство достигло и Москвы, но доживающий последние дни сталинский режим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к вдове и ее детям преступное пренебрежение. В 1953 г. пристанищем для Елизаветы Ивановны и ее малышкой стал Барнаул, где обосновался ее брат - отец уже упоминаемого Г.А.Пака.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в конечном счете восторжествовала, но слишком поздно - Виктор Иннокентьевич, один из сыновей Иннокентьевича Антоновича Цхая, до сих пор вспоминающий свои совместные детские игры с Юрой - Ким Чен Иром - был приглашен в КНДР в качестве почетного гостя и получил награду в память о реабилитированном отце.

В 1991 г. на Алтай переехала из Таджикистана Роза Николаевна Семькина (Хан). Родилась она в Узбекистане в многодетной семье

- у нее три брата и три сестры. Ее отец, Николай Николаевич Хан (Хан Сан Ик), математик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 один из немногих знатоков родного языка, в том числе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владел и китайским. Вплоть до своей кончины Николай Николаевич жил в Чирчике, где оставался единственным носителе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именно его звали на помощь, когда возникала печальна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оводить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в последний путь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ревним обрядом.

Роза Николаевна - филолог высокой квалификации, она окончила Ураль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там же в аспирантур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лась по творчеству Ф.Достоевского. Она нарушила неписаное правило многих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 вышла замуж за русского, Иван Григорьевич Семькин - журналист по профессии. Молодые супруги поехали по распределению в Душанбе, но после известных событий начала 1990-х гг. переехали в Барнаул. Роза Николаевна - профессор Алтайской академии экономики и права, известный исследователь творчества Ф.Достоевского.

Наличие в Барнаул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пока не стало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толчком дл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изучения Кореи - за кратковременной попыткой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воскресной школе наступила пауза, прерванная лишь в начале 2000-х гг. - в Алтай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открылись факультативные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о с отъездом преподавателя работа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не получила продолжения.

Корейская община представлена не только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 есть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и успеш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менеджеры различного профиля.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Алтайского края работал в качестве заместителя губернатора С.И.Тен (он руководил управлением экономики и инвестиций), ранее немало сделавший в сфере экономики и бизнеса на юге России, а ныне возглавляющий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ки Республики Тыва.

Многие годы полез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товарного огородничества на Алтае вносят корейские сезонные бригады из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 они смогли организовать дело в масштабах, ранее посильных только для крупных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хозяйств. В совершенстве владея технологией выращивания лука, бахчевых культур и других продуктов растениеводства, корейцы снабжают своей продукцией горожан, а отчасти и сельчан, создаю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в социально неблагополучных районах Алтайского края.

Прям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Алтая с двумя корейск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находятся пока в эмбриональном состоянии - например, в структуре внешнеторгового оборота края на начало 2000-х гг. из общей суммы в 518, 1 млн. американских долл. доля КНДР составила всего 17, 4 тыс. долл. (16, 5 тыс. - экспорт резино-каучуковых материалов и изделий; 0,9 тыс. - импорт по статье ж/д локомотивы, вагоны трамвая и подвижной состав), а дол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1268,5 тыс. долл., в том числе экспортных поставок на 1212, 0 тыс. долл. (400 тыс. - котлы,

оборудование, мех. устройства; 410,0 тыс. долл. - мебель, постельные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284,8 тыс. долл. -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ая продукция).¹²⁾

Явно недостаточно развиваются культурные и научные связи Алтай с обеими Кореями, хотя на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роисходили сдвиги - в конце ноября 2004 г. в г. Барнауле и Горном Алтае побывала делегация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етом 2013 г. Алтай посетила группа профессоров Донгукского и Хангук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ов - они вместе с лабораторией «Россия и Восток» Алтай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едагогической академии выступили со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ерес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на территорию России и формирование диаспоры: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Что касается сибиряков, и корейцев, и этнических русских, то надо признать, что они пока - редкие г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й земле. Пример из прошлого, малоудачный, но любопытный - именно житель Алтайского края капитан Н.Д.Зарубин был первым комендантом Пхеньяна в 1945 г., он встречался и даже сотрудничал с будущим руководителем КНДР Ким Ир Сенем.¹³⁾

12) Таможенная статистика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 Алтайский край в 2003 г. Бюллетень Сибир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тамож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РФ. Новосибирск, 2004. С. 4, 52, 54

13) Солгунов Т.В. Сибиряки в локальных вооруженных конфликтах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XX в. : корейская война 1950 - 1953 годов. - «... За род свой, за Отечество ...». Материалы научных конференций «Война сняла с себя латы» (4 декабря 2003 г.). «Духовно-нравственные основы воинского служения» (25 ноября 2004 г.). - Барнаул, 2004. С. 77

2. Корейцы Новосибирска

В Новосибирске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начало 2000-х гг. проживает около 1,5 тыс. корейцев, а с учетом области их численность достигает 2,5 тыс. человек. В 1998 г. здесь был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ая автономия новосибирских корейцев», возглавляемая Б.Я. Теном (Тен Пон Ен). Ныне она имеет областной статус и объединяет многие другие корейские ассоциации, центры, фонды. Президентом автономии избран В.А. Пак, он также является заместителем председател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и по Сибирскому федеральному округу.¹⁴⁾

История корейской миграции в главный город Сибири насчитывает примерно 90 лет - именно в 1920-е гг. здесь было документально зафиксировано корейское присутствие, но оно начиналось с 36 человек. Массовый приезд корейцев в Новосибирск произошел в условиях политической оттепели 1950-х гг. и был связан с желанием бывших спецпереселенцев и их семей получить качественное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а также найти работу. Но даже в условиях «развитого социализма» более позднего времени для корейцев сохранялся ряд неглас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 по месту учебы, специальности и пр. Например, в знаменитом Новосибирском электротехническом

¹⁴⁾ Этнические группы сибирского мегаполиса :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культур, особенности поликультурного 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овосибирск, 2003. С. 48

институте им было разрешено учиться только на трех факультетах.¹⁵⁾ Особенно трудно приходилось корейцам, приехавшим с Сахалина - они, как правило, были лицами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и имели ряд ограничений в правах (заред на выезд из Новосибирска и пр.). Представители этой категории могли получить совет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только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уза и обязательно отработав три года по месту распределения, и этот процесс затянулся до 1980-х гг.¹⁶⁾

Первые студенты из КНДР появились в Новосибирском электротехниче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НЭТИ)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Министерства высшего и среднего специ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ССР в 1956 году. Обучались они на электромеханическом и машиностроительном факультетах. Их было всего 5 человек, и подготовка этой группы велась в рамках обычного уч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того, что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практики они проходили как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Новосибирска, так и в КНДР. Возможно, выбор Министерства определялся тем, что НЭТИ в те годы был одним из очень немногих вузов СССР, в котором было официально разрешено обучение лиц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 корейцев-выходцев 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вгений Борисович Цой - из послевоенного поколения, он -

¹⁵⁾ Цой Е.Б., Гущина А.М., Хван А.Н. Россия-Корея : диалог культур. Новосибирск, 2005. С. 94

¹⁶⁾ Именно такая история случилась с новосибирцем, директором фирмы «СОБЭК» Бэк Тэ Гын - он, потомок семь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лучил паспорт только в 1980-м году, в 29 лет. - Цой Е.Б., Гущина А.М., Хван А.Н. Россия-Корея ... с. 112

коренной сибиряк, родился в Новокузнецке. Получил высшее инженер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ые системы управления) в Новосибирске, там же прошел все ступеньки научной карьеры. Доктор технических наук, уже более 10 лет работает проректором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связям и профессором кафедры прикладной математики и систем автома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Новосибир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техн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НГТУ). Несколько лет руководил также кафедрой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факультета гуманитар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ГТУ. В 1994 - 1996 гг. -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совместного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Хантен". Почетный иностранный член национальной академии технических наук Монголии, член Нью-Йорк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член-корреспондент Сибир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академии наук высшей школ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одимые Е.Б. Цоем, получали поддержку Немецкой службы академических обменов (DAAD), Российского фонда фундаменталь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Ф (1995, 1997, 1998, 2002, 2003, 2004 гг.). В 1981-1982 гг. он работал на кафедре математики Техн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Хемнице (Германия), результатом этой работы стала опубликованная в 1989 совместная монография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Жена Е.Б. Цоя, О.В.Проскурина, - преподаватель Новосибир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академии экономики и управления, дочь М.Е. Цой - доцент кафедры теории рынка факультета бизнеса НГТУ. В 1992 г. Е.Б. Цой выступил одним из организаторов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г. Новосибирске, он - член президиума ассоциации. В 1998 г.

ассоциация получила статус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и. Профессор Цой считает, что развит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ореи и сибирских регионов (прежде всего Новосибирской области и ее промышленно-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и научного центра) объективно предопределяется выгодным географическим положением Новосибирска, общемировыми процессам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научной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высоким потенциалом сибирской науки 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ю обеих сторон в трансфере наукоемких технологий и внедрении их результатов в различные отрасли национальных экономик.

В июле 1995 года был подписан Договор о содружестве между НГТУ и университетом Ульсана,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развитие научного,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и студенческого обменов. Только за 1995-97 гг. более 60 профессоров обои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обменялись научными визитами, начали проводиться совмест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области электроники, самолетостроения и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Такая интенсивность научных обменов привела к тому, что летом 1996 года ректором НГТУ было выдвинуто предлож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трехсторонне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научного симпозиума при участии вузов и академических институтов Новосибирска и Томска. Эта идея получила поддержку в широких научных и деловых кругах Южной Кореи и даже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декабре 1996 года был сформирован международный Оргкомитет будущего симпозиума КОРУС, который стал первым в истории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научн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подобного типа.

Развивается и ежегодная обменная летняя молодежная программа новосибирских вузов и университета Ульсан, в которой, начиная с 1996 г.,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студенты и аспиранты указанны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до 20 человек с российской и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Ее основная цель - знакомство с университетом-партнером, изучение основ истории, экономики, культуры, языка России и Кореи.

Развитие активного делового и науч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ибирск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с Кореей требует специалистов, хорошо знакомых с языком, историей, культурой и даже бытом корейцев. В ответ на потребности рынка, НГТУ с 2001 г. начал подготовку студентов - регионоведов (специализация - Корея). Начиная с этого учебного года, благодаря расширяющимся партнерским связям НГТУ с университетами Южной Кореи, они получают возможности краткосрочного (от месяца до учебного года) обучения языку в Центрах языковой подготовки университетов-партнеров НГТУ Кукмин и Суwon.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ой являются научная кооперация вузов Сибирск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особенно в области коммерциализации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работ; краткосрочное обучение и стажировки магистров и аспирантов сибирски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в Корее, а также различные виды студенческих обменов (страноведческие практики, волонтерские программы, языковые курсы). Летом 2004 г. в Новосибирске был открыт Центр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ореей, еще раньше - совместная научная лаборатория Сибир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и фирмы «Самсунг».¹⁷⁾ Центр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открылся и в Новосибир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 в этом вузе, а также в НГТУ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одготовка гуманитариев со специализацией по Корее (востоковедов, регионоведов-международников). В НГУ специализация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на кафедре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началась с 1998 г., в 2003 г. состоялся первый выпуск корееведов (6 - 7 человек). Приведенные данные демонстрируют лидирующую роль Новосибирска, а в вузовской среде - НГТУ и НГУ - в развити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пределах Западной Сибири.

3. Корейцы Томска

Одной из самых активных даже в российском масштабе является сегодня корейская община Томска - старинного города, отметившего недавно 400-летие. Томск уступает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другим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культурным и промышленным центрам Сибири, но его по праву можно считать студенческой столицей Сибирского края и уникальным наукоградом. Исторические документы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что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ли в Томске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со времен перв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а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например, Василий Глебович Ким) даже учились в тот период в Том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¹⁷⁾ Наука в Сибири, № 41 (октябрь 2004 г.)

В 1950-е гг. в Томской области появились новые корейские поселенцы - подростки дети корейцев-жителе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сильственно депортированных в Среднюю Азию в 1937 г. Стремясь получить образование, они тянулись в Томск, уже тогда известный своими вузами и научными школами. Особ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пользовался Томский инженеро-строительный институт - один из студентов того призыва, Владимир Даюнович Ли, до сих пор трудится в своей альма-матер. Сюда же в 1950-е гг. впервые была направлена для получения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группа студентов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начало 2000-х гг. в Томске официально проживало 1149 корейцев, в 2002 г. их признали коренным населением. Еще в 1989 г. корейские активисты Томска создали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ую автономию - одну из первых в СССР. Ее возглавил тогда Оояма Ен-Бок, ныне президентом является Олег Петрович Ким.¹⁸⁾

Есть в Томске и инновационные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корееведов - Том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отдел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Том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олитехн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где в рамках специальности «регионоведение» готовят экспертов широкого профиля - знатоко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в том числе и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Корее. Занятия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ведут его носителя, есть и первые результаты: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доцента

¹⁸⁾ Томские новости, № 39, 23 сентября 2004 г. С. 8

Ю Кон-Сю, студенты ТПУ овладевают основам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4. Корейцы Красноярска

Процесс формировани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 территории Красноярского края начинается в 1907 г., и он связан со строительством угольной шахты на средств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ницы В.А. Баландиной. Среди первых наемных рабочих оказались и корейцы из Приамурья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¹⁹⁾

Агрессия Японии против Китая в начале 1930-х гг. спровоцировала новую, сравнительно небольшую, волну корейских мигрантов в край в количестве 340 человек - на этот раз с территории Северной Маньчжурии в районе реки Сунгари. Корейских беженцев сначала поселили в Посьетском районе, в деревне Синий Утес, а зимой 1933 г. переместили на юг Сибири, в шахтерский поселок Черногорские копи. В 1936 г. в Красноярский край прибыла еще одна группа корейских беженцев - граждан Маньчжоу-го. Фактически все они дезертировали из армии, управляемой японскими офицерами. Характерно, что в ходе репрессий 1936 г. и более позднего периода такие перебежчики получали сравнительно небольшие сроки тюрем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

¹⁹⁾ Черноводский А.Л. Этапы формировани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 Юге России (на примере диаспор Красноярского края и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Проблемы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народов Сибири. Новосибирск, 2002. С. 114 - 115

от 2 до 5 лет. Но в 1938 г. новая серия репрессий фактически привела к этнической чистке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к расстрелу 120 человек.

Следующий эпизод с появлением в Красноярском крае корейцев наступил после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 в конце 1940-х гг. здесь появились депортированные ранее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Казахстан, их определили на поселение на юге Сибири, в основном в Хакасии. К сожалению, проблематика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Красноярска и Енисейского края пока не отражена в исследованиях, но само положение этого региона позволяет предположить его присутствие на карте исторических и нынешних мамршрутов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са.

5. Заключение

Корейцы Азиатской России на рубежах их новейшей и текущей истории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XX - начала XXI веков - одна из малочисленных этнических (инонациональных) групп, проживающих в Зауралье, Сибири и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м приграничье России, - даже в крупных городах и краях (областях) их численность колеблется между 1 - 2 тыс. человек. Все они - бывшие граждане СССР (а ныне России) и их потомки, за редкими исключениям и проживающие как дисперсная этническая группа, сумевшая сохранить на протяжении 1940-х - начала 2000-х гг. лишь отдельные, хотя и важные, черты своей идентичности. Не имея

устойчивых связей с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ой, до сих пор разделенной на два государства, и не имея жесткой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й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ой) структуры в пределах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корейцы остаются на грани утраты своего цивилизационного «я». Но будучи одним из древнейших народов Азии, даже в условиях диаспоры они имеют определенные шансы приумножить и укрепить демографическую основу и культурный профил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приоритеты и др. Все это позволит им сосуществовать в принимающем обществе (где они давно обрели статус коренного этноса) и развивать связи с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ой. Но для этого им нужен особый «запас прочности», который позволил бы гармонизировать действие внутренних и внешних факторов, найти особое место в глобализирующемся мире XXI века.

Корейцы в новом формате России : политика, идеология, практика

Николай Бугай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миры» считают, что человечество стоит на пороге серьезных изменений. Предлагаются возможные варианты его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Одновременно эксперты подчеркивают, что не стремятся «предсказывать будущее». Они видят свою главную задачу в том, чтобы «стимулировать дискуссии» на тему глобальных тенденций ми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вплоть до 2030 года. Этой же линии придерживается и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В декабре 2012 г. был принят нов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документ «*Стратег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В нем раскрывается система современных приоритетов, целей, принципов,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задачи и механизмы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в сфере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ероятно, что настоящая очередная встреча ученых также не случайная. Нам не безразлично, в каком состоянии будут наши государства, включая Россию и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и в целом государства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едь уже за плечами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пы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вух десятилетий. И в этом немалая заслуга и Сеула, и Инчхона, и друг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России. Важно знать и предвидеть каким образом будут развиваться отношения в дальнейшем.

Однозначно, нам не безразлично, каким образом в условиях современности, и в будущем будут формироваться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в частности между корейцами государств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народами Росси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русским народом.

Кажд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присуща своя «Национальн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идея» -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ое понятие, позволяющее уяснить, каким образом государство - главный политический инструмент власти, отражает в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требности и чаяния обществ, над которыми имеет власть.

В этом случае целесообразно обратиться к точке зрения российских ученых философов, которые имеют в этом плане четк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По их мнению, *начиная с XVI века, не национальный общественный идеал русского народа («Святая Русь»), а именно европейские социальные идеалы (абсолютистский, а затем -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американский»), носителями которых являлась российск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и культурная элита, становились основой радикальных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в стране. Корейцы на всех этапах российской истории были явными приверженцами русской идеи, которая претерпевала трансформации по вектору: «Святая Русь» - «монастыри, дворец, община» - «общество благодать» - идеал свободы и частной жизни - общественный идеал как нравственное начало.

На мой взгляд, заметную составляющую в этой связи играют этнические общности, проживаемы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которые прежде всего выполняют важные социальные функции, выступая и как связующая нить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и как сторонники мира и гражданского согласия и в обществе, и в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Одна из глобальных проблем человечества - наличие двух объективных, зависящих друг от друга тенденций: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тяготение народов к интеграции, и с другой, проявление обособленности. В связи со второй закономерностью, сознавая возможность тяжелейших последствий, обусловленных и национализмом, и сепаратизмом, несущих в себе элементы терроризма и экстремизма, государства стремятся к укреплению мирных контактов. Но в этом проявляется и особенность каждой этнической общности - защитить себя.

Россия остается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страной, в которой числится более 190 этнических общностей. В связи с трансформациями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 1990-е годы и в последующее десятилетие, появился комплекс проблем, которые ранее не вызывали споров, и казались как само собой разумеющимся явление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дух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его идеологии. Однако

в новых условиях России приходится разбираться и ставшей сложной проблемой.

В условиях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в качестве приоритетной проблемы выступает национально-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обустройство народов ее населяющих, которое, несомненно, содействует миру. В связи с этим необходимо изучение вопросов формир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каждой из этнических общностей,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по этой проблеме обобщающе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применительно ко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и внести определенные коррективы, которые вызываются самой жизнью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В докладе, построенном основанном на анализе имеющихся фактических данных, обратимся к одной из сложных и противоречивых, дискуссионных проблем - созда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рей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и ее эволюц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ССР - России, включая и ее новый формат. Это и составная часть анализа более выгодной для России «модели» внутреннего обустройства в это непростое время, вектора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государства, «модели» «единства мира в его многообразии».¹⁾

На первый взгляд, кажется, что это один из ключевых вопросов. Он определяет во многом место той или иной общности в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м государстве, уровень защиты прав и свобод,

¹⁾ Данная «модель»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учет интересов, достижение стабильности, сплоченность во имя будущих целей,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для удоб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положение семьи, гражданина. Однако обстоятельный анализ проблемы с учетом складывающихся реалий в российском обществе, подводит к несколько иным выводам.

Конечно, изучение самого процесса выдвигает задачу не только анализа в вербальном плане, но и показа практической стороны в реализации потребностей жизн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расширения рамок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государств, и самих этнических общностей. Это получило демонстрацию и в ходе инаугу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оспожи Пак Кын Хе.

Именно в этом плане изменения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дцать лет в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колоссальные. Примечательной стороной двух десятилетий в этих отношениях стало расширение горизонта связей, контактов во всех сферах жизни, включая и науку. В этом большая заслуга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их контакты на личном и уровне род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политических деятелей,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истеблишмент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что является значим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этих отношений.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нельзя не отметить то положение, что энергия этнических общностей, включая и корейцев, и русских, другие этнические общности России, исходит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из прошлого. Ею нельзя владеть просто так, это обусловлено прошлой историей, сакральным состоянием общества, верой народа, истоками культуры, языка и т.д.

Для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характерным остается то, что 98 % общности владеют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обогащают родной и язык

межэтнического общения, на котором в государстве говорят около 120 млн. русских и рускоговорящих людей. Это также одно из ярких свидетельств возвышенной роли языка в жизни народов, в их общении, отражает единство интересов. Не случаен тот факт, что в России за два последних десятилетия были созданы целая сеть курсов, открыты отде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выс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Эти акции направлены на консолидацию отношений народов, усиление связей, решение многих дел,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то, чтобы гражданам и России, и государств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жилось комфортно.

В отношениях России и Кореи эпизодические связи до 1864 г. были закончены, и они принимали последовательный и непрерывный характер, наполняясь год от года, новым содержанием. Добровольное переселение в Россию корейцев создало прочную основу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связей и контактов. Это нашло отражение и в документах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и.

Анализ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роцесса, самой эволюции корейце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в начале XX в. показывает, каким образом, под влиянием происходивших процессов в России корейцы по-своему реагировали на эти события, когда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всевозможные союзы искали пути обустройства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России. Пограничный комиссар в Южно-Уссурийском крае Кузьмин доносил в 1914 г. губернатору, что у корейцев сложилось мнение, якобы они живут не в России или Рус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 а в «Русской Корее». Они «вынашивают мысль о какой-то автономии среди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читая, что «весь Посыетский район - это их будущая автономия - Корея».²⁾ Кстати, эта идея политического характера поддерживалась и японцами, видевшими в этом далеко идущие цели.

Несомненно, докладчик далек от мысли представлять все в розовом цвете. Обращаясь кратко к этапам истории отношений народов, необходимо отметить, что не было все так гладко. Определенный разлад в отношениях в начале XX в. внесла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1904-1905 годов. Тогда, впервы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корейцы были подвергнуты частичному переселению на территории империи.

Правда, они оставались в России, однако были переселены с терри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предгорья Урала, в частности в гор. Пермь. К сожалению, вопрос до сих пор в истор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разработан слабо. На эту сторону проблемы обратили впервые внимание из российских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И.М. Афонсенко, а в последующем М.С. Каменских (Институт истории и археологии УрОРАН). Затем, после выявления мною блока документов в Кавказском наместничестве (центр Тифлис - Тбилиси), в том числе в Краснодаре (Екатеринодар), о пребывании корейцев, японцев и китайцев в этот период в городах России было обращено внимание теме и автором доклада. Эта акция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в 45 наместничествах России. Проблема более обстоятельно излагалась мною в докладах, прозвучавших на

²⁾ Пак Б.Д., Н.Ф. Бугай. 140 лет в России. Очерк истор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М. : ИВ РАН, 2004. С. 91-92.

международных научных конференциях в Волгограде и Самаре в 2011 году.³⁾

Как отмечает подполковник Заустинский, «с 1895 г. по 1905 г. в Маньчжурии и Сибири перебывало до 25 тыс. японцев-мужчин, которые основательно были осведомлены о дислокации войск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⁴⁾ По данным М.С. Каменских, первая партия китайцев, корейцев и японцев, прибывавшая в 1904 г. в Пермскую губернию, составляла в целом 308 человек, из них мужчин - 38, женщин - 150, детей - 20. В этой же группе пребывали 13 китайцев и 15 корейцев.⁵⁾

«Водворенные» были расселены в Перми (китайцы, японцы, корейцы), Кунгуре и Осе (японцы), Екатеринбурге (китайцы), Камышловe (корейцы), Оханске (корейцы, китайцы), Соликамске (китайцы), Нытве (корейцы). К началу сентября 1904 г., по сведениям С.М. Каменских, в Пермской губернии уже находилось 700 японцев и до 150 китайцев и корейцев.⁶⁾ В сентябре 1904 г. японцы, по данным М.С. Каменских, - 708 человек были отправлены (надо читать депортированы) из Перми. На территории

³⁾ Бугай Н.Ф. Кавказ в судьбах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 контакты, трансформации, перспектива // Корейцы Юга России и Нижнего Поволжья :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Волгоград, 1-2 ноября 2011. С. 6-23.

⁴⁾ Заустинский. Когда и как закончится наша война с Японией. Изд. 2-е. Спб., 1905. С. 23.

⁵⁾ Каменских М.С. Китайцы, японцы и корейцы, выдворенные в Пермскую губернию в годы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Уральский истор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Институт истории и археологии УроРАН. Екатеринбург, 2009. С. 50.

⁶⁾ Там же.

губернии оставались 131 человек - китайцы и корейцы.

Обширными были планы по обустройству своей жизни в Пермской губернии и у корейцев, но особенно они не стремились занимать рабочие места. Закончилось тем, что для корейцев была определена их сфера занятости при помощи губернатора (Александр Наумов). Они были устроены на погрузочные работы в порт. Пресса того периода высоко отозвалась о работе корейцев. «Сверх ожидания, - отмечалось в одной из публикаций, - корейцы, оказывается, могут удачно конкурировать и с русскими, и с татарами в этой тяжелой работе».⁷⁾

После августа 1905 г., когда было подписано мирное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Японией и Россией, ситуация претерпела заметные изменения.

Противоречиво складывалась судьба корейского меньшинств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1920-1930-е годы.⁸⁾ Она не была ровной, и в политическом плане сопровождалась, то спадами, то подъемом.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такому состоянию партийные и советск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ринимали решения по управлению национальными процессами в регионе. Пример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к вопросу о формировании своей автоном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служивает внимания. Это и составная

⁷⁾ Там же. С. 52.

⁸⁾ О выселениях корейцев в предшествующий период см. : Бугай Н.Ф. Социальная натурализация и этническая мобилизация (опыт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М., 1998 и др.

часть анализа более выгодной для России «модели» внутреннего обустройства в это непростое время, вектора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государства, «модели» «единства мира в его многообразии».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1920-х годов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когда на остальной территории Союза ССР набирали темпы национально-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обустройства, народы создавали свою форм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на принципах автономизации. Эта тема была постоянно на слуху. Естественно, и корейцы не могли оставаться вне этих процессов. И не случайно, что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корейцы ставили перед Приморским губкомом РКП(б) и корейской секцией при Губисполкоме (Ли Ен Шен) вопрос о ко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ии.

Сначала был поставлен вопрос о Трудовой корейской коммуне. Конечно, важную роль в этом игр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мминтерна Ха Менъ Ше. Выступая с объемным докладом «О полож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в Приморской губернии, он изложил тезисы и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считая, что самым радикальным его разрешением было бы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корейцам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областной автономии. В связи с этим были названы тр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района (Посъетский, Сучанский и Суйфунский), как компактно заселенные корейцами. Но Хан Менъ Ше как политик исходил и из политических соображений, полагая, что будут усилены «революционный энтузиазм в Корее и пролетарская солидарность с Японией». Правда, Хан Менъ Ше требовал

одновременно детального изучения этого вопроса. Правда, с учетом существовавшей сталинской градации населения, при которой возможно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енного вопроса, это вряд ли можно было провести в жизнь.

И. Сталин полагал, что об автономии можно было говорить при наличии не менее 500 тыс. населения (корейцы составляли более 100 тыс. человек). Тем не менее вопрос снова поднимался на 2-м съезде «Союза корейцев» и звучал как создание «Советской Кореи». Одним словом, вопрос этот был пока далек от его решения.

Против этой идеи выступал и Приморский обком РКП(б). «Немедленное создание автономной области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несвоевременно, но возможна и необходима серьёзная и упорная подготовка к ее созданию».⁹⁾ Таков был окончательный вердикт, вынесенный в 1924 г. по поручению о создании ко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роблема оставалась длительное время в числе приоритетных. И она всегда вызывала споры, дискуссию в российском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обществе. Одним словом, в начале 1920-х год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опрос о создании автоном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как отмечалось, не получили логического завершен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мысль об автономии корейцев оставалась и в последующее годы. Несомненно, в условиях 1930-х - 1940-х годов этот вопрос, естественно, не возникал. Для этого просто необходимо

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АРФ). Ф. 1235, оп. 1, д. 141, л. 140-142

обратиться к обстановке, в которой развивались этн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В условиях жесткой тоталитарной системы управления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вряд ли это было возможным. Только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1930-х годов с 1 октября 1936 г. по 1 июня 1938 г. было расстреляно 5116 (0,3 %)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 разным надуманным причинам), а заодно с ним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8538 китайцев (0,7 %).

Более того, не оставались без внимания и низшие этажи федеративной постройки в Союзе ССР. В структуре значились еще и национальные районы: в 1933 г. - 250, в 1934 г. - 240, в 1937 г. - 100; национальные советы - 5300, в 1937 г. - 11 000. Кстати, в Конституции СССР и союзных республик эти госструктуры не обозначены.

17 декабря 1937 г. ЦК ВКП(б) принял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ликвидации национальных районов и сельсоветов». Весьма сомнительной была оценка эти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якобы и немецкие, и финские, и болгарские, и корейские районы «были созданы врагами народа во вредительских целях». Многие советы были расформированы к началу 1940-х годов. Профессор А.И. Вдовин в связи с этим полагает, что с этого времени дробление по национальному принципу было «заморожено».¹⁰⁾ Иным становился процесс националь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ак известн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оюза ССР, проявляя беспокойство за пограничные районы страны, и особенно «наиболее угрожаемые

¹⁰⁾ Вдовин А.И. Русские в XX веке. Трагедия и триумфы русского народа. М. : «Вече», 2013.

в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отношении пункты Приморья», официально признавало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ь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т.е. была возрождена идея «о неблагонадежных народах». В 1937-1938 гг. в течение непродолжительного времени были выселены с терри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принуди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более 172 тыс. корейцев.

Несмотря на всевозможные трудности экстремальных условий интеграции в советский социум, а точнее узбекский, казахский и др., корейцы добровольно выступили на защиту советской страны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Кстати, по имеющимся последним данным, выявлено около 400 корейцев-участников сражений на фронтах войны.¹¹⁾

В 1940-1970-е годы проблема возникает чисто спорадически, но к какому-либо итогу не продвигалась.

30 октября 1958 г. появилось коллективное письмо с изложенной корейцами, платформой «двадцати девяти», проживавших в Ташкенте, в ЦК КПСС на имя Н.С. Хрущева. Об этом мало что известно, в том числе и в советской и росси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В документе излагается просьба «о переселен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им национальной автономии».¹²⁾

¹¹⁾ Пак Б.Д., Шин Д., Цой В.В.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Серия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М., ИВ РАН, 2011.

¹²⁾ Текст письма дается в переводе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Подлинник оригинала хранится в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РГАН И). Ф. 5, оп. 31, д. 117, л. 5-7.

Авторы письма писали: «···Еще раз, глубоко обдумав благодеяния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и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мы обращаемся со следующей просьбой. Тов. Хрущев! Дайте советским корейцам такую же национальную автономию, какую имеют другие малые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Мы обращаемся к Вам только с одним этим большим для нас вопросом. Мы уверены, что, получив национальную автономию, такую, какую имеют ингуши, чеченцы, калмыки, финны, карелы, буряты, якуты,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смогут быстро продвигаться вперед в развит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политики и идеологии. Сейчас корейские трудящиеся, находящиеся в Узбекистане и Казахстане, живут равноправной жизнью. Однако мы остро ощущаем отсутств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автономии. Тов. Хрущев! Мы бы очень хотели, чтобы наша просьба была правильно истолкована, и были бы дан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указания. Мы убеждены в том, что если бы нам предоставили национальный район в Приморье - нашей родине, расположенной по соседству с КНДР и национальной автономией корейцев в Китае, это бы дало огромные силы нашим сыновьям и дочерям, нашей молодежи в развит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политика и экономики.

Тов. Хрущев! Мы ждем от Вас правильных указаний».¹³⁾

И какими же были итоги послания «двадцати девяти

¹³⁾ РГАНИ, Ф. 5, оп. 31, д. 117, л. 2-4. Подлинник. Резолюции : «Тов. Щерблякину М.Ф. Прошу доложить этот документ секретарям ЦК КПСС (товарищ Н.С. Хрущев сейчас занятся им не может. 26.12.58 г. В. Лебедев»); «Тов. Андропову Ю.В. 27.12.58 г. В. Лебедев». (См. : РГАНИ, Ф. 5, оп. 31, д. 117, л. 2-4. Подлинник).

корейцев»? 27 февраля 1959 г. инструктор Отдела партийных органов ЦК КПСС по союзным республикам Н. Гаджиев в Справке отдела партийных органов ЦК КПСС по союзным республикам о результатах рассмотрения коллективного письма 29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Ташкентской области, констатировал: «Мнение ЦК КПСС о не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и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с предоставлением им национальной автономии, как сообщал ЦК КП Узбекистана, разъяснено авторам заявления, проживающим в поселке Урта-Сараиского района Ташкентской области. В ходе беседы заявители выразили удовлетворение ответом». ¹⁴⁾

Корейцы оставались активными участниками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на последующих этапах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и культуры народов, населяющих государство - Союз ССР, в Казахстане, Узбекистане, России. 209 из них были удостоены высокого звания Родины - Героев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В условиях современности многие из корейцев идентифицируют себя с Россией, являются ее органичной частью. Не случайно, благодаря восприятию в обществе, в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овиях корейцы удостоены таких понятий, вызванных самой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ю, как «самарские корейцы», «донские корейцы», «кубанские корейцы» и др.

Это также одна из характеристик идентификации этнической общности в российском социуме, признания ее окружающим миром,

¹⁴⁾ РГАНИ. Ф. 5, оп. 31, д. 117, л. 9. Подлинник.

ее восприятие. «Мы русские, - замечал лидер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Александр Хён Нок¹⁵⁾ Кан (Самара) - и культура, и литература, но все же мы стараемся сохранить нашу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¹⁶⁾ По нашему мнению, в этом залог и повседнев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бытия, его устойчивости, и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будущего развития корейской общност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Культура и жизнь большинства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не отличается от остального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 пишут журналисты В.С. Чен и А.Л. Цой, - Их повседневность точно такая же, как и у всех этнических общностей России: политика, работа, зарплата, учеба, друзья, отпуск, программы телевидения». ¹⁷⁾

Вероятно, и в этом залог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для основы тес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этнических общностей,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расширения возможностей познания друг другом, обогащения культур народов, воспитания культуры межэтнического общения, стремления делать мир богаче, а жизненные условия более удобными.

Было бы логичным в связи с этим задаться целью, а именно выяснить, что же, все-таки, находится в основе столь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й, и в целом спокойной и мирной по своей сути, адаптации корейцев, прибывших в 1990-е годы из стран СНГ

¹⁵⁾ Отец Александра - Кан Хён Нок в 1956 г. прибыл в Самарскую область с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а, где он работал в разных отраслях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В его семье в 1957 г. родился сын Александр, возглавивший в 1990-е годы Ассоциацию корейцев Самарской области.

¹⁶⁾ 140 лет в Россию добровольно переселились корейцы // <http://news.samaratoday.ru/showNews.php?id=34744>

¹⁷⁾ Чен В.С., Цой А.Л. Журналистика в полиэтничном обществе. М., 2007.

(Узбекистан, Казахстан) на территорию России. За короткое время они смогли интегрироваться в российский социум.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огромную роль, по нашему мнению, играет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олит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этнической общности в совокупности с формированием самосознания 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знания. В полит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важной компонентой выступает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и политическое самосознание. Все это приобретает особую значимость в условиях политизации общества, вовлечения граждан в сферу политической жизни, формирования политической идентификации. Они-то и позволяют в комплексе воспринимать задачи, выдвигаемые жизнью перед обществом. А это воспитанное в семье взаимоуважение,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е, законопослушание, трудолюбие, уважение старших со стороны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образование,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своей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е, актив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позиция. Корейцы умеют трудиться!

Эти моральные устои составляют прочную основу для становления личности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 в России, их идентификации. Можно полагать, что только благодаря высокому уровню полит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нформированности общества, 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литы этнической общности, возможны выработка и принятие адекватных требованиям времени выводов и решений.

В конце 1980-х -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1990-х годов этот вопрос вновь ставился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т.е. он претерпел своеобразную реверберацию. Проблема автономии корейцев все чаще обсуждается на политических форумах в этот бурный период

развития государства. Итоги были обобщены на проведенном в начале февраля 1990 г.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м центром Московского горкома партии и МК КПСС заседании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дискуссии выступали правление Ассоциац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г. Москвы. В ее работ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большинства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Казахской, Киргизской, Таджикской, Узбекской, Украинской ССР и РСФСР (представители гг. Находка, Хабаровск, Томск, Красноярск, Омск, Челябинск, Нальчик, Пятигорск, Ленинград и Москва). Заседание Всесоюзного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проходило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езидента Ассоциац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г. Москвы, доктор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фессора М.Н. Пака. Дискуссия проходил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основными положениями «Платформы КПСС о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партии в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овиях», принятой на сентябрьском (1989 г.) Пленуме ЦК КПСС, и Декларации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от 14 ноября 1989 г.,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поиск путей выхода из кризиса в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ях.

В числе участников были руководители 19 региональны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и ассоциаций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Итоговый документ отражал мысли и чаяния широкого круга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оюза ССР. В качестве приоритетной задачи определялась выработка на основе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и конструктивного обсуждения общей позиции по решению актуальных пробле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возрождения: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языка, культуры,

традиций, обычаев и т.д.

Было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изнано, что осуществляемая в стране перестройка дает советским корейцам исторический шанс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своих погрязших прав в годы культа личности. Дело в том, что этническая общность была лишена ряда основных, гражданских прав.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почти полностью потеряли имущество, территориальную компактность проживания, созданную за долгие годы материальную базу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подвергалась мучительным нравственным и физическим страданиям. Безусловно, такие карательные меры не могли не повлечь столь трагических последствий эт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трагедии.

В дополнение к этому корейцы перетерпели почти полную утрату родн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языка - фундаментальной основы существования и сохранения любой этнической общности. Молодое и среднее поко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подавляющем большинстве не владели и не владеют национальным языком даже на элементарном уровне бытовой речи. Чрезмерная рассеянность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о Союзу крайне затрудняла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 сохранения и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Корейцам пришлось преодолевать и очередное отчуждение о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языка, потери национальной психологии и памяти. Причиной этому явилось принятие в местах их компакт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 в Узбекской ССР и Казахской ССР - законов, провозглашавших язык коренного насе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знание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необходимым условием для любо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становилось очевидным, что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чтобы прокормиться и выжить, должны были наряду с русским усвоить еще языки тех национальных республик,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торых они проживают. Решение этой задачи многим становилось не под силу.

Национальная элита в качестве первостепенной задачи на очередной период определяла образован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автономии (равной автономной ССР), где прежде жили и трудились предки нынешних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вместе с русскими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ли с оружием в руках в борьбе за установление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в 1918-1922 годах.

Какие же приоритеты виделись советским корейцам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националь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режде всего это позволило бы:

- естественным, образом сформировать и реализовать, программу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го возрождения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сохран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их культурных и духовных традиций;

- получить регион с высокоразвитым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способный решить свою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в частности, снять острый дефицит в стране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й растительный белок-сою, являющуюся одной из традиционных культур корейских крестьян;

- внести свой ощутимый вклад в 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а

и в формирование важной зон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о странам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образца XXI века.¹⁸⁾

Во избежание возможных столкновений интересов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и будущ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участники «круглого стола» считали, что под корейскую националь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ую автономию можно было бы предоставить пустующие и малозаселенные земли края.

Однако следует признать, что заседанием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преследовалась и другая цель, а именно определиться, в каком ракурсе должно приниматься решение о формировании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автоном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тот период этот вопрос не сходил с повестки дня.

Отчетливо проявились противоположные мнения. Отдельные участники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группа «московских корейцев») считали преждевременной постановку вопроса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оздания ко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ии. В целях реализации этой меры считали целесообразным подготовить исходные материалы (на случай,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запросов) по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ому (СП) и технико-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обоснованию (ТЭО) проекта создания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автоном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в качестве важного аргумента выступа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тщательного анализа положения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изучения их готовности выехать из обжитых

¹⁸⁾ РГАНИ. Ф. 5, оп. 103, д. 972, л. 94 - 98. Подлинник.

мест, равно, как и исследование состояния социально-психологического климата населения потенциальной территории, где намечалось созда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автономии, налаживание деловых контактов с ним, например, в форме создания обществ дружбы между корейскими ассоциациями и население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районов с установлением сфер взаимных интересов.

В связи с этим оставалось значимым определить основные составляющие (параметры)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территории «будущей автономии»,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возрождения корейцев на ближайшие 20 - 25 лет. Кстати, необходимо отметить, что к этому времени был уже накоплен опыт предпринимавшихся попыток советскими немцами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автономии немцев Поволжья, что, как известно, завершилось не совсем удачно и эти акции завершились с определенными негативными последствиями.

Что касается возро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то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поддержать процесс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буждения, возродить родной язык, которым в это время не владели свободно более 3/4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амобытную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традиции.

Была рассмотрена и перспектива развития этнической общности по пути мира и демократии. В качестве одной из важнейш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задач на ближайшее будущее определялось развитие и укрепление районных, областных, региональных, а в будущем и общесоюзных институ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 корейских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х ассоциаций, центров культуры,

широкое развертывание их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воспитанию советского патриотизма, этнокультурному возрождению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¹⁹⁾

Требовалось дать обществу ответ на вопрос о возможности решения этих насущных проблем, живя совместно с другими - или же настаивать на формировании ко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и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было важным, какую позицию будет занимать и корейский истеблишмент - Всесоюзная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Конечно, она могла формировать идеологическую составляющую этих процессов, определить механизмы. Однако последняя, будучи чисто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не в состоянии была удовлетворить национальные чаяния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Реальные сдвиги в этом деле можно было достигнуть только на основе разработки и принятия развернут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Записка члена ЦК КПСС, подготовленная 30 ноября 1990 г. членом Комиссии по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м отношениям Цоя В.В. и Народным депутатом СССР, членом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Кимом Ен Уном «О проблеме не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автоном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документе констатировалось, «часть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все настойчивее требует создания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ии за счет переселения в места их традиционного обитан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до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сталинской депортации в 1937-1938 годов». ²⁰⁾ Предлагалось разработать от имени КПСС в порядке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инициативы проект закон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¹⁹⁾ РГАНИ, ф. 5, оп. 103, д. 972, л. 94 - 98. Подлинник.

²⁰⁾ РГАНИ, ф. 5, оп. 103, д. 972, л. 88-89.

СССР о не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автоном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других народов СССР, не имеющих сво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с внесение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дополнений в ныне действующую Конституцию СССР.

Возникла проблема чисто практического свойства - проблема этнических меньшинств, не имеющих сво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Следует заметить, что данный вопрос очень редко ставился в практической работе и партийных, и советски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Но в создавшихся новых условиях в стране в конце 1980-х годов, отличающихся повышенной активностью этнической мобильности, это явилось и своеобразной отдушиной для ЦК КПСС решить более безболезненно проблему с очередной автономией. А такие пожелания был не только у корейцев (курды, черкесы, лезгины, ногайцы и др.).

Рекомендовалось целесообразным обсудить нетерриториальную автономию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Комиссии ЦК КПСС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КПСС. С этой целью сформировать группу из числа ученых-юристов, включить в ее состав и авторов записки - В.В. Цоя и Ким Ен Уна.

Однако по мере дальнейшей демократизации общества в новом формате России, повышения роли институ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уровня этнической мобильности, возможности прогнозирования развития процессов в отказе от этой проблемы большую роль сыграла новая генерация корейской российской интеллигенции.

Дело в том, что лидерами возникших в 1990-е годы корейских институ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е

автономии,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центры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ассоциации и землячества) было заявлено, что корейцами взят курс не на создание автономии.

Приоритетной объявлялась задача актив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органа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в решении своих проблем, удовлетворении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интересов каждого гражданина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в России. Здесь сыграли заметную роль так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лидеры как Ким Ен Ун, В. Чен, В.И. Цо, М.Н. Пак, В.Ф. Ли, С. Ким и др. Эта позиция была воспринята, и получила поддержку со стороны органов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и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Хотя возможно, среди населения были другие настроения. Нельзя было не заметить массов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за переселение в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и создание ко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ии. Эта идея была поддержана и участниками съезда Всесоюзной Ассоциац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ВАСК). Лидеры ее высказывали открыто намерение расселить в Приморье около 200 тыс. лиц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уже в 1991 году.²¹⁾

Подобные заявления, естественно, не могли не привлечь внимание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да и самих лидеров россий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Одновременно появлялись и заявления о недовольстве со стороны населения Приморья столь жестким напором корейцев. Население требовало более трезвого отношения к проблеме, взвешенных действий и прежде всего

²¹⁾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РГАНИ). Ф. 5, оп. 103, д. 972, л. 90-91. Копия.

изучения самого вопроса.

Однозначно, необходимы были безотлагательные меры, противодействующие массовому и организованному переселению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уже охваченных идеей создания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национальной автономии. Поэтому с учетом всех негативных сторон процесса на новом этапе, несомненно, становился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вариант с учетом зарубежного опыта - создание внутри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ассоци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и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руководящей структурой в г. Москве. Высказывалось мнение, что подобная Ассоциация могла бы быть законодательно встроена в систем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жизни страны и наделен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правами.

Практические предложения, призванные упредить развитие нежелательных тенденций сред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сохранить и упрочить их друж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 другими, в особенности, с коренными этническими общностями различных регионов СССР сводились к следующему:

«1. Созда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комиссию по изучению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проблем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решения вопроса о формировании не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автоном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остав данной Комиссии желательно включение полномоч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зличных ведомств и регионов).

2. Считать целесообразным наделить нетерриториальную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ую автономию необходимыми прерогативами по ча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в органах власти и управления в центре

и на местах, решения вопросов, связанных с возрождением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образования на родном языке, подготовкой кадров, развитием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изд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внешними контактами с корейско-язычным населением и т.д.

3. Разработать в порядке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инициативы от имени КПСС проект Закон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о не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автоном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других народов СССР, не имеющих сво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с внесение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дополнений в ныне действующую Конституцию СССР». ²²⁾

Предложения были изучены в отделе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ЦК КПСС секретарю, а выводы доложены 21 декабря 1990 г. в ЦК КПСС секретарю А.Н. Гиренко. Отдел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В.А. Михайлов) считал целесообразным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обсудить вопрос не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автоном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Комиссии ЦК КПСС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КПСС». С этой целью предлагалось также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вопроса создать рабочую группу из числа ученых-юристов с включением в состав этой группы тт. В.В. Цоя и Ким Ен Уна». ²³⁾

Тем не менее в Рабочей записке «О фактах активизации движения по переселению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²⁴⁾ (декабрь 1990 г.) отдел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ЦК КПСС

²²⁾ РГАНИ, Ф. 5, оп. 103, д. 972, л. 88-89. Подлинник.

²³⁾ Там же. Л. 87. Подлинник.

²⁴⁾ Была подготовлена как один из вариантов для предложений ЦК КПСС

обратил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 вопрос о стремлении корейцев создать автономию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с населением в 200 тыс. человек.. При этом отмечалось, что «усиливается интерес к реализации этой идеи и со сторон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Увеличилось число 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выезжающих в Южную Корею.

И далее в заключении были изложено мнение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Полагаем, что созда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автономии может вызвать процессы, связанные с борьбой за сферы влияния не только между КНДР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но и закрепит интересы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Японии и КНР.

В сложившейся ситуации следует, на наш взгляд, принять безотлагательные меры, противодействующие массовому и организованному переселению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с целью создания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национальной автономии».²⁵⁾

Одним словом, позиция отдела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по вопросу ко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ии была изложена четкой. Однако проблема не оставалась без внимания, о чем констатировалось: «Опираясь на положения Платформы КПСС «Национ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партии в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овиях» и зарубежный опыт, можно было бы создать внетерриториальную ассоциацию,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ую автономию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руководящей структурой в г. Москве. Ассоциация могла бы быть законодательно включена в систем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жизни страны и наделена

по записке Цоя В.В. и Кима Е.У.

²⁵⁾ РГАНИ. Ф. 5, оп. 103, д. 972, л. 87.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правами».²⁶⁾

Отдел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ЦК КПСС, чтобы перевести эти предложения в практическую плоскость, выступил с предложением созвать в ИМЭЛе при ЦК КПСС первую Всесоюзную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ую конференцию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²⁷⁾ Предложение было изложено в записке отдела от 1 марта 1991 г. Ставилась цель выработать конструктивные научно обоснован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по решению вопросов, поднимаемых совет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всячески содействовать консолидации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более полному использованию возможностей, предоставляемых Законом СССР «О свободном национальном развитии граждан СССР, проживающих за пределами своих национально-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или не имеющих 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ССР», в интересах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1 апреля 1993 г. было принято постановление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реабилит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 4721-1). **Акты, принятые начиная с 1937 г.,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послужившие основанием для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против них: насильственного выселения из мест прежнего прожива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становления режима спецпоселения, привлечения к принудительному**

²⁶⁾ РГАНИ. Ф. 5, оп. 103, д. 972, л. 90–91. Копия.

²⁷⁾ Аналогичные конференции до этого времени уже проводились по проблемам советских немцев, греков, курдов. С ИМЛ при ЦК КПСС (Китаев И.Н.) вопрос был согласован (См.: РГАНИ. Ф. 89, оп. 21, д. 65, л. 1. Подлинник.

труду в условиях ограничения свободы, и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прав и свобод, признавались незаконными.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е процессы, начало которым было положено принятием названного постановления, повышение политиче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вызвал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изучения такой дискуссионной проблемы ка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²⁸⁾ Это одна из страниц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а местах.

Большая концентрация населения, принадлежащего к одной из этнических общностей, сразу же вызывает к жизни проблему эффек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Очевидно, не случайно время от времени в пресс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спыхивала дискуссия о возможности в перспективе создания Ко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ии. На этих чувствах не прочь снова поиграть и некоторые политики. В ряде случаев статьи по этой теме носили и чисто провокационный характер.²⁹⁾

После исторических референдумов, на которых решались вопросы о создании Пермского края и укрупнении Красноярского

²⁸⁾ См. Бугай Н.Ф. О выселении корейцев с территор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 Отечественная история. № 6. М., 1992; Он же : Досье «Востока». Корейцы в СССР из истории вопроса о националь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 Восток. № 2. М., 1993; Насильственное перес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 Сейко («Синие горы»), № 15. Япония, Токио, 1993 (на япон. яз.); Выселение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 5. М., 1994; Депортация народов (конец 30-х - начало 40-х годов) // Россия в XX веке. М., 1994; Трагическое событие не должно повториться //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российского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М., 1994 и др.

²⁹⁾ http://www.vostokmedia.com/news_details.php?id=40216; <http://www.vostokmedia.com/forum/read.php?f=1&i=64786&t=64786>

края, Россия фактически оказалась на пути возвращения в старую систему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делений РСФСР. «Однако, с учетом сильной инертности региональных суверенитетов, - пишет исследователь Д. Данилов, - становится все очевиднее, что интеграционные процессы внутри России не могут идти на основе приоритетов эффектив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йонирования».³⁰⁾

Автор не преминул коснуться и судьбы несостоявшейся автоном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нечно, ссылаясь на имеющиеся место суждения по этой проблеме. В связи с этим он пишет: «Ситуация осложняется еще и тем, что в воздухе постоянно висит опасность созда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новых автономий (что отнюдь не запрещено Конституцией). Так,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 недалеком будущем может появиться Корейская автономия. Такое предложение озвучил недавно вице-губернатор края Юрий Попов».

Автором здесь же дается своя оценка происходящему. Он ее сводит к следующему. «При этом корейцы не скрывают своего желания со временем превратить арендованные земли в автономный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район со всеми вытекающими последствиями».

Вновь в основе подобных рассуждения выступают предложения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по созданию на приморской земл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комплексов, при реализации которог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бизнесмены хотят взять в аренду на 49 лет 850

³⁰⁾ Данилов Д. От укрупнения регионов к деэтнизации федерализма // <http://www.apn.ru/publications/print1384.htm> 5 мая 2005.

тыс. га близ озера Ханка³¹⁾ ...Порядок участия в проекте таков: земли российские, капита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рабочая сил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В проекте фигурируют 250 тыс. 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которых край готов принять, а это десятая часть населения Приморья. Такова содержательная часть всех этих мер.

Действительно, еще в апрельском номере газеты «Золотой рог» (2005 г.) этот вопрос рассматривался в статье «Загадка ко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ии».³²⁾ В ней шла речь о возможном создании в Приморь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й зоны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нвестиций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Материал, как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публикации, вызвал резонанс не только в Приморье, но 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Фонд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институт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авно вели консультации с российск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по данному вопросу.

На публикацию отреагировал известный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учёный историк и этнолог, тогда председатель Фонда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Ли Гван Гю. В редакцию газеты «Золотой Рог» он

³¹⁾ Речь, вероятно, идет о территории площадью в 2,1 млн. акров близ озера Ханка. Состоящая в основном из сенокосных угодий, лугов, пастбищ и рисовых полей, территория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1,38 млн. акров земли, владельцем которой являетс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ая фирма «Дэсун Чиллихвэ», управляемая одноименн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религиозной сектой. Компания купила этот участок земли 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и в 2000 году. Земля эта, по информации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богата нефтью, природным газом. (См. : <http://www.vostokmedia.com/forum/read.php?f=1&i=64786&t=64786> 13 марта 2005 г.).

³²⁾ См. Золотой Рог. 5 апреля 2005. № 25.

писал: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граничит с Корейским полуостровом, и этот российский регион имеет особые связи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 давние времена корейцы переселялись в Приморье, чтобы спастись от бедности и сформировать здесь антияпонское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е движение. В то время Россия благосклонно относилась к корейцам и они, получив защиту и поддержку, занимались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Когда в Приморье стали приезжать переселенцы из Средней Азии,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1990-е годы) предоставила им специальные деревни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Но, хотя у них была крыша над головой, дома не были благоустроены, и невозможно было создать в них нормальные для проживания условия. Поэтому было заявлено о возвращении деревен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рая.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есть не только рабочие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о и заняты бизнесмены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ведут бизнес в сфер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зяв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в долгосрочную аренду, на 49 лет.

В такой ситуации отдельные некомпетентные люди делают необоснованные выводы о создании ко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ии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и распространяют беспочвенные слухи об этом. Возможно, они считают, что таким образом можно привлечь внимание граждан Южной Кореи и улучшить свои дела путем активизации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йских инвесторов в Приморье.

Создание автономий в какой-либо стране не может быть предметом для дискуссий в другой стране. Аналогично, создание

Россией автономии для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Приморье не может обсуждатьс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Что касаетс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то вопрос о создании ко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ии в Приморье никогда не затрагивался, и никаких пожеланий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никогда не высказывалось. Частное лицо тем более не может делать каких-либо заявлений касательно создания автономии корейцев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Надеюсь, что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не воспримет всерьез беспочвенные слухи, не подкрепленные фактами. В дальнейшем хотелось бы избежать употребления слова «автономия» применительно к Приморскому краю». ³³⁾ Затем дискуссия получила продолжение в последующих публикациях газеты.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ой все же главный упор сделан на экономической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и проекта. Это могло бы содействовать использованию огромных массивов высвобожденных земель. Сбалансированный подход к проблеме (вахтовый метод применения рабочей силы, отсутствие обязательств по передаче земель в вечное пользование и т.д.) позволил бы иметь всем сторонам, участвующим в предлагаемом проекте, выгоду.

Эта тема связана с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тороной общества, ее рассматривал известный ученый авторитет, историк-кореевед Г.Н. Ким (Республика Казахстан). Он также аргументировано показал не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ь создания ко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ии. ³⁴⁾

³³⁾ Какая такая автономия... // Золотой Рог, 2005, № 34.

³⁴⁾ Ким Г.Н. Вечные странники или перманентная мобильность коре сарам пост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 http://siteistok.host.net/kg/bibl/Korean_2003/21_KimGN.htm

Следует заметить, что подобным образом относились к идее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ии и лидеры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ФНКА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и другие). Ими провозглашается и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отстаивается *позиция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с другими народами*,³⁵⁾ совместное освоение и приумнож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государства.

По нашему мнению, не следует ставить проблему формирования ко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ии в зависимость от формулы «нас много, давай автономию». Аналогичных ситуаци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предостаточно. Необходимо решать проблему эффек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хозяйственной жизнью государства, его экономикой, в конкретном случае аграрной отраслью хозяйствования в целом и регионов в отдельности,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го и эффектив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национальными процессами, что вызывает к жизни совершенно нов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технологии. «По моему мнению, - замечает исследователь А. Калачинский, - было бы роковой ошибкой делить российскую землю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национальные клочки».³⁶⁾

Заметным продвижением в изучении этой острой проблемы,

³⁵⁾ Цо В.И. Выступление на заседании «круглого стола» «Экстремизм - угроз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России, Позиции участников». Москва, 2 декабря 2005 г., С. 46, 15 февраля 2006 г.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В. Путиным был издан Указ о награждении за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укрепление дружбы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ций и народностей орденом Дружбы президента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ООК) Василия Ивановича Цо.

³⁶⁾ См. Калачинский А.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и хотели выделить в автономную область // <http://www/hroorg/fctions?nazi/7/html>.

выявлении её особенностей на следующем этапе развития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явилась состоявшаяс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учёных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и корейцы СНГ» 16-17 декабря 2005 года в Москве.

Привлекательной по свое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была и точка зрения, изложенная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известным российским ученым, профессором В.Ф. Ли по вопросу о формировании автоном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нынешних условиях, когда наблюдается процесс укрупнения территории в структуре Федерации, замечал В.Ф. Ли, вряд ли возможна даже постановка этого вопроса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Более того, по его заключению, необходимо обстоятельно учитывать принцип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и.

Кстати, подобную точку зрения разделяет и Ока Нацуко (Япония), занимавшаяся исследованием проблемы в рамках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Автор пишет: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существования СССР среди лидеров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были разговоры о возможности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даже создании там автономии. 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социальные условия в этом регионе не делают его особенно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³⁷⁾

Могут ли претендовать корейцы на какие-либо территории на

³⁷⁾ Ока Нацуко. Корейцы в современном Казахстане : стратегия выживания в роли этнического меньшинства // Диаспоры. 2001. № 2-3; Она же : Государство - этническое меньшинство - этническая родина этого меньшинства (русские, уйгуры и корейцы в постсоветском Казахстане) // Казахстан и России : общества и государства. М., 2004. С. 398.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если они расселялись в момент депортаци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иморского и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Читинской обл. и Ев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ной обл., а также с учетом того, что 50 тыс. из них проживает в нынешних условия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убъектов Юж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Одним словом, вопросов больше, чем ответов. Суждения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не должны быть категоричными, а базироваться на принципе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ст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рошлого со сложившимися реалиями.

В новой обстановке в России все более открыто ставится под сомнение легитимность сложившихс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актик и теорий и более того, появляются оценки признания их источником региональных конфликтов.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прежде всего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олит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также и обращение ее лидеров к актуальным проблемам развит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осуществления разумной и взаимовыгодной политики в регионах компакт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той или иной этнической общности с учетом наличия фактора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а.

Конечно,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требуется признать и отсутствие в российском сообществе национально-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деи на развитие страны, оформляющей видение перспектив этого развития всем обществом и каждой этнической общностью в отдельности. Фактически речь идет об идее, определяющей «траекторию» исторического и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в условиях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й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В числе других социальных факторов, не позволяющих воспринимать политику межэтн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ак более полную, отвечающую потребностям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можно назвать отсутствие учет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енталите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психологии при выстраивании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многое определяется в этом плане состоянием развития сектора экономики в государстве. Взаимосвязанность таких направлений как экономика, культура, воен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связанная с защитой государства, это постоянные атрибуты состояния общества. Их мож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только в единстве, это органичн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присуща и российскому государству, необходимо понимание этого положения всем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м сообществом.

Признано, что проводимые в России либеральные реформы, все, так или иначе, построены в рамках ценностно-нормативной западной либеральной парадигмы социального устройства и развития. Она с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вступает в противоречие с глубинной, присущей русскому народу и народам длительное время проживающих с ним, включая 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системой нравственных координат.

В связи с этим приобретает особое актуальность для государства такие приоритетные задачи четкое следование принятому документе - «Стратег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 (19 декабря 2012 г.),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и уточнение содержания основных нормати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определяющих характер организации и развития межэтн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нашему мнению, особую социально-значимую ценность в этом плане приобретает все чаще проявляемая и реализуемая, в том числе и россий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свобода гражданского самовыражения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переустройству государств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актуальных проблем миграции, политик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и др.), одним словом, важных сфер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и человека, сообщества в целом.

В условиях современности для Россий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как 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выступающих органич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предложенная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модель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и модерн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а может стать национально-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деей в решении задач периода глобализации. Необходима полно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что можно осуществить,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олько в свободном обществе (идентификация, свобода выбора профессии, изучение своего родного языка и языка этнического общения, занятость полезным трудом, свобода вероисповедания, удовлетворение других духовных запросов). Она позволяет акцентировать внимание на культурно-исторической основе общества: традиционных формах организации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инципах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политической и правовой сфер жизни данного общества, особенностя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енталитета 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Применительно этнических общностей нашего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включая 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овиях развит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ощущается потребность в строгом учет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енталите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психологии, о которые «разбиваются» эти модели.

Надо признать, и об этом все чаще констатируют ученые гуманитарн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что модернизационные процессы в России не удались. Страна находится в состоянии стагнации в силу сформировавшейся финансово-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и перспектив выхода из этой стагнации не видно.

Тем не менее диалектика состояния такова, что происходит творческое отрицание предшествующих этапов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с сохранением всего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накопленного идейного багажа - этического собор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религиозных конфессий, идеи сильного и социально справедлив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плюрализма форм собственности, свободы гражданского самовыражения и полноты национальной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Это также подчинено укреплению контактов и эффективных связей с друг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включая и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필자소개

홍응호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역사학 박사
러시아역사와 한러관계사, 고려인 역사를 연구중이다.

반병률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
미국 하와이대학교 박사
연해주 한인사, 한인독립운동을 연구중이다.

윤상원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
연해주지역 항일독립운동, 고려인의 역사를 연구중이다.

보이코

러시아 알타이 국립사범대학교 역사학부 교수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 동방학연구소 역사학 박사
국제관계 및 고려인의 역사를 연구중이다.

명 드미트리

카자흐스탄 알파라비명칭 국립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역사를 연구중이다.

한 발레리

우즈베키스탄 역사연구소 교수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철학 박사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을 연구중이다.

트로야코바

러시아 극동연방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 세계사연구소 역사학 박사
극동의 국제관계와 고려인을 연구중이다.

송 잔나

러시아 모스크바고등경제대학 한국학과 교수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 러시아역사연구소 역사학 박사
러시아 고려인의 역사를 연구중이다.

니콜라이 부가이

러시아 역사학연구소 교수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 러시아역사연구소 역사학 박사
카프카즈 소수민족과 고려인의 역사를 연구중이다.